경기도의 행정구역과 일제잔재

2020

열린사회연구소 / (사) 기전역사문화서포터즈

이 책은 2020년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도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1차)’에
열린사회연구소와 (사)기전역사문화서포터즈가 컨소시엄을 구성,
공모 · 선정되어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책머리에

이 책은 2020년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도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1차)'에 열린사회연구소와 (사)기전역사문화서포터즈가 공동으로 공모 · 선정되어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아 만들어졌다.

이 책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기도 행정구역의 형성과 변천'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도 행정지명의 정리, 분석, 고찰'이다. 전자는 1장~9장까지이고, 후자는 10장부터 16장까지이며 부록도 이에 해당된다.

이 단행본은 순수 학술목적으로만 집필되지 않았다. 경기지명총론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지만, 경기도 지명 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펼치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주요 간행 목적으로 삼았다.

아울러 현재 왜곡된 행정지명을 교정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가적 견해를 제시하여(1장 총설) 행정당국이 어떤 행정지명을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지 기본 방침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집필하였다.(16장 '경기지명 바로알기와 바로잡기')

이 책은 기존의 경기도의 행정지명을 종합적으로 정리 · 분석 · 평가하였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 최초의 '경기지명총람'이라 할 수 있다. 또 1914년 일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경기도 행정구역의 변천과 여러 가지 모습을 시군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까지 살펴보았다.

이 책은 경기도의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장과 논지를 경기도 지명 자료에 근거하여 펼쳐나갔다. 크게 볼 때 '경기지명으로 본 우리나라의 행정구역과 행정지명 연구'이다.

이 책의 집필 목적이 '경기도 지명 속 일제잔재'인 바, 일제강점기 지명 왜곡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고, 어떤 문제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에서는 찾아보기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세부 목차를 두어 색인을 대신했다.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 관련 내용은 세부목차에 가나나 순(가평~화성)으로 정리하여 해당 시군을 주제별로 찾기 편하도록 했다. 이 세부목차는 책 말미에 배치했다.

이 책은 12명의 필자가 저술한 16편의 글을 모은 학술연구집이다. 기획단계부터 구체적인 집필지침이 없이, 필자가 자기 주제에 맞게 자신의 글쓰기 스타일대로 저술토록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이나 형식이 균질하지 못한 편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읽어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이 책을 계기로 일제에 의하여 왜곡 · 오염 · 굴절되고, 도로명주소로 말살 위기에 처한 우리말 땅이름이 올바르게 평가받고 문화자원으로 대접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성태(기획, 총괄, 학술편집)

목차

책머리에 ····· Ⅳ

목차 ····· Ⅶ

총설 : 경기행정지명 속 일제잔재와 청산방안 ····· 3

1914년 일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그 문제점 ····· 25

조선총독부의 지방제도 개편 논리 ····· 53

개항 후 경기도 행정구역의 통폐합과정 ····· 93

일제강점 초기 경기도 면(面) 지명의 변천 유형 ····· 157

수원권역 행정구역 변천 과정 ····· 211

시흥권역의 행정구역 조정과 통폐합과정 ····· 279

보도자료로 본 경기도 행정구역 조정과 사회적 이슈 ····· 303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통시적 고찰 ····· 327

일제강점기 상처난 경기도 행정지명 ····· 351

역사성을 내포한 경기도의 지명 ····· 441

어원으로 경기도 행정지명의 본뜻 밝히기 ····· 487

경기도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 507

금석문에 반영된 경기도 지명 ····· 579

굴절된 경기도 땅이름 ····· 635

경기 지명 바로알기와 바로잡기 ····· 655

부록 : 경기도 행정지명의 순우리말 땅이름 ····· 689

세부목차 ····· 709

총설 : 경기행정지명 속 일제잔재와 청산방안

총설 : 경기행정지명 속 일제잔재와 청산방안

김성태(경기문화재단 수석연구원)

이 책은 경기도의 지명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서이다. 기존의 지명관련 책들이 자료의 조사와 수집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본서는 그런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전문학자들이 정리, 분석, 고찰한 결과물이다.

본장은 이런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론이자 요약이다. 여기서는 본서의 중심주제인 일제강점기 지명 왜곡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고, 어떤 문제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언급했다. 또한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명연구가 필요한 이유와 앞으로 어떤 방식을 추진하면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도 행정지명과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우리말 땅이름 중심으로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 필자 나름의 소견을 밝혔다.

경기도 행정지명과 도로명주소의 개선 방안

이 책은 경기도 정책을 염두에 두고 기획, 집필되었다.

이 단행본은 순수 학술목적으로만 집필되지 않았다. 경기지명총론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지만, 경기도 지명 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펼치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주요 간행 목적으로 삼았다. 또 현재 왜곡된 행정지명을 교정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적 견해를 제시하여(1장인 본장) 행정당국이 어떤 행정지명을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지 기본 방침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집필하였다(마지막 장 '경기지명 바로알기와 바로잡기').

참고로 이 책은 일러두기에서도 밝혔지만 경기도의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산업'

에 응모, 선정됨으로써 집필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최대한 공모의 취지에 맞추어 주제를 설정하고 집필자를 선정하였다. 다만 현재까지 경기지명에 대한 연구서가 전무하기에 '경기지명총론'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명 관련 모든 정보를 담고자 노력하였다.

지금의 행정지명은 지극히 공급자 중심이다. 도민 중심으로 가야 한다.

현행의 행정지명은 지극히 공급자 중심이다. 사용자이자 수요자인 언중(言衆,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대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의 행정지명은 거의 한자지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한자지명은 한자가 병기되지 않은 채 한글발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니 행정지명이 지닌 의미와 역사성이 완전히 증발해 버렸다. 단순한 기호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기호보다 더 못하다. 사실 기호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우리의 지명은 그러하지 못하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군포시 산본을 예로 들어보자. 독음 '산본' 자체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자 '山本'을 병기해도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언중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산본〔산밑〕이라 해야 그 지명이 지닌 뜻을 누구나 잘 알 수 있다.

언어의 핵심 기능은 뜻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행정지명은 그 본질적 기능이 매우 축소, 왜곡되었다. 뜻 전달이라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중이 그 의미를 모르는 지명을 국가와 지자체가 무책임에게 배포하고, 언중은 지명 속에 담긴 의미도 모른 채 사용하고 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며 공급자 중심인가?

이렇듯 우리의 행정지명은 사용자인 대중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전혀 없다. 아니 안중에도 없다고 해야 정확하다. 더 나아가 그런 잘못의 근원이 1914년 일제가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우리의 지방행정구역을 단 1년만에 조급하게 개편하고, 그와 동시에 시군의 행정지명을 졸속으로 작명한 데에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야 우리말을 모르니 지명은 단순한 기호이면 되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 '산본'으로 독음만 하면 되었지, 일본인의 입장에서 발음도 안 되고 그 깊은 뜻도 모르는 '산밑마을'로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지민은 다르다. 한자로 山本이라 적어 두면 그것을 읽을 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한자를 안다고 해도 해독이 쉽지 않다. 그냥 그들이 늘 사용하듯이 '산밑마을' 또는 '산밑동네'라 했다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치자 중심에서 피통치자 중심

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모든 행정정책이 시민 중심, 도민 우선으로 변모하였다. 행정편의적 사고가 타파되고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사그라지고 있다. 이런 판국에 행정지명은 지극히 공급자 중심이고 일방적이다. 100여 년전 일제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지명에 우리말 땅이름을 병기하자.

그럼 언중을 배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명 관련 행정서비스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해답은 우리말 땅이름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산본을 '산밑'으로 전면 변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밑마을로 병기하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칭과 별칭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光州(광주)를 '빛고을 광주'로 부르듯이 말이다. 산본역의 알림판에 '산본[山本, 산밑]'과 같은 방식으로 병기해 두면, '아 수리산 아랫동네이기에 산밑이라 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행정동·법정동의 이름은 우리말 땅이름을 한역한 것이다. 이런 한역은 삼국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강화되었지만,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고유명사는 한문으로 적더라도 口傳(구전) 즉 訓讀(훈독)으로 읽었다. 그런데 우리말을 모르는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서 우리의 지명을 음독만 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지명에 대하여 거의 모든 지명을 훈독 즉 뜻으로 읽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런 한역의 고착화는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행정지명을 훈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예컨대 화성의 병점동을 한자로는 '餠店(병점)'으로 표기하고 우리말로는 '떡점' 또는 '떡전거리' 등으로 불렀다. 조선시대 삼남대로가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떡을 파는 떡장수가 많아 '떡가게'가 많았던 것이 지명의 유래이다.(인용 : 본서 15장 '굴절된 경기도의 땅이름')

이곳 병점은 일반인들에게는 '병점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병점역을 이용하거나 병점역을 지나는 사람 들 중에서 어느 누구가 '병점'이란 역명 속에 '떡점'을 떠올릴 수 있을까? 중년 이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리라 예상된다. 신세대에게는 '병점'이란 지명은 그냥 기호일 뿐이다. 설령 한자지명인 '餠店'을 표기해 둔들 그 어려운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명이 '記號(기호)가 아니라 意味(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지명에 우리말 땅이름을 병기할 것을 권한다. 한자권 문화 방문객을 위하여 한자병기도 함께 하면 더

욱 좋을 듯하다. 병점(떡전거리, 餠店). 그리고 선택은 수요자에게 맡기자. 그들이 발음하기 편하고 흥미로운 지명을 택할 것이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색다르면 흥미를 보이기에, 그들이 우리말 땅이름을 더 선호할 지도 모른다.

행정지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흥 거모동을 예로 들자면 '거모동(거무개, 去毛洞)'으로 한자지명의 음독, 우리말 땅이름, 한자표기를 하고, 주민센터나 요충지에 자기 동네의 지명 유래를 홍보해 나간다면, 우리말 땅이름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말 땅이름이 소생한다면, 지명에 내포된 마을의 역사와 문화도 되살아 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면 지명이 '깜깜이 기호'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내포한 '참다운 지칭'이 될 것이라 본다.

의지만 있다면 행정지명에서의 우리말 소생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본다. 공식적, 행정적 지명은 어쩔 수 없이 현행의 한자 지명을 사용한다고 해도, 언중을 위하여 의미가 통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부각할 수 있으며, 발음도 정겹고 편안한 순우리말 땅이름을 널리 보급하겠다는 행정당국의 관심과 실천만 있다면, 돌파구는 여럿 있으리라 생각된다.

도로명주소가 우리 고유지명을 말살하고 있다.

2013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사용되면서 4만여 개의 '동리'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동리 지명'이 곧 고유지명의 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런 지명의 멸실은 단순한 마을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의 전통성과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들은 1914년 일제가 강행한 지방행정구역으로, 왜곡 작명된 행정지명이 근 100년 이상 바로 잡히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교정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만큼 한번 확정된 행정지명은 쉽게 바로 잡기가 쉽지 않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 일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도로명주소'에서 불합리한 요소, 잘못된 부분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어 시간이 더 경과되어 왜곡이 고착되기 전에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다음의 글은 도로명주소가 우리말 땅이름을 얼마나 말살시켰는지를 잘 보여주기에 소개해 둔다.

> 어느 날 내방역 주변 지도에 눈이 꽂히게 되었다. 거기에는 앞벌, 뒷벌, 새말, 도구머리, 뱅도래미, 가물고개, 장아뜰 등 질박한 우리말 이름들이 가득 박혀 있었던 것이다. 처음 보면서도 아주 오래 전부터 보아 온 듯이 친숙하고 정겹게 느껴지는 이름들이었다. (중략)

그러다가 어느 날 지하철을 다시 코앞에서 놓치고 지도 앞에 섰을 때 세상은 천지개벽한 듯 달라져 있었다. 지도는 휑하니 비어 있고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있었다. 역을 중심으로 동심원이 그려져 있고 자로 잰 듯이 가로 세로로 선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러고는 그 위에 방배로, 방배중앙로, 서초대로 등 큰길 이름이 적히고, 사방으로 교차하는 골목길은 서초대로 19길, 방배로 23길 등 숫자를 달고 박혀 있었다. 눈 씻고 찾아보아도 지표가 될 만한 어떤 지형지물의 이름은 사라지고 없었다. 인근 지역을 머릿속에 훤히 그리고 있던 나조차도 그 숫자만으로는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그때 내가 받은 충격은 가슴이 텅 비어지는 상실감 같은 것이었다. 앞벌이니 뒷벌이니 하던 땅이름들도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는 오래전에 잊힌 이름들이다. 그렇거니 지도에 화석처럼이라도 남아 있던 것을 위안으로 삼았는데, 이젠 그것마저 지워버리고 숫자판을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이른바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꾼다고 할 때도 그냥 도로 중심으로 주소를 재편하는 정도로만 알았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깨알같이 박혀 있던 작은 이름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었다.(윤재철, 『우리말 땅이름 2』15~17쪽, 도서출판 b, 2020)

동리(洞里)의 지명은 길 하나 건너면 별도의 이름이 붙여지고, 개울 지나면 다른 이름의 마을이 나오며, 같은 산줄기나 강줄기에서도 그 위치에 따라 이름을 달리한다. 건너말 · 내앞[川前里] · 웃뱃터 따위가 그러하다. 이렇듯 지명은 개별 마을이 지니는 고유성(characteristic)이자 정체성(identity)이 된다. 그런데 이런 우리말 땅이름들을 현행 도로명주소는 충분히 계승하지 못하거나 아예 무시 · 멸실해 버렸다. 위의 인용문의 저자 윤재철은 이를 매우 개탄해 하고 있다.[1)]

고유지명으로 도로명주소의 보정을 차근차근해 나가자.

위와 관련하여 현행 '도로명주소'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한다면, 도로명주소에 우리말 땅이름[고유지명]을 최대한 많이 채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현행 도로명주소를 훑어보면 푸른솔로, 달맞이길, 달빛길, 청송로 등과 같이 지역성과 무관한 도로명이 쉽지 않게 확인된다. 그에 비하여 의왕시의 사례처럼 원터아랫길, 원터윗길, 독정이길, 옥박골서길, 옥박골동길, 상직말길, 한직골길, 한직골서길, 벌모루길 등과 같이 아주 오랫동안 지역민이 불러온 우리말 땅이름으로 채운 모범적인 사례도 확인된다.

현행 도로명주소의 작명은 다양한 전문가그룹의 참여와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

1) 이 소절의 인용문과 그 아래의 설명은 본서의 15장 '굴절된 경기도의 땅이름'에서 옮겨왔다.

서, 또 충분한 지명 관련 자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소홀히 한 채 추진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에 도로명주소 시행 근 10년이 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전문가그룹을 조직하여 지역성과 동떨어진 '무연고 도로명지명'을 차근차근 보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 개선 방안은 바로 앞 단락에서 소개한 의왕시의 사례처럼, 우리말 땅이름을 최대할 소생시키면 되겠다. 시군별로 자신의 고장에 대한 지명조사가 이미 잘 이루어져 있기에, 지명변경의 근거자료를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듯하다. 행정당국의 관심, 의지, 그리고 노력의 문제인 듯하다.

일제가 자행한 우리말 땅이름의 왜곡과 말살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은 역사성을 무시한 처사였다.

일제가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시 군과 면의 규모가 다양하고 호구수에서도 차이가 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군 면적의 경우 최대 503평방리로부터 최소 3평방리로 구성되어 있었고, 인구 또한 많은 군은 2만 8천 호인데 비해 작은 군은 1천 8백호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읍명과 동리에 있어서도 그 면적 · 인구 · 재정면에서 격차가 극심하였고, 규모가 너무 작아 기관을 설치하여 단위행정구역으로 운영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은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조치였고, 그 목적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그러나 이 책의 중심주제인 행정지명과 관련해서는 전혀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냥 기계적으로 통합대상의 마을지명에서 한 글자씩을 따와서 족보도 없는 합성지명을 최소 530 이상을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통폐합 시 두 개의 통합대상 마을의 친연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통합하기도 했다. 통합주민들의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호구총수』의 행정구역을 기초하여 통폐합이 이루어졌어야 마땅했다. 왜냐하면 『호구총수』에서의 동리는 동질성과 연대감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한 공동체였고, 수적으로 1914년 행정구편 개편으로 만들어진 동리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이런 행정구역 통폐합의 폐단은 당시 경기도 양주군청 소속 일본인 관리 기카도예 요시히로(北留良弘)의 다음의 글에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 일본의 정촌 구역은 토지·민정 등을 고려하여 인민의 대표자가 모여 의견을 잘 교환한 뒤에 만들었기 때문에 꽤 잘 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인민의 의향 따위는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관리들이 마음대로 책상에서 경계선을 그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낳았다. 대개는 하천을 경계로 삼았고, 산악이나 교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면의 중앙에 산봉우리가 있거나 산 정상을 중심으로 마을이 분리되기도 하였다. 또 이런 방식의 경계 획정은 교통 문제를 고려할 수 없어 지역민 간의 교통도 매우 불편하게 되었다[2]. (『조선지방행정』15-3, 35~41쪽)

일제가 1년만에 급조한 지방행정구역 개편, 해방 후 그대로 존속

일제강점기 지방행정구역 개편 방침은 1913년 1월 각도 내무부장회의에서 총독의 지시로 추진되었다. 이때 府(부), 郡(군), 面(면), 里(리)의 행정구역 통폐합이 일시에 진행되어 1914년 3월에 실질적으로 종료된다. 이 때 행정구역의 개편과 함께 통폐합된 행정구역의 명칭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단 1년만에 우리나라 전역의 행정구역이 지방행정구역의 최상급인 도 단위부터 최하급인 동리 단위까지 새롭게 개편되고, 통폐합된 부군면리의 행정지명이 작명되었다. 민의를 반영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최적의 작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은 당연했다. 그리고 이렇게 졸속으로 개편 작업이 이루어졌으니, 행정지명은 졸작이 되었고,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추진되었으니 고유지명의 손상·왜곡·굴절이 자행되었다.

이런 급조는 일제의 메이지 시대 지방행정구역 개편과는 대조를 이룬다. 물론 일본의 개편 역시 큰 테두리 안에서는 비민주적이기는 했지만, 한국의 지방행정개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1890년대 일본 역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는데, 군제도와 시제도의 전제가 되는 부현제도의 경우, 주요 부현의 개편은 개편 대상 지역의 반발과 대립으로 무려 10년 동안 시행이 어려웠다. 또 새롭게 형성된 町村(정촌) 내에서 옛 정촌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여 이를 조정하는 데에 애를 먹었다.

그런데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단 1년 만에 마무리했다. 당시 신문기사에는 그 개편 기간 동안, 개편 대상 군·면·리 사이의 갈등에 관한 기사가 별로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총독부가 그들의 예에 비추어 갈등과 대립을 우려했는데, 반발과 저항이 없었던 데에 의아해 할 정도였다[3]. 이는 1906년 당시 대한제국이 13도는 존속

2) 36개군이 20개로 줄고, 487면을 250면으로 감축했기에, 주민들이 겪은 첫 번째 불편은 행정민원에 따른 상대적으로 늘어난 장거리 이동이었다.

3) 당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확인된다. "일반의 제도 정리상 원래 피치 못할 조치에 속하나 각 지방의 연혁, 관습 또는 감정상으로부터 당분간 혹은 다소의 지오(支吾, 서로 어긋남)를 生할 우려가 불무(不無)이니… 각 도 다수의 부군면에 대하여 일제히 이 폐합을 기도함으로 다소의 분규를 미면(未

시키고, 342군 가운데 50개 군을 통폐합할 계획을 세웠을 때 거센 반대여론과 지방민들의 반발로 결국 대대적인 군 폐합 계획은 철회되었던 사실과는 매우 대조된다. 이런 대조는 일제강점기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강압적으로 강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일제가 민의를 무시하고, 우리의 땅이름을 말살하면서 만든 졸속작인 지방행정체제와 행정지명을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30년 우리 사회의 변혁과 개혁을 고려할 때, 또 일제잔재의 청산을 위하여 진보정권이 노력해 온 사실과 비교할 때, 다소 의외이다.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마을이름의 작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3음절 지명에 대한 강제가 있었지만, 31개 시군에서 반드시 그렇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당시 광주는 광지원, 압구정(현 서울), 곤지암 등의 4음절 지명을 그대로 유지했고, 또 船村(선촌), 栗里(율리) 2음절 지명에 다른 글자를 더하여 3음절로 만들지는 않았다. 이는 엄격한 표준지침에 따라 마을이름의 작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당시 합성지명이 포천 4곳, 수원 2곳, 고양 4곳에 불과한 반면에 안성에서는 62곳, 여주에서는 56곳, 용인에서는 43곳, 이천에서는 51곳 등 아주 많이 이루어진 점으로도 뒷받침된다.

비전문가에 의하여 순우리말 지명의 한역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순우리말 지명의 한역이 면서기 정도의 선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측해 왔다. 그리고 그 뚜렷한 증거를 얻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런데 『지명유래집』(경기도, 1987)의 670쪽을 보면 당시 작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그것은 포천 都坪里(도평리)에 대한 설명에서의 다음과 같은 이영배(남, 당시 71세)외 3인의 진술이다. “옛부터 허허 벌판에 복숭아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라 해서 ‘桃坪里(도평리)’라고 불리워졌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당시 이장 이 모씨가 도읍 都(도)로 신고함으로써 ‘都坪里(도평리)’로 계속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免)하리라 함은 당국자도 몰래 우려하던 바인데, 그 후의 보고를 징(徵)하건대 각 지방을 통하여 예상 외의 정온(靜穩)한 중에서 무사히 폐합을 종료하였음은 실로 흔쾌 불감(不堪)하는 바이라. 원래 군청 및 면사무소의 위치 등에 관하여는 극히 소수한 지방에서 다소의 고정(苦情)을 들었으나 이 또한 당국 관헌의 설유에 열복(悅服)하여 즉시 평온에 귀(歸)하고 그렇지 않은 자로 점차 평온에 귀함은 가장 기쁠 일이로다.

한다." 이 진술은 1912년『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桃坪里(도평리)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부합하지만,『호구총수』에는 都坪里(도평리)로 표기된 것과는 배치된다. 어쨌든 이 진술은 마을 이장이 자기마을을 한역하거나, 기존의 한자지명을 그대로 적거나 또는 변개하여 면에 신고함으로써 동리 단위의 행정지명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전문가에 의해 순우리말에 한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또 그 결과 그 마을에 가장 적합한 한자지명이 부여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된다.

졸속으로 한역이 이루어져, 誤譯(오역)이 속출했다.

이렇듯 비전문가에 의하여 우리말 땅이름이 한역되었으니, 誤譯(오역)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은 그런 일례로 당시 행정구역의 작명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 1) 우리게의 원 이름은 장자울이여. 장자(長者) 즉 큰 부자가 사는 동네란 말인겨. 큰 부자가 사는 동네 … 그 좋은 동네 이름을 일정 때 일본 사람덜이 측량허러 댕기면서 장자의 '자'를 지레기(길이)를 재는 '자'루 알구는 떡허니 자 척(尺) 짜루다가 틀리게 번역해버렸던겨. 그 뒤루 여적지 누구 하나 고치자는 사람두 없구 허닝께 그냥 장척리가 되구 말아버렸구. (이문구,『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
>
> 2) 원래 오목하다 해서 오목리였어. 양지리에서 보면 거기가 오목해. 학술조사 때나 일제 때 지명을 쓰려고 하니 한자에 오목하다는 글자가 없지. 그래서 오동나무 오(梧) 자에 나무 목(木)자를 썼는데 지금은 오리나무골이라고 불러. (강원대학교박물관,『철원군의 역사와 문화유적』)[4]

동리의 합칭은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한다.

高陽(고양)이란 지명도 고봉현과 덕양현의 합칭이다. 두 고을을 통합할 경우 합칭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용구와 처인의 합칭이 용인이고, 양근과 지평의 합칭이 양평이다. 이런 점에서 복수의 마을을 하나의 동리로 통합할 때 합칭을 애용했다고 하여, 이를 비판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군의 합칭은 기존 군현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용구와 처인, 양근과 지평이란 행정지명 그 자체에 그 고을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크게 녹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용구라는 지명

4) 이상은 이 책의 15장 '굴절된 경기도의 땅이름'에서 재인용했다.

자체, 처인이라는 지명 자체에 그곳의 역사적 실체가 내포되어 있지 않고 지역성이 녹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리의 합칭은 다르다. 왜냐하면 동리명에는 대부분 그 마을의 역사성·고유성·정체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지역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 속성, 標識物(표지물)을 작명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江梅洞(강매동)으로 합칭하기 이전의 江古山里(강고산리)와 梅花井里(매화정리)에는 마을의 정체성이 내포되어 있으나, 강매동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강가의 매화마을'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합성지명은 신중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1914년 행정구역을 통폐합할 때 동리의 통합은 행정효율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처사였다고 하자. 그런데 통합된 마을의 새로운 지명 즉 합성지명의 작명은 신중하게 이루어졌어야 했다. 원칙상 합성지명은 가능한 최소화해야 했다. 마을의 역사 자체인 고유지명의 순수성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또 최대한 중심마을의 이름을 계승했어야 했다. 조선후기 마을은 장자상속제가 고착화되면서 장손이 거주하는 本家(본가)마을과 차자들이 새롭게 떨어져 나가 정착한 分家(분가)마을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이들 마을과 달리 수공업제품을 생산하는 장인마을 등이 그 주변에 자리했다. 그러니 한 공동체 내의 마을들 사이에는 新舊(신구), 上下(상하)의 序次(서차)가 존재했으니, 합성지명의 작명 시 이 점을 고려했어야 했다. 또 마을의 지명도에 따라 우열을 따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마을의 지명을 통합동리의 지명으로 삼았어야 했다. 예컨대 용인 보정동은 옹기를 굽는 독정동과 역원과 주막이 있었던 보수원의 합칭이다. 이 경우 보정이라는 정체성 없는 새로운 지명보다는 지명도가 높은 보수원의 이름을 이어받아서 '보수원리'로 했으면 더 나을 뻔했다. 더하여 통합 마을에 자리한 랜드마크를 지명으로 삼아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시흥 군자동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구정리, 산북리를 합해 군자봉의 이름을 따서 君子里(군자리)로 이름지었다. 군자산은 조선의 단종이 안산시 목내동에 있는 어머니 顯德王后(현덕왕후)의 昭陵(소릉)으로 가는 길에 이 산을 보고 마치 연꽃처럼 생겨 군자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군자산이라 불렸다고 한다. 이런 구전설화가 전하는 군자산에서 통합 동리의 이름을 따온 것은 아주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을 이기주의가 작동하고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용하여 위와 같은 원칙을 고수해 나가기 힘들었으리라 추측되지만, 경기도에서 대략 1,300여 곳의 고유지명이 새로운 합성지명으로 사라져 버린 점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결국 무분별한 합성지명의 남발과 부적합한

작명으로 경기도의 고유지명 1,300여 개가 사라지거나 價値(가치) 축소된 셈이다.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3음절 지명에 집착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행정지명을 지으면서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3음절 지명에 집착했다. 그리고 그 결과 고유지명에서의 핵심요소 즉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후부요소〔山(산), 川(천), 浦(포), 洞(동), 谷(곡), 驛(역), 店(점), 峴(현)〕가 제거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가평의 사례로 들자면 彌沙里(미사리) ← 彌沙川里(미사천리), 福長里(복장리) ← 福長浦里(복장포리), 上色里(상색리) ← 上色峴里(상색현리), 上泉里(상천리) ← 上甘泉里(상감천리), 僧安里(승안리) ← 僧安山里(승안산리), 濟寧里(제녕리) ← 濟救寧里(제구녕리), 淸平里(청평리) ← 淸平川(청평천), 下色里(하색리) ← 下色峴里(하색현리), 下泉里(하천리) ← 下甘泉里(하감천리)가 그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를 생략지명으로 개념설정을 하였는데, 경기도에서의 이런 생략지명은 대략 62개소이다. 이런 생략은 지금의 제주 서귀포시를 '서귀시'로, 이천 장호원읍을 '장호읍'으로 改惡(개악)한 꼴인 바, 그야말로 고유지명을 심하게 왜곡시켰다고 단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모두는 원래의 지명대로 회복되었으면 한다.

마을을 뜻하는 다양한 후부요소가 많이 사라졌다.

우리말에서 마을을 뜻하는 말은 실로 다양했다. 『고유지명어 연구』(강병륜, 1997)에 정리된 것만 소개하면 -거리, -고개, -고지, -골(굴), -구레, -구미, -기, -께, -나들리, -날, -내, -나미, -너머, -논, -다리, -단, -담, -당, -덕, -들, -등, -둑, -마루, -말, -머리, -모롱이(모루), -목, -미, -밑, -바위, -방, -밭, -배기, -배미, -벌, -부리, -불, -벼랑, -샘, -실, -안, -여울, -이, -재, -절, -점, -정, -터, -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후부요소는 마을의 지형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또 마을을 뜻하는 토속어가 지역에 실로 다양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순우리말 후부요소들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대대적으로 생략 혹은 부적절하게 한역하여 버렸고, 또한 坪(평), 谷(곡), 項(항) 등과 같은 몇 가지 한자로 단순화시켜 버렸다. 그리고 그 결과 고유지명의 원형과 다양성이 훼손되어 오늘에 전하고 있다. 차라리 한역보다는 음차로 고유지명이 보존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현행 도로명주소에 이들 토속적이면서도 정감어린 우리말 땅이름들이 재조사와 재심의를 거쳐 많이 최대한 반영되었으면 한다.

지나치게 훈차와 훈음차로 고유지명의 순수성이 오염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순우리말 지명〔고유지명〕을 모두 한자지명으로 바꾸었다. 이는 전통시대부터 그렇게 해 온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에 잘잘못을 논할 꺼리는 아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훈차와 훈음차에 집착하여 순우리말 지명의 원형이 훼손되고 순수성이 오염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컨대 들판을 뜻하는 우리말은 벌, 부리, 불, 들, 다리 등 실로 다양한데, 이를 모두 한자 坪(평)으로 단일화해 버렸다. 오히려 『삼국사기』처럼 음차하여 夫里(부리), 伐(벌) 등으로 고유지명의 후부요소를 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한 것은 훈음차한 경우로 들판을 뜻하는 '다리'를 본뜻과 전혀 무관한 의미의 한자 '橋(교)' 또 '火(화)'로 바꾼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원뜻이 완전히 사라졌기에 순우리말 지형을 심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런 훈음차를 최소화해야 했는데, 당시 작명을 실시한 인물들이 이장이나 면서기 등 한학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행했기에 널리 사용하는 한자를 이용하여 이런 훈음차를 애용하였다. 차라리 고유지명을 제대로 한역할 자신이 없었다면 이두식으로 음차하여 표기했다면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이 짙다.

행정편의가 고유의 하천 지명을 말살했다.

포천 영평천은 남대천, 한내로 불렸다. 포천 관내의 포천천은 조선시대 高橋川(고교천) 또는 七里川(칠리천)으로, 명덕천은 六松亭川(육송정천)으로 불렸다. 안산천은 板川(판천)으로, 진위천은 長好川(장호천), 오산천은 오매천(烏梅川) 또는 불천(佛川)으로 지칭되었다. 한편 안양천은 구역에 따라 사근천(沙斤川), 사그내, 염천(鹽川), 군포천(軍浦川), 대천(大川), 오목내 등으로 각각 불렸다. 이처럼 경기도의 하천이름 중에는 고유지명이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라진 사례가 있다. 한편 임진강, 남한강, 북한강 등 대하천의 경우, 안양천에서와 마찬가지로 구간별로 강이름이 달랐다. 이들 지명을 고지도를 통하여 되살리는 방안도 고민했으면 한다.

한편 하천의 이름과 관련하여 '○○천'보다는 '○○내'로 명칭 변경할 것을 권한다. 40년 전까지 동두천을 '동두내'로, 춘천 공지천을 공지내로 불렸다. 바람직한 지명은 원래의 우리말을 찾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조선시대 및 일제강점기까지의 모든 문서에 한자지명을 쓰는 관행을 이제라도 고쳐나가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근래 새로운 시설로 들어서는 '水邊(수변)공원' '川邊(천변)도로' 따위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2세들이

'물가' '냇가'라는 말을 배우기 이전에 뜻도 모르는 한자말을 먼저 배우는 꼴이며,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한국말을 가르치기 전에 한자를 먼저 가르쳐야 한국어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난센스를 바로 잡아야 한다.[5)]

마을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여주의 名品里(명품리)는 2013년까지 下品里(하품리)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옛날 삼정승이 살아 '品室(품실)'로 불렸던 곳을 상품리와 하품리로 나누면서 아랫품실이라 하여 하품리라 명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 100년 동안 마을 주민들은 '하품나는 마을' 또는 '하품밖에 되지 않는 마을'이라는 놀림을 받았다. 또 지금의 일죽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죽이면, 죽삼면과 함께 죽일면이었다. 그래서 죽일면의 면장은 '죽일면장'(죽일 놈의 면장)으로 불리다가 1917년 일죽면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이 두 사례는 1914년 당시 행정지명의 작명이 현지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시행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30년대 수원과 안성의 시가지가 일본식 지명으로 개명되다.

일제는 1914년 12개의 부(府)를 지정하였고, 1917년에는 23개의 지정면(指定面)을 설정하였는데, 이때 기준으로는 일반적 지표인 해당 단위지역의 총인구수보다는 일본인 거주자의 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1931년에 지정면을 폐지되고, 모두 '읍(邑)'으로 개칭하였다. 이에 따라 1931년에 수원면에 소속되어 있던 각 리(里)는 수원읍으로 개칭되면서 일본식 지명인 정(町)과 정목(丁目)으로 개명하게 된다. 남창리(南倉里)가 남창정(南倉町), 남수리(南水里)이 남수정(南水町) 신풍리(新豊里)가 신풍정(新豊町) 등으로 바꾸어 완전히 왜식지명인 본정(本町)이 생겨나고 본정에 속한 도심지를 1~4 정목(丁目)으로 나누었다.

또 안성의 경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북리면·서리면·동리면 등을 합친 읍내면 지역을 1937년 읍으로 승격하고, 역시 기존의 각 里(리)를 일본식 지명으로 바꾸었다. 안성시 중심가의 계동, 영동, 구포동, 금산동, 낙원동, 당왕동, 대천동, 동본동, 봉남동, 봉산동, 명륜동, 서인동, 석정동, 성남동, 숭인동, 연지동, 옥천동, 인지동 등이 그것으로, 이들

5) 이 단락은 신종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님의 고견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洞(동)은 은 일제강점기 왜색 후부요소인 '○○町(정)'으로 불리었다. 특히 이들 동리 중 일부를 통폐합하였던 소화정, 대화정, 명치정, 동본정, 서본정 등은 완전히 일본지명 그 자체였다. 이렇듯 일제는 일본인 거류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도심지를 읍으로 바꾸면서 일본식 지명으로 개명을 하고, 1940년대가 되면 전부요소인 지칭어도 소화, 대화, 명치 등과 같이 왜색이 농후한 일본지명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 고유지명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게 된다. 현재 수원의 영동, 안성의 동본동, 영동, 서인동 등은 그때 작명된 왜색지명의 잔재이다.

일제잔재 직명의 대표격, 도지사

공무원의 직급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명칭에서 기원하고, 그것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되어왔다. 공무원 직급은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서기 등으로 나뉜다. 이 중 2급에 해당하는 '이사관'과 4급 '서기관'은 을사조약 이후 일제가 설치한 한국통감부와 총독부의 관직명이다. 또, 사무관, 주사, 서기 등 다른 명칭들도 갑오개혁 때 일본식 관제를 모방해 만들어졌다. 물론 이들 중에서 주사, 서기 등은 최근 들어 주무관으로 주로 불리며, 이사관과 부이사관도 대부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어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관가에서는 아직도 비공식적으로 사용된다.

'도지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道)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의 직명이다. 고려 시대,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도지사를 '도백'(道伯), '관찰사', '감사'라고 불렀다.

1910년 한반도를 강점한 일제는 조선총도부를 설치하고 9월 30일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朝鮮総督府地方官官制, 메이지 43년 칙령 제357호)를 공포하여 지방행정 단위를 도·부·군·면으로 하여 13도·12부·317군·4,408면으로 편제하였다. 이 때 그들은 기존의 13도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찰사의 명칭은 도장관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1919년 8월 19일 지방 관제 개정(칙령 제391호)으로 도장관을 '도지사'로 바꾸어 부렸다. 이렇듯 '도지사'가 최초로 쓰인 시기는 1919년이며 그 당시 일본에서 사용하는 도지사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다.

'도지사'는 '도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관찰사(觀察使)는 조선 시대 600년 동안 사용해왔고 그만큼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 명칭의 의미도 '보고 살핀다'는 뜻으로 도지사의 '도에서 제일 많이 안다'는 의미보다 풍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어쨌든 도지사란 직명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일제잔재라 할 수 있다.(인용 : 『일제의 식민지정책과 경기도』, 기전역사문화서포터즈, 2020, 426~427쪽)

행정지명의 기본적 이해와 지명연구가 나아갈 방향

지명도 우리가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 문화자원이다.

용인 동백지구에는 동막초등학교, 백현중학교, 백현마을 등이 있다. 여기서 동막과 백현은 동백동으로 통합되기 이전의 자연마을의 이름이다. 또 하남의 맛집으로 '창모루'가 있는데, 음식점이 속한 법정동 倉隅里(창우리)의 우리말 지명이다. 용인 동천동에는 머내전주콩나물국밥, 머네포차식당 등이 있다. 이 역시 동천동으로 통합된 遠川里(원천리)의 순우리말 지명에서 따온 상호이다. 이렇듯 지명은 지금도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창우리국수집보다는 창모루국수집이, 원천전주콩나물국밥집보다는 머내전주콩나물국밥집이 발음하기도 편하고 귀에 쏙 들어오며 어감도 정겹기 때문이다.

지명은 해당지역의 역사 그 자체이고, 그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화로 전통마을은 사라졌지만 지명만은 도심으로 바뀐 주택단지가 과거 어떤 곳이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지명은 街路(가로), 주택단지, 건물, 상호 등의 이름을 정하는 데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지명에는 한자명과 순우리말이 함께 사용되었기에 선택의 폭도 넓다. 지명의 현대적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명의 보존과 재발굴은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까치마을, 하얀마을, 달빛마을 등 마을의 역사성과 정체성과 전혀 무관한 지명보다는 동막골, 오야소, 독쟁이 등과 같은 지역민의 숨결이 스며있는 지명이 더 인상적이고 차별성이 있으며 지칭어로서 적합하기 때문이다.

'내고장 바로알기'를 위한 참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초등학교 3, 4학년 사회과 필수과목으로 '내고장 바로알기' 과목이 있다. 말 그대로 학생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고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과목이다. 이런 '내고장 바로알기' 과목에서 최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알아야 할, 그리고 궁금해 할 부분은 자기 고장의 지명과 관련해서일 것이다. 한편, 초등학교 校名(교명) 중에는 고유지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경우가 많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고유지명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이 초등학교 교명일 것이다.

이처럼 지명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도 보존되고 연구되어야 할 우리의 전통자산이다. 지명은 지역의 역사성과 고유성에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이기에 지명연구는 더 필요

하다고 본다.

지명의 기본 속성은 '구별짓기'이다.

지명의 속성은 개인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명에서 무엇보다도 고유성, 차별성, 역사성이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작명에는 해당 지역의 標識的(표지적) 상징물, 역사적 사실, 지역적 토산물, 지형적 특징 등이 고려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명 유래에 대한 설명은 이런 속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한자지명의 뜻을 견강부회식으로 풀이한 오류를 적지 않게 범했다.

행정지명에서 동식물 지명은 원뜻에서 벗어난 경우가 허다하다.

행정지명에는 매난국죽에서 梅(매)와 竹(죽)이 흔하다. 또 충절과 절개의 상징인 松柏(송백)의 松(송)과 栢(백)도 자주 보인다. 또 과일 중에서는 梨(리)가 아주 많이 확인된다. 그리고 동물에서는 馬(마), 獐(장), 鷹(응), 蟹(해) 등이 자주 쓰인다. 그런데 이들은 지명은 순우리말의 한역 과정에서 음차했거나 雅譯(아역)한 경우로 해당 지역의 정체성과는 무관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梅(매)와 鷹(응)은 '산', 竹(죽)은 '大(대)', 松(송)은 '小(소)', 栢(백)은 '城(성)', 梨(리)는 '舟(주)', 馬(마)는 '大(대)', 獐(장)은 '延(연)', 解(해)는 '岐(기)'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순우리말 '말티 고개'를 한역하면 '馬峙(마치)'인데, 이 지명은 동물 말과는 완전히 무관하다.

행정지명에도 粉飾(분식)이 의도적으로 가해졌다.

김포 豊舞洞(풍무동)의 순우리말 지명은 풀무골이고, 훈차는 冶洞(야동)이 맞다. 그런데 풀무골에는 '미천한 쟁이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녹아 있다. 그래서 발음이 유사하지만 듣기 좋고 의미도 상서로운 한자를 택하여 '풀무골'을 豊舞洞(풍무동)으로 음차하였다. 이런 경우를 지명연구에서는 雅譯(아역)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지명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런 아역이 이루어졌다. 백정이 살던 마을을 白丁洞(백정동) 대신에 丁村里(정촌리)로, 陶工(도공)이 살던 마을을 陶谷洞(도곡동) 대신에 道谷洞(도곡동), 또는 陶匠里(도장리) 대신에 道庄里(도장리)로, 옹기쟁이가 살던 마을을 甕匠里(옹장리) 대신에 篤亭里(독정리)로 아역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유지명에서 관념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樂園洞(낙원동), 崇仁洞(숭인동), 錦山洞(금산동), 明倫洞(명륜동), 忠孝洞(충효동), 仁智洞(인지동), 大化洞(대화동) 등과 같은 훈육적 관념어는 고유지명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또 靑雲洞(청운동), 花田洞(화전동), 雲井洞(운정동), 望月洞(망월동) 등의 미칭도 지역의 정체성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지명의 본래 기능은 지칭이고, 이런 지칭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표지물, 상징물, 역사성, 정체성, 차별성이 고려되었다. 그래서 지명은 원래 매우 구체적인 지시어가 기본이다. 교훈적, 문학적 지명은 후대에 자기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심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대부분 생겨났다.

합성지명을 고유지명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龍仁(용인)은 龍駒縣(용구현)과 處仁縣(처인현)을, 楊平(양평)은 楊根郡(양근군)과 砥平郡(지평군)을, 盆唐(분당)은 盆店里(분점리)와 唐隅里(당우리)를, 여주 加南邑(가남읍)은 近南面(근남면)와 加西面(가서면)을, 성남 野塔洞(야탑동)은 塔洞(탑동)과 梧野所洞(오야소동)을 두 개의 시군(또는 읍면, 동리)에서 한 글자씩을 따 와서 억지로 만든 합성지명이다.

경기도에는 이런 지명이 대략 최소 530여 곳이 된다. 그런데 이런 합성지명을 일반인들은 고유지명으로 알고, 현재의 한자지명을 그대로 뜻풀이하여 자기 나름대로 야탑동을 '들판에 탑이 있었던 마을' 등으로 해석한다. 일반인들이 가끔씩 범하는 실수이기에 언급해 둔다. 또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용인군 水餘面(수여면)의 驛洞(역동)과 北洞(북동)을 병합하여 역북리라 하였다. 두 마을 이름의 합성에 지나지 않는데 '역북동'이라 하면 '역의 북쪽 마을'일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로알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왜곡·굴절된 행정지명을 바로 잡는 데에 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행정지명의 개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 한편에서는 "큰 불편이 없는데 왜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개명을 굳이 하느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에도 고유지명을 이어받은 행정동과 법정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역민의 자기 고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가고 있다. 이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왜곡된

지명, 잘못 알려진 유래설은 '바로잡기'해야 마땅하겠다. 다만, 단시간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바, 그에 앞서 교정을 이끄는 추동력이 될 수 있는 '바로알기'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는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당연해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라 판단된다.

경기지명과 관련해서는 이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지명과 관련해서는 지명의 유래를 구술을 기초로 정리한 조사성과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한국지명총람』17 · 18(한글학회, 1985·1986), 『지명유래집』(경기도, 1987), 『한국지명유래집』(국립지리정보원, 2015) 등으로, 모두 기초자료집이다. 이외에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을 위하여 경기도의 모든 지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조선지지자료 경기도편』(경기문화재단, 2008)이 있고, 경기도의 지명을 역사적으로 살펴본 『경기도 역사지명 사전』(동아시아역사연구소, 2011)이 발간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 이들 자료를 기초를 대상으로 한 분석, 평가, 고찰 등의 체계적 · 종합적 연구가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자료 자체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도출도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들 지명의 기초가 된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과 작명에 대한 분석과 고찰도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기초자료집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명에 대한 종합적 ·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 책은 이런 목적으로 기획, 발간되었다.

지명 연구도 예비지식과 공부가 필요하다.

경기도 지명의 자료를 모은 책은 『지명유래집』(경기도, 1987)이 있다. 이 책은 총1054쪽으로 31개 시군의 지명 전체를 모두 수록한 점, 행정지명뿐만 아니라 산악과 하천 등 자연지명을 포함한 점, 행정동과 법정동은 물론 자연마을까지도 포함한 점, 한자지명의 순우리말 뿐만 아니라 그 유래까지 밝히고 있는 점 등으로 그 성격과 내용이 정리된다. 그런데 이 책에서 언급한 지명의 유래에 대한 설명은 비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서 사실과 벗어난 부분이 많다. 특히 현재 한자를 자의적 · 부회식 · 계산적으로 뜻풀이하여 지명의 원뜻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도 허다하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렇게 잘못 만들어진 유래설이 진실인 양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 지명연구는 기본텍스트를 제대로 섭렵하고, 기존 전문학자의 연구결과를 숙지한 다음, 학술적 · 객관적 · 상식적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지명연구에 역사학자의 가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지명 연구는 국어학자와 지리학자가 주도하였다. 그런데 모든 지명에는 해당 지역의 역사가 녹아 있다. 행정지명은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명의 유래는 지형과 음운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그러니 역사적, 민속적, 고고학적 접근이 소홀했다. 한편 행정구역의 설정은 국가권력이 피지배층을 관리·통제하고, 세금을 부여하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고, 이런 까닭에 행정지명도 그런 통치 목적에 맞게 붙여진 사례도 적지 않다. 이렇듯 지명은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학자의 관심과 가세가 필요하다.

경기지명 연구를 위한 기본텍스트와 정보는 알고 지명 이해에 나서자.

경기도 지명을 연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 텍스트는 단연 바로 앞에서 소개한 『지명유래집』이다. 내용과 체계는 허술하지만 경기도 지명을 총망라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읽어 볼 책이다. 이보다 좀 더 전문가에 의하여 학술적으로 집필된 책이 『한국지명유래집』(국립지리정보원, 2015)인데, 이 책은 아쉽게도 행정동을 기본으로 삼아 법정동과 자연마을은 대부분 다루지 않았다. 한편, 현재 한역된 행정지명의 순우리말 지명을 아는 데에는 『한국지명총람』17·18(한글학회, 1985·1986)이 큰 도움이 된다. 지명 유래는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말 지명을 비교적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으므로 왜곡된 한자지명을 바로잡는 데에는 꼭 필요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외에 경기도 지명을 역사적 문헌에 기초하여 학술적으로 정리한 『경기도 역사지명 사전』(동아시아역사연구소, 2011)도 권장 도서이다. 다만 이 책에서도 경기도 법정동까지를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은 한계가 있다.

고문서격의 자료로는 『조선지지자료 경기도편』(경기문화재단, 2008)이 있다. 1911년 무렵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 통치를 위해 전국의 지명과 地誌(지지) 사항을 일본식으로 바꿔 기록한 필사본을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부분만을 뽑아 영인한 책이다. 지명의 측면에서 볼 때 자연마을과 법정동의 한자명에 諺文(언문)을 부기하여 순우리말 지명을 추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언문 부기가 생략된 점, 언문이 부기된 시군이라 할지라도 법정동 모두에 언문 부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 당시 경기도에서 가장 큰 시군에 속했던 양주 편이 누락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경기도 행정구역명칭총람』(경기문화재단, 2018) 이다. 1789년 발간된『호구총수』부터『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신구대조 조선 전도부군 명칭 일람』(1937),『대한민국 지방행정구역 명감』(1959),『대한민국 지방행정구역 명감』(1963),『지방행정구역요람』(1993) 등 6종의 책에서 경기도 부분만을 뽑아서 영인하였다. 조선후기부터 현대까지 행정구역 명칭의 변천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지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 단위를 벗어난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명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전문학자에 의하여 김포, 의왕, 양주, 수원 등 기초지자체 단위의 학술적 연구는 이루어졌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연구성과집은 아직까지 없다. 단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지명유래집과 문헌자료집이 있을 뿐이다. 한편, 기존의 지명유래조사는 비전문가들이 수행하여, 과장 · 왜곡 · 분식 · 오류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런 잘못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1914년 일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그 문제점

1914년 일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그 문제점

최재성(청암대학교 연구교수)

1. 여는 글

제국주의 일본은 러일전쟁 개전에 즈음하여 한국 지배에 대한 야욕을 노골화하였다. 러일전쟁 발발 직후인 1904년 2월에 체결한 '한일의정서'는 그 야욕이 겉으로 드러난 첫걸음이었다. 이어 반년 후에는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한국 정부에 파견했다. 러일전쟁 승전 이후에는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한국을 반(半) 식민지로 만들었다. 1907년에는 고종황제를 퇴위시키고 '한일신협약'을 체결하여 한국 정부의 차관 이하 요직에 일본인 관리를 심어두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에 이르러 '병합조약'을 체결하여 식민지 조선 지배를 시작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일제가 한국의 '중앙'을 장악해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중앙'만을 장악해서는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지배에서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 '중앙' 외에 '지방'에 대해서도 확고한 조치가 필요했다. '지방'은 식민지 조선 민중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이자 쌀을 비롯한 1차 산업의 생산물이 나오는 곳이며 공업제품이 소비되는 곳이었다. 또 일제의 침략에 맞선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이기도 했다. 식민지가 식민 본국에 대해 식량과 원료의 생산지, 상품의 소비시장, 나아가 잉여자본의 투자처로서 기능함에 비춰볼 때 '지방'은 일제가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곳이었다.

일제는 한국의 '중앙'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지방' 지배의 조치를 취했다. 1906년 지방행정구역 개편 시 통감부가 개입을 시도했던 일과 1904년의 '한일협약'에 따라 부임한 재정고문 목하전종태랑(目賀田種太郎)이 '재정·화폐정리'를 단행하여 한국의 경제구조를 일본의 그것에 맞게 뜯어고치면서 지방에 농공은행과 지방금융조합을 설

치했던 것이 그것이다.

1906년 당시 대한제국 내부(內部)에서는 지방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13도는 존속시키고, 342군 가운데 50개 군을 통폐합할 계획을 세웠다. 거센 반대여론과 지방민들의 반발로 결국 대대적인 군 폐합 계획은 철회되고, 9월 24일 칙령 제47~52호를 통해 1수부(首府)·13도(道)·1목(牧)·3부(府)·339군제(郡制)를, 1수부(首府)·13도(道)·11부(府)·332군(郡)으로 변경하는 조치가 10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제주목(牧)과 광주(廣州)·강화·개성의 3부가 군으로 강등되고, 개항장 소재지의 군들인 인천·옥구·무안·창원·동래·덕원·성진·삼화·경흥·의주·용천 등의 군들이 부로 승격되었다.[1] 그후 약간의 군 통폐합이 진행되어 1910년 '합방' 당시에는 317개 군으로 감소되었으며 '합방' 직후에도 소폭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다. 경성부를 수부의 지위에서 격하시켜 보통의 부로 하고 경기도에 소속시켰다. 또 성진 · 용천 · 경흥부를 군으로 바꾸고 대신에 부령군을 청진부로 하고, 평양 · 대구군을 부로 하였으며, 옥구 · 무안 · 동래 · 창원 · 삼화 · 덕원부를 각각 군산 · 목포 · 부산 · 마산 · 진남포 · 원산부로 개칭하였다.[2]

이어 1914년에 부·군·면 통폐합, 부제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군·면 통폐합은 전체 317개 군을 220군으로 30% 정도, 4,322면을 2,522면으로 약 42%를 각각 줄이는 것으로 유사 이래 가장 큰 폭의 개편이었다. 이에 아래에서는 1914년에 이뤄진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내용을 하나하나 톺아보기로 한다.[3]

2. 1914년 개편의 내용

1914년 4월 1일부로 시행된 '부제'는 12개의 부를 그대로 존속시키되 부의 영역을 축소하여 형식상 자치제를 표방한 공법인으로 만든 조치였다. 또 3월 1일과 4월 1일에 각각 시행된 군 및 면의 통폐합 조치는 종전 317군에서 97개 군을 감축하여 220군으로, 종전 4,322면에서 1,800개 면을 감축하여 2,522면으로 감축한 것이었다.[4] 이후 면의 증감에 대해서 보면, 그 해 8월에 다시 2개 면을 병합하고 1개 면을 설치하여 2,521면이 되었다.

---

1)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상)—갑오경장 ~일제강점기—》, 일지사, 1992, 72-73쪽.

2) 손정목, 위의 책, 117쪽.

3) 이 글은 필자의 두 글[「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그 성격」, 수요역사연구회 편, 『식민지 조선과 매일신보-1910년대-』, 신서원, 2003, 「일제의 조선 지방지배정책과 수원」, 『수원학연구』2, 수원학연구소, 2005.12]에서 발췌하여 작성한 것임.

4)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시정연보》(1914년도판), 29쪽.

지방행정구역 개편 방침은 1913년 1월 각도 내무부장회의에서 총독의 지시로 추진되었다. 담당부서는 내무부였고, 지방국장(小原新三)의 책임으로 부의 정리는 지방국 제2과에서, 군·면 폐합은 지방국 제1과에서 담당하였다.[5] 다음 표는 도별 면적 및 호수와 1914년 3월 1일과 4월 1일에 각각 시행된 부·군 통폐합과 면 통폐합에 따라 개편된 부·군·면의 전후 개수를 표시한 것이다.

구분	면적	호수	부		군		면	
			전	후	전	후	전	후
경기	771	334,883	2	2	36	20	487	250
충북	490	136,291	-	-	18	10	199	114
충남	552	208,292	-	-	37	14	387	175
전북	539	219,639	1	1	27	14	380	188
전남	932	354,263	1	1	28	22	447	275
경북	1,061	360,822	1	1	40	23	514	272
경남	779	322,234	2	2	27	19	453	259
황해	1,192	243,501	-	-	19	17	348	226
평남	1,049	204,621	2	2	17	14	299	169
평북	2,080	201,597	1	1	20	19	260	194
강원	1,980	187,106	-	-	25	21	236	178
함남	1,876	191,309	1	1	13	16	190	142
함북	1,088	81,028	1	1	10	11	122	79
계	14,389	3,045,586	12	12	317	220	4,322	2,521

표 1　각도별 면적·호수 및 부·군·면의 통폐합 전후의 개수[출전 :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14년도판), 30쪽.] 호수(戶數)는 1913년 12월 말일 현재.

위 표에서 보듯이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결과 부의 개수는 변화가 없고, 군의 개수는 97개가 줄었으며 면의 개수는 1,800개가 줄었다. 이 때 부제의 정리, 군·면의 통폐합 외에도 도 경계의 변경과 동리의 통폐합도 실시되었다. 도는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에 의해 개편된 13도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6] 그러나 약간의 도 경계의 변경이 있었다.

도 경계 변경의 경우를 보면, 먼저 한 개 군의 소속이 다른 도의 관할구역으로 넘어간 경우인데, 충남 평택군 일원(3개 면)이 경기도 진위군에 편입되었고,[7] 경남의 울도군(울릉도)이 경북 관할로 바뀌었다.

---

5) 김익한, 〈일제의 초기 식민통치와 사회구조변화〉, 《일제식민통치연구1 : 1905 ~1919》, 백산서당, 1999, 188쪽 참조.

6) 손정목, 앞의 책, 56쪽.

7) 《매일신보》1914년 3월 15일(2면) '경기의 면폐합'.

다음으로는 한 개 군의 일부 지역이 다른 도의 관할 구역으로 넘어간 경우인데,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사이에 이루어진 소규모 지역이동이다. 경기도 삭녕군의 3개면(乃文·寅目·馬場面)이 강원도 철원군에 편입되었다.[8] 또 충북 음성군의 법왕면 석원리 일부와 두의면 용산리가 경기도 이천군에 소속되었고, 경기도에서는 음죽군 동면 노평리 일부와 하율면 총곡리 일부, 상율면 팔성리 일부, 석교천 일부가 충북 음성군에, 죽산군 남면 가척리와 동주리가 충북 진천군에 편입되었다.[9] 전남의 고군산군도(古群山羣島)와 충남의 개야도(開也島)·죽도(竹島)·연도(煙島)·어청도(於靑島) 등이 새로 전북 관할로 편입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천강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리한 사례이다. 평북 박천군 덕안면·박비리·중흥리 및 영변군 독산면·귀봉리·남평리 가운데 청천강 남안에 접한 도서지역이 평남 안주군에 속하게 되었고, 평남 안주군 청산면·여북리·원흥리·원일리·운학리 가운데 청천강 북안에 접한 지역이 평북 박천군에, 평남 안주군 주북면 차장리 가운데 청천강 북안에 접한 도서지역이 평북 영변군에 속하게 되었다.[10]

이어서 부제실시와 군·면의 통폐합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겠다.

1) 부제 실시

(1) 부 구역의 정리

부제(府制)는 지방행정구역의 정리를 행함과 동시에 종래의 거류지제도 및 거류민단제도를 철폐하고 외국거류지는 모두 이를 지방행정구역인 부(府)에 편입하는 조치로 종래 일반지방행정과는 별도로 그 구역내의 공공사무를 취급했던 각국 거류지회·거류민단 및 한성위생회를 폐지하고, 그 사무 가운데 일본인의 교육에 관한 것은 학교조합에, 기타는 청국 전관조계(淸國專管租界)의 행정사무와 합하여 부에 인계한 것이었다.[11]

부제의 실시에 따라 종전에 비해 달라진 '부'의 성격에 대하여 지방국장 소원(小原)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府)는 이를 재정단체로 하여 일정한 공공사업을 영위케 하고 그 예산 및 부의 중요한 조례는 모두 부의 자문기관이 되는 협의원(協議員)에게 자문하고 이

8) 《매일신보》1914년 3월 15일(2면) '경기의 면폐합'.
9) 《매일신보》1913년 12월 29일(호외) '부군폐합발표'.
10) 《매일신보》1913년 12월 29일(호외), '부군폐합발표'.
11)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시정연보》(1914년도판), 24쪽.

의견을 참작하여 부윤(府尹)으로 하여금 부의 사무를 처리케 하는 조직이라."(맞춤법은 현대문에 따름-인용자)[12] 이에 따르면 부란 공공사업을 영위하고 예산과 조례에 관하여 부윤이 권한을 갖는 재정단체라는 것이다.

부제 시행을 위해 1913년 10월 30일 제령 제7호 '부제'를 시작으로 12월 29일 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 관할구역 급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1914년 1월 25일 총독부령 제2호 및 제3호의 '부제 및 학교조합령 시행에 관한 건', '부제시행규칙', 3월 31일 총독부령 제28호 '부제 및 학교조합령 시행기일' 등의 법적 조치가 잇달아 취해졌다.

부제의 실시와 함께 부 구역의 범위는 종전에 비해 축소되었다. 그러나 부의 수는 변함없이 그대로 12개였다. 부의 구역은 민단폐지와 함께 이를 축소하여 시가지 및 장래 시가지에 편입할 토지로써 그 구역을 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접 군에 속하게 하였는데, 12개 부의 이름과 그 관할구역은 다음 표와 같다.

부명	관할구역
경성부	동부, 남부, 북부, 중부, 서부의 일부, 용산면의 일부, 숭신면의 일부, 인창면의 일부, 한지면의 일부, 두모면의 일부
인천부	인천부 각국거류지, 구일본 거류지, 지나거류지 일원, 부내면, 다소면의 화도동, 수유동, 신촌리, 송림동, 송현동, 장천리의 일부, 독각리의 일부
군산부	각국거류지 일원, 북면의 장재동, 대정동, 송창동, 개복동, 신흥동, 명치정통, 횡전정, 강호정, 노정, 영정
목포부	각국거류지 일원, 부내면의 양동, 신창동, 연치동의 일부, 남교동의 일부, 북교동의 일부, 죽동의 일부, 온금동의 일부
대구부	대구면(신천동, 남산동의 일부, 신동의 일부 제외) 일원
부산부	구일본거류지 및 지나거류지 일원, 부산면, 사중면, 사하면의 부민동, 대신동, 부평동, 대치동의 일부, 용주면의 당감동 일부
마산부	각국거류지 일원, 외서면의 완월리, 신월리, 월영리, 자산리, 서성리, 성호리, 중성리, 성산리, 동성리, 오산리, 상남리, 교방리의 일부
평양부	융덕면, 대흥면(능라 제외), 내천면(서월동 일부, 신양동 일부, 강촌동 일부 제외) 외천면(양각동, 사리명촌동 일부 제외), 임원면의 기림동 일부
진남포부	각국 거류지 일원, 원당면의 비석동, 신흥동, 지산동, 용정동, 후포동, 억양기, 하대리의 일부, 상대리의 일부, 마산리의 일부
신의주부	의주부 광성면의 빈정, 대화정, 본정, 욱정, 상반정, 앵정, 영정, 진사정, 노송정, 운정정, 매지정, 약죽정, 초음정, 하정, 녹정, 압천정
원산부	구일본거류지, 지나거류지 일원, 현면의 명석원, 석우동, 용동, 상리1동, 상동, 상리2동, 상신흥리, 하신흥리, 광석동, 산제동, 남촌, 북촌, 남산동, 교하동, 중리1동, 중리2동, 3동, 4동, 장촌, 신촌, 하촌, 포하리, 중청리, 적전면의 관교동, 와우동의 일부

12) 《매일신보》1914년 4월 18일(2면) '지방행정개혁(3)'.

부명	관할구역
청진부	청진부 청하면의 청진동, 신암동의 일부

표 2 부의 명칭과 관할구역[출전 :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조선총독부관보》호외 1913년 12월 29일; 《매일신보》1913년 12월 29일(호외) '부군폐합발표']

이 표를 보면, 12개의 부는 그 관할 지역을 축소하여 그대로 존속되었는데, 다만 의주부는 폐지되고 신의주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부의 관할에서 떨어져 나온 면 지역을 관할할 군은 고양 · 부천 · 옥구 · 무안 · 달성 · 동래 · 창원 · 대동 · 용강 · 의주 · 덕원 · 부령군 등이었다.

경성부는 동 · 남 · 북 · 중 등 4부(部)를 중심으로 하고 서부의 일부, 용산면의 일부, 숭신면의 일부, 인창면의 일부, 한지면(漢芝面)의 일부, 두모면(豆毛面)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또 평양부는 부근 5면 및 일본인거류지를 그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부의 관할구역이 된 지역은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시가지지역이었고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면 지역은 군의 관할로 하였다.

(2) 일본인 민단거류지 및 외국인 거류지 철폐

일본인 거류민단은 폐지되기 전 11개소가 있었다. 그 11개소는 경성 · 인천 · 부산 · 진남포 · 목포 · 군산 · 평양 · 원산 · 마산 · 대구 · 신의주 등 12개 부 가운데 청진을 제외한 곳들이었다. 거류민단 폐지와 관련하여 평양에서는 거류민단업무를 평양부에서 맡게 됨에 따라 민단 역소는 학교조합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또 민단에서는 민단폐지에 대처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1914년 1월 8일 거류민회를 열고 민단철폐 및 부제시행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거류민단의 폐지와 함께 민단의 사무·권리·의무는 부에, 교육에 관한 것은 학교조합에 승계되었는데, 당시 민단의 막대한 부채가 부(府)에 귀속되어 부내에 거주하는 조선인들도 그 부담을 떠맡게 되었다.[13]

외국인 거류지는 인천 · 진남포 · 목포 · 군산 · 마산 · 성진 등 6개 지역의 각국 공동조계와 인천 · 부산 · 원산의 청국 전관조계였는데,[14] 각국 거류지 철폐에 관한 결정서는 미국 · 영국 · 러시아 · 프랑스 · 벨기에 · 이탈리아 · 청 · 독일 등 관계 각국의 승인을 거쳐 이를

13) 손정목, 앞의 책, 139-149쪽.
14) 손정목, 앞의 책, 126-127쪽.

기초로 일본 외무성에서 정식 조인을 하여 4월 1일부로 시행하려고 했으나,[15] 총독부와 각국영사관과 협정되었던 거류지철폐의정서 부대사항에 관하여 외무당국과 각국 대사관 사이에 차질이 빚어져 부제시행기일의 발표를 앞두고 혼선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각국이 모두 거류지 철폐를 내락하여 4월 1일부터 부제 및 학교조합령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부청에 대한 민단사무를 4월 20일까지 인계하고 그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장관의 인가를 얻어 시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16] 이후 각국 거류지 철폐에 관하여 외무성과 관계각국 대사관 또는 공사관 사이에 교섭이 종료되어 모두 승인을 얻어 3월 30일 밤 총독부에 통지가 되었다.[17]

총독부에서는 일본인 거류민단, 각국 거류지 등을 폐지하고 부제를 시행할 것에 대비하여 부제가 실시된 부에 대한 경비 보조를 위해 1914년도 총독부 예산 가운데 14만 7천원을 계상하였다. 또 거류민단·한성위생회 및 각국 거류지회 폐지와 함께 그곳 이원(吏員)들에게 대한 무마를 위해 공로자 표창 보조금 명목으로 10만 7천 55원을 계상하였다.[18]

각국 거류지의 철폐로 외국영사관 또는 각국 거류지회의 관리에 속했던 행정사무를 회수하여 거류지지역에 관한 과세권을 총독부가 갖게 되었고, 치외법권지역을 철폐하게 되었다.[19] 이에 대해 총독 데라우치도 1914년 4월 13일 도장관회의 석상에서 행한 훈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제 시행지에는 종래의 거류민단(居留民團) 및 각국 거류지회(各國居留地會)를 철폐하고 내선인(內鮮人, 일본인과 조선인-인용자) 및 외국인을 통(通)하여 동일 제도하(同一制度下)에 통치함으로써 신 부제 운용(新府制運用)의 적부(適否)는 장래의 시정상(施政上)에 영향이 적지 않으며 특히 종래 경찰사항(警察事項)을 제한 외 모두 제국법규(帝國法規)의 밖에 서서 특수한 관례(慣例)에 의한 거류지 및 대체상(大體上) 거류지에 준한 경성(京城) 평양(平壤) 등은 잡거지 내(雜居地內)에 거주 영업하며 또는 부동산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 금후는 특별사항을 제한 외에 내선인(內鮮人)과 동일(同一)히 취급…."[20] 일본인 거류민단, 외국인 거류지회를 철폐하고 부제를 시행하여 그 업무를 부에서 관장하게 한다는 부제 시행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

15) 《매일신보》1914년 1월 23일(2면) '거류지철폐실시 期'.
16) 《매일신보》1914년 3월 27일(2면) '부제시행기일'.
17) 《매일신보》1914년 4월 1일(2면) '각국거류지의 철폐'.
18) 《매일신보》1914년 1월 24일(2면) '총독부3년도예산 綱要'
19)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시정연보》(1914년도판), 24쪽.
20) 《매일신보》1914년 4월 14일(2면) '寺內총독의 훈시'.

(3) 부 협의회 설치

총독부에서 밝힌, 부 협의회원의 형식적인 자격은 명망 · 식견있는 자를 선임한다는 것이었다.[21] 1914년 1월 25일 관보 호외로 각 부의 협의회 정원이 발표되었는데, 경성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평양과 부산이 12명씩이었으며, 인천 · 대구 · 원산 등은 10명, 목포 · 마산 · 진남포 등은 8명, 군산 · 신의주 · 청진 등은 6명이었다.

그 임명 절차를 보면, 관할 각 도장관 신청에 의해 내무부에서 신중조사한 후 총독의 인허를 받아 임명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인가되었다고 하며 4월 7일부로 각 도장관으로부터 임명되었다. 이때 임명된 각부 협의원에 대하여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나누어 그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부소재지	경성	인천	군산	목포	대구	부산	마산	평양	진남포	신의주	원산	청진	합계
일본인	8	7	4	5	5	8	5	6	5	4	5	4	66
조선인	8	3	2	3	5	4	3	6	3	2	5	2	46

표 3 각 부 협의원수

4월 7일부로 각기 임명된 경성부의 협의원은 16명 가운데 조선인은 박제빈 · 유길준 · 한상룡 · 조진태 · 엄달환 · 예종석 · 안상호 · 김용제 등 8명이었고, 인천부 협의원 10명 가운데 조선인은 손성칠 · 정영화 · 장석건 등 3명이었다.[22] 이들의 면면을 볼 때 친일세력의 거두였음을 알 수 있고, 덧붙여 경성부 일본인 이사의 경우 거류민단 민회의원 등 민단 관계자들이었다.[23]

부 협의회에서 다룬 안건은 평양 · 경성 · 진남포 등의 경우를 통해 볼 때, 부 조례 공포 양식에 관한 건, 출장소설치에 관한 건(경성부), 유급 이원(有給吏員)의 정원, 이원(吏員) 봉급조례, 협의원비용변상규정, 금고취급규정, 기타 등이었는데, 부제의 실시와 관련된 것 등임을 알 수 있다.

21)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시정연보》(1914년도판), 28쪽.
22) 《매일신보》1914년 4월 9일(2면) '경성인천협의원'.
23) 손정목, 앞의 책, 137-139쪽.

2) 군의 통폐합

(1) 통폐합의 내용

기존에 있던 부와 군은 그 관할구역의 넓이가 일정치 못하여 군 가운데 큰 것은 5백 방리[24] 이상에 달하여 한 道(도)의 면적에 필적할만한 것도 있고, 작은 것은 겨우 3 방리에 달하여 규모가 큰 면의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그 편차가 극히 컸다. 또 가구수의 편차도 커서 인구가 많은 군의 가구수는 2만 8천여 호에 달한 반면, 인구가 적은 군의 가구수는 1천 3백여 호에 불과했다. 또 그 경계는 극히 착종(錯綜)하고 "갑군(甲郡)의 지역(地域)이 을군(乙郡)에 비입(飛入)하거나 또는 돌입(突入)한 자(者) 유(有)하며 혹은 첨하(簷下)로써 경역(境域)을 작(作)한 자(者) 유(有)"한 상황이었다.[25] 이처럼 '개의 어금니처럼 들쭉날쭉[犬牙錯綜]'하고 '비입·돌입(飛入·突入)'한 경계를 정리한다는 방침은 이후 면의 통폐합에서도 적용되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면적 약 40 방리 및 가구수 약 1만 호로써 표준을 삼아 표준 이하의 면적 또는 호수의 군은 폐합하고 표준 이상의 군은 존치시킬 방침을 정했다.[26] 또 영역이 축소된 부의 면 지역을 관할하기 위하여 신설된 군도 있었다.

먼저 신설된 군을 보면, 경기 부천, 충남 대전 · 논산 · 홍성군, 전북 옥구군, 전남 무안 · 화순 · 고흥군, 경북 달성 · 영일 · 김천 · 영주군, 경남 동래 · 통영 · 창원군, 황해 연백군, 평남의 대동 · 평원군, 평북의 의주군, 함남의 덕원 · 신흥 · 풍산군, 함북의 부령군 23개 군이다. 이 가운데 부천 · 옥구 · 무안 · 달성 · 동래 · 창원 · 대동 · 의주 · 덕원 · 부령군 등은 부의 면 지역을 관할하기 위하여 신설된 군들이다. 12개 부의 면 지역을 관할하기 위한 군의 명칭, 군청소재지, 관할구역은 표와 같다.

군명	위치	관할구역
고양군	경성	고양군 일원, 경성부 서강면, 은평면, 연희면 및 西部 · 용산면 · 숭신면 · 인창면 · 한지면 · 두모면 중 경성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양주군 고양주면

24) 방리(方里)란 일본의 면적단위로 1 방리는 사방 1리 즉, 가로·세로 1리를 말한다. 일본의 1리는 조선의 10리에 해당하여 1 방리는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15.423㎢(3.92727㎞×3.92727㎞)의 넓이이다(손정목, 앞의 책, 156쪽 각주 112 참조).

25) 《매일신보》1914년 1월 3일(사설) '부군폐합'.

26) 《매일신보》1914년 4월 15일(2면) '지방행정개혁(1)'.

군명	위치	관할구역
부천군	관청리	부평군 일원, 인천부 구읍면, 서면, 남촌면, 오동면, 신현면, 전반면, 황등천면, 주안면, 영종면, 용유면, 덕적면, 다소면 중 인천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강화군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남양군 영흥면, 대부면
옥구군	군산	군산부 박면, 풍면, 장면, 동면, 서면, 정면, 미면, 북면의 군산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임피군(동일면의 방교리 제외)의 일원, 함열군 남이면의 마포리, 상검리, 하검리, 전남 지도군 고군산면
무안군	목포	목포 삼향면, 일로면, 이로면, 박곡면, 일서면, 이서면, 석진면, 외읍면, 현화면, 다경면, 망운면, 해제면, 진하산면, 부내면 중 목포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지도군(고군산면 위도면 낙월면 제외) 일원, 완도군 팔금면, 진도군 도초면
달성군	대구	대구부 동중면, 동하면, 해동촌면, 해서부면, 해서촌면, 해북촌면, 수동면, 수북면, 수현내면, 상수남면, 하수남면, 서중면, 원서면, 성서면, 하동면, 하남면, 하서면, 하북면, 감물천면, 조암면, 인흥면, 화현내면, 월배면, 옥포면, 법화면, 성평곡면, 대구면 중 대구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동래군	동래	부산부 읍내면, 동상면, 동하면, 북면, 서상면, 서하면, 남면, 동평군, 사상면, 좌이면, 사하면 및 용주면 중 부산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기장면 일원
창원군	마산	마산부 부내면, 상남면, 하남면, 동면, 북면, 내서면, 귀산면, 대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서면, 양전면, 웅읍면, 웅동면, 천가면, 진해면, 웅서면, 외서면 중 마산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대동군	평양	평양부 청룡면, 용연면, 고순화면, 서천면, 용악면, 석관면(적선동 제외), 추을미면, 남제산면(송오동 제외), 남형제산면, 평천면, 대보면, 시족면, 재경리면, 금여대면(문필동, 연곡동, 대마동, 가장동, 금여동, 원동 제외), 용산면, 부산면, 대동강면, 서제산면, 율리면, 임원면, 외천면, 내천면, 대흥면 중 평양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용강군	용강	진남포부 동리면, 서리면, 금당면, 오은면, 감박면, 초소면, 귀상면, 귀하면, 내곡면, 신북면, 신남면, 대하면, 대상면, 원당면 중 진남포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의주군	의주	의주부 위화면, 주내면, 수진면, 가산면, 광평면, 옥상면, 고영삭면, 소관면, 고군면, 월화면, 비현면, 위원면, 관리면, 송장면, 고성면, 고읍면, 진리면, 광성면 중 신의주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덕원군	덕원	원산부 부내면, 북면, 주북면, 용성면, 적전면, 현면 중 원산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안변군 영풍면, 하도면 중 여도, 고원군 하발면의 웅도
부령군	부령	청진부 청상면, 연천면, 동면, 판장면, 삼리면, 해면, 서촌면, 상면, 하무산면, 석막면, 청하면 중 청진부에 속하지 않은 지역, 회령군 관해면

표 4 부 인근 12개 군 및 관할구역[출전 :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조선총독부관보》호외 1913년 12월 29일; 《매일신보》1913년 12월 29일(호외) '부군폐합발표']

이 가운데 부천군은 부평군의 이름을 바꾼 것이고, 의주군은 의주부를 신의주부로 변경한 후 붙인 이름이며, 고양·용강군은 기존의 군 영역에 부의 면 지역을 합한 경우이다. 그밖에 옥구·무안·달성·동래·창원·대동·덕원·부령군 등이 새로 신설한 군들이다.

다음으로 폐합된 군은 121개 군으로 각 도별로 보면, 〈표5〉와 같은데, 주로 경기도와 삼남지방에 집중되었으며 함남과 함북은 폐합된 군이 없었다. 그 결과 경기도 20군, 충북 10군, 충남 14군, 전북 14군, 전남 22군, 경북 23군, 경남 19군, 황해 17군, 평남 14군,

평북 19군, 강원 21군, 함남 16군, 함북 11군으로 개편되었다.

폐합된 군들 가운데 충남의 진잠군은 회덕군에 병합되어 대전군이 신설되었다.[27] 황해도는 연안과 배천군이 연백군으로 합쳐졌고, 토산군이 금천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토산군의 미원면은 신계군에 합쳐져서 19개 군이 17개 군으로 되었다.[28] 평남은 종래 17군이 14군으로 통폐합되었는데,[29] 영유(永柔)·숙천(肅川)·순안(順安) 등 3군이 평원군으로 폐합되었으며[30] 평원이란 명칭은 숙천의 옛 이름이었다.[31] 여기에 평양부 덕산면과 증산군 초곡면·진방면이 평원군에 합쳐졌다.[32] 또 상원군이 중화군에 합쳐졌고,[33] 증산군이 강서군에 폐합되었다.[34]

도	군
경기	교동, 양성, 양천, 과천, 양지, 부평, 남양, 풍덕, 죽산, 안산, 삭녕, 통진, 영평, 마전, 교하, 음죽, 적성 등 17개 군
충북	청안, 청풍, 영춘, 연풍, 청산, 황간, 문의, 회인 등 8개 군
충남	정산, 대흥, 신창, 평택, 직산, 회덕, 진잠, 은진, 연산, 석성, 노성, 온양, 전의, 한산, 임천, 홍산, 남포, 비인, 오천, 결성, 태안, 해미, 면천, 덕산, 홍주, 목천 등 26개 군
전북	진산, 용담, 고산, 용안, 함열, 여산, 임피, 만경, 태인, 금구, 고부, 무장, 흥덕, 운봉 등 14개 군
전남	창평·흥양·동복·능주·남평·돌산·지도·정의·대정 등 9개 군
경북	하양, 신녕, 장기, 연일, 흥해, 청하, 영해, 의흥, 비안, 영천, 풍기, 순흥, 예안, 진보, 자인, 현풍, 인동, 금산, 지례, 개령, 함창, 용궁 등 22개 군
경남	거제, 용남, 곤양, 단성, 안의, 초계, 삼가, 영산, 언양, 기장 등 10개 군
강원	고성, 금성, 평해, 안협 등 4개 군
황해	연안, 배천, 토산 등 3개 군
평남	상원, 순안, 숙천, 영유, 증산 등 5개 군
평북	의주부, 가산·곽산군 등 3개 부·군

표 5 폐합된 군[출전: 《매일신보》1913년 12월 29일(호외) '부군폐합발표']

함남과 함북은 오히려 군이 증가되었는데, 함경남도는 군의 면적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27) 《매일신보》1914년 2월 28일(4면) '충남 대전군 신설'.
28) 《매일신보》1914년 1월 8일(1면) '부군폐합과 본도' ; 《매일신보》1914년 1월 5일(2면) '폐합총화'.
29) 《매일신보》1914년 3월 3일(4면) '평남 군폐합'.
30) 《매일신보》1914년 1월 15일(1면) '평남 永柔肅川順安군청 각 문부서류 정비에 분망' ; 《매일신보》1914년 1월 23일(4면) '평남 평원군청 설치'.
31) 《매일신보》1914년 2월 27일(4면) '평남 숙천군청 신설'.
32) 《매일신보》1914년 3월 3일(4면) '평남 평원군 신설'.
33) 《매일신보》1914년 3월 4일(4면) '평남 상원군 폐합'.
34) 《매일신보》1914년 3월 18일(4면) '평남 증산군 폐합'.

갑산·북청군의 일부를 나누어 풍산군을 새로 만들었고, 원산부 및 안변군의 각 일부를 나누어 덕원군을 신설하였다.[35] 함경북도는 청진부의 면 지역과 회령군의 관해면을 합하여 부령군을 신설하였다.

군의 통폐합 가운데서도 무풍지대로 남아 옛 군이 그대로 유지된 곳도 있었는데, 그 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에서는 가평 · 여주 · 장단군 등 3개 군, 전북은 무주 · 장수군 등 2개 군, 전남은 순천 · 영암군 등 2개 군, 경북은 고령 · 청도 · 선산 · 울도군 등 4개 군, 경남은 김해 · 밀양 · 양산 · 남해군 등 4개 군. 이렇게 남부지방은 그 영역이 변동 없는 군이 15개 군에 불과하였는데, 이를 통해 볼 때 군 통폐합은 남부지방을 겨냥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북부지방은 군 영역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먼저 강원도는 춘천 · 홍천 · 횡성 · 원주 · 평창 · 영월 · 정선 · 삼척 · 강릉 · 양양 · 통천 · 회양 · 평강 · 화천 · 양구 · 인제군 등 16개 군, 황해도가 해주 · 평산 · 곡산 · 옹진 · 장연 · 송화 · 재령 · 서흥 · 봉산 · 수안 · 신천 · 안악 · 황주 · 은율군 등 14개 군, 평남이 덕천 · 영원 · 맹산군 등 3개 군, 평북이 희천 · 운산 · 태천 · 귀성 · 철산 · 용천 · 삭주 · 창성 · 벽동 · 초산 · 위원 · 강계 · 자성 · 후창 등 14개 군, 함남이 문천 · 이원 · 삼수군 등 3개 군, 함북이 길주 · 경원 · 온성 · 무산군 등 4개 군. 이렇게 강원도와 북부지방은 54개 군이 존속되어 전체 69개 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군 명칭에 대한 원칙은 신 군청의 옛 군명을 사용하였고, 한 군이나 부의 일부를 나누어 새로운 군을 설치한 경우 역사상 근거있는 명칭을 사용하였다.[36] 군 통폐합의 결과 1군 평균면적은 45방리에서 65방리로, 호수 평균은 8,957호에서 13,412호가 되었다.[37]

(2) 군수이동

군의 통폐합에 따라 종전 317개 군이 220군으로 됨으로써 군수의 정원도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군수 104명, 군참사 1군 2명씩, 군서기는 5,60명이 물러나게 될 것으로 보도되었는데,[38] 면관자는 100명이었다. 군수의 인사는 2월 28일 관보로써 발표되고 3월 2일 총독부관보로 발표되었다.[39]

---

35) 《매일신보》1914년 4월 15일(2면) '지방행정개혁(1)'.
36) 《매일신보》1914년 4월 15일(2면) '지방행정개혁(1)'.
37) 《매일신보》1914년 4월 15일(2면) '지방행정개혁(1)'.
38) 《매일신보》1914년 1월 10일(2면) '부군폐합과 廢官'.
39) 《매일신보》1914년 3월 1일(2면) '군수임면 日附'.

그 결과 신임 7명, 전근 9명, 면관 100명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다. 먼저 신임 7명은 경남 창녕의 원훈상, 평북 박천의 김현수, 평북 초산의 이인수, 함남 신흥의 홍종희, 함남 풍산의 강필성, 함북 경원의 김경재, 함북 부령의 김정규로 이들 가운데 원훈상 · 김현수 · 홍종희 · 강필성 등 4명이 도서기 출신이고, 이인수는 부서기 출신이며, 김경재 · 김정규 등 2명이 군서기 출신이었다. 또 전근 9명은 타도로의 이동을 말하는데, 최남교(충남 남포→평북 영원), 김영두(경기 풍덕→평북 자성), 이경선(경북 함창→함남 문천), 이성호(경북 순흥→황해 수안), 박초양(충북 청풍→함남 고원), 황종욱(경북 울도→함남 북청), 김정기(전북 용안→함북 길주), 권태용(충남 노성→함남 삼수), 오희균(전북 김제→평북 위원) 등이었다.

그리고 경기도 포천군수 최두영 등 100명은 2월 28일자로 면직되었다.[40] 이들 면직된 군수 100명의 임지와 폐합된 121개의 군을 대조해보면, 불명확한 4개를 제외하고 50개의 군이 일치하여 최소 50명의 군수는 군의 폐합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음을 알 수 있다. 임지에서 물러난 군수 100명에게는 특별상여 5백원씩을 교부하기로 하였다.[41]

이어서 3월 1일자로 경기도 포천군수 서상준 등 110명에 대한 인사가 있었다. 이를 도별로 보면 다음 표와 같은데, 이들 110명은 위에서 보았듯이 신임 7명, 타도 전근 9명, 도내 전근 104명에 대한 것이다. 전체 220개 군의 군수 220명 가운데 이들 110명을 제외한 나머지 110명은 그대로 유임되었음을 의미한다.

도별	군수이름
경기	서상준(포천), 이윤영(가평), 주영환(용인), 민원식(이천), 윤성희(양평), 최태현(여주), 나호(안성), 김동항(진위), 이봉종(파주), 서정악(장단), 홍종국(연천), 정인소(부천)
충남	지선열(공주), 황우찬(서천), 안기선(부여), 장인원(청양), 신우선(당진), 조희갑(예산), 원은상(아산), 박용관(천안), 김영진(논산), 김창수(태전), 임연상(홍성)
전북	김진현(전주), 김태익(금산), 유기덕(장수), 유태영(진안), 송태승(김제), 김기홍(부안), 천장욱(고창), 유광열(순창), 임진섭(남원), 박철희(옥구)
전남	조병우(강진), 박윤동(영암), 김면수(나주), 채수강(함평), 고재열(함평), 이재화(진도), 유기량(무안), 민상현(화순), 최승칠(고흥)
경북	박영진(영덕), 이용한(칠곡), 권병선(의성), 이선호(봉화), 손해진(영양), 권태영(청송), 김봉진(고령), 심완진(성주), 이명원(예천), 이범익(달성), 김한은(영일), 이윤영(김천), 장윤규(영주)

40) 〈서임 급 사령〉, 《조선총독부관보》13책, 제477호(대정 3년 3월 5일자) ; 《매일신보》1914년 3월 3일(2면) '군수경질'.

41) 《매일신보》1914년 3월 3일(2면) '군수경질'.

도별	군수이름
경남	홍승균(함안), 신태무(밀양), 김철정(울산), 서기은(사천), 임영준(고성), 이찬영(남해), 원훈상(창원), 이장희(하동), 심능익(의령), 홍성욱(합천), 신태건(동래), 전태흥(통영), 손지현(창원)
황해	박희택(곡산), 조재풍(옹진), 이승칠(재령), 전기대(황주), 유진명(연백), 이성호(수안)
강원	오유영(원주), 심상희(영월), 이택규(울진), 이동혁(양양), 강창희(간성), 이계호(김화), 홍종한(화천), 김장현(양구)
평남	변시붕(중화), 강홍대(성천), 김석빈(강동), 김연상(강서), 한인근(용강), 전덕룡(영원), 박기석(대동), 김연선(평원)
평북	홍응관(용천), 윤석필(삭주), 유진순(벽동), 계응기(후창), 김상연(의주), 최남교(영변), 김영두(자성), 오헌균(위원), 김현수(박천), 이인수(초산)
함남	현장호(덕원), 이경선(문천), 박초양(고원), 홍종욱(북청), 권태용(삼수), 홍종희(신흥), 강필성(풍산)
함북	김정기(길주), 김경재(경원), 김정규(부령)

표 6 군수 이동상황[출전 : 《매일신보》1914년 3월 6일(2면) '신군수 在勤地']

경기도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명의 군수 가운데 유임된 군수는 양주의 김우식, 수원의 김관현, 광주의 강원달, 개성의 고원식, 강화의 유빈겸, 고양의 서상면, 김포의 차석민, 시흥의 윤필구 등 8명이고, 양평의 윤성희(이전 근무지 안산), 여주 최태현(안성), 장단 서정악(남양), 용인 주영환(이천), 파주 이봉종(교동), 이천 민원식(양지), 포천 서상준(파주), 안성 나호(양성), 가평 이윤영(죽산), 부천 정인소(장단), 진위 김동항(음죽), 연천 홍종국(마전) 등 12명이 도내 이동이다. 풍덕의 김영두는 평북 자성군으로 전근해갔다.[42]

전북도 사정이 비슷한데, 무주의 정종진, 익산의 박영철, 임실의 김태두, 정읍의 한욱 등 4명이 유임되었고, 남원의 임진섭(전주에서 도내 전근, 이하 같음), 전주의 김진현(금산), 진안의 유태영(함열), 옥구의 박철희(임피), 김제의 송태승(태인), 부안의 김기홍(금구), 고창의 천장욱(무주), 순창의 유광열(흥덕), 금산의 김태익(순창), 장수의 유기덕(운봉) 등 10명이 도내에서 이동되었으며, 진산 · 용담 · 장수 · 진안 · 고산 · 여산 · 만경 · 부안 · 고부 · 남원군 등의 군수 10명이 면관되었다. 그밖에 용안과 김제군의 군수는 타도 전근이었다.[43]

충남에서도 연기의 고의준, 보령의 김완진, 서산의 권익채 등 3명이 유임되었고, 공주의 지희열(직산) 대전의 김창수(회덕), 논산의 김영진(아산), 서천의 황우찬(대흥), 부여의

42) 《매일신보》1914년 3월 1일(2면) '경기군수이동'.
43) 《매일신보》1914년 3월 4일(2면) '전북군수이동'.

안기선(전의), 청양의 장인원(홍산), 당진의 신우선(연산), 홍성의 임연상(평택), 예산의 조의갑(온양), 아산의 원은상(예산), 천안 박용관(공주) 등 11명이 도내이동이었다.[44]

신임 군수 발령을 받은 군수는 부임길에 올랐는데, 강원도 김화군수 이계호(李啓浩)는 3월 15일 오후3시에 경원선으로 출발하였고,[45] 경기도 풍덕군수로 있다가 평북 자성군수로 전임된 김영두는 3월 17일에 평북 도청에 도착하여 수일간 도장관과 협의를 한 후 21일에 부임길에 올랐다.[46] 또 평남 중화군수 변시붕은 관내 각 면의 행정사무 등을 시찰한다는 목적으로 3월 17일 군의 서무·재무주임 및 서기와 함께 출장순회하기도 하였다.[47]

3) 면의 통폐합

(1) 면 통폐합의 내용

군의 폐합이 끝난 다음 4월 1일부로 면 폐합이 실시되었다. 그에 앞서 1910년 10월 1일에 〈면에 관한 규정〉이 총독부령 제8호로 공포되었다. 종전까지 면(面)·사(社)·방(坊)·부(部)·단(端) 등으로 지방에 따라 다르게 불리어 오던 것을 '면'으로 통일하고, 면의 지위를 최말단 지방행정기구로서 확정한 조치였다.[48] 그 내용은 면을 최하급 행정기관으로 하고 그 주무자인 면장의 임명에는 일본인 재무관리의 동의가 있도록 하며 면 운영경비는 자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49]

총독부 당국은 면의 역할에 주목하여 면을 통해 지방행정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1913년 3월 26일 각 도장관회의에서 사내(寺內)총독은 훈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면(面)에 이르러서는 지방 행정상(地方行政上) 추요(樞要)한 지위(地位)에 있으므로 행정의 발전과 민도(民度)의 진보에 비춰 최근 장래에 면 제도를 개정하여 적당한 규정을 설(設)함이라."[50] 면이 지방행정에서 중추적인 위치에 있음을 피력하였다. 면의 폐합은 도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도장관이 폐합을 조사 결정한 후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거쳐야 했는데, 면 폐합의 기준으로는 면적·지세 및 역사 등이 제시되었다.[51]

---

44) 《매일신보》1914년 3월 5일(2면) '충남군수이동'.
45) 《매일신보》1914년 3월 17일(2면) '金化倅 귀임'.
46) 《매일신보》1914년 3월 21일(4면) '평북 자성군수 부임'.
47) 《매일신보》1914년 3월 21일(4면) '평남 중화군수 출장순회'.
48) 손정목, 앞의 책, 118쪽.
49) 이상찬, 〈1906 ~1910년의 지방행정제도 변화와 지방자치논의〉, 《한국학보》42, 1986, 74쪽.
50) 《매일신보》 1913년 4월 27일(1면) '寺內총독의 훈시'.
51) 《매일신보》1914년 1월 15일(2면) '面里廢合在邇'.

이러한 면 폐합에 대하여 경기도장관 회원(檜垣)은 유고문을 통해, 경계가 개의 어금니처럼 들쭉날쭉(犬牙錯綜)하고 면비(面費)·호구(戶口)·자력(資力) 등의 차등이 심하여 면민의 부담이 많고 유지에 힘이 많이 소요되므로 시설을 통일하여 면민의 부담을 경감하며 면 경비의 재원을 풍부하게 함이 급선무라고 하였다.[52] 또 총독부 지방국장 소원(小原)은 종전의 면은 면적호수의 차이가 심하여 가장 큰 면은 179 방리 내지 150 방리에 이르고, 가장 작은 면은 1 방리 약 3분1에 불과한 곳도 있으며, 호수에서도 큰 면은 7천 4백호에 이르고 작은 면은 83호만이 있는 곳도 있다고 하면서 약 8백호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 이에 초과하는 면은 존속시키고, 이에 미달하는 면은 폐합할 계획이며 면적 4 방리 이상의 면 또는 지세·교통 등 관계상 폐합하기 어려운 면은 표준에 미달하더라도 존치시켰다고 밝혔다.[53]

이에 앞서 1913년 1월에 경기도 시흥군에서 이루어진 면의 폐합에서도 위와 같은 방침이 적용되었다.[54] 1912년 12월 28일 경기도장관이 총독부 내무부에 시흥군 하북면과 상북면을 통합하여 북면으로 명칭 변경하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하여 1913년 1월 6일자 문서에서 이를 인가하였는데, 양 면의 통합배경에 대하여 지형이 착종하여 경계를 판명할 수 없고, 양 면의 면적이 협소하며 호구도 근소하다고 하면서 그런 이유로 종래 면장 및 면서기가 양 면의 사무를 겸무하였다고 한다.

통합되기 전 하북면의 호수는 591호, 상북면의 호수는 595호였는데, 통합으로 1,216호가 되었다. 위에서 소원(小原) 지방국장이 제시한 800호 기준에 부합되는 내용이다. 또 토지세와 호구세에서도 하북면은 각각 792원과 329원이었으며 상북면은 1,168원, 176원이었는데, 통합으로 1,960원과 505원으로 되었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1913년에 경기도 시흥군의 면 통폐합에 적용된 기준은 1914년 4월에 실시된 면 통폐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방침과 기준은 훨씬 이전에 마련되어 있었고, 1914년 4월에는 단지 그것을 전국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의의가 있을 뿐이다.

1914년 4월에 있었던 조선 각도의 면 폐합은 각 도청에서 이미 조사를 마치고 실시는 군의 폐합발표 후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55] 경기도에서는 이미 2월 20일경 관내 면 폐합의 조사종료와 함께 그 승인을 받은 곳은 안성과 풍덕 2군이었다.[56]

---

52) 《매일신보》1914년 3월 15일(2면) '면폐합의 諭告文'.
53) 《매일신보》1914년 4월 15일(2면) '지방행정개혁(1)'.
54) 〈面ノ廢合 竝 名稱變更ノ件〉, 독립기념관 소장자료(자943).
55) 《매일신보》1914년 2월 19일(2면) '면폐합실시기'.
56) 《매일신보》1914년 2월 22일(2면) '경기도 면폐합기'.

그리하여 2월 하순에 면의 현재수는 4,338개인데, 천 5백여 개를 감축하리라 하였다.[57] 각 도별로 보면, 경기도에서는 492면 중 240면을 폐합하여 252면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하였고,[58] 다시 250개의 면으로 변경하였다.[59] 평남은 종래 면수 3백 4개 가운데 백여 개를 감축하려다가[60] 3월 1일 총독부 관보로 발표된 면수는 169개였다.[61] 절반 가까이 준 것이다. 전북에서도 도장관이 면폐합 실시에 관한 고시를 발포하였는데, 도내 1부 14군에 189면으로 하였다. 부군별로 면수를 보면, 군산 1, 옥구 10, 전주 20, 금산 10, 무주 6, 장수 7, 진안 11, 익산 18, 김제 17, 임실 12, 부안 10, 정읍 19, 고창 7, 순창 12, 남원 19개이다.[62] 황해도는 3월 24일 도령 제2호로 반포하였는데, 모두 227개 면이었다. 군별로 면의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해주 24, 연백 20, 금천 15, 신계 9, 평산 14, 곡산 12, 옹진 11, 장연 11, 송화 14, 재령 16, 서흥 12, 봉산 15, 수안 11, 신천 14, 안악 9, 황주 13, 은율 7개 등이다.[63]

그리하여 3월 상순에 황해도 장연군을 제외하고 면 폐합을 전부 마치어 전체 면수 4,337면 중(장연군의 21면 제외) 15개면은 부(府)에 편입, 4,301면은 2,513면으로 폐합하기로 하였다가[64] 3월 중순에 황해도 장연군의 면폐합도 전부 완료되어 4337면 가운데 12면이 부에 편입되어 2522면이 되었다.[65] 경기 · 충북 · 경북 · 평남 · 강원 · 함남 등은 이미 도령으로 발표되었다.

수원군은 1914년 이전에는 40면 459동리였다.[66] 1911년 수원군 남부면의 사례를 통해 면 행정의 실태를 살펴보면, 면사무소는 남수동에 있는 면장의 주택 구내에 있는 건물 1동이었다. 면장은 박세양인데, 전 중추원 의관(정3품)을 지냈고, 46세였다. 면에는 면 공전영수원과 서기가 각 1명씩 있었고, 사무가 번다할 때에는 면장의 사위와 장남 등이 보조했다. 아울러 면의 지도에 대해서는 남창동에 거주하는 경기도참사 김정식(풍화당 부당장)이 사실상 면장의 고문과 상담역을 했다.[67]

---

57) 《매일신보》1914년 2월 27일(2면) '면폐합 실시期'.
58) 《매일신보》1914년 2월 25일(2면) '경기도 면폐합'.
59) 《매일신보》1914년 3월 15일(2면) '경기의 면폐합'.
60) 《매일신보》1914년 2월 24일(4면) '평남 면폐합'.
61) 《매일신보》1914년 3월 4일(4면) '평남도청 면폐합'.
62) 《매일신보》1914년 3월 7일(4면) '전북 면폐합실시에 관한 고시 발포'.
63) 《매일신보》1914년 3월 29일(4면) '황해 관내 각군의 면제도 변경된 명칭과 구역'.
64) 《매일신보》1914년 3월 10일(2면) '면폐합 結了'.
65) 《매일신보》1914년 3월 20일(2면) '면 폐합의 결료'.
66)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9-11쪽.
67) 조선총독부, 《明治44년 12월 朝鮮各道優良面調査》, 1911, 1쪽.

이상을 통해서 볼 때 병합 직후까지도 면 행정이라는 것은 면장과 2명의 보조원이 행할 수 있을 만한 소규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4년의 수원군의 행정구역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 이후	수원군	남양군	광주군	안산군
수원군	남부면 북부면 일용면 형석면 송동면 매곡면 삼봉면 용복면 안녕면 산성면 문시면 남곡면 갈담면 공향면 장주면 태촌면 동북면 어탄면 청호면 초평면 정림면 남면 상홀면 양감면 감미면	일원(영흥면 대부면 제외-부천군에 속함)	의곡면 왕륜면	월곡면 북방면 성관면
진위군	토진면 서신리면 청룡면 숙성면 오정면 현암면 안외면 승량면 포내면 가사면 광덕면 언북면 수북면 율북면 종덕면			

표 7 1914년의 수원군 행정구역 개편 내용[출전 :《朝鮮總督府官報》1913년 12월 29일(호외)]
표의 색칠된 부분이 개편 이후 수원군의 행정구역

위 표를 보면, 수원군은 토진면 등 15면을 진위군에 이속시키고, 남부면 등 기존의 25면에다가 남양군 일원(부천군에 속하게 된 영흥면·대부면을 제외한 나머지)을 통합하고 다시 광주군의 의곡면과 왕륜면, 안산군의 월곡면, 북방면, 성관면을 넘겨받았다.

개편된 수원군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각 면은 대개 둘 이상의 면이 합해졌으며 이름도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신명칭	구명칭	신명칭	구명칭
수원면	남부면 북부면	日荊면	日用면 荊石면 남부면 북부면
台章면	章州면 台村면 남부면	安龍면	龍伏면 安寧면 남부면
梅松면	松洞면 梅谷면	峰潭면	三峰면 葛潭면
鄕南면	貢鄕면 남면, 남양군 分鄕里면	楊甘면	床笏면 楊澗면 甘味면 土津면
隱德면	남양군 陰德里면 禾尺只면 屯知串면	麻道면	남양군 雙樹里면 麻道면
松山면	남양군 松山면 水山면 細串면	西新면	남양군 西如堤면 新里면
飛鳳면	旀知串면 楮八里면	八灘면	남양군 팔탄면 수원군 공향면
長安면	남양군 長安면 草長면	雨汀면	남양군 雨井면 鴨汀면
儀旺면	광주군 儀谷면 旺倫면	正南면	수원군 南谷면 正林면
城湖면	수원군 漁灘면 草坪면 晴湖면 山城면 文市면	東灘면	동북면 어탄면
半月면	안산군 月谷면 北方면 聲串면		

표8 개편이후 수원군의 행정구역[출전 : 越智唯七,《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영인본), 1917, (경인문화사, 2000), 118-126쪽.]

개편이후 수원군의 행정구역을 보면, 과거 수원군에 속하던 일부 지역을 진위군에 넘겨

준 대신에 오늘날의 수원시를 중심으로 화성시, 의왕시, 오산시, 그리고 안산시의 일부를 포괄하는 매우 광대한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종래의 구역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던 반면에 새로 개편된 구역은 동서로 넓게 걸쳐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경부선의 철도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철도가 지나는 지역은 분할하여 철도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활권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하여 수원군의 남쪽 지역은 진위군에 속하게 하고, 대신 경부선이 관통하지 않는 서쪽 지역은 수원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권역으로 포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음으로 수원군 각 면의 동과 리의 정리에 대한 것이다. 먼저 군청소재지인 수원면은 군내 다른 면보다 앞서 1914년 4월 1일부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남창동이 남창리로, 매산동이 매산리로 되는 등 종전의 동, 리가 리로 통일되었고, 이전 11동, 1리가 6리(남창리, 남수리, 산누리, 매산리, 북수리, 신풍리)로 개편되었다.[68]

이어 군내 다른 면의 동리의 명칭과 구역이 정해졌는데, 1915년 1월 29일 경기도고시 제4호를 통해 수원면과 반월면을 제외한 나머지 각 면에 대해 촌, 리, 동을 리로 통일하여 일형면의 고등촌은 고등리로, 서둔촌과 매산리는 서둔리로, 화산동, 동촌, 고양동은 동리로 개편되었다.[69]

(2) 면장의 인사

전체 4,337개 면이 2,522개 면으로 약 1,800여 면이 감축되었다. 그에 따라 그 만큼의 면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 시기 총독부 당국의 면장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면장의 선택'이란 제목의 1914년 2월 13일자 사설이다. 이를 인용하면

> …혹 어느 면장은 교오 자처(驕傲自處)하여 인민을 제압한다 하며, 어느 면장은 목불식정(目不識丁)하여 공문(公文)이 하물(何物)인지 불해(不解)한다 하며, 어느 면장은 사무가 해이(解弛)하여 공문(公文)이 이르면 궤안 간(几案間)에 적치(積置)하여 인민은 여하한 명령이 있는지 부지(不知)한다 하며, 어느 면장은 공동 장지(共同葬地)를 택한다 칭하고 인민의 회물(賄物)을 받는다 하며, 어느 면장은 무뢰배(無賴輩)를 체결(締結)하여 자기의 송공비(頌功費)를 운동한다 하여 제반 폐습이 과연 일구 난설(一口難說)할지라…[70]

68) 조선총독부경기도고시 제9호, 《朝鮮總督府官報》, 제520호, 대정3년 4월 27일
69) 조선총독부경기도고시 제4호, 《朝鮮總督府官報》, 제757호, 대정4년 2월 13일

이라고 하여 많은 면장들이 교만하고 무식하며 근무기강이 해이하고 뇌물을 좋아한다는 등으로 평가하면서 면장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면 통폐합을 앞두고 면장 인사의 명분이 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면장의 임명에 일본인 재무관리의 동의를 거치게 한 것[71]과, 1913년의 평양부의 면장 경질에 대한 사례를 통해 면장인사의 기준은 납세실적이라는 재정과 관련된 것이 큰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13년 3월 29일부터 열린 평양부 관내 각 면장회의를 마치고 평양부윤은 면장을 대대적으로 경질하려고 하였다. 즉 "…각(各) 면 경비(面經費)의 세출입 예산편성(歲出入豫算編成) 및 납입고지서 식양 변경(納入告知書式樣 變更) 등 일반 사무의 쇄신을 꾀하기 위하여 금회(今回) 귀임(歸任)한 각 면장은 대 경질(大更迭)을 행(行)할터인데 본전 부윤(本田府尹)의 권고로 각 면장은 모두 사직원(辭職願)을 제출(提出)하였고 각 면의 합병을 실시한 후에는 각 면장의 신임(新任)이 있으리라더라."[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 및 면경비 등 재정과 관련된 이유에서였다.

면 폐합을 앞둔 1914년 2월 평양의 시족면장 김병관은 납세를 독려하여 가장 좋은 징세실적을 올렸는데, 이 역시 면 폐합과 면장의 인사를 의식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73]

한편 면 폐합 실시 이후 일본인을 면장에 임명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것은 다음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 …근일(近日) 지방민 사이에는 면폐합(面廢合) 실시 이후는 면장을 내지인(內地人)으로 임용한다는 부설(浮說)이 있으나 이는 본도(本道)에서는 절무(絶無)한 사실(事實)이요. 예컨대 대전(大田)과 같이 번영하여 내지인(內地人)의 주관(主管)이 많은 시가(市街)만 내지인(內地人)으로 면장을 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자는 담(談)…[74]

면 폐합을 앞두고 면장을 일본인으로 임명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총독부에서는 부인하고, 다만 대전과 같이 일본인의 주관이 많은 시가만 일본인 면장을 임명할 것임을 밝혔다. 이 시기 경기도 지역의 면장 임명 사례를 보면, 그 교체 폭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면장의 인사와 관련하여 김익한은, 1913년 경기도 492면 가운데 신임면장이 100

70) 《매일신보》1914년 2월 13일(사설) '면장의 선택'.
71) 이상찬, 앞 논문, 74쪽.
72) 《매일신보》 1913년 4월 6일(1면) '평양부의 면장 대경질'.
73) 《매일신보》1914년 2월 19일(4면) '평남 평양 세금징수'.
74) 《매일신보》1914년 2월 25일(4면) '평남 평양 면폐합'.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1914년 4월 1일자 인사에서 유임된 경우는 20명이었다고 하여 이는 '면장의 질(質)'과 관련된 것이고, 이 시기 새로 면장에 진출한 계층은 지역유지라기보다 일제 통치에 비교적 신속히 대응했던 새로운 세력일 것이라고 하였다.[75] 이정은에 의하면 이 시기 면장의 97%가 교체되었다고 한다.[76]

면 통폐합과 함께 부 지역의 면·동제도 변경되었는데, 종래 평양시내는 5면 64동이었다가 26리와 24정(町)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77] 이에 앞서 평양시내 각 정명(町名)이 다종착잡하여 불편하다는 이유로 각 명칭 및 구역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조사에 착수하였다.[78] 또 진남포도 부제변경을 계기로 시내 각 정명을 개정하려고 조사하였다.[79] 이후 평양과 진남포는 양 부의 면제폐지와 새로 개정하는 리 및 정의 명칭 및 구역에 대하여 그 준비가 이미 완료되어 관보로써 발포를 기다리고 있었다.[80]

경성부에서는 부군폐합 실시와 동시에 5부도 폐지하고 대신 3개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일반세금징수사항과 기타 법령반포에 관하여 보도(補導)기관으로 할 계획을 세웠다.[81]

3. 개편의 결과와 의미 : 맺음말을 대신하여

1) 부제 실시의 결과와 의미

부제의 실시로 인해 변화된 것 가운데 먼저 등기사무가 있는데, 관계 각국영사관의 외국인의 영대(永代) 차지권에 관한 등기사무는 재판소에서 승계하게 되었다.[82] 또 종래 부청에서 취급하던 등기사무도 전체 27개소의 지방재판소 및 동 지청에서 취급하게 되었고, 그 예산으로 2만 3천 5백여 원을 1914년도의 예산에 계상하였다.[83]

또 부제 실시로 인한 변화 가운데 두 번째는 부민의 세금납부의 의무에 대한 것인데,

---

75) 김익한, 〈일제의 초기 식민통치와 사회구조변화〉, 《일제식민통치연구1 : 1905~1919》, 백산서당, 1999, 197-200쪽.

76) 이정은, 〈일제의 지방통치체제 수립과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267쪽.

77) 《매일신보》1914년 3월 7일(4면) '평남 평양시내 구분'.

78) 《매일신보》1914년 1월 13일(1면) '평양시내 각정명 명칭 개정조사'.

79) 《매일신보》1914년 1월 13일(1면) '평남 진남포시내 각정명 개정조사'.

80) 《매일신보》1914년 3월 8일(4면) '평남 행정구역 이동'.

81) 《매일신보》1914년 2월 26일(2면) '5부 代에 출장소'.

82)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시정연보》(1914년도판), 24쪽.

83) 《매일신보》1914년 2월 26일(2면) '등기사무소관 변경'.

종래 경성부 관내와 같은 조선인에게만 과세하던 가옥세 · 주세 및 연초세 등은 일본인 또는 외국인에게도 모두 국세로 부과하게 되었고, 부세(府稅)도 시가지세 및 가옥세에 부가세를 과(課)하기로 하였는데, 부의 주민은 국적의 여하를 불구하고 그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하여 부세부담의 의무가 부과되어 종래 공과를 부담하지 않았던 영대 차지권자와 같은 부류도 토지소유자와 같이 부담할 의무가 생겼다.[84] 이로 인하여 진남포에 거주하는 일본인 시민은 부제 실시 후 지세문제에 관하여 협의하고 민회총대의 명의로 지세저감청원을 진남포 부청을 경유하야 총독에게 제출하였다.[85]

그밖에 경성부에서는 새로이 공동묘지의 관리를 맡게 되었고,[86] 평양부청에서는 평양청결조합을 관할하게 되었다.[87] 거류민단이나 한성위생회 등이 맡고 있던 업무 가운데 교육에 관한 것을 학교조합에 넘기고 나머지 모든 사무를 부에서 승계하게 하였던 결과이다.

이와 같이 부제 실시 후 외형적으로는 부에 거주하는 주민의 국적을 불문하고 세금납부의 의무를 지게 한 것처럼 보이나 이렇게 징수된 세금은 일본인 거주지역의 수도 · 방수비 등으로 지출되어 결국은 일본인 부담의 경감과 조선인 부담의 가중으로 나타났다.[88] 즉 과거에는 일본인 거류민단에서 일본인 민단회원들로부터 경비를 모금하여 그들의 경비로 지출하였는데, 거류민단의 업무가 부로 넘어가고 그 업무를 위한 경비를 부내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민에게서 세금으로 징수하게 됨으로써 조선인들과는 관계없는 사업의 경비를 위해 조선인들로 하여금 세금을 납부하게 한 것이다. 부제 실시의 본질은 여기에 있었다.

2) 군 폐합 반대운동과 군 폐합의 결과와 의미

부군 폐합의 발표는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조선인의 반발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갑오·을미개혁' 시기에도 부군폐합을 추진했다가 격렬한 반대운동으로 군 폐합계획이 무산된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길준은, "…내가 구한국 정부에 내부대신으로 재임하던 때에도 이를 선창(先唱)하여 십삼도(十三道) 백오십여군(百五十餘郡)에 축소코자 하다가 사 미반(事未半)에 사정(事情)의 불허(不許)함이 있어 미봉적으로 일부분에 폐합을 실행하였으나…"[89]라고 하여 반

84) 《매일신보》1914년 4월 10일(2면) '부제와 삼세'.
85) 《매일신보》1914년 3월 8일(4면) '평남 진남포 지세저감청원 제출'.
86) 《매일신보》1914년 3월 27일(2면) '부제와 공동묘지'.
87) 《매일신보》1914년 3월 29일(4면) '평남 평양청결조합은 부청에서 관할'.
88) 손정목, 앞의 책, 139-149쪽.
89) 《매일신보》1914년 1월 7일(1면) '부군폐합에 대하여'.

대운동이 심하여 군 통폐합계획을 결국 포기하였던 사정을 말하고 있다. 유길준은 '을미개혁'시기에 내부대신으로서 지방행정제도 개편을 추진하였으나[90]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김홍집 내각이 붕괴될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나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1907년 고종이 퇴위당한 후에 귀국하여 한성부민회 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구한국정부'라고 표현하였지만, 그것은 대한제국 선포 이전의 일로 엄밀하게 말하면 착오라고 할 수 있다. 부·군 폐합의 발표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던 것은 총독부 당국자들이 계획 무산 사태를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군폐합이 발표되자 총독부 당국자의 우려대로 몇몇 지방에서는 폐합 반대운동을 벌였다. 다음의 기사는 그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 …단 이삼 지방은 금회(今回) 개정에 대하여 불평의 오해를 품고 위원을 파송(派送)하여 당국에 진정함이 있는지라.
> 그 오해의 근원을 살피건대 지리의 관계와 사세(事勢)의 경중(輕重)은 알지 못하고, 혹은 이 지방은 크고 저 지방은 작거늘 어찌 이것을 저것에 합하는가 하며, 혹은 우리 군은 군수가 없어 조사 당시에 한 푼[一分]의 운동이 없었다 하며, 혹은 군참사(郡參事) 등을 매원(埋怨)하여 저는 군(郡)의 대소사를 필히 먼저 알 것이니 부군 폐합 논의가 발생할 때에 민속(敏速)히 운동하여 이를 취소치 못함으로 말미암았다 하여 항론(巷論)이 불일(不一)하나 이는 몰상식(沒常識)에서 나옴이라…[91]

> …금회 부군 폐합에도 몰상식한 자는 혹 관리(官吏)의 멸력(蔑力)을 원(怨)하여 이미 발표한 명령을 취소(取消)코자 하여 운동을 시(試)함도 있으니 전도(全道)에 걸쳐 지공무사(至公無私)로 일시에 단행하는 사업을 일, 이군(一二郡)을 위하여 변경이 있을까…[92]

폐합 반대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은 군수가 무능하여 총독부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자신이 거주하는 군이 폐합되었다고 생각하고 진정위원을 파견하였다. 그들은 자기 고장의 관리가 무능하여 폐합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반대운동을 나선 이유는 부군폐합의 결과 군아 소재지의 이동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선인들의 군 폐합 반대운동에 대해 총독부에서는 지방행정 및 경제교통

90) 윤정애, 〈한말 지방제도 개혁의 연구〉,《역사학보》105, 1985, 85쪽.
91) 《매일신보》1914년 1월 21일 사설(1면) '부군폐합과 民情'.
92) 《매일신보》1914년 2월 1일(사설) '면리폐합의 실행'.

과 역사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것이며 13도 전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2, 3지방의 진정이나 운동으로 변경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이들 진정위원들은 총독부의 설득에 굴복하였다.[93]

부·군 폐합에 대한 반발에 대하여 설득과 함께 민심무마에 나서기도 하여 전라북도 임피에서는 군 폐합으로 저하된 민심을 고무시키기 위하여 군수·군내 유지·천기(川崎) 농장주 및 기타 조선인 부호의 발기로 산업조합 설립에 착수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충당할 자금 2만원을 모집하여 군내 농가의 부업으로 연직기(멍석짜는 기계)를 각 호에 배부하여 부업을 장려하기도 하였다.[94]

군 폐합 발표와 함께 조선인들이 보인 또 다른 부정적 반응은 군 폐합 후에 일본인 군수가 임명될 것이라는 풍문과 관련된 것이었으나 총독부에서는 즉각 부인하면서 무마에 나섰다.[95] 아울러 부군폐합과 함께 각군 참사 2명씩을 감축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평남도청에서는 8명의 군참사를 면직하고 특별위로금 20원씩을 주었다. 그 8명은 용강군의 노승룡, 중화군의 이회섭, 상원군의 박정규, 순안군의 한원근과 박응선, 영유군의 상기철과 김시봉, 강서군의 김낙요 등이다.[96] 또 폐군의 군서기 등 고용원들은 다른 군청으로 전근케 할 방침을 취하여[97] 함남의 신창군서기 이기호는 함흥군서기로 전근하였고,[98] 함흥군에서는 군서기를 증원하기도 하였다.[99]

부군 폐합에 따라 달라진 현상으로 먼저 2, 3개 군에 1명씩 배치하던 농사순회교사 및 금융조합 기수를 각 군에 한 명씩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100] 아울러 헌병대와 경찰서의 관할구역도 다소 변동이 생겨 헌병 및 경찰관의 배치도 변경하게 되었다.[101] 또 공립보통학교 설립 예정구역도 부군의 구역과 동일하게 하도록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그 구역설정에 대한 신청이 필요한 학교는 옥구보통학교이고, 장차 그 구역의 변경신청을 요하는 지역은 군산·익산·전주·김제·고창·정읍·금산·진안·남원·부안·임실·순창 등 1부 11군으로[102] 무주와 장수군을 제외한 모든 부·군이었다.

---

93) 《매일신보》1914년 1월 18일(2면) '부군폐합과 민심'; 《매일신보》1914년 1월 21일(사설) '부군폐합과 民情'.
94) 《매일신보》1914년 3월 5일(4면) '전북 임피 산업조합'
95) 《매일신보》1914년 1월 18일(2면) '부군폐합과 민심'.
96) 《매일신보》1914년 3월 4일(4면) '평남도청 군참사 면직'.
97) 《매일신보》1914년 3월 20일(2면) '廢郡雇員의 전근'.
98) 《매일신보》1914년 3월 28일(4면) '함남 함흥군 서기 전근부임'.
99) 《매일신보》1914년 3월 24일(4면) '함남 함흥군 군서기 증원'. 증원된 3명은 山崎査?, 梅田宗二郎, 李東根 등이다.
100) 《매일신보》1914년 2월 22일(4면) '평남 평양 농사순회교사 증원'.
101) 《매일신보》1914년 2월 22일(4면) '평남 도내 헌병대 경찰서 관할구역 변동'.
102) 《매일신보》1914년 3월 6일(4면) '전북 공립보통학교 설립구역 설정 병 변경'.

군 폐합에 대하여 총독부 당국에서는 각 지역 모두 종래의 교통 불편을 제거하고 군 개수의 감소와 군 직원에 대한 정원의 집중 및 감소로 인해 경비 총액 171,773원을 절감하였다고 자랑하였다.[103] 이때 군 개수의 감소와 함께 일제의 식민통치에 비협조적인 군수들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군 통폐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부·면·읍 등 도 아래에 있는 지방행정단위에 대한 조치들(부제·면제·읍제)이 차례로 시행되었지만, 그 가운데 유독 군에 대한 조치(군제)는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여파는 해방 후에까지 미쳐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 시기에 시행된 지방자치제의 대상에서 오직 군만 제외되었다. 1949년에 공포된 지방자치법을 시발점으로 하여 5·16쿠데타로 지방자치제가 폐지되기까지 사이에 실시되었던 1950년대의 지방선거에서도 시·읍·면의원 및 시·읍·면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있었지만, 군 의원이나 군수를 선출하는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이후 1991년 부활된 지방선거에 가서야 군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3) 면 통폐합의 결과와 의미

면 통폐합 전과 후의 각 도내 면의 평균면적과 평균호수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면 적(단위: 방리)		호 수(단위 호)	
	전	후	전	후
경기	1.6	3.1	688	1,100
충북	2.5	4.3	685	1,198
충남	1.4	3.2	538	1,190
전북	1.4	2.9	578	1,158
전남	2.1	3.4	793	1,277
경북	2.1	3.9	702	1,296
경남	1.7	3.0	711	1,180
황해	3.4	5.3	700	1,077
평남	3.5	6.2	684	1,128
평북	8.0	10.7	775	1,032
강원	8.4	11.1	793	1,051
함남	9.9	13.2	1,007	1,310

103)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시정연보》(1914년도판), 30쪽.

구 분	면 적(단위: 방리)		호 수(단위 호)	
	전	후	전	후
함북	8.9	13.8	664	1,013
계	3.3	5.7	705	1,164

표 9 통폐합 전후 면의 도별 평균 면적 및 호수[출전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시정연보》,(1914년도판). 30쪽.]

먼저 면적에서는 종전 전국 평균 3.3 방리에서 5.7 방리로 확대되었고, 또 도별로 보면 이전에는 최소 1.4(충남 · 전북)에서 최대 9.9(함남)로 7.1배의 편차를 보였는데, 통폐합 이후에는 최소 2.9(전북)에서 최대 13.8(함북)로 그 편차는 4.8로 좁혀졌다. 호수에서도 종전 705호에서 1,164호로 증가되었으며, 도별로 볼 때 이전에는 최소 538(충남)에서 최대 1,007(함남)로 그 편차는 1.87배였으나, 이후에는 최소 1,013(함북)에서 최대 1,310(함남)으로 1.29로 좁혀졌다. 그런데 위의 총독부 관계자의 말과 이 표를 비교할 때 평균 면적에 대한 내용은 맞아 떨어지지만 평균호수에서는 맞지 않아 그가 잘못된 자료로 이야기했거나 기사를 작성할 때 착오가 있었던 듯하다.

총독부 관계자는 면 통폐합의 결과에 대하여 종래의 면의 평균 면적이 3.3 방리에서 5.7 방리로 되었으며 호수는 평균 102호에서 1,118호로 되었고 종전 면의 지세액(국세)은 평균 1,574원이었으나 폐합의 결과 2,697원이 되어 면의 자력(資力) 은 견실하고 면민의 부담은 경감되었다고 자랑하였다.[104] 또 면수의 감소로 지도감독의 주도를 기할 수 있게 되었고, 면비 336,000여 원이 감액되었으며, 면적 · 호구 등에서 종래의 현격한 차등이 완화되었다고 하였다.[105] 아울러 면 부과금 중 1호당 부담액이 1913년도의 97전 9리에서 1914년도에는 76전 5리로 줄어들었다고 하였다.[106] 1910년대 면경비(세입 및 세출)의 연도별 상황에 의하면, 1914년의 호구세와 토지세는 전 해에 비하여 각각 66,915원과 499,812원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면비의 감액 및 1호당 부담액의 감소는 면동리의 폐합으로 인한 인건비의 대폭적인 절감에 기인한 것인데, 실제로 면장수장 및 면서기 급료 등 인건비 지급을 위한 세출이 1913년 2,535,064원에서 2,071,245원으로 463,819원 줄어들었다.[107] 그러나 1918년부터는 다시 세입과 세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04) 《매일신보》1914년 4월 16일(2면) '지방행정개혁(2)'.
105)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시정연보》(1914년도판), 30쪽.
106)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시정연보》(1914년도판), 38쪽.
107) 홍순권, 〈일제 초기의 면 운영과 '조선면제'의 성립〉, 《역사와 현실》23, 1997, 156-157쪽.

조선총독부의
지방제도 개편 논리

조선총독부의 지방제도 개편 논리

최재성(청암대학교 연구교수)

1. 여는글

일제강점기 조선의 지방제도는 '도-부·군·도(島)-읍·면-정(町)·동·리'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각 행정단위에 법적 능력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제도는 각각 도제, 부제, 읍면제로 완성되었다. 시간 순서로 보면 1914년에 부제, 1917년에 면제, 1931년에 읍면제가 차례로 시행된 이후 1933년 도제가 실시되면서 완성되었다. 근 20년 가까운 세월을 거친 것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조선의 지방제도에 법령을 통한 제도 시행을 하면서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무엇이었을까. 달리 말하면 그들은 왜 조선의 지방제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긴 세월을 소비하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고 노력했을까. 이 의문에 답을 얻기 위해 총독부 당국자의 직접 발언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위로는 총독, 정무총감, 내무부장관(관제개혁 이후에는 내무국장), 지방국장의 담화 등이 그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그 시행의 시간 순서에 따라 부제와 학교조합령 공포, 부·군 폐합, 부제와 학교조합령 시행, 면제의 시행, 면협의회, 학교평의회, 도평의회의 설치, 부제 · 읍면제 · 도제 · 학교조합령 및 학교비령 개폐, 도제 시행을 대상으로 일제의 논리를 제시한다.

2. 부제와 학교조합령 공포

일제는 1913년 10월 30일 조선총독부관보 호외로써 부제(府制) 및 학교조합령을 개정

공포하였다. 부제는 '제령 제7호'로 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는 법인으로 함. 관의 감독을 승(承)하여 그 공공사무 및 법령에 의하여 부에 속한 사무를 처리함"(제1조), "부에 협의회를 두고 부윤 및 협의회원으로써 이를 조직함."(제11조 제1항)

학교조합령은 제령 제8호로 공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학교조합은 법인으로 함. 관의 감독을 승(承)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내지인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제1조), "학교조합에 조합회를 둠."(제5조), "학교조합에 관리자를 둠"(제10조 제1항), "관리자는 조합원 중에서 도장관이 이를 명함. 그 임기는 3년으로 함"(제10조 제2항), "부의 구역을 포함한 학교조합에서는 부윤이 그 관리자의 직무를 행함."(제10조 제4항) 등이다.

요컨대 이 시기 부제와 학교조합령의 주요 내용은 부와 학교조합을 모두 법인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제와 학교조합령은 19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내무장관 담, 「부제 급 학교조합령에 대ᄒᆞ야」, 『매일신보』, 1913년 11월 2일

조선 각 주요지의 행정조직은 유래(由來)에 극히 복잡하여 내지인(즉 일본인-인용자)은 거류민단을 조직하고 조선인은 직접으로 부윤, 면장의 치하에 입(立)하며 다시 개항장에서는 각국 거류지, 전관 거류지의 제도가 있어 특수의 행정을 행하였고, 기타 경성에서는 내선인으로 조직한 한성위생회가 있으며 기타의 시가지에서는 위생조합이 있어 동일한 지역 내에서 목적을 동일히 한 2중첩, 3중첩의 기관이 분립·병존하였을지라도 이들 제 기관은 모두 그 기능이 충분치 못하여 거류민단의 행정소 및 처는 단지 내지인에 그치고, 각국 거류지회의 권능은 거류지 외에는 일보도 나가기 불능하며 한성위생회·위생조합은 위생사무를 처리하는 특종 기관이나 위생조합 등은 협의적(協議的)으로 성립한 단체에 불과하고, 경성·평양·대구·원산 기타의 시가지에서 내지인과 동수 내지 3배되는 인구를 가진 조선인은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하등의 기관을 구비치 못하였는즉 이들 시가지에서 그 전 지역에 대하여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데 개괄적 권한을 가진 하급의 행정기관이 없으니 시가지 전부에 걸쳐 시행치 않으면 그 목적을 달하기 불능한 시설 등은 여하히 시가의 발전 또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함에 필요하다 할지라도 유래의 조직으로는 완전히 시행함을 부득(不得)하니 이를 사례에 징(徵)컨대 위생사무 등이 유래로 불소(不少)한 지장을 감(感)한 바이라. 유래로 조선인은 위생사상이 유치하여 그 시가지는 극히 오예(汚穢)하고 전염병의 발생이 사시(四時) 부절(不絶)하니 이로써 내지인 또는 거류지의 위생상태를 양호히 유지코자 하면 적어도 동일 시가지의 선인의 위생상태를 개량하여 시가지의 청결을

도(圖)치 않으면 그 실적을 수(收)키 불능한데, 그 권력이 내지인 또는 거류지의 범위에 한제(限制)되었으므로써 모두 조선인에 대하여 그 시설이 불급(不及)하니 실로 경성의 한성위생회 등과 기타 도시의 위생조합 등은 이 결점을 보(補)하기 위하여 생(生)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필경 일시(一時)를 호도하기 위하여 부득이에서 출(出)한 조치에 불과하고 또 한성위생회는 단지 내지인·조선인 뿐으로써 조직한 것인데 그 권력이 시가의 중앙부 기타에 산재한 다수의 지나인 및 타 외인에게 불급하며 또 경성 이외의 위생조합에서는 협의적의 단체인 고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하등 강제권을 갖지 못한 동시에 사무의 처리, 사업의 집행 상에 유감이 있음을 불면(不免)하였도다.

다시 토목사업을 보건대 왕시(往時)에는 각국 거류지, 전관 거류지는 고사하고 그 이외의 잡거지라 할지라도 내지인은 대체로 지역을 한하여 집단하였으므로 도로·구거(溝渠)의 개수 및 기타의 공사도 자연 지역적으로 한정되었으나 병합 후에는 내지인의 내주(來住)하는 자가 증가할 뿐 아니라 유래 내지인 집단지 이외에 주(住)하여 선인과 잡거하는 자가 점다(漸多)함에 이르렀으므로 민단에서 도로·구거 등의 개수를 시행할 지역은 시가지의 전부에 걸쳐 확장되었도다. 그러나 사실은 재정상의 관계로 인하여 민단에서 내선인 잡거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토목공사를 완성할 여력이 없는 결과 이와 같은 지역은 토목사업에 관하여 거의 불고(不顧)하였으므로 민단을 조직한 내지인으로써 동일한 공과(公課)를 부담함을 불구하고 직접으로 향수한 이익에 차등이 생(生)함에 이르렀고, 또 근래 시가의 발전과 동시에 각지 수도(水道)의 부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수도의 설비는 본래 주민 전부의 부담으로써 경영함이 지당하다 할지라도 현재 거류민단 이외에 이와 같은 사업을 경영함에 적당한 단체가 없으므로 부산·목포·군산 및 원산의 각 민단 등과 같이 포설(布設)의 시급을 요하는 시가지에서는 민단에서 시설을 완료하고 또는 계획함에 이르렀고 또 그 사업에 의하여 받은 이익은 내지인에 한정키 불능하며 내지인 이외의 자는 근소한 사용료를 지불할 뿐이요, 내지인과 동일한 이익을 향유하였으니 다시 이와 유사한 사례의 현저한 것은 신의주 민단의 방수제(防水堤)의 설비라. 이는 신의주 시가의 생명이라 칭할만한 공사인데 그 이익을 향유하는 점은 내지인됨과 조선인됨과 외국인됨을 불문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으며 그 축제(築堤) 경비는 국고 보조에 관한 것을 제한 외에는 단지 2천 1백여의 내지인이 이를 부담하고 1천 6백의 조선인과 1천 4백의 지나인은 하등의 부담이 없고도 그 이(利)를 향(享)하는도다.

이상의 열거함은 1,2의 현저한 사실뿐인데, 이외 병원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도수장(屠獸場)이라든지 대범(大凡) 주민의 복리를 증진함에 필요한 시설에 관하여 한편 그 시설을 행하는 단체는 당연히 부담할 정도 이상의 부담을 하는 동시에 다른 편에서 단체원이 아

닌 시가지 주민은 부당한 이익을 향(享)하여 극히 불공평한 결과를 생(生)하므로써 이와 같은 제도가 영속함은 망(望)치 않음은 다언(多言)을 불수(不須)하고 원래 거류민단 거류지의 제도 및 한성위생회 등 외국의 영토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병합 당시에 이미 정리되었을 것이나 당시는 오히려 연구할 조건이 있었으므로 권의(權宜)의 처치로 구제(舊制)를 존속하였는데 이제 시기가 도래하여 전술(前述)의 제도를 철폐하고 새로 부제를 제정하여 학교조합령을 개정한 결과 이에 비로소 통일한 행정의 실시를 보리로다.

부제 및 학교조합령의 대강을 거(擧)하면, 부는 법인으로 하고 부 구역의 제반 공공사무를 처리하되 단 내지인의 교육사업은 이를 학교조합의 경영에 위(委)하였은즉 유래 거류민단, 각국 거류지회, 한성위생회에 관한 사무는 물론 조선인 간 또는 내지인 조선인 간에서 협의적으로 처리할 사항도 부의 사무로 통일 처리할지요, 현재의 제도 하에서 조우한 기다(幾多)의 장해(障害)·한격(捍格)도 이로 인하여 제거됨을 득하리로다.

부의 사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이사자를 부윤으로 하고 부윤은 관리로써 한편 부내의 국가 행정사무를 장(掌)하는 동시에 부의 공공단체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통할하는 임무를 가지니 이같은 관리된 부윤으로 하여금 부의 사무에 대하여 전반의 책임을 부(負)케 함은 조선의 현상을 감(鑑)하고 민도(民度)를 고(考)하여 선거제도, 의회제도 등의 적절한 제도가 아닌 소이요, 또 부윤으로 하여금 만반의 공공사무를 원만히 집행하고 양호한 성적을 거(擧)케 하기 위하여 부에 협의회를 설(設)하고 협의회에 자문할 사항은 부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의 편성, 기채 및 중요한 재산 처분 등이며 협의회원은 부 주민중에서 도장관이 이를 선임할지라도 그 선임에 당하여 특히 총독의 인가를 요하니 이 그 전형을 신중히 하는 뜻에서 나옴이요, 부윤 외 부의 관리도 또한 필요에 응하여 공공단체된 부의 행정사무에 종사함을 득(得)케 함은 오로지 처무(處務)의 편의와 비용의 절약을 계(計)함인데 이로 위하여 유래 민단 경비의 주요한 부분을 점한 사무비는 현저히 절감함을 득(得)할지오.

부의 경비는 부에 관한 재산 수입, 사용료 등에서 생(生)하는 수입 외에 부세로써 지변(支辨)하다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채함을 득하니 유래 민단 등에서는 그 사업에 의하여 이익을 향(享)하는 것이 있음을 불구하고 내지인 이외에는 하등 비용을 부담케 함을 부득(不得)하였으나 신제(新制)에 의하면 부의 주민된 이상에는 내지인됨과 조선인됨과 또는 외국인됨을 불문하고 일반이 부세 기타 공과를 납(納)하는 의무를 부(負)하였도다.

부의 내지인 교육은 신설한 학교조합에서 이를 경영하나니 유래 민단구역의 내지인 교육은 민단에서 경영하였으므로 학교조합령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으나 신제에 의하면 부는 내선인을 불문하고 일반이 부 주민으로 공통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 결과 내지인은

특수한 교육 사업은 현재의 민단 구역 외에서 함과 같이 내지인 뿐으로써 조직하는 학교조합으로 하여금 경영케 함이 적당함을 인정함이오.

개정 조합령에 의한즉 부의 구역 중에 기다의 조합을 설(設)함을 인정치 않고 반드시 부의 구역에 의하며 또는 부의 구역을 포함하여 조합구역을 정함이 필요하며, 그 부의 구역에 의하지 않고 부 이외의 지역도 조합구역에 편입함을 인정한 고로 금후에 새로 제정할 부의 구역은 종래의 민단 구역에 비하면 작다 할지라도 유래 민단에 속하였던 내지인은 유래와 같이 의연(依然)히 교육을 받는 편리를 가지므로 하등 불편을 생(生)할 염려가 없으며, 부의 구역에 의하며 또는 부의 구역을 포함한 학교조합에서는 부윤이 관리자의 직무를 행하며 또 필요가 있는 때는 부의 관리로 하여금 학교조합의 사무에 종사케 함을 득함은 부제와 같다 할지라도 학교조합에는 선거에 의한 직원으로써 조직한 조합회를 두니 이 조합은 유래로 자치의 소양이 있는 내지인 뿐으로써 조직한 사정에 감(鑑)하여 그 교육사무를 수행함에 적당한 제도가 되는 소이라. 현재의 학교조합은 교육사무 외에 부대사업으로 위생사무를 처리함을 인정하였으나 개정 조합령은 이를 개(改)하고 학교조합은 그 본연의 목적된 교육사무만 처리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신설 학교조합 중 수도, 도수장, 묘지, 화장장 등을 경영하는 것은 당분간 종전과 같이 이를 경영함을 득할지오.

학교조합의 경비는 재산수입 등에 의한 외에 조합비를 사(俟)하다가 부득이한 특수의 사정이 있는 때는 기채를 득하고, 또 종래 수수료 이외 사용료를 징함을 부득하며 또 부역·현품을 부과함을 부득하였으나 개정 학교조합령은 이들의 권능을 명정(明定)하였고, 구제의 폐지에 관하여 중요한 문제는 거류민단, 각국 거류지회 및 한성위생회 등에 속한 재산, 부채 기타 일체의 권리·의무의 계승에 관한 사항이라. 각국 거류지 및 한성위생회의 권리 의무는 일괄하여 부가 이를 계승하게 되었으나 거류민단의 권리 의무는 그 성질에 의하여 일부는 부, 일부는 학교조합에 이속케 하고, 또 재산 또는 기채의 성질에 의하여 그 계승 구분이 판연(判然)치 못한 것이 있는 때는 도장관이 총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결정하고 민단 재산은 내지인 다년의 고심 성립한 것으로서 도장관은 예선(豫先) 이 처분에 대하여 민단의 의향을 징(徵)하는 수단을 채(採)할지오. 유래의 민단사업은 태반 교육사업에 있는 사정을 고(顧)하여 특정한 목적을 갖지 않은 수익재산 등은 영(寧)히 교육비의 자원으로 인정할 것이므로 그 대부분은 학교조합에 이속할지오.

부제 및 학교조합령의 실시는 외국 거류지 철폐의 실시와 관련한 것이므로 이제 졸연히 그 기일을 명언(明言)키 불능하나 아마 명년도의 개시로써 실시될지오.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부령 등은 그 예정으로써 축차 발포(發布)할지로다.

3. 부·군 폐합, 부제와 학교조합령 시행

부제와 학교조합령 제정과 공포에 따라 1914년 3월부터 부·군·면·동·리 통폐합이 시작되고, 4월에 부제와 학교조합령이 시행되었다.

모 당국자의 담, 「부군폐합에 就하여」, 『매일신보』, 1913년 12월 29일 호외

부와 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대개 구한 정부시대의 시행하던 바를 습용하다가 병합될 시에 2,3군을 고쳐 부로 하고, 부를 고쳐 군으로 하며 그후에 다소간의 경계를 변경하였을지라도 그 수에서는 증감이 없이 12부 317군으로써 금일에 이르렀도다. 그러나 이들 부군은 그 경역의 광협이 심히 구구하여 큰 것은 5백 방리 이상에 달하여 넉넉히 한 도의 면적과 필적한 것이 있되, 작은 것에 이르러는 겨우 3방리에 불과하여 한 면의 크기에 미치지 못함이 있고, 또 호수로 보아도 큰 것은 2만 8천 여호에 달하되, 작은 것은 1천 3백여 호에 불과하여 상위함이 현저하며 또 이들 구역은 반드시 지세(地勢)의 적부와 교통의 편부 등에 의함이 아니요, 처마를 격(隔)하여 경역을 달리하는 바가 있는지라. 고로 부군의 대소를 완화하고 또 경계의 정리를 꾀하여 하나는 행정상 불편을 교정하며 하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케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인식하여 작년래로 이 조사를 시행(始行)하여 신중히 심의한 후 마침내 금회에 이를 발포하고 대정3년 3월 1일로부터 실시하게 되었도다.

금회의 부군 폐합의 주지(主旨)는 도내 부군 경계의 정리를 목적함이로되, 지세 관계상 1,2도의 관할 구역을 변경한 것이 없지 않고, 이제 그 결과에 의하면 종래 12부 317군 중 폐합의 관계가 전무한 것은 71군이요, 기타 부군은 대소의 차는 있으나 모두 그 경역이 변경되어 새 부군의 수가 실로 12부 220군이 되며 부에서는 증감이 없을지라도 군에서는 97군을 감하였도다. 각 도에서 이를 보건대

▲부군폐합 일람표

도명	현재 부군수	폐합후 부군수	증감
경기도	38	22	16
충청북도	18	10	8
충청남도	37	14	23
전라북도	28	15	13
전라남도	29	23	6

경상북도	41	24	17
경상남도	29	21	8
황해도	19	17	2
강원도	25	21	4
평안남도	19	16	3
평안북도	21	20	1
함경남도	14	17	▲3
함경북도	11	12	▲1
합계	329	232	(감)97

과 같아 폐합의 수가 남선지방에 많고 북선지방에 적은 중 특히 함경남북도에는 도리어 그 수를 증가하였으니 이는 남선지방은 비교적 작은 군이 많으나 북선지방의 군은 대개 광대하여 폐합의 여지가 적음에 의함이요, 또 함경남도와 같음은 지역의 광대함을 불구하고 부군의 수가 심히 적어 행정상 불편이 큼으로써 특히 부군을 분할하여 새 군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인식함에 있음이로다.

이상 폐합한 결과에 의하면 한 군 관할구역이 대개 광대됨을 인하여 군내에서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이정(里程)도 또한 대개 연장되므로 지방에 있는 백성 중 다소의 불편을 입음을 면하기 어려움과 같되, 종래 부군에 재임한 관리는 그 수가 비교적 소수요, 또 최근 지방의 발전을 수반하여 축년(逐年) 그 사무가 격증됨을 인하여 휴일을 폐하고 조출(早出) 만퇴(晩退)로써 직무에 앙장(鞅掌)하나 오히려 사무에 망쇄(忙殺)하여 거의 다른 일을 돌아볼 여가가 없는 상황이더니 폐합한 결과로 자연 한 군 재근(在勤) 관리의 정원이 증가되어 종래의 최다수(最多數)한 일본인 2명을 배치한 군과 같은 것은 불과 굴지(屈指)할 상태가 되고 대부분은 3명 이상의 배치함을 득(得)하는 동시에 사무 진척상 다대한 편의를 득할지라. 고로 지방 발전상 그 효과가 다대하겠으며 따라서 지방 인민의 다소 불편함과 같음은 이를 보(補)하여 유여(有餘)함을 믿노라.

「寺內총독의 훈시 13일 도장관회의석상에서」, 『매일신보』, 1914년 4월 14일

(전략) 객년 10월로써 부제 및 학교조합령을 발포하고 단 본년 3월 이후 부·군 및 면의 구역을 정리하고, 부제 및 학교조합령은 본월 1일로써 이를 시행한지라. (중략) 부군 및 면의 구획 변경도 또한 지방 행정상의 일대 혁신이라. 이는 일반의 제도 정리상 원래 피치

못할 조치에 속하나 각 지방의 연혁, 관습 또는 감정상으로부터 당분간 혹은 다소의 지오(支吾)[1]를 生할 우려가 불무(不無)이니 각위(各位)는 모름지기 이 사이에 처하여 상하의 의사 소통에 노력하고 지방의 실황에 감(鑑)하여 민심의 융화를 도(圖)하여써 개심(改心)[2]의 취지를 완전케 하기를 면려할지어다. 병합 이래로 예의(銳意) 진췌(盡瘁)한 시정 기관의 정리는 금회의 지방제도 정리로써 일단 완결을 고하였다 위(謂)할지라. (후략)

小原 지방국장 담, 「지방행정개혁(1)」, 『매일신보』, 1914년 4월 15일

금회에 결행한 조선 지방행정의 개혁은 행정구역의 변경에 관한 것 및 거류민단의 폐지에 따른 제도 변경의 두 개로 이루어졌고, 지방행정구역의 변경 즉 부·군·면의 폐합은 위주하여 지형·민정(民情)의 여하, 면적의 대소, 호구의 다과 및 다년의 연혁 등에 비춰 충분한 조사를 마치되 조금도 유감이 없게 하기를 기하였으나 각 도 다수의 부군면에 대하여 일제히 이 폐합을 기도함으로 다소의 분규를 미면(未免)하리라 함은 당국자도 몰래 우려하던 바인데, 그 후의 보고를 징(徵)하건대 각 지방을 통하여 예상 외의 정온(靜穩)한 중에서 무사히 폐합을 종료하였음은 실로 흔쾌 불감(不堪)하는 바이라. 원래 군청 및 면사무소의 위치 등에 관하여는 극히 소수한 지방에서 다소의 고정(苦情)[3]을 들었으나 이 또한 당국 관헌의 설유에 열복(悅服)하여 즉시 평온에 귀(歸)하고 그렇지 않은 자로 점차 평온에 귀함은 가장 기쁠 일이로다.

폐합 전의 상황

폐합 전에 군 상황을 시견(試見)하건대, 그 면적의 최대한 것은 5백 03방리에 걸치고, 그 최소한 것은 겨우 3방리에 불과하며 그 호수에 대하여 보아도 최다는 2만 7천 호에 달하고, 최소는 1천 8백여 호에 불과한 상태에 있더라. (중략) 조선 종래의 군은 그 구역이 심히 권형(權衡)을 잃었음은 쉽게 미루어 알 수 있을지로다. 구 한국정부에서도 일찍이 대대적 군의 폐합을 기획한 일이 있으나 정폐(情弊)[4]의 방애(防碍)로 인하여 겨우 일부분을 결행함에 불과하였더라.

---

1) 서로 어긋남.
2) 改心은 改正의 오식으로 보임.
3) 괴로운 사정.
4) 정실에 이끌려 일어나는 폐단.

군 폐합의 방침

이번 군 폐합의 방침은 크게 무릇 한 군의 면적 약 40방리 및 호수 약 1만호로써 표준을 짓고 이 표준 이하의 면적 또는 호수를 가진 것은 이를 폐합하되 그 이상의 것은 될수록 유래대로 존치할 방침을 지켰도다. 그러나 함경남도 등은 군의 면적이 심히 방대하여 행정상 불편이 적지 않으므로써 분할을 단행한 것이 세 군이 있으니 곧 갑산·북청 양 군의 일부를 떼어 풍산군을 새로 두고, 원산부 및 안변군의 각 일부를 떼어 덕원군을 신설하였으며, 다시 면적 40방리 미만의 것이라도 지세 또는 인접 군의 관계상 폐합을 행하기 어려운 것은 유래대로 존치하는 동시에 도서(島嶼)에서는 관할상의 편부(便否)를 조사하여 종래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여 다른 도에 편입한 것이 있으니 즉 경남의 울릉도를 경북에 옮기고, 충남의 어청도·죽도·연도 및 개야도를 전북에 옮기고, 전남의 고군산도를 전북에 속하게 한지라. 이에 폐합 전의 조선의 군은 317군이던 것이 폐합 후 오늘에는 97군이 줄어 220군이 되고, 또 종전의 평균 면적 45방리이던 것이 폐합 후는 65방리가 되고, 호수 평균 8천 9백 5십 7호이던 것이 1만 3천 4백 십 2호가 되었더라.

표준 초과 이유

전술한 결과에 의하면 군 폐합의 표준 면적 및 호수는 실제상 예정을 초과함이 조금큼과 같으나 이는 북부 조선이 지세·교통 및 개발의 정도 등 각종의 관계상 오늘날 졸연히 이를 분할할 필요가 없으므로 종전대로 이를 방치한 결과에 다름아니고, 군 폐합의 결과 군의 경비는 현저히 절감할 터이나 종래 군서기는 극히 과소(寡少)함을 불구하고 군 사무는 갈수록 복잡 번망하여 종래의 정원으로는 낮밤을 이어도 오히려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폐군의 군서기는 대개 이를 다른 군에 늘려 배치하였고, 단 군수·군참사는 군 수(數)의 감소에 따라 그 인원을 줄임에 불과한지라. 사정이 이와 같으니 경비의 절감은 아직 용이한 일이 아니요, 또 군명은 대개 신 군청 소재지의 구 군명을 답습하여 일반의 기억에 편하게 하였고, 또 혹시 호명(呼名)이 서로 같은 군이나 부의 일부를 나누어 새 군을 설치한 곳에는 역사상 근거 있는 명칭을 붙였고,

금후의 군 행정

생각건대 금후의 군 행정은 종전에 비하면 면적에는 팽창한 것이 있으나 이 사무를 담당할 인원에 증원을 행한 고로 하등의 불편이 없기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군 행정의

내용을 충실할 수 있는 것이라 이르겠고, 한편 도의 사무도 이를 인하여 사무의 간편을 기할 수 있을지니 비유하건대 종래 40군을 관리하던 도가 20군으로 감소되어 수리(受理)[5]의 건수 및 발송에 건수에서도 (실제에는 단순한 계수뿐으로 추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약 그 반수를 줄임은 명백하고 또 종전에 비하면 지방관리의 여력을 새 방면의 사무에 신장(伸張)하고, 다시 종전 사무에 온힘을 집중할 수 없을지오.

부 및 면의 폐합

또 부의 구역은 민단 폐지와 함께 이를 축소하여 시가지 및 장래 시가지에 편입할 토지로써 그 구역을 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접 군에 나눠 속하게 하며 또 새로 한 군을 조직하게 하였고, 그 다음은 면의 폐합인데, 이 또한 종전의 면적·호수는 극히 불통일에 빠져 최대한 면은 179방리 내지 150방리에 미치는 곳도 있는지라. (중략) 또 그 최소한 면에서는 1방리 약 3분 1에 불과한 곳도 있으며 또 호수에서도 큰 것은 7천 4백호, 작은 것은 83호를 가진 것도 있었으나 이번 폐합의 결과는 약 8백호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 이에 초과하는 면은 그대로 두고, 이에 미달하는 것은 폐합할 계획을 세우고, 또 면적 4방리 이상의 면 또는 지세·교통 등 관계상 폐합하기 불가능한 것은 표준에 미달할지라도 그대로 이를 존치할 방침을 지켰으며 이 지세·교통 등의 관계 외에 고래의 풍속·연혁과 같은 것은 이를 존중하는 동시에 폐합의 결과 면민의 화충(和衷)[6]·협동을 결하거나 시정상의 장애가 없도록 가장 주의한 바이라.

小原 지방국장 담, 「지방행정개혁(2)」, 『매일신보』, 1914년 4월 16일

면민 부담의 경감

면 폐합의 결과 종래 4천 3백 2십 2를 헤아리던 면수(面數)는 약 1천 8백을 줄여 2천 5백 2십 2면으로 하고, 또 종래의 면적은 평균 3방리 3이던 것이 5방리 7이 되었으며, 호수는 이왕에 약 평균 6백 2호이던 것이 1천 백 18호로 되었으니 면비를 줄임에 따라 얻을 이익은 군 폐합에 의하여 도의 사무를 간편하게 함과 같이 군의 사무도 또한 감소됨에 따라 한편으로 군에서는 그 정원 증가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여력을 군 행정에

5) 서류를 받아서 처리함.
6) 마음을 합함. 충심으로 화합함.

쓸 수 있을지요, 특히 면민은 그 부담을 경감하였도다. 이제 숫자를 들어 설명하건대 종전 면의 지세액(국세)은 평균 1천 5백 7십 4원에 불과하던 것으로 폐합의 결과 2천 6백 9십 7원의 계산이 되었고, 이를 이번 결정한 지세 □징액에 분배하여 계산하면, 1914년 이후의 1면 평균 지세액은 3천 6백 6십 2원 즉 약 2배 반의 증가를 보이겠고, 따라서 이에 부가할 면비 지세부가금도 종전의 율보다는 크게 증가할 터이며 이에 더해 호수에서도 종래의 평균에 비하면 배가될 터이니 호별할(戶別割)에서도 약 2배의 증가를 보일지니 이로 인하여 면의 자력(資力)은 견실하고 면민의 부담은 경감되기에 이르렀다.

면경비 여력 함양

그러나 시세의 진운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의 부담은 점차 증가될 것은 사세(事勢)에 미면할 것이라. 고로 오늘부터 면비는 이를 절약하게 할 방침을 지키지 않으면 훗날 국고 및 지방비의 재원을 고갈하게 할 우려가 있으니 면 부과금은 면 폐합과 동시에 크게 그 제한을 저하할 방침이라. 즉 병합 전에는 면비 부과금 및 지세 부과금은 지세 본세(本稅) 1원에 대하여 50전, 북부지방에서는 80전을 부과하였더니 폐합과 함께 본세 1원에 대하여 20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및 강원도의 5도에는 30전을 제한으로 하고, 이 이상은 특히 본부[7]에 승인이 없고는 이 제한을 초과함을 불명하게 하였고, 면비 절약에 대하여는 폐합 이전에는 혹 1인의 면장으로 여러 면의 사무를 겸하며, 동리에도 1인의 동리장으로 여러 면의 동리 사무를 겸하며, 또 면주인[8]도 될수록 이를 감소하게 하여 절약을 기하였더니 폐합 후에는 인원을 감소하고 경비의 절약을 계득(計得)하는 동시에 면장·면서기 및 동리장의 수당 및 기타 사무소비, 이원(吏員) 여비와 같은 것도 본부로부터 일정한 표준을 보여 엄중히 면 경비의 팽대(膨大)를 막아 그 여력을 함양할 계획이라.

행정구역의 획일

이상에 술(述)한 바와 같이 군 및 면의 작은 것은 폐합에 의해 그 면적·호구 및 자력을 크게 한 터요, 종전부터 큰 군 및 면은 그대로 두었으니 이는 대개 북부 조선에 한하여 민도 보급 및 지세 등의 관계상 부득이에 나온 것이라. 그러나 이들 지방은 금후에 인구가 점차 촘촘하여 착착 개발하기에 이르면 장래 다시 적당한 분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를 낳

7) 조선총독부.
8) 조선 시대, 주나 부, 군, 현과 면 사이를 오가며 문서 심부름을 하던 사람.

을 것은 물론이라. 요컨대 조선의 지방행정구역의 획일은 금후 개발 정도가 각 그 권형을 지키기 전에는 용이히 이를 실현하기 어렵도다.

小原 지방국장 담, 「지방행정개혁(3)」, 『매일신보』, 1914년 4월 18일

면제도의 조사

부군면에 관한 행정제도 개혁에 대해 술(述)하건대 면의 법률상 지위는 오늘날도 옛날과 다름이 없으니 즉 법제상의 면은 아직 공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나 종래 면 재산을 소유한 자는 그 재산의 관리 및 이용의 능력을 인정함은 물론이요, 경비를 요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혹은 노력(勞力)에 인하여 공익이 될 사업을 영(營)함과 같음은 오늘날에 절대로 이를 금지하지 않을 방침이니, 비유컨대 국유지의 양여를 받아 공동묘지를 경영하며 혹은 무료로 묘목의 배부를 받아 면의 부역에 의해 모범림을 경영하고, 한편으로는 면의 재산을 조성하며 혹은 경비를 투입하지 않고 종묘의 배부를 받아 면민의 노력(勞力)에 의하여 종묘장을 설치함과 같은 것은 이를 인정할 방침인데, 이들 사업은 이번 경혁(更革)의 결과가 아니라. 면의 제도는 훗날 다시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을 시기(時機)가 도래할 줄로 믿노라. 특히 각 도청 소재지 및 개성·수원·대전·진해 등과 같이 호구에든지 자력에든지 부제 시행에 비하면 심히 현격한 개소(個所)에 대하여는 하루라도 속히 면제도를 정할 필요를 인식하여 현재 조사 중이오.

부제도 실시 주의

다음에 부에 대한 제도에 대하여 술하건대 화두가 불가불 민단 폐지의 문제에 미칠지라. 민단 소재지의 행정조직은 종래 극히 불통일로 내지인에 대하여는 민단제를 시행하고 조선인에 대하여는 면제도를 인정하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각국 거류지의 제도가 존재함과 기타 예컨대 위생사무를 위하여 한성위생회가 있고 기타 지방에서 소방조·위생조합 등이 있어 극히 복잡한 상황에 있었으나 병합한 오늘날 길게 이 현상에 방임함이 불가함은 말을 불사(不俟)[9]할 것이라. 민단 폐지의 방침은 일찍이 합병 당시 총독의 고유(告諭) 중에 공표된 바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대신할 제도가 문제가 되었고, 또 각국 거류지 제도의 철폐에 관하여 외국까지 교섭 사건이 있었으므로 오늘날까지 늘어진 바 민단 폐지

9) 기다리지 않다.

의 결과 어떠한 지방제도를 포(布)함이 좋을까 하는 점에 대해 각종의 의견이 있고 또 이 가부에 대하여도 각종의 견해를 낳았도다. 그러나 조선 현재의 민도에 비추고 또 각반의 사정을 돌아보아 이번과 같이 내지인 교육에 관하여는 학교조합을 두고 기타 사무는 조선인·내지인을 합하여 일종의 단체를 인정할 방침을 취하였고, 부제의 내용에 대하여는 감히 말할 바가 아니나 부는 이를 재정단체로 하여 일정한 공공사업을 영위하게 하고 그 예산 및 부의 중요한 조례는 모두 부의 자문기관이 되는 협의원에게 자문하고 이 의견을 참작하야 부윤으로 하여금 부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조직이라. 부제 시행에 즈음하여 당국에서 가장 주의한 점은 제도의 개폐와 함께 부민의 부담을 격증하지 않게 할 방침이라. 이 방침을 관철키 위하여 부의 사무는 대개 면의 관리되는 부윤 및 부서기로 하여금 이에 당하게 하고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의 비용으로써 부의 임원을 둘 수 있게 하며 학교조합에 대하여는 부윤은 이의 관리자가 되고 군서기는 조합 사무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그러나 부제 시행의 초년도에서 재정의 팽창을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로지 민단의 계획을 답습하게 하고 신 사업과 같은 것은 함부로 이를 일으키지 않을 방침을 취하고 또 한편으로 부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계상하였고,

小原 지방국장 담, 「지방행정개혁(4)」, 『매일신보』, 1914.04.19.

재산 분할의 표준에 있는 재정

가령 조선인에게 대한 행정은 그 범위를 늘렸으나 이에 대하여 한편으로 조선인에게도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결과 부민의 부담은 학교조합의 경비를 가산하나 오히려 또 당시의 부담에 비하면 대개 증가되지 않을 터이라. 또 각국 거류지가 있는 지방은 종래 거류지의 총토지의 차지료를 징수하여 그 일부는 거류지회의 사업비 및 사무에 투입하였으나 거류지 폐철의 결과 일본정부 및 각국 정부의 용지는 무세지(無稅地)가 되었으므로 혹은 다소 부담을 증가할런지도 모르며 또 부제 시행에 따라 민단의 재산을 부 및 학교조합에 분할할 표준에 대하여는 당국에서 고심하였을 뿐 아니라 각 민단에서도 각종의 의견을 가졌더니 결국 대체로 교육에 관한 것은 이를 학교조합에 옮기고 기타는 이를 부에 인계할 방침으로써 대개 평온히 이를 처분함은 실로 하례할 만하다. 또 민단의 폐지에 따라 민단 의원·이원(吏員) 및 부속원, 각국 거류지회 회두·의원·사무원, 한성위생회 회장·평의원 등에 대하여 이들 단체 예산에 그 여유가 없음을 생각하고 퇴직 급여금·위로금 및 공로표창비를 일정의 표준에 의해 국고로부터 보조하기로 하고 또 민단 이원 및 각국 거류지회 사무원은 그 자격에 의해 될수록 부서기 혹 부 이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도다.

공동이익의 증진

종래 내지인이 그 혼자 힘에 인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재산·교육에 관한 것 외에 부에 인계하게 한 것은 누차 이에 대한 비난의 소리를 들었으나 병합 후 오늘에 이르러 조선인은 동포로 또 동일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대우함이 가할 뿐 아니라 한국병합의 취지가 조선 인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본토의 산업을 개발하여 제국의 기초를 공고하게 하고 그에 의해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함에 있으므로 금후 시정의 방침은 이밖에 다른 길이 없을지라. 부제도의 하에서는 부득이한 사항 예컨대 교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조선인과 내지인을 구별한 것과 같은 것은 도저히 통치의 방침과 일치하지 않겠거든 하물며 내지인은 부제 시행에 인하여 종래 그 경영한 사업 또는 그 이익은 그대로 이를 향수하고 또 그 남은 은택을 새로운 동포에게 나눔은 오히려 그 당연한 책무가 됨이리오. 또 신정(新政) 시행을 인하여 종래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 관행이 없는 조선인이 내지인과 함께 부비(府費)를 부담한 일에 상도(想到)[10]하면 내지인된 자가 이에 대하여 고정(苦情)을 창(唱)함과 같음은 크게 자성(自省)할 바이오. 또 특히 신중한 고려를 비(費)한 터인데, 조선인의 부담을 격증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부세 부과목(賦課目)도 징수상 될수록 간이한 것을 선(選)하고 또 자력의 정도에 응하여 내지인·조선인에 대하여 그 안배(按排)에 과오되지 않는 일은 가장 용의(用意)한 바이오.

부(府) 내지인의 책무

면제도에 관하여는 전술과 같이 장래 이 제정을 필요로 함이 가하나 먼저 그 이전에 필요한 변혁은 이번 개정으로써 일단락을 고한 것으로 일단락을 고한 것이라 말한 행정제도의 개폐에 관하여 술(述)한 사항은 대략 이상 여러 점에 벗어나지 않으나 이 개폐된 제도를 기초로 하여 장래 여하한 행정의 운용을 완(完)하고, 특히 조선인·내지인을 합동하여 그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지방의 발전을 수(遂)하게 함에 대하여는 또 숱한 신중의 고려와 주도(周到)의 용의를 요함은 여러 말이 필요없음이라. 부비의 급격한 팽창은 물론 이를 경계함이 옳으나 시세의 변천에 따라 토목·위생·소방·권업 기타 일반 공익사업에 수많은 경비를 요함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 이에 대한 준비는 부민된 자가 그 각오를 필요로 하는 바 이에 응할 도(道)는 다만 각자 원만한 일치 협력과 분려(奮勵)에 의하여 실력의 발전을 계도(計圖)함에 있으며 혹 의미에는 부제는 원래 지방제도로는 완전하다 말하지 못할

10) 생각이 미침.

지라. 그러나 그 소위 완전한 제도에 시행은 요컨대 부민 실력의 충실과 원만한 부민 상호의 일치 협력을 실현한 후에 비로소 이를 가망할 것이라. 대체로 이것이 본토의 현상(現狀)에 처함에는 실로 당연의 순서임은 의심이 없도다.

4. 면제의 시행

1917년 6월 9일 '면제'와 '면제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제령 제1호로 공포된 '면제'는 다음의 내용이 골자였다. ① 면은 법령에 의하여 면에 속하게 한 사무를 처리함(1조), ② 면의 사무는 면장이 이를 담임함(2조), ③ 면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해 유급 또는 무급의 면리원을 둘 수 있음. 면리원은 군수 또는 도사가 이를 임면함. 면리원은 면장의 명을 承하여 사무에 종사함(3조), ④ 조선총독은 면을 지정하고 면장의 자문에 응케 하기 위하여 상담역을 둘 수 있음(4조)

면의 능력을 법제상으로 명확케 한 것이다. 또 면은 보통면과 지정면으로 구분되었다. 둘 사이의 차이를 우선 표면적으로 구분해 보면, 판임관이 임명되는 보통면과 달리 지정면에는 주임관이 임명되었다. 면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내무부장관 宇佐美勝夫 담, 「면제도의 제정에 就하여 제정의 취지와 규정의 梗概」, 『매일신보』, 1917년 6월 10일

제정의 경로(徑路)

면제도 제정의 필요는 병합 당시에 이미 이를 인식하였으나 그 체양(體樣)의 여하는 단(單)히 지방주민의 이해에 관계되는 바가 다대할 뿐 아니라 국운의 소장에 영향되는 바도 불소(不少)하고 또 그 제도는 여하히 완비하더라도 이 운용에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 효과를 거두기 곤란할 뿐 아니라 도리어 폐해를 양성(釀成)하는 우려가 있는 고로 병합 당시에는 잠시 조선 고래의 제(制)에 칙(則)하여 최하급의 국가 행정구획으로 면을 존치하고 면에 면장을 두어 군수·도사의 사무를 보조 집행케 하고 면제도의 설정에 관하여는 이를 훗날 연구에 맡기고 이래 다년 이 조사의 걸음을 나아가는 동시에 오로지 면제도 시행상의 준비를 정돈하게 하기를 기하여 혹은 면의 면리원을 훈련하여 집무방법을 개선하며 혹은 면경비를 절약하여 훗날의 씀에 갖추기를 꾀하였으니 원래 그 내용의 정비는 금후 아직 숱한 노력을 기다릴지나 이제 면장 기타 면리원은 겨우 사무에 습숙(習熟)하여 그

정리가 자못 볼만한 것이 있으니 이를 병합 당시에 비하면 실로 격세의 감이 없지 않도다. 그러나 한편으로 병합 이래 지방의 제반 사물이 침침(駸駸)하게 진보·개선의 기운에 향하여 산업상 토목·위생 등에 관하여 공개적(公盖的)[11] 시설을 요할 것이 더욱 다대함에 이르렀으나 현시 지방에서는 이들 사업을 경영할만한 제도·설비가 없으므로 혹은 조합·계 또는 회(會) 등을 설(設)하며 혹은 면민 공동의 협의적 사업으로 이를 경영케 하는 터이라. 이로 인하여 지방사무의 통일을 결(缺)하고 완급이 득의(得宜)치 못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민의 부담이 헛되이 중해지는 경향이 있는지라. 이에 이들 사업을 통일하여 경영할만한 하등 방법을 설(設)함이 더욱 필요하기에 이르며 한편에는 지방제도 시행의 준비가 약성(略成)되는 동시에, 다른 면에는 더욱 통절히 그 필요를 느낌에 이르렀으므로 이번 면제를 공포한 면은 재산을 두고 또 정도의 사업을 경영할만한 것을 공인하기에 이르렀으니 대개 장래 지방 공익상 비보(裨補)될 바가 선소(鮮少)치 않을 줄로 믿노라.

면제의 정신

생각건대 병합 이래 지방의 발전이 저대(著大)하나 그러나 이를 내지와 같은 선진지방에 비하면 아직 진보의 도정(道程)에 나아갔다 함에 불과하고 도로 교통의 개선, 산업의 장려, 위생의 개량 등도 현재의 시설로써 만족할 것이 아니요, 장차 그 개선·충실에 관하여 시설할 사항이 진실로 다대하다 하리로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경비를 요하겠고, 그 중대한 것에 관하여는 국고 또는 지방비로 이를 지출할지나 국고 및 지방비의 재원에는 한이 있어 충분히 그 지출을 바라기 어려우므로 지방적 공익상 시설에 관하여는 오로지 지방민의 부담에 의하여 경영할 것은 자연의 세(勢)요, 면제 제정된 소이도 또한 이에 있도다. 바꾸어 조선 민도의 현상을 보건대 병합 이래의 노력에 의하여 생활상태가 점차 개선되어 금일에는 옛날과 같이 유리(遊離)·곤비(困憊)의 상황이 없으나 아직도 겨우 치산(治産)의 길을 얻었음에 지나지 않고 생계상 여유에 이르러는 아직 이를 장래에 기할지라도 가령 공익상 필요에 기(基)함일지라도 주민의 부담을 증가함은 도저히 견딜 바가 아닌고로 면제에는 아무쪼록 면민의 부담을 증가치 않고 지방의 개선·진보에 이바지하기를 기하여 현(現)에 각종 단체에 의하여 경영되는 각종 사업을 면에 통일하고, 그 질서적 발달을 꾀함과 함께 장래 민도의 향상에 따라 서서히 시설을 확장할 방침을 채(採)함이라. 세인은 면제로써 내지의 정촌제(町村制)에 비하여 지방제도의 일대 혁신인 듯이

11) 公益的의 오식인 듯.

간주하는 자도 있으나 이를 고래의 관례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에 비출 때는 단지 그 형식을 정돈함에 그치고 그 실질에는 현상의 종합에 다름 아니며 장래 세운의 추이와 함께 면사업이 점차 발전케 하기는 희망하는 바이나 면에 사업능력을 인정한 고로 졸연히 신사업을 일으켜 면민의 부담을 증가함은 이를 피치 않음이 불가하니 요는 면민의 경제적 능력과 사업의 완급 요부를 고찰하여 착실한 발달을 기함에 있도다.

상술(上述)과 같이 면제는 고래의 관행과 현재의 실상을 기초로 하고 그 능력을 법제상으로 명확케 함에 불과하고 새로 그 권능을 확대한 것이 아니나 그러나 현시의 면은 또 상황이 구구하여 내선인이 다수 집단한 시가지와 같음은 그 자력과 그 사업에 다른 일반 면과는 자못 그 취(趣)가 달라 거의 부(府)에 가까운 것이 있으니 이와 같은 면을 다른 면과 동일하게 율(律)함은 실정에 맞지 않는 터이므로 이와 같은 면에 대하여 그 권능 및 기관에 관하여 다소 그 취(趣)를 달리 하고 자문기관으로 상담역을 두는 동시에 부담의 능력을 부여(附與)하여 실제상의 필요에 응하게 함을 기하였도다. 또 면제의 규정에 대하여 그 경개(梗槪)를 술(述)하면 다음과 같도다.

면의 사무

면이 처리할 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면에 속하게 한 사무'에 한한 고로 법령에 의하여 면에 속하게 하지 않은 사항은 가령 면민의 공익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유로 이를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함이로다. 그런데 다른 법령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 면이 처리할 사무는 면제 시행규칙으로써 이를 규정하였으니 곧 다음과 같도다.

1. 도로 교량, 도선(渡船), 하천 제방, 관개 배수
2. 시장, 조림, 농사경영 축산 기타 산업의 개량 보급, 해조충(害鳥蟲) 구제
3. 묘지, 화장장, 도장(屠場), 상수, 하수, 전염병 예방, 오물의 처치
4. 소방, 수방(水防)

이상 열거한 사항은 본래 면의 능력을 인정함에 그쳐 일양(一樣)으로 각 면으로 하여금 이를 경영케 하려는 취지가 아님은 물론인즉 마땅히 면의 실상에 응하여 이를 취사 채택할 것임과 함께 면에 의하여는 전기(前記) 이외의 사무를 처리하는 필요를 느끼는 일이 없지 않을 터이므로 이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 이와 같이 면사무의 종류를 한정하였음은 앞에 진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상황에는 면에서 앞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면 대체로 지방의 필요에 응하기에 족한 동시에 민도가

아직 낮고 따라서 면의 자력이 또한 심히 결핍한 고로 면으로 하여금 하등의 제한이 없이 일반적 공공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혹은 사업을 함부로 일으켜 면민의 부담을 과중케 함과 함께 면의 기초를 위태케 할 염려가 없지 않으므로 당분간은 극히 필요한 것에 한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면의 확실 원만한 발달을 기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나 앞의 사무 중 도장(屠場), 공동 우물, 공동 변소, 묘포(苗圃), 채종전(採種田), 도로의 개수, 농업상의 간이 강습회와 같음은 현재 이미 그 필요에 핍박되어 조합 혹은 계의 사업으로 하며 또는 면민의 공동사업으로 이를 경영하는 것이 많으므로 면제도 시행의 효(曉)에는 이들은 면에 통일 경영케 할 방침이라. 끝으로 한마디 할 것은 교육에 관한 사항을 면의 사무 중에서 제외한 것이니 이는 교육에 관하여는 별도로 학교조합령 및 보통학교비용령이 있어 내선인이 모두 그 경영방법이 확립하였으므로 이를 면의 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는 까닭이라.

면의 직원

면직원은 대체로 종래의 예에 의하여 심한 변경을 가하지 않고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면에 한하여 자문기관으로 상담역을 둘 것으로 하였으니 곧 보통면의 직원은 면장, 면서기, 회계원 및 구장이요, 그 임면 직책 등은 종래와 다른 바가 없으며 다만 회계원은 종래는 될수록 이를 두지 않을 방침을 지켜 병합전 공전영수원을 특히 둔 시대의 폐풍을 제거하고 면경비의 절약을 꾀하였으나 면에 사업 경영의 능력을 인정하는 이상은 회계사무도 또한 번잡하게 되겠고 또 금전의 출납을 명하는 자와 금전의 출납을 장(掌)하는 자와는 다른 사람으로 분장(分掌)하게 하여 호상 견제하게 함은 공금의 망실을 예방하는 일조(一助)됨을 잃지 않을 터이므로 금후는 원칙으로 이를 두기로 하고 면의 상황에 의하여는 도장관의 인가를 얻어 이를 두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하였고 또 구장은 종래의 동리장에 상당한 자이라. 종래 면사무는 면사무소에서 이를 직접 처리하고 될수록 동리장을 번잡케 하지 않을 방침을 지켜 왔으나 곤□의 오래됨은 쉽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어려워 아직 사실상 동리장을 번잡케 할 일이 적지 않고 또 장래에도 가령 면사무의 대부분은 면사무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범위의 사무는 동리장으로 하여금 이를 보조케 함이 면행정의 집행상 편익이 적지 않을 줄로 인정하였으므로 면제 시행후에도 이를 두기로 하였도다. 그런데 동리장은 원래 동리민의 총대와 같은 자인 고로 동리 안에 있는 유력한 인물을 거(擧)할 필요가 있으나 종래 동리장은 흡사 동리에 있는 소사(小使)와 같이 간주하여 일반이 이를 비하하는 풍습이 있고 동리 내 유력자는 그 직에 나아감을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번 참에 동리장이란 명칭을 고쳐 이를 구장이라 칭하고 종래의

폐풍을 일소하여 적임자를 얻을 일조가 되게 함을 기하였도다.

상담역은 앞에 한마디 함과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면에 한하여 이를 둘 것으로 하였으니 대개 시가지 등 내선인이 다수 집단한 면에서는 그 경영할 사업이 적지 않을지요, 따라서 면민의 부담도 비교적 많을 터인 고로 면내 유력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에 제공함은 면행정의 운용상 적당으로 인정함에 말미암은 바이라. 그런데 상담역은 그 이름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면장의 상담 대수(對手)가 될 자이라. 고로 헛되이 구설적(口舌的) 변론을 농(弄)하여 의론의 부(府)가 되게 하지 않고 극히 간담적(懇談的)으로 면무에 관한 의견을 술하여 면행정이 원활히 행하도록 진력케 함으로써 그 주안을 삼은 것이로다.

면의 재무

면경비의 재원으로 하여금 될수록 면의 소유에 속한 재산 또는 면민의 비교적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입에 의하게 함은 가장 바라는 바이므로 장래에 더욱 면유 재산의 조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새로 면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였도다. 그러나 이들 수입만으로 면비를 지변(支辨)케 함은 극히 지난한 안(案)인고로 면은 부과금 및 부역 현품을 징수할 수 잇음은 종래와 다른 바가 없도다. 그런데 면 부과금의 종류는 대체로 종래의 예에 의해 지세할·시가지세할 및 호별할로 하고, 특히 필요가 있는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지세할·시가지세할 및 호별할의 제한액은 이를 종래에 비하건대 다소 증액을 봄에 이르렀으니 이는 사업경영의 능력을 인정한 결과 새로 그 재원을 부여할 필요에 나온 것이나 한편에는 사업 통일의 결과 각종의 조합비 또는 협의비와 같은 부담을 경감케 할 터이므로 실제에 있는 면민의 부담은 새 사업을 경영하지 않음에 한하여 도리어 감소함이 있을지나 증가함과 같음은 없을 것을 믿노라. 면의 재무에 관하여 또 말할 것이 있으니 면은 면부과금을 징수하여 매년도에 있는 필요한 경비를 지변할 수 있을 터인고로 보통 경우에는 그 경비 지변상 하등 장애를 낳지 않을지나 내선인이 다수 집단하여 그 상황이 부(府)에 준할만한 면에서는 때로 혹시 다액의 경비를 요할 사업을 경영할 필요를 낳는 경우에는 일시 부채를 일으키고 수년에 걸쳐 이를 분담케 할 방도를 강구함은 재정상 가장 적당한 조치로 인식하고 상담역을 둔 면에 한하여 일정한 경우에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차입금을 할 수 있게 함이라. 또 현재에는 일시의 차입금도 이를 허하지 않을 방침을 채(採)하였으나 면비 징수 시기의 관계상 일시 면의 현금에 부족을 낳고 지불에 곤란을 부르는 경우가 없지 않을지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래 혹은 지불을 연기하고 또는 면장 등이 사금(私金)으로써 입체(立替)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일시 이를 호도할 상황이라. 그러나 이와 같음은 즉 폐해의 소인(素因)됨을

면하지 못하겠으므로 예산 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시 차입금 함을 할 수 있게 하여 면비 경리의 불편을 제하기로 하였도다.

면조합

면에서 처리할 사무는 대개 한 면의 관계에만 그치고 다른 면의 이해와 직접 관련하는 것은 희소하나 왕왕 인접 면과 공동하여 경영함이 아니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키 어려운 경우(각종의 도로 교량, 도선의 류) 또는 인접 면과 공동하여 이를 경영함을 편의로 하는 경우[혹 격리 병사(病舍), 도장, 묘포의 류]가 없지 않으므로 이들의 경우에는 면조합을 설(設)하고 서로 공통하여 이를 경영케 할 방도를 강구함은 가장 필요한 바이므로 도장관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면조합을 설할 수 있게 하였도다. 또 조합사무의 관리 방법, 조합비용의 지변 방법 등 조합 조직상 중요한 사항은 이로써 규약을 정하게 하고 기타 사항은 대개 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노라.

5. 면협의회, 학교평의회, 도평의회의 설치

1920년 7월 29일 면제가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에 대한 것으로 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면에 협의회를 둔다는 것이었다. 협의회는 면장 및 면협의회원으로써 조직하고, 협의회원의 정원은 8인 이상 14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선총독이 정하며 협의회는 면장으로써 의장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1917년의 면제에 비해 개정된 것은 상담역 대신에 협의회원을 두고, 지정면에 한해 선거를 통해 협의회원을 선출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같은 날 부제가 개정(제령제12호)되었고, 조선학교비령(제령제14호), 조선도지방비령(제령제15호)도 공포되었다.

그리고 면제시행규칙도 개정(조선총독부령 제103호)되었는데, 그 내용은 협의회원의 정원에 대한 것으로서 인구 5천 미만의 면에서는 8인, 1만 미만에서는 10인, 2만 미만에서는 12인, 2만 이상에서는 14인의 협의회원을 뽑도록 했다.

개정 지방제도는 1920년 10월 1일로써 시행되어 부 및 지정면의 협의회원 선거는 11월 20일에 실시되었다. 그런데, 부 및 지정면의 협의회원에 한해서만 민선을 하고, 기타 면의 협의회원은 지방유지의 의견을 참작하여 군수, 도사로 하여금 적의 임명케 한 이유에 대해 총독부 당국은 '헛되이 당쟁을 양성하고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12]라고 변명

하였지만, 일본인과 조선인 유지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가지 지역만 선거제를 실시하고, 다수의 조선 민중이 거주하는 곳은 임명제를 시행한 사정을 호도하는 것이다.

요컨대 1920년 지방제도 개편 내용은, 도지방비, 부, 면 및 부·군·도 학교비에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또 부, 지정면 및 부학교비에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水野 정무총감 담, 「지방제도 개정 요지」, 『매일신보』, 1920년 7월 30일[13]

금회 조선의 지방제도에 관한 제 법령이 발포되었는데, 현행 지방제도는 병합 당초 한국의 구제(舊制)를 위주하고 참작하여 제정된 것으로, 당시의 시세(時世)·민도에 비추어 적공(適功)한 것임은 물론이나 이래 10년을 경과하여 사회 질서의 정비, 산업 교통의 발달, 교육의 보급 및 기타 만반 사물의 진보에 짝하여 지방개발의 정도는 근년에 특히 현저한 것이 있으므로 지방행정 운용상에도 현행 제도에 종종 불비한 결점이 있음을 발견함에 이르렀도다.

현 총독 취임 초에 이것들은 세운(世運)의 추이에 비추고, 크게 제정(諸政)에 쇄신을 가하기로 하여 종래 중앙집권적 시설 방침을 고쳐 지방분권의 실현에 노력하고, 먼저 장래에 지방자치의 제도를 확립할 것을 선명(宣明)하였음이라. 대개 국가의 정무는 극히 광범에 걸침이 있으므로 중앙에서 각 지방의 특수한 사정에 적응할 미세한 시정을 할 일은 자못 곤란한 바가 있으므로 국가는 그 행정의 일부를 떼어 이를 지방에 맡겨 그 지방민으로 하여금 공공의 사무를 담임케 하여 그 부담에 의해 지방 공공 이익의 증진을 도(圖)케 하는 제도를 채용함에 이름이 곧 소위 지방자치제란 것이라. 이는 곧 피치자(被治者)로 하여금 동시에 치자(治者)될 사무를 행케 함에 있으므로 국민 공공적 관념이 발달하고 공사(公事)를 담임함에 필요한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자치제의 운용은 지난하는 바이라. 따라서 민도에 부적(不適)한 제도의 실시는 헛되이 분쟁을 양성(釀成)케 하여 행정을 분규케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지방민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작(作)하므로 그 실시에 대하여는 시세·민도에 적응할 법제를 세워 점차로 제도를 완전히 진(進)치 않음은 불가하도다. 시(試)히 이를 우리 일본의 실례에 징(徵)할지라도 유신 이후 10년에 비로소 군구정촌(郡區町村) 편성법, 부현회(府縣會) 규칙, 지방세 규칙 및 구정촌회법(區町村會法) 등과 같은 이제(制)를 순차로 제정하여 이에 의하여 지방자치의 단(端)을 열었고, 그후 약 10년을 거쳐

12) 조선총독부, 《大正十一年六月一日朝鮮に於ける新施政,》 1922, 36쪽.

13) 「지방제도 개정 요지에 관한 水野정무총감 담화 大要」(『儒道』 제1호, 儒道振興會, 1921년 2월 28일)에도 같은 취지의 글이 수록되었음.

시제(市制), 정촌제(町村制), 군제(郡制), 부제(府制)의 발포를 봄에 이르고, 다시 이들 법제는 명치30년 이후에 개정되어 금일의 제도를 봄에 이르렀노라. 다시 우리 조선의 현상을 보면 최근에 문화의 진보가 현저한 것이 있어 도저히 구제(舊制)를 묵수함을 불허하는 사정이 되었으나 아직 바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시행함을 득(得)할 시기에 달하였다고는 말하기 불능하도다. 금일의 민도에는 먼저 그 계제(階梯)로 지방 선각지사(先覺之士)를 거(擧)하여 지방 공공사무에 참여케 하여 그 성실한 노력(勞力)에 의하여 점차 지방자치의 훈련을 쌓게 할 것을 필요로 인정하고 이를 이번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부·군·도·면의 행정에 대하여 자문기관을 설함에 이른 주안(主眼)이라.

즉 종래 부에는 부협의회가 있고, 지정면에는 상담역이 있어 부면 예산, 부세·면비의 부담 등에 대하여 부윤·면장의 자문에 응케 하는 제도이던 바를 그 구역의 일부에 국한되었던 것이라. 협의원된 자는 모든 정부 임명에 계(係)하였던 자이므로 민의를 창달하는 기관으로는 자못 유감의 점이 많았으므로 이번 면 상담역을 부와 동양으로 협의회라 하고 또 부면협의회원의 원수를 증가하고 동시에 종래 지정면에 한하였던 자문기관의 설치를 보(普)히 각 면에 급(及)케 하였노라. 부 및 지정면은 대체로 문화의 도(度)가 높고 복잡한 제도의 운용에 감소(堪少)할 것으로 인정하므로 그 협의회원은 부·면민 중으로 선거케 하는 제도를 채용하였으나 기타 각 면은 아직 도저히 부 및 지정면과 동일히 율(律)키 어려운 형편인 고로 그 협의회원은 군수 또는 도사로 하여금 임명케 한 것이라. 그 중 그 임명에 대하여는 군수·도사는 가급적 각 면 유식자의 의향을 참작하고 민의에 기(基)한 유덕(有德) 방간(方幹)의 사(士)를 임용케 할 방침이라.

또 종래 각 부·군·도에는 조선인 교육을 위할 공립보통학교비를 두고 부윤, 군수, 도사 관리 하에 그 부·군·도 내의 공립보통학교의 비용의 경리를 하며 또 도에는 지방비가 있어 지방 공공의 사무를 처리케 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그 근본법령에 종종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민의를 창달케 하는 방법에 자못 유감의 점이 있어 새로 각 부·군·도에 학교비를 두고 이에 학교평의회를 설(設)하여 재무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윤, 군수, 도사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케 하였노라. 부의 학교평의회원은 이를 그 부 내 조선인으로 선거케 하였으나 군·도 학교평의회원 및 도평의회원은 널리 그 지방 일반으로 학식 명망이 있는 인물을 전임(全任)함이 될수록 각 지방에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음은 불가하여 군·도 학교평의회원은 각 면 1인씩, 도평의회원은 대체로 각 부·군·도 1인부터 2인 내지 4인씩을 선출케 하고, 각 부·군·도 내의 부·면 협의회원으로 하여금 그 후계자를 선거케 하는 방법을 채용하노라. 도지방비에 대하여는 그 관(關)한 범위가 광범하여 지방 인민의 복리에 영향하는 바 큰 고로 유식지사를 이에 가(加)함을 적당함으로 인정하여 별로히 도평의

회원 정원의 3분지 1은 도지사로 하여금 도내에 거주하는 학식과 명망이 있는 자 중으로 자유로 임명함을 득(得)할 도(途)를 개(開)한 소이이라. 이상 부면협의회원, 학교평의회원 및 도평의회원은 각 그 임기를 3년으로 하여 매 3년에 총선거 또는 총 개임(改任)을 행케 하여 이들 기관의 갱신을 기하였노라. 또 그 외에 학교비에는 금후 그 재력에 응하여 공립 보통학교 이외의 교육비도 지불함을 득할 도(途)를 개(開)하고, 또 그 기채 능력도 인정케 하였노라. 도지방비에는 그 사업능력을 확장하여 기채능력을 또 지방 이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을 설(設)하여 그 대우의 개선을 도(圖)하기로 하였노라. 이를 요컨대 금회 개정은 민의를 창달케 함에 치중하여 민정에 적당한 정치를 행하여 서민의 행복을 증진케 할 것을 기하는 소이에 다름 아니므로 헛되이 공론(空論)을 농(弄)하여 공무의 진척을 방(妨)하는 폐에 빠지는 일이 없이 사정(私情)을 포(抛)하고 공정히 일에 임하여 화충(和衷) 협동으로 내선인 일체가 되어 지방의 개발을 계(計)하는 것을 절망(切望) 불이(不已)하노라.

6. 부제, 읍면제, 도제, 학교조합령 및 학교비령 개폐

1930년 부제, 읍면제, 도제, 학교조합령 및 학교비령 개폐가 준비되고, 부제, 읍면제, 학교조합령 및 학교비령이 1931년 시행되었다. 지정면은 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읍면제는 1930년 12월 1일 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읍면은 법인으로 함. 관의 감독을 承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공공사무 및 법령에 의해 읍면에 속한 사무를 처리함.
> 제5조 읍면내에 주소를 둔 자는 그 읍면 주민으로 함. 읍면주민은 본령에 의해 읍면의 영조물을 공용하는 권리를 갖고 읍면의 부담을 분임할 의무를 짐
> 제7조 읍에 읍회, 면에 면협의회를 둠. 읍회는 의장 및 읍회의원으로써, 면협의회는 의장 및 면협의회원으로써 이를 조직함
> 제8조 읍회 의원 및 면협의회원은 이를 선거함. 인구 5천 미만 8인, 1만 미만 10인, 2만 미만 12인, 2만 이상 14인

아울러 부칙을 통해 시행기일을 밝혔는데, 그에 따라 193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齋藤實[14], 「地方制度改正에就하야」, 『朝鮮』, 朝鮮總督府, 1930년 5월 1일

조선 시정 요항(要項)의 1로서 장래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을 안정케 하고 일반의 복리증진을 기하려 하는 것은 대정8년(1919년-인용자) 취임초에 여(予)의 성명한 바이다.

이의 이상제도의 실현을 촉진하고자 우선 그 계제(階梯)로 대정9년(1920년-인용자)에 지방제도의 개정을 행하여 도지방비, 부, 면 및 부·군·도 학교비에 자문기관을 설(設)하고 또 부, 지정면 및 부학교비에는 선거제도도 인(認)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지방제도 운용에 습숙(習熟)케 하기를 기하였었는데 이래 년(年)을 열(閱)하기[15] 이미 10년, 자문기관의 총개선(總改選)을 행하기 3회에 미쳐 관민 노력의 결과는 일반지방행정에 대한 이해와 제도 운용의 성적이 대체로 양호하여 제정의 목적은 벌써 상당히 성취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단체의 시설도 해마다 진보되어 일반 문화 보급과 민중 향상도 또한 현저한 바 있으므로 차제에 기정 방침에 기하여 현행 제도에 다시 일단의 개정을 가하여 더욱 민의 창달을 꾀할 필요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과도기에 있는 조선의 현상으로는 각종 특수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한 후 금일 실정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제도를 고찰하여 점차 소기의 이상에 도달케 하기를 기하려 한다. 제도 개정의 대강에 대하여는 금번 도동(渡東)[16]하여 중앙정부의 양해도 얻었으므로 목하 구체안에 대하여는 주무 당국에 명하여 입안중이다. 성안을 얻기까지에는 아직 상당히 심의의 시일을 요할 것으로 생각하나 그 대요는 다음과 같다.

지방제도 개정요지

1. 부제

(1) 부에는 학교조합 및 학교비를 폐하고 그 사무를 부에 통일함

(2) 부의 내지인 교육비 및 조선인 교육비는 명칭을 부의 특별경제라 하고, 내지인 교육비는 내지인, 조선인 교육비는 조선인에게 이를 부과함

(3) 부협의회를 부회, 부협의회원을 부회 의원으로 하고 자문기관을 의결기관으로 함

---

14) 조선총독

15) 열년(閱年): 일 년 이상이 걸림.

16) 도동(渡東): 東京에 가는 것.

(4) 부에 제1교육부회 및 제2교육부회를 설치하고 제1교육부회는 내지인 부회의원, 제2교육부회는 조선인 부회의원으로써 조직함

(5) 부회에 의장 및 부의장을 두고 의장은 부윤으로써 이에 충하고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거함

(6) 부회 의원의 정원은 현재의 부협의회원 보다 약간 증원함

2. 읍면제

(1) 면제를 읍·면제로 고침

(2) 현재의 지정면을 읍으로 하고, 또 장래 그 발달이 현저한 면은 이를 읍으로 함

(3) 읍에 읍회를 두고 의결기관으로 함

(4) 면에는 선거제도를 행함. 단 면협의회는 자문기관으로 함

3. 도제

(1) 도지방비령을 도제로 함

(2) 도평의회를 도회로 고치고 이에 의결권을 인정함

(3) 도회 의원 정원의 3분의 2는 부회의원, 읍회의원 및 면협의원이 이를 선거하고 3분의 1은 도지사가 이를 명함

(4) 도회에 의장 및 부의장을 두고 의장은 도지사로써 이에 충(充)하고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이를 선거함

4. 학교조합령 및 학교비령

(1) 부제 개정에 따라 부에 있는 학교조합 및 학교비를 폐함

(2) 군·도 학교평의회원은 읍회의원 또는 면협의회원이 이를 선거함

5. 지방단체 감독

지방단체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는 내지 지방제도의 예에 의해 의사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 의결의 취소 또는 재의의 명령을 하고 또 필요 있을 때는 정회 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또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인가를 받게 함

6. 시행기일

부제·읍면제·학교조합령·학교비령의 개정은 대략 소화5년(1930년-인용자) 4월 1일로부터 시행할 예정이요, 도제 시행에 대하여는 총독이 이를 정함

齋藤實, 「地方制度改正에對하야」, 『朝鮮』, 朝鮮總督府, 1930년 12월 1일

조선 지방제도 개정 제안(諸案)은 21일의 각의(閣議)에서 원안대로 결정되었다는 공보(公報)가 있었다. 근근(近近)[17] 칙재(勅裁)를 거치는 대로 공포하게 될 것인데, 회고하면 왕년 여(予)가 비로소 조선총독의 임(任)에 취(就)하자 크게 제정(諸政)을 쇄신하고 그중

중앙집권적 통치방침을 고쳐 지방분권의 실현에 노력하여 장래 지방자치의 제도를 확립할 것을 선명(宣明)하였다. 당시의 민도는 일반으로 아직 지방자치제의 운용을 함에 부적(不適)한 바가 있다고 인식하고 먼저 그 계제(階梯)로서 각 지방단체에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민의를 시정의 위에 반영케 하여 민정(民情)에 적절한 행정을 행하는 동시에 타일(他日)[18] 지방자체제도 실시의 훈련을 쌓게 함에 노력하였다.

이것이 곧 현행의 지방제도이니 이래 세월을 겪기 10개년 제도 운용의 상황을 보면, 관민이 함께 극(克)히 본 제도의 정신을 회득(會得)[19]하여 그 운용을 불건(不愆)하고 해마다 양호한 성적을 보여 지방행정의 발달이 현저한 바 있음은 참으로 유쾌에 불감(不堪)하는 바이다. 작년 여름 다시 조선총독의 대임(大任)을 배(拜)하자 지방제도에 다시 일반의 쇄신을 가함에 적당한 시기임을 믿고 그 입안을 하게 한 것이다.

개정의 요지는 이미 본년 3월 여(予)의 발표한 바와 같이 시세의 진보에 순응하여 부 및 읍에 의결기관을 설하고, 부읍의 중요 사건의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외, 부에 대한 3단체의 통일, 도제의 제정, 면협의회원 및 학교평의원회의 선거제도, 기타 지방 제(諸)제도상에 중요한 개정을 행하기로 한 것이다. 본 개정은 지방행사상에 일 신시기(新時期)를 획하는 것으로 통치상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개정의 상세에 대하여 이에 관한 제(諸) 제령을 공포한 후에 다시 설명하려고 한다.

요컨대 금회의 개정은 조선에서 일반적 지방자치제도의 창정이요, 지방인사의 공정한 의사에 기하여 지방 복리의 증진을 꾀하고 아울러 시정의 원만·적절한 운용을 기함에 있는 것이니 관민이 화충·협동하여 시정의 방침에 준유(遵由)하여 지방의 개발에 기여하기를 절망(切望)하는 바이다.

今村 내무국장, 「地方制度의改正에對하야」, 『朝鮮』, 朝鮮總督府, 1931년 1월 1일

올봄 재등(齋藤) 총독이 성명(聲明)한 조선 지방제도 개정안[20]은 이래 약 반년에 걸쳐 신중 심의한 결과 본일[21]로써 공포되어 조선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을 보았음은 조선통치사

17) 머지 않아.
18) 훗날.
19) 요해(了解).
20) 1930년 5월 1일자 『조선』에 실린 앞의 글을 가리킴.
21) 1930년 12월 1일.

상 일 신시대를 획하는 것으로서 참으로 동경(同慶)[22]에 불감하는 바이다.

억(抑)[23] 금회의 제도 개정의 골자는 지난번 총독이 성명한 바와 같이 도 및 부·읍에서 종래의 자문기관을 의결기관으로 하여 거의 완전에 가까운 자치단체로 하는 동시에 부에서는 부·학교비 및 학교조합의 3단체를 부로 통일한 점이었다. 그리하여 본 제도는 그 방침이 발표되자 세간에 종종의 논의가 있는 모양이나 대정9년(1920년-인용자) 지방제도 개정 이래의 실적에 비춰 조선의 현상(現狀)에 비추어 가장 민도에 맞게 하기를 기한 것으로서 가장 조선의 현상에 적당한 제도가 되게 하려고 한 곳에 다대한 고심이 되었던 것이다. 이 점은 특히 식자의 양해를 바라는 바로서 지방의 부민(富民) 제씨가 극(克)히 제도의 취지를 양득(諒得)하고 운용을 잘하면 지방 공공사업의 발달 진전에 일 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본 제도의 실시기(實施期)까지에는 아직 상당한 일자(日字)가 있으므로 그 취지의 철저를 기할만한 기회는 있다고 믿으나 이 기념할 본일(本日)에 그의 대개를 술(述)하여 일반 관민 각위의 참고에 공(供)하려고 생각한다.

부제의 내용

부제는 종래 비교적 진보한 법제를 채용하고 있었는데, 자문기관인 부협의회를 의결기관인 부회로 하는 것과 3단체를 통일한 것과를 가장 현저한 개정의 요점으로 하고 이에 관련하여 종종의 조장(條章)을 고쳐 각 단체 중 가장 완전에 가까운 자치제로 한 것이다.

(1) 부회

부회는 부에 관한 중요한 사건을 의결하고 그 부의장을 선거하고 부의 공익에 관한 의견서를 부윤 기타의 관계 관청에 제출하고 회의규칙을 설(設)하는 일, 관청의 자문에 답신하는 일 및 부의 사무에 관한 서류 및 계산서를 검열하고 사무 관리, 의결의 집행 및 출납을 검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부회의 의장은 부윤으로써 이에 충(充)하나 부의장의 제도를 설하여 부회 의원중으로부터 선거하여 의장이 고장있는 때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다.

---

22) 다함께 경축함.

23) 抑(そも). 1. (대명사「ソ」에 조사「モ」를 덧붙인 말) 2. 앞선 말을 받아 다음 말을 시작하는 데 사용하는 말 3. 새삼 글을 시작할 때 쓰는 말 4. 그렇게 말하는 것도 5. 그렇다 하더라도

⑵ 부회 의원

부협의회원의 임기는 3년이었으나 부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장하고 그 정수는 종래 12인 내지 30인이던 것은 24인 내지 42인으로 하고 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요건은 종래 부협의회원의 선거에서 하던 것과 거의 동양(同樣)으로 하고 납세요건은 종래와 같이 5원이나 별항에 술한 바와 같이 3단체 통일의 결과 종래의 부세 외 내지인은 종래의 학교조합비, 조선인은 종래의 학교비 부과금에 상당한 부세의 납액을 가산한 것에 대하여 자격을 정하므로 선거권자는 상당히 증가하게 되어 결국 선거권을 확장한 결과로 되는 것이다.

⑶ 3단체의 통일

3단체 통일은 제도로서는 선례가 별로 없고 또 그 연혁상에 매우 곤란한 사업으로서 입법 기술상에도 난처한 일이 많았었다. 즉 부의 학교조합 및 부학교비를 폐하고 이를 통일하였으나 아직 그 교육기관을 전연 단일화하는 시기에는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주로 내지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와 주로 조선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와를 각히 그 경제를 부의 일반경제에서 분별하여 특별경제로 하고 종래와 같이 학교의 시설 경영을 하기로 된 것이다. 따라서 특별경제의 비용은 각 특별경제마다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 사용료 수수료 기타의 수입으로써 이에 충(充)하고 부족이 있는 때는 부세 및 부역 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민은 일반 경제에 속한 부세 외에 내지인은 내지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경제의 부세를, 조선인은 조선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경제의 부세를 각히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특별경제로 하는 이상 이에 관한 사건의 의결을 부회에서 하는 것은 적당치 못하므로 제1교육부회, 제2교육부회를 두고 제1교육부회는 의장 및 내지인인 부회 의원으로써, 제2교육부회는 의장 및 조선인인 부회 의원으로써 이를 조직하고 제1교육부회는 내지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경제에 관한 사건을, 제2교육부회는 조선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경제에 관한 사건을 의결하는 것이다.

교육부회는 부회의 예에 의하여 부의장을 선거하고 기타 사무검사, 의견서 제출 등 부회와 거의 동양(同樣)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에서는 부회 및 제1·제2의 각 교육부회가 각 별개의 직무 권한을 가진 것이나 이를 조직하는 의원은 부회 의원으로서 선거된 자가 이에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회 의원은 부회를 조직하는 외에 별로히 교육부회도 조직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회의원의 선거는 단(單)히 선거의 자연의 결과에 방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가령 극단의 경우를 상상하면 내지인 의원 중 어느 편의

당선자가 개무(皆無) 또는 비상히 소수라면 한편의 교육부회의 조직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구제할 필요가 있어서 내선인 어느 편이든지 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내려가지 못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의 결과로서 부회의원 중 궐원을 낳은 경우에 보궐 선거에 대하여서도 특별한 규정을 요하여 부회의원의 궐원이 의원의 6분의 1을 넘게 된 때 내지인 의원 혹은 조선인 의원의 수가 의원 정수의 4분의 1에서 다시 그 6분의 5가 되지 못하게 되는 때는 보궐선거를 행하는 것으로 다른 단체의 규정에서 유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3단체 통일에 의하여 의원선거의 번잡을 제하고 사무의 간이화를 꾀하여 사무비를 절약하는 것으로서 종래에 비하여 매우 합리화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 결과 종래에 비하여 부의 학교조합구역이던 인접지역이 어떤 조합에도 속하지 않게 되나 이의 과도적 규정은 별로히 부령으로써 이를 정하여 현저한 곤란을 낳지 않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⑷ 감독제도

부의 중요사건은 부회 또는 교육부회의 의결을 거치는 일은 전술한 바와 같으나 그 의결이 권한을 넘고 법령 혹은 회의규칙에 위배하여 명료히 공익을 해하고 또는 부의 수지에 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때는 부윤은 그 의견에 의하거나 또는 도지사의 지휘에 의하여 재의에 부치고 또는 그 의결을 취소할 수 있으며 또 도지사는 부회 또는 교육부회의 정회를 명하고 조선총독은 부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설하였고, 또 부에서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고 또는 당해 관청의 직권에 의하여 명하는 비용을 예산에 부재(不載)하는 때는 도지사는 이를 예산에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규정에 대하여는 혹은 부회 또는 교육부회의 권한을 심히 속박하는 것같이 오해하는 바가 있을는지도 모르나 일면으로 생각하면 의결의 효력을 존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일의 경우에 규정을 요하는 것으로 진보한 지방제도에서도 동양의 규정이 있으니 결코 조선의 지방제도에만 특유한 것은 아니다.

읍면제의 내용

읍면제는 종래의 면제를 개정하여 읍면제로 한 것인데, 종래의 면제에 지정면과 보통면의 구별이 있던 것과 같이 읍면제에서는 종래의 지정면을 읍으로 하고 보통면을 면으로 할 예정으로써 규정한 것이다. 종래의 지정면과 보통면의 사이에는 협의회원을 하나는 선거하고, 하나는 임명하는 것, 부면장을 두고 두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으나 읍과 면은 제도에서 비상한 차이가 있게 되었다. 이하 읍면의 제도상의 차이와 종래의 제

도와 다른 요점을 술하면

⑴ 능력

종래의 면은 법령에 의하여 면에 속하게 한 사무를 처리하여왔고 명료하게 법인인 것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그 사무의 범위는 자못 한정적이었으나 읍면은 명확히 법인인 것을 규정하고 또 널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공공사무 및 법령에 의하여 읍면에 속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⑵ 주민 및 그 권리 의무

종래에는 그 주민에 관한 규정이 없고 따라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읍면이 모두 부와 동양의 규정이 설정되었다.

⑶ 읍면규칙

종래의 면은 규칙제정권이 인정되지 않았었으나 읍면제에 의하여 읍면은 읍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읍면의 사무에 관하여 읍면규칙을 설할 수 있고, 또 읍면세, 사용료, 수수료 및 영조물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읍면규칙에는 10원 이하의 과료를 과(科)하는 규정을 설할 수 있는 것이다.

⑷ 읍회, 면협의회

면은 종래와 같이 면협의회를 두고 의장, 면협의회원으로써 이를 조직하고 읍에는 읍회를 두고 의장 및 읍회의원으로써 이를 조직한다. 읍회는 부의장을 두지 않으므로 그 선거는 행하지 않으나 기타의 점은 부회에서 하는 것과 거의 동양의 권한을 두어 종래의 지정면에 비하여 다대한 진보라고 할 것이다. 면협의회는 종래와 같이 자문기관으로서 이 점이 읍과 다른 가장 중요점이니 이 차이에 의하여 다른 각종 규정에도 자연히 차이를 낳는 것이다. 면협의회도 면의 공익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면장 또는 관계관청에 제출하고 관청의 자문에 답신하는 등의 점은 종래에 비하여 권한을 확장한 것이다.

⑸ 읍회의원, 면협의회원

읍회의원 및 면협의회원은 모두 선거한다. 정수는 종래와 같이 8인 내지 14인으로서 임기는 종래에 비하여 1년을 연장하여 부회 의원과 같이 4년으로 하였다. 의원 및 협의회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은 대체 부회 의원의 그것과 동양이므로 종래의 지정면협의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대차는 없으나 종래 면의 협의회원은 임명이던 것이 선거하게 되어 이것은 큰 진전이다. 그러나 선거의 수속에 대하여는 면의 실정에 의하여 반드시 읍과 같이 하기는 곤란한 경우도 있으리라고 상상되므로 부령 중에 적당 특례를 설할 예정이다.

⑹ 읍면장의 권한

읍면장은 종래와 같이 지방관관제에 의한 대우 관리이나 그 읍면 대표자로서의 직권은 상당히 확장된 것이다. 즉 종래 군수, 도사가 하던 이원의 임면권을 읍면장에게 이(移)하고 이원에 대한 징계권도 가지게 하며 또 그 외에 이원의 급여, 명예직의 비용변상액 등도 군수, 도사의 직권으로써 정하던 것이나 읍면규칙으로서 이를 정할 수 있게 하였다.

⑺ 감독제도

감독제도는 대체에서 부와 같은 주의로써 규정되어 있는 것이나 읍회 또는 면협의회에 정회를 명하는 규정이 없고, 또 면협의회는 자문기관이므로 재의 또는 의결의 취소 등의 규정이 없는 점을 서로 다르게 하였다.

이상의 외에 읍면은 기본재산을 설할 적극적 규정을 설하여 읍면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읍면장 또는 이원은 가택 혹은 영업소에 임검하며 또는 장부 물건의 검사를 행할 수 있는 규정을 설하고 기타 종래 시행규칙중에 규정되었던 사항을 아울러 규정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조장(條章)이 많아졌으나 면부과금을 읍면세라고 칭하는 이외에 읍면세 부과의 요건에 관하여 변화는 없다. 그런데 현재임의 면협의회원은 본령 시행과 동시에 그 직을 잃게 되었다.

도제의 내용

도제는 전연 새로 제정하고 도지방비령을 폐지하였는데 그 개정의 요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⑴ 능력

종래의 도지방비는 일개의 재정주체로 하여 일정한 범위의 경비 지변을 인정하였음에 불과하였으나 도는 법인으로 광범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의 공공사무 및 법률, 칙령 또는 제령에 의하여 도에 속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부현(府縣)과 거의 동일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⑵ 도회

도에 도회를 설하고 도에 관한 중요한 사건을 의결하는 이외에 도의 공익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도지사 기타 관계관청에 제출하는 일, 회의규칙을 설정하는 일, 관청의 자문에 답신하는 일, 부의장을 선거하는 일 등의 권능이 인정되었고, 도회의 의장은 도지사로써 이를 충(充)하나 부의장은 도회 의원 중으로부터 선거하여 의장이 고장이 있는 때에 의장의 직무를 대리키로 하였다.

⑶ 도회의원

도평의회원은 임기 3년이었으나 도회 의원은 이를 4년으로 하고, 정수의 3분의 1을 도지사의 자유 임명으로 하는 제는 종래와 동양이나 정수의 3분의 2의 의원은 종래의 후보자 선정에 의하여 임명제도였던 것을 폐지하고 부회의원, 읍회의원 및 면협의회원이 이를 선거키로 되었다. 의원의 정수는 종래 18인 내지 37인이었으나 20인 내지 50인으로 하고 각 도의 정수는 부령으로써 결정하기로 하였다.

도회의원의 피선거권은 대체 종래와 같으나 도내 읍면의 읍면장 및 유급 이원을 무자격으로 하는 반면에 신직(神職)·승려·기타 제 종교사(宗教師)에게는 자격을 주기로 개정하였다.

⑷ 공과의 부과 징수 등

과료, 도세, 사용료, 수수료의 부과 징수 및 영조물의 사용에 관하여는 도지사는 도회의 의결을 거쳐 10원 이하의 과료를 과하는 규정을 설할 수 있다. 종래는 이들 규정이 대개는 도령으로써 규정되고 지방관관제에 기하여 도지사의 직권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규정을 설하였던 것이나 금후는 이 행정벌을 과하기로 하였으므로 자연 형벌 규정은 이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⑸ 감독제도

감독제도는 부에서와 같은 주의로써 규정되었으나 도회에는 정회를 명하는 규정을 설하지 않았다.

이상의 외에 기본재산적립금 등을 설치하는 규정을 설하는 등 종래의 도지방비령 20개조가 64개조로 되었으나 이상에 개술(槪述)한 사항 이외는 종래 도지방비령시행규칙 중에 규정한 사항을 다른 규정과의 균형상 제령으로써 정하였음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의 부과요건 등에 관하여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학교비에 대하여

학교비령은 일부 개정이었고, 부의 3단체 통일로 인하여 부의 학교비를 폐한 것과 군(郡)·도(島)의 학교평의회원을 선거로 개정한 것 등을 주요한 개정 요점으로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평의회

종래와 같이 자문기관으로서 그 성립이 되지 못한 때에 임시 급시(急施)를 요하는 경우에 군수, 도사의 처분권은 면에 있는 면장의 권한에 관하여 술하였음과 대략 동양이다.

(2) 학교평의원회

학교평의회원은 종래 선거에 의한 후보자 중에서 군수, 도사가 이를 임명하였으나 이를 조선인인 읍회의원 또는 면협의회원의 선거에 의하기로 하고, 그 임기 3년을 4년으로 연장하였다. 그 피선거권은 학교비 부과금의 부담 및 주소에 관한 요건을 제한 외에 대체 도의원의 피선거권과 동양인데 부과금 연액(年額)은 종래와 같이 5원이다.

(3) 이원

학교비에는 종래 이원을 두는 것을 인정치 않았으나 새로 유급 이원을 임명키로 개정하고 따라서 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가한 것이다.

이상 외에 현재 중의 학교평의회원은 본령의 시행과 동시에 그 직을 잃게 된 것이다.

학교조합에 관하여

학교조합은 종래 자치단체로 존립하였으므로 의결기관의 제도에 변화가 없고 부의 3단체와 통일된 결과 부의 구역을 학교조합의 구역으로 할 수 없게 하였고 장래 학교조합의 구역이 부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조합의 전(全) 구역인 때에는 그 조합은 소멸하는 등 필요한 규정을 가하고 아울러 조합원수 과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조합에는 조합원의 총회로써 조합회에 대신할 수 있는 등 필요한 규정을 가하고 조합회의 권한 중에 의견서의 제출, 관청의 자문에 대한 답신 등, 부읍회 등에 있는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가하고 또 재의, 의결의 취소 전결처분 등의 규정도 종래 존재치 않았으므로 부읍의 예에 의하여 새로 규정한 것이다.

이상은 이번 지방제도 개정 요점의 경개(梗槪)[24]에 불과하다. 또 부제, 읍면제, 학교비령 및 학교조합령은 모두 소화6년(1931년-인용자) 4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도제는 부읍면의 제도 확립을 기다린 후에 시행케 될 것이므로 그 시기는 도제 중에 명정(明定)치 않고 조선총독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시행키로 된 것이다.

끝으로 이 획기적 본 제도의 실시에서는 그 운용에 적의(適宜)를 득(得)하여 유종의 미를 있게 하기 위하여 관민 일치의 노력을 절망(切望)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7. 도제 시행

1930년 12월 1일 제정되었던 도제는 1933년 시행되었다. 도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도는 법인으로 함. 관의 감독을 承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공공사무 및 법령, 칙령 또는 제령에 의해 도에 속한 사무를 처리함.
> 제5조 도에 도회를 두고 의장 및 도회의원으로써 이를 조직함. 의장은 도지사로써 이를 충함.
> 제6조 도회 의원의 정수는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선총독이 정함.
> 제7조 도회 의원의 정수의 2/3 및 정수를 3분하기 어려운 경우 그 단수에 상당하는 원수의 의원은 이를 선거함.
> 제8조 도회의원의 선거는 각종 선거구에서 부회의원, 읍회의원 및 면협의회원이 행함.
> 제9조 제국신민인 연령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고 1년 이래 도내에 주소를 둔 자는 그 도에서 도회 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짐.
> 제10조 도회 의원 3분의 1은 학식 명망있는 자로서 피선거권을 갖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명함.

이로써 1914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부제, 면제, 읍제에 이어 일제의 지방제도 개편이 마무리되었다.

24) 전체의 내용을 요점만 간추린 줄거리.

宇垣 내무국장, 「道制의 施行에 際하여」, 『朝鮮』 第185號, 조선총독부, 1933년 3월

도제는 소화5년(1930년-인용자) 12월 1일 조선지방제도 개정에 즈음하여 부제·읍면제 등과 동시에 이의 공포를 보았는데, 그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부읍면의 제도 실시의 성적에 징(徵)하여 이를 정하기로 하고 금일에 급(及)한 것이다.

이래 부읍면의 개정 지방제도 실시의 상황을 보건대 그 성적이 양호하여 대개 소기의 목적에 적(適)하며 도제 시행의 기운(機運)이 점차 숙(熟)하였음을 인(認)함에 이르렀다. 그리고 각 도 평의회원의 임기는 본년(1933년-인용자) 3월 31일로써 만료할 것이므로 이 기회에 도제를 시행함을 가장 적절하다 믿고 본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도제 시행규칙 기타의 관계 법령을 발포한 것이다.

도제의 내용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므로 그 시행규칙 등에 대하여 다시 설명함을 피하나 요컨대 지방 최상급의 자치단체로서의 도의 명실상비(名實相備)하여 다년의 민중의 기망(冀望)이 실현되고 조선 지방자치의 체제가 이에 확립한 것은 식(寔)히 흔연한 바이다.

그러나 요는 그 운용의 여하에 있으며 수(殊)히 의결기관인 도회의 직책은 극히 중대하므로 실시의 효(曉), 그 국(局)에 당하는 자는 지방의 개발, 민중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화충협동하여 그 책(責)을 완(完)하여 조선지방제도로 하여금 유종의 미를 제(濟)케 할 것을 절망(切望)하는 바이다.

牛島 내무국장, 「道制의 實施에 就하여」, 『朝鮮』 第185號, 조선총독부, 1933년 3월

조선에서의 지방제도의 개정은 소화5년(1930년-인용자) 12월 1일에 일제히 제령으로써 공포되어 소화6년(1931년-인용자) 4월 1일로써 도제를 제한 외는 시행되었으나 도제는 부제 읍면제 시행의 성적에 비추어 추후 시행 시기를 정하기로 하고 금일에 급(及)하였는데, 본일 부령 제14호로써 드디어 소화8년(1933년-인용자)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정하고 관계 법령을 발포하여 이에 조선지방자치제의 체계가 완성한 터이다.

도제에 대하여는 지난번 그 공포 당시에 그때의 당국자로부터 개요를 설명하였는 고로 중복을 피하고 금회 발포된 시행규칙, 기타의 관계 법령의 개요를 술(述)하여 참고에 공(供)한다.

도회의원의 정수

도회 의원의 정수는 도제에 20인 이상 50인 이내에서 조선총독이 이를 정하게 되었는 고로 금회 발포한 도제시행규칙으로써 각도의 정수를 정하였다. 그 정수는 충북 및 함북의 각 21인을 최소로 하고 경북의 45인을 최다로 하여 종래의 정수에 비하면 강원도에만 증감이 없을 뿐으로 다른 각 도는 모두 증원이 되었다. 종래의 정수는 대개 1부·군·도 1인의 선거에 의한 평의회원을 배당하고 예외적으로 경성부에 4인, 기타 근소한 군에 2인을 배당하였음에 불과하였는데, 금회는 군·부·도(島)의 인구 다과를 감작(勘酌)하여 경성부는 의연 4인이나 다른 인구가 많은 부·군·도에는 선거에 의할 의원 2인을 배당할 수 있도록 정수를 정하였다.

도회의원의 선거

도회의원의 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행하는 것으로 선거구는 부·군·도의 구역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인구가 많은 읍에 대하여는 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독립의 선거구를 만들도록 하고 충주읍 외 13읍을 지정하였다. 각 선거구에서의 의원의 배당은 도지사가 이를 정하며 투표는 종래 후보자 선거에 대하여는 연기(連記)였는데, 도회의원 선거는 단기(單記) 투표로 고쳤고, 종래 선거 또는 투표 입회인의 제(制)는 없었는데, 이를 선임시키도록 개정하였다. 기타 당선자의 당선 사임 및 관리인 당선자 또는 도에 청부관계에 있는 자의 당선 응낙 등에 대하여는 부에서의 제도와 대체로 동양인데, 도에서는 선거구를 설(設)한 결과 수(數) 선거구에서 당선한 자는 어떤 선거구에서 당선을 사(辭)할 것을 신립(申立)함을 요하고 만약 그 신립을 하지 않는 때는 도지사가 추첨하여 그의 사(辭)할 선거구를 정하게 되었다.

도세(道稅)

종래의 지방세를 도세로 하여 종래 세목에 대하여 통첩으로써 본부의 방침을 보이고 과율(課率)은 훈령으로써 제한하였던 것을 시행규칙 중에 명기되었으나 그 세목은 지난번에 삼림조합 정리에 따라 신설할 방침을 정한 임야세를 제한 외에 모두 지방세로서 부과하는 중 과목 및 제한율을 답습한 것이요, 하등 변화는 없다.

도세 기타 공과의 부과 징수 등에 대한 구제(救濟)

도세 부역 현품의 부과 징수 및 사용료 수수료 과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래 하등 구제 규정이 없었는데,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줄로 인정하는 것은 도지사에게 이의의 신립을 하고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는 조선총독에게 불복 신립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

선거취체규칙의 개정

도평의원회원의 선거 취체에 대하여는 종래 읍회의원의 선거취체규정에 준하여 취체하였었는데, 금회 도회의원 읍회의원 모두 부회의원 동양으로 후보자 또는 그 추천에 계출(屆出) 및 선거운동자의 계출을 요하여 그 계출을 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자가 아니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종래 읍면장 및 읍면 이원은 자신이 도평의원 후보자가 되며 또는 그 선거운동을 하여도 상치(相値)[25]가 없었는데, 금후는 도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하였은즉 주의를 요한다.

경과규정

도제의 시행에 당하여 종래 도지방비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한 도의 각반 규정을 도제 시행과 동시에 모두 소멸케 하고 새로이 일일이 규정을 설하는 것은 막대한 수수(手數)를 요하며 실익이 따르지 못하는 고로 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도에 관한 규정으로 간주하기로 하고 특히 개폐(改廢)를 요하는 것만 도제 시행의 제(際)에 개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도평의회는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소화8년(1933년-인용자. 이하 같음) 도지방비 예산 기타의 자문에 응케 하기로 하여 예년이면 1월 내지 3월에 걸쳐 초집(招集)되었는데, 도제가 소화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결과 소화8년도 이후 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도평의회에 자문을 요치 못하게 된다. 그러나 도평의회로서는 최후의 회합이며 소화8년도 예산에 대하여 하등 도민의 의견을 징(徵)치 않는 것도 유감으로 생각하기에 도평의원회는 이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도지사는 그 의견을 참고로 하여 소화8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요하는 것을 전결(專決)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새로 실행할 도평의원의 선거는 도제 시행 후 아무쪼록 속히 기일을 정하여 각도 일제히 행하려고 생

25) 두 가지의 일이 공교롭게 겹침

각한다.

상술(上述)한 것은 도제 관계 법령의 개요를 술하였음에 불과한데, 다년 요망되던 의결 기관이 드디어 실현된 것은 실로 기뻐하는 바이다. 그러나 제도는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그 운용이 득의(得宜)치 못하면 지방의 발전을 촉(促)하며 민중의 복지를 증진하기는 도저히 서기(庶幾)[26]키 어려운 것인즉 도 당국이 신중 도정에 당할 것은 물론이요, 새로 도회의원이 되는 각인(各人)도 화충 협동 도정에 익찬하여 지방 발전에 기여하며 조선 지방자치의 성적으로 하여금 유종의 미를 득케 하기를 절망하는 바이다.

8. 닫는 글

이상을 통해 1910년대부터 1930년에 걸쳐 이뤄진 조선 지방제도 개편에 대한 총독부 당국자의 논리를 살펴보았다. 지방제도 개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제와 학교조합령 공포, 부·군 폐합, 부제와 학교조합령 시행, 면제의 시행, 면협의회, 학교평의회, 도평의회의 설치, 부제 · 읍면제 · 도제 · 학교조합령 및 학교비령 개폐, 도제 시행이다.

도제·부제·읍면제의 내용은 도·부·읍·면을 법인으로 하여 법적 능력을 부여한 것이다. 또 도·부·읍·면에는 협의회와 평의회를 두었다가 면을 제외하고는 이를 다시 도회·부회·읍회로 개편했다. 일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라고 선전했으나, 민주주의제에 따른 지방자치제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 말뿐인 것으로 한계가 많았다. 제한된 민선제 외에 직접 선거가 아닌 임명 형식의 '관선'제도 있었으며, 조선인이 많이 사는 면지역에는 여전히 면협의회로 남아 의결 기능도 없었고, 또 구속력 없는 자문 기능만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유산계급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조선 거주 일본인과 일제에 협력하는 조선인들을 우대하고, 나머지 조선인은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지방제도 개편은 민족분열정책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었다.

26) 간절히 바람. 거의 이루어짐.

개항 후 경기도
행정구역의 통폐합과정

개항 후 경기도 행정구역의 통폐합과정

채미하(한국교통대학교 초빙교수)

1. 여는 글

본 글은 개항 후인 1895년 갑오개혁부터 현재에 이르는 경기도 행정구역의 통폐합 과정을 살핀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개항 후 우리나라 행정구역체제의 변천을 1895년 갑오개혁 → 1896년 광무개혁 → 일제강점기 → 미 군정기 → 정부수립 이후 순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경기도 행정구역의 통폐합 과정을 갑오개혁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술하고, 2020년 현 기준 경기도 행정구역 28시 3군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한 자료는 우선 1912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지방행정구역일람』(총 3권)으로, 경기도는 1권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1895년 8도제가 23부제로 바뀌고 경기도의 36개 군현이 6개의 부로 재편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신구 대조 조선전도부군 면리동 명칭 일람』으로 1914년 오치 다다시치가 경기도를 포함한 군면동리의 통폐합 이전과 이후의 지명을 대조했으며, 경기도의 36개군이 20개군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전쟁 이후부터 1963년 행정 구역 재편 사이의 경기도 행정구역은『대한민국지방행정구역명감』을 참고하였다. 여기에는 한국 전쟁 이전 경기도에 속했던 개성 · 개풍 · 연백 · 장단 등이 경기도 행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1963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은『대한민국지방행정구역명감』(1963)에서 알 수 있다. 이 때 경기도 관할의 인구와 면적은 줄었는데, 양주군 · 김포군 · 부천군 · 시흥군의 일부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었다. 1963년 이후부터 1993년까지의 내용은『지방행정구역요람』(1993)을 참고하였다. 이 시기의 특이점은 경기도 관할이었던 인천이 1981년 직할시가 되면서 경기도에서 빠져나갔고, 수도권의 팽창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도에 시의 설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95년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된 내용 등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와 각 종 인터넷 사이트(https://ko.wikipedia.org)를 참고하였다.

2. 개항 후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제의 변천

1) 1895년 갑오개혁 - 23부 337군

고려 말까지 지속된 5도 양계체제는 조선이 건국되면서 1413년에 8도체제로(八道體制)로 재편되었고, 전국은 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황해·함경(영안)·평안 등 8도로 나누어졌다. 각 도에는 각각 관찰사(觀察使, 종2품)를 두고 그 밑에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 도호부(都護府), 군(郡), 현(縣)을 두어 부윤(종2품), 군수(종4품), 현령(종5품), 현감(종6품) 등을 파견하였다.

8도체제는 1895년 5월 제2차 갑오개혁에서 폐기되고 23부제(府制)가 실시되었다. 23부는 한성·인천·충주·홍주·공주·전주·남원·나주·제주·진주·동래·대구·안동·강릉·춘천·개성·해주·평양·의주·강계·함흥·갑산·경성이다. 각 부에는 관찰사·참서관·경무관 각 1인이 파견되었고 조선시대 8도 아래에 두었던 부·목·군·현은 군으로 단일화하여 23부 아래에 337군을 나누어 두었다. 이와 같은 갑오개혁의 조치는 1895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종래의 8도를 폐지하여 전국을 23부, 337군으로 개정한 지방제도는 조선 건국부터 유지된 8도제에 익숙한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았다. 때문에 1896년 광무개혁 때 23부제가 폐지되면서 13도 8부 1목 331군으로 정비되었다.

2) 1896년 광무개혁 - 1수부[서울]·13도·1목·7부·331군

고종의 아관파천 중에 반포된 1896년(건양 원년) 칙령 제36호〈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은 189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것은 1895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23부제를 폐지하고 종전의 8도 중 남부(충청·전라·경상)와 북부(평안·함경)의 5개 도를 남·북도로 나눈 13도제(十三道制)였다. 이 때의 부(府)는 한성부를 비롯하여 과거 유수부였던 광주 · 강화 · 개성과 인천 · 동래 · 덕원 · 경흥이다. 이 중 인천 · 동래 · 덕원 · 경흥은 1903년에 다시 군이 되었고, 여수 · 성진 · 진남군 등이 분리 · 신설되었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주에는 목을 설치하였다가, 1906년에 군이 되었다. 갑오개혁의 23부제 시행

당시의 부 아래 지방 행정 구역인 군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국의 23개부를 13개 도로 개정하였다. 각도에는 관찰사 1인, 주사 6인, 총순 2인을 두었고 한성부 5서(署) 구역만 특별히 1개부를 두어 수부(首部)로서 독립시켰다. 한성부에는 판윤 1인, 소윤 1인, 주사 5인을, 광주·개성·강화·인천·동래·덕원·경흥에는 부윤 1인을, 제주에는 목사 1인, 주사 2인을 두었다. 13도에서 관할하는 331개 군은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군수는 그대로 두었다. 13도제는 현재 지방행정체계의 모태가 되었다. 이때 전국은 1수부[서울]·13도·1목·7부·331군으로 지방행정구역이 개편되었는데, 경기도는 4부 34군으로 관할 부군(府郡)이 편제되었다.

도	수부	1등군	2등군	3등군	4등군	5등군	
경기	수원	광주부개성부강화부인천부	수원군	여주군양주군장단군통진군	파주군, 이천군, 부평군, 남양군, 풍덕군, 포천군, 죽산군, 양근군, 안산군, 삭녕군, 안성군, 고양군, 김포군, 영평군, 마전군, 교하군, 가평군, 용인군, 음죽군, 진위군, 양천군, 시흥군, 지평군, 적성군, 과천군, 연천군, 양지군, 양성군, 교동군	없음	4부 34군

표 1 1896년 광무개혁(1수부[서울]·13도·1목·7부·331군) 시 경기도 행정구역

이후의 전국 지방행정구역의 변화를 보면 1897년(건양 2) 3월 7일 칙령 제14호〈완도군에 속한 비금도와 도초도 두 개 섬을 지도군의 관할에 이속하는데 관한 안건〉으로 두 개 섬이 지도군의 관할에 이속되었으며, 칙령 제15호〈평안북도 관찰부의 위치를 영변으로 개정하는 데 관한 안건〉으로 평안북도 관찰부가 영변군으로 변경되었다. 동년 칙령 제21호〈전라남도 구역 내 전 좌수영을 여수군에 신설하는 일〉로 순천군 소속 율촌면·소라면·삼일면·여수면을 나누어 여수군(麗水郡)을 신설하였다.

1897년(광무 1) 칙령 제30호〈지방 제도 관제의 개정 건〉으로 삼화군→삼화부, 무안군→무안부로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다. 1898년(광무 2) 칙령 제28호〈성진군의 위치와 관

할구역 획정 건〉으로 길주군 일부에 성진군을 설치하였다. 1899년(광무 3) 칙령 제16호〈지방 제도중 일부 개정에 관한 안건〉으로 옥구군→옥구부, 창원군→창원부, 성진군→성진부로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다.

1900년(광무 4) 칙령 제9호〈길성부 설치에 관한 안건〉으로 성진부와 길주군을 합하여 길성부를 설치하였다. 동년 칙령 제18호〈함경북도 성진부를 다시 설치하는 데 관한 안건〉으로 길성부를 성진부로 개칭하였다. 동년 칙령 제19호〈경상남도 고성군 구역 내의 전 통제영 구역을 진남군으로 설치하는 데 관한 안건〉으로 고성군 일부에 진남군을 설치하였다. 동년 칙령 제30호〈평양군을 평양부로 개칭하고 군수를 부윤으로 개칭하는 일에 관한 안건〉으로 평양부로 승격하였다. 동년 칙령 제41호〈강원도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데 관한 안건〉으로 울도군으로 승격하였다.

1901년(광무 5) 칙령 제11호〈충청남도 관하 오천군 신설에 관한 안건〉으로 보령군, 홍주군, 태안군, 결성군, 서산군, 비인군 각 일부에 오천군을 신설하였다. 동년 칙령 제19호〈성진부를 폐지하고 길주군에 합부에 관한 안건〉으로 길주군으로 격하되었다.

1902년(광무 6) 칙령 제1호〈길주부로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으로 길주군이 길주부로 승격하였다. 동년 칙령 제9호〈낭천군을 화천군으로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으로 화천군으로 개칭하였다.

1903년(광무 7) 칙령 제10호〈부윤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으로 인천부→인천군, 동래부→동래군, 덕원부→덕원군, 경흥부→경흥군, 옥구부→옥구군, 무안부→무안군, 창원부→창원군, 평양부→평양군, 삼화부→삼화군, 길주부→길주군으로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다. 동년 칙령 제15호〈함경북도 성진군을 다시 설치하는 일에 관한 안건〉으로 길주군 일부에 성진군을 다시 설치하였다.

1906년(광무 10) 10월 1일 칙령 제47호〈감리와 목사를 폐지하는 건과 기사무를 인계에 관한 건〉, 칙령 제48호〈부를 군으로 개칭하고 군을 부로 개칭하는 건과 부청급군청에 관한 건〉으로 제주목→제주군, 광주부→광주군, 강화부→강화군, 개성부→개성군, 인천군→인천부, 옥구군→옥구부, 무안군→무안부, 창원군→창원부, 동래군→동래부, 덕원군→덕원부, 성진군→성진부, 삼화군→삼화부, 경흥군→경흥부, 의주군→의주부, 용천군→용천부로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다.

1908년(융희 2) 칙령 제69호〈군을 합치는데 관한 안건〉으로 양근군+지평군→양평군, 창원부+진해군+웅천군→창원부, 함안군+칠원군→함안군으로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다. 동년 칙령 제72호〈전라남도의 군 폐합에 관한 안건〉으로 화순군이 능주군에 합군되었고, 옥과군은 담양군과 창평군에, 낙안군은 순천군과 보성군에 분할 편입되었다. 동년 칙

령 제83호〈평안남도 군의 폐합에 관한 안건〉으로 강동군+삼등군→강동군, 순천군+자산군+은산군→순천군(順川郡), 함종군은 증산군, 용강군, 강서군에 분할되는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다.

1909년(융희 3) 칙령 제2호〈황해도 군을 합치는 데 관한 안건〉으로 옹진군+강령군→옹진군, 송화군+풍천군→송화군, 은률군+장련군→은률군, 신천군+문화군→신천군으로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다. 동년 칙령 제28호〈경상남도 진남군을 용남군으로 고치는 데 관한 안건〉으로 용남군으로 개칭하였다. 1910년(융희 4) 칙령 제7호〈강원도 흡곡군을 폐지하고 통천군에 합치는 데 관한 안건〉으로 흡곡군이 통천군에 합군되었다.

3)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

1896년 1수부[서울]·13도·1목·7부·331군으로 이루어졌던 13도제는 통감부가 설치되기 전인 1905년 말까지 1수부·13도·1목·3부·339군으로 바뀌었다. 1910년 한반도를 강점한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9월 30일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 메이지 43년 칙령 제357호)를.공포 하여 지방행정 단위를 도·부·군·면으로 하여 13도·12부·317군·4,408면으로 편제하였다. 이것은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는 13도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찰사의 명칭은 도장관으로 바꾸었고 부의 수장인 부윤을 모두 일본인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이외의 대부분의 사항을 조선총독에게 위임하였다. 조선총독은 임시조치로서 한성부를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편입하고 한성부→경성부로, 옥구부→군산부, 무안부→목포부, 동래부→부산부, 창원부→마산부, 삼화부→진남포부, 덕원부→원산부, 성진부→성진군, 경흥부→경흥군, 용천부→용천군, 대구군→대구부, 평양군→평양부, 부령군→청진부로 개칭하였다. 이외 도·부·군의 명칭과 위치·관할 구역은 종전에 의한다는 부령(메이지 43년 조선총독부령 제6호 및 제7호)을.공포 하였다.

대강의 법제적 정비를 완료한 일제는 근본적인 행정제도를 정비하였는데, 1913년 1월 각도 내무부장관회의에서 총독의 지시 아래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914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부·군의 관할 구역을, 4월 1일에는 면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였다. 그 결과 12부 220군을 두었다. 12부로는 수도 경성부를 비롯하여, 경기도 인천, 전라북도에 군산, 전라남도에 목포, 경상북도에 대구, 경상남도에 부산·마산, 평안남도에 평양·진남포, 평안북도에 신의주, 함경북도에 청진, 함경남도에 원산 등이다.

1910년의 행정제도가 법제적 정비에 머물렀다면 1914년의 개편은 행정구역의 실질적

개편이었다. 구획의 지리적 불균등성과 세 부담의 불균등성 문제의 해결 및 시정상의 편의, 경비절감 등을 명분으로 군 40방리 10만 명, 면 4방리 500호를 기준으로 통폐합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존의 동리 내에 포함되어 있던 자연촌락이 서로 다른 동리에 소속하게 되는 등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면도 기존의 면내에 속해 있던 자연촌락 등이 서로 다른 면에 소속되는 등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예를 들어 경기도 여주는 이 개편을 통해 종래 16개면이 10개면으로 통폐합되면서 해방 후까지도 이어지는 행정구역이 확정되었다.

1914년 3월과 4월 조선총독부는 각지의 실정을 조사하여 행정제도를 개편하였고 제령에 의한 입법을 통해 각급 기관의 기존 명칭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그 성격은 일본의 것과 유사하게 바꾸어 나갔고 점진적으로 지방 자치를 도입하였는데, 크게 3시기로 구분된다.

1910년대 조선의 부는 일본의 시에, 면은 일본의 정촌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으로 조정되고, 부제(府制)와 면제(面制)가 시행되어 부·면이 세금(지방세)을 징수하고 부·면에 속한 직원(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직 공무원)을 두었으며, 부에는 법인격이 부여되고 부협의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부협의회는 자문기관이며 협의회원은 도장관이 임명하고, 면에는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권은 상당히 제한되었다.

1920년 10월 1일 법령 개정으로 도(道)에 도평의회가 설치되고, 면에도 면협의회가 설치되었으며, 부협의회원 및 일부 면협의회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었다.

1931년 4월 1일 법령 개정으로 자문기관인 부협의회는 의결기관인 부회가 되어 자치권이 확대되었으며, 면을 읍과 면으로 세분하고 법인격이 부여되고 읍에도 의결기관인 읍회가 설치되어 부·읍은 일본의 시정촌과 동등한 수준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면의 모든 면협의회원은 선거로 선출되었고, 1933년 4월 1일 도(道)에도 법인격이 부여되고 자문기관인 도 평의회가 폐지되고 의결기관인 도회가 설치되어 일본의 부현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1) 도(道)

조선시대 최상위 지방 행정 구역인 도(道)는 일제강점기에도 대한제국의 13도(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1945년까지 변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에 따르면 도의 장관은 관찰사(觀察使)에서 도장관(道長官)으로 1919년에 도지사(道知事)로 바뀌었고, 헌병경찰이 폐지되면서 도지사는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1920년 10월 1일 이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던 대한제국 지방비법(地方費法, 융희 3년 법률 제12호)이 폐지되고, 조선도지방비령(朝鮮道地方費令, 다이쇼 9년 제령 제15호)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도의 예산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도평의회가 설치되었다.

1933년 4월 1일, 조선도지방비령이 폐지되고 도제(道制, 쇼와 5년 제령 제15호)가 시행되면서,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이에 따라 도 평의회가 폐지되고 의결기관으로서 도회(道會)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도지사는 여전히 관선이었고, 도회 의원의 3분의 1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3분의 2는 선거로 선출되었는데, 이마저도 부회·읍회·면협의회 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되었다. 때문에 도의 자치권은 상당히 제한되었다.

(2) 부(府)

일제강점기의 부(府)는 처음에는 대한제국의 부를 계승했다가, 1914년 3월 1일의 행정구역 조정, 같은 해 4월 1일에 부제(府制, 다이쇼 2년 제령 제7호)가 시행됨에 따라 일본의 시(市)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 되었다. 부의 장관은 대한제국과 마찬가지로 부윤(府尹)이고, 부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부 협의회가 설치되었다.

처음 부제는 12개 지역(경성부, 인천부, 군산부, 목포부, 대구부, 부산부, 마산부, 평양부, 진나포부, 신의주부, 원산부, 청진부)에 시행되었다. 1931년 4월 1일, 부제가 개정(쇼와 5년 제령 제11호)되어, 부 협의회가 폐지되고 주민 직선의 의결기관인 부회가 설치되었다. 이로써 부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일본의 시와 동등한 자치권을 가지게 되었다. 부제는 최초 12개 이외에 10개 지역(개성부, 함흥부, 대전부, 전주부, 광주부, 나진부, 해주부, 진주부, 성진부, 흥남부)에서도 시행되었다.

4) 미군정기

1945년 11월 2일〈군정법령〉21호에 따라 일제강점기의 행정조직을 유지하면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8도로 구성하였다. 1946년 8월 1일〈군정법령〉제94호로 전라남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묶어 제주도를 신설하였다. 1946년 9월 28일〈군정법령〉제106호로 서울시를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하여 서울특별자유시를 설치하였다.

5) 정부수립 이후

1963년 1월 1일 부산시정부직할에관한법률(법률 제1173호)로 부산시를 설치하였는데, 관할구역은 경상남도 부산시, 동래군 구포읍, 사상면, 북면, 기장면 송정리 일원이다. 1981년 4월 4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법률 제3412호)으로 부산시의 명칭을 부산직할시로 고쳤다.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법률 제3424호)로 대구직할시와 인천직할시를 설치하였다. 대구직할시의 관할구역은 경상북도 대구시, 경산군 안심읍, 고산면, 달성군 성서읍, 월배읍, 공산면, 칠곡군 칠곡읍 일원이며 인천직할시의 관할구역은 경기도 인천시 일원이다.

1986년 11월 1일 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법률 제3808호)로 광주직할시를 설치하였다. 관할구역은 전라남도 광주시 일원이다.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법률 제4049호)로 대전직할시를 설치하였다. 관할구역은 충청남도 대전시 및 대덕군 일원(진잠면 남선리 제외)이다.

1995년 1월 1일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으로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였다.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제5243호)로 울산광역시를 설치하였는데, 관할구역은 경상남도 울산시 일원이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849호)로 종전의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하였고, 동시에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남제주군이 서귀포시로 통합되었다.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19호)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였다. 관할구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공주시 장기면 일원,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일원(외천리 제외)이다. 2014년 7월 1일 충청북도 청원군과 청주시를 통합하였고, 통합시의 명칭은 청주시가 되었다.

3. 경기도 행정구역의 통폐합과정

1) 경기도 행정구역 개관

(1) 개항 이후 1895~1896

고려 말까지 지속된 5도 양계체제는 1413년 8도체제로 재편되는데, 경기도는 1414년에 경기좌도와 경기우도가 하나로 합쳐졌고 수원·광주·개성·강화의 4유수부와 37개 군현 등이 있었다.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로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府制)가 실시되면서 경기도는 폐지되었으며, 경기도는 대체로 한성부, 인천부, 개성부, 춘천부, 충주부, 공주부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즉 한성부 11읍과 인천부 12읍은 구 경기도의 군읍만으로 편성되었고, 개성 · 풍덕 · 삭령 · 마전 · 장단이 개성부로, 양근과 지평이 춘천부로, 여주 · 용인 · 죽산 · 음죽 · 이천 · 양지 6군이 충주부로, 안성 · 진위 · 양성이 공주부로 편제되었다.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로 행정구역이 다시 13도제로 개편되면서 경기도는 복구되었고 수원을 수부(首府)로 하였다(4부 34군).

(2) 일제강점기

1910년 10월 1일 한성부가 경기도로 편입되면서, 경기도는 경성부로 개칭되었고 도청은 경성부 광화문 앞에 두었다. 1896년의 4부 34군은 1912년〈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을 보면 2부(경성부와 인천부) 36군(양주 · 포천 · 영평 · 가평 · 광주 · 용인 · 양지 · 이천 · 양평 · 여주 · 음죽 · 죽산 · 안성 · 양성 · 진위 · 남양 · 수원 · 안산 · 과천 · 시흥 · 양천 · 부평 · 김포 · 통진 · 강화 · 교동 · 고양 · 교하 · 파주 · 장단 · 풍덕 · 개성 · 적성 · 연천 · 마전 · 삭녕)으로 나온다.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로 부 · 군 · 면이 통폐합되면서 기왕의 2부 36군은 2부(경성부와 인천부) 20군(고양 · 부천 · 시흥 · 이천 · 광주 · 양평 · 양주 · 가평 · 여주 · 장단 · · 수원 · 진위 · 용인 · 김포 · 강화 · 파주 · 연천 · 개성 · 포천 · 안성)으로 조정되었다.

당시 경성부의 영역은 도성 내부와 남대문에서 용산까지의 지역으로 국한되고 나머지는 고양군에 흡수되면서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고, 인천부 역시 제물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다. 그리고 부평군, 양지군, 죽산군, 음죽군, 안산군, 과천군, 교하군, 적성군, 풍덕군, 마전군, 삭녕군, 영평군, 양천군, 남양군, 교동군, 통진군, 평택군이 폐지

되어 다른 군에 흡수되거나 통합되었고 부천군은 신설되었다. 즉 부천은 옛 인천의 나머지 땅을 흡수하였고, 시흥은 안산과 과천을, 이천은 음죽을, 수원은 남양을, 진위는 충청도 소속의 평택을, 용인은 양지를, 김포는 양천과 통진을, 강화는 교동을, 파주는 교하를, 연천은 적성과 마전을, 개성은 풍덕을, 포천은 영평을, 안성은 양성과 죽산을 병합하였다.

1930년 10월 15일 부령 제68호로 지방행정제도 개혁에 따라 읍·면제가 실시되었고, 송도면이 개성부로 승격되었다(3부 20군 2읍 223면). 1936년 4월 1일 고양군 용강면, 연희면, 한지면 일원과 숭인면 일부, 은평면 일부, 시흥군 영등포읍 일원, 북면 일부, 동면 일부가 경성부로 편입되었다. 1938년 경기도 진위군의 이름을 평택군으로 바꾸었고 1940년 부천군 문학면 등이 인천부로 편입되었다

(3) 군정기

1945년 8월 15일 38선을 경계로 연천군의 대부분과 가평, 포천, 파주, 장단, 개성, 개풍 등의 일부지역이 38선 이북에, 황해도의 연백, 옹진군의 대부분이 38선 이남에 각각 소재한 상태로 해방되었다(3부 20군 10읍 229면). 1945년 8월 15일 군정법령 제22호로 38선을 경계로 한 경기도, 황해도의 소속을 달리하는 행정구역을 조정하였다(3부 21군 10읍 231면).

1945년 9월 2일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함으로써 경기도의 대부분은 미군정 관할이 되었으나, 연천군 대부분과 포천군, 가평군의 일부가 소련군정 관할이 되었다. 1945년 11월 4일 연천군의 미군정 관할 지역이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1945년 11월 4일 황해도의 38선 이남 지역이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황해도 옹진군은 경기도 옹진군이 되었고, 벽성군 해남면·동강면·송림면과 장연군 백령면 등 38선 이남의 인근 4개면이 옹진군에 편입되었다

1945년 경기도 서울시로 개칭한 경성부는 1946년 9월 28일 군정법령 제106호로 고양군·시흥군 일부를 편입하면서 서울특별시로 승격되어 경기도로부터 분리되었다(2부 21군 10읍 231면).

(4) 정부수립 이후

1949년 8월 13일 고양군 중 숭인면, 뚝도면, 은평면과 시흥군 동면 중 구로리, 도림리, 번대방리가 서울특별시(현재의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송파구, 중랑구, 광진구, 종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일부, 송파구 일부)에 편입되었다.

1949년 8월 15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인천부·개성부를 시로 개칭하였고, 대통령령 제159호로 고양군 숭인면을 서울특별시로 편입, 대통령령 제160호로 고양군 은평면, 뚝도면과 시흥군의 3개리(도림리, 번대방리, 구로리)를 서울특별시로 편입, 대통령령 제161호로 수원군 수원읍을 시로 승격하고 수원군의 나머지 지역은 화성군으로 개칭, 대통령령 제162호로 시흥군 안양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다(3시 21군 10읍 228면).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 휴전 협정에 따라 개성시, 개풍군, 연백군과 옹진군의 본토 지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할이 되어 경기도에서 제외되었으나, 연천군·포천군·가평군의 38선 이북 지역이 대한민국 관할이 되어 경기도에 환원되었다.

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350호로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시행에 따라 연천군 및 포천군의 북부 지역은 정식 수복 되었으나, 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5개시군 개성, 개풍, 장단, 옹진, 연백 중 옹진군의 2개면을 제외하고는 수복되지 않았다(2시 19군 8읍 194면).

서울의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따라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로 양주군 노해면과 구리면의 5개리, 광주군 구천면 · 언주면 · 중대면과 대왕면의 5개리, 김포군 양동면과 양서면, 부천군 오정면의 2개리와 소사읍의 7개리, 시흥군 신동면과 동면의 5개리가 서울특별시(현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동작구, 관악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 편입되었다. 법률 제1175호로 화성군 일왕면의 9개리가 의왕면이 되어 시흥군에 편입되었고, 수원시 편입 잔여 지역인 태장면의 8개리와 안용면의 6개리를 합하여 태안면을 신설하였으며, 양주군 화도면의 3개리 · 진접면의 1개리 · 가평군 외서면의 3개리를 합하여 수동면을 신설하였다. 법률 제1175호로 부천군 영종면 운남리의 작약도가 인천시로 편입되었고, 화성군 안용면의 6개리 · 태장면의 3개리 · 일왕면의 11개리가 각각 수원시에 편입되었으며, 여주군 개군면을 양평군에 편입하였고, 용인군 고삼면을 안성군에 편입하였다. 법률 제1176호로 양주군 의정부읍을 시로 승격하였다. 법률 제1178호로 철원군 신서면을 연천군에 편입하였고, 장단군 군내면을 파주군 임진면에 편입하였다(3시 19군 10읍 185면).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538호로 경기도청 위치를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번지로 변경 · 공포 하였다. 1967년 6월 23일 도청 이전으로 경기도의 도청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서 수원시로 이전되었다. 1967년 7월 1일 경기도 조례 제309호(1967.6.2)로 의정부시에 경기도 북부출장소를 설치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1973.3.12.공포)로 양주군 구리면, 파주군 아동면, 임진면, 가평군 가평면, 강화군 강화면, 고양군 신도면을 각각 읍으로 승격하였다. 법률 제2596호 (1973.3.12.공포)로 고양군 신도면의 구파발리, 진관내리, 진관외리를 서울

시 서대문구(현재 은평구)에 편입하였다. 법률 제2597호(1973.3.12.공포)로 부천군을 폐지하면서 부천군 소사면을 부천시로 승격시키고, 소래면을 시흥군에, 계양면 · 오정면을 김포군에, 영종면 · 북도면 · 용유면 · 덕적면 · 영흥면 및 대부면을 옹진군에 각각 편입하였다. 법률 제2597호(1973.3.12.공포)로 경기도 성남출장소(옛 광주군의 돌마면·낙생면과 중부면·대왕면의 일부), 시흥군 안양읍, 부천군 소사읍을 각각 시로 승격하였다(6시 4구 18군 14읍 180면).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7호(1975. 9. 23.공포)로 김포군 오정면을 부천시에 편입하였다(6시 4구 18군 14읍 180면).

1979년 8월 10일 경기도 조례 제969호(1979.8.1.공포)로 경기도 반월출장소를 설치하고 화성군 반월면 1리, 2리, 4리, 팔곡2리, 시흥군 수암면 양상리, 부곡리, 성포리, 월피리, 고잔리, 와리 및 군자면 신길리, 성곡리, 목내리, 초지리, 원곡리, 선부리를 관할하였다. 같은 해 양주군 미금면, 평택군 팽성면, 고양군 원당면, 광주군 광주면, 연천군 연천면, 포천군 포천면, 양평군 양평면, 용인군 용인면, 김포군 김포면, 시흥군 서면(소하읍)·남면(군포읍)이 읍으로 승격했다. 198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0050호(1980. 12. 1.공포)로 시흥군 의왕면, 소래면, 광주군 동부면, 고양군 벽제면, 중면(일산읍), 남양주시 와부면, 파주군 주내면, 7개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다(6시 4구 19군 32읍 162면). 1980년 양주군의 일부가 남양주군으로 분리 신설되었다.

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4호(1981.4.13.공포)로 경기도 인천시 일원을 관할로 인천직할시가 설치되어 경기도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 법률 제3425호(1981.4.13.공포)로 광명시(시흥군 소하읍이 광명시로 승격 분리)가 시흥군에서, 동두천시 (양주군 동두천읍이 동두천시로 승격 분리)가 양주군에서 분리 신설되었고, 송탄시가 평택군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8시 19군 29읍 162면). 1982년 시흥군 과천면에 과천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1983.1.10.공포)로 10개 시·군과 6개 읍·면간 경계를 조정하고, 옹진군 자월면·김포군 통진면·포천군 화천면의 3개면을 신설했으며, 파주군 주내읍을 파주읍으로 개칭하였다.

1985년에는 양주군 회천면, 화성군 태안면, 고양군 지도면과 화전출장소, 연천군 전곡면, 용인군 기흥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1985.12.28.공포)로 과천시가 시흥군에서 분리되었고, 안산시가 화성군과 시흥군에서 분리되었으며, 평택시가 평택군에서 분리되었고 남양주군 구리읍이 구리시로 승격되어 남양주군에서 분리되었다. 반월지구출장소는 안산시로, 과천지구출장소는 과천시로 승격되었다(12시 19군 33읍 159면).

1987년 1월 12일 대통령령 제12007호(1986.12.23.공포)로 5개 시 · 군간 경계 조정

이 있었다. 광명시 소하동 일부→안양시 석수동, 화성군 양감면 고금리→평택군 청북면, 화성군 매송면 금곡리, 호매실리→수원시, 평택군 서탄면 적봉2리→송탄시 서정동, 파주군 광탄면 기산1리→양주군 백석면에 편성되었다.

1988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367호(1987.12.3.공포)로 경기도 부천시에 중구(이후 원미구)와 남구(이후 소사구)가 설치되었다. 1988년 7월 1일 시 조례 제1452호(1988.6.30.공포)로 경기도 수원시에 권선구와 장안구가 설치되었고 시 조례 제858호(1988.6.30.공포)로 성남시에 2개 출장소 설치(수정, 중원)되었으며 은행 2동이 은행2동과 3동으로 분동하였고 돌마 · 대왕 · 낙생출장소가 폐지되었다.

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50호(1988.12.31.공포)로 6개시가 생겼는데, 남양주시 미금읍을 미금시로, 화성군 오산읍을 오산시로, 시흥군 소래읍 · 군자면 · 수암면을 합해서 시흥시로, 시흥군 군포읍을 군포시로, 시흥군 의왕읍을 의왕시로, 광주군 동부읍 · 서부면 · 중부면 상산곡리를 합해서 하남시로 각각 승격하였고 시흥군은 폐지되었다. 법률 제4051호(1988.12.31.공포)로 시도간 경계가 조정되었는데,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 일원은 인천직할시 북구에,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용유면 일원이 인천직할시 중구에 각각 편입되었다. 대통령령 제12557호(1988.12.22.공포)로 시군간 경계가 조정되었는데, 포천군 관인면 부곡리→연천군 연천읍에 편성되었다.

1989년 4월 1일 군 조례로 3읍(남양주시 진접읍, 파주군 법원읍. 이천군 부발읍)이 승격되고 4면(남양주시 퇴계원면, 여주군 산북면. 평택군 안중면, 연천군 장남면)이 설치되었다(18시 18군 30읍 155면). 1989년 5월 1일 성남시 조례 제931호(1989.4.26.공포)로 2개구(수정, 중원)를 설치하였고, 안양시 조례 제931호(1989.4.10.공포)로 2개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92년 2월 1일 법률 제4417호로 고양군이 모든 읍·면을 폐지하고 고양시로 승격하였다. 10월 1일 안양시 조례 제1173호로 안양시에 만안구, 동안구를 설치하였다.

1993년 2월 11일 수원시 조례 제1837호(1993.1.20.공포)로 팔달구(10동)가 설치되었고 부천시 조례 제1215호(1993.1.16.공포)로 오정구(여월동, 작동, 원종동, 고강동, 오정동, 대장동, 내동,삼정동)가 설치되었고 부천시 조례 제1216호(1993.1.16.공포)로 구 및 동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남구가 소사구, 중구가 원미구, 남구 심곡동을 소사구 심곡본동으로 개칭하였다.

1994년 12월 16일 대통령령 제14434호(1994.12.22.공포)로 시군간 경계가 조정되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부→군포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부→군포시, 평촌동 일부→의왕시, 군포시 산본동 일부→안양시, 당정동 일부→의왕시,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

신·망포리 일부와 반월면 입북리, 산수리일원→수원시, 화성군 반월면 팔곡일리, 건건리, 사사리 일원→안산시,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 속달리, 대야미리, 도마교리 일원→군포시, 용인군 기흥 영덕리 일부→수원시, 옹진군 대부면 일원→안산시에 편제하였다.

1995년 주민편의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군통합을 비롯한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졌다. 1월 1일 법률 제4774호(1994. 8. 3.공포)로 미금시와 남양주시를 통합하여 남양주시를 설치하였다. 3월 1일 법률 제4802호(1994.12.22.공포)로 김포군 검단면(현재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강화군, 옹진군(대부면 제외) 인천광역시로 편입하였다. 이 때 시도간 경계가 변경되었다. 인천광역시 북구 서운동 일부→부천시 오정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일부와 오류동 일부→광명시 광명동, 광명시 철산동·하안동·소하동·광명동 일부와 고양시 지축동 일부→서울시로,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강원도 원주군 문막면으로 변경하였다.

1995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14629호(1995.4.20.공포)로 시·군간 경계가 조정되었다. 화성군 태안읍 화리, 망포리→수원시 팔달구, 군포시 산본동 일부→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시흥시 장상·장하·수암동과 화정동 일부→안산시로, 평택시 진위면 갈부리, 청호리, 고현리 일부→오산시로 변경되었다. 5월 10일 법률 제14948호(1995.5.10.공포)로 평택군·송탄시·평택시를 통합하여 평택시를 신설하였다.

1996년 3월 1일 고양시 조례 제303호(1996.2.17.공포)로 덕양구(17개동), 일산구(17개동)가 설치되었고 법률 제4994호(1995.12.6.공포)로 용인군, 파주군, 이천군이 도농복합 형태의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로 승격되었다. 1998년 4월 1일 법률 제5458호(1997.12.17.공포)로 안성군, 김포군이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 김포시로 승격되었다.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14호(2000.1.12.공포)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상로리 일부 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으로 경계가 조정되었고, 경기도 포천군 관인읍 단동리 일부가 강원도 철원군으로 경계 조정되었다.

2001년 3월 21일 법률 제62805호(2000.12.20.공포)로 광주군과 화성군이 각각 도농복합도시인 광주시, 화성시로 승격되었다. 6월 1일 안성시 조례 제330호(2001.5.29.공포)로 공도면을 공도읍으로, 9월 12일 남양주시 조례 제454호(2001.9.12.공포)로 진건면을 진건읍으로, 오남면을 오남읍으로, 10월 1일 양주군 조례 제1779호(2001.9.29.공포)로 백석면을 백석읍으로 승격하였다. 12월 24일 용인시 조례 제364호(2001.12.24.공포)로 수지출장소를 설치하고, 용인시 조례 제368호(2001.12.22.공포)로 풍덕천 1·2동, 죽전1·2동, 동천동, 상현동을 설치하였다.

2002년 4월 1일 시흥시 조례 제694호(2002.3.2.공포)로 정왕1·2동을 정왕1·2·3

·4동으로 분동하였고 파주시 조례 제435호(2002.4.1.공포)로 교하면을 교하읍으로 조리면을 조리읍으로 승격하였다. 11월 1일 안산시 조례 제1027호(2002.10.1.공포)로 상록구와 단원구를 설치하였다(25시 6군15구). 11월 5일 평택시 조례 제585호(2002.11.5.공포)로 안중면을 안중읍으로 승격하였다.

2003년 6월 14일 화성시 조례 제235호(2003.06.04.공포)로 우정면을 우정읍으로 승격하였고, 10월 19일 법률 제6928호(2003.7.18.공포)로 포천군을 포천시로, 양주군을 양주시로 승격하였으며(27시4군15구), 10월 19일 양주군과 포천군이 각각 양주시, 포천시로 승격되었다. 11월 24일 수원시 조례 제2456호(2003.11.8.공포)로 영통구를 설치하였다(27시4군16구). 2004년 1월 2일 김포시 조례 제 468호(2003.12.30.공포)로 통진면을 통진읍으로 승격하였다.

2005년 3월 21일 성남시 조례 제1971호로 분당구 금곡동이 금곡 1동 및 금곡 2동으로 분동되었고, 5월 16일 고양시 조례 892호 및 893호로 일산구가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로 분구되었으며, 일산동구 중산동이 신설되었고, 일산 4동이 일산동구 정발산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27시 4군 17구). 10월 31일 용인시 조례 648호로 3개구(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를 설치하였다(27시 4군 20구). 11월 11일 화성시 조례 1561호로 태안읍을 진안동, 병점동, 능동, 기산동, 반월동, 반정동, 황계동, 배양동, 기안동, 송산동, 안녕동으로 분동하였다.

2006년 10월 23일 고양시 조례 제983호로 일산 동구 백석동이 백석1동 및 백석2동으로 분동하였고, 12월 1일 양평군 조례 제1849호로 지제면을 지평면으로 개칭하였으며, 12월 29일 평택시 조례 제814호로 포승면이 포승읍으로 승격하였다.

2007년 1월 1일 안산시 조례 제1293호로 상록구 사1동이 사1동 및 사3동으로 분동하였고, 1월 29일 화성시 조례 제430호로 향남면이 향남읍으로 승격하고, 동탄면이 동탄면과 동탄동으로 분리하고, 법정동 반송동, 석우동을 신설하였다. 2월 10일 의왕시가 한자 표기를 의왕(儀旺)에서 의왕(義王)으로 바꿨다. 2월 16일 동두천시 조례 제1348호로 불현동이 불현동과 송내동으로 분동하였고, 7월 1일 용인시 조례 제879호로 어정동이 동백동과 상하동으로 분동하였으며, 8월 6일 수원시 조례 제2681호로 팔달구 팔달동·남향동·신안동을 통합하여 행궁동을 신설하고, 영통구 이의동을 원천동에 흡수 통합하였다. 12월 13일 성남시 조례 제2176호로 하대원동을 하대원동과 도촌동으로 분동하였다.

2008년 3월 3일 화성시 조례 제522호로 동탄동이 동탄1동과 동탄2동으로 분동하였고, 9월 22일 성남시 조례 제2257호로 금곡1동이 금곡동으로, 금곡2동이 구미1동으로 개칭하였다. 12월 22일 성남시 조례 제2277호로 분당구 판교동이 판교동과 삼평동으로

분동하였다.

2009년 6월 8일 화성시 조례 제599호로 동탄1동이 동탄1동과 동탄3동으로 분동하였고, 9월 1일 김포시 조례 제 813호로 고촌면을 고촌읍으로 승격하고 법정동인 구래동, 마산동을 신설 하였다. 10월 5일 성남시 조례 제2353호로 판교동을 판교동과 백현동으로 분동하였다.

2010년 8월 2일 용인시 조례 제1086호로 기흥구 신갈동이 신갈동과 영덕동으로 분동하였고, 9월 20일 시흥시 조례 제1132호로 연성동이 연성동과 능곡동으로 분동하였다.

2011년 5월 1일 파주시 조례 제939호로 군내출장소를 장단출장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6월 21일 광주시 조례 제437호로 실촌읍을 곤지암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7월 25일 파주시 조례 제975호로 금촌1동이 금촌1동과 금촌3동으로 분동하였고, 파주시 조례 제975호로 교하읍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으로 각각 행정동으로 전환하였으며, 11월 7일 성남시 조례 제2510호로 중동이 중앙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1월 14일 김포시 조례 제941호로 양촌면이 양촌읍으로 승격하였다.

2012년 1월 1일 부천시 조례 제2644호로 소사구 소사본1동과 소사본2동을 통합하여 소사본동을 설치하였고, 1월 2일 남양주시 조례 제1006호로 별내면이 별내면과 별내동으로 분리하였다. 9월 24일 김포시 조례 제1007호로 김포2동이 김포2동과 장기동으로 분리하였고, 12월 26일 수원시 조례 제3139호로 원천동이 원천동과 광교동으로 분동하였다.

2013년 9월 28일 법률 제11850호(2013.6.4.공포)로 여주군을 여주시로 승격하였고(여주군 폐지), 조례 제32호(2013. 9.23.공포)로 가남면을 가남읍으로, 여주읍을 여흥동·중앙동·오학동으로 설치하였다(여주읍·오학출장소 폐지).

2014년 2월 16일 경기도 600년 기념식이 열렸다. 3월 1일 시흥시 조례 제1356호로 군자동을 군자동과 월곶동으로, 연성동을 연성동과 장곡동으로 분동하였고, 6월 5일 하남시 조례 제1218호로 풍산동을 풍산동 · 미사1동 · 미사2동으로 분동하였다. 6월 20일 파주시 고시 제2014-87호로 문산읍 한자 명칭을 변경(汶山邑→文山邑)하였다. 10월 20일 남양읍을 설치하였고(안전행정부, 2014.7.7), 화성시 조례 제943호로 남양동(15개 법정동)을 남양읍(15개 법정리)으로 전환하였다.

2015년 1월 2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3개 법정리를 법정동으로 전환하였다(안전행정부, 2014.11.17). 화성시 조례 제965호로 동탄면의 3개 법정리(오산리, 청계리, 영천리)를 법정동(오산동, 청계동, 영천동)으로 전환하고 동탄4동(행정동)을 신설하였으며, 동탄면은 8개 법정리(중리, 신리, 목리, 산척리, 장지리, 송리, 방교리, 금곡리)를 관할하였다.

1월 20일 수원시 조례 제3346호로 광교동을 광교1동과 광교2동으로 분동하였다. 2월 2일 김포시 조례 제1164호로 김포2동을 김포2동과 운양동으로 분동하였고, 5월 1일 성남시 조례 제2868호로 정자1동을 정자동과 정자1동으로 분동하였다. 5월 31일 평택시 조례 제1267호로 평택항 신생매립지(16필지 650,389.7㎡)를 포승읍 신영리로 편입하였다. 10월 16일 광주시 조례 제732호로 중부면을 남한산성면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1월 2일 성남시 조례 제2907호로 복정동을 복정동과 위례동(신설)으로 분동하였다. 11월 5일 하남시 조례 제1302호로 감북동을 감북동과 위례동(신설)으로 분동하였고 11월 13일 행정자치부 부천시 3개 구(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폐지 하였고 12월 16일 가평군 조례 제2519호로 하면을 조종면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5년 12월 7일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간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였다.

2016년 1월 1일 수원시 조례 제3448호로 금호동을 금곡동과 호매실동으로 분동하였고, 3월 1일 하남시 조례 제1347호(2016.2.)로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확정하였다. 3월 1일 성남시 조례 제2962호(2016.2.17.)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665호, 2015.11.26.)” 공포 에 따른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을 확정하였다. 7월 4일 부천시 조례 제3034호(2015.12.30.)로 자치구가 아닌 구 3개 구(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폐지하였다(행정자치부, 2011.11.13.). 7월 26일 가평군 조례 제2558호로 태봉2리를 원흥리로, 하판리를 운악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7월 28일 평택시 청북읍(행정자치부, 제2016-159호)을 설치하였고, 평택시 조례 제1360호로 청북면을 청북읍으로 승격하였다. 9월 28일 의정부시 조례 제2708호로 가능2동, 가능3동을 통합하여 흥선동을 설치하였다.

2017년 4월 3일 의정부시 공고 제2017-524호로 흥선동의 업무가 개시되었고, 4월 18일 김포시 조례 제1388호로 김포1동을 김포본동으로 김포2동을 장기본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7월 1일 안산시 조례 제2070호로 상록구 사1동을 사동으로, 사2동을 사이동으로, 사3동을 해양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단원구 고잔1동을 고잔동으로, 고잔2동을 중앙동으로, 원곡본동을 분할하여 원곡동과 신길동을 설치하고, 원곡1동과 원곡2동을 통합하여 백운동을 설치하였다. 9월 29일 용인시 모현읍, 이동읍이 설치되었다(행정안전부 제2017-2호). 11월 13일 화성시 송산면 일원(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공유수면 3,401,148㎡가 화성시로 귀속 결정되었다(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1414호). 12월 11일 용인시 조례 제1736호로 모현면을 모현읍으로, 이동면을 이동읍으로 승격하였고 12월 18일 남양주시 조례 제1487호로 도농동을 다산1동으로, 지금동을 다산2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2월 26일 수원시 조례 제3732호로 영통1동, 영통2동, 태장동 일부구역을 조정하여 영

통3동을 설치하였다.

2018년 1월 22일 화성시 조례 제1313호로 동탄면이 폐지되고, 동탄5동 · 동탄6동 · 새솔동(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을 설치하였다. 2020년 7월 24 : 수원시 영통구 신동, 망포동 일부와 화성시 반정동 일부를 교환하였다. 현재 시청은 팔달구 인계동에 있으며,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의 4개구가 설치되어 있다.

(5) 참고자료 : 공무원 직급의 연혁

사무관

1895년(고종 32)의 통상사무관(通商事務官)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그 최초이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사무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정부수립 후에도 1949년 11월 「공무원임용령」에서 공무원 직급으로 채택되었다. 1961년「공무원임용령」개정에 의하여 사무관이라는 명칭 앞에 업무분야를 명시한 행정사무관 등으로 세분하였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1963년 12월「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재경사무관이 설정되었다.

사무관은 그 직위에 따라 그 직무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실무기안자이고 지방행정기관에서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직무를 맡는 경향이 있다.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5급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5급공무원 중 행정직의 5급국가공무원인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출입국관리사무관·통계사무관 등과 행정직의 5급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사무관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5급국가공무원인 행정사무관을 말한다.

사무관은 6급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개경쟁채용시험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통칭 '행정고시')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임명한다.

서기관

서기관은 1894년(고종 31)의 직제에서 경무청에 서기관을 두도록 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서기관 직급은 일제강점기에도 사용되었으나 3·1운동 후 폐지되었다가,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용되었다. 1961년 12월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서기관은 업무분야별로 행정서기관·노동서기관·후생서기관·검찰청서기관 및 운수서기관으로 세분된 뒤, 몇 차례에 걸친 업무분야별 서기관의 직급명칭 변경이 있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1963년 12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지방행정서기관과 지방재경서기관이 설정되었다가, 1971년 4월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지방서기관으로 통합되었다.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등의 보직을 맡는다.

서기관도 그 직위에 따라 그 직무가 다르나,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과장의 직위를 맡고, 세무서장·1급지 지방노동사무소장 등 일선 행정기관의 기관장이나 지방국세청·지방노동청 등의 국장급 직위를 맡는다.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4급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4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서기관·감사관과 4급 지방공무원인 지방서기관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4급 국가공무원인 서기관만을 말한다. 서기관은 5급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나,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직공무원의 직급 명칭이었으나 1992년 12월 2일.공포 된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표에 의해 기술직 4급 공무원의 직급 명칭인 기정도 행정직공무원의 직급 명칭체계와 동일하게 바뀌었다. 직책으로는 중앙부처의 과장급, 지방공무원의 군수급 또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장급 공무원이다. 교정직렬의 교정감·교회감, 감사직렬의 감사관 등과 같은 직급이다. 5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승진후보자 가운데 소속장관이 국가에 공헌한 실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을 제청하며(공무원임용령 제35조), 임용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이사관

이사관은 1905년 일제가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정치를 하면서 사용된 명칭이다. 일제는 통감부의 하부조직으로 주요도시에 이사청을 설치, 그 장을 이사관이라고 하였다. 그 뒤 1920년부터 조선총독부지방관제에 의하여 도에 이사관을 두었다.

1948년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이사관이라는 직급이 설정되었다가 1961년 행정이사관·재경이사관·치안이사관 등으로 세분되었으며, 그 뒤 몇 차례의 변동이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도의 부지사, 인구 3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이나 기타 지방국세청·지방체신청 등 중요한 지방행정기관의 책임자를 이사관으로 한 때 보하기도 하였다. 이사관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2006년 7월에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면서, 과거 1~3급의 계급이 폐지되면서 이사관의 직급도 폐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었다.

1급인 관리관의 아래이고, 3급인 부이사관의 위이며, 중앙관청의 국장급이다.

국가공무원으로는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별정직군 일반 행정직류의 이사관, 공안직군의 교정이사관, 검찰이사관·출입국관리 이사관, 광업직군의 광업이사관, 농림수산직군의 농림이사관, 축산이사관·수의이사관·수산이사관, 물리직군의 물리리이사관, 보건직군의 보건이사관·의무이사관·약무이사관·간호이사관, 교통직군의 교통이사관·선박이사관·항공이사관·수로이사관, 시설직군의 시설이사관, 정보통신직군의 정보관리이사관·정보통신이사관, ② 국회소속 공무원인 행정직군 일반행정직렬 이사관, ③ 법원소속 공무원인 법원행정사무직군 법원사무직류의 법원이사관 등이 있다. 지방공무원으로는 행정직군 일반행정직류의 지방이사관이 있다.

주사

역사적으로는 995년(성종 14)과 1894년(고종 31)의 관료제도에서 주사라는 직급이 있었으나, 오늘날의 주사와는 다르다.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주사라는 직급이 설정되었다. 1961년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4급 공무원이 갑류와 을류로 구분되고, 4급갑류의 사무계공무원을 주사라는 명칭 앞에 직무분야를 명시하여 행정주사·재경주사·사세주사·통계주사 등으로 세분하였다.

1981년「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4급갑류공무원은 6급공무원으로 되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1950년 「지방공무원령」의 제정으로 지방주사라는 직급이 설정된 뒤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주사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6급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6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국가공무원인 행정주사·검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세무주사·감사주사 등과 행정직의 6급 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 등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주사만을 말한다.

그러나 주사와 주사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사보까지를 주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주사는 7급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무원 아닌 자를 신규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주사는 그 직위에 따라 직무가 다르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하위급으로 근무하지만, 소규모 행정기관에서는 기관장의 직무 또는 부서장의 직무를 행하기도 한다.

현재 주사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고, 부서장을 맡지 않은 6급~9급 직원을 통틀어 주무관이라 통상 부른다.

2) 2020년 현 기준 경기도 행정구역 – 28시 3군

2020년 현재 경기도 관할의 시군은 28시(고양시·과천시·광명시·광주시·구리시·군포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안양시·양주시·여주시·오산시·용인시·의왕시·의정부시·이천시·파주시·평택시·포천시·하남시·화성시) 3군(가평군·양평군·연천군)이다.

(1) 수원시

1395년(태조 4) 양광도가 충청도와 경기도로 개편되면서 수원은 경기도에 편입되었고, 1413년(태종 13) 수원도호부가 되었다. 1895년 23부제의 실시로 수원은 인천부에 편입되었고, 1896년 23부제가 폐지되면서 다시 경기도로 편입되면서 도청소재지가 되었다.

1914년 3월 1일 남양군(영흥면과 대부면 제외)과 광주군 의곡면·왕륜면, 안산군 월곡면·북방면·성곶면이 수원군으로 통합되었다. 1931년 4월 1일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격하고, 수원읍의 리(里)를 정(町)과 정목(丁目)으로 세분하였다. 1936년 10월 1일 일형면, 안룡면, 태장면의 각 일부가 수원읍에 편입되었고, 일형면과 의왕면을 일왕면으로 합면하였다. 1941년 10월 1일 성호면이 오산면으로 개칭되었다.

1949년 8월 14일 수원읍이 수원부로 분리·승격하였고, 수원군은 화성군으로 개칭되었다. 같은 해 8월 15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府)가 시(市)로 일괄 개칭해 수원시가 되었고, 일본식 행정구역명인 정(町)은 동(洞)으로, 정목(丁目)은 가(街)로 고쳤다.

1963년 1월 1일 화성군 일왕면의 구 일형면지역(상광교리·하광교리·조원리·송죽리·파장리·정자리·이목리·율전리·천천리·탑리·구운리), 태장면 일부(원천리·매탄리·권선리), 안룡면 일부(곡반정리·대황교리·장지리·고색리·평리·오목천리)를 수원시에 편입하였다. 1967년 6월 23일 경기도청이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에서 수원시 매산로 3가로 이전하였다. 1972년 18개동을 통폐합하였다.

1983년 2월 15일 용인군 수지면 하리, 이의리가 수원시에 편입되었다. 1987년 1월 1일 화성군 매송면 금곡리, 호매실리가 수원시에 편입되었다. 1988년 7월 1일 장안구와 권선구가 설치되었다. 1993년 2월 1일 장안구의 일부와 권선구의 일부를 분리하여 팔달구를 설치하였다. 1994년 12월 26일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전부와 신리, 망포리 일부,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부가 수원시에 편입되었다. 1995년 4월 20일 화성군 태안읍 신리와 망포리가 전부 수원시에 편입되었다.

2002년 4월 24일 수원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다. 2003년 11월 24일

팔달구의 동쪽 일부를 분리하여 영통구를 설치하고, 장안구·권선구·팔달구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였다. 2007년 5월 9일 광교신도시 조성에 따라 영동고속도로 남쪽의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및 기흥구 영덕동 일부를 영통구 하동에 편입하고, 영동고속도로 북쪽의 하동 일부를 용인시의 수지구 상현동으로 이관하였다.

2014년 4월 수원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울산광역시를 추월하였다. 2019년 9월 13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부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부를 교환하였다. 2020년 7월 24일 수원시 영통구 신동, 망포동 일부와 화성시 반정동 일부를 교환하였다. 현재 시청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번지에 있으며 행정구역은 4구(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44행정동 56법정동 이 설치되어 있다.

구 행정구역	신행정구역
수원읍 남창정, 남수정, 매향정, 구천정, 영정, 북수정, 신풍정, 장안정, 고등정, 화서정, 영화정, 서둔정, 인계정, 우만정, 세류정	수원시 남창동, 남수동, 매향동, 구천동, 영동, 북수동, 신풍동, 장안동, 고등동, 화서동, 영화동, 서둔동, 인계동, 우만동, 세류동
수원읍 본정(本町) 1정목, 본정 2·3·4정목	수원시 중동, 팔달로 3·2·1가
수원읍 궁정(宮町), 남부정(南部町), 지소정(紙所町), 지야정(池野町), 대평정(大坪町)	수원시 교동, 매교동, 연무동, 지동, 평동
수원읍 매산정 1·2·3정목	수원시 매산로 1·2·3가

표 2 1949년 대통령령제 161호 및 법률 제32호에 따른 행정구역변화

(2) 고양시

1413년(태종 13) 고봉과 덕양 두 현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뽑아 고양현을 설치하여 현감을 두었다. 1895년 칙령 제 98호에 따른 23부제의 실시로 한성부 고양군에 편제되었다가, 1896년 23부제가 폐지되면서 다시 경기도 고양군이 되었다.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로 양주군 신혈면(神穴面)이 고양군에 편입하였다.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고양군은 9면(사리대면, 신혈면, 원당면, 하도면, 구지도면, 중면, 구이면, 사포면, 송산면) 50개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12면(용강면, 연희면, 은평면, 숭인면, 뚝도면, 한지면, 벽제면, 신도면, 원당면, 지도면, 송포면, 중면) 155개리를 관할하였다. 즉 경성부 8개 면과 양주군 고양주면(古楊州面)이 편입되었고, 일부 면을 통폐합하여 12개면으로 개편했다(12면).

1936년 4월 1일 부령 제8호(1936.2.24.공포)로 용강면·한지면과 연희면 일부, 숭인면 일부, 은평면 일부가 경성부로 편입되었으며, 연희면 중 경성부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7개리를 은평면에 편입하였다(9면).

1949년 8월 15일 법률 제159호와 제160호로 숭인면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뚝도면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은평면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편입되었다(6면). 이들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각각 숭인·뚝도·은평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이로써 1914년에 고양군으로 편입되었던 경성부 성저십리 지역이 전부 서울특별시로 재편입되었다.

1961년 8월 7일 각령 제87호(1961.8.7.공포)로 고양군청이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번지에서 고양군 원당면 주교리로 이전하였다. 1967년 3월 28일 고양군 조례 제126호로 신도면에 화전출장소가 설치되었다(6면 1출장소).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6호에 의거하여 신도면 구파발리, 진관내리 및 진관외리가 서울시 서대문구에 편입되었고, 신도면이 신도읍으로 승격하였다(1읍 5면 1출장소).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1979.4.7.공포)로 원당면이 원당읍으로 승격하였다(2읍 4면 1출장소).

198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0050호(1980.10.21.공포)로 벽제면이 벽제읍으로, 중면이 일산읍으로 각각 승격하였다(4읍 2면 1출장소). 198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1772호(1985.9.27.공포)로 지도면이 지도읍으로 승격하였고, 신도읍 화전리·현천리·덕은리·향동리를 관할로 하여 화전출장소가 화전읍으로 승격하였다(6읍 1면). 1986년 11월 1일 일산읍에 백마출장소를 설치하였다(6읍 1면 1출장소). 1989년 6월 1일 고양군 일산읍, 송포면 지역에 일산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었다.

1992년 2월 1일 법률 제4417호로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하면서, 원당읍이 주교동·식사동·원신동·흥도동·성사동으로, 신도읍이 효자동·신도동·창릉동으로, 일산읍이 중동·일산동·풍산동·천청동·백마동·낙민동·장항동으로, 벽제읍이 고양동·관산동·고봉동으로, 지도읍이 능곡동·화정동·행주동·행신동으로, 화전읍이 화전동·대덕동으로, 송포면이 송포동·송산동으로 분동하였다(26행정동).

1993년 6월 1일 시조례 제164호로 중동을 일산2동, 일산동을 일산1동, 청천동을 백석동, 백마동을 마두1동, 낙민동을 마두2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4년 7월 1일 시조례 제206호로 성사동을 성사1·2동, 주엽동을 주엽1·2동으로 분동(29개동)하였다. 1995년 3월 13일 시조례 제237호로 일산3동을 신설(30개동)하였다. 1996년 3월 1일 덕양구와 일산구가 설치되었다.

2003년 2월 3일 시조례 제746호로 의거하여 행신1·2동을 행신1·2·3동, 일산1동을 일산1동, 탄현동으로 분동하였다(37개동). 2005년 5월 16일 시조례 제892호로 일산구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하였다(3개구). 2006년 10월 29일 시조례 제938호로 백석동을 백석1·2동으로 분동하였다(39개동). 2014년 8월 1일 고양시의 인구가 100만명을 넘

어섰다. 2018년 7월 1일 시조례 제1962호로 신도동을 삼송동으로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고양시에는 3개의 일반구가 있다.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일산신도시 지역이며 덕양구에는 구도심이었던 원당동과 주교동 외에 행신, 화정지구가 있다. 현재 3구, 39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덕양구가 19동, 일산동구가 11동, 일산서구가 9동이다. 시청 소재지는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이다

(3) 용인시

1413년(태종 13) 용구현에 처인현(處仁縣)을 합해 용인현이 되었다. 1895년 6월 23일(음력 윤5월 1일) 23부제의 실시로 5월 26일 충주부 용인군으로 개편하였다. 이 때 군의 치소를 현 기흥구 언남동에서 현 처인구 김량장동(당시 수여면 소학동)으로 옮겼다. 1896년 8월 4일 23부제가 폐지되면서 다시 경기도 용인군으로 개편하였다(9면-수여면, 포곡면, 모현면, 읍삼면, 수지면, 기흥면, 남사면, 이동면, 고삼면).

1914년 4월 1일 용인군, 양지군(현 양지면·동부동과 안성시 고삼면)과 죽산군의 일부(현 원삼면·백암면)를 통합하여 용인군으로 개편하였다(12면: 수여면, 포곡면, 모현면, 읍삼면, 수지면, 기흥면, 남사면, 이동면, 내사면, 고삼면, 외사면, 원삼면). 1931년 읍삼면을 고구려 때의 초명(初名)이던 구성면으로 개칭하였다. 1936년 1월 1일 수여면을 용인면으로 개칭하였다.

1963년 1월 1일 고삼면이 안성군으로 이관되었다(11면). 1973년 7월 1일 구성면 죽전리(竹田里, 현 수지구 죽전동)가 수지면에 편입되었다. 1979년 5월 1일 용인면이 용인읍으로 승격하여 1읍 10면이 되었다.

1983년 2월 15일 수지면 하리·이의리가 수원시로 이관되고, 남사면 진목리의 월경마을이 평택시로 편입되었다. 1985년 10월 1일 기흥면이 기흥읍으로 승격하였다(2읍 9면). 1995년 용인군의 인구가 24만 2천 명을 넘어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군이 되었다. 1996년 3월 1일 용인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용인시로 승격하고, 용인읍을 4개의 행정동으로 분동하였다. 수지면이 수지읍으로 승격하고, 외사면을 백암면으로, 내사면을 양지면으로 개칭하였다(2읍 8면 4행정동). 시 승격 당시 인구는 약 29만 명이었다.

2000년 9월 1일 구성면이 구성읍으로 승격하였다(3읍 7면 4행정동). 2001년 12월 24일 수지읍을 수지출장소(2001년 말 인구 14만8241 명)로 전환하고, 6개 행정동(상현동·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1동·죽전2동·동천동)을 설치하였다(2읍 7면 10행정동).

2002년 9월 5일 용인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03년 3월 31일 상현동에

서 성복동이 분동하였다(2읍 7면 11행정동). 2005년 10월 31일 구제가 실시되어, 3개 구(처인구·기흥구·수지구)가 신설되었다(당시 인구 69만6853 명). 수지출장소가 수지구로 승격하면서 2개 행정동이 추가로 설치되고, 기흥구 관할인 기흥읍이 신갈동·구갈동·상갈동·기흥동·서농동으로, 구성읍은 구성동·마북동·어정동·보정동으로 분동하였으며, 처인구 관할의 포곡면이 포곡읍으로 승격하였다(3구 1읍 6면 22행정동).

2007년 5월 9일 광교신도시 조성에 따라 영동고속도로 남쪽 수지구 상현동 및 기흥구 영덕동 일부를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편입하고, 영동고속도로 북쪽 하동 일부를 상현동에 편입하였다. 2007년 7월 2일 기흥구의 어정동이 동백동과 상하동으로 분동하였다(3구 1읍 6면 23행정동).

2010년 8월 2일 기흥구의 신갈동에서 영덕동이 분동하였다(3구 1읍 6면 24행정동). 2012년 4월 용인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9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7년 9월 1일 용인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7년 12월 11일 이동면, 모현면이 각각 이동읍, 모현읍으로 승격하였다(3구 3읍 4면 24행정동). 2019년 9월 13일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의 일환으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부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부를 교환하였다.

2020년 1월 2일 상갈동은 상갈동·보라동으로, 동백동은 동백1동·동백2동·동백3동으로, 영덕동은 영덕1동·영덕2동으로 분동하였다(3구 3읍 4면 28행정동). 현재 용인시의 행정구역은 3구(처인구·기흥구·수지구), 3읍 4면 28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성남시

현재의 성남시는 조선시대 광주군 군내면과 세초면이다.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1895. 5. 26)로 한성부 광주군이 되었고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로 발표된 〈지방제도관제봉급경비개정의 건〉에 의해 경기도 광주부가 되었다. 1906년 10월 1일 칙령 제49호로 발표된〈지방구역정리의 건〉에 의해 광주군이 되어 군청을 중부면 산성리에 설치하고 북방면·성곶면·월곡면을 안산군에, 초부면과 동부면 팔당리를 양주군에 편입하였다.

1911년 3월 6일 낙생면사무소(낙생, 돌마, 대왕면 통합 관할)를 개소하였고 1913년 12월 29일 광주군 군내면과 세초면을 합쳐 중부면을 설치하였다. 1913년 탄리 275번지에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를 설치하였다(수진리, 상대원리, 단대리, 상대원리, 탄리, 복정리, 창곡리 등 9개 리 관할, 면급).

1946년 2월 중부면 성남출장소 사무실을 수진리로 이전하였고, 3월 3일 중부면 직할 성남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64년 2월 24일 광주군 조례 제68호를.공포 하여, 중부면 성남출장소에서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로 변경하였다(읍면동급). 수진리 145번지에 성남출장소 청사를 이전하였다. 1968년 5월 7일 성남지구 내 주택단지 경영사업 실시인가 대상자를 건설부에서 서울특별시로 변경하였고 8월 1일 광주군 성남지구 도시건설사업소를 설치하였으며 9월 1일 서울특별시 철거민 이주 및 정착정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주대단지 사업소 설치하였다. 1969년 4월 1일 성남지구택지 주택단지 조성공사를 시공하였고 5월 2일부터 서울특별시 철거지역 철거민 단계적 집단 입주를 개시하여 5월 4일까지 48세대 154명이 입주하였다.

1970년 9월 19일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군 간 업무 분담 행정협약을 체결(광주군: 일반행정 분담, 서울특별시:용지매수 및 건설사업 지원)하였다. 1971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와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발한 광주 대단지 사태가 발생하였다. 1971년 8월 18일 광주군 낙생면, 돌마면, 대왕면을 흡수하고, 경기도청 직할로 변경, 경기도 조례 제470호가 발포되었다. 그러나 법적 행정구역상, 지도상 주소지는 경기도 광주군이었다(출장소 직할지인 구 세초면지역 9개 리와, 출장소산하 3개 면 33개리 관할). 1971년 8월 31일 광주군 성남지구 도시 건설 사업소 및 서울특별시 광주대단지 사업소를 폐지하였다. 1971년 9월 13일 도조례 제470호(1971.8.18.공포)로 경기도 성남 출장소를 설치하고 광주군의 대왕면, 낙생면, 돌마면 일원과 중부면 중 단대리, 상대원리, 탄리, 수진리, 복정리 및 창곡리를 관할하였다.

1972년 4월 6일 경기도청 규칙 제648호(1972.4.6.공포) 포고, 동일부로 성남출장소 산하 성남지구보건진료지소(5급, 산하 보건행정계,의학계,방역계,위생계) 설치하였다.

1973년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와 수도권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및 서울특별시 외곽도시의 합리적인 육성을 위한 법률 제2597호(1973.3.12.공포)를 발포하였다.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1973.3.12.공포)로 경기도 성남 출장소를 성남시로 승격하였고, 시조례 제20호(1973.7.1.공포)로 대왕출장소, 낙생출장소 설치하였으며 시조례 제70호(1973.7.1.공포)로 동사무소 설치하였다(18개동).

1975년 3월 17일 시조례 제133호(1975.3.17.공포)로 돌마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0월 1일 시조례 제147호(1975.10.1.공포)로 신흥동과 태평동을 신흥1동, 신흥2동과 태평1동을 태평2동으로, 행정동을 분동하였다(20개동). 1976년 10월 1일 시조례 제184호(1976.9.30.공포)로 수진동과 단대동을 수진1동·수진2동과 단대1동, 단대2동으로 행정동을 분동하였다(22개동).

1979년 1월 1일 시조례 제306호(1978.12.14.공포)로 상대원동을 상대원1동, 상대원2동으로 행정동을 분동하였다(23개동). 9월 15일 시조례 제348호(1979.9.15.공포)로 은

행동을 은행1동, 은행2동으로 행정동을 분동하였다(24개동).

1980년 9월 1일 시조례 제419호(1980.8.25.공포)로 신흥2동을 신흥2동, 신흥3동으로 태평1동을 태평1동, 태평3동으로 단대2동을 단대2동, 단대3동으로 상대원1동을 상대원1동, 상대원3동으로 행정동을 분동하였다(28개동). 1983년 10월 1일 시조례 제586호(1983.9.16.공포)로 단대1동을 단대1동, 단대4동으로 행정동을 분동하였다(29개동).

1988년 7월 1일 시조례 제858호(1988.6.30.공포)로 성남시 수정출장소 및 중원출장소를 설치하였고, 은행2동을 은행2동, 은행3동으로 행정동을 분동하였으며(30개동), 돌마출장소·대왕출장소·낙생출장소를 폐지하였다.

1989년 5월 1일 시조례 제931호(1989.4.26.공포)로 수정출장소 및 중원출장소를 수정구청, 중원구청으로 승격하였고, 시조례 제932호(1989.4.26.공포)로 단대1동을 단대동으로, 단대2동단대3동을 금광1동, 금광2동으로 단대4동을 산성동으로, 은행3동을 양지동으로 동명칭을 변경하였다. 시조례 제934호(1989.5.1.공포)로 출장소를 폐지하였다.

1990년 1월 1일 시조례 제1014호(1989.12.30.공포)로 수정구 태평2동을 태평2동, 태평4동으로 행정동을 분동하였다(31개동). 1991년 7월 1일 시조례 제1134호(1991.5.27.공포)로 분당출장소를 설치하였고, 9월 17일 시조례 제1152호로 분당출장소를 분당구청으로 승격하였으며 시조례 제1153호로 수정구 둔전동 일부를 중원구성남동으로, 수정구 사송동 일부 중원구 여수동, 도촌동 일부를 분당구야탑동으로 편입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였다.

1992년 5월 1일 시조례 제1192호로 분당구 분당동에서 초림동, 서현동으로 행정동을 분동하였다(33개동). 시조례 제1193호로 중원구 금광동 일부를 중원구 은행동으로, 분당구 이매동 일부를 서현동으로, 분당구 백현동 일부를분당구 서현동으로, 분당구 수내동 일부를 분당구서현동으로, 분당구 수내동 일부를 분당구 분당동으로, 분당구 서현동 일부를 분당구 수내동으로, 분당구 백현동 일부를 분당구 수내동으로, 분당구 궁내동일부를 분당구 수내동으로, 분당구 정자동 일부를분당구 수내동으로 편입 법정동간 경계조정하였다. 7월 15일 시조례 제1200호로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였다.

1993년 1월 20일 시조례 제1253호로 분당구 분당동에서 서당동, 수내동으로 이매동에서 매송동, 하탑동으로 행정동을 분동하였다(37개동). 6월 5일 시조례 제1272호로 분당구 서현동 일부를 수내동으로정자동 일부를 수내동으로 편입 법정동간 경계조정하였고, 분당구 분당동에서 내정동으로 이매동에서 야탑동, 중탑동으로 행정동 분동하였다(40개동).

1994년 7월 27일 시조례 제1323호로 분당구 서현동 일부를 분당구 분당동으로, 분당구 율동 일부를 분당구 분당동으로, 분당구 수내동 일부를 분당구 정자동으로, 분당구 궁

내동 일부를 분당구수내동으로분당구 백현동 일부를 분당구 서현동으로 편입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였다.

1995년 3월 6일 시조례 제1360호로 분당구 내정동에서 정자동으로 행정동을 분동하였다(41개동). 시조례 제1361호로 분당구 구미동 일부를 분당구 금곡동으로, 분당구 금곡동 일부를 분당구 구미동으로, 중원구 동원동 일부를 분당구 구미동으로 편입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였다. 1996년 1월 15일 시조례 제1407호로 분당구 정자동에서 신기동과 불정동을 금곡동에서 구미동을 행정동을 분동하였다(44개동).

2000년 10월 18일 시조례 제1733호로 중원구 여수동을 하대원동으로, 분당구 수내동을 수내3동으로, 초림동을 수내1동으로, 내정동을 수내2동으로, 정자동을 정자2동으로, 불정동을 정자3동으로, 신기동을 정자1동으로, 서현동을 서현1동으로, 서당동을 서현2동으로, 이매동을 이매1동으로, 매송동을 이매2동으로, 야탑동을 야탑1동으로, 중탑동을 야탑3동으로, 하탑동을 야탑2동으로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5년 3월 21일 시조례 제1971호로 분당구 금곡동 일부 및 궁내동 일부를 금곡1동으로, 동원동 일부 및 구미동 일부를 금곡2동으로 편입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였다. 2007년 12월 13일 시조례 제2176호로 중원구 도촌동을 신설하였다(하대원동에서 분동).

2008년 9월 22일 시조례 제2257호로 분당구 금곡1동을 금곡동으로, 금곡2동을 구미1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시조례 제2277호(2008. 12. 22.공포)로 분당구 판교동을 판교동과 삼평동으로 분동하였다(47동). 2009년 10월 5일 시조례 제2353호(2009. 10. 5. 공포)로 분당구 판교동을 판교동과 백현동으로 분동하였다(48동).

2011년 11월 7일 시조례 제2510호로 중원구 중동을 중앙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대원동 1개 필지(하대원동 538-1)를 중앙동으로 편입하였다. 2015년 5월 1일 시조례 제2868호(2015.4.13.공포)로 분당구 정자1동을 정자동과 정자1동으로 분동하였고(49동), 11월 2일 시조례 제2907호(2015.10.12.공포)로 수정구 복정동을 복정동과 위례동으로 분동하였다(50동). 현재 성남시의 행정 구역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로 구분된다. 시청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에 있다.

(5) 화성시

1413년(태종 13)에 설치된 수원도호부는 1793년(정조 17)에 화성유수부로 승격되었고, 1895년 수원군으로 개편되었다(수원군 9개면 남양군 이속). 1895년 23부제의 실시로 수원군은 인천부로 편입되었다가, 1896년 8월 4일 23부제의 폐지로 다시 경기도로 편입하였다.

1914년 3월 1일 남양군과 수원군을 수원군으로 통합(도서는 제외)하였다. 1914년 4월 1일 남양군(영흥면과 대부면 제외)과 광주군 의곡면·왕륜면, 안산군 월곡면·북방면·성곶면이 수원군으로 통합되었다(21면: 수원면, 일형면, 태장면, 안룡면, 매송면, 봉담면, 비봉면, 팔탄면, 향남면, 음덕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우정면, 장안면, 양감면, 의왕면, 정남면, 성호면, 동탄면, 반월면) 1931년 4월 1일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격하고, 수원읍의 리(里)를 정(町)과 정목(丁目)으로 세분하였다. 1936년 10월 1일 일형면, 안룡면, 태장면의 각 일부가 수원읍에 편입되었고, 일형면과 의왕면을 일왕면으로 합면하였다. 1941년 10월 1일 성호면이 오산면으로 개칭되었다.

1949년 8월 14일 수원읍이 수원시로 분리·승격하였고, 수원군이 화성군으로 개칭되었다(19면 : 태장면, 안룡면, 매송면, 봉담면, 비봉면, 팔탄면, 향남면, 음덕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우정면, 장안면, 양감면, 일왕면, 정남면, 오산면, 동탄면, 반월면). 1949년 8월 15일 음덕면을 남양면으로 개칭하였다. 1960년 1월 1일 오산면이 오산읍으로 승격하였다(1읍 18면). 1963년 1월 1일 일왕면·태장면·안룡면 각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되고, 일왕면은 의왕면으로 개칭하여 시흥군에 편입되었고, 태장면과 안룡면은 태안면으로 합면하였다(1읍 16면). 1970년 6월 10일 군청사를 수원시에서 오산읍으로 이전하였다.

1983년 2월 15일 반월면 월암리·초평리를 시흥군 의왕읍에 편입하고, 비봉면 상기리를 봉담면에 편입하였다. 1985년 10월 1일 태안면이 태안읍으로 승격하였다(2읍 15면). 1986년 1월 1일 반월면 일부를 신설된 안산시에 편입하였다. 1987년 1월 1일 서신면 칠곡리가 송산면에 편입되었다. 팔탄면 지월리 일부가 향남면에 편입되어 장짐리가 신설되고, 동탄면 금곡리 일부가 오산읍에 편입되어 은계리가 신설되었다. 매송면 금곡리, 호매실리가 수원시에, 양감면 고렴리가 평택군에 각각 편입되었다. 1989년 1월 1일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하여 화성군에서 분리되었다(1읍 15면).

1994년 12월 26일 태안읍 영통리·신리 일부·망포리 일부, 반월면 입북리·당수리가 수원시에, 반월면 건건리·사사리·팔곡1리가 안산시에, 반월면 둔대리·대야미리·속달리·도마교리가 군포시에 각각 편입되었다. 이로써 반월면은 폐지되었다(1읍 14면). 1995년 4월 20일 태안읍 신리·망포리가 수원시에 편입되었다. 1998년 4월 1일 봉담면이 봉담읍으로 승격하였다(2읍 13면).

2000년 11월 1일 군청사를 오산시 오산동에서 남양면 남양리로 이전하였다. 2001년 3월 21일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하였다. 이와 함께 태안읍과 동탄면, 정남면을 관리하는 동부출장소를 설치하고, 남양면이 남양동으로 전환하였다(2읍 12면 1동). 2003년 6월 14일 우정면이 우정읍으로 승격하였다(3읍 11면 1동).

2006년 1월 2일 동부출장소가 확대 개편(5담당→5과 21담당)되었다. 태안읍을 폐지하고, 진안동(법정동:진안동·능동·기산동·반정동), 병점1동(법정동:병점동 일부), 병점2동(법정동:병점동 일부), 반월동(법정동:반월동), 기배동(법정동:기안동·배양동), 화산동(법정동:황계동·송산동·안녕동) 등 6개 동으로 분리·전환하였다(2읍 11면 7동).

2007년 1월 29일 향남면이 향남읍으로 승격하고, 동탄면 반송리·석우리와 능동에 동탄동이 설치되었다(3읍 10면 8동). 2008년 3월 3일 동탄동이 동탄1동, 동탄2동으로 분리되었다(3읍 10면 9동). 2009년 6월 8일 동탄3동이 동탄1동에서 분동하였다(3읍 10면 10동). 2010년 9월 27일 화성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4년 10월 20일 남양동이 남양읍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남양동 관할 법정동 역시 법정리로 환원되었다(4읍 10면 9동). 2015년 1월 2일 동탄면 영천리·청계리·오산리에 중리·목리·산척리·방교리의 각 일부를 편입하여 동탄 4동(법정동:영천동·청계동·오산동)이 설치되었다(4읍 10면 10동). 2016년 1월 화성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6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7년 10월 화성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안산시를 추월하였다.

2018년 1월 22일 송산그린시티 동측 지구에 새솔동을 설치하고, 동탄면·동탄4동을 동탄4동·동탄5동·동탄6동으로 개편하였다(4읍 9면 13동). 2018년 2월 화성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7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8년 11월 5일 동탄출장소를 설치하였다.

2019년 7월 1일 동탄 6동에서 동탄 7동을 분동하였다(4읍 9면 14동). 2019년 9월 화성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8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9년 10월 21일 동탄 6동에서 동탄 8동을 분동하였다(4읍 9면 15동). 2020년 3월 화성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부천시를 추월하였다. 2020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30794호(2020.6.23.공포)로 수원시 영통구 신동과 망포동 일부를 화성시 반정동 일부와 교환하였다

현재 행정구역은 4읍 9면 15행정동 25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 있다.

(6) 부천시

조선시대 부평도호부는 1895년(고종 32) 종래의 8도를 폐지하고 23부제를 시행하면서 인천부에 속한 부평군이 되었다. 당시 부평군은 15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14년 3월 1일 군부(郡府) 폐합령에 따라 인천의 일본 조계 지역과 주변지역을 인천부로 삼고, 인천부 일부·강화군·남양군 일부 지역과 부평군을 합하여 부천군으로 개편하였다. 이때 부천이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1914년 당시 부천군 15개 면(다주면, 문학면, 소래면, 남동면, 부내면, 계양면, 오정면, 계남면, 서곶면, 북도면, 대곶면, 영흥

면, 용유면, 영종면, 덕적면) 가운데 계남면·오정면의 대부분 및 소래면의 일부 지역이 현재의 부천시 영역에 해당한다. 신설된 부천군은 인천부의 일부와 부평군을 중심으로 강화군의 일부 섬, 남양군의 대부면과 영흥면의 섬들을 포함하여 15면 160리에 달했다. 당시 부천군청은 인천도호부가 위치한 문학면 관교리에 있었다. 1914년 4월 1일 면 폐합으로 3개면이 계남면으로 통합되었는데, 당시 소사역 일대는 계남면에 해당하였다. 계남면은 1931년 소사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1년 소사읍으로 승격되었다.

1936년 10월 1일 부천군 다주면(도화리 일원, 장의리 일원, 용정리 일원, 사충리 일원, 간석리 일부)과 문학면 일부(옥련리 일원, 학익리 일원, 관교리 일부, 승기리 일부)를 인천부에 재편입하였고 다주면을 폐지하였다. 1940년 4월 1일 부천군 문학면, 남동면, 부내면, 서곶면을 인천부에 편입하였다(1읍 9면 : 소사읍, 소래면, 오정면, 계양면, 영종면, 북도면, 대곶면, 영흥면, 용유면, 덕적면).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1962.11.21.공포)로 소사읍의 7개리(고척, 개봉, 오류, 천왕, 궁범, 범, 온수)와 오종면의 2개리(오곡, 오도)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고 영종면 중산리의 일부인 작약도가 인천시에 편입되었다(1읍 9면). 1966년 8월 24일 부천군조례 제 135, 136, 137호로 북도면, 장봉도, 용유면, 무의도, 영흥도, 자월도에 각각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 공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였다. 이에 따라 1973년 행정구역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수도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인구집중 억제, 무질서한 시가지 팽창 방지를 위해 수도권의 행정구역 조정이 있었다.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1973.3.12.공포)로 부천군이 폐지되면서 9면이 옹진군·시흥군·김포군에 이관되고(부천군 관할 소래면은 시흥군에, 오정면과 계양면은 김포군에, 영종·북도·용유·덕적·영흥·대곶면은 옹진군에 각각 편입),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되었다(10동).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7호(1975.9.23.공포)로 김포군 오정면이 부천시에 편입되었다(12동). 1979년 11월 1일 시조례 제 356호로 시청사를 원미동 71번지로 이전하였다.

1982년 시조례 제546호로 신흥동을 신흥1동과 신흥2동으로, 심곡2동을 심곡2동과 심곡3동으로, 소사동을 소사1동과 소사2동으로, 중앙동을 원미동과 춘의동으로 각각 분동하였다(16동). 1983년 2월 15일 시흥군 소래읍 계수리 일부와 옥길리 일부를 편입하였고 10월 1일에 역곡동을 역곡동과 괴안동으로 분동하였다(17동). 1984년 5월 11일 도당동과 내동 일부가 오정동에 편입되었다. 1985년 11월 15일 소사1동을 소사1동과 소사3동

으로, 역곡동을 역곡1동과 역곡2동으로, 원미동을 원미1동과 원미2동으로, 송내동을 송내동과 상동으로 각각 분동하였다(21동). 1986년 8월 23일 삼정동 및 중동 일부가 약대동에 편입되었다. 1986년 심곡동, 소사동, 역곡동, 괴안동, 원미동, 중동, 송내동, 상동 일부가 상호 편입되었다. 1988년 1월 1일 구제가 실시되어 남구와 중구가 설치하였고, 7월 30일 성곡동 일부가 성지동에 편입되었다. 1989년 남구 괴안동을 역곡 3동과 괴안동으로, 중국 성지동을 원종동과 고강동으로 각각 분동하였다.

1990년 1월 1일 남구 심곡1동을 심곡본동과 심곡1동으로, 송내동을 송내1동과 송내2동으로, 중구 신흥1동을 도당동과 신흥1동으로 분동하였고(26개동), 9월 9일 중구 원종동을 원종1동과 원종2동으로, 고강동을 고강본동과 고강1동으로 분동하였다(28개동). 1992년 2월 6일 중구 원미동 일부를 중구 춘의동에 편입하였고, 6월 1일 중구 심곡3동을 심곡3동과 심곡진동으로 분동하였다(29개동).

1993년 2월 1일 중동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중구를 원미구(遠美區)와 오정구(梧丁區)로 나누고, 역곡동·중동·상동을 제외한 남구는 소사구(素砂區)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3년 5월 20일 원미구 중동을 중동과 중1동으로, 심곡1동·심곡3동·춘의동·중동 일부를 중2동으로, 상동을 상동과 상1동으로 분동하였고, 9월 24일 원미구의 법정동 경계를 변경하였다. 1994년 소사구 심곡본2동을 심곡본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5년 원미구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운동 일부가 오정구 삼정동에 편입되었고, 원미구 중1동이 중1동과 중3동으로 나뉘어 졌다.

2012년 1월 1일 인구 2만 미만의 소규모 행정동을 공동생활권인 이웃동과 통합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소사본1동과 소사본2동 주민센터가 소사본동으로 통합되었다.

2016년 7월 4일 행정체재 개편으로 3개 구청(원미, 소사, 오정)이 폐지되고 동의 기능을 강화한 권역별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하였다. 기존의 동은 유지되면서 권역별로 중심이 되는 원미1동, 심곡2동 등 10개의 동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었다. 즉 36개의 행정동을 10개의 행정복지센터가 관할하도록 조정하였다.

2019년 7월1일 '현장·복지' 행정서비스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36개의 동 주민센터가 10개의 광역동과 28개의 주민지원센터로 구성·운영되는 부천시 '광역동'이 시행되었다. 즉 2019년 7월 1일부터 행정동을 10개로 통폐합하고, 종전의 36개 동 주민센터가 10개의 광역동 주민센터와 28개의 주민지원센터로 구성 운영된다. 부천시의 행정 구역은 10행정동(신중동, 중동, 상동,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성곡동, 오정동) 24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은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에 있다.

(7)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1980년 전에는 양주군에 속했다. 1980년 4월 1일 법률 제3169호(1979.12.28.공포)로 양주군에서 구리읍, 미금읍, 진접면, 진건면, 수동면, 화도면, 와부면과 별내면(고산리, 산곡리는 의정부시로 편입)을 관할로 하는 남양주군이 분리·설치되었다(2읍 6면). 12월 1일 대통령령 제10050호(1980.10.21.공포)로 와부면이 와부읍으로 승격하였다.(3읍 5면)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1983.1.10.공포)로 진건면 양지리·오남리·팔현리가 진접면으로 편입되었다(→ 현 오남읍).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1985.12.28.공포)로 구리읍 일원을 관할로 구리시가 설치되어 군에서 분리되었다(2읍 5면). 1986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11874호(1986.3.28.공포)로 와부읍 조안출장소가 조안면으로 승격하여 와부읍에서 분리되었다(2읍 6면). 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50호(1988.12.30.공포)로 미금읍 일원을 관할로 미금시(渼金市)가 설치되었다(1읍 6면). 같은 해 4월 1일 남양주군 조례 제663호(1989. 3. 31.공포)로 별내면 퇴계원출장소를 관할로 퇴계원면(3.26 ㎢,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면)이 신설되었고, 진접면이 진접읍으로 승격하였다.(2읍 6면)

1991년 12월 1일 남양주군 조례 제810호(1991.11.29.공포)로 화도면이 화도읍으로 승격되었다(3읍 5면). 1992년 4월 1일 남양주군 조례 제810호(1991.11.29.공포)로 진접읍에 오남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1994. 12.31.공포)로 미금시와 남양주군 일원을 관할로 도농복합형태의 남양주시가 설치되었고(3읍 5면 6동) 같은 해 5월 6일 남양주시 조례 제140호(1995.5.6.공포)로 오남출장소가 오남면으로 승격하였다.(3읍 6면 6동)

2001년 9월 12일 남양주시 조례 제454호(2001.9.12.공포)로 진건면, 오남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다(5읍 4면 6동). 2005년 6월 1일 남양주시 조례 제596호(2005. 5.12.공포)로 별내면 청학출장소를 개소하였다. 2006년 1월 20일 남양주시 조례 제618호(2006.1.5.공포)로 퇴계원면에 진접·오남·별내·퇴계원을 관할하는 풍양출장소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11월 20일 남양주시 조례 제637호(2006.5.18.공포)로 화도읍에 동부출장소가 설치되었다.

2008년 10월 7일 남양주시 인구가 50만명을 돌파하였다. 2009년 12월 14일 남양주시 조례 제854호(2009.10.8.공포)로 별내면 청학출장소를 폐지하였다. 2012년 1월 2일 남양주시 조례 제1006호(2011.12.22.공포)로 별내면 덕송리와 화접리가 별내동으로 승격하였다(5읍 4면 7동).

2013년 1월 7일 남양주시 인구가 60만명을 돌파하였다. 2016년 1월 4일 남양주시 조례 제1320호(2015.11.19.공포)로 3개 행정복지센터(와부·조안, 화도·수동, 호평·평내)가 개청하였다. 2017년 2월 6일 남양주시 조례 제1417호(2017.1.25.공포) 풍양출장소를 폐지하고, 남양주시 조례 제1417호(2017.1.25.공포)로 5개 행정복지센터(별내, 진접·오남, 진건·퇴계원, 금곡·양정, 도농·지금)가 개청하였다.

2017년 12월 18일 남양주시 조례 제1487호(2017.10.30.공포)로 가운동을 다산동으로 개칭하고, 도농동·지금동·수석동·일패동·이패동·진건읍 배양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였다. 지금동·가운동·이패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지금동으로 하였다. 행정동 도농동은 다산1동으로 개칭하여 다산동 중 국도 제6호선 이북 지역을 관할하게, 지금동은 다산2동으로 개칭하여 이남 지역을 관할하게 하였다.

2018년 3월 남양주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안산시를 추월하였다. 2019년 10월 남양주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7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9년 10월 10일 남양주시 조례 제1676호(2019.10.21.공포)로 퇴계원면을 퇴계원읍으로 승격하였다. 2019년 10월 21일 퇴계원면이 퇴계원읍으로 승격하였다.

현재 행정구역은 6읍(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오남읍, 퇴계원읍) 3면(별매면, 수동면, 조안면) 7행정동(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다산1동, 다산2동, 별내동) 11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청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제2청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다산동)에 있다.

(8) 안산시

1976년 12월 31일 시흥군과 화성군의 일부였던 안산 일대에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조례 제757호로 경기도 반월도시 개발지원 사업소가 설치되었다. 1979년 8월 10일 도조례 제969호로 경기도 반월도시 개발지원 사업소가 경기도 반월출장소로 승격되고, 반월지소, 수암지소, 군자지소를 설치하였다.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로 반월출장소가 안산시로 승격되었다(7동). 즉 화성군 반월면, 시흥군 수암면·군자면의 각 일부 지역을 합쳐 안산시가 신설되었다. 1988년 10월 1일 시조례 제213호로 중앙동을 고잔1동·고잔2동·성포동으로, 원곡동을 원곡1동·원곡2동으로, 원초동을 공단동·초지동으로 분동하였다.

1991년 11월 18일 시조례 제416호로 반월동을 일동·본오동으로, 수암동을 월피동·와동으로, 선부동을 선부1동·선부2동으로 분동하였다(14동). 1993년 12월 1일 시조례 제509호로 본오동을 사동과 본오동으로, 선부2동을 선부2동과 선부3동으로 분동하였다(16동).

1994년 1월 1일 군자동을 원곡본동으로 개칭하였다. 1994년 7월 15일 본오동을 본오1동·본오2동으로 분동하였다. 1994년 12월 26일 화성군 반월면 일부와 옹진군 대부면(大阜面)을 편입하였다. 1195년 3월 2일 월피동에서 부곡동을 분동하였다. 1995년 4월 20일 시흥시 일부를 안산시에 편입하였다.

1996년 1월 22일 사동을 사1동·사2동으로 분동하고, 본오2동에서 본오3동을 분동하였다. 1997년 5월 28일 대부동을 대부출장소에 편입하였다. 1998년 10월 12일 공단동을 초지동에 합동하였다. 2002년 11월 1일 상록구와 단원구를 새로 설치하면서 구제(區制)를 실시하였다. 현재 행정구역은 2구 24행정동 30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은 단원구 화랑로 387에 있다.

구	동·출장소
상로구	일동, 이동, 사1동, 사2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단원구	와동, 고잔1동, 고잔2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출장소

표 3 현재의 안산시 행정구역

(9) 안양시

1914년 3월 1일 일제에 의한 행정폐합으로 종전의 시흥군과 인근의 과천군, 안산군(현 시흥시 남부 포함. 월곶면·북방면·성곶면은 수원군에 편입)이 통합하여 시흥군으로 개편되었다(9면 : 북면, 신동면, 동면, 서면, 과천면, 서이면, 남면, 수암면, 군자면). 1941년 10월 1일 시흥군 군 서이면을 안양면으로 개칭하였다.

1949년 8월 15일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었고 1963년 1월 1일 시흥군 동면 신안양리와 서면 박달리가 안양읍에 편입되었다. 1973년 7월 1일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12동)되었다.

1979년 4월 28일 안양6동을 안양6동과 안양7동으로, 석수동을 석수1동과 석수2동으로 각각 분동하였다(14동).

1982년 9월 1일 비산동을 비산1동과 비산2동으로 분동하였고(15동) 1983년 10월 1일 호계동을 호계1동과 호계2동으로 분동하였다(16동). 1985년 11월 5일 안양6동을 안양6동과 안양8동으로 호계1동을호계1동과 호계3동으로 분동하였다(18동). 1987년 1월 1일 광명시 소하동 일부를 석수2동으로 편입하였고, 1989년 5월 1일 만안출장소·동안출장소 설치하였다.

1990년 1월 1일 석수2동을 석수2동과 석수3동으로 분동하였으며(19동), 5월 20일 비산2동을 비산2동과 비산3동으로 관양동을 관양1동과 관양2동으로 분동하였다(21동). 1992년 5월 1일 비산2동을 비산2동과 부흥동으로 호계2동을 호계2동과 범계동으로 각각 분동하였고(23동), 10월 1일 만안, 동안 출장소를 폐지하고 만안·동안구청을 설치하였다.

1993년 1월 15일 관양2동을 관양2동과 부림동으로, 평촌동을 평촌동과 평안동으로, 범계동을 범계동과 신촌동으로 분동하였다(26동). 1993년 5월 20일 부흥동을 부흥동과 달안동으로, 호계1동을 호계1동과 갈산동으로 행정동을 분동하였다(28동).

1994년 7월 1일 만안구 안양3동을 안양3동과 안양9동으로, 만안구 박달동을 박달1동과 박달2동으로, 동안구 평안동을 평안동과 귀인동으로 각각 행정동을 분동하였다(31동). 1994년 12월 22일 행정구역 일부를 변경(市間)하였다. 즉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부→군포시 편입,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부→군포시 편입,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부→의왕시 편입, 군포시 산본동 일부→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편입하였다. 12월 26일에는 안양동 일부를 박달동으로, 박달동 일부를 안양동으로, 평촌동 일부를 호계동으로 편입하였다.

1995년 4월 20일 시간 경계가 변경되었는데, 군포시 산본동 일부→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편입하였다. 1996년 1월 1일 법정동 경계를 변경하였다. 즉 동안구 관양동 일부→비산동 편입, 동안구 관양동 일부→평촌동 편입, 동안구 평촌동 일부→관양동 편입하였다. 그리고 행정동 경계도 변경되었는데, 만안구 안양2동 일부→안양3동 편입, 만안구 안양5동 일부→안양1동 편입, 만안구 안양5동 일부→안양4동 편입, 동안구 갈산동 일부→신촌동으로 편입하였다.

1997년 1월 1일 행정동 경계를 변경하였는데, 만안구 안양1동 일부→안양2동 편입, 만안구 안양2동 일부→석수1동과 비산1동에 편입, 동안구 비산2동 일부→비산3동 편입, 동안구 평촌동 일부→귀인동에 편입하였다. 2000년 12월 29일 법정동 및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였는데, 만안구 안양7동 일부→안양1동으로 편입하였고 만안구 박달2동 일부→석수3동에 편입하였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2구 31행정동 7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다.

구	동
동안구	갈산동 · 관양1동 · 관양2동 · 귀인동 · 달안동 · 범계동 · 부림동 · 부흥동 · 비산1동 · 비산2동 · 비산3동 · 신촌동 · 평안동 · 평촌동 · 호계1동 · 호계2동 · 호계3동
만안구	박달1동 · 박달2동 · 석수1동 · 석수2동 · 석수3동 ·안양1동 · 안양2동 · 안양3동 · 안양4동 · 안양5동 · 안양6동 · 안양7동 · 안양8동 · 안양9동

표 4 2020년 현재 안양시의 행정구역

(10) 평택시

조선시대에는 현재 평택시의 동부(평택·송탄 시내 동지역과 진위·서탄·고덕면)는 경기도 진위현(진위군)에, 서부(포승·안중읍과 청북·오성·현덕면)는 경기도 수원유수부(수원군)에 속해 있었고, 현재의 팽성읍과 고덕면 남쪽 일부는 충청도 평택현(평택군)에 속했다.

1914년 3월 1일 경기도 진위군(현재의 평택시 도심과 진위면·서탄면·고덕면 중 당현리, 두릉리, 문곡리, 동청리를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수원군 서남부 지역(현재의 안중읍·포승읍·청북읍·오성면·현덕면·고덕면 중 당현리, 두릉리, 문곡리, 동청리 지역)과 충청남도 평택군(현재의 팽성읍 지역)을 통폐합하여 경기도 진위군으로 개편하였다(11면: 북면, 서탄면, 송탄면, 고덕면, 병남면,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오성면, 부용면, 서면)

1926년 진위군청을 북면에서 병남면으로 이전하였고 1931년 4월 1일 도령 제7호 진위군 병남면을 평택면으로 개칭하였다. 1934년 4월 1일 부용면과 서면이 팽성면으로 합면하였다(10면). 1938년 10월 1일 부령 제196호(1938.9.27.공포)로 진위군을 평택군으로 개칭하였고, 1939년 10월 1일 부령 제197호로 평택군 평택면 일원을 평택읍으로 승격하였다(1읍 9면).

1948년 8월 1일 북면이 진위면으로 개칭되었다. 1962년 6월 15일 평택군조례 제25호로 송탄면 신장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7호(1962. 11.21.공포)로 송탄면이 송탄읍으로 승격되었다(2읍 8면).

1972년 9월 1일 평택군조례 제330호로 평택군 안정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79년 4월 28일 평택읍 중부, 동부, 서부, 북부출장소를 설치하였고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1979.4.7.공포)로 팽성면을 팽성읍으로 승격하였으며(3읍 7면), 평택군조례 제615호(1979.4.28.공포)로 평택읍이 4과 4개 출장소로 직제 개편하였다(3읍 7면).

1980년 2월 11일 평택군조례 제647호로 평택군 안정출장소를 팽성읍 안정출장소로 변경하였다. 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5호(1981.4.13.공포)로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하여 평택군에서 분리되었다(2읍 7면, 송탄시 8동).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1983.1.10.공포)로 안성군 원곡면 용이리·죽백리·청용리·월곡리와 안성군 공도면 소사리가 평택군 평택읍으로 편입되었다.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1985.12.28.공포)로 평택읍이 평택시로 승격하여 평택군에서 분리되었다(평택군 1읍 7면, 송탄시 8동, 평택시 6동). 1986년 11월 18일 송탄시 조례 제398호(1986.11.13.공포)로 송탄시청사를 중앙동에서 서정동(800번지)으로 이전하였다.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1986.12.23.공포)로 화성군 양감면 고렴리가 평택군 청북면에 평택군 서탄면 적봉리 일부가 송탄시 서정동에 각각 편입하였다. 1987년 7월 1일 안중출장소가 설치되었다(당시 평택군청은 평택시 관할 구역내에 소재하였다). 1989년 4월 1일 평택군조례 제1220호(1989.3.31.공포)로 안중출장소 관할 일부가 안중면으로 승격하였고, 평택군조례 제1222호(1989.3.31.공포) 성해리, 현화리, 송담리를 신설하였다(1읍 8면, 송탄시 8동, 평택시 6동).

1992년 4월 19일 평택군조례 제1419호(1992.3.26.공포)로 팽성읍 서부출장소를 설치하였고, 1992년 6월25일 평택시조례 제443호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였다(서부동에서 원평동으로 변경). 1992년 11월 26일 평택시조례 제454호로 시청사 소재지를 변경하였다(평택동 35의 20번지에서 비전동 846번지로 변경).

1995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14629호로 진위면 갈곶리, 고현리, 청호리 각 일부가 오산시에 편입되었다. 1995년 5월 10일 법률 제4948호(경기도 평택시 등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법률)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도농복합시인 평택시로 통합되었다(1읍 8면 14동). 1996년 4월 19일 평택시조례 제197호로 동부동이 송탄동으로 개칭되었다.

1997년 4월 26일 평택시조례 제253호로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진위면 갈곳리에서 진위면 갈곶리로 변경, 청용동에서 청룡동으로 변경하였다. 1998년 10월 1일 평택시조례 제353호로 과소동 통폐합으로 도원동이 송탄동에 합동되었다(1읍 8면 13동).

2001년 3월 17일 평택시 조례 제533호(2001.8.10.공포)로 비전2동 제59통 관할구역 중 아파트 명칭을 "진우함박공원(아)"에서 "신세계타운(아)"로 변경 조정하였다. 2002년 11월 5일 평택시조례 제585호로 안중면이 안중읍으로 승격하였다(2읍 7면 13동). 2006년 12월 29일 평택시조례 제813호로 통·리·반 조정(844통·리 3548반 →860통·리 3670반으로 조정)하였고 평택시조례 제814호로 포승면을 포승읍으로 승격하였다(3읍 6면13동).

2009년 11월 30일 평택시 조례 제963호로 읍·면간 통간 경계를 조정(안중읍 덕우리 일부→청북면 옥길리 : 98필지), 평택시 조례 제964호로 통·리·반 설치기준을 개정하였다(제3조제2항제1호 “1,500가구”→ “1,000가구”).

2015년 7월 31일 평택시 조례 제1266호로 통·리·반을 조정(739통리 3,203반→733통리 3,243반 조정), 평택시 조례 제1267호로 리간 경계를 조정하였다(평택항 신생매립지→ 포승읍 신영리(16필지 650,389.7㎡), 포승읍 희곡리 포승읍→ 포승읍 신영리(25필지, 164,550.1㎡), 고덕면 궁리→고덕면 여염리(22필지, 26,012.0㎡), 고덕면 방축리→고

덕면 여염리(221필지, 260,741.0㎡), 모곡동 →고덕면 여염리(27필지, 6,062.0㎡), 장당동→고덕면 여염리(865필지, 1,239,974.0㎡), 지제동→고덕면 여염리(222필지, 374,495.0㎡), 고덕면 해창리 →고덕면 동청리(15필지, 9,009.9㎡)).

2016년 7월 28일 평택시 조례 제1360호로 청북면이 청북읍으로 승격되었다(4읍 5면 13동). 2019년 4월 11일 평택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50만 명을 넘었다. 2019년 9월 27일 평택시 조례 제1717호로 통리반이 조정되었고, 비전2동 분동에 따른 신규 행정동(용이동)이 신설되었다. 2019년 9월 30일 비전2동에서 용이동을 분동하였다(4읍 5면 14동).

현재 평택시의 행정 구역은 4읍 5면 14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를 두고 있다.

(11) 시흥시

1914년 3월 1일 일제에 의한 행정폐합으로 종전의 금천군(시흥군)과 인근의 과천군, 안산군(현 시흥시 남부 포함. 월곶면·북방면·성곶면은 수원군에 편입)이 통합하여 시흥군으로 개편되었다(9면 : 북면, 신동면, 동면, 서면, 과천면, 서이면, 남면, 수암면, 군자면). 1931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03호에 의해 시흥군 북면, 시흥군 영등포면이 시흥군 영등포읍으로 승격되었다.1936년 4월 1일 북면의 11개리, 동면의 1개리, 영등포읍의 1개리 및 2개리의 일부가 경성부에 편입되었다(1읍 7면). 1941년 10월 1일 시흥군 서이면을 안양면으로 개칭하였다.

1949년 8월 14일 동면 도림리, 구로리, 번대방리(1936년 경성부 확장 당시 경성부에 편입되지 못한 구 북면 잔여지역)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편입되었고,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었다.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가 행정구획을 대거 확장하면서 동면, 신동면이 영등포구에 편입되어 관악출장소와 신동출장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화성군 일왕면을 편입하여 의왕면으로 변경하였다.

1973년 7월 1일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12개동)되었고, 부천군 소래면(현 시흥시 북부)이 시흥군으로 편입되었고(7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봉동과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졌다. 1974년 6월 1일 서면 광명출장소를 군출장소로 승격하였고, 1979년 5월 1일 남면을 군포읍으로, 서면은 소하읍으로 승격하였으며(2읍 5면), 8월 10일 반월지구 출장소를 설치하여 수암면과 군자면의 관할구 중 13개리를 반월출장소 관할로 삼았다.

1980년 12월 1일 의왕면과 소래면이 읍으로(1출장소 4읍 3면), 1981년 7월 1일 소하읍이 광명시로 승격되었다(3읍 3면). 1982년 6월 10일 과천면을 관할로 하는 과천지구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83년 2월 15일 시흥군 소래읍 옥길리 및 계수리 일부가 부천 및 광명으로 편입하였고 화성군 반월면 월암리와 초평리는 의왕읍에 편입하였다. 1983년 3월 1일에 의왕읍에 동부출장소를 설치하였고, 1986년 1월 1일에 과천지구출장소는 과천시로, 반월출장소는 안산시로 승격하였다.

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50호로 시흥군 소래읍, 수암면, 군자면 일원을 관할로 시흥시가 설치되면서 시흥군이 폐지되었다. 이 때 시로 승격한 현재의 시흥시는 조선시대 시흥군 지역(현재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영등포구·관악구 및 동작구 일부, 구로구 동부, 경기도 광명시)과는 다른 지역이다.

1991년 1월 15일 매화동의 무지·과림동을 중림출장소로, 신관동의 하중동 안산동의 화정동, 목감동의 능곡·광석·하상, 거모동의 장현·장곡동을 연성출장소로 승격하였다. 1991년 9월 1일 시조례 제282호로 중림출장소, 연성출장소를 중림동, 연성동으로 개편하였다. 1992년 1월 1일 시조례 제282호로 신관동(新官洞)을 신현동으로, 중림동을 과림동으로 개칭하였다. 1993년 대야·신천동간 경계 중 일부를 변경하였다. 1994년 6월 22일 시조례 제374호로 거모동을 군자동으로 개칭하였다. 1995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14629호로 안산동(법정동: 수암동·장상동·장하동) 및 화정동 일부가 안산시에 편입되었다. 1995년 11월 15일 시조례 제423호로 무지동을 무지내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9년 9월 27일 시조례 제573호로 정왕동을 정왕1동, 정왕2동으로 분동하였다.

2002년 3월 2일 시조례 제694호로 정왕2동을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으로 분동하였다. 2003년 12월 23일 정왕1동을 정왕본동, 정왕1동으로 분동(시조례 제764호) 2004년 1월 1일 정왕1동을 정왕본동, 정왕1동으로 분동하였다. 2010년 9월 20일 시조례 제1132호로 연성동을 연성동, 능곡동으로 분동하였다.

2014년 3월 1일 시조례 제1356호로 월곶동(법정동: 월곶동)이 군자동에서, 장곡동(법정동: 장곡동)이 연성동에서 각각 분동하였다. 2015년 5월 13일 대야동, 신천동을 관할로 대야·신천 행정센터가 설치되었다. 2018년 6월 16일 서해선이 개통하였다. 2018년 10월 8일 시조례 제1743호로 정왕4동을 정왕 4동과 배곧동으로 분동하였다.

현재 행정구역은 18행정동 30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은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에 있다.

(12) 파주시

조선시대 경기도 파주목은 1895년(고종 32) 23부제의 실시로 한성부 파주군으로 개편되었고 1896년(건양 원년) 23부제가 폐지되면서 다시 경기도 파주군으로 개편하였다.

1914년 3월 1일 교하군(현 금촌동·교하동·운정동과 탄현면)이 파주군에 편입되었다(11면 : 주내면, 천현면, 월롱면, 광탄면, 조리면, 임진면, 파평면, 와석면, 청석면, 탄현면, 아동면). 1934년 4월 1일 와석면(瓦石面), 청석면(靑石面)을 교하면으로 합면하였다(10면).

1945년 11월 3일 38선 이남의 연천군 적성면과 남면을 파주군에 편입하였다(12면). 1946년 2월 5일 남면을 양주군으로 이관하였다(11면). 1963년 1월 1일 적성면 눌목리와 삼화리가 연천군 전곡면과 미산면에 편입되고 장단군 군내면을 파주군 임진면에 편입하였다.

1972년 12월 28일 장단군 장단면·진동면·진서면·군내면을 파주군에 편입하였다(15면). 1973년 7월 1일 적성면 장파리가 파평면에 편입되었고, 아동면(衙洞面)을 금촌읍으로 승격하고, 임진면 일원과 월롱면 내포리를 합하여 문산읍으로 승격하였다(2읍 13면). 1979년 5월 1일 군내면에 군내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80년 12월 1일 주내면을 주내읍으로 승격하였다(3읍 12면). 1983년 2월 15일 양주군 백석면 영장리·기산리를 파주군 광탄면에 편입하여 영장출장소를 설치하였고, 파평면 이천리를 문산읍으로 편입하고, 주내읍을 파주읍으로 개칭하였다. 1987년 1월 1일 광탄면 기산리 일부(기산 1리)를 양주군 백석면에 편입하였다. 1989년 1월 1일 교하면 상지석리 일부를 양주군 백석면에 편입하였고, 4월 1일 천현면을 법원읍으로 승격하였다(4읍 11면).

1990년 11월 9일 장단면 정동리를 설치하였다. 1996년 3월 1일 파주군 일원을 관할로 도농복합형태의 파주시가 설치되었고, 금촌읍을 폐지하고, 금촌1동·금촌2동을 설치하였다(3읍 11면 2행정동). 2002년 4월 1일 교하면과 조리면을 교하읍과 조리읍으로 각각 승격하였다(5읍 9면 2행정동). 2003년 교하읍 일대에 파주 운정신도시가 착공되었다.

2011년 5월 1일 군내출장소를 장단출장소로 개칭하였다. 2011년 7월 25일 금촌1동을 금촌1·3동으로 분동, 교하읍을 폐지하고 교하동·운정1·2·3동 설치하였다(4읍 9면 7행정동).

현재 행정구역은 4읍 9면 7행정동 22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은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에 있다.

(13) 의정부시

조선시대 양주군 시북면과 둔야면을 1910년 1월 1일 병합하여 시둔면(자일리, 금오리, 가릉리, 녹양리, 낙양리, 민락리, 호원리, 의정부리, 용현리, 신곡리, 장암리)으로 개칭하였다. 1922년 10월 1일 양주군청이 주내면 유양리에서 시둔면 의정부리로 이전하였다.

1938년 1월 1일 시둔면이 양주면으로 개칭하였다. 1942년 10월 1일 양주면이 의정부읍으로 승격하였다.

1963년 1월 1일 양주군 의정부읍이 의정부시로 승격하였다. 1970년 7월 1일 가능 2동에서 가능 3동을 분동하였다. 1980년 4월 1일 양주군 별내면 고산리, 산곡리를 편입하였다. 1994년 7월 1일 장곡동을 장암동, 신곡동으로 분동하였다. 1995년 3월 2일 신곡동을 신곡1동, 신곡2동으로 분동하였다. 1998년 10월 14일 의정부4동을 의정부1동으로 합동하였다.

2000년 9월 25일 양주군청이 의정부동에서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로 이전하였다. 2003년 2월 3일 호원동을 호원1동, 호원2동으로, 송산동을 송산1동(법정동 : 용현동, 고산동, 산곡동), 송산2동(법정동 : 민락동, 낙양동)으로 분동하였다. 2017년 4월 3일 가능2동과 가능3동을 흥선동으로 합동하였다. 2018년 9월 27일 가능1동을 가능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20년 1월 6일 의정부3동을 의정부1동으로 합동하였다. 2020년 1월 13일 송산2동을 송산2동(법정동 : 민락동), 송산3동(법정동 : 민락동, 낙양동)으로 분동하였다. 현재 행정구역은 14행정동 13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다.

(14) 김포시

1414년(태종 14) 8월 양천현을 합병하여 금양현(金陽縣)으로 했다가 같은 해 10월 다시 분리하여 양천은 금천(衿川:현 시흥), 김포는 부평부에 편입시켜 김포라는 이름이 사라졌다가 1416년 7월 원상회복시켜 김포현을 설치하였다. 1632년(인조 10) 북성산(北城山)에 장릉(章陵)을 모신 후 김포현을 군으로 승격시켰다. 1895년(고종 32) 23부제로 행정구역이 재편되면서 인천부 김포군이 되었다가, 1896년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가 되면서 경기도에 속하였다.

1914년 3월 1일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 때 김포, 양천, 통진군을 폐합하여 9개면이 김포군이 되었다. 통합 전 김포군에 속했던 군내면, 석한면, 고현내면은 군내면으로, 검단면, 마산면, 노장면은 검단면으로, 임촌면, 고란태면은 고촌면으로, 통진군에 속했던 부내면, 보구곶면, 월여곶면, 소이곶면, 고리곶면, 반이촌면, 질전면, 봉성면, 대파면, 양릉면, 상곶면은 지역조정을 거쳐 월곶, 하성, 양촌, 대곶면으로, 양천군의 현내면, 삼정면, 가배곡면, 남산면, 장군소면이 양동, 양서면으로 되어 9개 면으로 조정되었다(9면 : 군내면, 검단면, 고촌면, 양촌면, 월곶면, 대곶면, 하성면, 양동면, 양서면). 1936년 4월 1일 양동

면 양화리를 경성부에 편입하였다. 1938년 1월 1일 군내면을 김포면으로 개칭하였다.

1958년 국제공항이 여의도에서 양서면 김포국제공항으로 이전하였다. 1963년 1월 1일 법률1172호로 양동면, 양서면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편입되었다(6면).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로 부천군 계양면(현 인천광역시 계양구)과 오정면(현 부천시 북부, 옛 오정구 전역 및 약대동, 도당동)이 김포군에 편입되었다(9면). 1975년 10월 1일 오정면이 부천시로 이관되었고(8면),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7호김포면이 김포읍으로 승격하였다(1읍 7면).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양촌면 일부(마송리·도사리·수참리), 월곶면 일부(옹정리·고정리·서암리·귀전리·동을산리) 및 대곶면 가현리를 관할로 하여 통진면이 신설되었다(1읍 8면). 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51호로 계양면이 인천직할시 북구에 편입되었다(1읍 7면).

1995년 3월 1일 법률 제4802호로 검단면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다(1읍 6면). 1998년 4월 1일 법률 제5458호로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되었다. 김포읍을 폐지하고, 김포1·김포2·김포3동을 설치하였다(3행정동 6면).

2003년 9월 1일 김포3동이 사우동과 풍무동으로 분동하였다.(6면 4행정동) 2004년 1월 1일 통진면이 통진읍으로 승격하였다(1읍 5면 4행정동) 2009년 9월 1일 고촌면이 고촌읍으로 승격하고, 양촌면 구래리 일부와 마산리가 김포2동에 편입되었다.(2읍 4면 4행정동)

2011년 11월 14일 양촌면이 양촌읍으로 승격하였다.(3읍 3면 4행정동) 2012년 9월 24일 장기동(법정동: 장기동 동부, 감정동 일부)이 김포2동으로부터 분동하였다.(3읍 3면 5행정동) 2013년 6월 김포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3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3년 10월 28일 구래동(법정동: 구래동, 마산동)이 김포2동으로부터 분동하였다.(3읍 3면 6행정동)

2015년 2월 2일 운양동이 김포2동으로부터 분동하였다.(3읍 3면 7행정동) 2017년 4월 18일 김포1동이 김포본동으로, 김포2동이 장기본동으로 각각 동명을 변경하였다. 2018년 4월 김포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4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9년 9월 23일 구래동에서 마산동을 분동하였다(3읍 3면 8행정동). 현재 행정구역은 3읍 3면 8행정동 9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에 있다.

(15) 광주시

조선시대 광주목(부)은 1895년(고종 32) 23부제로 행정구역이 재편되면서 한성부 광주군이 되었다가, 1896년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가 되면서 경기도 광주부가 되었다.

1906년 광주부는 광주군으로 개칭하여 군청을 중부면 산성리에 설치하였고 북방면, 성곶면, 월곡면을 안산군에, 초부면과 동부면 팔당리를 양주군에 편입하였다.

1911년 8월 29일 상적리에 대왕면사무소를 개설하고 돌마면은 1911년 말 정자리에 면사무소를 개설하였다. 1914년 4월 1일 광주군 군내면 소속의 7개리 (산성, 검복, 불당, 오전, 광지원, 용미, 상산곡리)와 세촌면 소속의 7개리 중 6개리(단대, 상대원, 수진, 복정, 창곡, 탄리)를 관할로 하여 중부면이 신설되었으며, 세촌면 1개리(하대원리)는 돌마면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경안면, 중부면, 동부면, 서부면,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낙생면, 돌마면, 대왕면, 언주면, 구천면, 중대면의 16면으로 개편하고 중부면 산성리에 군사무소를 배치하였다. 이때, 의곡면, 왕륜면을 합하여 의왕면(儀旺面)이라 하고 수원군에 편입되고, 양평군 남종면은 광주군으로 편입되었다. .

1914년 9월 4일 경기도고시 제46호로 도내 각 면의 사무소 위치를 고시하였는데 언주면사무소 소재지는 염곡동, 대왕면은 괴하동이었으며 신동면은 우면리였다. 1917년 12월 군청을 중부면 산성리에서 경안면 경안리로 이전하였다. 1938년 1월 1일 경안면을 광주면으로 개칭하였다. 1939년 군청 소재지를 광주면 송정리로 이전하였다.

1946년 3월 3일 종전의 세촌면 관할구역 6개리(단대, 탄, 수진, 상대원, 복정, 창곡리)를 관할하는 중부면 성남출장소를 설치하여 탄리 275번지에 개소하였다가 1948년 수진리로 옮겨 사무를 보게 되었다.

1963년 3월 1일 구천면, 중대면, 언주면과 대왕면의 5개리(일원, 수서, 자곡, 율현 세곡리)가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편입되었다(13면). 1964년 2월 24일 광주군 조례 제68호에 의거 중부면 성남출장소가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로 승격되어 수진리 145번지에 성남출장소 건물을 신축 개소하여,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광주군수 직할 지휘 감독 체제로 전환하였다.

1973년 7월 1일 기존의 경기도 성남출장소 관할하던 지역(대왕면·낙생면·돌마면 일원과 중부면 중 단대리·상대원리·탄리·수진리·복정리·창곡리)을 관할로 성남시가 설치되었다. 그 밖에 초월면 상번천리와 하번천리가 중부면으로, 오포면 목리가 광주면으로, 도척면 삼리와 초월면 신대리가 실촌면으로, 퇴촌면 금사리, 이석리, 삼성리가 남종면으로 편입되었다(10면). 1979년 5월 1일 광주면이 광주읍으로 승격되었다(1읍 9면).

1980년 12월 1일 동부면이 동부읍으로 승격되었다(2읍 8면). 1989년 1월 1일 동부읍·서부면 일원 및 중부면 상산곡리를 관할로 하남시로 분리, 설치되었다(1읍 7면).

2001년 3월 21일 광주군을 광주시로 승격하였다. 이와 함께 광주읍을 경안동·송정동·광남동의 3개 행정동으로 분할하고, 오포면을 오포읍으로 승격하였다(1읍 6면 3행정동).

2004년 6월 21일 초월면과 실촌면을 각각 초월읍, 실촌읍으로 승격하였다(3읍 4면 3행정동). 2009년 5월 4일 행정타운로 50에 광주시 신청사 개청하였다.

2011년 6월 21일 실촌읍을 곤지암읍으로 개칭하였다. 2015년 10월 16일 중부면을 남한산성면으로 개칭하였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3읍 4면 3행정동 13법정동이며 시청은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에 있다.

(16) 광명시

1914년 3월 1일 총독부령 제 111호(1913.12.29.공포)로 금천(시흥), 안산, 과천의 3개군이 시흥군으로 통합되면서 시흥군 서면이 되었고, 1914년 4월 1일 시흥군 서면과 남면이 시흥군 서면(일직리, 소하리, 철산리, 하안리, 박달리, 광명리, 노온사리, 가학동)로 통폐합되었다.

현대적인 광명시의 역사는 1963년 9월 17일 시흥군 서면 광명리, 철산리, 하안리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건설부 고시 제547호)에 편입되면서 주택지구로 개발되면서 시작되었다. 1970년 6월 10일에는 시흥군 조례 제199호에 의하여 서면 광명리와 철산리의 2개 법정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면 광명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70년 12월 1일 광명리 일부가 서울통화권(영등포전신전화국 오류분실 관할)에 처음으로 편입되었다. 1973년 7월 1일에는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흥군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시흥군에서 분리되었다.

1974년 6월 1일에는 시흥군 조례 제401호에 따라 서면 광명출장소가 시흥군 광명출장소로 승격되었고(1974년에는 서면 광명출장소가 시흥군 직할 광명출장소가 되었다) 1976년 4월 20일 광명출장소 7개의 분소(分所)가 설치되었다. 1978년 8월 1일 광명리, 철산리 일원의 서울통화권(개봉전신전화국 관할) 편입이 완료되었다. 1978년 12월 22일 시흥군 서면 중 소하리·일직리·노온사리·가학리가 안양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다.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로 서면이 소하읍으로 승격되었으며, 서울 편입 무산으로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5호에 의하여 시흥군 소하읍과 광명출장소가 광명시로 승격되어 시흥군에서 분리되었다. 당시 인구는 15만 명이었다.

1982년 12월 28일 안양천 일부 월경지와 철산1동 삼각주마을을 제외한 철산동·광명동·하안동 대부분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1963년 편입)에서 해제되었고, 안양시 도시계획구역(1978년 편입)이었던 남부의 소하동·학온동과 합쳐져 광명시 도시계획구역이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구로구(현 금천구) 독산동의 월경지는 광명시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되었다. 1983년 2월 15일 시흥군 소래읍 옥길리 일부(1리·3리)가 광명시

로 편입되었다. 1987년 1월 1일 소하동 일부가 안양시 석수동으로 편입되었다. 1995년 3월 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부가 금천구로 분리되면서 목감천의 서울-광명 경계가 조정되고, 광명시 철산3동의 안양천 월경지 일부가 금천구로 편입되었다. 1995년 3월 6일 하안2동을 하안2동과 하안4동으로 분동하였다.

1981년 시 승격 이후에 서울특별시를 배후로 하는 본격적인 베드타운으로 성장하여 철산동, 하안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으며, 2010년 전후로 소하동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18행정동 8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은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다.

(17) 하남시

현재의 하남시 지역은 조선시대 광주유수부의 동부면, 서부면 일대로, 18세기 중반『여지도서』광주목조에 따르면 동부면은 사창리, 산곡리, 덕풍리, 황산리, 둔지리, 팔당리로, 서부면은 항동, 춘장리, 초덕리, 감천리, 동음암리로 구성되었다. 동부면과 서부면의 11개 리는 1912년 28개 동리로 바뀌었다. 즉 동부면은 상사창리, 하사창리, 교촌, 덕풍동, 황산동, 선촌, 망월동, 미사동, 장예촌, 신정리, 당정리, 창우동, 팔당리, 배알미리, 하산곡동, 천현동, 객산동으로, 서부면은 창동, 학암동, 감일동, 감이동, 감북동, 광암리, 초일동, 초이동, 춘장리, 궁촌, 항동으로 확대 세분화되었다. 1917년의 행정구역 개편 내용을 보면 동부면은 천현리, 교산리, 하산곡리, 창우리, 배알미리, 신장리, 당정리, 덕풍리, 풍산리, 망월리, 선리, 미사리 등 12개 법정리로, 서부면은 상사창리, 하사창리, 항리, 춘궁리(춘장리), 초일리, 초이리, 광암리, 감북리, 감일리, 감이리, 학암리 등 11개 법정리였다.

1980년 12월 1일 동부면을 동부읍으로 승격하였고, 1989년 1월 1일 광주군 동부읍(12개리)·서부면(11개리)과 중부면 일부(상산곡리)가 합쳐져 현재의 하남시로 승격하였다(10개동). 2008년 덕풍동 일원을 하남풍산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행정구역이 조정되었다.

2014년 6월 5일 풍산동을 미사1동, 미사2동, 풍산동 등으로 분동하였다(12동). 2015년 11월 5일 감북동을 감북동과 위례동으로 분동하였다. 2015년 12월 7일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및 경기도 성남시와 관할 구역을 조정하였다. 감북동을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감북동, 위례동으로 분동하여 12개 동(洞)에서 13개 동(洞)으로 조정(11월 5일)하였다. 2020년 4월 20일 감북동을 감북동과 감일동으로 분동하였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14행정동 24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은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다.

(18) 군포시

현재의 군포시는 조선 시대 과천현 남면이었다. 191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발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 의하면 과천군 남면의 행정구역은 산본리, 당리, 용호리, 장간리, 부곡리, 괴곡리, 금정리, 당정리, 봉성리, 초막리의 10개리이다. 1914년 3월 1일 금천군(시흥군)·과천군·안산군의 3개 군이 합병해 시흥군이 됨에 따라 과천군 남면(군포시)은 시흥군 남면이 되었고, 당리, 당정리, 금정리, 산본리, 부곡리를 관할했다.

시흥군 남면은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로 시흥군 군포읍으로 승격했다. 그 후 경제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산업시설이 입지가 유리한 군포지역으로 이전되면서 지역의 개발속도가 급진전했다. 이에 수반해 행정의 수요도 날로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지역관리를 위해 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50호로 시흥군 군포읍은 군포시로(5법정동 6행정동 : 군포1동, 군포2동, 당정동,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로 승격하였다. 그 결과 초기에 관할하게 된 지역은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해 당동, 당정동, 부곡동, 산본동, 금정동의 5개 법정동이다. 또한 별도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당동 일부를 군포1동으로, 당동 일부와 부곡동을 합해 군포2동으로, 당정동을 당정동으로, 산본동을 나눠 산본 1동과 산본2동으로, 금정동을 금정동으로 한 6개의 행정동을 하부조직으로 설치했다.

그 후 신도시 건설을 위한 산본동과 금정동 일부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고 주택건설로 인한 입주민 및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 제281호(1992. 4. 28.공포)에 의하여 1992년 5월 1일 금정동을 분동하여 행정동인 재궁동을 설치하였다(7행정동). 또한 조례 제295호(1993.1.14.공포)로 1993년 1월 14일 재궁동을 재궁동과 오금동으로 분동하였다(8행정동). 1993년 6월 8일 조례 제308호로 산본2동을 산본2동과 수리동으로 분동하였다(9행정동).

1994년 7월 19일 조례 제347호로 수리동을 수리동과 궁내동을 분동하였다(10행정동). 1994년 12월 26일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 속달리, 대야미리, 도마교리 등 4개리를 편입하고, 이를 관할로 대야동을 설치하였다(11행정동 9법정동). 1995년 2월 28일 산본2동을 산본2동과 광정동으로 분동하였다(12행정동). 1998년 10월 1일 군포1동과 당정동을 군포1동으로 합동하였다(11행정동). 2015년 4월 1일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을 관할로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하여, 군포1동 주민센터에 종래 본청(시청)에서만 처리하던 민원업무를 처리하였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11행정동 9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4에 있다.

(19) 오산시

1941년 10월 1일 수원군 성호면을 오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1호로 수원군이 화성군으로 개칭되면서 화성군 오산면이 되었다(24개리). 1960년 1월 1일 법률 제 1175호로 오산면이 오산읍으로 승격하였다.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로 화성군 동탄면 금곡3리를 오산읍에 편입하여 은계리로 개칭하였다(45개리).

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50호로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하고, 중앙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역촌동의 6개 동을 설치하였다. 1991년 8월 13일 역촌동을 대원동으로 개칭하였다. 1995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14629호로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고현리·청호리 각 일부를 대원동에 편입하였다. 2012년 12월 오산시 인구가 20만 명을 돌파하였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6행정동 24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은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다.

(20) 양주시

조선시대의 경기도 양주목은 1895년 칙령 제101호로 23부제가 시행되면서 한성부 양주군으로 바뀌었고, 1896년 칙령 제36호로 23부젝 폐지되면서 경기도 양주군으로 소속되었다. 1906년 9월 24일 고양군에 신혈면을, 포천군에 산내면과 청송면을 이관하고, 광주군에서 초부면을 편입하였다. 1912년『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을 보면 양주군은 32면(읍내면, 천천면, 주주내면, 회암면, 어등산면, 묵은면, 현내면, 이담면, 영근면, 석적면, 광석면, 백석면, 장흥면, 시북면, 둔야면, 내동면, 별비면, 진벌면, 접동면, 건천면, 진관면, 상도면, 하도면, 초부면, 와공면, 미음면, 금촌면, 구지면, 망우리면, 고양주면, 노원면, 해등촌면)으로 구성되었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고양주면이 고양군에, 영근면이 연천군에 편입되고, 면(面)·리(里)가 통폐합되는 등 대대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1917년『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는 16면(주내면, 회천면, 은현면, 광적면, 백석면, 시둔면, 별내면, 진접면, 진건면, 화도면, 와부면, 미금면, 구리면, 노해면, 이담면, 장흥면)으로 구성되었다. 1922년 10월 1일 양주군청이 주내면 유양리에서 시둔면 의정부리로 이전하였다. 1938년 1월 1일 시둔면이 양주면으로 개칭하였다. 1938년 군청사를 주내면 유양리에서 양주면으로 이전하였다. 1940년 2월 14일 조안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42년 10월 1일 양주면이 의정부읍으로 승격하였다(1읍 15면).

1946년 2월 5일 연천군이었던 파주군 남면이 편입되었다(1읍 16면).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1962.11.21.공포)로 노해면이 서울 성북구에, 구리면 서부가 동대문구에 각각 편입되었다. 의정부읍이 의정부시로 승격·분리되었고 이담면이 동두천읍으로 승격하였다. 법률 제1176호(1962.11.21.공포)로 화도면의 3개리와 진접면 1개리와 가평군 외서면 3리를 합쳐 수동면이 신설되었다(1읍 15면). 이로 인해, 남부 8개면(현재의 구리시와 남양주시 지역)이 월경지가 되었다. 1966년 7월 11일 별내면 퇴계원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1979.4.7.공포)로 구리면이 구리읍으로 승격하고, 포천군 포천면 탑동리가 동두천읍에 편입되었다.(2읍 14면) 1979년 4월 30일 동두천시 생연 보산, 소요출장소를 설치하고 구리읍 갈매, 수택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1979.4.7.공포)로 미금면이 미금읍으로 승격하였다.(3읍 13면)

1980년 4월 1일 법률 제3169호(1979.12.28.공포)로 양주군에서 구리읍, 미금읍, 진접면, 진건면, 수동면, 화도면, 와부면과 별내면(고산리, 산곡리는 의정부시로 편입)을 관할로 하는 남양주군이 분리·설치되었다. 1981년 7월 1일 동두천읍이 시로 승격·분리되었다. 1983년 2월 15일 은현면 상패리가 동두천시로, 백석면 영장.기산리가 파주군 광탄면으로 편입되었다. 1985년 10월 1일 회천면이 회천읍으로 승격되었고, 1987년 1월 1일에 파주군 광탄면 기산리 일부가 백석면에 편입되었다.

2000년 9월 25일 양주군청이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주내면 남방리로 이전하였다. 2003년 10월 19일 양주군이 도농복합시인 양주시로 승격되었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1읍 4면 6행정동 17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백석읍, 광적면·남면·은현면·장흥면, 양주1동·양주2동·회천1동·회천2동·회천3동·회천4동), 시청은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에 있다.

(21) 이천시

조선시대 이천도호부는 1895년 23부제가 실시되면서 충주부 이천군이 되었고, 1896년 다시 8도제를 시행하면서 경기도 이천군이 되었다. 1912년 이천군은 15면(둔면, 신면, 사면, 백면, 부면, 발면, 초면, 월면, 가면, 모면, 대면, 호면, 장면, 마면,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1913년 부면과 발면을 병합하여 부발면으로 하였고, 신면과 둔면을 병합하여 신둔면이라 하였으며 호면은 호법면으로 개칭하였고 동편에 있는 설성산의 설자와 서편에 있는 노성산의 성자를 따서 설성면이 되었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대면·월면·초면→대월면, 마면→마장면, 모면과 가면→ 모가면, 백면과 사면→ 백사면, 상율면과 하율

면→ 율면이 되었다. 음죽군의 대부분이 이천군에 통폐합하였다.

1917년 이천군은 읍내면, 신둔면, 백사면, 부발면, 대월면, 모가면, 호법면, 마장면, 청미면, 설성면, 율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1938년 10월 1일 이천면을 이천읍으로 승격하였다. 1941년 10월 1일 청미면을 장호원읍으로 승격하였다.

1966년 4월 21일 대월면에 초지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89년 4월 1일 부발면을 부발읍으로 승격하였다. 1996년 3월 1일 이천군 전체를 관할로 도농복합형태의 이천시를 설치하였다. 이천읍이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으로 분동되었다.

1996년 5월 1일 대월면 가운데 초지출장소가 관리하지 않는 지역(단월리, 장록리, 대포리, 고담리)을 중리동에 편입하였고 대월면 초지출장소를 폐지하였다. 2003년 2월 5일 창전동에서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이 분리되어 증포동으로 분동하였다(32개통 279개반으로 행정구역 조정). 현재 2읍 8면 4행정동 15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은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에 있다.

(22) 구리시

구리시의 전신은 조선시대 양주목 구지면으로, 1530년(중종 25)『신증동국여지승람』에 '양주목 구지(龜旨)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타난다. 그러다가 1895년(고종 32) 부군제 실시에 따라 한성부 양주군에 소속되었고, 1896년에는 13도가 설치되면서 경기도 양주군에 소속되었다.

1912년 발간된『구한국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에는 일제에 강제 합병되기전 양주군에 편제되어 있던 32개 면이 보이며, 이 중 구지면에 속한 마을은 사노리, 인장리, 수택리, 백교리, 토막리, 동창리, 이문리, 평촌리, 아차동, 우미천리 등 10개였다.

1914년 4월 1일 구지면의 사노리, 인창리, 수택리, 백교리, 토막리, 동창리, 이문리, 평촌리, 아차동, 우미천리 등 10개 리와 양주군 망우리면의 묵동리, 신현리, 능후동, 방축리, 직곡리, 봉황동, 내동리, 능내동, 양원리, 입암리, 봉현리, 상리, 중리, 하리, 능곡리 등 15개리 그리고 양주군 노원면의 장기리와 갈매동, 양주군 미음면 수변리와 석도리 각 일부, 양주군 진관면 배양동 일부, 양주군 별비면 퇴계원리 일부를 병합하여 구지면의 "구(九)"자와 망우리면의 "리(里)"자를 따서 구리면이라 하였다. 개편된 구리면에는 묵동리·중하리·상봉리·신내리·망우리·인창리·사노리·교문리·수택리·토평리·아천리·갈매리 등 12개 마을이 편제되었으며, 면사무소는 교문리에 두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구리면의 행정편제는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교문리에 있던 면사무소는 1950년 한국전쟁 때 와전히 파괴되어 1952년 4월 이후

부터는 망우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그 후 1955년 8월 10일에 구리면사무소가 인창동의 옛 구리시청 자리에 신축되었다.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구리면의 행정편제는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에 의하여 구리면의 망우산 서쪽 지역(상봉리, 중화리, 묵동리, 망우리, 신내리)이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양주군 구리면에는 인창리, 사노리, 교문리, 수택리, 토평리, 아천리, 갈매리 등 7개 리만 남았는데, 이로써 구리면은 그 지역적 범위가 일제에 의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실시 이전의 '구지면' 정도로 축소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에 의하여 구리면이 구리읍으로 승격하였다. 군 편제에서는 그대로 양주군에 속해 있다가 1980년 4월 1일 법률 제3169호에 의하여 양주군에서 분리 분리·신설된 남양주군에 속하였다. 1986년 1월 1일 법률 제 3798호에 의해 구리읍이 구리시로 승격하여 남양주군에서 분리되었다. 현재 구리시의 행정구역은 8행정동(갈매동·교문1동·교문2동·동구동·수택1동·수택2동·수택3동·인창동) 7법정동이며. 시청은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에 있다.

(23) 안성시

안성은 1413년(태종 13)에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관되었고, 1895년 6월 23일(음력 윤5월 1일) 23부제의 실시로 공주부 안성군에 편입되었다가 1896년 8월 4일 다시 8도제가 실시되면서 경기도 안성군이 되었다.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1913.12.29.공포)로 안성, 양성, 죽산 등 3개군을 통합하여 안성군을 설치하여 12면(읍내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공도면, 원곡면, 죽일면, 죽이면, 죽삼면)으로 개편하였다. 1915년 6월 1일 죽일면을 일죽면으로, 죽이면을 이죽면으로, 죽삼면을 삼죽면으로 각각 개칭하였다. 1931년 읍내면을 안성면으로 개칭하였다. 1937년 7월 1일 안성면을 안성읍으로 승격하였다(1읍 11면).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1962.11.21.공포)로 용인군 고삼면을 안성군으로 편입하였다.(1읍 12면)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1983.1.10.공포)로 안성군 원곡면 용이리·죽백리·청룡리·월곡리와 공도면 소사리를 평택군 평택읍으로 편입하였다.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1986.12.23.공포)로 보개면 양복리 일부를 금광면에, 삼죽면 남풍리·동평리·가현리를 보개면에 편입하였다.

1992년 10월 1일 안성군조례 제1423호(1992.9.30.공포)로 이죽면을 죽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97년 6월 6일 보개면 가사리·가현리와 대덕면 모산리·건지리·소현리 일부를 안성읍에 편입하였다. 1993년 4월 8일 안성군조례 제1443호(1993.4.8.공포)로 대덕면

건지리 일부, 대덕면 소현리 일부를 안성읍에 편입하였다. 1997년 6월 6일 안성군조례 제1629호(1997.5.7.공포)로 보개면 2개리(가사리, 가현리)와 대덕면 3개리(모산리, 건지리, 소현리 일부)를 안성읍에 편입하였다.

1998년 4월 1일 법률 제5458호(1997.12.7.공포)로 안성군 일원을 관할로 도농복합시인 안성시가 설치되었다. 안성읍을 안성1동, 안성2동, 안성3동으로 개편하였다(12면 3행정동). 2001년 6월 1일 안성시조례 제333호(2001.5.29.공포)로 공도면을 공도읍으로 승격하였다(1읍 11면 3행정동). 현재 행정구역은 1읍 11면 3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청은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이다.

(24) 의왕시

1914년 4월 1일 광주군 의곡면과 왕륜면을 통합하여 수원군 의왕면으로 변경하였다. 1936년 10월 1일 수원군 의왕면과 일형면을 합면하여 일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9년 8월 14일 화성군 일왕면으로 변경하였다. 1963년 1월 1일 종전 일형면 지역이 수원시에 편입되고, 시흥군 의왕면으로 변경하였다.

1980년 12월 1일 의왕면이 의왕읍으로 승격되었다. 1983년 2월 15일 화성군 반월면 월암리·초평리가 의왕읍에 편입되었다. 1983년 3월 1일 내손리, 포일리, 청계리, 학의리를 관할로 의왕읍 동부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89년 1월 1일 시흥군 의왕읍이 의왕시로 승격하였다.

2007년 2월 20일 법률 제8244호로 의왕시의 한자명칭을 의왕시(儀旺市)에서 의왕시(義王市) 변경되었다. 현재 행정구역은 6행정동(고천동·내손1동·내손2동·부곡동·오전동·청계동) 11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은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71)에 있다.

(25) 포천시

조선시대 포천현은 1895년 23부제가 실시되면서 포천군으로 승격되었다. 1895년 칙령 제 144호(1895.7.19.공포)로 가평군을 포천군에 병합하였다. 1896년 8월 4일 포천군을 포천군과 영평군으로 분할하였다.

1914년 4월 1일 영평군이 포천군에 편입되었다(12면 : 군내면, 가산면, 내촌면, 소흘면, 서면, 신북면, 청산면, 영중면, 창수면, 영북면, 일동면, 이동면). 1938년 1월 1일 서면이 포천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9월 2일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함으로써 포천군의 약 3분의 2가 미군정 관할이 되었고, 38선 이북인 영북면 전부와 이동면 대부분, 영중면·창수면·청산면의 북부, 일동면의 일부가 소련군정 관할 아래 들어갔다. 같은 해 11월 4일 미군정이 38선 이남의 이동면 지역을 일동면에 편입시키고, 청산면의 면사무소를 초성리에 두었다(10면).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의 결과, 포천군 전 지역이 수복되었다. 수복지구에서 북포천군이라는 이름으로 군정이 실시되었다.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이 회복되었다(12면). 1963년 내촌면 내에 화현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73년 7월 1일 포천면 탑동리가 양주군 동두천읍에 편입되었다. 1979년 5월 1일 포천면이 포천읍으로 승격하였다(1읍 11면).

1983년 2월 15일 연천군 관인면이 포천군으로 편입되었고, 청산면(남청산 4개리→신북면)이 연천군으로 이관되었으며, 내촌면 화현출장소가 화현면으로 승격하였다(1읍 12면). 1989년 1월 1일 관인면 부곡리를 연천군에 편입하였다.

1996년 2월 소흘면이 소흘읍으로 승격하였다(2읍 11면). 2003년 10월 19일 포천군 일원이 도농복합시인 포천시로 승격하고, 포천읍이 2개 행정동(포천동·선단동)으로 전환되었다(1읍 11면 2행정동). 현재 행정구역은 1읍 11면 2행정동 6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청은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이다.

(26) 양평군

1908년 9월 14일 양근군(고읍면, 읍내면, 동종면, 서시면, 서중면, 서종면, 북상도면, 북하도면, 남시면, 남중면, 남종면의 11면)과 지평군(군내면, 남면, 상서면, 하서면, 상북면, 하북면, 상동면, 하동면의 8면)을 합하여 양평군으로 개편하였다(19면).

1914년 3월 1일 양평군 관할 남종면이 광주군에 편입되었다(12면: 갈산면, 양서면, 설악면, 용문면, 지제면, 청운면, 단월면, 강상면, 강하면, 양동면, 고읍면, 서종면) 1931년 고읍면을 옥천면으로 개칭하였다. 1938년 1월 1일 갈산면을 양평면으로 개칭하였다. 1942년 10월 1일 설악면을 가평군에 편입하였다(11면).

1963년 1월 1일 여주군 개군면을 편입하였다(12면). 1973년 7월 1일 서종면 삼회리가 가평군 외서면에, 서종면 노문리 일부가 설악면에 편입되었다. 1979년 5월 1일 양평면을 양평읍으로 승격하였다(1읍 11면). 1989년 4월 6일 양서면 국수출장소를 설치하였다. 2006년 12월 1일 지제면을 지평면으로 개칭하였다. 현재의 행정 구역은 1읍 11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청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에 있다.

(27) 여주시

조선시대 여주목은 1895년(고종 32) 23부제 시행으로 충주부 여주군으로 개편되면서 원주군 강천면이 새로 편입되었다. 1896년(건양 원년) 13도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경기도 여주군으로 환원되어 3등군이 되었다

1914년 4월 1일 읍·면 통폐합 조치에 따라 15개면에서 10개면(주내면, 점동면, 가남면, 능서면, 흥천면, 금사면, 개군면,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으로 개편되었다. 1924년 원주의 지내면, 서면이 여주군에 편입되었고 1938년 1월 1일 주내면이 여주면으로 개칭하였다. 1941년 10월 1일 여주면이 여주읍으로 승격하였다.

1963년 1월 1일 개군면이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70년 12월 16일 금사면에 산북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87년 1월 1일 흥천면 양촌리가 대신면으로 편입되었다. 1989년 4월 1일 산북출장소가 산북면으로 승격되었다(1읍 9면). 1992년 3월 2일 북내면에 오학출장소가 설치되어 1읍·9면·1출장소 체제로 정비되었다.

1995년 3월 1일 강천면 대둔리가 원주시 문막읍에 편입되었다. 2007년 3월 5일 북내면 오학출장소가 여주읍 오학출장소로 개편되었다. 2013년 3월 26일 여주군 일원에 도농복합시를 신설하는 안을 정부에서 의결하였다. 2013년 5월 7일 시 승격이 최종 승인되었다. 2013년 9월 23일 여주군 일원이 여주시로, 가남면은 가남읍으로 승격. 여주읍은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으로 분동, 산북면 하품리가 명품리, 주어리로 분할되었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1읍 8면 3행정동 23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청은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에 있다.

(28) 동두천시

동두천시의 전신은 1466년(세조 12) 양주가 목으로 승격되면서 양주목 관할 34개 면 중의 하나인 이담면이다. 조선시대 이담면은 일담(一潭), 가정자(柯亭子), 이담(伊淡), 이담면(伊淡面) 등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일제강점기 이담면은 1912~1914년 18개리, 1914~1942년 16개리로 운영해 오다가 1942년 다시 10개 리로 축소했다. 1945년 해방 이후 리 편제는 그대로 유지하다가 1953년 점차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말단 행정 단위를 세분 23개리가 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77호로 이담면이 동두천읍으로 승격되었고, 1973년 2월 14일 군조례 제351호로 동두천읍에 광암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5호로 양주군 동두천읍 일원을 관할로 동두천시가 설치되었다. 1983년 2월 15일 법

률 제1107호로 양주군 은현면 상패리가 동두천시에 편입되었다. 1981년 7월 1일 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9개 행정동으로 재편하였으며, 1983년 2월 15일 양주군 은현면 상패리가 동두천시의 관할로 편입되어 1개 행정동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동두천시는 12개 법정동과 10개 행정동이 되었다. 이후 행정동이 병합, 분할되면서 그로 인해 동명이 달라졌다. 1985년 10월 10일 현 시청사로 이전하였다.

1998년 11월 30일 인구 5,000미만 과소동이 동폐합되었고(10개동→7개동), 2007년 5월 14일 불현동 과밀로 인하여 불현동과 송내동으로 분동하였다(7개동→8개동). 현재의 행정구역은 8행정동 12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은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에 있다.

(29) 가평군

1413년(태종 13)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이속되어 현감이 부임된 이래, 1883년(고종 25) 강원도로 편입, 1895년 6월 23일(음력 윤5월 1일) 포천군에 일시 편입되었다가 1896년 8월 4일 포천군에서 분리되어 가평군이 되었다.

1914년 4월 1일 내서면을 군내면에 편입하고, 상북면·하북면을 북면으로 합면하였다(6면 : 군내면, 북면, 남면, 외서면, 상면, 하면) 1938년 1월 1일 군내면을 가평면으로 개칭하였다. 1942년 10월 1일 양평군 설악면을 편입하고, 남면을 가평면, 외서면에 분할 편입해 폐지하였다(6면).

1945년 9월 2일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함으로써 가평군의 대부분 지역이 미 군정의 관할이 되었다(6면). 같은 해 11월 소련군정이 38선 이북 지역(북면 적목리의 북부)을 춘천군 사내면(현 화천군 사내면)과 함께 강원도 김화군에 편입시켰다.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이 회복되었다(6면). 1963년 1월 1일 외서면 입석, 내방, 외방리가 양주군 수동면에 편입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1973.3.12.공포) 가평면이 가평읍으로 승격하고 양평군 서종면 삼회리를 외서면으로, 노문리 일부를 설악면에 편입하였다(1읍 5면).

2004년 12월 1일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개칭하였다. 2015년 12월 16일 하면을 조종면으로 개칭하고 산하 하판리를 운악리로 개칭하였다. 경기도 동북부에 있는 가평군의 현재 행정구역은 1읍 5면(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 북면)이며, 군청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에 있다.

(30) 과천시

1413년(태종 13) 경기도 광주목에 속한 과천현으로 개칭되었다. 1895년 5월 26일 경기도 과천군으로 변경되었고, 1914년 3월 1일 시흥군에 흡수되어 지금의 과천시 일대(종전의 과천군 군내면과 동면 주암리)는 시흥군 과천면이 되었다.

1963년 건설부 고시에 의해 1990년까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으며, 1979년 경기 과천지구 지원사업소가 설치되었다. 1982년 6월 10일 경기도 과천출장소 설치(북부지소, 남부지소)되었고 1984년 10월 15일 경기도 과천출장소 중부지소가 설치되었다.

1982년부터 2012년까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7개의 중앙부처가 위치하였다. 1985년 8월 1일 시외전화 요금수입 감소, 이미 서울통화권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된 광명시, 고양군 신도읍(현 고양시 덕양구 일부), 광주군 서부면(현 하남시 일부)을 제외한 다른 경기도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과 같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서울청사 및 청와대와의 연락 용이 차원에서 종래 안양시 통화권(지역번호 0343) 지역이었던 과천지역이 서울특별시 통화권(지역번호 02)으로 편입되었다.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로 시흥군 과천면 일원에 과천시가 설치(승격)되었다. 2012년 말부터 정부과천청사의 정부 기관 대부분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여 과천청사에는 법무부, 공무원 교육원 등이 남으며, 중앙정부의 서울·경인 지역 지방청들이 입주할 계획이다.

현재 행정구역은 6행정동 10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청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에 있다.

개편 전	개편후
시흥군 과천면 관문리, 주암리, 막계리, 갈현리	각각 관문동, 주암동, 막계동, 갈현동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중앙동, 별양동, 문원동으로 분동
시흥군 과천면 부림리, 원문리	각각 부림동, 원문동

표 5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31) 연천군

1413년(태종 13년) 연천현감을 설치, 1895년 6월 23일(음력 윤5월 1일) 한성부 연천군으로 개편되었다. 1896년 8월 4일 경기도 연천군으로 개편되었다. 1906년 철원군 관인면이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2월 25일 북면을 중면으로 개칭하였다. 1914년 3월 1일 마전군 일원, 적성군 일원, 삭녕군 군내면, 서면, 남면, 동면, 양주군 영근면이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마전군은 왕징면, 미산면, 백학면 등으로 통폐합되었고, 적성군은 적성면(종전 현내면·동면·서면)과 남면으로, 삭녕군의 편입지는 북면(종전 군내면), 동면, 서남면(종전 서면·남면)으로 편입되었다(13면 : 군내면, 군남면, 중면, 관인면, 왕징면, 미산면, 백학면, 적성면, 남면, 북면, 동면, 서남면, 영근면). 1934년 4월 1일 북면과 동면을 통합하여 삭녕면으로 개칭하였다(12면). 1938년 1월 1일 군내면을 연천면으로 개칭하였다. 1941년 영근면(嶺斤面)을 전곡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9월 2일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다. 1945년 10월 3일 연천군 전지역이 소련군정 관할 아래 들어갔다. 1945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22호로 연천군의 미군정 관할 지역이 파주군에 편입되었다(적성면, 남면전역과 백학면, 전곡면 일부를 파주군에 편입). 1946년 9월 5일 연천군과 영평군(포천군의 38선 이북 지역)이 강원도에 편입되었고, 그 해 12월 영평군이 폐지되고 청산면·창수면이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연천군은 연천면, 전곡면, 백학면, 삭녕면, 서남면,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중면, 관인면, 청산면, 창수면 등 12면으로 개편되었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관할 아래 들어갔다.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의 결과, 삭녕면과 서남면의 대부분을 제외한 연천군 전지역이 수복되었다. 1954년 11월 17일 연천군이 행정기능을 회복하고, 파주군에 편입되었던 전곡면과 백학면이 환원되었다. 그러나 적성면과 남면은 환원되지 않았다(8면).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로 철원군 신서면과 장단군 장남면 등이 연천군에 편입되었다(9면 : 파주군 적성면 늘목리를 전곡면에, 삼화(三和)리를 미산면에,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을 연천군에 각각 편입). 1965년 4월 30일 군조례 제111호로 원당리(장남면)에 백학면 원당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로 연천면이 연천읍으로 승격하였다(1읍 8면).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관인면 일원이 포천군에, 포천군 청산면 초성리·대전리·장탄리·궁평리·백의리가 연천군 청산면에 편입되었다. 1985년 9월 20일 군조례 제1019호로 연천군 중면 횡산리를 행정리로 수복하였다. 198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1772호로 전곡면이 전곡읍으로 승격하였다(2읍 7면).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로 미산면 석장리가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1989년 1월 1일 포천군 관인면 부곡리를 연천읍에 편입하였다.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026호에 의거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하였다(2읍 8면). 1998년 8월 군조례 제2418호로 연천군 백학면의 두현리와

통구리를 행정리로 수복하였다.

현재 행정구역은 2읍 8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청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에 있다.

4. 나오며

조선시대 수원·광주·개성·강화의 4유수부와 37개 군현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경기도는 1895년 갑오개혁 때 23부제(府制)가 실시되면서 대체로 한성부, 인천부, 개성부, 춘천부, 충주부, 공주부의 영역에 속하였다. 1896년 광무개혁 때 행정구역이 다시 13도제로 개편되면서 경기도는 복구되었고 수원을 수부(首府)로 하였다(4부 34군). 이후 1910년 10월 1일 한성부가 경기도로 편입되면서, 한성부는 경성부로 개칭되었으며 도청은 경성부 광화문 앞에 두었다.

1912년『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 따르면 2부(경성부와 인천부) 36군(양주·포천·영평·가평·광주·용인·양지·이천·양평·여주·음죽·죽산·안성·양성·진위·남양·수원·안산·과천·시흥·양천·부평·김포·통진·강화·교동·고양·교하·파주·장단·풍덕·개성·적성·연천·마전·삭녕)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경기도는 1914년 3월 1일 부·군·면이 통·폐합되면서 기왕의 2부 36군은 2부(경성부와 인천부) 20군(고양·부천·시흥·이천·광주·양평·양주·가평·여주·장단· ·수원·진위·용인·김포·강화·파주·연천·개성·포천·안성)으로 조정되었고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일부 지역이 각각 평택군과 이천군에 편입되었다.

미 군정기에는 일제 강점기의 지방제도를 계승하였고 일부 지방행정구역만 개편되었다. 즉 1945년 11월에 38도선 이남에 연접한 경기도의 행정구역이 조정되고, 경기도 경성부를 서울시로 개칭하였고 1946년 9월 28일 고양군·시흥군 일부를 편입하면서 서울특별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되었다(2부 21군 10읍 231면). 1949년 8월 15일 시행된「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도·서울특별시, 그리고 시·읍·면의 2계층으로 되었고, 인천부 · 개성부는 시로 개칭되었고 수원읍은 수원시로, 시흥군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었고, 고양군의 3개면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다. 1950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지방행정구역이 개편되지 않았다.

1961년 9월「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읍·면 대신 군으로 개편하였고 1962년 지방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이 있었는데, 1963년 양주군 김포군 부천군 시흥군의 일부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었고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이 의정부시로 승

격되었다. 1967년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되고, 인천시에서 구제(區制)가 실시되었다. 이후 1973년 전국의 192개 지역에 걸친 대대적인 지방행정구역의 폐지 및 분합 때 경기도 안양읍이 안양시, 소사읍이 부천시, 성남출장소가 성남시로 승격되었다. 1981년 7월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시와 인천시는 각각 종전의 경상북도와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정부직할이 되었다. 1986년에 과천시가 시흥군에서 분리되었고, 안산시가 화성군과 시흥군에서 분리되었으며, 평택시가 평택군에서 분리되었고 남양주군 구리읍이 구리시로 승격되어 남양주군에서 분리되었다. 반월지구출장소는 안산시로, 과천지구출장소는 과천시로 승격되었다.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의 신「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 자치구의 2종으로 되어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정부의 직할 아래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었다. 1989년 경기도에는 6개 시가 새로 생겼는데, 남양주시 미금읍을 미금시로, 화성군 오산읍을 오산시로, 시흥군 소래읍·군자면·수암면을 합해서 시흥시로, 시흥군 군포읍을 군포시로, 시흥군 의왕읍을 의왕시로, 광주군 동부읍·서부면·중부면 상산곡리를 합해서 하남시로 각각 승격하였고 시흥군은 폐지되었다. 1992년에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하였다.

이후 1995년 주민편의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군통합을 비롯한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졌다. 경기도의 경우 미금시와 남양주시를 통합하여 남양주시를 설치하였고 김포군 검단면(현재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강화군, 옹진군(대부면 제외)을 인천광역시로 편입하였다. 이 때 시·도간 경계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한편 1995년 지방자치 시행으로 인해 시(市)와 주변 군(郡) 통합하면서 많은 도농복합시가 탄생하였다. 도농복합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었고, 그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경우에는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즉 군이 시로 승격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도시화된 읍 또는 면의 리(里)가 동으로 바뀐다. 1995년 1월 1일 32개의 도농복합시가 탄생한 이후, 2013년 9월 23일 여주시,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56개의 도농복합시가 있다. 경기도는 도농복합시는 남양주시(미금시+남양주군, 1995.1.1.), 평택시(송탄시+평택시+평택군, 1995.5.10), 용인시·이천시·파주시(1996.03.01.), 안성시·김포시(1998.04.01.), 광주시·화성시(2001.03.21.), 포천시·양주시(2003.10.9.), 여주시(2013.09.23.)이다.

2020년 현재 경기도 관할의 시·군은 28시(고양시·과천시·광명시·광주시·구리시·군포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안양시·양주

시·여주시·오산시·용인시·의왕시·의정부시·이천시·파주시·평택시·포천시·하남시·화성시) 3군(가평군·양평군·연천군)이다. 이 중 인구 100만명 이상인 곳은 수원, 고양, 용인으로 총 3곳, 50만~100만명은 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으로 총 7곳이다.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에서는 대도시 위상 등을 고려해 특례시(特例市), 특정시(特定市) 지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례시, 특정시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인 도(道)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 시를 비공식적으로 일컫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등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법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5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연속 연말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차후 인구가 감소하여 2년 연속으로 분기별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평균 50만 명 미만이 되면 지방자치법 175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시가 원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기존 50만 특례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광범위한 법적 특례(지방분권법 제41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지방분권법 제42조).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인구가 100만 명이 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해당 시의회의 조례제·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특례시란 행정적 명칭일 뿐이어서 지자체 권한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2020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힌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기존 법안이 특례시를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만 규정했던 것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다. 특례시란 행정적 명칭일 뿐이어서 지자체 권한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2020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힌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기존 법안이 특례시를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만 규정했던 것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다. 하지만 기준을 세우는 방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구조이다. 때문에 찬반이 엇갈리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등은 100만명 기준에 무게를 실으며 법안 통과를 주장해왔으나, 경기도 내에서도 특례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정부 등에서는 "특례시와 소외된 시·군 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안병용 시장)이라는 우려하였다.

이후 2020년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고 명시하였

다. 이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특례시에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인구 50만 미만의 일반 시의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이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특례시를 지정하다 보면 50만 미만의 일반 시가 인구가 줄어드는 군은 소멸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재정과 시세가 열악한 시·군을 우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특례시(特例市)는『일본지방자치법』제12장 제1절 제252조의 26의3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일본의 시이다. 중핵시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도도부현이 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환경 행정, 도시 계획, 건설 행정 등)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특례시는 일본 지방제도의 용어 등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시라는 용어 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제강점 초기 경기도 면(面) 지명의 변천 유형

일제강점 초기 경기도 면(面) 지명의 변천 유형

김순배(청주 흥덕고등학교 교사)

1. 서론

일반적으로 지명은 지시 기능과 상징 기능을 가지고 있다(김순배, 2012a, 41). 전자는 다른 지리적 실체와 구별하여 지시하는 실용적 기능을 말하며, 후자는 지명이 지명 영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및 영역 정체성을 구성하는 매개물로 작용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지명의 지시 및 구별 기능은 조선시대 면과 리를 통해 조세 및 부역의 수취체제를 강화하는데 실용적으로 활용되었고, 동시에 기초 단위의 생활권 내에서 공유하는 면 지명을 매개로 일정한 지역 정체성이 구성되는 상징적 기능이 작동하였다.

지명이 가진 기능에 주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군현과 동리 단위 지명들 사이에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크게 관심 받지 못했던 면 지명을 대상으로 지명의 변천 및 개명 유형을 기초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행정 지명의 변천에 있어 큰 영향을 미쳤던 1914년의 전국 행정구역 개편을 전후한 일제강점기 면 지명의 변천 유형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 전국 단위의 행정 지명 기록물이 남아 있는 1789년(『호구총수』), 1912년(『(구한국)지방행정구역동명칭일람』), 그리고 1917년(『(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의 세 시간 단면을 설정하여 면 지명의 변천 도표를 작성한 후 면 지명의 변천 유형을 기초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조선 후기의 행정구역인 경기도로서 현재의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북한의 개성시 및 장풍군 등을 일부 포함한다.

연구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2개의 장을 구성하였다. 2장에서는 면 지명을 둘러싼 문화정치(cultural politics) 및 스케일 정치(politics of scale)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지방

행정제도 하에서 전개된 면 제도의 역사를 면리제(面里制)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선행 연구로서 충남과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면 지명에 대한 스케일 상승과 하강 관련 사례 연구를 제시하고, 일제강점기 면 지명의 변천 유형 중 유력한 동리(洞里) 지명에서 유래한 면 지명에 대한 선행 연구를 현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의 사례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을 전후하여, 경기도 소재 면 지명들의 변천 유형을 6가지, 즉 ① 합성 지명 명명, ② 유력 면 지명 명명, ③ 유력 동리 지명 명명, ④ 공유 지명 명명, ⑤ 옛 지명 명명, ⑥ 새 지명 명명 등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2. 면 지명을 둘러싼 문화 정치와 스케일 정치

1) 지방 행정제도 하에서의 면 지명의 역사

지방 행정구역의 하나의 명칭, 즉 행정 지명의 후부 지명소로서 '면(面)'이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시대 광역의 지방행정구역으로서 '~면'이 사용된 용례로 '동북면(東北面)'과 '서북면(西北面)'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 초기인 태종 13년(1413) 경에는 팔도(八道) 체제가 갖추어 지면서 이 지명들은 각각 '함길도(咸吉道)'와 '평안도(平安道)'로 개편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지방행정제도, https://terms.naver.com).

한편 지방 행정제도 하에서, 군현의 하위 행정구역으로서의 면리제(面里制)는 조선 초기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리제는 국가의 지방 지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현의 하부 행정단위를 면리로 세분하여 편제했던 행정제도로서, 면리라는 용어는 고려시대부터 등장하였으나 제도로서의 면리제는 조선 초기에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에 정착하였다. 즉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을 보면 5호(戶)를 1통(統), 5통을 1리(里)로 하고, 몇 개의 리를 합쳐 1면(面)을 만들며 통에는 통주(統主), 리에는 이정(里正), 면에는 권농관(勸農官)을 둔다고 하였다. 이는 오가통제(五家統制)와 연관하여 5통을 일률적으로 1리로 삼고, 몇 개의 리를 묶어 1면으로 하는 면리제를 시행한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 이래 잔존했던 속현(屬縣)과 임내(任內)의 정리를 통한 군현제의 정비와 함께 국가의 지배력을 촌락까지 확대하는 면리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면리제는 자연촌의 지속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정착할 수 있었다(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면리제, https://terms.naver.com).

조선 초기에 분포했던 자연촌과 지역촌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존속되었는데, 동·

서·남·북의 방위명(方位名)을 가진 촌(村)은 지역촌의 성격을 띠어 면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고유명을 가진 촌락은 리와 같은 자연촌과 함께 지역촌도 분포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주(州)·부(府)·군(郡)·현(縣)이 각기 읍치(邑治)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면과 같이 몇 개의 방면으로 면을 나누고 이러한 면 밑에 리·촌·동(洞)의 자연촌이 부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면·방(坊)·사(社)·리·동·촌의 용례가 실제는 명확한 구분 없이 서로 혼용되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호칭된 것으로 보인다. 면리제의 정비과정도 일반적인 군현제의 발전 추세와 마찬가지로 조선 초기에는 향(鄕)·소(所)·부곡(部曲)이 리·촌으로 개편되었다가 나중에 인구증가에 따른 자연 촌락의 성장으로 리·촌이 다시 면으로 승격해 갔음을 조선 후기의 읍지 소재 방면조(坊面條)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조선 초기에 향·소·부곡이 리 또는 촌으로 기재되었던 것이 17세기 이후에는 면의 명칭으로 등장하였다(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신편 한국사 23,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지방통치체제, 군현제의 정비, 면리제의 정착, http://db.history).

조선 전기의 면리제는 몇 개의 리를 묶어 면으로 편제했다고 하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면도 읍치를 중심으로 사방을 동·서·남·북 4개의 면으로 나누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군현의 크기에 관계없이, 심지어는 규모가 아주 영세한 속현(屬縣)·향·부곡까지도 4개의 면으로 분할되는 불균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군현 밑에 직촌화(直村化)되지 않고, 향리와 유향소가 존재하여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보이는 속현·향·부곡 등의 임내(任內)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서 면리제의 일관된 운영체계를 갖추기 어려웠다(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신편 한국사 34, 조선 후기의 사회, 향촌사회의 변동, 지방행정체계의 변화, 면리제의 발전과 촌락운영질서의 변화, 면리제의 발전, http://db.history).

이러한 조선 전기의 면리제는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편제되었다. 즉 조선 후기에 이르러 동·서·남·북 4개의 방위면이 보다 많은 면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나거나 방위면의 체제가 해체되고 그 밑에 편제되어 있던 리들이 면으로 승격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안동(安東)의 부동면(府東面)·부남면(府南面) 등이 동선면(東先面)·동후면(東後面)·남선면(南先面)·남후면(南後面) 등으로 분화되었고, 울산(蔚山)의 경우 동면농소리(東面農所里)·남면온양리(南面溫陽里)·남면청량리(南面靑良里)·서면범서리(西面凡西里) 등이 상위에 배치되어 있던 방위면의 틀은 사라지고 농소면(農所面)·온양면(溫陽面)·청량면(靑良面)·범서면(凡西面)으로 바뀌었다(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신편 한국사 34, 조선 후기의 사회, 향촌사회의 변동, 지방행정체계의 변화, 면리제의 발전과 촌락운영질서의 변화, 면리제의 발전, http://db.history).

유사한 사례로, 조선 전기의 방위면 지명 체제가 자연촌의 성장 및 임내의 직촌화 과정

과 함께 조선 후기의 새로운 면 지명으로 변천된 경우를 현 대전광역시(조선시대 공주목, 회덕현, 진잠현 영역) 소재의 면 지명을 통해 분석한 선행 연구가 있다(김순배, 2004, 91-98). 조선시대 대전 지역에 존재했던 면 지명은 방위면 12곳과 기타 면 지명 6곳으로 총 18개가 분포하였다. 이들 면 지명은 특히 조선 전기 면리제의 법제화와 조선 후기 실제 행정적인 면리제의 시행, 그리고 일제시대 및 해방 이후를 거치면서 지방행정제도의 변화와 함께 지명 변천을 경험하였다.[1] 특히 면리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선 전기의 방위면 체제에서 후기의 새로운 면리제로 개편 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조선 전기의 東·西·南·北面과 같이 邑基[읍치소]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구획된 방위면제(方位面制)로부터 조선 후기 인구 증가, 토지 확대, 촌락 분동(분화), 국가 수취체제의 발달 등으로 인해 새로운 면리제가 정비되어 촌락 지명에서 승계된 면 지명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정진영, 1999, 284).

그런데 조선 전기의 방위면 지명은 지역 주민[지명 언중]들의 인식을 반영하지 않고 행정 편의상 획일적으로 읍치소를 중심으로 구획 및 명명되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 및 일제강점기, 현재에 이르는 동안 대부분 소멸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새로운 면리제 하에서 등장한 면 지명들은 그 연원이 촌락 지명 및 구체적인 지칭 범위를 가진 지명들이었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존속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조선 전·후기 면지명의 변천 과정을 조선시대 대전시에 분포했던 군현을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전기 방위면 지명은 모두 12곳으로 대부분 회덕현과 진잠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2] 조선 후기까지 존속하다가 대부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소멸되었다. 방위면 지명의 소멸은 1차적으로 1914년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권력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시에 이루어졌으며(회덕·공주 현내면, 회덕·진잠 서면, 진잠 동면·북면·상남면·하남면), 2차 소멸 시기는 일제강점기 중·후반기[회덕 내남면(1935), 외남면(1940)], 마지막으로 회덕의 북면이 1973년에 신탄진읍으로 개편되면서 소멸되었다.

---

1) 이와 관련하여 이수건(1989, 144)은 조선시대 면리제(面里制)의 정비에는 면명(面名) 또는 동리명(洞里名)의 개정이 수반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즉 면명은 당초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읍치를 기준으로 방위명(方位名)이 일반화되면서 동서남북이란 방위자를 딴 것과 부동(府東), 부서(府西) 또는 현동(縣東), 현서(縣西) 등과 같은 면명이 널리 사용되었고, 속현이나 향·소·부곡 등은 임내의 직촌화 과정에서 그 명칭이 그대로 면명으로 대치되었다고 설명하였다.

2) 회덕현과 진잠현은 김준형(1982, 12)의 설명과 같이 그 군현의 규모가 작아 조선 전기의 방위면 체제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아도 지방 행정 수행에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면수의 변동이 크지 않았으며, 상남-하남, 외남-내남과 같이 이전의 방위면을 약간 분화시킨 형태만이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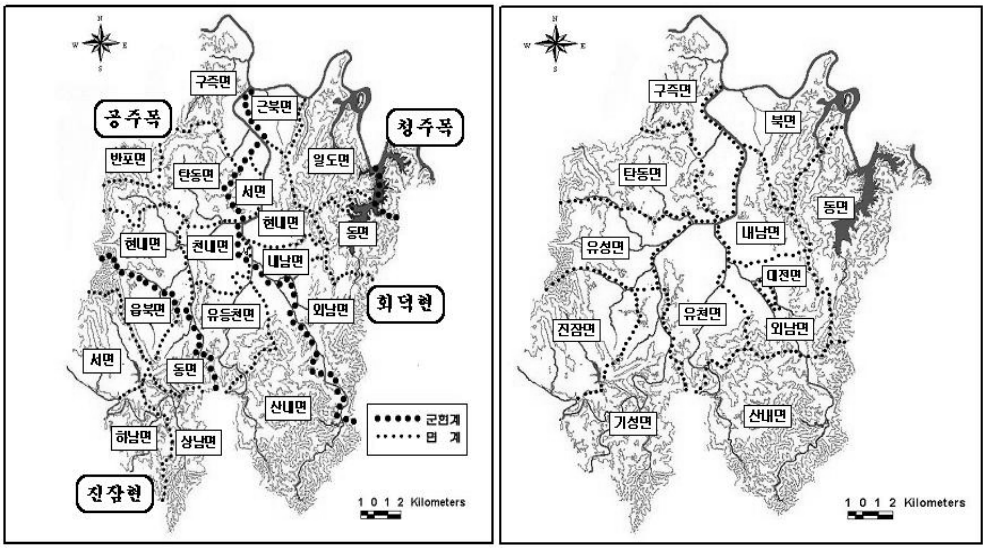


그림 1. 1789년(좌)과 1914년(우)의 대전 지역 면 지명의 변천 / 자료: 김순배(2004, 96-97)에서 재인용.

조선 후기의 새로운 면리제 하에서 생성된 면 지명은 6곳으로 회덕의 일도면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주목에 속한 탄동면, 구즉면, 천내면, 유등천면, 산내면이다. 이들 중 회덕 일도면과 공주목 천내면을 제외한 '탄동, 구즉, 유등천, 산내'는 현재 유성구 탄동(옛 행정동), 유성구 구즉동(행정동), 대전시 유등천 및 중구 유천동, 동구 산내동(행정동)으로 각각 승계되어 존속하고 있다. 18세기 후반 군현 및 면 단위의 행정 구역, 20세기 초(1914년) 일제에 의한 지방 행정 구역 개편 결과 나타난 대전군 행정 구역이 위의 그림에 지도화 되어 있다.[3)]

이와 관련하여 정조(재위 1776~1800) 대의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 의하면, 대체로 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고을은 20개 이상의 면으로 분리되는 경향을 보이고, 현과 같은 작은 고을은 4~8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6세기 중반 단계까지 끈질기게 남아있던 속현과 향·부곡 등의 임내도 결국 직촌화되어 새로운 면리편제에 흡수된다. 그러나 정조대까지만 해도 새로운 면리편제의 양상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아직도 규모가 작아 독자적인 기능을

3) 18세기 대전 지역의 행정구역을 지도화한 〈그림 1〉의 왼쪽 지도는 『호구총수』(1789)에 등재된 대전시 지역 내 19面 408里 지명들 중 19면 315리 지명을 위치 고증하여 『지형도(1:50,000)』(국립지리원 발행, 1996년 수정본)에 표시한 후 지도화한 것이며, 20세기 초(1914) 대전군의 행정구역을 나타낸 〈그림 1〉의 오른쪽 지도는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와 『朝鮮地形圖(1:50,000)』(일본육지측량부 인쇄발행, 1917년 제판본) 등을 참고하여 지도화한 것이다.

수행하지 못해 인근의 대촌(大村)에 부속되어 있는 소촌(小村)도 상당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국적인 리의 숫자가 증가해 가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소촌들도 생산력 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라 점차 독자적인 리로 성장하여 독립해 간 것으로 보인다(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신편 한국사 34, 조선 후기의 사회, 향촌사회의 변동, 지방행정체계의 변화, 면리제의 발전과 촌락운영질서의 변화, 면리제의 발전, http://db.history).

특히 16세기 이후 농업 생산력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자연촌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숙종(재위 1674~1720) 초에 들어 자연촌의 전반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면리체제가 형성되었다.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자연촌락의 성장에 따라 그것의 독자적인 기능을 인정하는 새로운 면리편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촌락 내에서의 민인(民人)들의 입장도 점차 강화되어 갔다. 조세(租稅)에 대한 면·리 단위의 공동납(共同納)이 강화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형태로 면회(面會), 리회(里會) 등이 서서히 권력 구조의 수면 위로 표면화되었다(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신편 한국사 36,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민중세력의 성장 , 민중의 사회적 결속, 18세기 향촌공동체의 변화와 민중조직의 활성화, 면리제의 강화와 민, http://db.history).

조선말까지 유지되던 면리제는 갑오개혁(甲午改革, 1894년 7월 초~1896년 2월 초) 당시 개편의 대상이 되었다. 1894년(고종 31) 지방 행정 개혁안에서는 각 면별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읍 단위의 향회(鄕會)를 조직하고, 여기에서 지방 행정 사업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이는 1895년 「향회조규(鄕會條規)」와 「향약판무규정(鄕約辦務規程)」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구한말 통감부와 일제강점기 총독부를 거치면서 면리제는 자치보다는 통치 강화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일제는 '조선면제(朝鮮面制)'를 통해 면에 '면협의회'라는 지방 행정 자문기관을 두었으나, 실제로는 일본인의 정치적 지배 계급화와 조선인 상층의 개량화라는 통치 목적에 활용되었다. 요컨대 면리제의 발전은 중앙권력의 지방 지배 강화와 자연촌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였으며, 조선 말 근대적 지방자치제의 하부 단위로 개편되고 있었으나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왜곡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면리제, https://terms.naver.com).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동안 남한에서는 면이 존속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1952년에 면을 폐지하였다. 해방 이후 북한의 행정구역은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구역 체계인 도(직할시), 군(시, 구역), 면(읍), 리 등 4단계 행정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52년 12월 행정구역 개편 조치로 면을 폐지하면서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동)로 단축되어 4단계에서 3단계로 지방행정체제를 축소하였다(남성욱 · 황주희, 2018, 122). 면 단위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이 있기 직전인 1952년 11월 김일성은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24차 전원회의에서 면(面)인민위원회가 리(里)의 실정을 제대로 모르고 군(郡)인민위원회에서 내려온 결정과 지시를 그대로 리에 내려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① 지방 행정체계가 인구대비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 하부 말단까지 국가의 결정·지시가 내려가는데 한 달 이상 지체하여 ② 시의성을 상실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행정체계에서 계단이 많으면 인민대중의 의사가 정확하게 당과 정부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김일성은 '면'을 없애고 ① 도, 시·군, 리 3단계 행정체제로 개편했던 것이다. 이 개편으로 인하여 군이 세분되고 리의 경우 기존보다 면적과 인구가 증가하여 리인민위원회에 유급일군을 5~6명씩 배치하게 되었다. 특별한 경제적 혹은 정치적 수요가 발생한 읍과 '로동자구'를 신규로 설치하였다. 당시 개편의 핵심적인 의의는 ② 리인민위원회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고 군인민위원회 일군들이 직접 리에 내려가 리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사업을 조직 집행할 수 있게 하여 군인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 ③ 지방 정권기관과 인민 대중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남성욱 · 황주희, 2018, 122-123). 결과적으로 국가의 인민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요컨대 1952년 북한의 지방 행정제도는 '도-시·군-읍·면-리·동' 4계층 행정 체계가 '도-시·군-읍·동·리'의 3계층으로 축소 및 개편되고 면을 폐지하였다. 따라서 1945년 해방 당시 6도, 9시, 98군, 810읍·면이었던 북한의 지방 행정체계는 9개도, 168개 군으로 증가하고 리는 3,658개로 축소되었다. 북한은 "일제가 조선인민을 억압 착취하며 조선에서 보다 많은 자연부원을 략탈하기에 편리하도록 구분한 것"이라면서 ① 행정체계에서 불합리한 면을 폐지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하였다"고 선전하였다. 반면 남한의 행정구역과 관련해서는 "일제가 구분한 행정체계와 구역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고 비난하였다. 남한의 일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② 인민들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를 증가시키고 군의 경계를 변경시키고 제주도를 전라남도에서 분리시켰다"고 북한 교과서에 부정적으로 서술하였다(남성욱 · 황주희, 2018, 128).

2) 권력에 의한 면 지명의 변천

권력에 의한 면 지명의 변천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지명을 둘러싼 문화 정치 및 스케일 정치의 작동 과정을 김순배(2009; 2010)의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권력 관계(power relations)와 소속(belongingness)의 개념에 주목하

는 문화정치(cultural politics)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벌이는 문화지리적 과정(process), 투쟁(struggle), 변동(change)과 같은 문화전쟁(culture wars)에 관심을 갖는다(Mitchell 2000, 5). 그 결과 문화정치는 사회적 관계와 제도, 그리고 공간과 장소의 의미와 구조를 둘러싼 투쟁의 영역으로 문화를 규정한다. 이로써 문화정치는 권력(power)과 관계(relation)의 문제를 중심으로 문화 생산의 주체는 누구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한다(김순배, 2009, 56).

특히 권력은 문화적 실천과 생산, 그리고 문화정치의 중심에 놓여 있는 주제로 의미 있는 모든 실천들은 권력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4]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Jackson(1989, 2)은 새로운 문화지리학이 주목하는 대상은 문화 그 자체가 아니고 문화정치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무용(2005, 14)은 공간의 문화정치를 공간의 생성, 변천, 소멸의 과정을 '공간-주체-권력'의 상호 작용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라고 정의하였으며, 공간을 둘러싼 물리적, 상징적, 문화적 권력관계와 갈등, 경합의 다양한 과정과 그 지리적 맥락을 탐구하는 비판지리학의 핵심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하나의 언어적, 지리적, 문화적 요소이자 현상이기도 한 지명(geographical name, place name, toponym)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정체성(identity)이 재현(representation)되고 구축되는 과정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내부적 수준을 넘어 타자(others)에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회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특정한 사회적 주체의 정체성이 자아 수준의 스케일을 넘어 재현되고 구축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스케일에 처해 있는 타자에 대한 억압과 배제는 물론 이를 위한 권력관계가 개입되어 있다. 사회적 주체들이 소유한 정체성은 자신을 의식화하고 자신의 모습을 겉으로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공간과 장소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경계(boundary)나 영역(territory)과 같은 형상은 정체성을 물질적으로 재현하는 지명의 문화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적 통로이자 산물이 된다고 여겨진다(김순배 · 류제헌, 2008, 608).

특정한 사회적 주체가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는 포함과 배제의 행위는 바로 권력이 작용

4) 권력(power)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개인이나 사회 집단에 대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폭력이나 통제를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권력이란 다른 사람이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을 어떤 지배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이때 권력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권력이 어떻게 실행되는가와 어떤 수단을 통해 복종을 이끌어 내는 가를 이해하는 것이다(Edgar and Sedgwick 2002; 박명진 외 2002, 78). 권력의 실행 방식과 관련하여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와 푸코(Michel Foucault)는 권력이 지닌 능동적인 요소를 주시하여 권력이 행위를 억압하기 보다는 오히려 특정 행위가 일정한 형태로 발생되도록 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다. 권력은 다른 대상과 권력관계로 엮여져 있으면서 사회 내 모든 수준과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관계이자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한편 문화는 사회를 작동시키는 힘의 중요한 연장선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문화의 분석은 필연적으로 정치와 권력과의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다.

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특히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무언가를 실재하게 하는 창조적인 힘이며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는 하나의 권력이기도 하다. 그 결과 지명에 대한 권력의 실천이란 특정한 사회적 주체가 동일시(identification)하는 지명이 자신의 영역을 정화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정한 사회적 주체에 의해 지원되어 배타적으로 통용되거나 지칭되는 지명의 영역(territory of place name)은 해당 사회적 주체의 권력이 자기장처럼 힘을 발휘하는 공간적 범위와도 같다.

한편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실행하는 권력관계를 통해 지명 영역들은 서로 경합(contestation)되고 변동된다. 즉 사회적 주체가 특정한 지명을 인식하는 과정은 곧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는 과정이며, 여기에는 가치 평가를 실천하는 권력관계가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정한 사회적 주체가 하나의 지명을 권력을 실천하는 매개이자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그 지명은 일정한 스케일의 지명 영역을 형성하고 타자들이 생산한 지명 영역과 경합하게 된다. 상이한 지명 영역 간의 경합은 영역 내의 유력한 사회적 주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관리하고 확장하려는 영역성(territoriality)을 강화시키고, 영역 내부의 아이덴티티가 강화되어 영역 외부로 확장되는 영역화(territorialization) 과정으로 진행되기도 한다(남호엽, 2001, 32).

지명을 매개로 하는 이와 같은 영역 경합의 과정에는 스케일 정치(politics of scale)가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 주체에 의해 재현되고 전유(appropriation)된 지명에는 일정한 스케일의 경계와 영역을 획득하고 자신의 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바로 스케일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이며 특정한 사회적 주체가 자신들의 의도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특정 지명 영역의 스케일을 축소하고 확대하거나, 전혀 새로운 스케일을 창조하는 스케일 정치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주체가 권력관계를 통하여 지명의 영역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확장하는 과정은 스케일 하강(scaling down)과 스케일 상승(scaling up)이라는 스케일 전략(scalar strategy)이 담긴 스케일 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김순배, 2009, 62-65).

특히 권력관계를 동반한 지명 영역의 변동은 지명의 스케일 정치에서 제시된 스케일 상승과 하강이라는 지명 영역의 스케일 변화와 호응시켜 분석될 수 있다. 스케일의 관점에서 지명은 해당 지명이 통용되는 공간적 범위, 즉 지명 영역의 규모에 따라 대 지명, 중 지명, 소 지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영역의 형태를 기준으로 점 지명, 선 지명, 면 지명으로도 분류된다. 흔히 지명의 변천은 지명의 경계와 영역의 변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명 영역의 스케일 변동을 야기한다. 이 때 지명을 수단이나 대상으로 하는 지명 영역의 스케일 정치는 스케일의 상승과 하강이라는 상반된 전략을 통하여 실행된다(김순배,

2010, 5-6).

일반적으로 스케일 상승 전략은 특정한 사회적 주체의 정체성을 재현하는 지명 영역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일례로, 조선 시대 충청도 공주목 산내면의 '大田(한밭)'과 은진현 화지산면의 '論山(놀뫼)'은 소규모 촌락의 지명이었다(표 1). 하지만 일제강점기 철도 교통의 발달에 따라 일본인의 집단 거주지가 성장하면서 이들 지명의 영역이 현재의 '大田廣域市(대전광역시)'와 '論山市(논산시)'의 범위로 확장되었다. 스케일 하강 전략은 권력 경합의 과정에서 특정한 사회적 주체가 열세에 놓이고, 이로 인해 그들이 거주하고 후원하는 지명 영역이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로는 삼국 시대 '南扶餘(남부여)'라는 백제국의 국호(國號)가 백제 멸망 후, 현재는 충남 부여군(扶餘郡)의 군(郡)과 읍(邑) 지명으로 축소된 경우와 조선 시대 존재했던 군현(郡縣) 단위 지명이 1914년 타자로서의 일제에 의해 시행된 대규모의 행정 구역 개편으로 면 지명과 촌락 지명으로 전락한 경우가 있다(김순배, 2010, 4).

<table>
<tr><th></th><th>변화 이전</th><th>스케일 전략의 주체와 요인</th><th>변화 이후</th></tr>
<tr><td rowspan="3">스케일 상승
(scaling up)</td><td>大田里/한밭
(공주목
산내면)</td><td>*일본인 거류민과 해당 집단 거주지
*일제시대 철도교통 등의 발달
*특정 취락의 중심성 강화와 해당 주민들</td><td>大田廣域市</td></tr>
<tr><td>論山里/놀뫼
(은진현
화지면)</td><td rowspan="2">●——→
●- →</td><td>論山市</td></tr>
<tr><td>특정 유역명
(錦江・甲川)</td><td>특정 취락을
경유하는 하천
지명의 영역 확대</td></tr>
<tr><td rowspan="2">스케일 하강
(scaling down)</td><td>南扶餘
(백제국 국호)</td><td rowspan="2"></td><td>扶餘郡
扶餘邑</td></tr>
<tr><td>石城縣</td><td>*사회적 주체 간 권력 경합에서의 열세</td><td>石城面 石城里</td></tr>
</table>

표 1. 지명 영역의 스케일 정치

지명 영역의 스케일 상승과 관련된 사례들을 충남과 대전시에 분포하는 면 지명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일대의 지명들은 지명의 후부 지명소(後部地名素)가 지칭하는 행정 단위, 즉 시군군구읍동면리(市郡區邑洞面里) 등과 같은 지명 영역의 변화에 따라 스케일 상승 지명과 하강 지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2). 그런데 후부 지명소의 영역 변화는 단순한 지명 표기의 변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 변화에 작용한 사회적 주체의 권력관계가 작용하고 있어 주의 깊게 분석되어야 한다. 일종의 언어 현상인 지명은 언어 변화의 일반적인 규칙에 구속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지명을 명명하

고 인식하는 사회적 주체와 주체들 사이의 권력관계의 망(nexus) 속에서 생존하는 관계적 존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명은 상이한 사회적 주체들이 지명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이는 문화전쟁의 대상이자 전쟁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명은 그 자체 내에 해당 지명이 배타적으로 지칭되거나 통용되는 공간적 범위, 즉 지명 영역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으며 대체로 후부 지명소에 그 지리적 규모가 행정단위(~郡, ~面, ~里)로 표기된다. 이로 인해 후부 지명소의 영역 변화에는 지명을 둘러싼 사회적 주체들의 문화전쟁이 과정과 결과로서 투영되어 있으며, 일정한 영역을 자기의 것으로 서로 차지하기 위한 영역 싸움에 주목하는 문화정치적 속성을 담고 있다.

후부 지명소의 영역 변화는 일반적으로 행정 구역 개편과 통폐합의 결과로 발생되며, 이 과정에서 군현, 면, 동리 간 세력의 우열로 인해 스케일 상승과 하강, 즉 영역의 확대와 축소가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충남과 대전시에 존재하는 스케일 상승 지명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촌락(村落·廢郡縣) 〉 시군구(市郡區) 단위', '촌락(村落) 〉 면(面) 단위'의 사례로 대별할 수 있다.

분류	영역 변화	해당 지명	행정구역 개편 및 통폐합
스케일 상승 지명	*촌락·폐군현 > 시군구 단위	대전시	*大田里(한밭)>大田廣域市
		유성구	*儒城廢縣>儒城里>儒城區
		논산시	*論山里(놀뫼)>論山市
	*촌락>면 단위	부여군 규암면(천을면) 규암리	*규암리>규암면(1914년)
		부여군 은산면(방생면) 은산리	*은산리>은산면(1914년)
		부여군 장암면(내동면) 정암리(장암리) 맛바위	*장암리>장암면(1914년) *장암리>정암리(1914년)
		부여군 이인면(목동면) 이인리	*이인리(利仁驛)>이인면(1942년)
스케일 하강 지명	*국호>군현 단위	남부여: 부여군 부여읍	*南扶餘>부여군 부여읍
	*군현>면동 단위	회덕현, 진잠현, 은진현, 연산현, 노성현, 전의현, 임천군, 석성현, 정산현, 한산군, 황산군(연산현의 경덕왕 16년 개정지명)	*회덕현>회덕동, 진잠현>진잠동, 은진현>은진면, 연산현>연산면, 노성현>노성면, 전의현>전의면, 임천군>임천면, 석성현>석성면, 정산현>정산면, 한산군>한산면, 황산군>황산
	*군현>동리 단위	嘉林里: 부여군 임천면(읍내) 구교리	*嘉林>嘉林里 *경덕왕 16년(757) 개정지명의 존속
		石城里	*석성현>석성리(1914년)
		비럭골(比來洞): 대전시 대덕구(현내면) 비래동	*雨述·比豊>비래동 *懷德의 고지명인 雨述·比豊의 존속
		더운댕이(德恩堂): 논산시 가야곡면(하두면) 삼전리	*德恩>德恩堂

분류	영역 변화	해당 지명	행정구역 개편 및 통폐합
		黃山: 논산시 연산면(모촌면) 신량리	*黃山郡>黃山 *경덕왕 16년(757) 개정지명의 존속
		所夫里: 부여군 부여읍(현내면)	*所夫里州>소부리
	*폐군현>면동 단위	신풍현: 공주시 新豊面 산정리 新豊山城, 산성미	*신풍폐현>신풍면
		덕진현: 대전 유성구(탄동면) 덕진동	*덕진폐현>덕진동
	*면>촌락 단위	석성현 증산면, 비당면, 원북면, 정지면, 삼산면, 병촌면, 우곤면, 현내면	*증산면>증산리, 비당면>비당리 등
		노성현 상도면, 두사면, 장구면, 화곡면, 천동면, 득윤면	*두사면>두사리, 장구면>장구리 등
		연산현 백석면, 부인처면, 외성면, 모촌면, 식한면	*부인처면>부인리, 식한면>향한리 등
		은진현 죽본면	*죽본면>죽본리
		임천군 두모곡면(두곡면), 가화면, 팔충면, 내동면	*두곡면>두곡리, 가화면>가화리, 팔충면>팔충리, 내동면>정암리 내동

주: "a 〉 b"는 a에서 b로의 공시적 혹은 통시적인 지명 및 영역 변화를 뜻함.
자료: 김순배, 2010, 5.

표 2. 스케일 상승 지명과 하강 지명

촌락이나 조선 초기에 폐군현으로 존재하던 소규모 지명들이 시군구 단위의 행정 구역으로 지명 영역이 확장된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선시대 공주목 산내면 '大田里 한밭'과 은진현 화지산면(노성현 광석면)의 '論山里[놀뫼]'가 현재는 각각 '대전광역시'와 '논산시'로 지명 영역이 확장된 사례가 있으며, 조선 초기 폐군현이었던 공주목 소속 '儒城廢縣(유성폐현)'이 현재는 '儒城區(유성구)'로 영역이 확장된 사례가 있다. 한편 촌락 지명으로 존재하던 부여현의 '窺岩里(규암리)', '恩山里(은산리)', '場岩里(장암리)'가 각각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窺岩面(규암면)', '恩山面(은산면)', '場岩面(장암면)'으로 기존 면 지명을 밀어내고 새로운 면 지명으로 지명 영역이 확장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지명 영역이 확장된 이면에는 내부적으로 그곳에 거주하던 사회적 주체들의 권력관계가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및 사회·문화의 급속한 성장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 영역 확장 지명들은 행정구역 개편과 통폐합을 계기로 타 지명보다 지명 영역의 중심성이 강하고 우세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명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이 중앙 및 지방 행정 기관에 진정과 로비 등의 권력관계를 행사하면서 지명 영역이 확대되었다. 특정한 지명의 중심성 확대와 그곳에 거주하는 사회적 주체가 행사한 권력관계는 지명 영역의 확장을 초래하였고, 동시에 그러한 중심성과 권력에 밀려 지명 영역이 축소된 스케일 하강 지명도 양산하게 되었다.

특정 지명의 영역 확대는 동시에 지명 영역이 축소되는 스케일 하강 지명을 발생시킨다. 스케일 하강 지명은 크게 '국호(國號) 〉 군현(郡縣) 단위', '군현 〉 면동(面洞) 단위', '군현 〉 동리(洞里) 단위', '폐군현(廢郡縣) 〉 면동 단위', '면(面) 〉 촌락(村落)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한 나라의 국호로 존재하다가 군현 단위로 지명 영역이 축소된 경우를 '南扶餘(남부여)'에서 찾을 수 있다. 백제 성왕 16년(538) 熊州[공주]에서 泗沘[부여]로 천도한 후 사용된 백제국 국호 '南扶餘'는 백제 멸망(660년) 이후 지명 영역이 축소되어 현재 '扶餘郡 扶餘邑(부여군 부여읍)'으로 존재하고 있다. 조선 시대 군현 지명이 현재 면동 단위의 지명으로 지명 영역이 축소된 사례로는 '대전시의 회덕현〉회덕동, 진잠현〉진잠동, 논산시의 은진현〉은진면, 연산현〉연산면, 노성현〉노성면, 연기군의 전의현〉전의면, 부여군의 임천군〉임천면, 석성현〉석성면, 청양군의 정산현〉정산면, 서천군의 한산군〉한산면' 등이 있다.

또한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 임천군(林川郡)의 옛 지명이었던 '加林(가림) 〉 嘉林(가림)'은 현재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내의 소(小)지명으로 지명 영역이 축소된 채 존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군현 지명이 동리 단위의 지명으로 영역이 축소된 경우로 회덕현(懷德縣)의 옛 이름인 '雨述(〉比豊)'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比來洞(비래동)'이란 지명이 대전시 대덕구에 동명으로 남아 있는 사례, 은진현(恩津縣)의 통합 전 군현 지명이었던 '德恩(덕은)'이 현재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德恩堂[덕은당, 더운뎅이]'으로 존속하는 경우, 부여현(扶餘縣)의 고지명이었던 '所夫里州(소부리주)'가 부여군 부여읍 내의 소지명인 '소부리'로 남아 있는 사례가 있다.

한편 조선 초기 '新豊廢縣(신풍폐현), 德津廢縣(덕진폐현)'이었던 지명이 현재 면동 단위인 공주시 '新豊面(덕풍면)', 대전시 유성구 '德津洞(덕진동)'으로 각각 지명 영역이 축소되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면 지명이 촌락 지명으로 스케일 하강하여 지명 영역이 축소된 사례들은 대부분 현재 논산시 일원에 분포하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한 충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해당 사례로는 조선 시대 석성현(石城縣)의 면 지명이었던 '증산면, 비당면, 원북면, 정지면, 삼산면, 병촌면, 우곤면'이 현재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 비당리',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 정지리 · 삼산리 · 병촌리 · 우곤리'로 각각 지명 영역이 축소되었다. 또한 노성현(魯城縣) '상도면, 두사면, 장구면, 화곡면, 천동면, 득윤면'이 현재 논산시 상월면 '상도리', 논산시 노성면 '두사리 · 장구리 · 화곡리',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 득윤리'로 각각 축소되었다. 조선 시대 연산현(連山縣)에 분포하던 '백석면, 부인처면, 외성면, 모촌면, 식한면'은 현재 논산시 연산면 '백석리', 부적면 '부인리', 부적면 '외성리', 양촌면 '모촌리', 계룡시 두마면 '향한리'로 지명 영역이 축소된 채 존속되고 있고, 은진현 '죽본면'

은 현재 논산시 연무읍 '죽본리'로 스케일 하강하여 지명 영역이 축소되어 남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스케일 상승과 하강 과정은 지명 영역들의 상호 경계(행정 구역 경계)가 연접하고 있어 보통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각 지명들이 지니고 있는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 우열 차이에 의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사회적 주체가 소유한 권력관계를 매개로 지명 영역이 쟁탈되고 상실되는 문화전쟁의 양상들은 필연적으로 지명 영역의 확대와 축소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지명 변천에 대한 문화정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김순배, 2010, 6).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면 지명의 명칭 변경과 지명의 스케일 상승 사례를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대한 선행 연구(김순배, 2009, 199-206)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암리'가 '규암면'으로 스케일 상승된 사례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1914년 전국 행정구역 개편 당시, 통폐합된 새로운 면의 명칭을 유력한 동리 지명을 따와 명명한 유형에 해당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권력의 동반과 함께 지명을 매개로 전개되는 지명 영역의 확장, 즉 지명의 영역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 구역의 개편과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지명의 행정구역 확대 유형은 특정한 사회적 주체가 권력을 행사하여 지명 영역을 확장시킨 사례로서, 영역성이 강화되어 새로운 영역을 확장시키는 영역화(territorialization) 개념, 즉 영역 내부의 정체성이 더욱 강화되어 영역 외부로도 확장되는 과정과 연관된다.

충남 부여군에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전국 단위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유력한 촌락 지명이 새롭게 면 지명으로 성장한 스케일 상승 지명들이 있다. 부여군 규암면(窺岩面), 은산면(恩山面), 장암면(場巖面)이 그것으로 이들 면 지명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각각 천을면(淺乙面) 규암리(窺岩里), 방생면(方生面) 은산리(恩山里), 내동면(內洞面) 장암리(場岩里)였다. 이들 세 촌락은 당시 교통의 결절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입지의 영향으로 교통과 상업 발달이라는 경제적 수혜를 입고 있었다.

먼저 촌락 지명의 명명 유연성(命名 有緣性)과 그 변화를 살펴보면 '窺岩(엿바위)'은 자온대가 위치한 암반 명칭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窺~'는 '엿~'의 훈차(訓借) 혹은 훈음차(訓音借) 표기로 발생한 표기이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규암리'는 본래 관찬 기록에 '倉里(창리)'로 등재되어 있었다. 『여지도서』(1700년대 중반)에 '倉里'로 등재되어 오다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년) 기록에서 비로소 '窺岩里'로 등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872년 지방지도》〈扶餘縣地圖〉를 보면 규암리에는 '窺岩津(규암진)'과 함께 인근 홍산현과 本邑[부여현]의 세창(稅倉)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창이 『호구총수』(1789년)까지 기록된 '倉里'라는 지명의 명명 유연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명	新增 (1530)	東國 (1656 –1673)	輿地 (1757– 1765)	戶口 (1789)	東輿·大圖 ·大志 (1800년대 중엽)	舊韓 (1912)	新舊 (1917)	扶餘 (2003)	비고
엿바위 (규암)	·	·	倉里	倉里	·	窺岩里	窺岩里	엿바위,窺岩,窺岩里(규암면)	*지명 영역 확대됨
은산	恩山驛 –驛院條	恩 山驛–郵驛條	恩山里 恩山驛– 驛院條	恩山里	恩山驛	思山里	恩大里	恩山,恩山驛말,恩山里(은산면)	(恩>思>恩) (山>大>山)
맛바위 (장암)	場巖江 –山川條	·	長巖里 場巖江– 山川條 場巖–古跡條	長巖里	場岩津	場巖里	岩亭里	맛바위, 場岩,場岩里(장암면 정암리)	(場岩>場巖>長巖>場巖>場岩) *場岩里[『世宗』(공주목 임천군 條)]

자료: 김순배, 2010, 8.

표 3. 窺岩.恩山.場岩의 지명 변천

그런데 『(필사본)조선지지자료』(1911년 경, 이하 『조선』) 기록에는 '窺岩里酒幕(엿바위쥬막)'이 등재되어 있다. 사설 숙박시설이었던 주막이 이 당시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 규암리는 상업이 성장하던 교통의 결절지이자 중요한 도진(渡津) 촌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선』 '渡津名(도진명)' 항목에 기록된 '窺岩津(엿바위나루)'은 과거 금강 하운의 중간 기착지로 유명한 나루였으며, 홍산현 등의 서해안 지역에서 충청도 내륙을 경유하는 주요 육로 상에 위치한 곳이었다.[5]

이러한 주요 교통로의 결절 상에 위치한 '窺岩里'는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성장하여 1914년의 행정구역 통폐합을 계기로 과거 조선 시대 면 지명이었던 '淺乙面(천을면)'을 축출하고 새로운 면 지명으로 지명 영역이 확장되었다(그림 2).[6] 1914년 새롭게 등장한 '규암면'은 천을면을 비롯한 도성면(道城面), 송당면(松堂面)을 통폐합하여 신설되었으며 이때 기존 각 면의 면사무소(천을면: 茅里, 도성면: 合井里, 송당면: 芦花里)는 폐쇄되고 대신 규암리에 새로운 면사무소가 들어서게 된다[〈扶餘郡面廢合地圖〉(1914

5) "窺岩津(諺文: 엿바위나루), 窺岩里酒幕(엿바위쥬막), 窺岩里(엿바위)(郡西半里 一名 倉里)"(扶餘郡 淺乙面 渡津名, 酒幕名, 洞里村名 항목)(『조선』, 1911년).

6)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성장한 규암리에는 '窺岩場'(3·8일 開市: 월 6회)이 개설되었다. 일제강점기 한 신문에는 '窺岩面 渡船場'의 관리권을 두고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경쟁을 다룬 기사(東亞日報, 1931년 4월 6일)가 보도될 만큼 규암진의 이용은 성황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암리의 중심지 기능이 확대되어 간 한 단면을 규암리 공립심상학교의 인가 관련 내용을 싣고 있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선총독부관보, 제198호).

년)]. 당시 새로운 면사무소를 유치하는 과정에 당시 규암리에 거주하면서 상업에 종사하던 일본인들과 일부 조선인들의 권력관계가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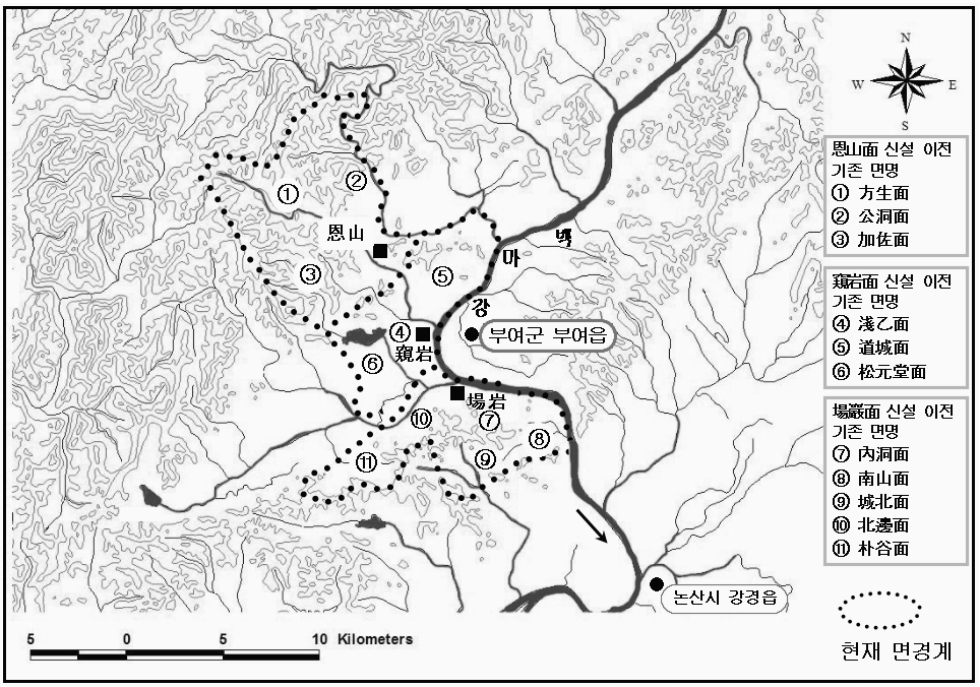


그림 2. 窺岩.恩山.場岩의 위치와 지명 영역 (자료: 김순배, 2010, 9)

그러나 '窺岩里'는 금강 하운의 쇠퇴와 1968년 부여읍으로 통하는 백제교(百濟橋)가 건설되면서 여느 농촌의 면 소재지처럼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1968년 백제교 개통 이후 현재는 규암장(窺岩場)이 폐쇄되었으며 규암리 공립심상학교의 후신인 규암초등학교(窺岩初等學校)가 반산리로 이전되었다. 과거 성황을 이루던 규암나루 자리는 현재 부여읍 부소산 고란사를 왕복하는 관광용 유람선의 선착장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김순배, 2009, 199-206).

3. 1914년 통폐합 면의 지명 개정 유형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동안, 경기도에 분포하는 행정 지명들은 앞서 제시한 지명 영역의 스케일 상승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의 행정구역 개

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14년 이후 일제강점기의 중앙과 지방의 행정 및 정치적 상황들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7] 당시 행정구역 개편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간의 다양한 갈등, 경합, 대립의 실증 자료들은 대부분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조선총독부기록물(조선총독부 제작, 1911~1925년 생산 문서)과 일제강점기 신문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순배, 2009, 199-200).

관련 선행연구(김순배, 2009, 199-200)에 따르면, 전국 단위의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 및 통폐합 과정과 관련하여 당시 일제 식민지 권력은 조선 강점 초기부터 군면 폐합(郡面廢合), 부제(府制) 실시, 조선면제(朝鮮面制) 실시 등을 서둘러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조선의 지방 사회가 총독부 권력과 식민지 민중이 격돌하던 주요한 정치투쟁의 현장이었기 때문이며(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해제 2008), 이를 관리 및 제어할 수 있는 지방 통치 체제의 강화가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이로서 일제는 조세 부담의 불균등 문제와 행정 구획의 지리적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군면(府郡面)의 통폐합(1910~1914년)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과 부제 실시, 1917년 조선면제의 시행을 통해 지방 제도의 개편을 완료해 갔다. 이후 1920년에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1931년의 읍제(邑制) 및 도제(道制) 실시가 후속되었다.

이러한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과정의 이면에는 행정 구역 및 명칭 변경, 도·군·면 소재지 이전 및 입지 선정 문제 등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주체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일제강점기 지방의 유지(有志) 집단에 의한 도평의회(道評議會), 부회(府會), 읍회(邑會) 같은 공식적 기구와 상설 유지 단체인 시민회(市民會), 번영회(繁榮會), 기성회(期成會)를 매개로한 진정과 로비의 '유지 정치(有志 政治)'가 전개되면서(국가기록원 「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관련 문서철」 해제, 2008), 권력관

7) 일제강점기인 1914년 4월 1일, 부(府)·군(郡)·면(面)의 행정 구획에 대한 폐합 정리가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당시 부·군을 폐지 분합하여 12부로 만들고 군은 317군 중에서 107개 군을 폐합하고 10개의 군이 신설되어 220군이 되었다. 면의 경우 4,322면 중에서 1,801면을 정리하여 2,521면으로 재조정되었다. 당시 군면 폐합의 기준은 군이 면적 40方里, 인구 남부 10만·북부 5만, 1군당 10개면 소속이었고, 면은 면적 4방리에 평균 호수 800호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면의 명칭, 면사무소의 위치가 크게 변경되었으며 같은 4월 1일자로 부·면 관내의 동리도 대폭으로 통폐합하여 감축하였다(손정목, 1983, 62-63). 이 같은 행정구역 개편 결과 당시의 전국 행정구역은 13도 12부 220군 2,521면으로 정리되었다. 2장에서 제시한 충남 및 대전시 일대의 지명 변천과 관련된 선행 연구 지역에서도 당시 면 폐합의 결과 공주군(18개→13개), 연기군(16개→7개), 대전군(19개→12개), 논산군(40개→15개), 부여군(44개→16개), 서천군(26개→13개), 청양군(21개→10개)으로 대폭 감축되었다. 이와 관련된 1914~1917년 행정 구역 개편의 과정과 결과는 「面廢合關係書類」(면의 폐합에 관한 건: 충청남도 장관)(面폐합각 군별 일람: 충청남도)(面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건: 충청남도)[조선총독부(1914년), 관리번호(CJA0002560)]와 「面洞里名稱變更書類」(面의 명칭 변경의 건: 충청남도)(里의 명칭 변경의 건 보고: 충청남도)[조선총독부(1917년), 관리번호(CJA0002573)] 등에 기록되어 국가기록원 대전서고에 소장되어 있다(김순배, 2010, 19).

계를 동반한 지명 변경과 영역 변동을 야기 시켰다.

면 지명으로의 스케일 상승 사례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조선 시대의 면은 징세 기구로서의 기능을 제외하고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들어 식민지 재무 기구의 하급 단위로 재편되고 치안 행정의 보조 기관으로 확대되어 가장 중요한 지방 행정 단위로 설정되었으며 한일합방 이후에는 식민지 행정 기구로 법제화되었다.[8] 일제강점기에 면 구역 및 명칭 변경은 대체로 부나 읍면이 도에 변경 건을 품신하면 이를 도지사가 심의하여 조선총독(내무국장)에게 인가 신청을 올리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국가기록원「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관련 문서철」해제 2008). 이 과정에서 면 명칭과 면사무소 위치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 간의 갈등과 경합 양상이 발생하였다(김순배, 2009, 199-200).

당시 경기도에 분포하는 면 지명 또한 지명 명명과 영역을 둘러싼 다양한 권력 관계가 영향을 미치면서 일정한 문화 정치 및 스케일 정치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시행된 면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면 지명의 변천 유형을 분석하여 6가지(159개/248개≒64%)로 정리하였다: ① 합성 지명 명명(72개/248개≒29%), ② 유력 면 지명 명명(9개, 4%), ③ 유력 동리 지명 명명(7개, 3%), ④ 공유(산, 하천, 인공물, 지명소) 지명 명명(39개, 16%), ⑤ 옛 지명(복원·활용) 명명(18개, 7%), ⑥ 새 지명 명명(14개, 6%). 우선 1914년을 전후하여 간행된 주요 지명 자료집인 1789년의『호구총수』(이하『호구』), 1912년의『(구한국)지방행정구역동명칭일람』(이하『구한』), 그리고 1917년에 간행된『(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이하『신구』)을 대상으로 경기도 소속 군현에 분포하는 면 지명을 전수 추출하여 〈부록〉에 도표로 정리하였고, 앞서 언급한 6가지 변천 유형별로 면 지명을 재분류하여 각각 도표로 제시하였다.[9]

자료 조사 결과,『호구총수』(1789) (이하『호구』)에는 한성부(漢城府) 소재 5개의 부(部)와 개성부(開城府) 소재 4개 부, 그리고 경기(京畿) 소관 38개의 부, 군, 현에 총 484개의 면이 분포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행정 지명을 수록하고 있는『(구한국)지방행정구역동명칭일람』(1912) (이하『지방』)에는 경기도 소재 2부(府) 36군(郡)에

---

8) 일제 시대 행정기구로서의 면의 법제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지방관 관제를 발표하여 면을 부군 아래의 행정구획으로 확정(1910.9.30)하고, '면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기존의 면장을 판임관(判任官)에 임명해 관료 기구로 편입(1910.10.1)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면사무소의 표찰 게시를 의무화 하여 '조선 면제'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국가기록원「면폐합관련 문서철」해제 2008)(김순배, 2009, 199-200).

9) 본 장에서 인용하거나 참고한 (고)문헌과 (고)지도 등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戶口總數』(1789)=『호구』,『(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구한』,『(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신구』,『대한민국 지방행정구역명감』(1959)=『대한(1959)』,『대한민국 지방행정구역명감』(1963)=『대한(1963)』,『지방행정구역요람』(1993)=『지방(1993)』,『경기도역사지명사전』(2011)=『경기(2011)』.

총 488개의 면이, 그리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결과를 기록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 (이하 『조선』)에는 경기도 소관 2부(府), 20군(郡)에 총 248개의 면이 수록되어 있다. 이 때 2부(한성부, 인천부)는 1913년 10월 부제(府制) 공포로 전국에 설치된 지금의 시(市)와 유사한 행정구역으로서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에 설치되었다.

특히 1914년 면의 통폐합 결과, 기존 488개의 면이 248개로 정리되면서 약 49%에 해당되는 240개의 면 행정구역이 사라지게 되었다. 새로 구획된 248개의 면 지명 중 약 89개(약 36%)는 개명 없이 기존 지명이 계속 사용되었고, 약 159개(약 64%)가 새로운 지명으로 개명되었다. 이 159개의 개정 지명을 분석한 결과 6가지의 지명 변천 유형이 분류되었다. 1914년 당시 경기도의 면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면 지명의 폐지 및 개명 과정에서 발견되는 지명 변천의 6가지 유형과 이에 내재된 지명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합성 지명 명명

'합성 지명'은 '혼성 지명'으로도 언급되는 지명 명명의 한 유형이다. 합성 지명이란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지리적 실체(행정구역, 호수, 교량 등)를 통폐합하거나 새로 명명하는 경우, 옛 지명의 전부 지명소 중 일부를 따와 이를 합하여 통합된 새로운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형성된 지명을 말한다. 합성 지명은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태종대의 지명 개정 기록에서 시작되어 일제강점기인 1914년의 행정구역개편에서 활발하게 명명되었다. 예를 들어, '전주+나주〉전라도', '양근+지평〉양평군', '홍주+결성〉홍성군', '함풍+모평〉함평현', '비옥+안정〉비안현', '대전+청주〉대청호', 그리고 '구리대교+암사대교〉구리암사대교' 등과 같은 합성 지명의 출현은 해당 지명 의미에 대한 무장소성과 장소 상실(placelessness)을 초래하기도 한다(김순배, 2013, 58).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결과 경기도에는 약 72개의 합성 면 지명이 명명 되었다. 이는 『신구』(1917)에 수록된 총 248개의 면 지명 중 약 29%(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개명된 총 159개 면 지명 중 약 45%에 해당되는 수량으로 당시 새로운 통합 면 지명의 명명 방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합성 지명 명명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수원(14곳), 양주(11), 진위(8), 이천(6), 통진[김포](5), 여주(5), 고양(4), 부평[부천](4), 강화(3), 파주(3), 삭녕[연천](3), 장단(3), 용인(2), 포천(2), 양성[안성](1), 광주(1)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의 많은 지역에서 합성 지명이 분포

하고 있으며, 특히 수원군과 양주군, 진위군 등에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흥군(옛 과천군, 안산군 병합), 가평군, 양평군, 개성군 등에는 합성 지명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합성 지명의 명명은 통폐합되는 두 개 이상의 면들이 비슷한 영역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새로운 면 지명의 명명을 둘러싼 두 면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선전기에 경상도 비옥현과 안정현(현 경북 의성군 비안면)을 통합한 새로운 합성 지명을 '비안현'으로 명명할 것인가 혹은 '안비현'으로 개명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합성 지명 방식은 어느 면의 지명소를 앞에 배치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도 내포하고 있다.

시기 / 군현	호구 (1789)	구한 (1912)	신구 (1917)	비고
고양		神穴面 (옛 양주)	*神道面	*(옛 **신**혈면+하**도**면), (옛 경성부 은평면 일부 편입)
			*崇仁面 (옛 경성)	*(옛 경성부 **숭**신면+**인**창면)
부평 (부천)	石串面	石串面	*西串面	*(옛 부평군 **석**곶면+모월**곶**면), 西: 石(석)의 유사음차표기 ?
	毛月串面	毛月串面		
	南村面	南村面	*南洞面 (옛 인천) (부천군 남동면에 편입)	*(옛 인천부 **남**촌면+조**동**면)
	鳥洞面	鳥洞面		
강화	上道面	上道面	*良道面	*(옛 위**량**면+상**도**면), (옛 길상면 일부 편입)
	位良面	位良面		
양주	內洞面	內洞面	**別內面	*谷 탈락, **(옛 **별**비면+**내**동면)
	別非谷面	*別非面		
	接洞面	接洞面	*榛接面	*(옛 **진**벌면+**접**동면), (옛 별비면 일부 편입)
	榛伐面	榛伐面		
	乾川面	乾川面	*眞乾面	*(옛 **진**관면+**건**천면)
	眞官面	眞官面		
수원	文殊堂面	*文市面	성호면	*(옛 **문**수당면+**시**봉면)
	市峰面			
	山城面	山城面	***城湖面	*草>楚, **靑好>晴湖, ***(옛 산**성**면+청**호**면), (옛 어탄면 일부 편입)
	草坪面	*楚坪面		
	靑好面	**晴湖面		
	魚呑面	*漁灘面	**東灘面	*魚呑>漁灘, **(옛 **동**북면+어**탄**면)
	東北面	東北面		
진위	一炭面	一炭面	*松炭面	*(옛 **송**장면+일**탄**면), (옛 마산면, 여방면, 소고니면 일부 편입)
	松庄面	松庄面		
	余方面	余方面		
	丙坡面	丙坡面	*丙南面	*(옛 **병**파면+성**남**면), (옛 여방면 일부 편입)
	城南面	城南面		

시기 / 군현	호구 (1789)	구한 (1912)	신구 (1917)	비고
양성 (안성)	九千里面	九千里面	*孔道面 (옛 양성) (안성군 공도면에 편입)	*(옛 양성군 **공**제면+**도**일면)
	孔梯面	孔梯面		
	道一面	道一面		
	令通面	令通面		
	九龍洞面	九龍洞面		
용인	水眞面	水眞面	*水枝面	*(옛 **수**진면+**지**내면)
	枝內面	枝內面		
	器谷面	器谷面	*器興面	*(옛 **기**곡면+구**흥**면), (옛 지내면 일부 편입)
	駒興面	駒興面		
이천	夫毛谷面	夫面	*夫鉢面	*(옛 **부**면+**발**면)
	鉢山面	鉢面		
	長水旺面	長面	*麻長面	*(옛 **마**면+**장**면)
	麻田洞面	麻面		
통진 (김포)	通津 (11면) 府內面	通津郡 (12면) ***郡內面	*****月串面 (옛 통진) (김포군 월곶면에 편입)	*造乙(지을 조): 훈주음종법(받쳐적기법), **迭(갈마들 질): 음차 표기, ***府>郡, ****浦>甫, *****(옛 통진군 **월**여곶면+보구**곶**면)
	浦口串面	****甫口串面		
	月餘串面	月餘串面		
	*造乙田面	**迭田面		
여주	吉川面	吉川面	*興川面	*(옛 **흥**곡면+길**천**면)
	興曲面	興谷面		
삭녕 (연천)	西面	西面	*西南面 (옛 삭녕) (연천군 서남면에 편입)	*(옛 삭녕군 **서**면+**남**면)
	南面	南面		
장단	*長西面	長西面	**長南面	*군 지명의 전부 지명소[長]를 활용하여 명명, **(옛 **장**서면+**장**현내면+고**남**면)
	長縣內面	長縣內面		
	古南面	古南面		

기타: 고양군 송포면, (옛 경성) 용강면 / 부천군(옛 인천) 다주면 / 강화군 하점면, 송해면 / 양주군 회천면, 은현면, 광적면, 시둔면, 와부면, 미금면, 구리면, 노해면 / 파주군(옛 교하) 탄현면, 와석면, 청석면 / 수원군 정남면, 봉담면, 해송면, 안룡면, 태장면, 양감면, 향남면, 일형면, (옛 남양) 서신면, 우정면, (옛 광주) 의왕면 / 진위군 서탄면, 고덕면, (옛 수원)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오성면 / 이천군 신둔면, 대월면, 모가면, 백사면 / 김포군(옛 통진) 대곶면, 양촌면, 하성면 / 여주군 점동면, 가남면, 대신면, 북내면 / 포천군 내촌면, 청산면 / 연천군(옛 마전) 왕징면, 백학면 / 장단군 장도면, 대강면.

주1: 항목 내의 물음표(?)와 윗별표(*)는 추정 자료를 뜻함.
주2: 항목 내의 별표(*, **, ***)는 각 용어의 간략한 주석을 표시한 것임.
주3: '비고'란의 'a 〉 b'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지명 표기가 a에서 b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표 4. 합성 지명 (22/72개 면)

2) 유력 면 지명 명명

이 명명 방식은 통폐합 되는 두 개 이상의 여러 면들 중, 면의 면적이나 인구, (산업, 상업, 교통) 기능 면에 있어서 유력한 중심성을 소유한 면의 이름을 새로운 통합 면 지명으로 명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결과 경기도에는 약 9개의 유력 면 지명이 명명 되었다. 이는 『신구』(1917)에 수록된 총 248개

의 면 지명 중 약 4%, 개명된 총 159개 면 지명 중 약 6%에 해당되는 낮은 비중으로 활용된 명명 방식이다. 그 이유는 새로운 면 지명에서 배제된 다른 면에 거주하는 지명 언중들의 반발과 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명명 방식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력 면 지명 명명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김포(2곳), 인천(1), 파주(1), 양지[용인](1), 가평(1), 여주(1), 포천(1), 연천(1) 등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시기 / 군현	호구 (1789)	구한 (1912)	신구 (1917)	비고
인천	德積鎭	*德積面	(부천군에 편입)	*鎭>面
	益浦里			
	陵洞里			
	蘇爺島			
	文甲島			
	白牙島			
파주	州內面	州內面	*州內面	*(옛 칠정면 일부 편입)
	白石面	白石面		
양지 (용인)	遠三面	遠三面	遠三面 (옛 죽산) (용인군 원삼면에 편입)	(옛 죽산군 원일면을 통합함), (옛 양지군 목악면 일부 편입)
김포	郡內面	郡內面	郡內面	
	石閑面	石閑面		
	古縣內面	古縣內面		
	馬山面	馬山面	黔丹面	
	黔丹面	黔丹面		
	蘆長面	蘆長面		
가평	郡內面	郡內面	郡內面	*기존 조선 전기의 방위면이 성장하여 분화한 사례
	西面	*內西面		
여주	州內面	州內面	*州內面	*(옛 수계면 일부 편입)
	近東面	近東面		
포천	縣內面	*郡內面	郡內面	*縣>郡, **凉>涼
	淸凉面	**淸涼面		
연천	縣內面	*郡內面	郡內面	*縣>郡
	東面	東面		

주1: 항목 내의 물음표(?)와 윗별표(*)는 추정 자료를 뜻함.
주2: 항목 내의 별표(*, **, ***)는 각 용어의 간략한 주석을 표시한 것임.
주3: '비고'란의 'a 〉 b'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지명 표기가 a에서 b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표 5. 유력 면 지명 명명 (9개 면)

3) 유력 동리 지명 명명

이 명명 방식은 통폐합 되는 두 개 이상의 여러 면들 중에서 취락 인구와 기능 면에 있어서 유력한 중심성을 소유한 동리(洞里)의 이름을 새로운 통합 면 지명으로 명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충남 부여군 규암면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력한 동리가 소유한 중심지 기능이 주변 여러 면들의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해당 지명을 자주 통용하는 경우에 큰 거부감 없이 채택되었던 명명 방식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결과 경기도에는 약 7개의 유력 동리 지명이 새로운 통합 면 지명으로 명명 되었다. 이는 『신구』(1917)에 수록된 총 248개의 면 지명 중 약 3%, 개명된 총 159개 면 지명 중 약 4%에 해당된다. 그러나 앞서 유력 면 지명의 명명 방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방식 또한 해당 동리가 소속된 면 이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력 동리 지명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풍덕[개성](4곳), 안성(1), 양근[양평](1), 여주(1) 등에서만 발견되고 있어 매우 제한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개성군에 병합된 풍덕군에서만 4건이 분포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시기 / 군현	호구 (1789)	구한 (1912)	신구 (1917)	비고
안성	大門面	大門面	***金光面	*乎 탈락, **里 탈락, ***유력한 동리 이름(금광리, 옛 대문면 금광리, 현 안성시 금광면 금광리)에서 유래됨
	加智谷面	加洞面 ?		
	月乎洞面	*月洞面		
	鳥嶺里面	**鳥嶺面		
양근 (양평)	北面	*楊平郡 北上道面	**雪岳面	*(옛 **양**근군+지**평**군)(1908년), **동리 지명(雪谷里)에서 유래됨 ?
		北下道面		
여주		康川面 (옛 원춘도 원주)	*康川面 (康川里)	*유력한 큰 동리 지명(강천리)에서 유래함
풍덕 (개성)	*郡中面	郡中面	光德面 (옛 풍덕) (개성군 광덕면에 편입)	유력한 동리 지명(광덕리)에서 유래됨
	西面	西面		
	郡南面	郡南面	大聖面 (옛 풍덕) (개성군 대성면에 편입)	유력한 동리 지명(대성리)에서 유래됨, (옛 풍덕군 중면 일부 편입)
	德中面	中面		
	郡北面	郡北面	上道面 (옛 풍덕) (개성군 상도면에 편입)	유력한 동리 지명(상도리)에서 유래됨, (옛 풍덕군 군중면 일부 편입)
	東面	東面	興敎面 (옛 풍덕) (개성군 흥교면에 편입)	유력한 동리 지명(흥교리)에서 유래됨, (옛 풍덕군 군남면 일부 편입)

주1: 항목 내의 물음표(?)와 윗별표(*)는 추정 자료를 뜻함.
주2: 항목 내의 별표(*, **, ***)는 각 용어의 간략한 주석을 표시한 것임.
주3: '비고'란의 'a 〉 b'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지명 표기가 a에서 b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표 6. 유력 동리 지명 명명 (7개 면)

4) 공유 지명 명명

공유 지명을 활용한 명명 방식은 통폐합 되는 두 개 이상의 여러 면들의 경계에 위치하는 산 이름이나 통합 면을 경유하는 하천 이름, 혹은 공통의 지명소나 해당 지역 사회에서 유명한 인공물의 이름을 취해 새로운 통합 면 지명으로 명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명명 방식은 앞서 설명한 합성 지명처럼 두 개 이상의 면들이 비슷한 영역과 면세(面勢)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새로운 면 지명의 명명을 둘러싼 두 면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면이 공유하는 산(부천군의 계양산과 소래산, 강화군의 화개산 등), 하천(파주군의 임진강, 이천군의 청미천 등), 인공물(고양군의 벽제관 등), 그리고 공통의 지명 표기자(양주의 상도면과 하도면을 통합한 화도면 등)를 따와 명명하는 방식이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결과 경기도에는 약 39개의 공유 지명이 새로운 통합 면 지명으로 명명 되었다. 이는 『신구』(1917)에 수록된 총 248개의 면 지명 중 약 16%, 개명된 총 159개 면 지명 중 약 25%에 해당되는 수량으로 합성 지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유 지명 명명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부평 및 인천[부천](4곳), 안성(4), 교동[강화](3), 파주(3), 음죽[이천](3), 양근[양평](3), 포천(3), 풍덕[개성](3), 고양(2), 안산[시흥](2), 양지[용인](2), 진위(2), 양주(1), 수원(1), 여주(1), 연천(1), 장단(1)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의 여러 지역에서 공유 지명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부천군과 안성군 등에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광주군, 김포군, 가평군 등에서는 공유 지명을 활용한 개명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시기 / 군현	호구 (1789)	구한 (1912)	신구 (1917)	비고
고양	九耳洞面	*九耳面	**碧蹄面	*洞 탈락, **역 이름(벽제관, 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서 유래됨, (옛 신혈면 일부 편입)
	沙里大面	沙里大面		
부평 (부천)	東面	東面	*桂陽面	*산 이름(계양산, 현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서 유래됨
	堂山面	堂山面		
인천 (부천)	新古介面	*新峴面	**蘇萊面 (옛 인천) (부천군 소래면에 편입)	*古介>峴, **산 이름(소래산, 현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서 유래됨
	黃等川面	黃等川面		
	田反面	田反面		
교동 (강화)	喬桐 (4面) 東面	喬桐郡 (4面) *邑東面	**華蓋面 (옛 교동) (강화군 화개면에 편입)	*邑 추가: 읍 치소 및 읍내임을 강조함, **산 지명(화개산, 현 인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에서 유래됨
	北面	北面		
양주	上道面	上道面	*和道面	*옛 상도면과 하도면의 화합을 상징하여 공통의 전부 지명소[道]를 활용하여 명명함 ?
	下道面	下道面		

시기 / 군현	호구 (1789)	구한 (1912)	신구 (1917)	비고
파주	泉峴面	泉峴外面 泉峴內面	*泉峴面	*泉峴外牌面과 泉峴內牌面을 통합하여 신설함
	七井面	七井面	*臨津面	*하천 이름(임진강, 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임진강나루 일대)에서 유래됨
	馬井面	馬井面		
	新屬面	新屬面		
	雲泉面	雲泉面		
안산 (시흥)	草山面	草山面	***秀岩面 (옛 안산) (시흥군 수암면에 편입)	*仍火(*너벌): 음차표기+훈음차표기, 仍(잉)의 고음: *너~*내~*넝, **仍火(잉화)>仁化(인화): 유사 음차표기, 유교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산 이름(수암봉, 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서 유래됨
	*仍火面	**仁化面		
안성	加士面	加士面	***寶蓋面	*呼 탈락, **村 탈락, ***산 이름(보개산, 현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에서 유래됨
	居呼谷面	*居谷面		
	栗洞面	栗洞面		
	北佐村面	**北佐面		
	其佐村面	**其佐面		
양지 (용인)	古北面	古北面	*古三面 (옛 양지) (용인군 고삼면에 편입)	*옛 양지군 고북·고서·고동의 3개 면을 통합하여 공통의 전부 지명소[古]를 활용하여 명명함
	古西面	古西面		
	古東面	古東面		
음죽 (이천)	縣內面	*郡內面	**淸渓面 (옛 음죽) (이천군 청미면에 편입)	*縣>郡, **하천 지명(청미천, 현 이천시 장호원읍 일대)에서 유래됨[이천시에 병합된 옛 음죽군의 방위면들(동면, 남면, 서면, 근북면 등)이 새 통합군의 방위에 맞지 않음]
	南面	南面		
	東面	東面		
	北面	*近北面	**雪星面 (옛 음죽) (이천군 설성면에 편입)	*기존 조선 전기의 방위면이 성장하여 분화한 사례, **산 지명(설성산, 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에서 유래됨
		遠北面		
	西面	西面		
양근 (양평)	楊根 (10面) 邑內面	*楊平郡 邑內面	**葛山面	*(옛 **양**근군+지**평**군)(1908년), **산 지명(갈산, 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서 유래함
	東終面	東終面		
포천	*內所屹山面	**內所面	***蘇屹面	*1789년 당시 면 지명을 산 이름을 활용해 명명한 주요 사례, **屹山 탈락, ***산 지명(소흘산, 현 포천시 소흘읍 ?)에서 유래됨 ?
	外所屹山面	**外所面		
풍덕 (개성)	德南面	南面	*臨漢面 (옛 풍덕) (개성군 임한면에 편입)	*하천 지명(**임**진강+**한**강)에서 유래됨 ?

기타: 고양군(옛 경성) 독도면 / 부천군(옛 부평) 계남면, (옛 인천) 문학면 / 강화군 양사면 / 강화군(옛 교동) 수정면 / 파주군 월롱면 / 수원군(옛 남양) 비봉면 / 시흥군(옛 안산) 군자면 / 진위군 북면, (옛 평택) 부용면 / 안성군 서운면, 미양면 ?, 대덕면 / 용인군 이동면 / 이천군(옛 음죽) 율면 / 양평군(옛 지평) 용문면, 단월면 / 여주군 능서면 / 포천군 신북면, (옛 영평) 창수면 / 연천군(옛 마전) 미산면 ? / 개성군 남면, (옛 풍덕) 진봉면 ? / 장단군 강상면.

주1: 항목 내의 물음표(?)와 윗별표(*)는 추정 자료를 뜻함.

주2: 항목 내의 별표(*, **, ***)는 각 용어의 간략한 주석을 표시한 것임.

주3: '비고'란의 'a 〉 b'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지명 표기가 a에서 b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표 7. 공유 지명 명명 (15/39개 면)

5) 옛 지명 (복원·활용) 명명

옛 지명을 활용한 명명 방식은 통폐합 되는 두 개 이상의 여러 면들의 새로운 통합 면 지명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과정에서 사라진 옛 군의 전부 지명소 전부나 일부를 따오거나, 해당 지역 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온 옛 지명소나 고(古) 지명을 취하여 명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명명 방식은 통폐합 과정에서 사라진 옛 지명의 일부를 면 지명으로 존속케 하여 해당 언중들에게 지명을 매개로한 장소 기억과 지역 정체성의 급격한 단절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해당 사례로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과정에서 사라진 옛 군의 전부 지명소 전부나 일부를 따오는 경우(사라진 부평군의 전부 지명소 '부'를 취한 부천시 부내면, 안성군에 병합된 양성군의 전부 지명소 전부를 따온 양성면, 안성군에 병합된 죽산군의 전부 지명소 일부를 활용하여 명명한 일죽면 등), 해당 지역 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온 옛 지명소를 취한 경우(장단군의 진남면 등), 그리고 고(古) 지명을 취하여 명명하는 경우(개성군 송도면 등) 등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결과 경기도에는 약 18개의 옛 지명이 새로운 통합 면 지명으로 명명 되었다. 이는 『신구』(1917)에 수록된 총 248개의 면 지명 중 약 7%, 개명된 총 159개 면 지명 중 약 11%에 해당되며, 합성 지명과 공유 지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옛 지명 명명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죽산[안성](3곳), 양천[김포](2), 양근[양평](2), 영평[포천](2), 장단(2), 부평[부천](1), 양성[안성](1), 지평[양평](1), 적성[연천](1), 개성(1), 수원(1), 이천(1) 등에서만 나타내고 있다.

시기 / 군현	호구 (1789)	구한 (1912)	신구 (1917)	비고
부평 (부천)	富平 (15面) 邑內面	富平郡 (15面) 郡內面	*富川郡 (15面) **富內面	*(부평 > 부천 = 옛 **부**평군+인**천**부)(1914년) **[**부**천(평)군+군**내**면], 새 통합군(옛 부평군)의 전부 지명소를 활용한 명명, 邑>郡>富
양성 (안성)	陽城 (17面) 邑內面	陽城郡 (13面) *郡內面	**陽城面 (옛 양성) (안성군 양성면에 편입)	*邑>郡, **옛 군 지명의 전부 지명소(양성)를 활용해 명명함
	紙洞面	紙洞面		
	金谷面	金谷面		
	松五里面	松五里面		
	德山面	德山面		

시기 / 군현	호구 (1789)	구한 (1912)	신구 (1917)	비고
죽산 (안성)	川北一面	北一面	*一竹面 (옛 죽산) (안성군 일죽면에 편입)	*숫자와 옛 군 지명의 전부 지명소(죽산) 일부를 활용해 명명함
	川北二面	北二面		
	川南一面	南一面		
	川南二面	南二面		
양천 (김포)	縣內面	*郡內面	***陽東面 (옛 양천) (김포군 양동면에 편입)	*縣>郡, **背 탈락, ***옛 양천군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위치한 면에서 유래됨
	南山面	南山面		
	將軍所面	將軍所面		
	三井面	三井面	***陽西面 (옛 양천) (김포군 양서면에 편입)	
	加背谷面	**加谷面		
양근 (양평)	西始面	西始面	*楊西面	*통합 면이 군의 서쪽에 위치하여 명명함, 양평군의 전부 지명소 일부[楊]를 활용하여 명명함
	西中面	西中面		
지평 (양평)	縣內面	*楊平郡 **郡內面	***砥堤面 (砥平里)	*(옛 **양**근군+지**평**군)(1908년), **縣>郡, ***옛 지평군의 전부 지명소 일부[砥]를 활용하여 명명함
	南面	南面		
	下東面	下東面		
영평 (포천)	縣內面	*邑內面	**永中面 (옛 영평) (永平里) (포천군 영중면에 편입)	*縣>邑 · 郡, **옛 영평군의 중심지(읍내면, 군내면)에서 유래됨, 옛 군 지명의 전부 지명소 일부[永]를 남김 (현 세종시 연동면, 연서면, 연기면 등과 유사)
		*郡內面		
적성 (연천)	縣內面	東面	*積城面 (옛 적성) (연천군 적성면에 편입)	*옛 군 지명의 전부 지명소(적성)를 활용해 명명함, (옛 마전군 군내면, 장단군 고남면 일부 편입)
	東面			
	西面	西面		
개성	開城府 (4部 7面) *東部	開城郡 (14面) **東部面	開城郡 (16面) ***松都面	*部(도성 내)와 面(도성 밖)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사례(한성부의 경우 部로만 구성되고 하위에 坊과 契가 설치됨), **部를 面으로 개편하고 후부 지명소를 面으로 통일시킴, ***개성의 고지명(송도)을 활용하여 명명함
	南部	南部面		
	西部	西部面		
	北部	北部面		
장단	上道面	上道面	*津南面	*기존의 진북면 · 진동면의 전부 지명소 일부[津]를 활용하여 명명함 (임진강 일대의 渡津 기능 강조)
	下道面	下道面		
	中西面	中西面		

기타: 수원군(옛 안산) 반월면 / 안성군(옛 죽산) 이죽면, 삼죽면 / 이천군 호법면 / 양평군(옛 지평) 양동면 / 포천군(옛 영평) 영북면 / 장단군 진서면.

주1: 항목 내의 물음표(?)와 윗별표(*)는 추정 자료를 뜻함.
주2: 항목 내의 별표(*, **, ***)는 각 용어의 간략한 주석을 표시한 것임.
주3: '비고'란의 'a 〉 b'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지명 표기가 a에서 b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표 8. 옛 지명 명명 (11/18개 면)

6) 새 지명 명명

새 지명을 활용한 명명 방식은 통폐합 되는 두 개 이상의 여러 면들의 기존 지명을 배제하고, 통합군과 통합면이 발생시키는 새로운 방위 기준과 지명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명명 방식은 통폐합 과정 중 특정 면에 거주하는 사회적 주체들에게 유리한 이름을 명명하면서 면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기존 면 지명을 활용하는 대신 새로운 제 3의 지명을 명명하여 그 위에 새로운 통합 행정구역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부여할 수 있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해당 사례로는 기존 면 지명을 대신하여 통합군과 통합면이 발생시키는 새로운 방위 기준(광주군 중부면, 양주군 주내면, 용인군 남사면·내사면·외사면, 연천군 군남면과 중면 등)과 또 다른 지명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강화군 삼산면, 용인군 읍삼면, 양평군 청운면 등) 등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결과 경기도에는 약 14개의 새 지명이 새로운 통합 면 지명으로 명명 되었다. 이는 『신구』(1917)에 수록된 총 248개의 면 지명 중 약 6%, 개명된 총 159개 면 지명 중 약 9%에 해당된다. 새 지명 명명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강화(2곳), 용인(2), 양근[양평](2), 연천(2), 광주(1), 양주(1), 양지[용인](1), 죽산[용인](1), 지평[양평](1), 장단(1) 등에서만 발견된다.

시기 / 군현	호구 (1789)	구한 (1912)	신구 (1917)	비고
강화	諸島 媒音島	*諸島 **煤音島	****三山面	* '諸島' 를 면에 포함하여 계산함, **媒>煤, ***旀>彌, ****3개의 대표적인 산[섬]으로 이루어진 면 ?, (옛 교동군 송가면 편입)
	席毛老島	席毛島		
	旀法島	***彌法島		
	西檢島	西檢島		
		石浦島		
	阿此島	阿此島	**西島面 ***(叀音島)	*耑>末: *끝섬, **군의 서쪽에 위치한 섬들로 이루어진 면 ?, ***甫>叀
	甫音島	甫音島		
	耑島	*末島		
	注文島	注文島		
광주	城內南洞內	*郡內面	**中部面	*城內>郡內, **군의 중심지라는 의미로 새로 부(部) 명칭을 명명함
	城內北洞內			
	細村面	細村面		
양주	邑內面	邑內面	*州內面	*邑>州: 과거 큰 고을[州]이었음을 강조함
	北古州內面	古州內面		
용인	邑內面	邑內面	*邑三面	*옛 읍내면 주변 3개의 면을 통합하여 명명함, (옛 수진면, 구흥면 일부 편입)
	東邊面	東邊面		
	縣內面	縣內面	**南四面	*조선 전기 방위촌이 성장하여 면으로 승격한 사례, **통합군 남쪽의 4개면을 통합하여 명명함
	道村面	道村面		
	*西村面	西村面		
	南村面	南村面		

시기 / 군현	호구 (1789)	구한 (1912)	신구 (1917)	비고
양지 (용인)	邑內面	邑內面	*內四面 (옛 양지) (용인군 내사면에 편입)	*새 통합군 내륙에 위치한 4개 면을 통합하여 명명함, (옛 양지군 주서면 일부 편입)
	朱東面	朱東面		
	朱北面	朱北面		
죽산 (용인)	近一面	*近一二面	**外四面 (옛 죽산 및 양지) (용인군 외사면에 편입)	*(옛 근**일**면+근**이**면), 기존 지명의 일부 지명소를 모두 표기, **새 통합군 외곽에 위치한 4개 면을 통합하여 명명함, (옛 양지군 박곡면, 고안면 편입)
	近二面			
	近三面	近三面		
	朴谷面	朴谷面		
	高安面	高安面		
양근 (양평)	南始面	南始面	*江上面	*남한강의 상류에 위치하여 명명됨
	南中面	南中面	*江下面	*남한강의 하류에 위치하여 명명됨
지평 (양평)	北面	上北面	*靑雲面	*(옛 하북면 일부 편입), 청운팔경(靑雲八景)에서 유래[『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네이버 지식백과], 면 통폐합이 아닌 기존 지명 개명 사례
연천	南面	南面	*郡南面	*새 통합군의 남쪽에 위치한 면, (옛 마전군 화진면 편입)
	北面	北面	*中面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신설 통합군의 중심 부근이 됨
장단	邑內面	*津縣內面	***郡內面 (邑內里)	*군내에서 津 표기자를 중요하게 인식한 용례, **里: 面의 誤字 ?, 面으로 성장해 가는 자연촌, ***津縣>郡
	津縣內面			
	津北面	**津北里		

주1: 항목 내의 물음표(?)와 윗별표(*)는 추정 자료를 뜻함.
주2: 항목 내의 별표(*, **, ***)는 각 용어의 간략한 주석을 표시한 것임.
주3: '비고'란의 'a 〉 b'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지명 표기가 a에서 b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표 9. 새 지명 명명 (14개 면)

4. 결론

면 지명이 가지는 지시 및 구별 기능은 조선시대 이래로 조세 및 부역의 수취 체제를 강화하는데 실용적으로 활용되었고, 면 지명의 상징 기능은 일상생활에서 지명 언중들의 반복적인 사용과 인식을 통해 기초 단위의 생활권 내에서 일정한 지역 정체성을 구성해 왔다. 이 같은 지명이 가진 기능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군현과 동리 단위 지명들 사이에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크게 관심 받지 못했던 면 지명을 대상으로 지명의 변천 유형을 기초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행정 지명의 변천에 있어 큰 영향을 미쳤던 1914년의 전국 행정구역 개편을 전후한 일제강점기 경기도 면 지명의 변천 및 개정 유형을 6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① 합성 지명, ② 유력 면 지명, ③ 유력 동리 지명, ④ 공유 지명, ⑤ 옛 지명, ⑥ 새 지명.

1914년 면의 통폐합 결과, 경기도 소재 총 488개의 면이 248개로 정리되면서 기존의 약 49%에 해당되는 240개의 면이 사라지게 되었다. 새로 편제된 248개의 면 지명 중 약 89개(약 36%)가 개명 없이 기존 지명이 계속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약 159개(약 64%)가 새로운 지명으로 개명되었다. 이 159개의 개정 지명을 분석한 결과 6가지의 지명 변천 유형이 분류되었다. 연구 결과, 1914년 당시 경기도의 면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면 지명의 폐지 및 개명 과정에서 발견되는 지명 변천의 6가지 유형과 이에 내재된 지명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성 지명'을 활용한 명명 방식은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지리적 실체를 통폐합하는 경우, 옛 지명의 전부 지명소 중 일부를 따와 이를 합하여 통합된 새로운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다. 합성 지명의 출현은 해당 지명 의미에 대한 무장소성과 장소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결과 경기도에는 약 72개의 합성 면 지명이 명명 되었다. 이는 『신구』(1917)에 수록된 총 248개의 면 지명 중 약 29%, 개명된 총 159개 면 지명 중 약 45%에 해당되는 수량으로 당시 새로운 통합 면 지명의 명명 방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성 지명의 명명은 통폐합되는 두 개 이상의 면들이 비슷한 영역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새로운 면 지명의 명명을 둘러싼 두 면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유력 면 지명'을 활용한 명명 방식은 통폐합 되는 두 개 이상의 여러 면들 중, 면의 면적이나 인구, 기능 면에 있어서 유력한 중심성을 소유한 면의 이름을 새로운 통합 면 지명으로 명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결과 경기도에는 약 9개의 유력 면 지명이 명명 되었다. 이는 총 248개의 면 지명 중 약 4%, 개명된 총 159개 면 지명 중 약 6%에 해당되는 낮은 비중으로 활용된 명명 방식이다. 그 이유는 새로운 면 지명에서 배제된 다른 면에 거주하는 지명 언중들의 반발과 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명명 방식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력 동리 지명'의 명명 방식은 통폐합 되는 두 개 이상의 여러 면들 중에서 취락 인구와 기능 면에 있어서 유력한 중심성을 소유한 동리의 이름을 새로운 통합 면 지명으로 명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력한 동리가 소유한 중심지 기능이 주변 여러 면들의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해당 지명을 자주 통용하는 경우에 큰 거부감 없이 채택되는 명명 방식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결과 경기도에는 약 7개의 유력 동리 지명이 새로운 통합 면 지명으로 명명 되었다. 이는 총 248개의 면 지명 중 약 3%, 개명된 총 159개 면 지명 중 약 4%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명명 방식은 해당 동리가 소속된 면 이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유 지명'을 활용한 명명 방식은 통폐합 되는 두 개 이상의 여러 면들의 경계에 위치하는 산 이름이나 통합 면을 경유하는 하천 이름, 혹은 공통의 지명소나 해당 지역 사회에서 유명한 인공물의 이름을 취해 새로운 통합 면 지명으로 명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명명 방식은 합성 지명처럼 두 개 이상의 면들이 비슷한 영역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새로운 면 지명의 명명을 둘러싼 두 면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면이 공유하는 산, 하천, 인공물, 그리고 공통의 지명 표기자를 따와 명명하는 방식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결과 경기도에는 약 39개의 공유 지명이 새로운 통합 면 지명으로 명명 되었다. 이는 총 248개의 면 지명 중 약 16%, 개명된 총 159개 면 지명 중 약 25%에 해당되는 수량으로 합성 지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옛 지명'을 활용한 명명 방식은 통폐합 되는 두 개 이상의 여러 면들의 새로운 통합 면 지명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과정에서 사라진 옛 군의 전부 지명소 전부나 일부를 따오거나, 해당 지역 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온 옛 지명소나 고(古) 지명을 취하여 명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명명 방식은 통폐합 과정에서 사라진 옛 지명의 일부를 면 지명으로 존속케 하여 해당 언중들에게 지명을 매개로한 장소 기억과 지역 정체성의 급격한 단절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결과 경기도에는 약 18개의 옛 지명이 새로운 통합 면 지명으로 명명 되었다. 이는 총 248개의 면 지명 중 약 7%, 개명된 총 159개 면 지명 중 약 11%에 해당되며, 합성 지명과 공유 지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섯째, '새 지명'을 활용한 명명 방식은 통폐합 되는 두 개 이상의 여러 면들의 기존 지명을 배제하고 통합군과 통합면이 발생시키는 새로운 방위 기준과 지명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명명 방식은 통폐합 과정 중 특정 면에 거주하는 사회적 주체들에게 유리한 이름을 명명하면서 면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개명 방식으로 평가된다. 기존 면 지명을 활용하는 대신 새로운 제 3의 지명을 명명하여 그 위에 새로운 통합 행정구역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부여할 수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결과 경기도에는 약 14개의 새 지명이 새로운 통합 면 지명으로 명명 되었다. 이는 총 248개의 면 지명 중 약 6%, 개명된 총 159개 면 지명 중 약 9%에 해당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1914년 면 지명 개정의 6가지 유형을 통해, 일제강점기 초기 새로운 면 지명의 명명 과정에서 통폐합되는 면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성 지명, 공유 지명, 옛 지명, 그리고 새 지명 명명이라는 방식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유력 면 지명과 동리 지명을 활용한 개명 과정에서 일본 거류민이나 일제 식민지 권력 등과 같은 특정 사회적 주체에 의한 권력 관계가 작용했을 여지가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戶口總數(1789), 서울대학교출판부 영인본(1996).

필사본 朝鮮地誌資料(54冊)(조선총독부, 1911년경),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舊韓國)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조선총독부(1912), 태학사 영인본(1985).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越智唯七(1917), 태학사 영인본(1985).

大韓民國 地方行政區域名鑑 京畿道(1959), 경기문화재단 영인본(2018)

大韓民國 地方行政區域名鑑 京畿道(1963), 경기문화재단 영인본(2018)

地方行政區域要覽 京畿道(1993), 경기문화재단 영인본(2018)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2011, 경기도 역사지명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面洞里名稱變更書類(CJA0002573, 조선총독부, 국가기록원 대전서고 소장, 1914)

面廢合關係書類(CJA0002560, 조선총독부, 국가기록원 대전서고 소장, 1914)

府郡廢合關係書類(CJA0002545, 조선총독부, 국가기록원 대전서고 소장, 1914)

行政區劃關係書類(CJA0002566, 조선총독부, 국가기록원 대전서고 소장, 1914)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조선총독부(1919), 경인문화사 영인본(1988).

김순배, 2004, 地名 變遷의 地域的 要因에 關한 硏究: 16세기 이후 大田 지방의 漢字 地名을 사례로,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배 · 류제헌, 2008,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연구를 위한 이론의 구성,” 대한지리학회지 43(4), 599-619.

김순배, 2009, 韓國 地名의 文化政治的 變遷에 關한 硏究: 舊 公州牧 鎭管 區域을 中心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순배, 2010, “지명의 스케일 정치: 지명 영역의 스케일 상승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2(2), 15-37.

김순배, 2012a, “비판적-정치적 지명 연구의 형성과 전개: 1990년대 이후 영미권 인문지리학계를 중심으로,” 지명학, 18, 27-73.

김순배, 2012b, 지명과 권력: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변천, 경인문화사.

김순배, 2013, “한국 지명의 표준화 역사와 경향,” 지명학, 19, 5-70.

김준형, 1982, 조선후기 면리제의 성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성욱 · 황주희, 2018, “북한 행정구역 개편의 함의와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

연구, 27(1), 113-142.
남호엽, 2001, 한국 사회과에서의 민족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명진 외 역, 2003, 문화 이론 사전, 한나래(Edgar, A. and Sedgwick, P., eds., 2002, Cultural Theory: The Key Concepts, London: Routledge).
손정목, 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이무용, 2005,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이수건, 1989,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정진영, 1999,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한국사사전편찬회, 2007, 한국 고중세사 사전, 가람기획.
한글학회, 1966, 한국 지명 총람 1(서울편), 한글학회.
한글학회, 1985, 한국 지명 총람 17(경기편: 상), 한글학회.
한글학회, 1986, 한국 지명 총람 18(경기편 · 인천편: 하), 한글학회.
한글학회, 1991, 한국 땅이름 큰사전(상 · 중 · 하), 한글학회.
한글학회, 1998, 한국 땅이름 전자사전(CD), 한글학회.
Jackson, P., 1989, Maps of Meaning: An introduction to cultural geography, London: Routledge.
Mitchell, D., 2000,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관보 (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listDateSearch.do?TP=000006&sort=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신편)한국사(1993~2002)-면리제 (http://db.history)
네이버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면리제 · 지방행정제도 (http://terms.naver.com)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신편)한국사(1993~2002)-면리제 (http://db.history)

부록 : 경기도 면 지명의 변천 (18세기 말~20세기 초)

시기 / 군현	호구 (1789) (京畿 38官) (漢城府 제외) 총 484개 면	구한 (1912) (京畿道 2府 36官) 총 488개 면	신구 (1917) (京畿道 2府 20郡) 총 248개 면	비고
경성 (서울)	漢城府 (5部 47坊 338契) 東部	京城府 (5部 8面) 東部	京城府 (186 町洞) ? *옛 東部	*(部 폐지)
	西部	西部	옛 西部	
	中部	中部	옛 中部	
	南部	南部	옛 南部	
	北部	北部	옛 北部	
		崇信面	옛 崇信面 일부 (고양군 숭인면에 일부 편입)	
		仁昌面	(고양군 숭인면, 한지면에 편입)	
		龍山面	옛 龍山面 일부 (고양군 용강면에 일부 편입)	
		西江面	(고양군 용강면에 편입)	
		漢芝面	옛 漢芝面 일부 (고양군 한지면에 일부 편입)	
		豆毛面	(고양군 독도면, 한지면에 편입)	
		恩平面	(고양군에 편입)	
		延禧面	(고양군에 편입)	
고양	高陽 (8面) 下道面	高陽郡 (9面) 下道面	高陽郡 (12面) 신도면	
	求知道面	求知道面	*知道面	*(옛 김포군 고란태면 일부 편입), 求 탈락
	元堂面	元堂面	*元堂面	*(옛 구이면 일부 편입)
	中面	中面	中面	
	巳浦面	巳浦面	*松浦面	*(옛 **송**산면+사**포**면)
	松山面	松山面		
	九耳洞面	*九耳面	**碧蹄面	*洞 탈락, **역 이름(벽제관, 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서 유래됨, (옛 신혈면 일부 편입)
	沙里大面	沙里大面		
		神穴面 (옛 양주)	*神道面	*(옛 **신**혈면+하**도**면), (옛 경성부 은평면 일부 편입)
			龍江面 (옛 경성)	(옛 경성부 **용**산면+서**강**면)
			延禧面 (옛 경성)	
			恩平面 (옛 경성)	
			崇仁面 (옛 경성)	(옛 경성부 **숭**신면+**인**창면)
			蠶島面 (옛 경성)	*(옛 양주군 고양주면 편입), 섬 이름(뚝섬, 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에서 유래됨
			漢芝面 (옛 경성)	
인천	仁川 (16面 5島) 府內面	仁川府 (13面) 府內面	仁川府 (46 町里) ? 옛 府內面	
	遠又尒面			

시기 / 군현	호구 (1789) (京畿 38官) (漢城府 제외) 총 484개 면	구한 (1912) (京畿道 2府 36官) 총 488개 면	신구 (1917) (京畿道 2府 20郡) 총 248개 면	비고
	多所面	多所面	옛 多所面 일부 (부천군 다주면에 일부 편입)	
	朱安面	朱安面	(부천군 다주면에 편입)	
	南村面	南村面	(부천군 남동면에 편입)	
	鳥洞面	鳥洞面		
	新古介面	*新峴面	(부천군 소래면에 편입)	*古介>峴
	黃等川面	黃等川面		
	田反面	田反面		
	梨浦面			
	永宗營下面	*永宗面 (**前所里, 後所里, 三木里)	(부천군에 편입)	*營下 탈락
	前所面			**面>里 스케일 하강
	後所面			
	三木面			
	龍流面	*龍游面	(부천군 용유면에 편입)	*流>游
	無依面			
	德積鎭	*德積面 (益浦里, 蘇爺里, 文甲里, 白牙里) (陵洞里: 기록에 없음)	(부천군에 편입)	*鎭>面
	益浦里			
	陵洞里			
	蘇爺島			
	文甲島			
	白牙島			
		舊邑面	(부천군 문학면에 편입)	
		西面		
부평 (부천)	富平 (15面) 邑內面	富平郡 (15面) 郡內面	*富川郡 (15面) **富內面	*(부평 > 부천 = 옛 **부**평군+인**천**부)(1914년) **[**부**천(평)군+군**내**면], 새 통합군(옛 부평군)의 전부 지명소를 활용한 명명, 邑>郡>富
	東面	東面	*桂陽面	*산 이름(계양산, 현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서 유래됨
	堂山面	堂山面		
	注火串面	注火串面	**吾丁面	
	上梧亭面	*上梧丁面		*亭>丁, **梧>吾
	下梧亭面	下梧丁面		
	水呑面	水呑面	*桂南面	*산 이름(계양산)에서 유래됨(계양산 남쪽)
	玉山面	玉山面		
	石川面	石川面		
	東所井面	*同所井面	부내면	*東>同
	西面	西面		
	馬場面	馬場面		
	石串面	石串面	*西串面	(옛 부평군 **석**곶면+모월**곶**면), 西: 石(석)의 유사음차표기 ?
	毛月串面	毛月串面		
	黃魚面	黃魚面	계양면	
			多朱面 (옛 인천)	(옛 인천부 **다**소면+**주**안면)

시기 / 군현	호구 (1789) (京畿 38官) (漢城府 제외) 총 484개 면	구한 (1912) (京畿道 2府 36官) 총 488개 면	신구 (1917) (京畿道 2府 20郡) 총 248개 면	비고
			文鶴面 (옛 인천)	(옛 인천부 구읍면+서면), 산 이름(문학산, 현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에서 유래됨
			蘇萊面 (옛 인천)	(옛 인천부 신현면+전반면+황등천면), 산 이름(소래산, 현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서 유래됨
			南洞面 (옛 인천)	(옛 인천부 **남**촌면+조**동**면)
			北島面 (옛 강화)	
			大阜面 (옛 남양)	
			靈興面 (옛 남양)	
			永宗面 (옛 인천)	
			龍游面 (옛 인천)	
			德積面 (옛 인천)	
강화	江華 (17面 11島) 府內面	江華郡 (18面) 府內面	江華郡 (14面) 府內面	
	長令面	*長嶺面		*令>嶺
	人政面	*仁政面	佛恩面	*人>仁
	佛恩面	佛恩面		
	吉祥面	吉祥面	吉祥面	
	下道面	下道面	下道面	
	上道面	上道面	*良道面	*(옛 위**량**면+상**도**면), (옛 길상면 일부 편입)
	位良面	位良面		
	內可面	內可面	*內可面	*(옛 위량면 일부 편입)
	河陰面	河陰面	**河岾面	**(옛 **하**음면+간**점**면), 岾(호): 岾(점)의 誤字
	外可面	外可面		
	艮岾面	*艮站面		*岾 > 站: 취형 혹은 岾의 誤字 ?
	西寺面	西寺面	兩寺面	
	北寺面	北寺面		
	三海面	三海面	*松海面	*(옛 **송**정면+삼**해**면)
	松亭面	松亭面		
	仙源面	仙源面	仙源面	
	諸島 媒音島	*諸島 **煤音島	****三山面	* '諸島' 를 면에 포함하여 계산함, **媒>煤, ****3개의 대표적인 산[섬]으로 이루어진 면 ?, (옛 교동군 송가면 편입)
	席毛老島	席毛島		
	旀法島	***彌法島		***旀>彌
	西檢島	西檢島		
		石浦島		
	阿此島	阿此島	**西島面 ***(叀音島)	**군의 서쪽에 위치한 섬들로 이루어진 면 ?, ***甫>叀
	甫音島	甫音島		
	耒島	*末島		*耒>末: *끝섬
	注文島	注文島		
	小檢島	*東檢島 ?		*小>東 ?: 섬 사이의 대소 관계 명명에서 방위 관계 명명으로 바뀐 사례 ?
	信島	信島	*(부천군 북도면에 편입)	*옛 강화군 북도면 소속 ?

시기 / 군현	호구 (1789) (京畿 38官) (漢城府 제외) 총 484개 면	구한 (1912) (京畿道 2府 36官) 총 488개 면	신구 (1917) (京畿道 2府 20郡) 총 248개 면	비고
	長峯島	長峯島		
		矢島		
		茅島		
			華蓋面 (옛 교동)	(옛 교동군 동면, 남면, 북면 통합), 산 지명(화개산, 현 인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에서 유래됨
			水晶面 (옛 교동)	(옛 교동군 북면 일부 편입), 산 지명(수정산, 현 인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에서 유래됨
교동 (강화)	喬桐 (4面) 東面	喬桐郡 (4面) *邑東面	(강화군에 편입)	*邑 추가: 읍 치소 및 읍내임을 강조함
	北面	北面	(강화군 화개면에 편입)	
	西面	西面	(강화군 수정면에 편입)	
	南面	松家面	(강화군 삼산면에 편입)	
광주	廣州 (23面 3島) 慶安面	廣州郡 (18面) 慶安面	廣州郡 (16面) 慶安面	
	五浦面	五浦面	五浦面	
	都尺面	都尺面	都尺面	
	實村面	實村面	實村面	
	草月面	草月面	草月面	
	退村面	退村面	*退村面	*(옛 초월면 일부 편입)
	城內南洞內	*郡內面	**中部面	*城內>郡內, **군의 중심지라는 의미로 새로 부(部) 명칭을 명명함
	城內北洞內			
	細村面	細村面		
	東部面	東部面	東部面	
	西部面	西部面	*西部面	*(옛 동부면 일부 편입)
	龜川面	*九川面	九川面	*龜>九
	中臺面	*中垈面	中垈面	*臺>垈
	突馬面	突馬面	*突馬面	*(옛 세촌면 일부 편입)
	樂生面	樂生面	*樂生面	*(옛 용인군 수진면 일부 편입)
	大旺面	大旺面	大旺面	
	彦州面	彦州面	彦州面	
	義谷面	義谷面	(수원군 의왕면에 편입)	
	王倫面	王倫面		
	草阜面	(양주군에 기록)		
	月谷面	(안산군에 기록)		
	北方面	(안산군에 기록)		
	聲串面	(안산군에 기록)		
			南終面 (옛 양평)	
양주	楊州 (34面) 邑內面	楊州郡 (32面) 邑內面	楊州郡 (16面) *州內面	*邑>州: 과거 큰 고을[州]이었음을 강조함
	北古州內面	古州內面		
	檜巖面	檜岩面	*檜泉面	*(옛 **회**암면+**천**천면)
	於等山面	於等山面		

시기 / 군현	호구 (1789) (京畿 38官) (漢城府 제외) 총 484개 면	구한 (1912) (京畿道 2府 36官) 총 488개 면	신구 (1917) (京畿道 2府 20郡) 총 248개 면	비고
	泉川面	泉川面		
	陳畓面	*黙隱面	**隱縣面	*陳畓>黙隱: *묵은논, **(옛 묵**은**면+**현**내면), (옛 석적면 일부 편입)
	縣內面	縣內面		
	伊淡面	伊淡面	伊淡面 (東豆川里)	
	西石積面	石積面	*廣積面	*(옛 **광**석면+석**적**면)
	廣石面	廣石面		
	白石面	白石面	白石面	
	長興面	長興面	長興面	
	東柴北谷面	*柴北面	**柴芘面 (議政府里)	*谷 탈락: 자연촌이 성장하여 면으로 승격된 후 자연촌임을 나타내는 谷(곡)자를 제거함, **(옛 **시**북면+**둔**야면)
	南芘夜面	芘夜面		
	內洞面	內洞面	**別內面	**(옛 **별**비면+**내**동면)
	別非谷面	*別非面		*谷 탈락
	接洞面	接洞面	*榛接面	*(옛 **진**벌면+**접**동면), (옛 별비면 일부 편입)
	榛伐面	榛伐面		
	乾川面	乾川面	*眞乾面	*(옛 **진**관면+**건**천면)
	眞官面	眞官面		
	上道面	上道面	*和道面	*옛 상도면과 하도면의 화합을 상징하여 공통의 전부 지명소[道]를 활용하여 명명함 ?
	下道面	下道面		
	瓦孔面	瓦孔面	*瓦阜面	*(옛 **와**공면+초**부**면), (옛 하도면, 광주군 동부면 일부 편입)
	金村面	金村面	**渼金面	**(옛 **미**음면+**금**촌면), (옛 상도면 일부 편입)
	禿音面	*渼陰面		*禿音>渼陰
	龜旨面	*九旨面	***九里面	*龜>九, ***(옛 **구**지면+망우**리**면)
	忘憂面	**忘憂里面		**里 추가: 후대로 오면서 면 지명은 자연촌의 흔적인 里, 村, 洞, 谷 등의 지명소가 생략됨(반대의 사례)
	蘆原面	蘆原面	*蘆海面	*(옛 **노**원면+**해**등촌면)
	海等村面	海等村面		
	古楊州面	古楊州面	(고양군 독도면에 편입)	
	嶺斤面	嶺斤面	(연천군 영근면에 편입)	
	靑松面	(포천군에 기록)		
	山內面	(포천군에 기록)		
	神穴面	(고양군에 기록)		
		草阜面(옛 광주)	와부면	
파주	坡州 (12面) 州內面	坡州郡 (13面) 州內面	坡州郡 (11面)	*(옛 칠정면 일부 편입)
	白石面	白石面	*州內面	
	泉峴面	泉峴外面	*泉峴面	*泉峴外牌面과 泉峴內牌面을 통합하여 신설함
		泉峴內面		
	廣灘面	廣灘面	廣灘面	

시기 / 군현	호구 (1789) (京畿 38官) (漢城府 제외) 총 484개 면	구한 (1912) (京畿道 2府 36官) 총 488개 면	신구 (1917) (京畿道 2府 20郡) 총 248개 면	비고
	条里洞面	*條里面	條里面	*条>條, 洞 탈락
	紫谷面	紫谷面	**月籠面	*串 탈락, **산 이름(월롱산, 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유래됨
	烏里串面	*烏里面		
	七井面	七井面	*臨津面	*하천 이름(임진강, 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임진강나루 일대)에서 유래됨
	馬井面	馬井面		
	新屬面	新屬面		
	雲泉面	雲泉面		
	坡平面	坡平面	坡平面	
			炭縣面 (옛 교하)	(옛 교하군 **탄**포면+**현**내면)
			瓦石面 (옛 교하)	(옛 교하군 **와**동면+지**석**면)
			靑石面 (옛 교하)	(옛 교하군 **청**암면+**석**곶면)
			衙洞面 (옛 교하)	(옛 교하군 현내면 일부 편입)
교하 (파주)	交河 (8面) 縣內面	交河郡 (8面) 縣內面	(파주군에 편입) (파주군 탄현면에 편입)	
	新五里面	新五里面		
	炭浦面	炭浦面		
	支石面	支石面	(파주군 와석면에 편입)	
	瓦洞面	瓦洞面		
	石串面	石串面	(파주군 청석면에 편입)	
	靑巖面	靑巖面		
	衙洞面	衙洞面	(파주군 아동면에 편입)	
수원	水原 (50面) 文殊堂面	水原郡 (40面) *文市面	水原郡 (21面) 성호면	*(옛 **문**수당면+**시**봉면)
	市峰面			
	南谷面	南谷面	*正南面	*(옛 **정**림면+**남**곡면)
	正林面	正林面		
	貞松面			
	芼旨面			
	三峰面	*三峯面	***峰潭面	*峰>峯, ***(옛 삼**봉**면+갈**담**면)
	龍等面	**葛潭面		**龍等>葛潭: *갓돌~갈담
	好每折面	*梅谷面	**梅松面	*好每折>梅谷, **(옛 **매**곡면+**송**동면)
	松洞面	松洞面		
	空石面			
	光敎面	北部面 ?	수원면, 일형면	
	古等村面	南部面 ?	水原面, 일형면, 태장면, 안룡면	
	龍伏面	龍伏面	*安龍面	*(옛 **안**녕면+**용**복면)
	安寧面	安寧面		
	長足面	*章洲面	***台章面	*長足>章洲, ***(옛 **태**촌면+**장**주면)
	苔村面	**台村面		**苔>台
	山城面	山城面	***城湖面	***(옛 산**성**면+청**호**면), (옛 어탄면 일부 편입)
	草坪面	*楚坪面		*草>楚
	靑好面	**晴湖面		**靑好>晴湖

시기 / 군현	호구 (1789) (京畿 38官) (漢城府 제외) 총 484개 면	구한 (1912) (京畿道 2府 36官) 총 488개 면	신구 (1917) (京畿道 2府 20郡) 총 248개 면	비고
	魚呑面	*漁灘面	**東灘面	*魚呑>漁灘, **(옛 **동**북면+어**탄**면)
	東北面	東北面		
	三美面			
	東面			
	爭忽面			
	吾朶面	(진위군에 기록)		
	北方面			
	土法面			
	今勿村面			
	楊干面	楊澗面	*楊甘面	*(옛 **양**간면+**감**미면)
	宗德面	宗德面	(진위군 고덕면에 편입)	
	靑龍面	靑龍面	(진위군 청북면에 편입)	
	梧井面	梧井面	(진위군 오성면에 편입)	
	宿城面	宿城面	(진위군 오성면에 편입)	
	甘巖面	*玄岩面 ?	(진위군 현덕면, 포승면에 편입)	*甘巖>玄岩
	佳士串面	*佳士面	(진위군 현덕면에 편입)	*串 탈락
	廣德面	廣德面	(진위군 현덕면에 편입)	
	浦內面	浦內面	(진위군 포승면, 현덕면에 편입)	
	工以鄕面	*貢鄕面	**鄕南面, 팔탄면	*工>貢, 以 탈락, **(옛 공**향**면+분**향**리면+**남**면), (옛 남양군 분향리면 일부 편입)
	西北面			
	八呑面	(남양군에 기록)?		
	芼田面			
	禾方面			
	草長面	(남양군에 기록)		
	馬井面			
	水流面			
	奢井面			
	八羅串面			
	鴨長面	(남양군에 기록)?		
	一用面	*日用面	**日荊面	*一>日, **(옛 **일**용면+**형**석면)
		荊石面		
		南面	향남면	
		床笏面	양감면	
		*甘味面 (옛 양성 甘味洞面 ?)		*(진위군 청북면에 일부 편입)
		*土津面	양감면	*(진위군 청북면에 일부 편입)
		西新里面		
		安外面	(진위군 현덕면에 편입)	

시기 / 군현	호구 (1789) (京畿 38官) (漢城府 제외) 총 484개 면	구한 (1912) (京畿道 2府 36官) 총 488개 면	신구 (1917) (京畿道 2府 20郡) 총 248개 면	비고
		升陽面 (升良面 ?) (옛 양성 升良洞面 ?)	(진위군 포승면, 현덕면에 편입)	
		堰北面	(진위군 오성면에 편입)	
		水北面	(진위군 청북면에 편입)	
		栗北面 (옛 양성 栗北面)	(진위군 서탄면, 청북면에 편입)	
			隱德面 (옛 남양)	隱: 陰의 유사음차표기 ?
			麻道面 (옛 남양)	
			松山面 (옛 남양)	
			西新面 (옛 남양)	(옛 남양군 **서**여제면+**신**리면)
			飛鳳面 (옛 남양)	산 이름(비봉산, 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왕래봉산?)에서 유래됨 ?
			八灘面 (옛 남양)	
			長安面 (옛 남양)	
			雨汀面 (옛 남양)	(옛 남양군 **우**정면+압**정**면)
			儀旺面 (옛 광주)	(옛 광주군 **의**곡면+**왕**륜면)
			半月面 (옛 안산)	옛 안산군 월곡면 이름에서 유래됨 ?
남양 (수원)	南陽 (14面) 禾尺只面	南陽郡 (20面) 禾尺只面	(수원군, 부천군에 편입) (수원군 은덕면에 편입)	
	旀知串面	*彌知串面	(수원군 비봉면에 편입)	*旀>彌
	楮八里面	楮八里面		
	分鄕面	*分卿里面	(수원군 향남면에 편입)	*鄕>卿: 취형(取形) 표기, 里 추가
	屯知串面	屯知串面	(수원군 은덕면에 편입)	
	陰德里面	陰德里面		
	麻道面	麻道面	(수원군에 편입)	
	新里面	新里面	(수원군 서신면에 편입)	
	西如堤面	西如堤面		
	松山面	松山面	(수원군에 편입)	
	細串面	細串面	(수원군 송산면에 편입)	
	水山面	水山面		
	雙守里面	雙守里面	(수원군 마도면에 편입)	
	大阜面	大阜面	(부천군에 편입)	
		靈興面	(부천군에 편입)	
		八灘面 (옛 수원 八吞面) ?	(수원군에 편입)	
		長安面	(수원군 장안면에 편입)	
		草長面 (옛 수원)		
		雨井面	(수원군 우정면에 편입)	
		鴨汀面 (옛 수원 鴨長面) ?		
금천 (시흥)	衿川 (6面) 縣內面	*始興郡 (6面) **郡內面	始興郡 (9面) 동면, 서면	*衿川>始興: 조선 정조 19년(1795) 개명, **縣>郡

시기 / 군현	호구 (1789) (京畿 38官) (漢城府 제외) 총 484개 면	구한 (1912) (京畿道 2府 36官) 총 488개 면	신구 (1917) (京畿道 2府 20郡) 총 248개 면	비고
	東面	東面	*東面	*(동면에 始興里, 安養里 등 포함됨)
	南面	南面	西面	
	西面	西面		
	上北面	上北面	北面	
	下北面	下北面		
			新東面 (옛 과천)	
			果川面 (옛 과천)	
			西二面 (옛 과천)	
			南面 (옛 과천)	
			秀岩面 (옛 안산)	산 이름(수암봉, 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서 유래됨
			君子面 (옛 안산)	산 이름(군자봉, 현 시흥시 군자동)에서 유래됨 ?
과천	果川 (7面) 縣內面	果川郡 (7面) *郡內面	(시흥군에 편입) (시흥군 과천면에 편입)	*縣>郡
	東面	東面	(시흥군 신동면에 편입)	
	南面	南面	(시흥군에 편입)	
	*上北面	上北面	(시흥군 북면, 신동면에 편입)	*조선 전기 방위면의 분화 사례
	下北面	下北面	(시흥군 북면에 편입)	
	*上西面	上西面	(시흥군 서이면에 편입)	
	下西面	下西面		
안산 (시흥)	安山 (6面) 郡內面	安山郡 (9面) 郡內面	(시흥군에 편입) (시흥군 수암면에 편입)	
	草山面	草山面	(시흥군 수암면에 편입)	
	*仍火面	**仁化面		*仍火(*너벌): 음차표기+훈음차표기, 仍(잉)의 고음: *너~*내~*넝, **仍火(잉화)>仁化(인화): 유사 음차표기, 유교 이데올로기적 기호화
	馬遊面	馬遊面	(시흥군 군자면에 편입)	
	大月面	大月面		
	瓦里面	瓦里面		
		聲串面 (옛 광주)	(수원군 반월면에 편입)	
		北方面 (옛 광주)		
		月谷面 (옛 광주)		
진위 (평택)	振威 (13面) 縣內面	振威郡 (15面) *郡內面	振威郡 (11面)	*縣>郡, **(옛 일**북**면+이**북**면), (옛 이서면, 수원군 청호면 일부 편입)
	一北面	一北面	**北面	
	二北面	二北面		
	馬山面	馬山面		
	一西面	一西面	*西炭面	*(옛 일**서**면+이**탄**면), (옛 수원군 율북면 일부 편입)
	二西面	二西面		
	二炭面	二炭面		
	一炭面	一炭面	*松炭面	*(옛 **송**장면+일**탄**면), (옛 마산면, 여방면, 소고니면 일부 편입)
	松庄面	松庄面		

시기 / 군현	호구 (1789) (京畿 38官) (漢城府 제외) 총 484개 면	구한 (1912) (京畿道 2府 36官) 총 488개 면	신구 (1917) (京畿道 2府 20郡) 총 248개 면	비고
	余方面	余方面		
	丙坡面	丙坡面	*丙南面	*(옛 **병**파면+성**남**면), (옛 여방면 일부 편입)
	城南面	城南面		
	古頭面	古頭面	*古德面	*(옛 **고**두면+수원군 종**덕**면)
		五朶面 (옛 수원)		
		所古尼面 (옛 양성)	송탄면	
			靑北面 (옛 수원)	(옛 수원군 **청**룡면+수**북**면)
			浦升面 (옛 수원)	(옛 수원군 **포**내면+**승**량면)
			玄德面 (옛 수원)	(옛 수원군 **현**암면+광**덕**면)
			梧城面 (옛 수원)	(옛 수원군 **오**정면+숙**성**면)
			芙蓉面 (옛 평택)	산 이름(부용산, 현 평택시 팽성읍 두리)에서 유래됨, (옛 서면 일부 편입)
			西面 (옛 평택)	(옛 평택군 동면 일부 편입)
충청도 평택	忠淸道 平澤(6面) *邑內	忠南 平澤郡 (6面) 邑內面	(경기도 진위군에 편입) (진위군 부용면에 편입)	*面 생략
	東面	東面		
	北面	北面		
	西面	西面	(진위군 서면에 편입)	
	南面	南面		
	山北面			
		慶陽面 (옛 직산)	(진위군 서면에 편입)	
안성	安城 (25面) 邑內東里面	安城郡 (24面) 東里面	安城郡 (12面) 邑內面	
	邑內西里面			
	北里面	北里面		
	道基里面	西里面		
	外西里面			
	加士面	加士面	***寶蓋面	***산 이름(보개산, 현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에서 유래됨
	居呼谷面	*居谷面		*呼 탈락
	栗洞面	栗洞面		
	北佐村面	**北佐面		**村 탈락
	其佐村面	**其佐面		
	大門面	大門面	***金光面	***유력한 동리 이름(금광리, 옛 대문면 금광리, 현 안성시 금광면 금광리)에서 유래됨
	加智谷面	加洞面 ?		
	月乎洞面	*月洞面		*乎 탈락
	鳥嶺里面	**鳥嶺面		**里 탈락
	㦸土面			
	德谷面	德谷面	**瑞雲面	**산 이름(서운산, 현 안성시 서운면 청용리)에서 유래됨
	松竹村面	*松竹面		*村 탈락
	木村面	木村面	****薇陽面	****산 이름(미양산 ?, 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에서 유래됨 ?
	于只谷面	***于谷面		***只 탈락

시기 / 군현	호구 (1789) (京畿 38官) (漢城府 제외) 총 484개 면	구한 (1912) (京畿道 2府 36官) 총 488개 면	신구 (1917) (京畿道 2府 20郡) 총 248개 면	비고
	辰頭面	辰頭面		
	*芿山谷面	**晩谷面		*'너미골~'내미골, **晩: '느~'늦의 훈음차표기
	竹村面	竹村面		**산 이름(대덕산, 현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에서 유래됨
	金谷面	金谷面	**大德面	
	蘇萬面	所村面		*蘇萬>所村
	見乃面	見乃面		
		立長面	서운면	
		奇村面		
			陽城面 (옛 양성)	옛 군 지명의 전부 지명소(양성)를 활용해 명명함
			孔道面 (옛 양성)	(옛 양성군 **공**제면+**도**일면)
			元谷面 (옛 양성)	(옛 양성군 도일면 일부 편입)
			*一竹面 (옛 죽산)	*숫자와 옛 군 지명의 전부 지명소(죽산) 일부를 활용해 명명함
			*二竹面 (옛 죽산)	*숫자와 옛 군 지명의 전부 지명소(죽산) 일부를 활용해 명명함
			*三竹面 (옛 죽산)	*숫자와 옛 군 지명의 전부 지명소(죽산) 일부를 활용해 명명함
양성 (안성)	陽城 (17面) 邑內面	陽城郡 (13面) *郡內面	(안성군에 편입)	*邑>郡
	紙洞面	紙洞面		
	金谷面	金谷面	(안성군 양성면에 편입)	
	松五里面	松五里面		
	德山面	德山面		
	九千里面	九千里面		
	孔梯面	孔梯面		
	道一面	道一面	(안성군 공도면에 편입)	
	令通面	令通面		
	九龍洞面	九龍洞面		
	盤谷面	盤谷面		
	元堂面	元堂面	(안성군 원곡면에 편입)	
	升良院面	升良院面		
	所古尼面	(진위군에 기록)		
	栗北面	(수원군에 기록)		
	甘味洞面	(수원군에 기록) 甘味面 ?		
	升良洞面	(수원군에 기록) 升陽面 ?		
죽산 (안성)	竹山 (18面) *東部面	竹山郡 (15面) 府一面	(안성군에 편입)	*많은 면이 조선 전기의 방위면으로 구성됨
	南部面		(안성군 이죽면에 편입)	
	府內二面	府二面		
	山西面			
	西一面	西一面		
	西二山東面	*西二面	(안성군 삼죽면에 편입)	*山東 탈락
	西三面	西三面		
	遠三面	遠三面	(용인군 원삼면에	

시기 / 군현	호구 (1789) (京畿 38官) (漢城府 제외) 총 484개 면	구한 (1912) (京畿道 2府 36官) 총 488개 면	신구 (1917) (京畿道 2府 20郡) 총 248개 면	비고
	遠一面	遠一面	편입)	
	近一面	*近一二面	(용인군 외사면에 편입)	*(옛 근**일**면+근**이**면), 기존 지명의 일부 지명소를 모두 표기
	近二面			
	近三面	近三面		
	川北一面	北一面	(안성군 일죽면에 편입)	
	川北二面	北二面		
	川南一面	南一面		
	川南二面	南二面		
	山內面			
	山外面			
		蹄村面(옛 양지)	(안성군 일죽면에 편입)	
		南面	(안성군 이죽면에 편입)	
	龍仁 (16面) 邑內面	龍仁郡 (16面) 邑內面	龍仁郡 (12面) *邑三面	*옛 읍내면 주변 3개의 면을 통합하여 명명함, (옛 수진면, 구흥면 일부 편입)
	東邊面	東邊面		
	西邊面	西邊面		
	水眞面	水眞面	*水枝面	*(옛 **수**진면+**지**내면)
	枝內面	枝內面		
	器谷面	器谷面	*器興面	*(옛 **기**곡면+구**흥**면), (옛 지내면 일부 편입)
	駒興面	駒興面		
	水餘面	水餘面	*水餘面	*(옛 양지군 주서면 편입)
	蒲谷面	蒲谷面	*蒲谷面	*(옛 수여면 일부 편입)
	慕賢村面	*慕賢面	慕賢面	*村 탈락
용인	縣內面	縣內面	**南四面	**통합군 남쪽의 4개면을 통합하여 명명함
	道村面	道村面		
	*西村面	西村面		*조선 전기 방위촌이 성장하여 면으로 승격한 사례
	南村面	南村面		
	上東村面	*上東面	**二東面	*村 탈락, **2개의 동면을 통합하여 명명함
	下東村面	*下東面		
			內四面 (옛 양지)	통합군 내륙에 위치한 4개 면을 통합하여 명명함, (옛 양지군 주서면 일부 편입)
			古三面 (옛 양지)	옛 양지군 고북·고서·고동의 3개 면을 통합하여 공통의 전부 지명소[古]를 활용하여 명명함
			外四面 (옛 죽산)	통합군 외곽에 위치한 4개 면을 통합하여 명명함, (옛 양지군 박곡면, 고안면 편입)
			遠三面 (옛 죽산)	(옛 죽산군 원일면을 통합함), (옛 양지군 목악면 일부 편입)
양지 (용인)	陽智 (11面) 邑內面	陽智郡 (10面) 邑內面	(용인군에 편입)	
	朱東面	朱東面	(용인군 내사면에 편입)	
	朱北面	朱北面		
	古北面	古北面	(용인군 고삼면에 편입)	
	古西面	古西面		

시기 / 군현	호구 (1789) (京畿 38官) (漢城府 제외) 총 484개 면	구한 (1912) (京畿道 2府 36官) 총 488개 면	신구 (1917) (京畿道 2府 20郡) 총 248개 면	비고
	古東面	古東面		
	木岳面	木岳面	(용인군 원삼면에 편입)	
	朱西面	朱西面	(용인군 수여면에 편입)	
	朴谷面	朴谷面	(용인군 외사면에 편입)	
	高安面	高安面		
	蹄村面	(죽산군에 기록)		
이천	利川 (15面) 邑內面	利川郡 (15面) *邑面	利川郡 (11面) **邑內面	*기존 면 지명의 전부 지명소의 첫 글자를 활용하여 간략히 명명한 사례(충남 정산군의 면 지명 사례와 유사함) **(옛 둔면, 신면 일부 편입)
	屯之山面	屯面	*新屯面	*(옛 **신**면+**둔**면), (옛 사면 일부 편입)
	新洞面	新面		
	夫毛谷面	夫面	*夫鉢面	*(옛 **부**면+**발**면)
	鉢山面	鉢面		
	草枝谷面	草面	*大月面	*(옛 **대**면+**월**면)
	大陽面	大面		
	月良村面	月面		
	袈馬洞面	加面	*暮加面	*(옛 **모**면+**가**면), (옛 대면 일부 편입)
	暮山面	暮面		
	戶法面	戶面	*戶法面	*옛 면 지명 복원, (옛 대면 일부 편입)
	長水旺面	長面	*麻長面	*(옛 **마**면+**장**면)
	麻田洞面	麻面		
	沙北面	沙面	*栢沙面	*(옛 **백**면+**사**면)
	栢土里面	柏面		
			淸渓面 (옛 음죽)	하천 지명(청미천, 현 이천시 장호원읍 일대)에서 유래됨[이천시에 병합된 옛 음죽군의 방위면들(동면, 남면, 서면, 근북면 등)이 새 통합군의 방위에 맞지 않음]
			雪星面 (옛 음죽)	산 지명(설성산, 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에서 유래됨
			栗面 (옛 음죽)	(옛 음죽군 상**율**면+하**율**면)
음죽 (이천)	陰竹 (8面) 縣內面	陰竹郡 (8面) *郡內面	(이천군에 편입)	*縣>郡
	南面	南面	(이천군 청미면에 편입)	
	東面	東面		
	北面	*近北面	(이천군 설성면에 편입)	*기존 조선 전기의 방위면이 성장하여 분화한 사례
		遠北面		
	西面	西面		
	無極面	(충북 음성군에 기록)		
	上栗面	上栗面	(이천군 율면에 편입)	
	下栗面	下栗面		
김포	金浦 (8面) 郡內面	金浦郡 (8面) 郡內面	金浦郡 (9面) 郡內面	
	石閑面	石閑面		

시기 / 군현	호구 (1789) (京畿 38官) (漢城府 제외) 총 484개 면	구한 (1912) (京畿道 2府 36官) 총 488개 면	신구 (1917) (京畿道 2府 20郡) 총 248개 면	비고
	古縣內面	古縣內面		
	馬山面	馬山面	黔丹面	
	黔丹面	黔丹面		
	蘆長面	蘆長面		
	高蘭苔面	*高蘭台面	***高村面	*苔>台: 본래 의미(상징 기능)는 버리고 형상의 간략함(지시 기능)을 취함, ***(옛 고란태면+임촌면)
	林村面	**臨村面		**林>臨: 본래 의미는 버리고 형상의 간략함을 취함
			月串面 (옛 통진)	(옛 통진군 월여곶면+보구곶면)
			大串面 (옛 통진)	(옛 통진군 대파면+고리곶면), (옛 통진군 반이촌면 일부 편입)
			陽村面 (옛 통진)	(옛 통진군 양릉면+반이촌면)
			霞城面 (옛 통진)	(옛 통진군 하은면+봉성면), (옛 통진군 질전면 일부 편입)
			陽東面 (옛 양천)	옛 양천군의 동쪽에 위치한 면에서 유래됨
			陽西面 (옛 양천)	옛 양천군의 서쪽에 위치한 면에서 유래됨
통진 (김포)	通津 (11면) 府內面	通津郡 (12면) ***郡內面	(김포군에 편입)	***府>郡
	浦口串面	****甫口串面		****浦 > 甫
	月餘串面	月餘串面	(김포군 월곶면에 편입)	
	*造乙田面	**迭田面		*造乙(지을 조): 훈주음종법(받쳐적기법), **迭(갈마들 질): 음차 표기
	所伊浦面	所伊浦面	(김포군 하성면에 편입)	
	奉城面	奉城面		
		霞隱面		
	陽陵面	陽陵面	(김포군 양촌면에 편입)	
	桑串面	桑串面		
	伴伊村面	伴伊村面		
	大坡面	大坡面	(김포군 대곶면에 편입)	
	古里串面	古里串面		
양천 (김포)	陽川 (5面) 縣內面	陽川郡 (5面) *郡內面	(김포군에 편입)	*縣>郡
	南山面	南山面	(김포군 양동면에 편입)	
	將軍所面	將軍所面		
	三井面	三井面	(김포군 양서면에 편입)	
	加背谷面	*加谷面		*背 탈락
가평	加平 (6面) 郡內面	加平郡 (8面) 郡內面	**加平郡 (6面) 郡內面	**면 명칭 및 경계 변동이 거의 없음 (인구 이동 및 변화가 제한된 산간 지역 ?)
	西面	*內西面		*기존 조선 전기의 방위면이 성장하여 분화한 사례
		外西面	外西面	
	北面	上北面	北面	
		下北面		
	南面	南面	南面	
	朝宗上面	*上面	上面	*朝宗 탈락
	朝宗下面	*下面	下面	*朝宗 탈락

시기 / 군현	호구 (1789) (京畿 38官) (漢城府 제외) 총 484개 면	구한 (1912) (京畿道 2府 36官) 총 488개 면	신구 (1917) (京畿道 2府 20郡) 총 248개 면	비고
양근 (양평)	楊根 (10面) 邑內面	*楊平郡 (19面) 邑內面	楊平郡 (12面) **葛山面	*(옛 **양**근군+지**평**군)(1908년), **산 지명(갈산, 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서 유래함
	東終面	東終面		
	古邑面	古邑面	古邑面	
	西始面	西始面	*楊西面	*통합 면이 군의 서쪽에 위치하여 명명함, 양평군의 전부 지명소 일부[楊]를 활용하여 명명함
	西中面	西中面		
	西終面	西終面	西終面	
	南始面	南始面	*江上面	*남한강의 상류에 위치하여 명명됨
	南中面	南中面	*江下面	*남한강의 하류에 위치하여 명명됨
	南終面	南終面	(광주군 남종면에 편입)	
	北面	北上道面	*雪岳面	*동리 지명(雪谷里)에서 유래됨 ?
		北下道面		
지평 (양평)	砥平 (7面) 縣內面	*楊平郡 **郡內面 ?	***砥堤面 (砥平里)	*(옛 **양**근군+지**평**군)(1908년), **縣>郡, ***옛 지평군의 전부지명소 일부[砥]를 활용하여 명명함
	南面	南面		
	下東面	下東面		
	*上西面	上西面	**龍門面	*기존 조선 전기의 방위면이 성장하여 분화한 사례 **산 지명(용문산, 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에서 유래됨
	下西面	下西面		
	北面	下北面	*丹月面	*산 지명(단월산, 현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에서 유래됨, 면 통폐합이 아닌 기존 지명 개명 사례
		上北面	*靑雲面	*(옛 하북면 일부 편입), 청운팔경(靑雲八景)에서 유래[『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네이버 지식백과], 면 통폐합이 아닌 기존 지명 개명 사례
	上東面	上東面	*楊東面	*면이 군의 동쪽에 위치하여 명명함, 면 통폐합이 아닌 기존 지명 개명 사례
여주	驪州 (14面) 州內面	驪州郡 (16面) 州內面	驪州郡 (10面)	*(옛 수계면 일부 편입)
	近東面	近東面	*州內面	
	占梁面	占梁面	*占東面	*(옛 **점**량면+근**동**면)
	近南面	近南面	**加南面	**(옛 **가**서면+근**남**면)
	召開谷面	*召開面		*谷 탈락: 자연촌이 성장하여 면으로 승격된 후 자연촌임을 나타내는 谷(곡)자를 제거함
	加西谷面	*加西面		
	首界面	首界面	*陵西面	*왕릉(세종 영릉, 효종 영릉)의 서쪽에 위치하여 명명함, *(옛 길천면 일부 편입)
	吉川面	吉川面	*興川面	*(옛 **흥**곡면+길**천**면)
	興曲面	興谷面		
	金沙面	金沙面	金沙面	
	介軍山面	介軍山面	*介軍面	*산 지명에서 유래한 면 지명의 오래된 사례, *山(산) 탈락

시기 / 군현	호구 (1789) (京畿 38官) (漢城府 제외) 총 484개 면	구한 (1912) (京畿道 2府 36官) 총 488개 면	신구 (1917) (京畿道 2府 20郡) 총 248개 면	비고
	大松面	大松面	*大神面	*(옛 **대**송면+등**신**면)
	等神面	等神面		
	北面	北面	*北內面	*(옛 **북**면+지**내**면)
		池內面 (옛 원춘도 원주)		
		康川面 (옛 원춘도 원주)	*康川面 (康川里)	*유력한 큰 동리 지명(강천리)에서 유래함 ?
포천	抱川 (10面) 縣內面	抱川郡 (12面) *郡內面	抱川郡 (12面)	*縣>郡
	淸凉面	**淸涼面	郡內面	**凉>涼
	加山面	加山面	*加山面	*(옛 청량면 일부 편입)
	西面	西面	西面	
	*內所屹山面	**內所面	***蘇屹面	*1789년 당시 면 지명을 산 이름을 활용해 명명한 주요 사례, **屹山 탈락, ***산 지명(소흘산, 현 포천시 소흘읍 ?)에서 유래됨 ?
	外所屹山面	**外所面		
	*東村面	東村面	***內村面	*조선 전기의 방위촌 및 자연촌이 성장하여 면으로 승격한 사례, ***(옛 **내**동면+동**촌**면)
	*內洞面	內洞面		
	內北面	內北面	*新北面	*새로운 북면, (옛 내**북**면+외**북**면)
	外北面	外北面		
		山內面 (옛 양주)	*靑山面	*(옛 **청**송면+**산**내면)
		靑松面 (옛 양주)		
			永中面 (옛 영평) (永平里)	옛 영평군의 중심지(읍내면, 군내면)에서 유래됨 옛 군 지명의 전부 지명소 일부[永]를 남김 (현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연서면, 연기면 등과 유사)
			蒼水面 (옛 영평)	하천 이름(창수, 현 포천시 창수면 영평천의 옛 이름 ?)에서 유래됨 ?
			永北面 (옛 영평)	옛 군 지명의 전부 지명소 일부[永]를 남김
			一東面 (옛 영평)	포천군청에서 보았을 때 북동쪽에 위치하나 대략 방향이 유사하여 옛 영평군의 방위 면지명(이동면, 일동면)을 그대로 유지시킴
			二東面 (옛 영평)	
영평 (포천)	永平 (6面) 縣內面	永平郡 (8面) *邑內面	(포천군에 편입)	*縣>邑 · 郡
		*郡內面	(포천군 영중면에 편입)	
	下里面	下里面	(포천군 창수면에 편입)	
	西南面	*西面		*하나의 방위면을 두 개의 방위면으로 분리한 사례
		*南面		
	一東面	一東面	(포천군 일동면에 편입)	
	二東面	二東面	(포천군 이동면에 편입)	
	北面	北面	(포천군 영북면에 편입)	
연천	漣川 (5面) 縣內面	漣川郡 (6面) *郡內面	漣川郡 (13面) 郡內面	*縣>郡

시기 / 군현	호구 (1789) (京畿 38官) (漢城府 제외) 총 484개 면	구한 (1912) (京畿道 2府 36官) 총 488개 면	신구 (1917) (京畿道 2府 20郡) 총 248개 면	비고
	東面	東面		
	西面	西面		
	南面	南面	*郡南面	*새 통합군의 남쪽에 위치한 면, (옛 마전군 화진면 편입)
	北面	北面	*中面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신설 통합군의 중심 부근이 됨
		官仁面 (옛 강원도 철원)	官仁面	
			北面 (옛 삭녕)	
			西南面 (옛 삭녕)	(옛 삭녕군 **서**면+**남**면)
			東面 (옛 삭녕)	
			南面 (옛 적성)	
			積城面 (옛 적성)	옛 군 지명의 전부 지명소(적성)를 활용해 명명함, (옛 마전군 군내면, 장단군 고남면 일부 편입)
			嶋山面 (옛 마전)	산 지명(미산, 아미산, 峨嶋里, 연천군 미산면 ?)에서 유래됨 ?
			旺澄面 (옛 마전)	(옛 마전군 강신면 고**왕**리+북면 **징**파리) ?, (옛 연천군 서면 일부 편입)
			百鶴面 (옛 마전)	(옛 마전군 장신면 **백**령리+하신면 **학**곡리)
			嶺斤面 (옛 양주)	
적성 (연천)	積城 (5面) 縣內面	積城郡 (3面) 東面	(연천군에 편입)	
	東面		(연천군 적성면에 편입)	
	*邑內里			*面으로 성장해 가는 里 ?
	西面	西面		
	南面	南面	(연천군 남면에 편입)	
	北面	(마전군 하신면으로 기록)		
마전 (연천)	麻田 (5面) 郡內面	麻田 (8面) 郡內面	(연천군에 편입)	
			(연천군 미산면에 편입)	
	西面	西面		
	東面	東面		
	北面	北面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	
	禾津面	禾津面	(연천군 군남면에 편입)	
		河新面 (옛 적성 북면)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	
		長新面 (옛 장단 장동면)		
		江新面 (옛 장단 강동면)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	
삭녕 (연천)	朔寧 (7面) 邑內面	朔寧郡 (7面) *郡內面	(연천군에 편입) (연천군 북면에 편입)	*邑>郡
	西面	西面	(연천군 서남면에 편입)	
	南面	南面		
	東面	東面	(연천군 동면에 편입)	

시기 / 군현	호구 (1789) (京畿 38官) (漢城府 제외) 총 484개 면	구한 (1912) (京畿道 2府 36官) 총 488개 면	신구 (1917) (京畿道 2府 20郡) 총 248개 면	비고
	寅目面	寅目面		
	乃文面	乃文面		
	馬場面	馬場面		
개성	開城府 (4部 7面) *東部	開城郡 (14面) **東部面	開城郡 (16面) ***松都面	*部(도성 내)와 面(도성 밖)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사례(한성부의 경우 部로만 구성되고 하위에 坊과 契가 설치됨), **部를 面으로 개편하고 후부 지명소를 面으로 통일시킴, ***고지명(송도)을 활용하여 명명함
	南部	南部面		
	西部	西部面		
	北部	北部面		
	東面	東面	東面	
	靑郊面	靑郊面	靑郊面	
	南面	*上南面	**南面	*기존 조선 전기의 방위면이 성장하여 분화한 사례, **(옛 상**남**면+하**남**면)
		下南面		
	西面	西面	*西面	*(옛 중서면 일부 편입)
	中西面	中西面	*中西面	*(옛 서부면 일부 편입)
	北西面	北西面	北面	
	北東面	嶺南面	*嶺南面	*(옛 동부면 일부 편입)
		嶺北面	嶺北面	
		江南面	북면	
			光德面 (옛 풍덕)	유력한 동리 지명(광덕리)에서 유래됨
			大聖面 (옛 풍덕)	유력한 동리 지명(대성리)에서 유래됨, (옛 풍덕군 중면 일부 편입)
			上道面 (옛 풍덕)	유력한 동리 지명(상도리)에서 유래됨, (옛 풍덕군 군중면 일부 편입)
			興敎面 (옛 풍덕)	유력한 동리 지명(흥교리)에서 유래됨, (옛 풍덕군 군남면 일부 편입)
			臨漢面 (옛 풍덕)	하천 지명(**임**진강+**한**강)에서 유래됨 ?
			進鳳面 (옛 풍덕)	산 지명(진봉산 ?)에서 유래됨 ?
			中面 (옛 풍덕)	
풍덕 (개성)	豊德 (8面) *郡中面	豊德郡 (8面) 郡中面	(개성군에 편입)	*다른 군은 군내면이 일반적인 형태임
	西面	西面	(개성군 광덕면에 편입)	
	郡南面	郡南面	(개성군 대성면에 편입)	
	德中面	中面	(개성군 중면, 대성면에 편입)	
	郡北面	郡北面	(개성군 상도면에 편입)	
	德北面	北面	(개성군 진봉면에 편입)	
	德南面	南面	(개성군 임한면에 편입)	
	東面	東面	(개성군 흥교면에 편입)	
장단	長湍 (21面) 邑內面	長湍郡 (20面) *津縣內面	長湍郡 (10面) ***郡內面	*군내에서 津 표기자를 중요하게 인식한 용례, ***津縣>郡

시기 / 군현	호구 (1789) (京畿 38官) (漢城府 제외) 총 484개 면	구한 (1912) (京畿道 2府 36官) 총 488개 면	신구 (1917) (京畿道 2府 20郡) 총 248개 면	비고
	津縣內面		(邑內里)	
	津北面	**津北里		**里: 面의 誤字 ?, 面으로 성장해 가는 자연촌
	津東面	津東面	*津東面	*(옛 장서면 일부 편입)
	上道面	上道面	*津南面	*기존의 진북면 · 진동면의 전부 지명소 일부[津]를 활용하여 명명함 (임진강 일대의 渡津 기능 강조)
	下道面	下道面		
	中西面	中西面		
	松南面	松南面	*津西面	*기존의 진북면 · 진동면의 전부 지명소 일부[津]를 활용하여 명명함
	松西面	松西面		
	西道面	西道面	*長道面	*(옛 **장**북면+동**도**면+서**도**면)
	東道面	東道面		
	長北面	長北面		
	大位面	大位面	*大江面	*(옛 **대**위면+**강**남면)
	江南面	江南面		
	江西面	江西面	*江上面	*임진강 부근 면 영역 강조
	江北面	江北面		
	*長西面	長西面	**長南面	*군 지명의 전부 지명소[長]를 활용하여 명명, **(옛 **장**서면+**장**현내면+고**남**면)
	長縣內面	長縣內面		
	古南面	古南面		
	江東面	(마전군 강신면으로 기록)		
	長東面	(마전군 장신면으로 기록)		
		小南面	小南面	
		大南面	大南面	

주1: 항목 내의 물음표(?)와 윗별표(*)는 추정 자료를 뜻함.
주2: 항목 내의 별표(*, **, ***)는 각 용어의 간략한 주석을 표시한 것임.
주3: '비고'란의 'a 〉 b'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지명 표기가 a에서 b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며, 행정구역 관련 내용은 괄호 안에 배치함.

수원권역
행정구역 변천 과정

수원권역 행정구역 변천 과정

고영창(기전역사문화서포터즈 사무국장)

1. 머리말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통치의 강화와 한민족 역사와 전통의 말살을 위해 강점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지방행정구역에 대한 변화를 꾀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시대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종전의 지역은 행정 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그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원권역의 경우 지역의 행정구역 변천의 과정에는 수원이라는 도시의 성장과정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제강점기(1910년대) 전후를 기준으로 지금의 팔달산 아래로 읍치를 이전하기 전과 그 직후에 작성된 읍지를 통해 당시의 행정구역을 알아보고, 대한제국 말엽과 이후 일제에 의해 단행된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 과정과 내용도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해방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행정구역과 지명의 변천과정도 아울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호구총수』(1789) 이전에 작성된 『수원부읍지』, 『호구총수』 그리고 신 읍치로 이전한 직후 작성된 『수원부읍지』 순으로 세 자료의 내용을 정리·비교한 후, 『화성지』(1831)와 『수원군읍지』(1906) 내용도 함께 비교·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와 1930년대 단행된 행정구역 통·폐합의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해방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 까지 수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행정구역과 지명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2. 도표로 보는 수원권역의 행정구역 변천

1) 구읍치 시절 『수원부읍지』

수원부내를 제외하고 수원부에는 46개 면(面)이 속해 있었다. 46개 면(面)은 다음과 같다.

가사곶면	감암면	갓등면	고등촌면	공석면	공이향면
광교면	광덕면	금물촌면	남곡면	동면	동북면
마정면	모전면	모지면	북방면	사정면	산성면
삼미곡면	삼봉면	서북면	수류면	숙성면	안녕면
압장면	양간면	어탄면	오정면	오타면	용복면
장족면	쟁홀면	정림면	정송면	종덕면	청룡면
청호면	초장면	초평면	태촌면	토법면	팔라곶면
팔탄면	포내면	호매절어량천면	화방면		

2) 『호구총수』

『호구총수』(1789)에 기록된 수원부내(水原府內)를 제외한 50개 면(面)은 다음과 같다.

가사곶면	감암면	갓등면	고등촌면	공석면	공이향면	광교면	광덕면
금물촌면	남곡면	동면	동북면	마정면	모전면	모지면	북방면
사정면	산성면	삼미면	삼봉면	서북면	송동면	숙성면	안녕면
시봉면	일용면	압장면	양간면	어탄면	오정면	오타면	용복면
장족면	쟁홀면	정림면	정송면	종덕면	청룡면	청호면	초장면
초평면	태촌면	토법면	팔라곶면	팔탄면	포내면	호매절면	화방면
문수당면	수류면						

앞선 두 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수원부읍지』에 '호매절어량천리면(好每折於良川里面)'이, 『호구총수』에는 '호매절면(好每折面)'이라는 지명으로 나오는데, '호매절면(好每折面)' 소속 마을 중 하나가 '어량천리(於良川里)'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호매절어량천리면(好每折於良川里面)'이 '호매절면(好每折面)'으로 바뀌고 동시에 지명 또한 간략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읍지에 '삼미곡면(三旀谷面)'으로 나오는 지명이 『호구총수』에 나오는 '삼미면(三美面)'이 아닐까 한다. 이 두 지명은 이후에 간행된 읍지에 '삼미면'으로 기록되어 있다가

이후 1831년 간행된 『화성지』에는 같이 사라지고 없다. 그밖에 '송동면'과 '시봉면', '일용면'과 '문수당면'이 새롭게 등장한다.

3) 신읍치 이전(移轉) 후 『수원부읍지』

수원부내(남리·북리)							
가사면	갈담면	고등촌면	공이향면	광교면	광덕면	금물촌면	나곶면
남곡면	남면	동북면	마정면	모전면	문수당면	산성면	삼미면
삼봉면	상홀면	서북면	송동면	수북면	숙성면	시봉면	안녕면
압정면	양간면	어탄면	오정면	오타면	장족면	쟁홀면	정림면
정송면	종덕면	청룡면	청호면	초장면	초평면	태촌면	토법면
팔라곶면	팔탄면	포내면	호매절어량천면	화방면			

『호구총수』의 내용과 이전 후에 작성된 『수원부읍지』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몇 개의 면들이 통합이 되어 새로운 지명이 생겨나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지명의 마을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자료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던 '나곶면(羅串面)'이 읍지에 새로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어디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둘째, '수류면(水流面)'과 '북방면(北方面)'이 '수북면(水北面)'으로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수류면'에는 구정리(九井里), 보신동리(保新洞里),노리동리(魯里洞里)가 소속되어 있었고 '북방면'에는 육백리(陸栢里)와 갈천리(葛川里)가 소속되어 있었다. 반면 ' 수북면' 소속의 마을 중 '육백리(六栢里)'가 있다. 물론 육백리의 '육'자가 '陸'에서 '六'으로 바뀌어 있지만 이 둘은 서로 같은 마을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두 마을의 규모(수류면 3개, 북방면 2개 리) 또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두 마을이 통합된 것이 아닐까 한다.

셋째, '사정면(奢井面)'에는 '거물리(去勿里)'와 '운정리(雲井里)' 두 개의 마을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새로 생긴 '우정면(雨井面)'으로 통합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 '우정면'에 소속되어 있는 24개 동·리(洞·里) 중 '거물리(巨物里)'와 '운정리(雲井里)'가 속해있기 때문이다. '거물(去勿)'이 '거물(巨物)'로 바뀌어 기록된 사실도 아울러 확인이 되었다.

넷째, '창촌리(倉村里)'와 '서천리(鋤川里)' 2개 마을을 가지고 있던 '쟁홀면(爭忽面)'은 '상홀면(床忽面)'으로 개명과 함께 흡수되고, '창촌리'는 '창동(倉洞)'으로 바뀌었다.

다섯째, 『호구총수』에 나오는 '갓등면(舁等面)'에는 '세동리(細洞里)'와 '마을리(馬乙里)'가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후 간행된 읍지에는 '갓등면' 지명이 아예 사라지고 없는 대신 새로 생긴 '갈담면(葛潭面)'에 소속된 마을 중에 '세동(細洞)'과 '마하리(麻霞里)'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세동리'는 '세동'으로, '마을리'는 '마하리'로 바뀌어 소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가사곶면(佳士串面)'은 '가사면(佳士面)'으로 흡수, 통합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가사곶면' 소속 마을인 '두마리(頭馬里)'와 '계두리(鷄頭里) 그리고 '삼도리(三島里)'는 각각 '가사면(佳士面)'의 '두마리'와 '계두리' 그리고 '삼도'로 소속이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

일곱째, '감암면(甘巖面)'은 '현암면(玄巖面)'으로 흡수·통합이 된 듯 하다. '감암면' 소속의 '화양리(華陽里)'가 '현암면' 소속의 '화양동(華陽洞)'으로 나타나고, '감암면'이라는 지명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장족면(長足面)'과 '토법면(土法面)'이 각각 '장주면(장주면)'과 '토진면(토진면)'으로 바뀐다. '장족면'에는 두 개의 마을이 속하였는데, '매탄리(梅呑里)'와 '권선리(權善里)'로 표기가 되어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은 '매탄리'의 '탄(呑)'과 '권선리'의 '권(權)에 대한 해석인데, 분명 『호구총수』에 기록된 한자를 보면 '탄(呑)'과 '권(權)'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화성지』에 기록된 '매곡(梅谷)'은 '매탄(梅呑)'을 오기(誤記)한 것이 아닐까 한다. 1906년(광무10) 지방행정구역 개편 당시 장주면 관할 동리에 매탄(梅灘)인 있는 것으로 미루어 '呑'을 '灘'으로 바꿔 부를 수는 있어도, '곡(谷)'을 '탄(灘)'으로 부르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구총수	읍지	내용
나곶면(羅串面)	삭제	
수류면(水流面)+북방면(北方面)	수북면(水北面)으로	'수류면'의 '육백리(陸栢里)->'수북면' 육백리(六栢里)
사정면(奢井面)	우정면(雨井面)으로 흡수	'사정면'의 '거물리(去勿里)->'우정면'의 거물리(巨物里)
쟁홀면(爭忽面)	상홀면(床忽面)에 흡수	
갓등면(舁等面)	갈담면(葛潭面)으로 흡수	갓등면의 '세동리'->갈담면 '세동' 갓등면의 '마을리'-> 갈담면 '마하리'
가사곶면(佳士串面)	가사면으로 흡수	
감암면	현암면	
장족면	장주면	'권선리'의 '권(權)'-> '勸', '매탄리'의 '탄(呑)'-> '곡(谷)'
토법면	토진면	지명이 변경됨

4) 『화성지』(1831)

『화성지』(1831)에 기록된 수원부내는 다음과 같다.

수원부내	
남부(20)	남창동(南倉洞), 남수동(南水洞), 매향동(梅香洞), 구천동(龜川洞), 산루동(山樓洞)
	교동(校洞), 하유천(下柳川), 상유천(上柳川), 장지촌(張芝村), 향목정(香木亭)
	독산리(禿山里), 하지장포(下芝長浦), 상지장포(上芝長浦), 벌리(泲里), 세동리(細洞里)
	권동(權洞), 천동(川洞), 내동(內洞), 우만리(牛萬里), 신폭(新幅)
북부(14)	보시동(普施洞), 북수동(北水洞), 장안동(長安洞), 군기동(軍器洞), 신풍동(新豊洞)
	관길동(觀吉洞), 역촌(驛村), 용연동(龍淵洞), 지소동(紙所洞), 광교동(光敎洞)
	서둔동촌(西屯東村), 고양동(高揚洞), 화산동(花山洞), 서둔촌(西屯村)

이와 더불어 당시 수원부에 소속된 면(面)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일용면	장주면	형석면	안녕면	용복면	매곡면	태촌면	송동면
삼봉면	문시면	남곡면	갈담면	산성면	어탄면	동북면	청호면
초평면	정림면	상홀면	남면	양간면	종덕면	토진면	수북면
오타면	청룡면	숙성면	오정면	포내면	현암면	광덕면	가사면
공향면	팔탄면	장안면	우정면	초장면	압정면		

앞서 간행된 『수원부읍지』와 『화성지』(1831)에 나오는 수원부 소속의 면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보인다. 첫째, '고등촌면(古等村面)'은 부내(府內) 남부에 '고양동(高陽洞)'으로, '광교면(光敎面)'은 북부에 '광교동(光敎洞)'으로 합해졌다. '고양동(고양동)'은 옛 '고등촌면' 소속에 '고양동리(古陽洞里)' 지명에서 따온 듯한데, '옛 고(古)'가 '높을 고(高)'로 바뀌어, 현재 '고등동(高等洞)'으로 부르게 된 계기가 된듯하다. 둘째, 여러 면들의 통폐합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동·리(洞·里) 지명들이 사라졌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명	내용
공향면(貢鄕面)	○ 공이향면(工以鄕面)에서 개명, '공이(工以)'→'공향(貢鄕)' ○ 옛 서북면이 여기로 합병
남곡면(南谷面)	○ 옛 '정송면(貞松面)'이 여기로 합병
남면(南面)	○ 호구총수에 나오는 '동면(東面)'의 일부(백토동) 이곳으로 이속
문시면(文市面)	○ 옛 '시봉면(市峰面)'과 '삼미면(三美面)'이 이곳으로 합병
삼봉면(三峯面)	○ 옛 '모지면(茅旨面)'이 여기로 합병

마을명	내용
오타면(五朶面)	○ 옛 '금물촌면(今勿村面)'이 여기로 합병
우정면(雨井面)	○ '화방면(禾方面)'과 '팔라곶면(八羅串面)'이 여기로 합병
장안면(長安面)	○ 옛 '마정면(馬井面)'이 여기로 합병
팔탄면(八灘面)	○ 옛 '모전면(茅田面)'이 여기로 합병

5) 1906년(광무 10) 9월24일(칙령 제49호) 지방행정구역 개편

수원군의 팔탄면·초장면·압정면·오정면이 남양군에 편입되고, 오타면은 진위군에, 광덕면 관할의 신흥포와 신성포 그리고 가사면의 삼도오동은 아산군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율북면·승양면·감미면은 양성군에서 수원군으로 편입되어, 이때 수원군은 40개 면(面)과 560동리(洞里)로 개편이 된다. 수원부내(府內)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원부내(水原府內)	
남부면(19)	남창동(南倉洞), 남수동(南水洞), 매향동(梅香洞), 구천동(龜川洞), 산루동(山樓洞)
	교동(校洞), 하유천(下柳川), 상유천(上柳川), 장지동, 향목동, 매산리(梅山里)
	독산리(禿山里), 고등촌(高等村), 지장동(芝長洞), 세동(細洞),평촌(坪村)
	지동(池洞), 우만리(牛萬里), 인계(仁溪)
북부면(16)	보시동(普施洞), 북수동(北水洞), 장안동(長安洞), 군기동(軍器洞), 신풍동(新豊洞)
	관길동(觀吉洞), 영화동(迎華洞), 석산동(石山洞), 지소동(紙所洞), 상광교동(光敎洞)
	하광교동, 동촌(垌村), 고양동(高揚洞), 화산동(花山洞), 둔동(屯洞), 보촌(洑村)

『화성지』(1831)에 기록된 수원부내 남부와 북부 관할 동리(洞里)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
수원부내 남부	남부면	수원부내 북부	북부면
교동(校洞)	남수동	高陽洞(고양동)	上光教洞(상광교동)
구천동(龜川洞)	고등촌(高等村)	觀吉洞(관길동)	觀吉洞(관길동)
권동(權洞)	교동(校洞)	光教洞(광교동)	石山洞(석산동)
남수동(南水洞)	구천동(龜川洞)	軍器洞(군기동)	北水洞(북수동)
남창동(南倉洞)	남수동(南水洞)	普施洞(보시동)	新豊洞(신풍동)
내동(內洞)	남창동(南倉洞)	北水洞(북수동)	普施洞(보시동)
독산리(禿山里)	독산리(禿山里)	西屯東村(서둔동촌)	下光教洞(하광교동)
매향동(梅香洞)	매향동(梅香洞)	新豊洞(신풍동)	垌村(동촌)
벌리(泋里)	산루동(山樓洞)	驛村(역촌)	長安洞(장안동)
산루동(山樓洞)	상광교동	龍淵洞(용연동)	迎華洞(영화동)
상유천(上柳川)	상유천(上柳川)	長安洞(장안동)	軍器洞(군기동)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
상지장포(上芝長浦)	세동	紙所洞(지소동)	紙所洞(지소동)
세동리(細洞里)	우만리(牛萬里)	西屯村(서둔촌)	高陽洞(고양동)
신폭(新幅)	인계	花山洞(화산동)	花山洞(화산동)
우만리(牛萬里)	장지동		屯洞(둔동)
장지촌(長芝村)	지동		洑村(벌촌)
천동(川洞)	평촌		
하유천(下柳川)	하광교동		
하지장포(下芝長浦)	하유천(下柳川)		
향목정(香木亭)	향목정(香木亭)		

『화성지』와 『수원군읍지』(1906)에 기록된 수원군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수원부내 제외)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광무10)	
일용면(7)	大松竹里(대송죽리)	일용면(11))	杜谷里(두곡리)
	彌勒堂(미륵동)		彌勒洞(미륵동)
	逸林里(일림리)		松竹洞(송죽동)
	亭子里(정자리)		新村(신촌)
	棗園里(조원리)		逸林洞(일림동)
	眞木亭(진목정)		亭子洞(정자동)
	芭洞(파동)		釘丁里(정정리)
			棗園洞(조원동)
			眞木洞(진목동)
			芭長洞(파장동)
			花山洞(화산동)
장주면(9)	권선리(勸善里)	장주면(14)	권선리(勸善里)
	산남리(山南里)		신기(新基)
	궁촌(宮村)		산남리(山南里)
			보촌(洑村)
	구역촌(舊驛村)		역촌(驛村)
	원천(遠川)		관촌(官村)
			원천(遠川)
	매곡(梅谷)		나촌(羅村)
			신촌(新村)
	영통(靈通)		음촌(陰村)
	신목동(申木洞)		영통(靈通)
	평촌(坪村)		후곡(後谷)
			매탄(梅灘)
			후촌(後村)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광무10)	
형석면(6)	신기촌 (新基村)	형석면(11)	상율전(上栗田)
	율전 (栗田)		하율전(下栗田)
	천천리(泉川理)		이목동(梨木洞)
	탑현동(塔峴洞)		숙목리(肅杢理)
	방축동(防築洞)		안지동(安支洞)
	이목동(梨木洞)		천천동(泉川洞)
			점촌(店村)
			상구운석(上九雲石)
			하구운석(下九雲石)
			곡촌(谷村)
			탑동(塔洞)
매곡면(15)	화봉리	매곡면(20)	도봉리
	신촌		금곡리
	조산리		조산리
	금곡		자목리
	노리촌리		노루미
	자목리		두마미
	대촌동		호매실
	가산리		가리미
	천천리		천천동
	원평리		서원촌
	송촌리		극곡리
	교기리		원평
	화촌리		천월리
	송촌리		대천리
	기곡		소로지
			영정리
			숙곡리
			화촌
			장생현
			석수동
송동면(7)	晩坪里	송동면(12)	堂谷
	丙室		堂山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광무10)	
	濱汀浦		晩村
	松蘿洞		丙室
	野牧里		濱汀浦
	中村		蘇谷
	玄川		阿山谷
			野牧
			院村
			柳谷
			玄川
			孝垈
안녕면(9)	野礪亭	안녕면(12)	안녕리
	禿至洞		동작현
	培養洞		서작현
	鵲峴洞		송산동
	松山里		점촌
	長芝村		황계동간촌
	하류천		대황교
	곡반정		곡반정
	궁촌		중반정
			하반정
			배양치
용복면(4)	기전리	용복면(6)	기안동
	상송리		와우동
	신촌		고사촌
	고색리		고색리
			중보평
			오목천
태촌면(17)	개라동	태촌면(22)	각곡
	구봉리		개라리
	기산리		구봉동
	내동		기산리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광무10)	
	능동		능동
	당의암		당곡
	독재동		당암
	마성촌		당현
	망포동		독재동
	상소촌		마성리
	송고리		망포
	신대리		반월리
	운정리		병점
	작교		송곡
	장생점		신대리
	진언리		안화동
	하소천		양산리
			우문리
			이천
			일안리
			작교
			진안리
삼봉면(12)	내동	삼봉면(17)	구점촌
	동화촌		동화동
	방축리		반현
	분천리		방축동
	상동		분천동
	수기촌		상동
	수영리		수기동
	신수리		수영동
	신천		신미리
	신촌		신천동
	여래동		신촌
	현천		여래동
			와우동
			입동
			장등
			장아평
			청궁리
문시면(8)	관음동	문시면((19)	각곡
	명학동		검암
	묵암동		남산동
	세교		내삼미
	신촌		노산리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광무10)	
	옹동		능곡
	죽담점		독동
	평촌		배양치
			석곶동
			수청동
			신촌
			외삼미
			월촌
			장등
			죽미
			중세교
			평촌
			하석곶
			하세교
남곡면(19)	갈천	남곡면(35)	갈천동
	괘랑리		계향동
	귀래동		관항동
	단구		괘낭리
	당두		구억돈
	만은동		귀래동
	모산리		남동
	문학동		내발산
	발산리		단구리
	보통천		만은동
	봉황동		모산동
	사근촌		문학동
	신기촌		백동
	신촌		봉황동
	오곡		사근촌
	오일리		상보통천
	와곡		수곡
	판전		수직동
	한적동		신기촌
			신촌
			양지동
			어상동
			여의동
			오곡
			오리동
			오일리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광무10)	
			와곡
			외발산
			장내
			조목동
			탑산동
			판전리
			하본통천
			학촌
			한적동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	
갈담면(9)	당하촌	갈담면(12)	가마리	토진면(10)	건의촌	토진면(14)	강포리
	덕구리		내곡		고좌의		건의동
	마하리		당하동		상토진		고잔리
	봉양촌		덕좌리		신당		고좌리
	세동		독정리		월곡		대곡
	왕림촌		마하리		천계리		삼계동
	유대리		석당리		판교장		어연리
	이덕리		세곡		하토진		원목리
	지도리		양지동		한현		전평
			왕림동		후평		중평
			유촌				토진리
			하가등리				판교동
							한산리
산성면(5)	남리	산성면(6)	남서리				후평
	서리		부동				
	신촌리		서랑동	수북면(10)	도염리	수북면(9)	가천
	양산리		세교리		벽동		도염동
	지곶리		양산동		상가내		동언
			지곶동		암증리		백봉
					어연리		벽동
어탄면(10)	장지촌	어탄면(12)	금곡		육백리		어연리
	기곡		기곡		평촌리		평촌
	산척동		내곡		하가내		한산리
	이곡		독곡		한산리		황곡
	송촌		방교		항동		
	평촌		산척동				
	신암리		송촌	오타면(9)	건곤리	오타면	진위군으로
	방교		신암		동고리방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	
					축리		
	암산		위포		신리		
	금곡		이곡		오영리		
			장지천		울성리		
			평촌		정자리		
					효학리		
	골마동		고매곡		흑동리		
	괴목정		곡청계				
	궁평		구오산		강길리		가사리
	내곡리		내곡		개사리		강길리
	내촌		내촌		덕우리		덕좌리
	농촌리		능동		동산리		설창
	만의동		당현		벌대리		수촌
	목족동		목족동	청룡면(12)	수촌	청룡면(8)	신기
	묵실리		묵실		신룡리		옥길리
	반송리		반송리		옥길리		후사동
	선납현		상촌		조동		
	소랑리		서촌		죽동		
	송내촌		석산동		창촌		
	영평야		석우동		후사동		
동북면(22)	오산리	동북면(28)	선납현				
	중촌리		성죽동		구평		대겸당리
	지사정		소랑곡		동언리		대조두리
	직동리		신기촌		양교동		대죽동
	진구리		신산강		어호동		성적동
	청계동		신촌		조두리		소겸당리
	초목동		영천평		좌구리		소조두리
	화약리		이곡		죽동		소죽동
			중촌	숙성면(7)		숙성면(15)	숙성리
			직동				신기
			태동				양교동
			평청계				여수동
			하촌				월량촌
			화견동				장자동
							점촌
	갈곶리		가량곡				주교동
	기문동		갈곶				
	당리		대청호		길산동		관두리
청호면(7)	부산동	청호면(8)	부산	오정면(14)	누촌	오정면(17)	금곡
	수덕동		상오산		미촌		길음리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	
	원통리		역촌		사룡촌		대반촌
	천면동		원동		삼정리		대삼정리
			하오산		소반동		미촌
					안중촌		소반촌
	궁기리		가수동		양성촌		신촌
	내창동		가장동		율리		안중리
	누읍리		궁대		율산동		외삼정리
	대화촌		궐리사		임촌		용촌
	마유동		누읍리		탑리		율리
	모전촌		동촌		학현리		임촌
	서촌		두곡		황금리		중삼정리
초평면(14)	수철리	초평면(14)	벌음리				탑현
	신촌리		서촌				학현
	어은굴리		석우리				황금리
	어인포		위포				
	여대리		죽전		감탕리		감양리
	용난리		청학동		거산리		거산리
	타종리		탑동		곡교리		고장동
					당두리		구억촌
	고지동		고지동		둔내리		내기
	내촌		금복동		무유리		도곡
	덕촌		내촌		운정동		만포
	망우리		덕랑리				목장리
	물면리		망월리				무수리
	비정리		수면리				서정리
정림면(11)	사근동	정림면(13)	양촌				성외리
	신기		용수동	포내면(7)		포내면(23)	야동
	용수동		음촌				양지촌
	일복리		제기				어은리
	제지촌		창촌				용소동
			토근동				운정리
			황기				이평
							진목리
	동지동		갈전리				피우치
	창동		길묵리				학현
	질목동		도염리				한리
상홀면(6)	갈전	상홀면(13)	사창리				해조원
	서천리		상죽동				현석리
	송산리		송산리				
			오가리	현암면(5)	당상리	현암면(19)	가장동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	
			월촌리		도대리		당현
			정내리		문곡리		도대
			청등리		천곡리		문곡
			포당리		화양동		방축동
			하죽동				보시동
			후곡리				서두호
							송내
	갈천동		갈천리				송담
	내동리		관동				신기동
	두모리		길성리				신령리
	백토동		내동				양산
	삼미성		동오리				언성리
	상두리		두모동				용동
	서송리		백토동				인광리
남면(12)	오실리	남면(16)	상두리				전동
	요동리		상수직리				천곡
	중거리		송곡동				한촌
	하두리		양석동				화양동
	화리현		요동				
			중거동		신암동		구진리
			하두리		대외동		냉정리
			하수직리	광덕면(8)	구둔동		대박리
			화리현		소외동	광덕면(8)	소박리
					덕목리		신왕리
	가오실리		개월리		죽현리		언곡
	기동		고려리		냉정리		와촌
	독조리		대만촌		신성리		이촌
	만어언리		대촌동				
	만촌리		동신왕리		계두리		고잔리
	사양리		서신왕리		권관리		권관리
양간면(11)	석천리	양간면(15)	석천리		기곡리		기곡
	신왕동		소만촌		동성포		기산리
	요당리		송내동		두마리		두메리
	용소리		안산동	가사면(12)	맥산리	가사면(10)	모산리
	포곡리		요당리		맥언리		문곡
			용치동		밀두리		수산리
			족가동		삼도		안중리
			창촌		수산동		천곡
			후곡		신둔촌		
					안중리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	
종덕면(9)	가내리	종덕면(8)	가산리	공향면(16)	각곡리	공향면(20)	갈곡
	개야산		계루지리		갈곡리		고단동
	구력리		당현리		고주동		덕고리
	당본리		두현리		고죽동		도리동
	동청리		막금리		공장촌		두곡
	두응리		문곡리		덕구리		매안동
	막금리		신기리		도리동		방축동
	조곡리		황조곡리		매산리		복촌
	지곶리				방축리		분촌
					보촌리		삼일암
					정촌		상평촌
					중촌리		상행정
					창촌		서근촌
					한절리		월문리
					한천동		장기
					화당촌		제암동
							창촌
							하평촌
							하행정
							화당촌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광무10)
팔탄면(9)	낭리	남양군에 편입
	동막	
	동촌	
	사천리	
	서촌	
	언창리	
	장지촌	
	전태리	
	진월리	

장안면(16)	가장촌	남양군에 편입
	감촌리	
	거묵동	
	거산리	
	대유정리	
	독정리	
	방축동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광무10)
	석포리	
	신촌리	
	아강동	
	양촌리	
	원당리	
	이물촌	
	장내리	
	장작원	
	화전리	
우정면(24)	거물리	남양군으로 편입
	계양리	
	고잔리	
	굴원리	
	내운정리	
	달무리	
	만진리	
	멱동	
	반곡리	
	방축리	
	배행리	
	봉화곡	
	소곶리	
	안두촌	
	여소곡	
	운정리	
	원안리	
	원종리	
	창촌	
	파소리	
	평전리	
	한각리	
	한정리	
	호곡리	
초장면(9)	노정동	남양군에 편입
	구천리	
	덕다곶리	
	독지동	
	사랑리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광무10)
	신언리	
	어은동	
	진목리	
	흥천리	
압정면(20)	가내동	남양군에 편입
	고기리	
	고온포	
	농촌	
	당곡리	
	덕목리	
	마산동	
	만곶리	
	맹곶리	
	서재동	
	습촌	
	시여촌	
	야미리	
	양촌리	
	일원리	
	장포리	
	조암리	
	주곡리	
	중강리	
	한촌	

	율북면(7) 양성군에서 편입	황구지
		동청리
		항곡
		중리
		불정리
		진목리
		상가천

	감미면(10) 양성군에서 편입	개올
		고란평
		고염동
		구창
		대양
		발오곡

화성지(1831)	수원군읍지(1906,광무10)	
		사량
		송산
		옹포
		하두
	승양면(12) 양성군에서 편입	가장동
		곡교
		국리
		당두리
		미촌
		반호
		방림동
		신영리
		원정리
		원택리
		전촌
		희곡
	서신리면(6)	광승리
		구몰창
		석우리
		어소리
		한산리
		현곡

6) 일제강점기

(1) 1910~1930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탈한 직후인 1910년 10월1일 조선총독부령 제6호를 공포하여 겉으로는 종래의 13도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당시 수원군의 행정구역은 현재의 수원시와 안산시 일부 및 남양반도를 제외한 화성시 전역 그리고 평택시와 송탄시를 제외한 평택통합시 전역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구역을 관할하고 있었다. 하지만 1914년 3월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를 공포하고 각 도의 위치 및 관할구역 그리고 부·군의 명칭, 위치, 구역에 대해 개편을 단행한다. 이는 1910년의 개편이 형식적인 법제적 정비였다면 1914년의 개편은 실제적이고 매우 광범위 하게 이루어졌다. 통폐합의 이유로 행정구역의 지리

적 불균형과 세(稅) 부담의 불균등, 그리고 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동질성을 가지고 있던 기존의 자연마을들이 전혀 새로운 동리(洞里)에 소속되는 매우 이질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면(面)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경기도에 소속된 부(2)와 군(20)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부(2)	경성부
		인천부
	군(20)	고양군
		부천군
		시흥군
		수원군
		진위군
		안성군
		용인군
		이천군
		김포군
		강화군
		파주군
		개성군
		포천군
		연천군
		광주군
		양평군
		양주군
		가평군
		여주군
		장단군

아울러 수원군 관할 구역에 대하여 개편이 이루어져, 수원군의 종덕면, 율북면, 서신리면, 청룡면, 숙성면, 오정면, 언북면, 포내면, 현암면, 안외면, 승량면, 가사면, 광덕면은 진위군으로 편입하게 되고, 남양군(영흥면과 대부면 제외)과 광주군의 의곡면과 왕륜면이 수원군으로 편입하게 된다. 그리고 안산군의 월곡면 · 북방면 · 성곶면도 수원군으로 편입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원군(31)	남부면
	북부면
	일용면
	형석면
	송동면
	매곡면
	삼봉면
	용복면
	안녕면

	산성면
	문시면
	남곡면
	갈담면
	공향면
	장주면
	태촌면
	동북면
	어탄면
	청호면
	초평면
	정림면
	남면
	상홀면
	양간면
	감미면
	남양군(영흥면과 대부면은 제외)
	광주군 의곡면
	왕륜면
	안산군 월곡면
	북방면
	성곶면

곧이어 한 달 후인 1914년 4월1일에는 경기도 소재 면의 명칭과 구역에 대한 통폐합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군도 대폭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져 각 동리(洞里)의 명칭도 리(里)로 일원화되었고, 소속 면도 21개 면(面)으로 통폐합되었다. 통폐합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소속 면	소속 리	통폐합 내용
수원면 (6리) (남부면+북부면)	남창리(南倉里)	수원군 남부면 남창동
	남수리(南水里)	수원군 남부면 남수동 + 매향동
	산루리(山樓里)	수원군 남부면 교동+산루동 일부+구산동(龜山洞) 일부
	매산리(梅山里)	수원군 남부면 매산리
	북수리(北水里)	수원군북부면 북수동+보시동
	신풍리(新豊里)	수원군 북부면 군기동+신풍동+장안동
일형면 (16리) (일용면+형석면+남부면+북부면 일부)	고등리(高等里)	수원군 남부면 고등촌
	서둔리(西屯里)	수원군 남부면 매산리 일부+북부면 서둔촌
	지소리(紙所里)	수원군 북부면 지소동 일부
	동리(東里)	수원군 북부면 화산동+동촌+고양동
	영화리(迎華里)	수원군 북부면 관길동+영화동
	상광교리(上光敎里)	수원시 북부면 상광교동
	하광교리(下光敎里)	수원시 북부면 하광교동
	조원리(棗園里)	수원군 북부면 석산동+지소동+일용면 조원동

소속 면	소속 리	통폐합 내용
	파장리(芭長里)	수원군 일용면 미륵동+일림동+파장동
	정자리(亭子里)	수원군 일용면 진목동+화산동+정자동
	송죽리(松竹里)	수원군 일용면 송죽동
	이목리(梨木里)	수원군 형석면 이목동
	율전리(栗田里)	수원군 형석면 율전동
	천천리(泉川里)	수원군 형석면 천천동
	탑리(塔里)	수원군 형석면 탑동
	구운리(九雲里)	수원군 형석면 상구운석+하구운석
태장면 (13리) (태촌면+장주면+ 남부면 일부)	지리(池里)	수원군 남부면 지동+구천동 일부
	인계리(仁溪里)	수원군 남부면 인계+우만리 일부+구천동 일부
	권선리(勸善里)	수원군 장주면 권선리
	신리(莘里)	수원군 장주면 신촌(莘村)
	영통리(靈通里)	수원군 장주면 영통
	원천리(遠川里)	수원군 장주면 원천
	매탄리(梅灘里)	수원군 장주면 매탄+산남리
	망포리(網浦里)	수원군 태촌면 망포리+우문리
	반월리(半月里)	수원군 태촌면 당곡+반월리+작교
	능리(陵里)	수원군 태촌면 개라리+양산리+신대리+당현+송릉동
	병점리(餠店里)	수원군 태촌면 곡구봉동+안화동
	진안리(陳雁里)	수원군 태촌면 진안리
	기산리(機山里)	수원군 태촌면 기산리+능동 일부
안용면 (13리) (안녕면+용복면+ 남부면 일부+문시면)	평리(坪里)	수원군 남부면 평촌+중보리+지장동
	세리(細里)	수원군 남부면 상유천+세동+산루동 일부+ 안녕면 독산리
	장지리(長芝里)	수원군 남부면 향목정 +장지동+하유천
	배양리(培養里)	수원군 안녕면 배양동+문시면 일부
	안녕리(安寧里)	수원군 안영면 안녕리+문시면 석곶동
	송산리(宋山里)	수원군 안녕면 동작현+송산동+서작동
	황계리(黃鷄里)	수원군 안녕면 황계동+점촌+통산리?
	대황교리(大皇橋里)	수원군 안녕면 대황교+간촌
	반정리(泮亭里)	수원군 안녕면 중반정+하반정
	곡반정리(谷泮亭里)	수원군 안녕면 곡반정
	고색리(古索里)	수원시 용복면 고색리+중보평+남부면 지장면 일부
	기안리(旗安里)	수원군 용복면 기안동+와우동
	오목천리(梧木川里)	수원군 용복면 오목천+고사촌
매송면 (9리) (매곡면+송동면)	호매실리(好梅實里)	수원군 매곡면 호매실+자목리
	금곡리(金谷里)	수원군 매곡면 도봉리+금곡리+조산리
	숙곡리(肅谷里)	수원군 매곡면 숙곡리+장성현
	어천리(漁川里)	수원군 매곡면 어천리
	원평리(院坪里)	수원군 매곡면 원평
	천천리(泉川里)	수원군 매곡면 천천리
	야목리(野牧里)	수원군 송동면 현천+유곡+야목+빈정포

소속 면	소속 리	통폐합 내용
	원리(院里)	수원군 송동면 소곡+원리+만촌
	송라리(松蘿里)	수원군 송동면 송라동 + 내실
봉담면 (15리) (삼봉면+갈담면)	내리(內里)	수원군 삼봉면 내동
	상리(上里)	수우너군 삼봉면 상동
	수영리(水營里)	수원군 삼봉면 수영동
	분천리(汾川里)	수원군 삼봉면 분천동
	동화리(桐化里)	수원군 삼봉면 동화동+반현
	수기리(水機里)	수원군 삼봉면 수기동+방축동
	와우리(臥牛里)	수원군 삼봉면 와우동
	당하리(堂下里)	수원군 갈담면 당하동+석당리 일부
	유리(柳里)	수원군 갈담면 유촌 +석당리
	덕리(德里)	수원군 갈담면 덕촌+내곡 일부
	하가등리(下加等里)	수원군 갈담면 하가등리
	마하리(馬霞里)	수원군 갈담면 마하리
	왕림리(旺林里)	수원군 갈담면 왕림동
	세곡리(細谷里)	수원군 갈담면 세곡동
	덕우리(德佑里)	수원군 갈담면 덕우리+내곡
향남면 (20리) (공향면+남면+분향리면+감미면+남곡면)	수직리(水直里)	수원군 남면 상수직+하수직+남곡면 수직동
	백토리(白土里)	수원군 남면 백토동 + 두모동
	증거리(增巨里)	수원군 남면 증거동
	갈천리(曷川里)	수원군 남면 갈천
	길성리(吉城里)	수원군 남면 백토동 일부+ 길성리 일부
	송곡리(松谷里)	수원군 남면 송곡 + 길성리
	동오리(東梧里)	수원군 남면 동오리
	관리(官里)	수원군 남면 관리
	요리(料里)	수원군 남면 요동
	화리현리(禾里峴里)	수원군 남면 향리현동
	상두리(上斗里)	수원군 남면 상두리 +하두리+감미면 하두+대양 일부
	행정리(杏亭里)	수원군 공향면 상행정+하행정+분촌
	평리(坪里)	수원군 공향면 상평촌 +하평촌
	발안리(發安里)	수원군 공향면 장기 +북촌
	방축리(防築里)	수원군 공향면 방축동
	도이리(桃李里)	수원군 공향면 도리동
	제암리(隄巖里)	수원군 공향면 제암동
	상신리(上新里)	남양군 분향리면 상동 + 신동
	하길리(下吉里)	남양군 분향리면 하동 + 안길리
	구문천리(求文川里)	남양군 분향리면 구밀동+문언동+석천동
양감면 (10리) (양간면+감미면+상홀면+토진면+율북면)	송산리(宋山里)	수원군 상홀면 송산동+월촌+후곡
	정문리(旌門里)	수원군 상홀면 포당리+도염+정문리
	사창리(社倉里)	수원군 상홀면 상리+하리+사창+오가리
	용소리(龍沼里)	수원군 양간면 용소동+ 고려리+소소동+진위군 율북면 진목리

소속 면	소속 리	통폐합 내용
	신왕리(新旺里)	수원군 양간면 동신왕리 + 서신왕리 +독주동 +창촌
	요당리(寥塘里)	수원군 양간면 요당리+ 대만촌 +소만촌 +석천리
	대양리(大陽里)	수원군 양간면 개월리 + 감미면 개올+사양+송산+대양 일부
	고염리(古念里)	수원군 감미면 고염동+고란평+발오곡
	삼계리(三溪里)	수원군 감미면 웅진리+토진면 삼계리
	고잔리(高棧里)	수원군 토진면 원목리+전평리+중평리+고잔리+대곡리+후평리
음덕면 (15리) (남양군 음덕리면+	남양리(南陽里)	남양군 음덕리면 상동+중동+하동+북동
	북양리(北陽里)	남양군 음덕리면 고서미동+서미동+단미동
	신남리(新南里)	남양군 음덕리면 석문동+산양동+신양동
	신외리(新外里)	남양군 화척지면 외동+중동+내동
	장전리(獐田里)	남양군 화척지면 장전동
	수화리(水花里)	남양군 화척지면 삷하동+수충동+양철리
	문호리(文湖里)	남양군 화척지면 분지동+서호동+문기리
	시리(匙里)	남양군 화척지면 시리동
	송림리(松林里)	남양군 화척지면 송림동
	원천리(遠川里)	남양군 화척지면 원마공+천곡동
	장덕리(長德里)	남양군 둔지곶면 장곶동+덕방동
	안석리(安石里)	남양군 둔지곶면 거석동+안의동
	무송리(茂松里)	남양군 둔지곶면 무송동 +신정동
	활초리(活草里)	남양군 둔지곶면 활초동
	온석리(溫石里)	남양군 둔지곶면 온석동
마도면 (10리) (남양군 마도면+쌍수리면)	송정리(松亭里)	남양군 쌍수리면 송정동
	두곡리(斗谷里)	남양군 쌍수리면 중리동+석교동 일부
	석교리(石橋里)	남양군 쌍수리면 석교동 일부
	쌍송리(雙松里)	남양군 마도면 송치동+쌍봉동
	청원리(靑園里)	남양군 마도면 상원동+청산동
	해문리(海門里)	남양군 마도면 해문동
	백곡리(白谷里)	남양군 마도면 백곡동
	금당리(錦堂里)	남양군 마도면 금당동
	고모리(古毛里)	남양군 마도면 고모동
	슬항리(瑟項里)	남양군 마도면 슬항동
송산면 (14리) (남양군 송산면+수산면+ 세관면)	고포리(古浦里)	남양군 송산면 고잔동+포막동
	중송리(中松里)	남양군 송산면 중송동
	천등리(天燈里)	남양군 송산면 천등동+독지동 일부
	독지리(禿旨里)	남양군 송산면 독지동 일부
	마산리(馬山里)	남양군 송산면 마산동
	지화리(芝花里)	남양군 송산면 화양동+거지동
	삼존리(三尊里)	남양군 수산면 삼존동
	봉가리(鳳歌里)	남양군 수산면 봉가동
	사강리(沙江里)	남양군 수산면 사강동

소속 면	소속 리	통폐합 내용
	육일리(六一里)	남양군 수산면 육교동+북일동
	고정리(古井里)	남양군 세곶면 대각동+원정동+고잔동+우음도
	용포리(龍浦里)	남양군 세곶면 고포동+용수동
	쌍정리(雙井里)	남양군 세곶면 대정동+복정동
	신천리(新天里)	남양군 세곶면 천등동+신동
서신면 (13리) (남양군 서여제면+신리면)	칠곡리(漆谷里)	남양군 서여제면 칠곡동
	전곡리(前谷里)	남양군 서여제면 전곡동
	상안리(尙安里)	남양군 서여제면 상림동+대안리
	광평리(廣坪里)	남양군 서여제면 광평동
	장외리(墻外里)	남양군 서여제면 장외동
	송교리(松橋里)	남양군 서여제면 송교동
	홍법리(弘法里)	남양군 신리면 홍법동
	사곶리(仕串里)	남양군 신리면 사곶동
	용두리(龍頭里)	남양군 신리면 용두동
	궁평리(宮坪里)	남양군 신리면 궁평동 일부
	백미리(百味里)	남양군 신리면 궁평동 일부+백미동
	매화리(梅花里)	남양군 신리면 매화동
	제부리(濟扶里)	남양군 신리면 제부동
비봉면 (9리) (남양군 미지곶면+저팔리 면)	유포리(柳浦里)	남양군 미지곶면 포촌동 + 유지동 일부
	남전리(南田里)	남양군 미지곶면 대전동+신남동+유지동 일부+존의동
	양노리(兩老里)	남양군 미지곶면 건노동+백노동
	쌍학리(雙鶴里)	남양군 미지곶면 동학동+백학동
	구포리(鳩浦里)	남양군 미지곶면 검다동+일묵동+구포동
	삼화리(三花里)	남양군 미지곶면 연화동+이화동+도화동
	자안리(紫安里)	남양군 저팔리면 자양동+신안동
	청요리(靑蓼里)	남양군 저팔리면 청령동+요곡동
	상기리(上箕里)	남양군 저팔리면 상기동
팔탄면 (16리) (팔탄면+공향면+ 저팔리면)	하저리(下楮里)	남양군 팔탄면 안산동+저팔리면 하저동
	기천리(箕川里)	남양군 팔탄면 상사천동+하사천동+저팔리면 하기동
	창곡리(昌谷里)	남양군 팔탄면 독곡동+전대동+언창동
	구장리(舊場里)	남양군 팔탄면 발안동
	가재리(佳才里)	남양군 팔탄면 가재동
	율암리(栗巖里)	남양군 팔탄면 율리동+노상동+입암동
	노하리(路下里)	남양군 팔탄면 노하면
	덕우리(德隅里)	남양군 팔탄면 덕우리
	지월리(芝月里)	남양군 팔탄면 장지동+진월동
	해창리(海倉里)	수원군 공향면 창촌+삼암리
	매곡리(梅谷里)	수원군 공향면 매안동+두곡
	월문리(月門里)	수원군 공향면 갈곡+월문리
	화당리(花塘里)	수원군 공향면 화당촌
	서근리(西斤里)	수원군 공향면 서근촌

소속 면	소속 리	통폐합 내용
	덕우리(德右里)	수원군 공향면 덕우리
	고주리(古洲里)	수원군 공향면 고주리
장안면 (10리) (남양군 장안면+초장면+ 우정면)	석포리(石浦里)	남양군 장안면 1동+2동
	수촌리(水村里)	남양군 장안면 3동
	독정리(篤亭里)	남양군 장안면 4동 + 5동
	장안리(長安里)	남양군 장안면 6동
	덕다리(德多里)	남양군 초장면 1동
	사랑리(沙浪里)	남양군 초장면 2동 + 개원동
	사곡리(沙谷里)	남양군 초장면 3동+율전동
	노진리(蘆眞里)	남양군 초장면 4동 +5동
	어은리(漁隱里)	남양군 초장면 6동
	금의리(錦衣里)	남양군 초장면 7동+진학동+우정면 5동 일부
우정면 (13리) (남양군 우정면+압정면)	멱우리(覓祐里)	남양군 우정면 5동 일부
	화수리(花樹里)	남양군 우정면 6동
	주곡리(珠谷里)	남양군 우정면 7동
	원안리(元安里)	남양군 우정면 8동 일부
	호곡리(虎谷里)	남양군 우정면 2동
	운평리(雲坪里)	남양군 우정면 3동
	한각리(閑角里)	남양군 우정면 4동
	이화리(梨花里)	남양군 압정면 1동 + 2동 +3동 일부
	석천리(石川里)	남양군 압정면 3동 일부 + 4동 +6동
	매향리(梅香里)	남양군 압정면 5동
	화산리(花山里)	남양군 압정면 7동 + 8동 일부
	조암리(朝巖里)	남양군 압정면 8동 일부 + 9동
	국화리(菊花里)	남양군 압정면 국화도
의왕면 (9리) (광주군 의곡면+왕륜면)	학의리(鶴儀里)	광주군 의곡면 학현동 + 의일외동
	포일리(浦一里)	광주군 의곡면 포일동 + 포이동 + 갈산동
	내손리(內蓀里)	광주군 의곡면 손동 + 의일내동+ 갈산동 일부
	청계리(淸溪里)	광주군 의곡면 상청계동 + 하청계동
	오전리(五全里)	광주군 왕륜면 오마동 + 금주동 + 손곡동
	이리(二里)	광주군 왕륜면 창촌+등계촌+교동+가동+막동+신촌+궁촌+신기촌
	왕곡리(旺谷里)	광주군 왕륜면 내왕륜 + 곡사천 + 통산동
	삼리(三里)	광주군 왕륜면 상장의+하장의+귀동
	고천리古川里)	광주군 왕륜면 평사천 + 고정동 + 고고리+ 내곡리
정남면 (19리) (정림면+남곡면+ 문시면)	괘낭리(掛囊里)	수원군 남곡면 괘낭리 + 갈천동 + 문시면 남산동 + 신촌
	보통리(普通里)	수원군 남곡면 상보통리 + 하보통리 + 모산동+ 남동+만은동 일부
	관항리(官項里)	수원군 남곡면 관항동 + 만은동 일부
	오일리(五逸里)	수원시 남곡면 오일리+여의동

소속 면	소속 리	통폐합 내용
	백리(伯里)	수원군 남곡면 백동 +양지동
	귀래리(歸來里)	수원군 남곡면 귀래동
	문학리(文學里)	수원시 남곡면 봉황동+문학동+사근촌+와곡
	계향리(桂香里)	수원군 남곡면 단구리 + 계향동 +한적동
	발산리(鉢山里)	수원군 남곡면 발산리
	신리(新里)	수원군 남곡면 신촌
	내리(內里)	수원군 정림면 내촌 +사근동
	음양리(陰陽里)	수원군 정림면 양촌+음촌
	수면리(水面里)	수원군 정림면 수남리
	고지리(古支里)	수원군 정림면 고지동
	용수리(龍水里)	수원군 정림면 용수동
	금복리(錦福里)	수원군 정림면 금복동
	망월리(望月里)	수원군 정림면 망월리
	제기리(諸岐里)	수원군 정림면 제기
	덕절리(德節里)	수원군 정림면 창촌+덕절리+황기
성호면 (20리) (산성면+청호면+ 문시면+어탄면+ 초평면)	궐리(闕里)	수원군 어탄면 독동+초평면 궐리+죽전+궁대
	가장리(佳長里)	수원군 초평면 가장동
	청학리(靑鶴里)	수원군 초평면 청학동
	서리(西里)	수원군 초평면 서촌
	가수리(佳水里)	수원군 초평면 가수동
	누읍리(樓邑里)	수원군 초평면 누읍리
	벌음리(伐音里)	수원군 초평면 벌음리
	두곡리(斗谷里)	수원군 초평면 두곡
	탑리(塔里)	수원군초평면탑동
	부산리(釜山里)	수원군 청호면 1동
	원리(園里)	수원군 청호면 2동 + 3동 일부
	오산리(烏山里)	수원군 청호면 4동 + 5동
	양산리(陽山里)	수원군 산성면 양한동
	서낭리(西廊里)	수원군 산성면 서낭동
	지곶리(紙串里)	수원군 산성면 남서동 + 지곶동
	세교리(細橋里)	수원군 산성면 세교동 + 문시면 세교동
	외삼미리(外三美里)	수원군 문시면 외삼미
	금암리(錦岩里)	수원군 금암면 검암
	내삼미리(內三美里)	수원군 문시면 내삼미+죽미
	수청리(水淸里)	수원군 문시면 수청동 + 독동
동탄면 (13리) (동북면+어탄면)	중리(中里)	수원군 동북면 야동+중촌+내곡
	목리(睦里)	수원군 동북면 성죽동 + 목동 +능동
	신리(新里)	수원군 동북면 상촌+신촌+직동
	영천리(英川里)	수원군 동북면 고매동+영천동+선납현
	청계리(淸溪里)	수원군 동북면 청계동
	석우리(石隅里)	수원군 동북면 석우동
	반송리(盤松里)	수원군 동북면 반송리
	오산리(梧山里)	수원군 동북면 오산동 + 어탄면 방교 일부
	방교리(防橋里)	수원군 어탄면 이곡+평촌+방교 일부

소속 면	소속 리	통폐합 내용
	송리(松里)	수원군 어탄면 송촌 + 내곡
	금곡리(金谷里)	수원군 어탄면 신암+금곡+원포
	산척리(山尺里)	수원군 어탄면 산척동+기곡
	장지리(長芝里)	수원군 어탄면 장지동
반월면 (16리) (안산군 월곡면+북방면+ 성곶면)	사사리(沙士里)	안산군 월곡면 사사리
	당수리(棠樹里)	안산군 월곡면 오룡동 + 당수리
	초평리(草坪里)	안산군 월곡면 상초평 + 하초평
	월암리(月岩里)	안산군 월곡면 월암동 + 일리동 + 대대동
	입북리(笠北里)	안산군 월곡면 입북리
	대야미리(大夜味里)	안산군 북방면 대야미+속달1리
	속달리(速達里)	안산군 북방면 속달1리+속달2리
	둔대리(屯垈里)	안산군 북방면 둔대동
	도마교리(渡馬橋里)	안산군 북방면 도마교
	건건리(乾乾里)	안산군 북방면 건건리
	팔곡1리(八谷1里)	안산군 북방면 팔곡1리
	팔곡 2리(八谷2里)	안산군 북방면 팔곡 2리
	일리(一里)	안산군 성곶면 1리
	이리(二里)	안산군 성곶면 2리
	사리(四里)	안산국 성곶면 3리+4리
	본오리(本五里)	안산군 성곶면 본오리+분오리

수원군의 경우 남양군 17개 면과 안산군 3개 면 그리고 광주군 2개 면 총합 22개 면이 편입되었다. 이때, 수원군에 속하였던 종덕면, 율북면, 수북면, 토진면, 서신리면, 청룡면, 숙성면, 오정면, 언북면, 포내면, 현암면, 안외면, 승양면, 가사면, 광덕면 15개 면을 진위군으로 이속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47개 면이 21개 면으로 통폐합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수원군 관내는 현재의 수원시 및 화성시 전역과 안산시(구 반월) 및 의왕시 일부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때 수원군의 중심이었던 수원군 남부면과 북부면이 수원면으로 통합이 되고, 여기에 새로 개편된 일형면, 태장면, 안용면, 매송면을 합하여 오늘날의 수원시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되었다.

(2) 1931~1945년

1930년 12월29일 총독부령 제103호에 의해 기존의 「면제」를 「읍면제」로 개정이 되면서, 1917년 10월1일 총독부령 제1호에 의해 공표된 지정면제도(指定面制度)에 의해 지정면으로 지정된 전국 41개 지정면이 1931년 4월1일자로 모두 읍으로 승격이 되었는데, 수원군의 경우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격이 되고 나머지 면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1읍 20면 체제가 되었다. 지정면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은 일본 거류민의 집단 거주지로

일본 식민자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행정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수원군(郡)	읍(邑)(1)	수원읍
	면(面) (20)	매송면
		정남면
		안용면
		장안면
		양감면
		태장면
		향남면
		반월면
		일형면
		동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봉담면
		마도면
		비봉면
		성호면
		우정면
		음덕면
		의왕면

그리고 이때 수원면에 소속되어 있던 각 리(里)는 수원읍으로 승격이 되면서 일본식 지명인 정(町)과 정목(町目)으로 개명이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원읍	본정(本町)	1정목(町目)
		2정목(町目)
		3정목(町目)
		4정목(町目)
	매산정 (梅山町)	1정목(町目)
		2정목(町目)
		3정목(町目)
	남수정(南水町)	
	구천정(龜川町)	
	영정(榮町)	
	매향정(梅香町)	
	신풍정(新豊町)	
	궁정(宮町)	
	장안정(長安町)	
	남창정(南倉町)	
	남부정(南部町)	
	북수정(北水町)	

그림 1 1931년 당시의 수원읍 관할 구역 개념도

이중에서 본정은 지금의 팔달로 지역, 영정은 영동시장 지역, 궁정은 교동 지역, 남부정은 매교동 지역으로 추정이 된다. 여기서 궁정은 수원향교 바로 뒤 수원시민회관과 시립도서관이 위치해 있는데, 일제 때 신사(神社)를 세우고 의도적으로 지명을 지은 것이다. 이들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수원읍의 경우는 1936년 10월1일 총독부령 제94호에 의해 관할구역이 대대적으로 확장이 된다. 인접하고 있는 수원군의 일형면의 고등리, 영화리, 지소리, 동리, 서둔리와 태장면 지리, 인계리, 권선리 일부 그리고 안용면 세리와 평리의 일부가 수원군에서 수원읍으로 편입이 되면서, 수원읍에는 고등정, 영화정, 지소정, 화서정, 서둔정, 지야정, 우만정, 인계정, 세류정, 대평정 등이 새로 생겨났다. 지소정과 지야정은 현재의 연무동과 지동 지역으로 추정이 되며, 대평정은 평동, 세류정은 세류동 지역으로 추정이 된다.(아래 그림2 참조)[1)]

1) 안국진, 최지혜,「일제강점기 수원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연구」,Journal of Architectual History Vol28, 2019,p19. 그림2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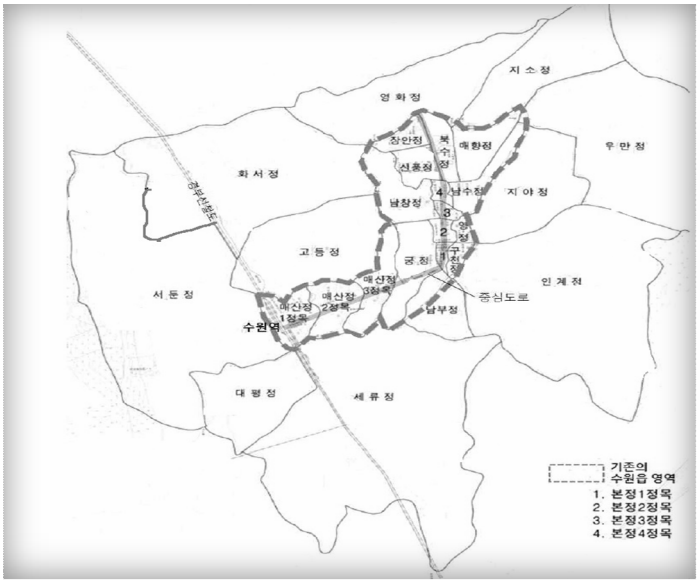


그림 2 1936년 확장된 수원읍 영역, 27개 정(町)으로 구획

수원읍 (27정(町))	본정	1 정목
		2 정목
		3 정목
		4 정목
	매산정	1정목
		2정목
		3정목
	고등정	
	구천정	
	궁정	
	남부정	
	남수정	
	남창정	
	대평정	
	매향정	
	북수정	
	서둔정	
	세류정	
	신풍정	
	영정	
	영화정	
	우만정	
	인계정	
	장안정	
	지소정	
	지야정	
	화서정	

7) 해방 이후~ 현재

(1) 수원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8월15일 수원군 수원읍 일원이 수원시로 승격이 되면서 일본식 지명도 고유의 지명으로 바꾸었으며, 나머지 수원군 지역을 화성군으로 개칭하였다. 이로써 수원군은 수원시와 화성군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으며, 수원시는 27개 동(洞)으로 편성되었고, 수원군 음덕면은 화성군 남양면으로 개칭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tr><td rowspan="27">수원시
(27)</td><td rowspan="3">팔달로(←본정)</td><td>팔달로 1가(←4정목)</td></tr>
<tr><td>2가(←3정목)</td></tr>
<tr><td>3가(←2정목)</td></tr>
<tr><td rowspan="3">매산로(←매산정)</td><td>1가(←1정목)</td></tr>
<tr><td>2가(←2정목)</td></tr>
<tr><td>3가(←3정목)</td></tr>
<tr><td colspan="2">고등동(←고등정)</td></tr>
<tr><td colspan="2">구천동(←구천정)</td></tr>
<tr><td colspan="2">교동(←궁정)</td></tr>
<tr><td colspan="2">매교동(←남부정)</td></tr>
<tr><td colspan="2">남수동(←남수정)</td></tr>
<tr><td colspan="2">남창동(←남창정)</td></tr>
<tr><td colspan="2">평동(←대평정)</td></tr>
<tr><td colspan="2">매향동(←매향정)</td></tr>
<tr><td colspan="2">북수동(←북수정)</td></tr>
<tr><td colspan="2">서둔동(←서둔정)</td></tr>
<tr><td colspan="2">세류동(←세류정)</td></tr>
<tr><td colspan="2">신풍동←(신풍정)</td></tr>
<tr><td colspan="2">중동(←본정1정목)</td></tr>
<tr><td colspan="2">영화동(←영화정)</td></tr>
<tr><td colspan="2">우만동(←우만정)</td></tr>
<tr><td colspan="2">인계동(←인계정)</td></tr>
<tr><td colspan="2">장안동(←장안정)</td></tr>
<tr><td colspan="2">연무동(←지소정)</td></tr>
<tr><td colspan="2">지동(←지야정)</td></tr>
<tr><td colspan="2">화서동(←화서정)</td></tr>
<tr><td colspan="2">영동(←영정)</td></tr>
</table>

화성군(郡)	면(面) (19)	매송면
		정남면
		안용면
		장안면
		양감면
		태장면
		향남면
		반월면
		일형면
		동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봉담면
		마도면
		비봉면
		오산면
		우정면
		남양면
		의왕면

이때, 행정구역 명칭에서 일본식 명칭인 정(町)과 정목(町目)은 '~로(路)' 또는 동(洞)으로 바뀌어, 본정(本町)은 팔달로로, 영정(榮町)은 영동으로, 지소정은 연무동으로, 지야정은 지동으로 개명이 이루어져, 일제에 의한 일본식 행정지명이 표면적으로는 사라지게 되었다.

뒤이어 1961년에 수원시의 경우 27개 동을 12개 동으로 통폐합을 단행하였는데, 두 동을 합병을 할 경우 각 동명(洞名)에서 한 자씩을 따와서 새로운 동명으로 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원시(12)	팔창동	팔달로 1,2가+남창동
	영천동	영동+구천동+중동+팔달로3가
	남향동	남수동+매향동
	신안동	신풍동+장안동+북수동
	매교동	매교동+교동
	세류동	세류동
	서평동	평동+서둔동
	매산동	매산로1,2,3가
	고화동	고등동+화서동
	영무동	영화동+연무동
	지만동	지동+우만동
	인계동	인계동

곧바로 2년 후인 1963년 1월1일 법률 제1175호에 의하여 화성군 소속이던 일왕면의 11개 마을과 안용면의 6개 마을 그리고 태장면 3개 마을 총 20개 마을을 수원시로 편입하였고, 일왕면은 의왕면으로 개칭하여 시흥군에 편입되었고, 태장면과 안용면은 태안면으로 합면(合面)하여, 화성군의 경우는 1960년 오산면이 오산읍으로 승격한 것까지 감안하면 1읍 16면 체제가 되었다.

이때 수원시로 편입된 마을들을 열거하면 고색리, 오목천리, 파장리, 이목리, 율전리, 천천리, 정자리, 송죽리, 상광교리, 하광교리, 매탄리, 원천리, 장지리, 평리, 대황교리, 곡반정리, 권선리 등이었다. 하지만 통합된 동(洞)들 중에는 다시 분동(分洞)을 하는 경우가 생겨났는데, 서평동은 다시 서둔동과 평동으로 원상 복구되었고, 영무동 또한 영화동과 연무동으로 다시 분동하였다. 또한 파장리, 이목리, 율전리, 천천리와 정자리를 통합하여 파정동(芭亭洞)이 새로 생겨났고, 매탄리와 원천리를 통합하여 매원동(梅遠洞)이, 장지리와 평리 그리고 대황교리, 곡반정리, 권선리를 통합하여 곡선동(谷善洞)을 새로 만들었다. 주로 새로 편입하여 들어온 마을들을 통합하여 신설동을 만든 셈이었다.

개편 전	개편 후
팔달로1가+2가+남창동	팔창동
팔달로3가+영동+중동+구천동	영천동
남수동+매향동	남향동
북수동+장안동+신풍동	신안동
매교동+교동	매교동
세류동	세류동
화성군 안용면 고색리+오목천리+평리	
서둔동	평동
화성군 일왕면 구운리+탑리	
매산로1가+2가+3가	매산동
고등동+화서동	고화동
화성군 일왕면 파장리+이목리+율전리+천천리+정자리	파정동
영화동	영화동
화성군 일왕면 조원리+송죽리	
연무동	연무동
화성군 일왕면 상광교리+하광교리	
지동+우만동	지만동
인계동	인계동
화성군 태장면 매탄리+원천리	매원동
화성군 안용면 대황교리+곡반정리	곡선동
화성군 태장면 권선리	

이 이후에도 분동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1966년 1월1일 시 조례 제314호에 의해 세류동을 1동과 2동으로 분동을 시켰으며, 1978년 11월 7일에는 고화동을 고등동과 화서동으로, 1979년 4월30일에는 영화동이 영화동과 송원동으로 분동을 하였다.

개편 전	개편 후	구역
세류동	세류1동	세류동 일부
	세류2동	세류동 일부+장지동
고화동	고등동	고등동
	화서동	화서동
영화동	영화동	영화동
	송원동	송죽동+조원동

1983년 2월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해 수원시의 경우 용인군 수지면 이의리와 하리가 수원시로 편입이 되면서 이의동이 신설되었고, 화성군의 경우 반월면 월암리와 초평리가 시흥군 의왕읍(1980년 읍으로 승격)에 편입이 되었으며, 비봉면 상기리는 봉담면에 편입이 되었다. 또한 당해 10월1일 수원시 조례 제1197호에 의하여 수원시 파정동을 파장동과 정자동으로, 세류2동이 2동과 3동으로 분동을 하였다. 통합과 분동의 사례는 연이어 계속 이루어졌다.

개편 전	개편 후	구역
세류2동	세류2동	세류동 일부+장지동
	세류3동	세류동
파정동	파장동	파장동+이목동+율전동+천천동 일부
	정자동	천천동 일부+정자동

1985년 12월 2일에는 팔창동과 영천동을 팔달동으로 통합하고 화서동을 화서 1동과 2동, 매원동을 매탄동과 원천동으로 분동을 하였다. 이 해 10월1일에는 화성군의 경우 태안면이 태안읍으로 승격을 하여 2읍 15면 체제가 되었다.

개편 전	개편 후	구역
팔창동	팔달동	팔달로1가+2가+남창동
영천동		팔달로3가+영동+중동+구천동
화서동	화서1동	화서동
	화서2동	
매원동	매탄동	매탄동
	원천동	원천동

1987년에 들어 수원시와 화성군 행정구역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우선 수원시의

경우 화성군 매송면에 있던 금곡리와 호매실리가 수원시로 편입이 되었고, 수원시 조례 제1356호에 의해 금곡리 일원을 금곡동으로, 호매실리 일원을 호매실동으로 하였고, 뒤이어 시 조례 1357호에 의해 금곡동과 개편 이전의 호매실 1·2·3·4리는 서둔동 관할로 편입시키고 호매실 5리는 평동의 관할로 편입을 시켰다.

개편 전	개편 후	구역
서둔동	서둔동	서둔동+구운동+탑동
화성군 매송면 일부		금곡동+호매실동

동시에 화성군의 경우 서신면 칠곡리가 송산면에 편입이 되고, 팔탄면 지월리 일부가 향남면에 편입이 되면서 장짐리가 신설되었으며, 동탄면 금곡리가 오산읍에 편입이 되면서 은계리가 신설되었고, 양감면 고렴리가 평택군에 편입이 되었다.

1988년 7월1일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 구제(區制)가 수원시에 처음으로 실시되여 장안구(팔달동 외 11개동)와 권선구(매교동 외 11개 동)로 분구(分區)가 된다.

1990년 1월1일에는 수원시 조례 제1607호에 의거 장안구 파장동을 파장동과 율천동으로, 정자동을 정자1동과 정자2동으로, 지만동을 지동과 우만동으로, 권선구 매탄동을 매탄 1동과 매탄 2동으로 분동을 하였고, 그해 5월10일 장안구 송원동을 송죽동과 조원동으로 분동을 하였으며, 12월7일에는 권선구 매탄 2동을 매탄2동과 매탄 3동으로 분동을 하였다.

개편 연월일	개편 전	개편 후	구역
1990. 1. 1	장안구 정자동	정자1동	정자동 일부
		정자2동	정자동 일부
	지만동	지동	지동
		우만동	우만동
	파장동	파장동	파장동
		율천동	율천동
	권선구 매탄동	매탄1동	매탄동 일부
		매탄2동	매탄동 일부
1990. 5. 10	장안구 송원동	송죽동	송죽동
		조원동	조원동
1990. 12. 7	권선구 매탄2동	매탄2동	매탄2동 일부
		매단3동	매탄2동 일부

1991년 9월5일 수원시 조례 제1741호에 의해 권선구 서둔동을 구운동과 서둔동으로 분동을 하였으며, 1992년 1월15일 시 조례 제 1751호로 조원동 일부를 영화동으로, 영

화동 일부를 조원동으로, 영화동 일부를 연무동으로, 연무동 일부를 우만동으로, 세류동 일부를 교동으로 편입하였다. 또한 같은 해 8월11일 시 조례 1816호로 팔달로 2가 일부를 3가로, 남창동 일부를 팔달로 3가로, 영화동 일부를 화서동으로, 송죽동 일부를 파장동으로, 화서동 일부를 정자동으로, 연무동 일부를 지동으로, 지동 일부를 우만동으로, 매교동 일부를 세류동으로, 대황교동 일부를 곡반정동으로, 곡반정동 일부를 대황교동으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10월 15일 시 조례 제1824호로 장안구 중동 일부를 권선구 교동으로, 장안구 우만동 일부를 권선구 원천동으로 편입하였다.

1993년 2월1일 수원시 조례 제1839호에 의거하여 팔달구가 신설이 되어 장안구, 권선구와 함께 3구(區) 체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같은 해 4월1일 조원동 일부를 송죽동으로 편입하고, 12월1일 팔달구 우만동을 우만1동, 우만2동으로 분동을 시켰다.

1994년 7월 팔달구 매탄 2동을 매탄2동과 매탄4동으로 분동을 하였고, 12월26일 대통령령 제14434호에 의해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와 당수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부와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일부와 신리, 그리고 망포리 일부를 원천동에 편입을 하게 하였다. 이 지역을 편입하여 수원시 권선구에 입북동과 당수동을 신설하였고,, 팔달구에는 영통동이 신설되었다.

개편 연월일	개편 전	개편 후
1994. 12. 16	팔달구 원천동	팔달구 원천동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일부+신리+망포리 일부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부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당수리	권선구 입북동

1995년 3월16일 수원시 조례에 의하여 권선구 곡선동을 곡선동과 권선동으로 분동하였다. 또한 4월20일 대통령령 제14629호로 화성군 태안읍 신리와 망포리를 필달구 매탄3동으로 편입하였다.

개편 연월일	개편 전	개편 후	구역
1995. 4. 20	팔달구 매탄3동	팔달구 매탄 3동	매탄동 일부
	화성군 태안읍 일부		신동+망포동

1995년 12월30일 기준으로 수원시 행정구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수원의 구별(區別) 행정동 및 법정동(1995.12월 현재)		
구분	행정동	법정동
총계	35	56
장안구	신안동	북수동, 장안동, 신풍동
	화서1동	화서동

수원의 구별(區別) 행정동 및 법정동(1995.12월 현재)		
구분	행정동	법정동
	화서2동	
	파장동	파장동, 이목동
	율전동	율전동, 천천동
	정자 1동	정자동
	정자 2동	
	영화동	영화동
	송죽동	송죽동
	조원동	조원동
	연무동	연무동, 상광교동, 하광교동
권선구	매교동	매교동, 교동
	세류 1동	세류동, 장지동
	세류 2동	
	세류 3동	
	평동	평동, 고색동,오목천동, 평리동
	서둔동	탑동, 서둔동
	구운동	구운동, 호매실동, 금곡동
	매산동	매산로 1·2·3가
	고등동	고등동
	권선동	권선동 일부
	곡선동	권선동 일부, 곡반정동, 대황교동
	입북동	입북동, 당수동
팔달구	팔달동	팔달로 1·2·3가, 남창동, 영동, 중동, 구천동
	남향동	남수동, 매향동
	지동	지동
	우만 1동	우만동
	우만 2동	
	인계동	인계동
	매탄 1동	매탄동, 신동, 망포동
	매탄 2동	
	매탄 3동	
	매탄 4동	
	원천동	원천동, 영통동
	이의동	이의동, 하동

이후에도 각 법정동 일부가 다른 법정동으로 편입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1996년 6월15일 팔달구 매탄동이 일부를 권선구 권선동으로, 장안구 정자동 일부를 영화동으로, 팔달구 원천동 일부를 우만동으로, 하동 일부를 원천동으로 편입하는 등 이러한 현상은 2003년 11월24일 영통구가 신설되어 3구청 체제에서 4구청 체제가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2020년 6월30일 기준 수원시는 4개 구(區)와 56개 법정동, 44개 행정동이 소속되어 있다.

그림 3 관할 구역 변경 대상: 화성시 반정동 일원↔ 수원시 망포동 대체부지(자료: 수원시)

그림 4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 조정으로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일대가 수원시로 편입(자료: 수원시)

또한 최근에 들어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398필지 198,825㎡와 수원시 망포동 361필지 198,825㎡를 서로 교환하며 각각 관할 구역을 변경하였다. 주민들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7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2019년 용인시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2019년 9월13일 용신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이 수원시로 편입을 하게 되었다. 수원시와 용신시의 경계지역에 기형적인 U자 형태로 용인시에 소속되었던 영덕동 일원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해 7년만에 이루어낸 결과이다.

<table>
<tr><th colspan="2">장안구</th><th colspan="2">권선구</th></tr>
<tr><th>행정동</th><th>법정동</th><th>행정동</th><th>법정동</th></tr>
<tr><td rowspan="2">파장동</td><td>파장동</td><td>세류1동</td><td rowspan="3">세류동</td></tr>
<tr><td>이목동</td><td>세류3동</td></tr>
<tr><td rowspan="2">율천동</td><td>천천동</td><td rowspan="2">세류2동</td></tr>
<tr><td>율전동</td><td>장지동</td></tr>
<tr><td>정자1동</td><td rowspan="4">정자동</td><td rowspan="4">평동</td><td>오목천동</td></tr>
<tr><td>정자2동</td><td>평동</td></tr>
<tr><td rowspan="2">정자3동</td><td>고색동</td></tr>
<tr><td>천천동</td><td>평리동</td></tr>
<tr><td>영화동</td><td>영화동</td><td>호매실동</td><td>호매실동</td></tr>
<tr><td>송죽동</td><td>송죽동</td><td>금곡동</td><td>금곡동</td></tr>
<tr><td>조원1동</td><td rowspan="2">조원동</td><td>구운동</td><td>구운동</td></tr>
<tr><td>조원2동</td><td rowspan="2">서둔동</td><td>서둥동</td></tr>
<tr><td rowspan="2">연무동</td><td>연무동</td><td>탑동</td></tr>
<tr><td>상광교동</td><td>권선1동</td><td>권선동</td></tr>
</table>

장안구		권선구	
행정동	법정동	행정동	법정동
	하광교동	권선2동	
		곡선동	곡반정동
			대황교동
		입북동	입북동
			당수동
10	11	12	16

팔달구		영통구	
행정동	법정동	행정동	법정동
행궁동	팔달로 1가	매탄1동	매탄동
	팔달로 2가	매탄2동	
	팔달로 3가	매탄3동	
	남창동	매탄4동	
	영동	원천동	원천동
	구천동	광교1동	이의동
	중동	광교2동	하동
	매향동	영통1동	영통동
	남수동	영통3동	
	북수동	영통2동	
	장안동		신동
	신풍동		망포동
매교동	매교동	망포1동	
	교동	망포2동	
매산동	매산로1가		
	매산로2가		
	매산로3가		
고등동	고등동		
화서1동	화서동		
화서2동			
지동	지동		
우만1동	우만동		
우만2동			
인계동	인계동		
10	22	12	7

(2) 화성시

1949년 8월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이 되면서 수원군의 나머지 지역은 화성군으로 개칭이 되었다. 이와 함께 음덕면이 남양군으로 이속하게 되었다. 1960년 1월1일에는 오산면이 오산읍으로 승격이 되었다.

1963년 1월 일왕면과 태장면 그리고 안용면의 각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이 되었는데, 수원시에 편입이 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은 의왕면으로 명칭을 환원하고 시흥군으로 이속되었다. 태장면과 안용면은 태안면으로 통합이 되어 후에 태안읍이 되는데 지금의 병점 일대가 이 지역에 해당된다. 1970년 수원시에 있던 화성군청이 오산읍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1983년 반월면 초평리와 월암리가 시흥군 의왕읍에 편입하게 된다. 1986년 1월 반월면 일부(현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등)가 신설된 안산시에 편입되었다. 1987년 매송면 금곡리와 호매실리가 수원시에 편입이 되고, 1989년 1월에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이 된다.

1994년 12월 반월면이 안산시(현 안산시 반월동)와 군포시(현 군포시 대야동)그리고 수원시(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분할 편입이 되어 사라지고, 태안읍 영통리, 신리, 망포리 일대가 영통신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수원시에 편입이 되었다.

2000년 11월 화성군청이 남양면으로 이전을 하였고, 2001년 3월 화성군은 화성시로 승격을 하면서 시청이 있는 남양면은 남양동으로 개편이 된다. 2003년 6월 우정면이 우정읍으로 승격이 되고, 2006년에는 태안읍이 폐지되고 동으로 전환하였고 2007년에는 향남면이 향남읍으로 승격이 되었다. 2015년 1월 동탄2신도시 개발지역인 동탄면 영천리·오산리·청계리·중리 일부와 산척리 일부 그리고 방교리 일부가 동탄 4동으로 분리 신설되었고, 2018년 1월 동탄면이 폐지되고 동탄5동(영천동과 중동)과 동탄6동(오산동, 신동, 목동, 산척동, 장지동, 송동, 방교동, 금곡동)과 새솔동이 신설되었다.

3. 수원시 지명유래와 변천[2)]

1)장안구

조선시대 광주부 일용면(日用面)[3)]과 수원부 형석면(荊石面) · 광교면(光教面) 지역이었다. 수원의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긴 후에는 일용면과 형석면 그리고 북부면 지역에 속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일용면과 형석면이 일형면(日荊面)으로 통합되었다.

1988년 수원에 처음 구제(區制)가 실시될 때 권선구와 함께 설치되었다. 후에 팔달구와 영통구가 신설되면서 일부 동(洞)들이 분리되어 나갔다.

(1)송죽동

위치적으로는 구의 가운데 지점에 있는 법정동이자 행정동이다. 본래 이 지역은 광주부 일용면 지역으로 1789년 수원부로 편입되었다.『화성지』에는 일용면(日用面) 소속의 7개 동(洞)으로 미륵당(彌勒堂), 파동(芭洞), 일림리(逸林理), 조원(棗園), 정산리(亭山里), 진목정(眞木亭)과 대송죽리(大松竹里)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1914년 4월1일 일제에 의하여 동리의 명칭이 대폭 수정이 될 때 '대송죽리'에서 '송죽리'로 바뀌었다.1936년 일형면과 의왕면이 통합이 되어 일왕면이 될 때 송죽리는 수원군 일왕면 소속이 된다. 1949년 수원군이 수원시와 화성군으로 분리

그림 5. 1914년(대정3) 근세지도에 나타난 일형면 지역(사진:국립중앙박물관)

2) 아래의 책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2008.『수원지명총람』,수원시,1999.『수원도시변천사』,수원시,2004.

3)『호구총수』(1789)에는 一用面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 될 때 화성군에 잠시 속해 있었다가 1963년 1월1일에 다시 수원시로 복귀하였다. 편입 당시에는 영화동, 조원리와 함께 영화동 관할이 되었다.

1979년 영화동은 영화동과 송원동으로 분동을 하고, 1990년 9월 송원동은 다시 송죽동과 조원동으로 분동을 한다. 따라서 지금의 송죽동은 이때 형성이 되었다 할 수 있다.

송죽동 지명 유래는 자연마을 지명 '솔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솔대'가 '송죽'으로 바뀐 것에 대하여는 여러 설(說)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소나무가 많았던 동네였던 것은 사실일 것 같다.

(2) 연무동(鍊武洞)

법정동 연무동은 일제강점기까지 '지소동(紙所洞)'이라 하다가 1949년 연무동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지소(紙所)'라는 동(洞) 이름은 예전에 종이를 뜨는 곳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을 한다. 지소동은『화성지』에 북부면에 소속하는 마을로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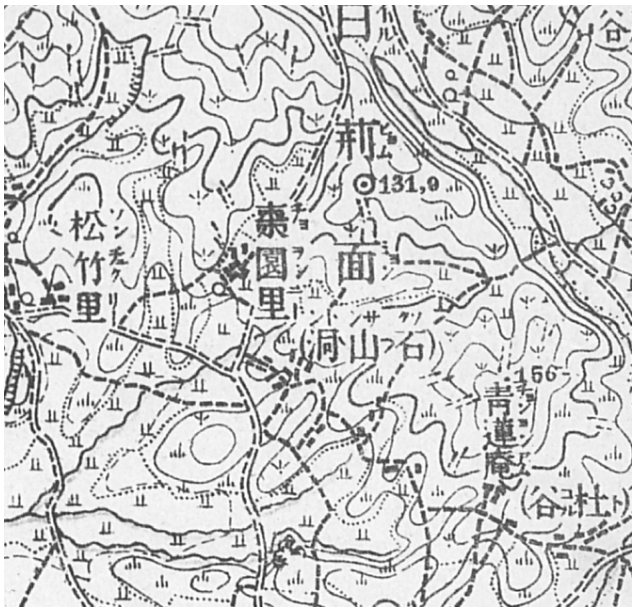


그림 6『조선지형도』의 연무동 일대

이 지역은 1914년 4월1일 일제에 의한 수원군의 동리 명칭 및 구역 변경 때 수원군 북부면 석산동과 일용면의 조원리와 함께 일형면 관할이 되었다. 1931년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격하고 1936년 일형면과 의왕면이 통합하여 일왕면이 되면서 이 지역도 일왕면에 속하게 되었으며, 지소리(紙所里) 지역이 수원읍에 편입이 되면서, 지명도 '지소정(紙所町)'이라는 일본식 지명을 가지게 된다.

해방 후 1946년 8월15일 수원읍 지역이 수원시로 승격이 되자, 이 지역은 '연무동'으로 지명이 바뀌게 되는데, '연무'라는 명칭은 인근에 군사 훈련과 무술을 연마하는 '연무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1963년 1월1일 법률 제 1175호에 의해 상광교동과 하광교동이 연무동의 관할로 들어오게 되었다.

상광교동(상광교동)과 하광교동(하광교동)은 모두 '광교면(광교면)' 소속이었다.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일형면에 소속되었고, 1936년 일형면과 의왕면이 합병하여 일왕면이 되면서 일왕면 소속이 되었다. 해방 후 1949년 잠시 화성군에 편입이 되었다가 1963년 수원시에 다시 편입이 되었다. '상광교동'은 광교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하광교동(하광교동)'은 광교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지금도 여전히 '상광교' 또는 '웃광교', '하광교' 또는 '아랫광교'라 불리어지고 있다.

(3) 영화동(迎華洞)

『화성지』에 기록된 북부면 관할의 '역촌(驛村)'이 '영화동(榮華洞)'이 된 것이다. 역촌은 이곳에 있던 영화역(迎華驛) 때문에 생긴 지명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북부면 관할의 관길동(觀吉洞)과 영화동(迎華洞)을 합쳐 영화리(迎華里)라 하여 일형면에 소속된 곳이다. '관길동'은 『화성지』에 북부면 관할 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전에 '광교뜰'이라고 하여 장안문 밖 북동쪽 넓은 뜰을 지칭하는 지명이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정자(亭子)를 '영화(迎華)라 하고, 들(野)을 '관길(觀吉)', 벌판을 '대유(大有)', 도랑(渠)을 '만석(萬石)'이라 이름 짓고 비석을 세우라"[4]라는 기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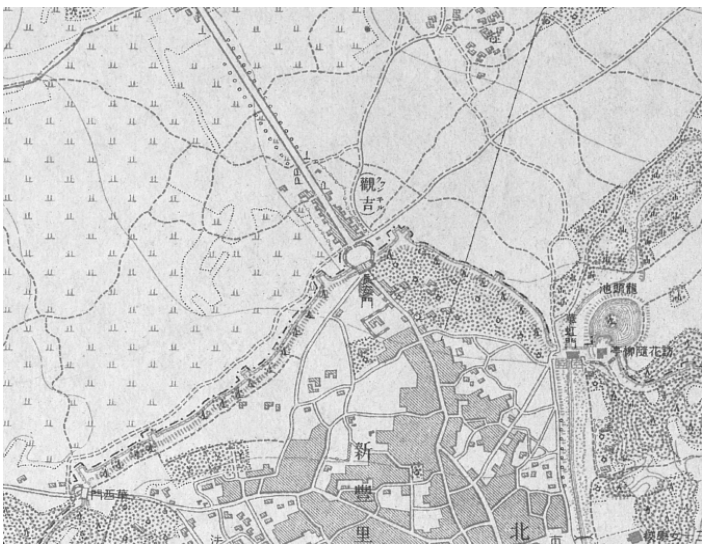


그림 7 1917년(대정6)『조선지형도』.출처:국립중앙박물관

4) "仍賜亭名曰迎華, 野曰觀吉, 坪曰大有; 渠曰萬石, 命伐石以識之。至行宮經宿". 『정조실록』, 정조20년 1월 20일.。

(4) 율천동(栗川洞)

율전동과 천천동 두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율전(栗田)'과 '천천(泉川)'이라는 지명은 『호구총수』에 수원부 공석면(空石面, 후에 형석면) 관할 방리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의 지하철 '성균관대역'은 예전에 '율전역'으로 불려졌으며, '천천(泉川)'이란 명칭 또한 예전에 큰 샘이 있어, 그 물이 흘러 큰 내(川)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도 '샘내'라는 명칭이 남아있을 정도이다.

(5) 정자동(亭子洞)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율전과 천천리는 수원군 일형면 관할에 편입이 되었다. 이후 1936년 일형면과 의왕면이 통합하여 일왕면이 소속이 되었다. 해방 이후 잠시 화성군 관할에 속해 있다가 1963년 수원시에 편입이 되었다. 편입 당시 율전동과 천천동은 파장동 관할이었다가 1990년 율전동과 천천동을 합병한 율천동이 신설되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율전'이란 '밤밭'을 의미하며 예전에는 '윗밤밭'과 '아랫밤밭'이라는 마을이 상당 기간 남아 있었다. 지도에도 '하율전'이라는 지명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최근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 왔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림 8 『조선지형도』 속 정자동

원래 광주군(廣州郡) 일용면 소속이었는데, 정조 때 수원군으로 편입이 되었다. 『화성지』(1831)에는 '일용면 정산리(亭山里)'로 기록이 되어 있다가, 이후에 간행된 『수원군읍지』(1899)에는 '일용면 정자리(亭子里)'로 바뀌어 기록이 되어있다. 1914년 일제에 의하여 강제 통폐합이 될 당시 일용면 소속의 진목정(眞木亭)·정자리(亭子里)와 북부면 소속의 화산동(花山洞) 3개 동을 통합하고 '정자리'라고 하였다. 해방 후에는 화성군에 속하여 있다가 1963년 수원시로 편입이 되었다. 편입 당시에는 파장동 관할이었는데, 1983년 독자적인 행정동으로 분동을 하였다. '정자

(亭子)'라는 동 이름은 이 지역에 영화정(迎華亭, 일명 교구정(交龜亭))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한다.

(6) 조원동(棗園洞)

해방이 되고 1949년 8월15일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이 되자 조원동 지역은 화성군 일왕면 조원리로 개편이 되었다가, 1963년 1월1일 수원시로 다시 편입이 되었다. 이때 영화동과 송죽리와 함께 영화동 관할이 되었다.

이후 이 지역은 1979년 4월30일 수원시 조례 제 878호로 송죽동과 함께 송원동으로 분동이 되었으며, 1990년 5월20일 송원동이 다시 송죽동과 조원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독립적인 행정동이 되었다. 조원동에는 지금도 '돌미' 혹은 '돌메'라는 자연마을 명칭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는 옛 '석산동(石山洞)'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또한 현재에도 광교산 기슭에 있는 마을을 '조원말'이라는 부르는데, 이는 이곳에 예로부터 대추나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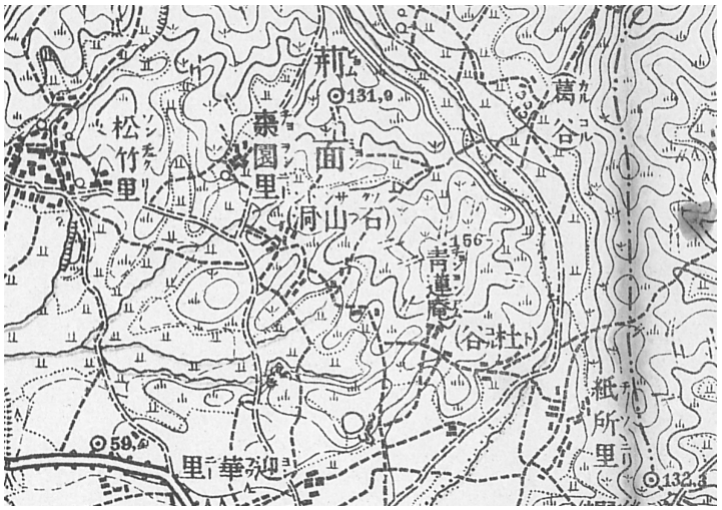


그림 9 914년 조원리 일원을 나타내는 근세지도

이 지역은 원래 광주군(廣州郡) 일용면 지역으로 1789년 정조에 의해 읍치가 팔달산 아래로 옮겨질 때 함께 수원부로 편입이 되었다. 『화성지』(1831)와 『수원군읍지』(1899) 모두 '조원(棗園)'으로 기록이 되어있다. 1914년 4월1일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북부면의 석산동(石山洞) 일원과 지소리(紙所里) 일부 그리고 일용면의 옛 조원동 일원을 통합하고

일형면에 편제되었다. 1936년 10월1일 조선총독부령 제94호로 조원리에 속하였던 지소리가 수원읍에 '지소정(紙所町)'이라는 일본식 지명으로 편입이 되었다.

(7) 파장동(芭長洞)

현재 파장동과 이목동 2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파장동은 조선시대에는 광주부 일용면 지역이었다가 정조 때 수원부로 편입이 되었다. 이목동은 조선시대 형석면에 속해 있었다. 1796년 화성 신도시가 건설한 후, 팔달산 인근 지역을 남부와 북부로 나누었다. 이때 북부 14개 동 가운데 '파동(琶洞)'이 있는데, 이곳이 지금의 '파장동' 일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수원군읍지』(1899)에는 '파동(琶洞)'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며, 이후 지금의 '파장동'으로 변하여 일용면에 소속되었다. 정조 때 만석거 저수지(지금의 서호)를 만들고 이곳에 연꽃과 파초를 심고 나서부터 '파동(琶洞)이 '파동(芭洞)'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림 10 1932년 일형면 소속의 파장리. 출처:수원박물관

1914년 일제에 의해 미륵동과 일림동 그리고 파장동을 통합시켜 '파장리(芭長里)'라 하고 일형면에 소속시켰다.

파장리는 이후 1936년 10월1일 일왕면(일형면+의왕면)에 소속되었다가 해방 이후 1949년 화성군 일왕면 파장리로 개편이 된다. 이후 1963년 법률 제1175호에 의해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다시 편입이 되어 이목리, 율전리, 천천리, 정자동과 함께 행정동인 파정동 관할로 들어가게 된다. 1983년

그림 11 1914년 파장리 일원을 나타내는『조선지형도』(대정3)

에 파정동이 파장동과 정자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따로 분리되어 나와 이목동, 율전동, 천천동을 관할에 두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 파장동에서 율천동(율전동+천천동)이 분리되어 나가고, 1992년에는 송죽동의 일부가 파장동으로 편입되어 들어오는 등의 변화를 거쳐서 오늘의 파장동이 되었다.

현재는 사라지고 없는 지명들 중 미륵동(彌勒洞)과 일림동(逸林洞)이 있었다. 일림동은 '넘말'이라는 자연지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웃동네에서 바라보면 언덕 넘어 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불리어졌다고 하며, 정조가 이곳을 지나면서 숲속에 있는 동네라 하여 '일림(逸林)'이라 하였다고 한다. 현재 수일중학교가 있는 마을이다. '미륵동(彌勒洞)'은 일림동 북서쪽 옛 일왕면사무소가 있던 마을이며, 옛 국도변 동쪽에 법화당이라 쓰인 보호각 안에 미륵불이 모셔져 있다. 미륵불에게 마을의 풍년과 무사태평 그리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신앙심이 돈독한 마을이라 미륵동이란 지명이 생겨났다고 한다.

2) 권선구(勸善區)

현재의 권선구 지역 대부분은 『호구총수』에 나오는 고등촌면(古等村面) · 용복면(龍伏面) · 호매절면(好梅折面) · 장족면(長足面)에 해당한다. 이후 정조가 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긴 후에는 남부면 · 매곡면 · 용복면 관할 구역에 속하게 된다. 당시 남부면은 화성 내 남쪽 지역을 포함하여 현재 태안읍 북쪽까지 관할하였고, 매곡면은 현재의 금곡동과 호매실동 일대를 관할하였다. 용복면은 현재의 고색동과 정자동 일대를 관할 구역으로 하였다.

1914년 일제에 의해 단행된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해 지금의 권선구 지역은 수원면 · 태장면 · 일형면 · 안용면 4개의 면 관할지역으로 분할되었다. 1949년 수원면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지역은 화성군으로 개편이 되었다가, 1963년에 수원시에 편입이 되었고, 1988년 7월1일자로 수원시에 구제(區制)가 실시가 되면서 장안구와 함께 설치되었다. 1993년 팔달구가 분구(分區)하면서 일부 관할 동이 팔달구로 편입되었다.

(1) 구운동(九雲洞)

원래 이곳은 조선시대 형석면 관할 지역이었다. '구운동'이라는 명칭은 『호구총수』나 『화성지』 그리고 『수원군읍지』(1899)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 수원군 형석면에 '상율전(上栗田)', '하율전(下栗田)'과 함께 '상구운석(上九雲石)'과 '하구운석(下九雲石)'이라는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뒤이어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이전과 이후를 조명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에 의하면 '상구운석'과 '하구운석'을 통합하여 '구운리'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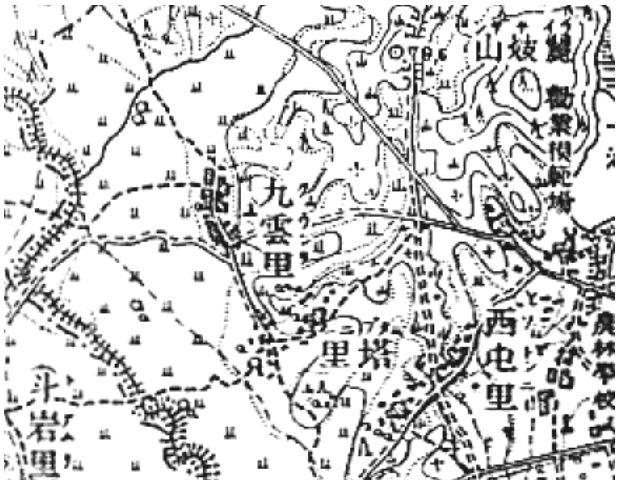


그림 12 1914년 당시 구운리 주변 근세지도

군돌 · 군들 · 구운석 · 공석이라고 하며, 한자로 구운돌(九雲乭) · 구운석(九雲石) · 공석(空石)으로 쓴다. 군들의 위쪽 마을을 윗군들(上九雲 또는 上空石)이라 하고, 아래쪽 마을을 아랫군들(下九雲 또는 下空石)이라 불렀다고 한다.

1936년 일왕면에 속하였다가 해방 이후인 1949년 8월15일 수원읍 지역이 수원시로 승격이 되었을 때, 화성군 일왕면 구운리가 되었다. 구운동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된 것은 1963년 1월1일 법률 제1175호에 의해서이다. 이때 서둔동과 탑리도 함께 서둔동에 편제가 되었다. 1972년 동을 통폐합하여 탑동과 함께 행정동 서둔동에 포함되었다가, 1991년 9월5일 행정동 서둔동에서 독립되었다. 구운동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아홉 개의 머리가 달려있는 용이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였는데 이때부터 마을 뒷산을 청룡산(靑龍山)이라 하고 마을 이름도 '구운(九雲)'이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2) 권선동(勸善洞)

『호구총수』에 나오는 '장족면(長足面)'이 훗날 『화성지』에는 '장주면(章洲面)'으로 나오는데, 지금의 권선동 지역은 '장주면' 지역에 속한다.

'장족면'에는 '매탄리(梅呑里)' 와 '권선리(權善里)' 2개의 마을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호구총수』에 나오는 권선리(權善里)와 이후에 간행된 모든 읍지류에 나오는 '권선리(勸善里)'의 한자어가 서로 상이하다. '권세 권(權)'이 '권할 권(勸)'으로 바뀌어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권선동 지명의 유래를 고려 말 한림학사 이고(李皐)가 백성들에게 선(善)을 권(勸)하여, 이에 감화된 마을 주민들이 모두 어질고 착하게 살고자 노력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아무튼 현재의 '권선동(勸善洞)'은 '권할 권(勸)'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화성지』에 장주면 '권선리 또는 적사리(赤寺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적사리'로 부른 이유는 이곳에 '적사리제언(赤寺里堤堰)'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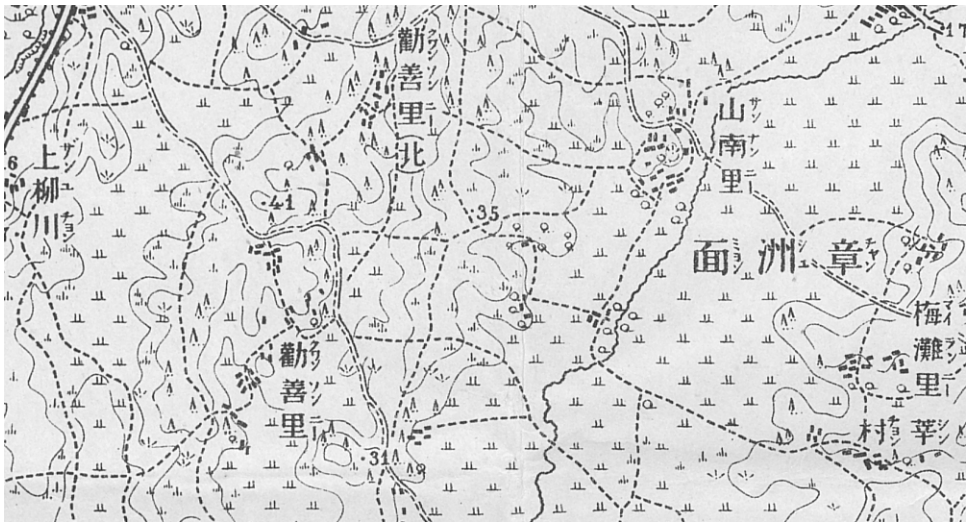


그림 13 1910년 수원군 장주면 일대『조선지형도』

한편 권선리는 예전에 들을 사이에 두고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위쪽 뜸을 윗권선(上勸善), 아랫 뜸을 아랫권선(下勸善)이라 불렀다.

1914년 4월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그대로 권선리라 하여 태장면 관할이 되었다. 이후 1949년 8월 수원읍 지역이 수원시로 승격이 될 때, 화성군 태장면에 편제되었다가 1963년 1월 수원시로 편입되게 된다. 이때 장지리, 평리, 대황교리, 곡반정리와 함께 곡선동 관할이 되었다. 이후 1995년 3월 수원시 조례에 의해 권선구 곡선동에서 권선동이 분리가 되면서 독립적인 행정동이 되었다.

(3) 금곡동과 호매실동

금곡동은『화성지』에는 매곡면 금곡리로,『수원군읍지』(1899)에는 '금곡(金谷)'으로 기록되어 있다. 후에 금곡리·조산리·도봉리(道峯里)로 되었다. 1914년 일제에 의한 수원군의 동리 명칭 및 구역 통폐합 당시 매곡면 도봉리·금곡리·조산리를 합쳐 금곡리라 하고 매송면에 편입시켰다. 1949년 8월 수원읍 지역이 수원시로 승격이 될 때 화성군 매송면으로 편제되었다. 이후 1987년 1월 수원시로 편입이 되면서 서둔동 관할이 되었다가 1991년 9월 수원시 조례에 의하여 서둔동에서 구운동이 분리될 때, 구운동 관할의 법정동이 되었다. '금곡(金谷)'이라는 지명도 이 지역 서쪽에 있는 칠보산에서 쇠(중석)을 캤다

고 해서 쇠일, 금곡이라 불리어지게 되었다.

'호매실동'도 조선시대 수원부 매곡면 관할지역에 속하였다. 『화성지』에는 매곡면 '노리촌리'와 '자목리'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지금의 호매실에 해당한다. 현재에도 호매실동에 있는 자연마을 중에 '노림마을'과 '자목마을'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노리촌리'와 '자목리'에 해당한다.

1914년 4월 일제에 의해 매곡면의 호매실과 지목리를 통합시켜 '호매실리'라 하고 매송면 관할 아래 두었지만, 동(洞) 명칭은 이 일대를 관할하던 '호매절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이 될 때는 화성군으로 편입이 되었다가 1987년 1월 대통령령 제12007호에 의해 수원시로 편입이 됨과 동시에 같은 날 수원시 조례에 의해 호매실리 1~4리는 서둔동으로, 5리는 평동 관할에 두었다. 1991년 9월 수원시 조례에 의해 행정동 서둔동에서 구운동이 분리되어 나올 때 함께 구운동 관할의 법정동이 되었다.

(4) 서둔동(西屯洞)

1796년 화성 신도시를 건설하고 팔달산 주변 지역을 남부와 북부로 나눌 때, 이 지역은 북부에 해당하였다.

『화성지』와 『수원군읍지』(1899)에는 '서둔촌'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나, 1914년 서둔촌과 남부면 매산리 일부를 통합하여 '서둔리'라 하고, 일형면에 편입되었다. 1936년 10월 수원읍이 확장이 될 때, 수원읍에 '서둔정(西屯町)'이라는 일본식 행정 지명으로 편입이 되었다. 이러한 이름은 해방 이후 1949년 8월에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이 되면서 '서둔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서둔'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만석거와 대유둔(大有屯 또는 北屯)의 설치로 이 일대의 농업 증진에 힘쓴 정조는 1799년 축만제(지금의 西湖)와 축만제둔(祝萬堤屯·西屯)을 설치·경영한 것에서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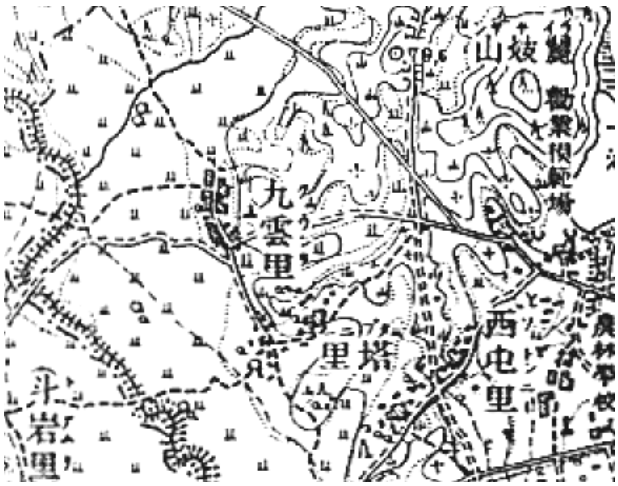


그림 14 1914년(대정3) 『조선지형도』, 서둔리와 인근 구운리 마을이 탑리와 더불어 표시가 되어 있다

(5) 탑동(塔洞)

이 지역은 본래 수원부 형석면에 속하였던 지역이다. 『화성지』와 『수원군읍지』(1899)에 형석면 탑현동(塔峴洞)으로 기록이 되어있다. 그후 탑동으로 바뀌었다. 1914년 골말을 통합하여 탑리라 하고 일형면에 편입하였다. 골말은 본래 형석면 곡촌(谷村)이었는데, 공석(空石: 구운동) 아래에 있었으므로 하공석(下空石)이라고도 불리었으며, 탑골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해방 이후 1949년 8월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을 할 때 화성군 일왕면 탑리가 되었다가, 1963년 1월 수원시로 편입이 되었다. 이때 서둔동, 구운리와 함께 서둔동에 편제되었고, 1991년 1월 수원시 조례에 의해 행정동 서둔동에서 구운동이 분리되어 나갈 때에도 그대로 서둔동 관할의 법정동으로 남아있었다.

탑동이라는 지명은 본래 이 지역에 탑이 많았기 때문에 탑골 또는 탑동 등으로 불리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 전해진다.

(6) 세류동(細柳洞)

본래 남부면 하유천(下柳川) · 독산리(禿山里) · 상류천(上柳川) · 세동리(細洞里) 지역이었다. 『화성지』 기록에 의하면 부내(府內) 남부에 속하는 동리(洞里)들 중에 하유천 · 장지촌 · 향목정 · 독산리 · 상유천이 기록되어있다. 일제에 의해 행정구역이 통폐합될 당시 상유천 · 세동 · 산루동과 안녕면 독산리를 통합하여 '세리(細里)'라 하고 안용면에 편입하였다. 1931년 수원면이 수원읍이 되면서 세리의 '세'와 유천의 '유'자를 따서 '세류정(細柳町)'이라는 일본식 행정지명을 얻게 되었다.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이 되면서 '세류동(細柳洞)'이라는 지금의 지명을 가지게 되었다. 세류동에는 상유천과 하유천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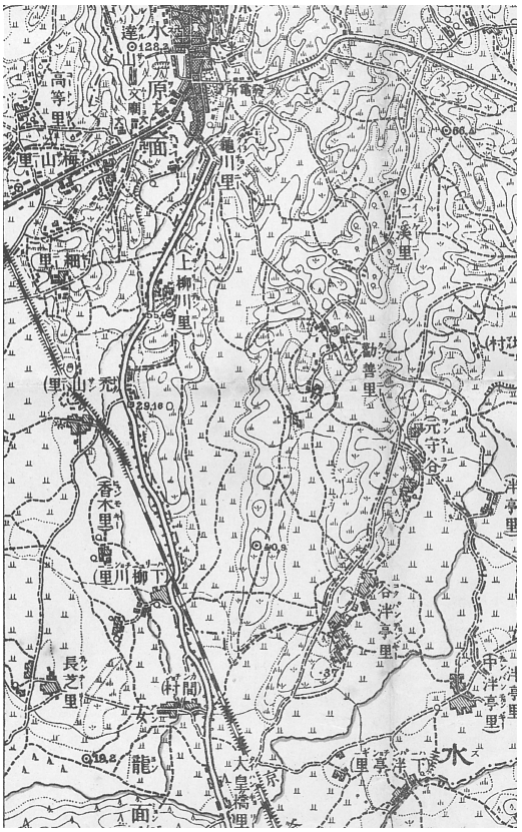


그림 15 『조선지형도』의 세류동 일대

는 마을이 있었다. '유천(柳川)'은 '버드내'를 한자화한 것으로 수원천의 하류를 지칭한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마을을 '윗버드내' 아래쪽 마을을 '아랫버드내'라 하였다.

'가는 골(細谷)'은 지금 세류1동에 있는 마을이며, 골장골 마을은 수원비행장 건설로 인해 그곳에 살던 주민이 1943년 집단 이주하게 되자 마을 이름을 '신곡(新谷)'으로 바꾸었다.

'버드내(일명 柳川)' 서쪽 옛 수인선과 경부선 철도가 교차하는 뚝 남쪽 벌판에 '새텃말'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마을이 민둥산 아래에 있다 하여 '독산동(禿山洞)'이라 하였다.

한편『화성지』기록에 의하면 남부면 소속 동리(洞里) 가운데 장지촌(長芝村) · 향목정(香木亭) · 하유천(下柳川) 3개 동리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안용면 장지리가 되었다. 일명 '장짓골'이라고도 하였다. 장지리는 1963년 수원시로 편입이 되면서, '장지동(長芝洞)'이 되었다. 향목정은 향나뭇골 · 상나뭇골이라고도 불렸으며, 하유천(下柳川) 북쪽에 있는 마을로 향나무가 있었으므로 생긴 지명이다. 장짓골은 수원비행장이 생기면서 주민 모두 '신곡(新谷)' 마을로 이주를 하자, 원래 마을은 사라지고 없게 되었다.

(7) 평동(坪洞)

현재 수원역 남쪽에 위치한 행정동으로, 평동 · 평리동 · 고색동 · 오목천동 4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화성지』기록에 의하면 남부면 '벌리(泍里)'가 지금의 법정동 평동과 평리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914년 4월1일 일제에 의한 수원군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평촌, 중보평(中洑坪), 지장동(芝長洞) 일부를 통합하여 '평리'라 하고, 안용면 관할 아래에 두었다. 이후 1936년 10월 수원읍이 확장을 할 때, 수원군 일형면 평리 일부가 수원읍으로 편입이 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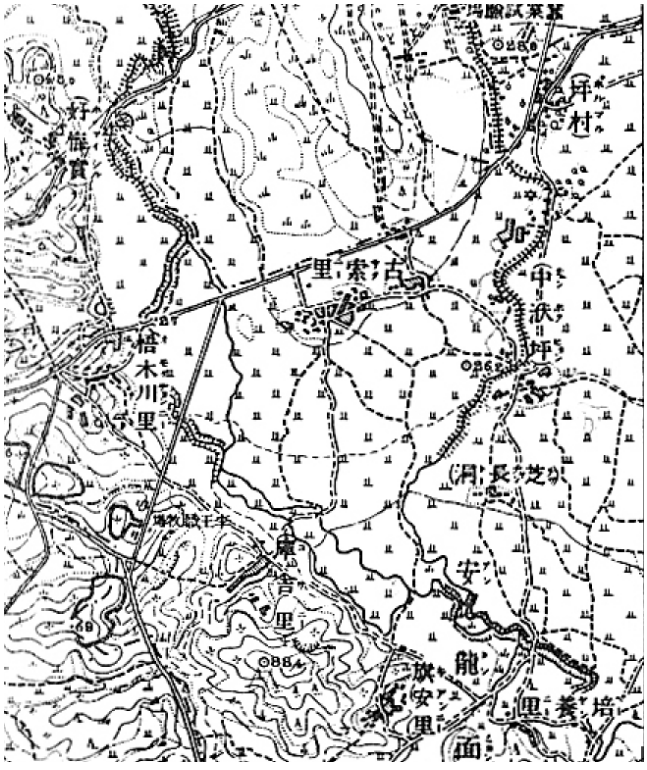


그림 16 평동 일대를 나타내는 1914년에 제작된『조선지형도』

서 일본식 지명인 '대평정(大坪町)'으로 개명이 되었다. 해방 이후 1949년 8월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이 될 때, '평동'이라는 이름을 되찾았고 고색동, 오목천동, 평리동과 함께 행정동 평동 관할의 법정동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평동이라는 지명은 넓은 평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드넓은 벌판 한가운데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벌리, 평리 등으로 불리어 오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법정동 고색동은 『화성지』에 용복면 고색리(古索里)로 기록되어 있다. 1914년 4월 용복면의 고색리, 중보평, 남부면의 지장동을 합쳐 고색리라 하고 안용면 관할 아래에 두었다. 해방 이후 1949년 8월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이 될 당시 화성군 용복면 고색리로 편제가 되었다. 그리고 1963년 1월 수원시로 편입이 되는데, 이때 오목천리와 함께 편동에 편제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목천동'은 『화성지』와 그 이후에 간행된 『수원군읍지』의 방리(方里) 기록에 동명(洞名)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다만 산천과 교량에 대한 기록에서 각각 오목천(梧木川 또는 鰲木川)과 오목천교란 명칭이 사용되었다.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 용복면 소속 6개 마을 중 '오목천(梧木川)'이 언급되어 있고, 1914년 4월1일 일제에 의한 수원군의 행정구역 통폐합 때 용복면의 오목천과 고사촌(庫舍村)을 합쳐 '오목천리'라 하여 안용면 관할 아래에 두었다. 뒤이어 간행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에는 안용면 소속의 '오목천리(梧木川里)'로 기록되어 있다.

해방 이후 1949년 8월 수원읍이 시로 승격이 될 때, 화성군 용복면 오목천리로 편제가 되었다가 1963년 1월 수원시로 편입이 될 때 평리, 고색리와 함께 평동에 편입이 되었다.

(8) 입북동(笠北洞)

권선구의 북서쪽 끝에 위치한 행정동이다. 안산시 사사동과 의왕시 초평동과 접하고 있으며, 입북동과 당수동 2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본래 광주군 월곡면에 속하는 지역으로, 갓뫼(笠山) 뒤가 되므로 갓뒤, 갓디 또는 입북이라 하였다. 1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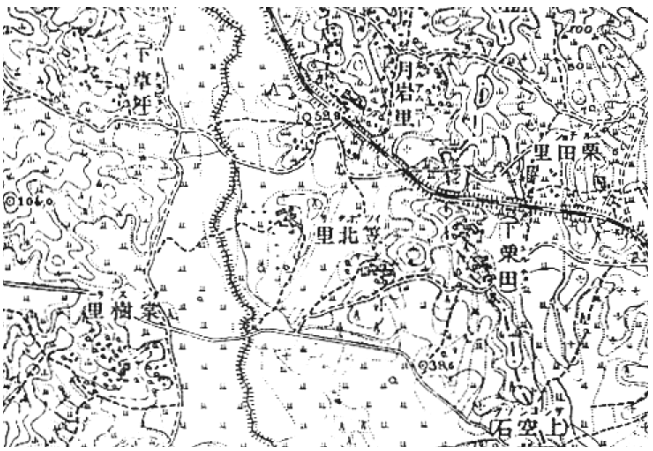


그림 17 1914년 제작된 『조선지형도』에 나타난 입북동 일대

년(고종32)에 안산군에 편입되어 월곡면 입북리가 되었다가, 1914년 벌말을 합병하여 입북리라 하고 수원군 반월면에 편입하였다.

해방 이후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이 될 당시 화성군 관할 아래에 있었다가 1994년 권선구로 편입이 되었다.

이 지역의 자연마을로는 '큰갓디(大笠北)'과 '작은갓디(小笠北)' 그리고 '벌말(坪村)' 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⑼ 당수동(棠樹洞)

본래 광주군 월곡면 당수리였다. 입북동과 함께 1895년 안산군에 편입이 되었다가 1914년 오룡동, 도봉리를 병합하여 당수리라 하고 수원군 반월면에 편입하였다. 1994년 입북동과 함께 수원시에 편입이 되어 당수동이 되었다.

이 지역의 자연마을로 당진개(棠津浦), 양지편(陽地便), 오룡골(五龍谷)과 도봉리(道峰里 · 島峰里)가 있었다.

3) 팔달구(八達區)

수원시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원 화성 성곽 내의 여러 법정동과 성곽과 접하고 있는 여러 행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팔달구는 현재 10개의 행정동과 22개의 법정동이 소속되어 있다. 관할 행정동으로 화성 성곽 내전 지역을 관할하는 행궁동을 위시하여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2동, 지동, 우만1·2동 그리고 인계동으로, 관할 구역 대부분이 구시가지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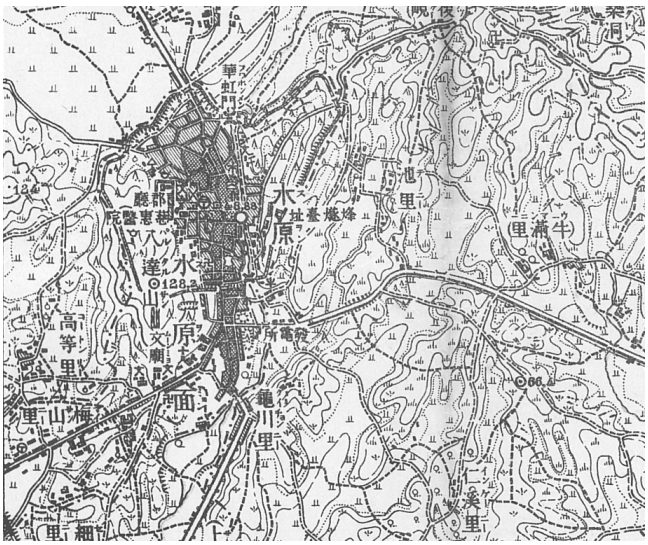


그림 18 1914년 제작된 5만분의 1 지형도의 팔달구 일대

팔달구는 1993년 2월 1일 수원시 조례 제1837호에 의해, 기존의 장안구와 권선구 일

부가 분구가 되면서 설치가 된 것이다.

(1) 고등동(高等洞)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특수행정구역 '고등촌처(高等村處)'가 기록되어 있고, 『호구총수』에는 '고등촌면(古等村面)'이 기록되어 있고, 소속 동리(洞里)로 '장지동리(張之洞里) · 권동리(權洞里) · 고양동리(古陽洞里)'가 기록되어 있다.

『화성지』 기록에는 남부 관할 동리를 언급하면서 '옛날 고등촌면(古等村面)은 지금 이곳에 합해졌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1796년 화성 성곽을 조성한 이후 남부면에 편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1914년 4월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일형면 고등리로 변경이 되었다. 1936년 수원읍이 대대적인 확장을 할 때 수원읍으로 편입이 되면서, '고등정(高等町)'이라는 일본식 행정지명을 갖게 되었다. 해방 이후 1949년 8월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을 할 때 '고등동'으로 개명을 하였고, 1963년 1월 수원시 조례에 의하여 화서동과 통합을 하면서 '고화동(高華洞)'이 된다. 이어 1978년 11월 시 조례에 의해 고화동이 화서동과 고등동으로 분동을 하면서 독자적인 행정동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매교동(梅校洞)

행정동 '매교동'은 구(區)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수원역에서 팔달문으로 가는 중간 지역 정도에 해당된다. 법정동 '매교동(梅橋洞)'과 '교동(校洞)'을 관할한다.

교동은 수원 향교가 지금의 화성시 화산동 융건릉 부근에서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부르게 된 지명으로, 『화성지』에는 '남부면 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교도은 옛 산루리(山樓里) 일부와 합해져 '산루리'가 되었다. 이어 1931년 '궁정(宮町)'이라는 일본식 행정지명으로 바뀌었다가 해방이 되고 난 이후 1949년 8월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이 될 때, '교동'으로 지명이 복원되었다.

'매교동(梅橋洞)'은 이 지역에 있던 유천(현 수원천)을 가로지르는 다리인 '매산교(梅山橋)'가 정조 때 '매교(梅橋)'로 개칭이 되면서 유래한 것이다. 매교의 원래 이름이 매산교였기에 『호구총수』에 나오는 '광교면 매산리'가 현재의 매산동일 것으로 추정이된다. 매산리는 정조에 의해 수원 읍치가 이전을 한 이후 남부면 산루동 지역에 속하게 된다. 산루동은 대한제국 말까지 남아있었다가,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남부면의 상유천, 세동과 안용면 독산리 등과 함께 '안용면 세리(細里)'에 편제가 되었다가, 1931년

수원면이 수원읍이 되면서 일본식 행정지명 '남부정(南部町)'이 되었다. 1949년 수원읍이 시로 승격이 되면서 '매교동'이 신설되면서 오늘날의 동(洞)이름 '매교동(梅校洞)'이 사용되기 시작을 하였다. 1963년에는 교동과 함께 행정동 '매교동' 관할이 되었다.

(3) 매산동(梅山洞)

매산동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호구총수』(1789)에 광교면에 '매산리(梅山里)'와 '인동리(仁洞里)' 2개 마을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에 간행된 『화성지』에는 '매산리'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 수원군 남부면 19개 동리들 중 '매산리'가 기록되어 있으며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에는 수원면 소속 6개 마을 중 '매산리(梅山里)'가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수원면 매산리는 경부선 철도 동쪽 지역에 있는 매산리 일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1931년 매산리는 '매산정(梅山町)'이라는 일본식 행정지명으로 개명이 되었고, 3개의 정목(町目)으로 분동이 되었다. 해방 후인 1949년 8월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이 될 때, 매산정 1·2·3정목(町目)은 각각 매산로 1·2·3가로 지명이 변경되었다. 1963년 동(洞)을 통합할 때 '매산동'이 만들어졌다.

(4) 우만동(牛萬洞)

구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만1동과 2동 2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법정동이다. 『화성지』에는 남부면 '우만리(牛萬里)'로 기록되어 있다.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남부면의 '인계동'과 '구천동' 일부와 합하여 '태장면 인계리'로 되었다. 1936년 수원읍이 확장을 할 때, 수원읍으로 편입이 되면서 '우만정(牛萬町)'이라는 일본식 행정지명으로 개명이 되었다.

해방 후인 1949년 8월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이 되자 '우만동'이 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1963년 1월 동(洞) 통합을 할 때 지동과 함께 '지만동(池萬洞)' 관할이 되었다. 이후 1990년 1월 수원시 조례 제1607호에 의해 지만동은 다시 지동과 우만동으로 분동이 되었다. 2년 후인 1992년 8월에 지동의 일부가 우만동에 편입이 되기도 하여 현재의 우만동이 탄생하게 되었다.

(5) 지동(池洞)

일제 강점기 이전 자료에는 '지동'이라는 지명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후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 수원군 남부면 19개 동리 중 '지동(池洞)'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며,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에는 수원군 남부면 지동과 구천동 일부를 '태장면 지리(台章面 池里)'라는 지명으로 통합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따라서 1914년 전후로 '남부면 지동'에서 '태장면 지리'로 변경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후 수원읍으로 편입이 되면서 '지야정(池野町)'으로 명칭이 일본식 지명으로 바뀌었다가 1949년 다시 원래의 이름 '지동(池洞)'을 되찾았다.

그림 19 1932년 경기도 수원군 군세일반(출처:수원박물관)

1963년에는 우만동과 함께 '지만동(池萬洞)' 관할로 들어갔다가 1990년 지동과 우만동으로 다시 분동을 하게 된다.

(6) 인계동(仁溪洞)

『호구총수』에 광교면 소속의 2개 마을 중 '인동리(仁洞里)'가 기록되어 있다. 이 인동리가 지금의 '인계동'으로 추정이 된다.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는 수원군 남부면 소속 19개 동리들 중 하나로 '인계(仁溪)'가 기록되어 있으며,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에는 수원군 태장면 13개 리 중 하나인 '인계리'로 '인계'와 '우만리' 그리고 '구천동(龜川洞)' 일부를 통합하여 '인계리'로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최근까지 있었던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위쪽 자연마을을 예로부터 '인도내', '인도래' 혹은 '인계'라고 불렀다. 인계동은 1936년 수원읍으로 편입이 되면서 '인계정(仁溪町)'이라는 일본식 행정지명으로 개명이 되었다가, 해방 이후 1949년 8월 지금의 '인계동'으로 바뀌었다.

(7) 행궁동(行宮洞)

수원 화성 성곽 내 9개 법정동과 성곽 밖의 3개 법정동을 통합하여 만든 행정동이다. 수원 구시가지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현재 행궁동이 관할하는 지역은 수원시 외곽의 신시가지 개발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화성지
북수동	옛 북수동
	보시동(普施洞)
신풍동	옛 신풍동
	군기동
팔달로	옛 남창동 일부
	옛 구천동 일부
	산루동 일부
남창동	옛 남창동 일부
영동	옛 구천동 일부
중동	옛 산루동
구천동	옛 구천동
남수동	옛 남수동
매향동	옛 매향동

시 외곽 변두리가 새롭게 개발 · 확장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거주 인구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일어나 1961년부터 몇 차례 통합 행정동이 설치가 되다가, 결국 2007년에 '행궁동'이라는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정조가 팔달산 아래로 신읍치를 옮긴 이후 부내(府內)를 남부면 20개 동과 북부면 14개 동(洞)으로 재편·관할하게 하였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의 행궁동에 해당한다. 현재의 법정동과 『화성지』에 나오는 동(洞)들과 연결을 해보면 옆의 그림과 같다.

한편, 팔달로 대부분 지역은 수원군 남부면 산루동과 구천동 지역으로, 1914년 수원면과 태장면으로 나뉘었다가 1931년 수원면이 읍으로 승격을 하면서 본정(本町)1·2·3·4정목(町目)이란 일본식 행정지명으로 변경이 되었다. 해방 이후 1949년 8월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이 되면서 본정(本町) 4정목(町目)은 팔달로 1가로, 본정 3정목은 팔달로 2가로, 본정 2정목은 팔달로 3가로 복원되었다.

신풍동(新豊洞)의 경우에는 북부의 14개 동(洞)의 하나로 『수원군읍지』(1899)에 '신풍동(新豊洞)'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1914년 4월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북부면의 군기동, 신풍동, 장안동을 통합하여 '신풍리'라 하고 수원면에 편제하였다. 그러다가 1931년 4월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격이 되자 장안동 지역이 '장안정(長安町)'으로 분리되어 나가고, 신풍리의 나머지 지역은 '신풍정(新豊町)'이라는 일본식 행정지명을 갖게 되었다. 해방이 되고 난 후 1949년 8월 수원읍이 시로 승격이 되면서 원래대로 '신풍동'으로 복귀하였다. 그리고 1963년 1월 북수동과 통합하여 함께 신안동 관할이 되었고, 1988년 장안구 관할에 있다가 2003년 팔달구로 옮겼다. 한편 1914년 신풍리에 흡수 · 통합된 '군기동(軍器洞)'이 있었는데, 군기동은 『화성지』나 『수원군읍지』에 나오는 수원군 북부면 군기동에 해당한다. 화성이 건설될 때 군기고가 있었던 곳이라 하여 생겨난 지명

이었다. 신풍리에 병합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독립된 동으로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영동(榮洞)'은 본래 수원군 남부면 산루동 지역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수원면 산루리가 되었다가, 1931년 분동을 하여 '영정(榮町)'이라는 일본식 지명을 가지게 되었다. 1949년 수원읍이 시로 승격할 때 고유의 지명인 '영동(榮洞)'을 되찾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수동(南水洞)'은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 수원군 남부면 남수동 지역으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에는 수원면 6개 리(里) 중 하나로 남부면 남수동과 매향동을 합해서 '남수리'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914년 수원면 남수리가 되어 매향동을 병합하였다가 1931년 수원읍이 되면서 '남수정(南水町)'과 '매향정(梅香町)'이라는 일본식 행정지명으로 개명이 되었다.

1949년 8월 수원읍이 시로 승격을 할 때 남수동과 매향동으로 고유의 지명을 되찾게 되었다.

'매향동(梅香洞)'도 앞서 살펴본 남수동과 함께 본래 수원군 남부면 매향동 지역이었다. 1914년 수원면 남수리에 편입되었다가 1931년 수원읍으로 승격이 되면서 '매향정(梅香町)'과 '남수정(南水町)'으로 분동이 되었다. 해방 이후 1949년 8월 수원시 '매향동(梅香洞)'으로 복귀하였다.

'남창동(南昌洞)'은 『화성지』와 『수원군읍지』에 수원군 남부면 '남창동(南倉洞)'으로 기록되어있었으며, 수원부내(水源府內) 남쪽에 창고가 있었던 곳이기에 생긴 지명이었지만,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는 수원군 남부면 '남창동(南昌洞)'으로 기록이 되어 창고의 뜻인 '倉' 지명을 번창한다는 뜻인 '昌'으로 바꾸어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1914년 수원면 '남창리(南昌里)'가 되었다가 1931년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격하면서 '남창정(南昌町)'이라는 일본식 행정지명을 갖게 되었다. 해방 이후 1949년 '남창동(南昌洞)'으로 복귀하였다.

'구천동(龜川洞)'은 본래 수원군 남부면 구천동 지역으로, 거북산(龜山) 아래에 있는 마을로 '거북뫼' 또는 '거북미' 등으로 불려지다가, 옆에 흐르는 화천(華川, 현 수원천)의 '천'을 따와'구천동'이라 하였다고 한다.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는 수원군 남부면 19개 동리 중 하나로 '구천동(龜川洞)'이 기록되어 있으며,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에는 수원면 소속의 6개 리(里) 중에 '산루리'가 나오는데 이곳은 교동과 산루동 일부 그리고 '구산동(龜山洞)'을 합하여 만든 마을이라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1914년 교동과 산루동 일부 그리고 구산동(구천동의 별칭)이 산루리가 되었다. 1931년 산루리 중에서 '구산(龜山)'을 분리하

여 '구천정(龜川町)'이라 하였다가 해방 이후 1949년 구천동으로 복귀하였다.

'중동(中洞)'은 본래 수원군 남부면 산루동 지역이었으나, 1914년 수원면 산루리가 되었다. 1931년 산루리에서 분리되어 '본정 1정목(本町 1町目)'이라 하였다가 1949년 8월 일본식 행정지명에서 당시 수원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중동'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8) 화서동(華西洞)

『호구총수』 공석면 소속 3개 마을 중 '방축리(防築里)'가 나오는데 이 지역 인근이 지금의 화서동 지역이다. 『화성지』와 『수원군읍지』에는 수원군 북부면 서둔동촌(西屯東村)과 고양동(高陽洞) 그리고 화산동(花山洞)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는 수원군 북부면의 동촌(垌村)과 고양동 그리고 화산동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동촌(東村)과 고양동 그리고 화산동을 통합하여 '동리(東里)'라 하고 북부면에서 수원군 일형면으로 이속하게 하였다고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그림 20 1914년 제작된 5만분의1 『조선지형도』

1936년 '동리(東里)'는 수원읍에 편입이 되면서, '화서정(華西町)'이라는 일본식 행정지명으로 개명이 되는데, 이때부터 '화서(華西)'라는 지명을 가지게 되었다. 1949년 수원읍이 시로 승격이 되면서 수원시 화서동이 되었다. 1963년에는 고등동과 함께 합병이 되면서 '고화동(高華洞)' 관할이 되었다가, 1978년 분동이 되었고 1992년에는 화서1동과 화서2동으로 다시 분동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예전에 '서둔동촌(西屯東村)'이 있던 곳은 '방축촌(防築村)' 또는 '동수문촌(東水門村)'이라고도 불렸으며, 동말 또는 동촌 등으로 불려졌다. 아마도 이곳에 축만제(지금의 서호)가 있었기 때문이라 본다. 또한 화서2동은 지금도 '꽃뫼' 또는 '꼴미'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4) 영통구(靈通區)

수원시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원시 4개 구(區)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구(區)이다. 현재 12개 행정동과 7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호구총수』에 장족면 소속으로 '매탄리(梅呑里)'와 '권선리(權善里)'[5]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의 팔달구는 원래 장족면 관할 지역이었다. 18세기 이후에 생산된 고지도를 보면 장족면을 중심으로 좌측은 고적면(古赤面, 후에 고등촌면)이고 우측은 동진면(東鎭面)이었다. 고적면은 신읍치 이후에 남부면에 편입이 되고 동진면은 후에 동북면으로 명칭이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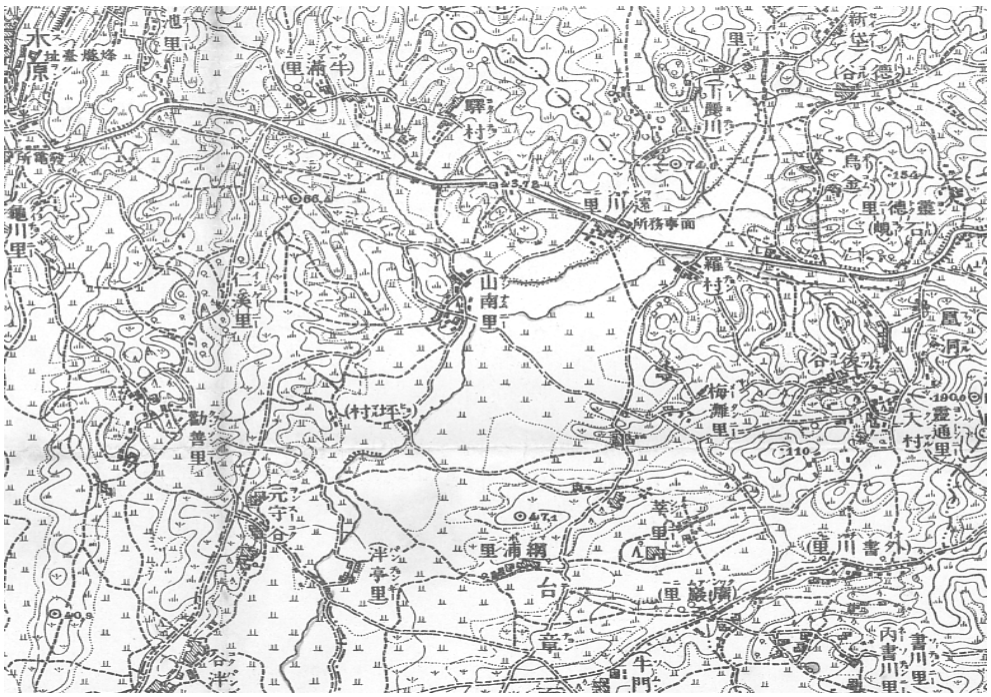


그림 21 1914년 제작된 5만분의 1 지형도에 나타나는 현 영통구 관할지역

『화성지』에는 장족면이 '장주면(章州面)'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장주면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태촌면(台村面)'과 합해지면서 '태장면(台章面)'이 되었다. 1949년 수원읍이 시로 승격이 되면서 화성군 관할에 있다가 1963년 화성군 태장면 원천리 · 권선

5) 『호구총수』에 기록된 '권선리(權善里)'와 『화성지』에 기록된 '권선리(勸善里)'는 이름은 같지만, 한자 '權'이 '勸'으로 바뀌어 기록되어 있다.

리 · 매탄리가 수원시로 편입되었다. 이후 이 지역은 1988년 권선구에 편입이 되었다가 1993년에 팔달구에 다시 편입이 되었다가, 다시 2003년 영통구에 편입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매탄동(梅灘洞)

『호구총수』에 장족면 소속 동리(洞里)로 '매탄리(梅呑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후 『화성지』와 『수원군읍지』(1899) 등에는 장주면 소속의 '매곡리(梅谷里)'로 표기가 되어있다가, 일제강점기인 1912년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장주면 관할에 '매탄(梅灘)'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의 매탄1·2·3·4동은 수원군 장주면(예전의 장족면) 매탄, 산남리, 나촌의 지역으로 1914년 매탄(일명 매탄리)과 산남리를 합하여 "매탄리(梅呑里)'라 하고 수원군 태장면 관할 아래에 두었다. 1949년 수원읍이 시로 승격을 할 때, 화성군에 편제되었다가 1963년 수원시로 편입이 되었다. 이때 '원천리'와 함께 '매원동' 관할지역 속했다. 이후 1985년 매탄동으로 분동이 되었으며, 현재는 4개의 행정동 매탄1·2·3·4동 4개의 행정동이 있다.

(2) 원천동(遠川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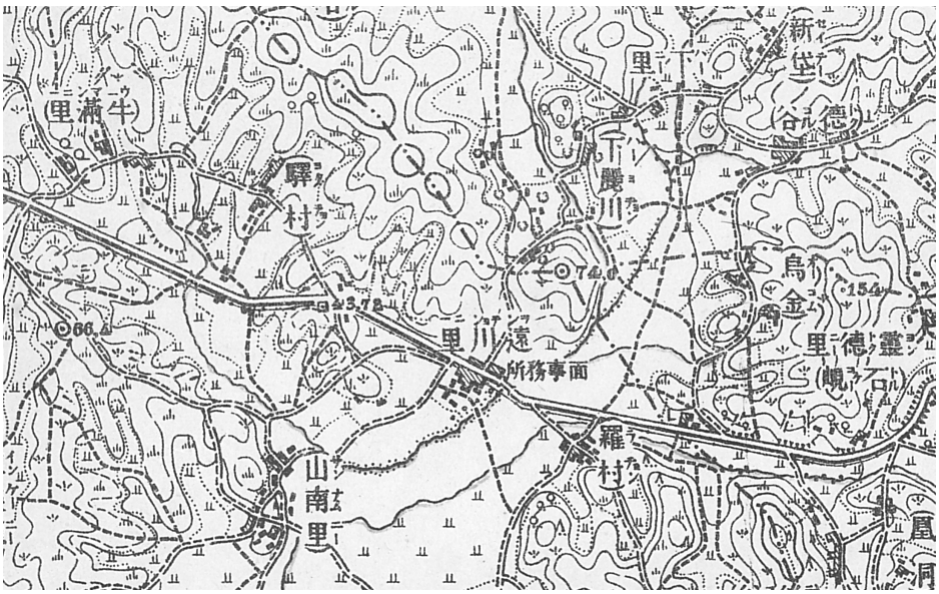


그림 22 1914년 제작된 5만분의 1 지형도

현재 원천동 · 이의동 · 하동 3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동이다. 법정동 원천동 동쪽에 하동이 있고, 북쪽에 이의동이 있다. 원천동은 『화성지』에 장주면 소속의 '원천(遠川)'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먼내' 또는 '머내'가 된다. 예전 원천저수지 남쪽에 있던 자연마을의 지명이었다.

『화성지』에는 장주면 관할 동으로 모두 9개 동이 있었는데, '원천(遠川)'과 더불어 '궁촌(宮村)'과 '구역촌(舊驛村)'이 기록되어 있다.

이 '궁촌'과 '구역촌'이 원천동 내에 있었던 자연마을 '궁말'과 '역말'에 해당한다. '역말'은 옛 장족역(長足驛)이 있던 곳으로, 정조 20년(1796) 화성에 '영화역(榮華驛)'이 신설되면서 '장족역'은 사라지고 마을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아주대학교 병원이 있는 지역이 이곳에 해당되며, '궁말'은 현 국립지리원과 법원 입구 인근에 있던 자연마을이었다.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 장주면 소속의 14개 동리 중 궁촌, 원천, 역촌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1914년 장주면과 태촌면이 합병하여 '태장면'이 되면서 이들 역시 태장면 '원천리'로 편제가 되었다.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에 따르면 '원천리'는 이전 '원천(遠川)'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궁촌'과 '역촌'은 그 이전에 이미 '원천'으로 합병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법정동 원천동은 1949년 수원읍이 시로 승격이 될 당시 화성군 태장면 관할로 있다가, 1963년에 수원시에 '원천동'으로 편입이 되었다. 법정동 '이의동'과 '하동'은 원래 용인군 지내면(枝內面) 소속으로 1983년에 수원시로 편입이 되었다. 편입 당시 이의동과 하동을 관할하는 '이의동'이 신설되었지만 행정동 '원천동' 관할 아래에 있었다. 이후 2007년 5월 광교신도시 조성에 따라 영동고속도로 남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과 기흥구 영덕동 일부를 하동에 편입하고, 고속도로 북쪽 하동 일부를 용인시 상현동으로 편입하였다. 2007년 8월 이의동을 행정동 원천동에 통합을 하였고, 2012년 12월 법정동 이의동과 하동이 행정동 원천동에서 광교동으로 분동을 하였으며, 이후 2015년 1월 광교동은 1동(옛 이의동)과 2동(옛 하동)으로 분동을 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영통동(靈通洞)

『호구총수』 기록에 따르면, 지금의 영통동 · 이의동 · 하동에 해당하는 곳으로 용인군 지내면(枝內面) 의곡덕동(義谷德洞)과 하동(下洞) 그리고 영통리(靈通里)이 있다. 그러나 『화성지』에는 장주면 관할에 '영통(靈通)'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영통동 일대가 수원부로 편입된 시기는 1789년 이후에서 1831년 사이가 아닐까 한다. 장주면과 태촌면이 합병되기 이전인 1912년에 출판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 의하면 '영통'은 장주면 관할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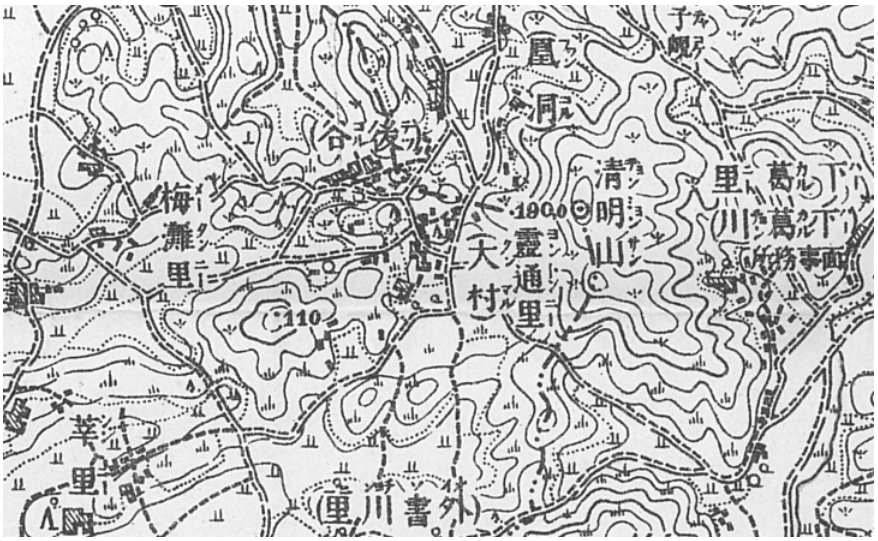


그림 23 1914년 제작된 5만분의 1 지형도

하지만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에 따르면,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장주면과 태촌면이 합병을 하면서 새로이 '태장면'이 신설되었으며, 태장면 관할에 '영통리'가 기록되어 있으며, 예전의 '영통' 지역이라 하였다. 1963년 화성군 태안면에 편입되었다가, 1994년 수원시로 편입이 되면서 '영통동'이 되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수원권역 행정구역 변천 과정과 지명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행정구역은 각 지역의 역사와 뿌리 깊은 전통이 스며있는 역사적 산물일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강력한 귀속감을 심어주는 곳이다.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이 강탈되기 전 조선왕조의 지방행정 체제는 군현제를 근간으로, 도(道) 아래 주·부·군·현을 두었으며 그 아래에 면(面:坊·社)과 리(里:洞·村)를 행정구역으로 두었다. 하지만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강화할 목적으로 기존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통폐합을 통한 전면적 개편을 하였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정치와 행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 문화와 정신 등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수원지역의 경우 일제강점 초기 경부선 개설과 함께 수원역이 개통이 되면서 많은 일본

거류민과 함께 식민자본의 진출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인하여 지역의 급속한 팽창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수원이 경기 남부 지역의 식민지 거점 도시로 성장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17년 수원이 전국 41개 지정면 중 하나로 지정이 되고, 1931년 수원읍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뒤이어 1931년 수여선, 1937년 수인선의 개통은 수원을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이자 초기 농업자본에 이은 식민 산업자본의 훌륭한 투자처로 더욱 각광을 받게 하였다. 이것은 수원읍 관할구역의 대대적인 확장을 가져왔으며 급기야 인접하고 있던 수원군 소속의 많은 지역이 수원읍으로 편입이 되었다. 읍 승격 당시 12개 정(町)이었던 것이 불과 5년 후 1936년 27개 정(町)으로 확대가 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수원군 수원읍은 수원시로 승격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화성군으로 개편이 되면서 지금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수원의 도시성장은 수원뿐만 아니라 수원의 주변 지역 행정구역의 개편을 가져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근대화를 이루어야 했던 시간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국권 침탈과 식민지 수탈정책으로 인하여 우리의 전통적 행정구역 개념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정구역 통폐합이 진행되었으며, 1914년 일제의 부·군 통폐합에 의해 기존의 부·군 중 약 1/3 정도가 통합이 되거나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6] 이로 인한 지역 간의 통폐합과 지명의 통폐합은 지금도 우리 사회 전반에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지명들은 그 역사적 근거가 희박한 채로 여전히 통용되고 있고, 심지어 일제에 의해 왜곡된 것조차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와 전통은 새로 세우기는 무척 힘들다. 새로운 전통과 역사를 세우기 전에 우리의 무관심과 홀대 속에 사라진 역사와 전통을 찾아 제자리에 세우는 것이 더 시급한 요즘이라 하겠다.

---

6) 양보경,김경란,「일제 식민지 강점기 읍지의 편찬과 그 특징」,THE JOURNAL OF APPLIED GEOGRAPHY,(22),2001,p104.

시흥권역의
행정구역 조정과 통폐합과정

시흥권역의 행정구역 조정과 통폐합과정

도형래(군포시민신문 기자)

1. 들어가며

시흥시는 경기도 중서부에서 경기만을 끼고 있는 도시다. 동쪽으로는 경기도 광명시 및 안양시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으로는 경기만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쪽으로는 경기도 안산시, 북쪽으로는 경기도 부천시와 각각 경계를 이룬다.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6° 43′ 03″(정왕동) ~ 126° 53′ 51″(조남동)에 걸쳐 있고, 북위 37° 18′ 43″(정왕동)~37° 28′ 05″(대야동)에 이른다. 동서 간의 거리는 17.5㎞이고, 남북 간의 거리는 17.4㎞이다. 면적은 135.79㎢이다.[1)]

지금의 시흥시가 확정된 것은 1989년 1월 1일이다. 시흥시는 당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미금시, 하남시, 오산시와 함께 설치됐다. 일제 강점기 때 과천군, 안산군, 시흥군을 묶어 시흥군으로 개편했다. 이후 시흥군은 해방 전에는 서울의 확장으로 해방 후에는 수도권 도시화로 서울에 편입되거나 군내 도시가 생겨나 분리·독립하는 방식 등으로 행정구역의 급격한 부침을 겪었다.

시흥군(시흥시)의 인구수 변화를 보면 시흥군의 급격한 행정구역 변천을 확인할 수 있다.

년도	인구수	비고
1966년	128,254명	
1970년	183,767명	
1975년	206,835명	1973년 부천군 소래면 편입 및 안양읍(안양시 승격) 분리

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시흥시' 항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57523&cid=63856&categoryId=63877

년도	인구수	비고
1980년	288,913명	
1985년	163,671명	1981년 소하읍 병합 및 광명출장소(광명시 승격) 분리
1990년	107,176명	1986년 반월출장소(안산시 승격) 분리, 과천출장소(과천시 승격) 분리. 1989년 군포읍(군포시 승격) 분리, 의왕읍(의왕시 승격) 분리 1989년 시흥군, 시흥시 승격
1995년	139,262명	1995년 시흥시 화정동 일부, 수암·장상·장화동(안산동) 분리
2000년	318,083명	
2005년	387,239명	
2010년	403,797명	
2015년	398,256명	
2020년 8월	489,077명	

표 1 경기도 시흥군(시흥시) 인구 추이 / 자료 : 시흥시 홈페이지 인구현황 재구성

1960년대 이후 서울·수도권이 형성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시기이지만 시흥군은 인구가 되래 줄었다. 서울의 팽창으로 서울로 병합되거나, 시흥군 내에 1973년 안양시가 출범한 것과 같이 새로운 시가 생겨나면서 분리·독립했기 때문이다.

1980년 29만 명에 달하던 시흥군 인구는 1985년 16만여 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당시 시흥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던 광명출장소가 광명시로 승격해 분리됐기 때문이다.

시흥군 인구가 가장 급격하게 줄어든 시기는 1980년 후반에 들어서다. 반월출장소가 안산시로 분리됐고, 과천출장소 역시 과천시로 분리됐다. 군포읍, 의왕읍 역시 각각 군포시와 의왕읍으로 분리돼 나갔다. 남은 지역이 지금의 시흥시가 됐다. 1990년 시흥시의 인구는 1966년 시흥군 인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10만 명 남짓을 기록했다. 이후 시흥시는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 2020년 8월 현재 48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2. 일제 이전의 시흥군

시흥시는 고구려때 잉벌노현(仍伐奴縣)이었다. 지금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역시 잉벌노현 소속이었다고 한다. 고구려 잉벌노현은 신라의 통일 이후 경덕왕 때 곡양현으로 개칭돼 율진군의 속현이 됐다. 고려 초에는 이름을 금주(衿州)로 고쳤다. 고려 현종 9년 수주의 속현이었다가 지명이 금천(衿川)으로 바뀌었다.

조선에 들어와서 시흥시 지역은 조선 초(태종 14년, 1414년) 과천과 합쳐 금과현이 됐다. 이는 두 달 만에 원래로 돌아가고 지금의 양천구, 강서구 지역인 양천현과 통합해 금양현이라고 불렸지만 이 역시도 한 해만에 혁파됐다. 이후에는 금천(衿川)이라고 하였는데, 금천현은 현내면, 동면, 서면, 남면, 상북면, 하북면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동면에 상도리, 봉천리, 신림리, 난곡리, 문교리 등이, 상북면에 당산리, 양평리, 선유봉리, 하북면에 방학호리, 고사리 등이 속해 있었다.

시흥이라는 이름은 1795년, 정도대왕 때에 들어서 생겨났다. 정조 때 시흥현으로 개칭하면서 현령에서 현감으로 승격했다.

1895년, 고종 32년 '23부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현제도가 폐지되고 시흥군으로 승격됐다. 당시는 인천부 관할이었다. 인천부는 속군으로 인천, 부평, 강화, 교동, 김포, 통진, 양천, 시흥, 과천, 안산, 수원, 남양 등을 두었다.

'23부제' 개편은 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행정구역 개편이다. 8도를 해체해 전국을 23부 337군으로 분할한 이 개혁은 1년 만에 다시 '13도제'를 돌아왔다. 조선시대 도(道)아래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 등으로 다양한 등급의 행정구역의 혼란을 야기하고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실시된 개혁이다.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이 모두 군으로 일원화됐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구역 개혁은 1896년 아관파천과 개혁 주체 세력의 실각으로 1년 만에 폐지됐다. 시흥군은 1896년 8월 1일 기존의 8도제를 보완한 '13도제'로 돌아오면서 경기도 시흥군이 됐다. '13도제'는 기존의 8도제에서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를 남도와 북도로 행정구역을 분할한 제도이다.

13도제 당시 경기도는 행정구역은 3부 34군으로 구분됐다. 1901년 8월 29일 도청을 수원에서 경성부로 이전하고 중앙직할이던 한성부를 경성부로 개칭하여 경기도에 편입했다.

당시 시흥군의 중심은 시흥리가 있었던 서울 금천구 일대이다. 이 지역은 1963년까지 경기도 시흥군 동면에 속했던 곳으로 1910년까지 시흥군의 중심이었다. 1911년 일본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영등포로 군청이 옮겨지면서 시흥군의 중심도 변화했다. 영등포는 1930년대까지도 시흥군의 중심이었지만 일제의 '경성부 확대'에 따라 서울에 편입됐다. 이후 1945년까지 시흥군청은 시흥군이 아닌 경성부 영등포에 있다가 안양읍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3. 1914년 부군 통폐합과 조선총독부의 행정 구역 개편

경술국치 이후 1914년 4월 1일, 일제의 조선총독부는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대규모 행정 구역 개편을 단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군면 통폐합이다.

1914년 부군면 통폐합에 앞서 1911년, 시흥군 지역은 동리(洞里) 통폐합이 진행되었다. 조선총독부는 9호 고시를 통해 지금의 양평동, 당산동, 신길동, 구로동, 독산동, 시흥동, 하안동 등의 지역이 정해지게 된다. 이 고시에서 조선통독부는 1911년 4월 17일 경기도장관 명의로 "융희 4(1910)년 경기도령 제12호에 의하여 시흥군 면내 동리의 명칭 및 그 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고 공고했다.

면이름	명칭 및 구역	구 명칭 및 구역
하북면	신길리	신길리·상방하관리
	번대앙리	번대암리·우와피리
	영등포	영등포·하앙하관리·중종리
싱북면	도림리	사촌리·도야미리·원지목리
	구로리	구로1리·구로2리
	당산리	양진리·당산리
동면	독산리	독산리·문교리
	신림리	서원리·신림리·난곡리
	상도리	상도리·성도화리
서면	일직리	일직리·자경리
	소하리	소하리·가리대리
	하안리	율일리·하안리
	철산리	철산리·이성리
남면	광명리	광화대리·광명리
	노온사리	노온사리·아방리
	가학동	노온곡리·가학동·유동리

표 2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9호 / 출처 : 관보로 보는 안양근대사 (1910년 ~ 1919년)

또 조선총독부는 이음해인 1912년 10월 11일 경기도고시 제10호를 통해 군내면 군내동을 시흥리로 남면 가학동을 가학리로 이름을 바꾼다.

면명	구역 및 명칭	옛 구역 및 명칭
군내면	시흥리	군내동
남면	가학리	가학동

표 3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 10호 / 출처 : 관보로 보는 안양근대사 (1910년 ~ 1919년)

1914년 4월 1일 시흥군과 인근의 과천군, 안산군이 통합하여 시흥군으로 개편되었다. 이 부군면 통폐합으로 지금의 과천시·안양시·군포시를 비롯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일원을 포함하는 과천군, 현제 안산시와 시흥시 일부를 포함한 안산군이 시흥군으로 통합됐다.

명칭	위치	관할 구역
시흥군	영등포	시흥군 일원, 과천군 일원, 안산군(월곡면, 북방면, 성관면을 제외) 일원

표 4 조선총독부령 제 111호 / 출처 : 관보로 보는 안양근대사 (1910년 ~ 1919년)

부군면 통폐합이후 1931년 4월 1일 시흥군 군청소재지인 영등포면이 영등포읍으로 승격됐다. 하지만 이후 5년 뒤인 1936년 2월 14일 영등포읍 가운데 핵심 지역인 영등포리 등 4개 리와 북면에 속하는 노량진리, 흑석리, 번대당리 일부, 도림리 일부, 동면 상도리 등이 경성부에 편입됐다. 경성부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역은 동면에 이관됐다.

개편 전	개편 후
- 시흥군 북면 도림리 일부 (상도천 우안, 현재의 도림동·문래동)·신길리·본동리(本洞里)·노량진리·흑석리·동작리·번대방리 일부(상도천 우안)	- 경성부 영등포출장소 도림정·신길정·본동정·노량진정·흑석정·동작정·번대방정
- 시흥군 영등포읍 영등포리·당산리·양평리	- 경성부 영등포출장소 영등포정·당산정·양평정
- 시흥군 동면 상도리	- 경성부 영등포출장소 상도정
- 시흥군 북면 도림리·번대방리 각 일부(상도천 좌안), 구로리	- 동면 도림리·번대방리·구로리

표 5 조선총독부령 제8호 (1936년 2월 14일)에 따른 시흥군 행정구역 개편

이는 조선총독부의 '대경성 계획'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이다. 일제의 대경성 계획으로 사대문 안으로 국한됐던 경성이 동쪽으로는 청량리, 서쪽으로는 신촌과 홍익대학교 일대, 남쪽으로 영등포, 북쪽으로 북한산까지 확대됐다.

1942년까지 시흥군 관한 구역은 안양면 5개리, 서면 8개리, 신동면 8개리, 남면 5개리, 과천면 6개리, 동면 6개리, 군자면 14개리, 수암면 19개리 등 8면 71개리였다. 당시 면적은 24,513방리에 인구는 59,553명에 달했다.

면 명	면적 (방리)	인구(명
북	1,535	
신동	2,556	6,481
동	3,687	9,006

면 명	면적 (방리)	인구(명
서	2,908	6,445
과천	2,299	4,215
서이	2,442	9,234
남	1,335	3,969
수암	3,815	8,594
군자	3,497	11,609
영등포	440	
계	24,513	59,553

표 6 해방전 시흥군의 면적과 인구 / 출처 : 관보로 보는 안양근대사 (1910년 ~ 1919년)

경기도는 1945년 8월 15일 3부, 20군, 10읍, 229면으로 해방을 맞았다. 같은 해 11월 3일 38도선을 경계로 경기도, 황해도를 달리하여 3부 21군 10읍 231면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다.

4. 해방 이후 서울의 확대와 시흥군

서울의 확장은 일제 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해방직후인 1946년 서울특별 자유시, 1948년 서울특별시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이름이 바뀌면서 확장을 거듭했다. 서울의 확장으로 1949년 시흥군 구로리, 번대방리, 도림리 등 3개리가 서울에 포함되면 시흥군의 중심지는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1941년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됐고, 1947년 11월 29일 아직 영등포에 있던 시흥군청이 안양면으로 이전됐다.

1949년 이승만 정부 수립 1년 후 대통령령 162호 '읍 설치에 관한 건'에 의거해 시흥군청 소재지인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됐다. 한편 당시 관보는 "경기도에 좌의 읍을 설치한다"면서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의 설치와 함께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읍'의 설치를 공고했다.

명칭	위치	관할 구역
안양읍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	시흥군 안양면 일원

표 7 읍면설리에 관한 건 (대통령령 제162호, 1949년 8월 13일 제정)

이듬해 인 1950년 6·25 한국전쟁 발발했고, 1954년 연천군 및 포천군의 북부지역은 정식 수복되었으나 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옹진군, 연백군의 5개 시·군 중 옹진군의 2개 면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수복되지 않음으로써 경기도는 2개 시

19개 군 8개 읍을 관할하게 되었다.

6·25 이후 사회 혼란으로 행정구역의 변천이 한동안 없었다. 하지만 1963년 1월 1일 서울의 대대적인 확장으로 시흥군 일부 지역의 세 번째 서울 편입이 이뤄진다. 당시 편입된 지역은 신동면 잠실리 등 8개리 전역과 동면 시흥리, 신림리, 봉천리, 가리봉리, 독산리 등 5개리가 서울 영등포구에 포함됐다. 이 때 화성군 일왕면 9개 리가 시흥에 편입해 의왕면으로 이름을 바꿨다. 또 동면 안양리와 서면 박달 리가 안양읍에 편입됐다.

1963년 9월 17일 시흥군 광명리와 인근 철산리, 하안리와 과천면 전역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다(건설부 고시 제547호, 1963년 9월 17일). 이는 서울 도시계획에 광명리 인근과 과천면을 포함해 서울시 확장 대상지로 지정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개편 전	개편 후
시흥군 동면 시흥리·독산리·가리봉리·신림리·봉천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악출장소, 영등포구 시흥동 소재) 시흥동·독산동·가리봉동·신림동·봉천동
시흥군 신동면 서초리·방배리·잠실리·반포리·양재리·우면리·신원리·사당리[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동출장소, 영등포구 양재동 소재)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우면동·신원동·사당동
동면 안양리	안양읍 신안양리
서면 박달리	안양읍 박달리
화성군 일왕면 고천리·왕곡리·이리·삼리·오전리·내손리·포일리·청계리·학의리[3]	시흥군 의왕면 고천리·왕곡리·이리·삼리·오전리· 내손리·포일리·청계리·학의리

표 8 1963년 행정구역 개편

5. 안양시의 분리와 '동체 없는 나비'가 된 시흥군

서울과 함께 경기도 역시 인구 집중이 일어나면서 행정구역도 급변하게 된다.

경기도에에 가장 먼저 시로 승격한 지역은 수원군 수원읍이다. 1949년 수원군 수원읍이 수원시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화성군이 됐다. 같은 해 이전까지 인천부가 인천시로 개칭됐다.

1963년 의정부시가 승격했고, 1973년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등이 설치됐다.

1973년 시흥군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하면서 시흥군은 큰 변화를 겪는다. 시흥군청이

2) 법률 제1172호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62년 11월 21일)
3) 법률 제1175호 시·군관할구역변경및면의폐치에관한법률 (1962년 11월 21일)

안양읍에 있었기 때문이다. 197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시설치와군의폐치분합에관한법률(법률 제2597호, 1973년 3월 12일 제정)'은 "서울특별시 주변의 군관할하에 있는 읍으로서 완전한 군시형태를 갖춘 지역을 시로 승격시켜 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경기도내 △성남출장소 △안양읍 △소사읍 등의 시로 승격했다.

또 이 법률 2항에서는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을 시흥군에, 부천군 계양면 및 오정면을 김포군에 부천군 영종면·북도면·용유면·덕적면·령흥면 및 대부면을 옹진군에 각각 편입한다"고 정했다. 부천읍을 시로 승격하면서 나머지 부천군을 폐지해 인근 지역에 나눠 붙인 셈이다.

개편 전	개편 후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安養里)·신안양리·박달리·비산리·일동리·이동리·호계리	안양시 안양동·석수동·박달동·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부천군 소래면 대야리·은행리·신천리·미산리·방산리·포리·안현리·매화리·도창리·금이리·무지리·과림리·계수리· 옥길리	시흥군 소래면 대야리·은행리·신천리·미산리·방산리·포리·안현리·매화리·도창리·금이리·무지리·과림리·계수리· 옥길리

표 9 1973년 시흥군 행정구역 개편

시흥군은 안양읍을 안양시로 독립시키고 부천군 소래면 신천리 등 14개 리를 포함하게 됐다. 이로 인해 시흥군의 위치가 동부 시흥과 서부 시흥으로 양분됐다. 두 지역 사이에는 다른 시·군이 위치한 모양새가 됐다. 이를 두고 시흥군지(1988)는 "시흥군의 자연 형상을 나비(蝶)에 비한다면 두 날개만 남도 두 날개 사이에 잇는 동체가 없어진 격이 됐다"고 평가했다.[4] 군청소재지 역시 시흥군이 아니라 동부 시흥과 서부 시흥 가운데에 위치한 안양시에 그대로 둬야 했다.

안양시가 떨어져 나간 지 7개월 뒤인 1973년 7월 1일 시흥군 서면 광명리 일부지역을 서울에 내주고 서울 영등포구 개봉동 일부 지역을 편입하는 관할구역 조정을 하게된다. 당시 제정된 '서울특별시및경기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법률 제2596호, 1973. 3. 12., 제정)'에 따라 시흥군은 서면 광명리 가운데 "679의15번일부·8의3번일부·679의17번일부·11의1번일부·15의1번일부·679의13번일부·119의7번일부·679의7번일부·679의9번일부·119의13번일부·120의5번일부·120의6번·121의2번일부"을 내어주고 서울 영등포구 개봉동 "411번일부·410의2번일부·412의11번일부·419의3번일부·372번일부·371번일부·332의1번일부·332의2번일부·412의19번일부·322번일부·317의3번일부·317의4번일부·317의5번일부·317의6번일부·412의15번일부·329의1번일부·403의104번일

4) 시흥군지편찬위원회,.『시흥군지』, 1988. 1쪽.

부·403의105번일부·403의106번일부"를 편입하게 됐다. 이 법령에 의해 서울은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구파발리, 진관내리, 진관외리 등을 편입했다.

그림 1 안양시에 있던 옛 시흥군청(출처 : 안양지역시민연대·안양지역정보뱅크). 시흥군청은 1936년 영등포에 있다가 1945년 안양읍(안양1동)으로 이전했다. 1977년 8월 안양6동에 새청사를 마련해 다시 이전했다. 이 청사에서 1980년 소래읍으로 이전했다.

1973년 말 안양시가 분리된 시흥군 행정구역과 면적, 인구는 다음과 같다.[5)]

명 칭	리 수	면적(㎢)	인구(인)
광명출장소	2	6.58	42,871
과천면	6	36.80	11,389
서면	5	31.86	20,026
남면	5	21.36	16,227
의왕면	9	40.52	14,221
수암면	19	61.01	15,524
군자면	14	55.95	19,560
소래면	14	54.14	21,983
계	74	308.22	161,801

표 10 1973년 시흥군 행정구역과 인구 / 출처 :『시흥군지』(1988)

5) 위의 책,『시흥군지』2쪽.

6. 광명시, 안산시,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와 시흥군

1976년 화성군 반월면 일부와 시흥군 군자면 수암면 일부에 '반월 도시개발 지원사업소'가 설치됐다. 설치 당시부터 서울의 공해산업을 이전할 '새 공업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 이 지원사업소는 3년 뒤인 1979년 '반월출장소'로 명칭을 바꿨다. 7년 뒤인 1986년 반월출장소는 안산시로 승격하게 됐다. 새 도시 건설을 미리 계획한 출장소였기 때문에 반월출장소는 시흥시 관할 지역이었지만 정부가 직접 관리했다.

중앙일보 2002년 2월 23일 자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월출장소를 직접 챙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측근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공단용지를 반월로 정하여 공업용수와 전력을 공급해서 서울에 있는 공장이 쉽게 빠져나가도록 유도해 주고, 반월과 서울은 거리가 가까워 그 사이에 주거지역들이 들어서면 도시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린벨트를 확장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해. 저 계획대로 시행해. 각부 장관들은 기본구상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대로 시행하고 총리와 부총리는 저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밀어주고…."라고 말했다.[6]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도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된 반월출장소에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섰고 결국 1986년 반월출장소는 안산시로 승격한다. 당시 안산시로 편입된 시흥군의 지역은 아래와 같다.

안산시 승격 이전		안산시 지명 (1986)	법정구역
화성군	반월면(일리, 이리)	반월동	일동, 이동
	반월면(사리)		사동
	반월면(본오리 일부, 팔곡이리)		본오동 일부, 팔곡이동
	반월면(본오리 일부)		본오동 일부
시흥군	시흥군 수암면(양상리, 부곡리, 월피리)	수암동	양상동, 부곡동, 월피동
	수암면(와리)		와동
	수암면(성포리)	중앙동	성포동
	수암면(고잔리)		고잔동
	군자면(신길리, 원곡리 일부)	군자동	신길동, 원곡동 일부
	군자면(성곡리, 목내리)	원초동	성곡동, 목내동
	군자면(원시리, 초지리)		원시동, 초지동
	군자면(원곡리 일부)	원곡동	원곡동 일부
	군자면(선부리)	선부동	선부동

표 11 안산시에 편입된 화성군과 시흥군 지역

6) 중앙일보 인터넷판 2002년 2월 23일자, [발굴특종]박정희 사후 20년만에 공개 – 국토개조개혁, https://news.joins.com/article/500022

華城군 半月면,始興군 君子·秀岩면 일부地域에

새工業都市건설

千3百萬坪에 人口20萬명

서울公害工場

4千百5億원 投入……내년着工·81년

주변 基準地價告示……公共用地 전면

首都圏 新都市位置図

在日韓國

朝總

日議員 6명、法相등

【東京=都局특파원】

그림 2 반월출장소 설립을 알리는 기사 / 출처 : '새공업도시 건설' 경향신문 1976년 10월 2일자 1면

1981년 당시 시흥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던 광명출장소와 시흥군 소하읍을 합쳐 광명시가 되었다. 출범 당시 보도 기사를 보면 광명시의 인구는 15만 명에 달했다. 당시 광명시는 서울에 편입되길 바랬던 것으로 당시 신문은 전한다.

개편 전	개편 후
시흥군 소하읍 광명리(光明里)·철산리·하안리·소하리(所下里)·일직리·가학리·노온사리	광명시 광명동(光明洞)·철산동·하안동·소하동(所下洞)·일직동·가학동·노온사동

표 12 1981년 시흥군 행정구역 개편

광명시 승격 이후 2년 후인 1983년 시흥군 소래읍 옥길2리·4리와 계수리 일부가 부천시로, 옥길1리·3리가 광명시로 편했다. 또 화성군 반월면 월암리, 초평리가 시흥군 의왕

그림 3 1982년 시흥군 행정지도. 당시는 동 시흥과 서 시흥으로 불렸다고 한다. 1978년 10월 18일자 경향신문 기사 '내년 국교(國校) 29곳 신설' 기사를 보면 1979년 지금의 초등학교인 '국민학교'가 지어지는 대상지역을 표기할 때 '東始興 始興1洞(동시흥 시흥1동)'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읍에 편입됐다.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1983년 1월 10일)에 의한 조치였다.

개편 전	개편 후
시흥군 소래읍 옥길1리·3리	광명시 옥길동
시흥군 소래읍 옥길2리·4리	부천시 옥길동
시흥군 소래읍 계수리 일부	부천시 계수동
화성군 반월면 월암리·초평리	시흥군 의왕읍 월암리·초평리

표 13 1983년 시흥군 행정구역 개편 *

1986년 시흥군 과천면(경기도 과천출장소) 역시 시로 승격했다. 과천시의 승격도 안산시와 같이 이미 계획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9년 경기도 과천지구 지원사업소가 설치돼 정부과천청사를 조성에 나섰다. 과천출장소는 과천면 6개리 모두를 담당하는 출장소로 정부는 과천 신도시 조성 계획을 1979년 1월 공표했다. 법률 제3798호 구리시등11개시설치와군관할구역의조정및금성시명칭변경에관한법률 (1985년 12월 28일)에 의한 조치였다.

개편 전	개편 후
시흥군 과천면 관문리, 주암리, 막계리, 갈현리, 부림리, 원문리, 문원리	과천시 관문동, 주암동, 막계동, 갈현동, 부림동, 원문동, 중앙동·별양동·문원동

표 14 1986년 과천시 승격과 시흥군 행정구역 개편*

위의 법률에 따라 1986년 경기도에는 과천시, 안산시와 함께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일원을 평택시로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읍 일원을 구리시 등이 설치했다.

1982년 5월부터 정부기관이 과천청사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과천시는 과천청사를 두고 서울대공원과 경마공원을 두는 등 서울 편입 예정지로서의 성격이 강했지만 1991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서 완전히 분리돼 과천시 도시계획구역이 신설됐다. 당시 조선일보 1979년 1월 4일자 신문에서는 '과천에 인구 3만 신도시 조성'이라는 제목 아래 '아파트 증 6천여 가구 건립, 초중고 7개교 건립'등의 소제목이 달려있다.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가 떨어져 나간 시흥군의 행정구역과 면적, 인구는 아래와 같다.

면 읍 별	법정리수	면적	인구(인)
군포읍	5	20.69	60,021
의왕읍	11	53.40	64,070
소래읍	13	50.37	39,287
수암면	13	39.27	15,252
군자면	7	42.03	13,073
계	49	205.76	191,713

표 15 1987년「시흥군 통계연보」/ 출처 : * 출처 :『시흥군지』(1988)

1973년 서울의 확장과 안양시의 이탈로 308㎢로 줄었던 시흥군의 면적은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가 이탈하면서 3분의 1 가량(102.46㎢)이 더 줄어 205㎢를 기록했다. 다만 수도권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해 인구는 29,912명이 늘었다. 시흥군의 경역은 더욱 복착해져 여덟 개 시, 두 개의 군과 인접하게 됐다. 동쪽은 성남시와 용인군, 남쪽은 안산시·수원시·화성군과 면하고, 서북쪽은 인천시, 북쪽은 부천시·광명시·안양시·과천시와 경계를 마주하게 됐다.

7. 시흥군의 해체와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의 성립

법률 제4050호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1988년 12월 31일)에 의거, 1989년 1월 1일 소래읍·군포읍·의왕읍·수암면·군자면으로 구성됐던 시흥군이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3개 시로 분할·승격 됐고, 시흥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시흥군의 군가인 '시흥의 노래(유달영 작사, 김희조 작곡)'는 "청계산 푸른 정기 구비치는 서해물결"로 시작한다. 청계산을 낀 의왕읍이 의왕시로 분리되면서 시흥군가의 가사말 역시 의미를 잃었다.

개편 전	개편 후
시흥군 의왕읍 고천리·왕곡리·이리·삼리·월암리·초평리·오전리·내손리·포일리·청계리·학의리	의왕시 고천동·왕곡동·이동·삼동·월암동·초평동·오전동·내손동·포일동·청계동·학의동
시흥군 군포읍 당리, 당정리, 부곡리, 산본리, 금정리	군포시 당동, 당정동, 부곡동, 산본동, 금정동
시흥군 소래읍 대야리, 계수리, 신천리, 방산리, 포리, 미산리, 은행리, 안현리, 매화리, 도창리, 금이리, 과림리, 무지리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신천동, 방산동, 포동, 미산동, 은행동,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 금이동, 과림동, 무지동
시흥군 수암면 목감리, 조남리, 논곡리, 물왕리, 산현리, 하중리, 하상리, 광석리, 능곡리, 화정리, 수암리, 장상리, 장하리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논곡동, 물왕동, 산현동, 하중동, 하상동, 광석동, 능곡동, 화정동,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 장곡리, 군자리, 거모리, 월곶리, 정왕리, 죽율리	시흥시 장현동, 장곡동, 군자동, 거모동, 월곶동, 정왕동, 죽율동

표 16 1989년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설치와 행정구역 개편

시흥시는 『시흥시사』4권(시흥시의 출범과 성장, 2007)에서 당시 과정에 대해 "읍·면단위 행정구역이 시로 승격된다는 것은 분명히 해당지역의 거주민들에게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시흥지역의 경우 긍정적인 일이라 하기엔 상당히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시흥시는 "주민과 관료들이 행정구역의 합병·조정과 시 승격에 대해 각각 서로 다른 안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신흥도시에 포함되기보다는 이미 발달해 있는 인접지역의 도시에 자신의 거주지를 편입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중요한 배경이 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초 시흥군은 '시흥시승격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소래읍을 중심으로 수암면과 군자면을 통합해 시로 승격할 계획을 수립했다. 시흥군은 "면접이 가장 넓은 지역인 소래읍을 중심으로 시를 구성하고, 과거 시흥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시를 형성한다"는 계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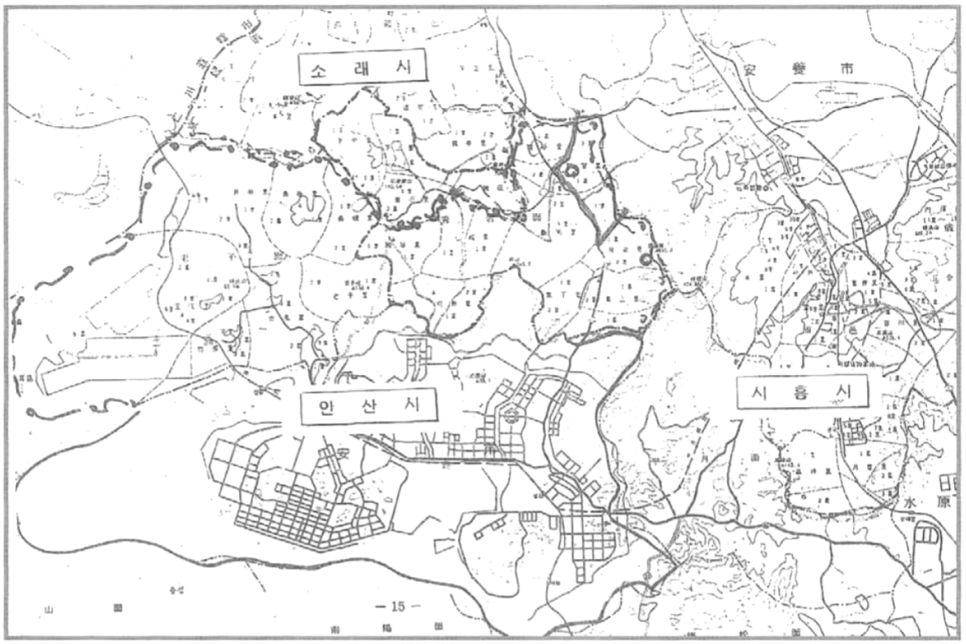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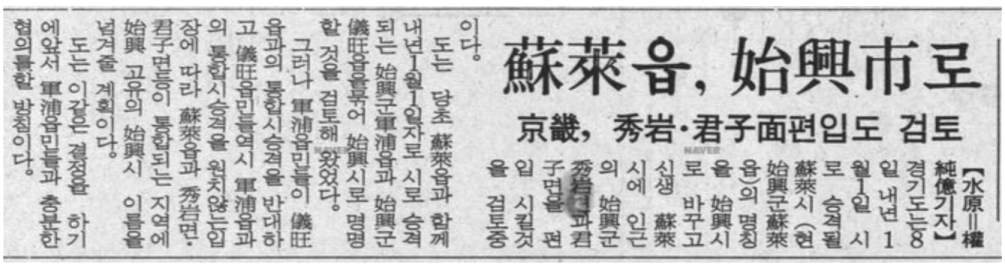


그림 4 경기도 당정협의회 시흥시 승격안 / 출처 : 『시흥시사』4권 '시흥시의 출범과 성장'

당초 시흥군이 조사한 주민 여론은 소래읍 주민들과 수암면, 군자면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래읍의 경우 '수암·군자 지역을 포함해 소래읍이 승격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었다. 수암면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소래읍에 편입돼 시로 승격을 요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군자면 주민들은 '생활권이 사실상 안산시로 조성돼 있어 인접시인 안산시로 편입'을 바랐다.

반면 경기도 당정협의회 자료는 시흥시의 구성에 대해 전혀 다른 의견이 제시돼 있다. 군포읍과 의왕읍을 통합해 시흥시를 구성하고 소래읍, 수암면, 군자면을 합해 '소래시'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계획의 배경에는 "군포읍와 의왕읍을 단독으로 시 승격하면 면적이 협소해 독자적인 시로서 향후 발전이 미흡할 것"이라면서 "소래읍은 73년에 부천



蘇萊읍, 始興市로

京畿, 秀岩·君子面편입도 검토

【水原=權純億기자】 경기도는 8일 내년 1월1일 시로 승격될 蘇萊시(현 始興군蘇萊읍)의 명칭을 始興시로 바꾸고 신생 蘇萊시에 인근의 始興군 秀岩면과君子면을 편입 시킬것을 검토중이다。

도는 당초 蘇萊읍과 함께 내년1월1일자로 시로 승격되는 始興군軍浦읍과 始興군 儀旺읍을묶어 始興시로 명명할 것을 검토해 왔었다。

그러나 軍浦읍민들이 儀旺읍과의 통합시승격을 반대하고 儀旺읍민들역시 軍浦읍과의 통합시승격을 원치않는데다 장에 따라 蘇萊읍과 秀岩면·君子면등이 통합되는 지역에 始興 고유의 始興시 이름을 넘겨줄 계획이다。

도는 이같은 결정을 하기에앞서 軍浦읍민들과 충분한 협의를할 방침이다。

그림 5 소래읍, 시흥시 승격 기사 / 출처 : 경향신문 1988년 10월 8일자 13면

에서 파생된 지역으로 읍 명칭을 따서 소래시로, 군포읍은 옛 시흥지역으로 그 얼을 살릴 수 있도록 시흥시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이 같은 경기도 당정협의회 안에 군포읍과 의왕읍 주민들은 반대했다. 군포읍과 의왕읍 주민들은 각각 독립적인 시로 승격되기를 원했다. 군자면과 수암면 주민들도 소래읍에 흡수되는 데 대한 반발심리가 있었다.

군포읍과 의왕읍 주민들의 반대는 언론보도 기사 즉 '소래읍, 시흥시로 경기, 수암·군자면 편입도 검토'에서 나타난다.

소래읍, 시흥시로
경기, 수암·군자면편입도 검토

경기도는 8일 내년 1월 1일 시로 승격될 소래시(현 시흥군 소래읍)의 명칭을 시흥시로 바꾸고 신생 소래시에 인근의 시흥군 수암면과 군자면을 편입시킬 것을 검토 중이다.

도는 당초 소래읍과 함께 내년 1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되는 시흥군 군포읍과 시흥군 의왕읍을 묶어 시흥시로 명명할 것을 검토해 왔었다.

그러나 군포읍민들이 의왕읍과의 통합시 승격을 반대하고 의왕읍민들 역시 군포읍과의 통합시 승격을 원치않는 입장에 따라 소래읍과 수암면·군자면 등이 통합되는 지역에 시흥 고유의 시흥시 이름을 넘겨줄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군포읍민들과 충분한 협의할 방침이다.

-경향신문 1988년 10월 8일 기사-

군포읍과 의왕읍 주민들의 통합 반대도 거셌지만, 반면 경기도 당정협의회 안대로 군포읍과 의왕읍을 통합해 시흥시로 통합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1988년 8월 5일 군포읍과 의왕읍 주민들은 '시흥시 승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시승격 읍민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시흥군수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시흥의 실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군포읍과 의왕읍을 중심으로 도시를 형성해 시흥이라는 명칭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흥시 승격 추진위원회'는 두 개의 안을 제시했다. 1안은 군포읍과 의왕읍을 병합해 독립된 시흥시로 승격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며, 2안은 군포읍과 의왕읍을 병합하고 화성군 반월면 일부 (대야미리, 속달리, 도마교리, 건건리, 둔대리)를 포함, 편입해 시로 승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안이다.

이들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군포읍과 의왕읍을 병합해 장차 시로 승격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래읍은 주민들 다수가 '소래시' 승격을 원했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도 있었다. 소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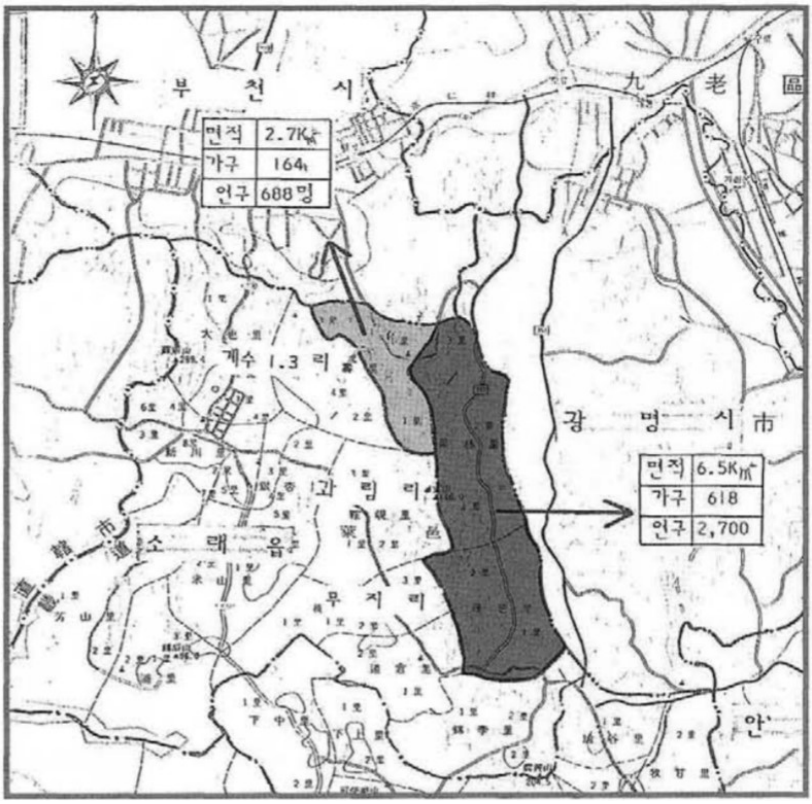


그림 6 소래읍 타지역 편입요구 지역 / 출처 : 『시흥시사』 4권 '시흥시의 출범과 성장'

읍에 위치한 계수동 1·3통 주민들은 인근 부천시로 편입을 희망했다. 또 소래읍 과림리와 무지리 주민들은 생활권이 광명과 맞다아 있다며 광명시로 편입을 주장했다.

계수동 1·3통 주민들의 부천 편입 요구의 배경 역시 생활권이 부천시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이들 주민들은 부천시와 0.5km 거리에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고, 전화국과 소방서 관할이 부천시였다. 교육은 안산시 교육청의 관할권이었고 경찰서와 세무서는 광명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또 교통수단도 부천시 방향으로 하루에 36차례 시내·시외버스가 운행하고 있었다. 시흥시청의 예정된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천을 거쳐 가야하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소래읍 과림리와 부지리 주민들은 이미 1986년부터 광명으로 편입을 요구해 왔다. 1988년 시흥시 승격 계획이 발표되자 이 지역 주민들은 '광명시 행정구역 편입조정 결의대회'를 열고 광명시 편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관청은 시흥군청을 이용하고, 등기소와 상공회의소는 안양을 경찰서는 광명경찰서 소속 소래읍 소개 파출소, 세무서는 광명세

무서를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전화는 서울전화이고 전기요금은 광명시에 내고 있었고, 노동관청과 소방서는 부천, 교육청은 안산시를 이용해야 했다.

始興시 秀岩동사무소
안산洞 팻말 걸려있어

시흥시 주민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다。내가 사는곳은 주소가 시흥시 수암동인데 동사무소 팻말은 안산동 동사무소라고 붙여져있다。그래서 이곳을 찾아오는 분들은 잘못 찾아왔나싶어 서성거리게 된다。

왜 이곳 동사무소가 안산동이라 돼있는지 모르겠다。하루빨리 동사무소 이름이 주소와 같이 되었으면 한다。시흥시안산동으로 주소를 바꿔주든지、수암동을 안산동으로 변경하든지 해야할것 아닌가 말이다。또 이곳은 안산시와 가까운데도 왜 시흥시로 됐는지도 의아하다。

김 기 숙 <京畿 始興시秀岩동 186 로얄아파트가동105호>

高校방학 보충수업
특활활동 병행토록

방학때는 많은 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한다。아마 거의 모든 학교가 이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을 것이다。

방학은 자신이 하고싶은 공

그림 7 행정동 '안산동'이 설치 당시 비판. 동아일보 1995년 1월 19일자 10면 '독자의 편지' 란의 기사 '시흥시 수암동사무소 안산동 팻말 걸려 있어'라는 제목의 수암동 주민의 푸념이다. 이 주민은 "이곳은안산시와 가까운 데도 왜 시흥시로 됐는지 의아하다"고 말하고 있다.

안산과 인접한 수암면 주민들은 안산시에 편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시흥군 수암면 안산시 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88년 9월 시흥군수에게 민원을 제기하며 "시흥군 수암면 일부 리(수암1·2리, 장상1·2·3리, 장하1·2리, 화정1·2리)를 안산시로 편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연 지리적 차원, 역사적 사실, 주민편의 위주에 따른 행정적 차원, 주민생활에 따른 행정적 차원, 교육적 차원 등을 열거하며 안산시 편입을 주장했다.

1979년 시흥군 반월출장소가 만들어지면서 수암면 일부가 반월출장소에 편입이 됐다. 안산시 편입을 주장하는 수암면 일부 주민들은 이 때 편입된 지역의 인접 지역에 속한다. 반월출장소가 안산시로 승격하면서 이들은 안산교육청, 안산전신전화국, 안산시우체국, 안안시전력공사, 안산시수도공사, 안산소방서 등을 이용하고 있었고, 세무는 광명세무서, 치안은 광명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수암면에 위치한 교육기관들이 모두 '안산'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 안산초등학교, 안산중학교, 안산상업고등하교, 안산고등학교 등이 모두 '안산'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 이들 학교는 모두 안산교육청 관할이었다.

이에 대해 시흥시사는 "이들은 수암면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하나의 지역사회 단위로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면서 "수암면 전체가 아니라 수암리, 장상리, 장하리, 화정리만 수암면의 다른 지역과 달리 안산지역에 동질감을 느낀다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수암면 주민들 가운데 안양시 편입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바로 목감리와 조남리 주민들이다. 목감리와 조남리 주민들은 역시 생활 권역이 안양시와 직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군자면 일부 지역은 '안산시 편입'을 주장했다. 군자면 거모 1·2·5리 주민들은 '안산시

편입 추진결의대회'를 열고 안산시 편입을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 역시 앞선 이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래읍이 군자면과 수암면을 흡수해 시로 승격되면 주민편의상 좋은 않은 지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거모 1·2·5리가 바로 그런 지역이라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안산 반월공단 업체에 취업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밖에 교육, 통신, 체신, 전력, 수도, 소방 등의 분야도 안산시 관할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시흥시 승격을 둘러싼 주민들이 주장은 공통적으로 생활권이 시흥시의 중심이 되는 소래읍에 있지 않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시흥시지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행정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을 모아들일 수 있는 구심점이 부재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넓은 지역에 산재한 점적 주거지에 흩어져 생활해 온 주민들에게서 분리요구가 나오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시흥시지는 "이러한 요구가 소래읍이 새로 만들어질 시흥시의 중심지역이 된다는 사실에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살아 온 주민들이 교통수단도 연결돼 있지 않은 소래지역에 자신들을 포함한 새로운 도시의 중심이 만들어진다는 데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는 시흥시가 성립된 이후로도 제기됐다. 행정과 소비·문화의 중심지역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분리된 생활을 해 온 상이한 지역의 주민들을 '시흥시민'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장기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8. 시흥시 승격 이후 안산동의 안산 편입

시흥시 승격 이후로도 이 같은 부침을 끝나지 않았다. 시흥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지역과 화정동 일부 지역은 끊임없이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했다. 시 승격 이후 화정동은 행정동인 연성동에 포함돼 있었고,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은 행정동인 안산동을 형성하고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에 결국 1993년 시흥시와 안산시가 '경계불합리 지역 조정문제 협의'에 나서게 됐다.

지명	규모	조정사유
시흥시 화정동 일부	3.0㎢ 146세대 415명	생활권 불일치
시흥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7.86㎢ 2,188세대 6,938명	생활권 불일치

표 17 1995년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편입된 지역 / 출처 : 안산시, 1995년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수도권 現場

옆동네 通話도 "市外요금"

安山편입 요구-집단 이주도

93년 工団 유치前엔 재정難 안풀릴듯

경찰서-세무서-등기소등 이웃市 가야

전화局-官庁 불모지대

시흥市

민원사무처리안내

시흥시 지역별 전화권역

그림 8 시흥시 승격과 인접 도시 편입을 요구하는 주민들에 관한 보도(조선일보 1991년 6월 23일 17면). 해당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시흥시를 '전화국, 관청 불모지대'라고 지적하며 각 지역의 편입 요구에 설명하고 당시 이철주 시장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서 이철주 시흥시장은 "오는 93년부터 1천8백여개 업체가 입주할 시흥공단(시화지구) 7백86만평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연간 3백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대책을 마련키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1995년 3월 13일 시군간 경제조정 대상지역에 화정동 1·2통과 안산동 전역을 포함시켰다. 시흥시 의회는 이 같은 조정계획에 강력히 반대했다. 시흥시 승격 이후 지역사회 통합과정을 겪고 있는 데 일부 지역이 이탈로 통합이 요원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흥시 의회는 경기도에 보낸 서한에서 일부지역 이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결국 1995년 시흥시 화정동 일부와 시흥시 안산동(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일원이 시·군간 경제조정으로 안산시에 편입됐다. 주민들의 계속된 요구 때문이다. 당시 안산시에 포함된 시흥시 화정동 일부와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일원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

1995년 3월 안산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아 주민 불편사항이 많고 수차에 걸쳐 진정 및 건의를 하여 안산시 편입을 요구하는 시흥시 화정도 일부 지역과 시흥시 수암·장상·장하동이 1995년 자치단체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선정됐다"면서 "주민정서, 역사성, 생활권이 같은 안산시로 편입 조정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코자 한다"고 밝혔다.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을 포함하는 법정동인 안산동은 조선시대 안산군의 읍치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한다. 안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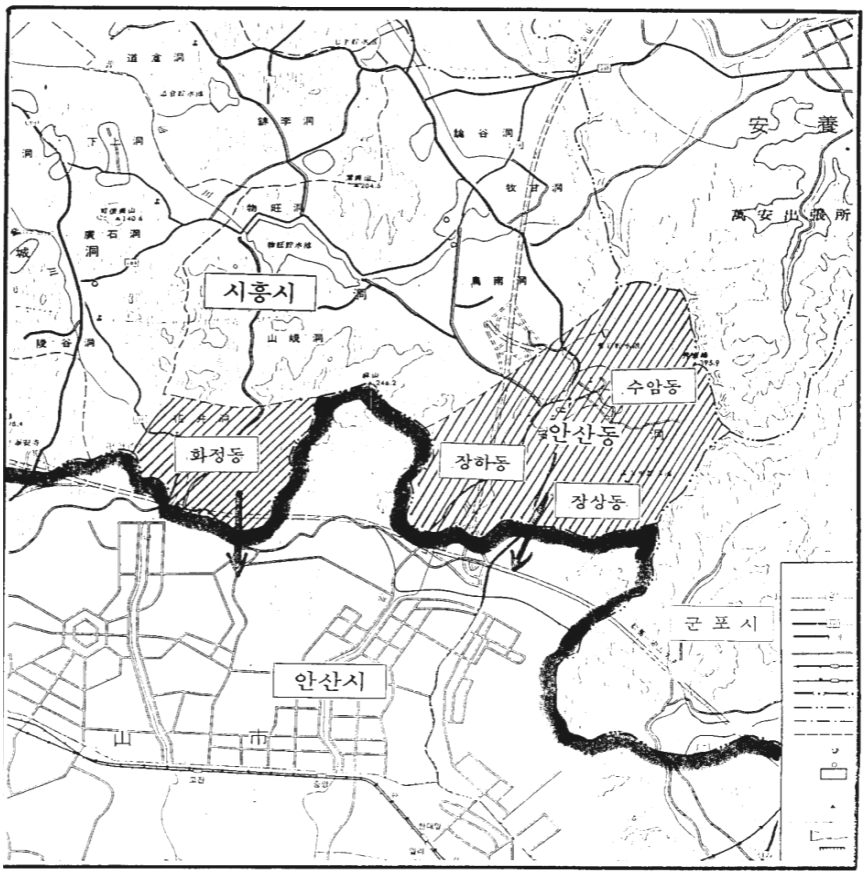


그림 9 시흥시 안산동, 화정동 일부의 안산시 편입 /
* 출처 : 안산시, 1995년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장이 역사성을 따진 것은 이러한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산동에는 안산초등학교, 안산중학교, 안산고등학교, 안산국제비즈니스고동학교 등이 있고, 안산읍성 및 관아터가 경기도 기념물 제 127호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요구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1993년 5월 18일자 21면 '행정구역 조정 요구 '봇물'' 기사에서 "올들어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기도 주민들의 행정구역 조정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 수영리 일대,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서천리, 농서리 지역,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 일부 지역 등에서 수원시로 편입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평택군 진위면 청호리, 고현리 역시 오산시 편입을 경기도 의회에 진정했고, 안성군 원곡면의 평택시 편입 요구도 있었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요구의 배경에 "80년 대에 들어 읍단위 지역의 시승격, 공단 및 대단위 택지 개발 등으로 지역개발이 가속화하면서 도시화된 지역과 인접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행정구역 조정 건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현재 20여 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9. 맺음말 : 시흥군의 분화와 경기도 행정구역 변천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한 시흥군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은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 전반과 대부분 연관돼 있다. 실제 1914년 부군현 통폐합으로 서울의 남서부 일대 모두가 시흥군이 됐지만 서울의 확장과 수도권 도시화로 시흥군은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등이 차례로 분화되다. 1989년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로 분화되면 모든 지역이 도시화를 마치면서 시흥군은 기록으로만 남게 됐다.

당초 부천군에서 편입된 소래읍과 안산시 인근 수암면, 군자면 등을 포함하는 시흥시는 그 역사가 짧고 인접 도시가 크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경계조정의 요구를 받고 있다.

시흥군 군청 소재지 역시 부침이 많았다. 당초 영등포에 있던 군 소재지가 일제 조선총독부의 경성부 확장 정책으로 서울로 편입이 됐다. 영등포가 서울에 편입이 됐어도 그 후 몇 년간 군청은 영등포를 떠날 수 없었다.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면서 군청을 옮길 수 있었지만 안양시 역시 1973년 시로 승격하며 분리·독립해 버렸다. 안양시가 분리됐어도 시흥군청은 안양시에 또다시 더부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분리된 안양시를 기준으로 동쪽에 과천면, 의왕읍, 군포읍 등이 위치해 있고 서쪽에 광명출장소, 소래읍, 반월면 등이 있었기 때문에 군청을 옮길 수 없는 처지였다. 시흥군청이 소래읍으로 이전한 것은 1980년에 들어서다. 이 때 이미 반월출장소, 과천출장소, 광명출장소 등의 시 승격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시흥시가 지금의 소래읍을 중심으로 설치된 과정도 경기도 행정구역 변천사의 단면을 보여준다. 당시 시로 승격이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군포읍, 의왕급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경기도 당정협의회가 제안했던 군포읍과 의왕읍을 통합해 시흥시의 명맥을 잇게 한다는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군포읍은 시흥군 남면이었던 곳으로 나름의 '시흥'의 역사성을 띄고 있지만 군포읍 주민들이 '시흥시'라는 명칭을 반대했다. 시흥시의 명칭은 부천과 옛 안산군에서 분리된 소래읍과 수암면, 군자면에게 돌아갔다.

보도자료로 본 경기도 행정구역 조정과 사회적 이슈

보도자료로 본 경기도 행정구역 조정과 사회적 이슈

김정대(군포시민신문 발행인)

1. 들어가며

경기도 행정구역 변화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은 정간 매체가 만들어진 이후부터이다. 우리나라의 신문의 역사를 따지면 조선신대 '조보'라는 관보가 있었지만 이는 소통 방향이 일방적이었으며 여론의 형성을 위한 매체라기보다는 국가적 행사를 알리는 도구였다.

근대적 신문의 원형은 고종 때인 1884년 한성순보에서 찾는다. 이후 독립신문, 매일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이 있었고, 일제강점기 1910년대 대한매일신보가 총독부 기관지로 전락하고 1920년에 들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창한하게 된다. 해방 이후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이 창간됐다.

여기에서는 일제시대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경기도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이슈를 살피고 해방 이후에는 경향신문을 함께 살폈다.

2. 경기도 행정구역 조정

근대 이후부터 해방 전까지 경기도 행정구역은 1995년 23부제 행정구역 개편, 1896년 13도제 실시, 1914년 부군면 통폐합, 1930년대 일제의 대경성 계획으로 인한 서울의 확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49년 수원군 수원읍이 수원부로 승격됐고, 1963년에 양주군 의정부읍이 의정부시로 승격되었다. 1967년 서울특별시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했으며, 1973년에 안양읍이 안양시, 소사읍이 부천시, 성남출장소가 성남시로 각각

승격됐다.

1981년에는 인구증가로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분리되고 양주군 동두천읍이 동두천시, 평택군 송탄읍이 송탄시, 시흥군 소하읍이 광명시로 각각 승격되었다. 1986년에 구리읍, 평택읍, 과천출장소, 반월출장소가 각각 구리시, 평택시, 과천시, 안산시로 승격됐다.

1989년 1월 1일 경기도는 남양주군 미금읍을 미금시로, 화성시 오산읍을 오산시로, 시흥군 소래읍·군자면·수암면을 시흥시로, 군포읍을 군포시로, 의왕읍을 의왕시로, 광주군 동부읍·서부면·중부면 상산곡리를 하남시로 하는 행정구역을 개편했다.

1992년 2월 1일에는 고양군 전체를 고양시로 승격시켰고, 1995년 1월 1일 도농 복합형태의 시·군 통합이 시작되면서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하여 남양주시를 설치하게 되었다. 1995년 3월 1일에는 김포군 검단면과 옹진군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고, 1995년 5월 10일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등 3개 시·군을 통합하여 평택시를 설치했다.

1996년 3월 1일 용인군, 파주군, 이천군이 각각 시로 승격되었으며 일산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고양시에 1996년 3월 1일 덕양구와 일산구가 설치됐다. 1998년 안성군, 김포군이 각각 시로 승격됐고, 2001년 3월 21일 화성군과 광주군이 도농 복합시로 승격됐다. 2003년 10월 19일 포천군과 양주군이 도농 복합시로 승격했다.

3. 대경성 계획과 도시빈민 문제, 일제의 병참기지 전략

일제는 한성부를 1910년 경성부로 개칭하고 경기도에 포함했다. 도시화로 경성부는 확대를 거듭한다. 여기에 일제가 '대경성 계획'을 추진한다. 대경성 계획으로 경기도 고양군, 시흥군, 김포군 지역 일부가 경성부로 편입되게 된다. 1936년 2월 14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에 의해 경성부에 포함된 경기도 행정구역은 아래와 같다.

당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일제는 전시통제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었다. 일본-만주-중국의 블록 건설을 목표로 했던 일제는 한국경제의 재편성을 요구했고, 조선총독부는 병참기지, 대륙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부각하면서 이에 적극 호응했다. 193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조선총독부는 병참기지화를 위한 공업시설의 확보에 열을 올렸다. 시흥군 영등포를 경성부에 편입한 것도 영등포 일대 공업지대를 만들기 위해서다.

개편 전	개편 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아현정
고양군 용강면 여율리(汝栗里)	영등포출장소 여의도정(汝矣島町)
고양군 연희면 대현리, 노고산리, 창천리, 동세교리, 신촌리, 봉원리, 북아현리, 연희리	대현정, 노고산정, 창천정, 동교정, 신촌정, 봉원정, 북아현정, 연희정
고양군 은평면 홍제내리, 부암리, 홍지리, 신영리	홍제정, 부암정, 홍지정, 신영정
고양군 숭인면(崇仁面) 돈암리(敦岩里), 성북리(城北里), 안암리(安岩里), 종암리(鍾岩里), 제기리, 신설리, 청량리	돈암정(敦岩町), 성북정(城北町), 안암정(安岩町), 종암정(鍾岩町), 제기정, 신설정, 청량리정
고양군 한지면 상왕십리, 하왕십리, 마장리, 사근리, 행당리, 신당리 등	상왕십리정, 하왕십리정, 마장정, 사근정, 행당정, 신당정 등
시흥군 북면 도림리 일부(현재의 도림동, 문래동)·신길리·본동리(本洞里)·노량진리·흑석리·동작리·번대방리	영등포출장소 도림정·신길정·본동정·노량진정(鷺梁津町)·흑석정·동작정·번대방정
시흥군 영등포읍 영등포리·당산리·양평리	영등포출장소 영등포정·당산정·양평정
시흥군 동면 상도리	영등포출장소 상도정
김포군 양동면(楊東面) 양화리	영등포출장소 양화정

표 1 조선총독부령 제8호(1936년 2월 14일)에 따른 행정구역 변화

1920년대 창간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통해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이 보도된 것은 1930년대 일제의 '대경성 계획'부터이다. 동아일보 1934년 5월 30일자 3면에는 대경성 계획과 관련 기사가 게재됐다. 당시 기사는 아래와 같다.

대경성에 편입될 구역에 구체적 조건을 협의

행정구 확장계획위원회도 확대

시가지계획발령을 앞두고

조선의 시가지계획령 발령을 수일로 앞두고 경성부의 연래 현안인 행정구역의 확장도 그 실현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장차 경성부에 편입될 예정의 근교 육십팔개리를 낱낱이 조사한 경성부에서는 종래 부청의 부윤이하 각 과장 각 계장으로 조직되었든 행정구역 확장계획위원회를 확대하야 각게를 망라하리라 한다. 그 조적인 현재의 위원 이외에 경기도와 관계 군청직원들은 물론 위생 교통에 큰 관게를 가지고 있는 각 경찰서 등으로 조직하리라 한다.

그리고 6월 1일에 시가지 게획령이 발령되고 이의 시행규측이 발표되는 대로 경성부에 편일될 구역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협의케 되리라 한다.

-동아일보 1934년 5월 30일자 3면-

大京城에編入될區域에

具體的條件은協議

行政區擴張計劃委員會로擴大

市街地計劃發令을앞두고

三淸洞公園建設에

먼저週廻道路에着手

二만八천원의 공비를 들여서

八月末에竣工될모양

그림 10 동아일보 기사 '대경성에 편입될 구역에' / 동아일보 1934년 5월 30일자 3면

조선일보는 1936년 2월 20일 사설을 통해 대경성 계획에 도시빈민의 '주택문제' 해결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경성과 주택문제

특히 토막민의 보호에 대하야

오는 4월 1일부터 경성부가 인근군부 72개 리를 편입하야 육십여만인구를 포용한 대도시가 되는 것은 기정한 도시계획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므로써 이에 대한 시비를 논하는 것은 시기가 지낫다할 것이나 도시계획에 잇어 중요부분이 되는 주택문제의 현상으로 볼때는 대경성의 건설은 중대한 핸듸탭을 가젓다할 것이다. 무엇보담도 군부가 부로 편입됨에 다러 신당리부근 아현리일대에 있는 도막약 사천오백호가 부에 신부되는 까닭에 대경성은 전경성부네의 토막민 1436호와 합하야 약륙천호의 토막을 포괄한 비도회적요소를 다분히 포함한 대도시가 되는 어두문면이 잇게 되는 것이다.

(중략)

최근 가장 중대시케되 주택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건설공작을 기대하야마지 안는 바이다.

-조선일보 1936년 2월 20일자 사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토막민(土幕民)을 '흙으로 만든 움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두산대백과사전은 "일제강점기에 몰락한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형성된 대규모의 빈민층으로 이들은 주로 토막을 짓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토막민으로 불렸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대경성 계획에 도시로 몰린 빈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라는 얘기다.

동아일보도 1932년 10월 26일자 사설을 통해 대경성 계획에 원주민인 조선인의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당시 동아일보의 사설이다.

대경성과 조선인

그 번영책은 여하오

경성은 나날이 팽창하야간다. 최근에 있어서 경성은 동은 신설리 돈암리, 용두리, 왕십리, 신당리로부터 서는 아현리, 동막리, 공덕리 등에 이르기까지 인가가 접속하야 젓고 남은 노량진, 한두리로부터 북은 성북리, 산행촌동에 이르기까지 경성에 연접하냐젓다.

작월말 현재 경성부의 호수는 약 8만, 인구는 약 39만여임으로 명춘 근교의 면동을 편입하면 경성은 실로 인구 60만을 넘는 대도회가 될 것이다.

(중략)

경성과 같이 그 원주민의 팔할이 납세의 능력이 없도록 빈약하고 약칠분(約七分)가 일일 호구가 난기란 처지라 하면 경성은 차라리 빈공의 대명사가 되고 말 것이 아니냐.

(중략)

비록 도시에 상공업이 발달하드래도 농촌의 구매력이 없으면 도시도 필경 쇠잔해지지 않을 수 없다.

경성에 조선인산업을 이르키고 보호하라. 그리고 각자 직업을 갓게하라. 동시에 농촌의 인민에게 토지를 주어 그들로 하여곰 생업에 안족케하라. 이리해야만 경성과 조선인, 도시와 농촌도 번영할 수 잇을 것니다.

-동아일보 1932년 10월 26일자 1면 사설-

이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원주민 조선인이 8할이 납세의 의무를 질 수 없을 만큼 빈곤하고 약 7분의 1이 일일 호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대경성 계획'에 조선인의 빈곤 극

社說

大京城과 朝鮮人

그 發展은 如何오

一

京城은 나날이 膨脹하야 간다 最近에 엇서서 京城은 東은 淸涼里 敦岩里, 麗運里, 往十里, 新堂里로부터 西는 阿峴里, 東幕里, 孔德里에 이르기까지 人家가 連接하야 잇고 南은 鷺梁津, 漢江里로부터 北은 城北里, 由吉山洞에 이르기까지 京城에 連接하야 잇다。 昨月末 現在로서 京城府의 戶數는 約八萬, 人口는 約三十九萬餘名으로 明春 近郊의 面積을 編入하면 京城은 實로 人口六十萬을 넘는 大都會가 될것이다。 그뿐아니라 大京城의 繁昌은 날과 달로 달라간다。 「머리·스트릿트」에 「네온·싸인」같은 煌煌燦爛한 施設은 없다 할지라도 눈을 부시는듯한 電光, 大空을 찌를듯이 솟은 大建物, 市街를 縱橫하는 電車 自動車—可히 近代的 都市이라 홀만하다。

그러나 이 膨脹하는 大京城, 이 繁昌하는 大京城이 果然 眞正한 意味, 朝鮮人의 繁昌을 가

그림 11 동아일보 사설 '대경성과 조선인'

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이 같은 '대경성 계획'을 경성부를 도시화하고 그 행정구역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병참기지화'를 위해 경인선을 통해 바다로 연결되는 인천을 경성부에 편입하려는 방안도 고려했다. 인천부 지역과 접경에 위치한 시흥, 부천 등에 군수 공장을 짓기 위해 온힘을 다했다.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1939년 조선총독부가 기획한 게 이른바 '2차 대경성 계획'이다. 당시 편입이 검토된 지역은 경기도 시흥군 동면, 시흥군 서면 일부, 부천군 소사면·부내면·오정면, 부천군 계양면, 서곶면, 김포군 양서면·양동면 등이 었다.

이러한 병참기지계획에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단한 발전인 것 마냥 이를 홍보하고, 심지어는 '병참기지조선의 현지보고'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게재하며 찬양하고 있다. 아래는 관련 보도이다.

경인일체화의 구체안
시가계획구역결정
11면에 1억605만여 평 포함
공업, 주택, 구획의 3지구

만주, 지나 양사변을 게기로 조선의 사명은 더욱 중대하게 되어 각종 산업은 지리적, 자원적 특질에 감하야 획기적 발전을 하고 있는 형세에 있는 그 중에 도경성, 인천 부근은 조선에 잇어서

정치, 경제의 중추부일 뿐 아니라 황해로써 지나 대륙에 접근하고 잇어서 대외적으로 가장 중요 지위를 점령하고 잇다.

인천축항공사와 한강수력전기공사의 진섭과 병행하야 각종 대공장의 건설계획이 접종하야 일약 대공업지로서 발전할 기운에 처해 있다.

(중략)

京仁一體化의具體案
市街計劃區域決定
十一面에一億六百五萬餘坪을包含
工業,住宅,區劃의三地區로
三地區로適正區分
地價의暴騰을防止
釜山府議疑獄
三十六名有
馬山會議注目

그림 12 동아일보의 '경인일체화 구체안' 기사 / 동아일보 1939년 10월 03일자 2면

그래서 총독부 시가지 게획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자문안을 결정발표하였는 데 그 내용을 보면 시흥군 동면, 서면 외 일부, 부천군 소사면, 부내면, 오정면, 게양면의 전부 또는 (하략)

-동아일보 1939년 10월 03일자 2면-

대확장되는 경성부역

경인공업지의 대부분 경성에 편입

경인시가지계획안 완성

경인일제 실현에 잇어 가장 중대한 뜻을 가지고 잇는 경인공업지역과 대경성건설부역확장게획에 따르는 경인시가지게획결정안은 내부국에서 그동안 입안중이드니 이번에 결성되엇으므로 이 달중으로는 조선시가지게획 위원회에 부치어서 남총독의 결제를 얻어 멀리안해서 그 전모를 명백히 하기로 되엇다.

이 결정에 기초하야 내년도부터 실시할 소위 대경성시가지게획은 현저히 확장되어 명실이 함께 경인일체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이에 편입되는 구역은 다음과 같이 광범위에 이를 모양이고 일부분이 인천부에 포함되는 외에 대부분 대경성부역에 편집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군 소사면, 오정면, 계양면, 복내면, 서곳면 △시흥군 동면, 서면 △김포군 양동면, 양서면 고촌면 그리고 김포, 부천 양군은 일부는 해면에도 포함되고 이리하야 소사를 중심으로하는 공

업지대의 형성과 함께 경성, 인천양부는 거의 접속도시로 될 것이다.

-동아일보 1939년 10월 2일자 2면-

병참기지조선의 현지보고

-소비도시 경성은 생산도시로 급비약 / 홍종인[1)]

10. 대경성의 발전태세

경인간공업지대의 모태요, 조선산업경제계의 중추 신경적 존재인 경성은 근년 비상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소화 11년 4월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도시계획이 발포되어 30년후에는 백십만의 인구를 포옹할 것을 약속하고 구역의 확장, 도로망의 확충 지구의 설정 등을 하기로 하고 동남서방으로 부역도 대확충을 하여앗으나 그동안 경성자체의 발전은 탁상의 계획보다 훨신압서 팽창하였다. 전일에도 말한바와 가치 인구의 증가상태로만 보아도 계획예정년한 보다 십년간은 단출될 정세에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939년 8월 8일자-

3. 해방이후 행정구역의 변화와 다시 시작된 서울의 확장

해방 후로도 서울의 확장은 이어진다. 하지만 서울의 확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하는 언론은 없다. 동아일보는 1949년 서울의 확장으로 시흥군 일부와 고양군 일부가 서울에 편입되는 과정을 '쇄신되는 서울의 면모'라며 치켜세웠다. 아래는 관련 기사이다.

지역확장 기구변경

쇄신되는 서울의 면모

8월15일 정부수립 1주년을 계기로 변모하는 대서울

즉 지난 7월 4일부로 지방자치법이 공포 실시되어 그 효력을 8월 15일부터 나타내게 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16일을 게기로 시행 정면의 큰 변동을 나타내게 되었다.

지역확장=그간 문제중에 있던 서울시경찰국 관하지역 중 경기도행정구역인 서울근교 고양군과 시흥군 일부 지역을 시에 편입하고저 정부에 요청중이 던 바 그의 성안을 어더 오는 15일에 정식 정부의 공포가 있기로 되었는데 이번에 편입되는 구역은 다음과 같다.

---

1) 홍종인은 해방 전에는 조선일보 사회부장을 지냈고 해방 후 조선일보 사장을 지난 인물이다. 일제 강점기의 친일 행적으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다.

兵站基地의 現地報告

消費都市大京城은
生産都市로 急飛躍

洪鍾仁

一〇、大京城의 發展態勢

그림 13 홍종인의 '병참기지 조선의 현지 보고' / 조선일보 1939년 8월 8일자 3면

△고양군 은평면 전군
△고양군 숭인면 전부
△시흥군 동면 구로리, 도림리
(하략)

-동아일보 1949년 8월 3일자 2면-

9일뒤 수원부와 안양읍 승격 기사는 단신으로 처리되며 도지사의 기자회견을 그대로 옮겼다.

수원부 안양읍 승격

경기도지사는 11일 기자단과 회견하고 당면 문제에 언급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기자사담

◇행정구역 이관 = 경기도 고양군 숭인 뚝섬 은평과 시흥 일부지역이 서울시로 편입하기로 되었다. 그 대신 수원이 부로 안양이 읍으로 각각 승격되기로 하였다.

-동아일보 1949년 8월 12일 2면-

6·25로 인한 혼란이 어느 정도 극복되자 1962년 서울 확장 논의가 시작된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혼란했던 분위기가 매조지 되자 박정희 군사정부가 서울 개발의 청사진 제시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1962년 10월 6일자 기사 '"맘모스 새서울"의 조감도'에서 정부 당국의 계획을 '현대화' 등의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해 보도하고 있다.

"맘모스 새서울"의 조감도
행정구역 조정안이 통과된 뒤에
변두리에 위성도시 건설
교통망도 현대화
양주 광주는 교촌, 김포는 공업지

곧 각의로 올라갈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조정안(확장안)이 제대로 통과되면 현재의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인 광주군 일대는 남서울, 양주군과 광주군 북쪽 일부는 교촌지구, 그리고 영드포구에 접한 김포군과 부천군 일대는 공업지구로 각가 새모습의 위성도시가 생기게 된다. 남서울지구는 또한 "녹지지구"로서 관광지대를 겸하게 된다.

「맘모스·새서울」의 鳥瞰圖
=行政區域 調整案이 通過된뒤에=
변두리에 衛星都市건설
交通網도 現代
楊州·廣州는 郊村、金

그림 14 경향신문 기사 '맘모스 새서울 조담도' / 경향신문 1962년 10월 6일자

새로 서울에 편입될 지역은 경기도 5개군의 11개면 을 잡고 있는데 서울의 인구는 나날이 '폭발적인 증가율'로 늘어가고 있어 이번의 새로운 위성도시건설과 도시확장계획은 장차 5백만 서울 인구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중략)
남서울은 시흥군의 신동면과 광주군의 언주면 일대 50평방 킬로미터의 넓이인데 이곳에 "제3한강교"가 가설 될 것이며 14억원을 들여 도로 10평방 킬로미터를 신설하고 상수도 40만명 분을 확보토록 할 것이다.
(하략)

-경향신문 1962년 10월 6일자-

이러한 보도 경향은 경향신문 뿐 아니라,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의 1962년 9월 23일자 보도는 역시 경향신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경향신문 보도보다 서울시 확대에 대해 희망적인 견해를 늘어놓고 있다.

늘어나는 서울의 판도
넓이는 일약 갑절로
인구는 3백만을 돌파
이웃 84개 리를 편입계획
원대한 숙원...개발에 157억원 소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인접한 경기도 5개 군에서 6개면 60개 리 전부와 5개면에서 일부씩 24개 리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21일 하오 알려졌다. 수도권안에 들어오게 될 새 편입지역은 282.8 평방킬로이며 33만5100여명의 새 인구가 서울시 행정구역 확장 후 새로 늘게 될 것인데 서울특별시는 면적으로 지금의 갑절이 되는 552.5평방킬로에 305만9천 여명의 인구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편입지구의 선정은 서울시 원안을 기초로 지난 6일 생정구역 조정 중앙심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는 데 최종결정은 각의와 최고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률로 확정케되는 것이다. 대체로 지금의 안은 서울시에서 바라고 있는 원안과 거의 같다는 것이다.
새 편입 예정지역은 동대문구쪽의 양주군에서 구리면 일부, 성북구쪽에서 노해면 전부, 성동구쪽으로는 광주군의 구천면, 언주면, 중대면, 전부와 대왕면의 일부, 영등포구 쪽에서 시흥군의 신동면 전부, 김포군의 양동면 전부와 양서면 일부, 부천군에서 소사읍 일부와 오정면 일부이다.
(중략)
이처럼 광대한 수도권의 확장정비계회은 오래전부터 서울도시계획의 숙원이었으며 한강이남으

로 발전시킨다는 지리적 산업적 군사적 여러 유리한 조건을 반영한 것이다.

(하략)

-조선일보 1962년 9월 22일자 기사(뉴스)

조선일보는 서울시의 경기도 편입·통합을 "오래전부터 서울도시계획의 숙원"이었다면서 "지리적·산업적·군사적으로 여러 유리한 조건을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당시 서울시의 확장은 전후 개발과 발전 논리에 따른 것으로 전후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정부에게 언론이 희망적인 시선을 던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서울의 확장과 개발의 이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2000년대 들어서까지도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 보도에 개발 논리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선일보는 당시 사설을 통해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해 신중할 것을 당부하며 당장 시행하지 말고 추후 과제로 남기라고 주문했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사설은 당시 행정구역 개편 관련 보도 가운데 '서울의 확장'을 경계하고 그 부작용을 염려하는 거의 유일한 지적이다.

행정구역재조정의 구성과 현실적 제여건

전국 행정구역의 재조정을 최고회의에서 구성중에 있다는 사실이 조시형 내무위원장의 언명으로 밝혀졌다. 원칙론부터 말한다면 한말 단행한 13분도와 일정초기에 실시한 군폐합을 토대로하여 현생 도 군의 행정구역이 설정된 것이다. 이후 반세기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경이에 값할만한 인문의 발달과 교통망의 확충이 가져오는 자연적 인위적 지세이용의 변예를 직시할 때 국가행정상의 필요와 지방자치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에 적합한 합리적인 구역재조정에 착수할만한 시기도 되었다고 볼만하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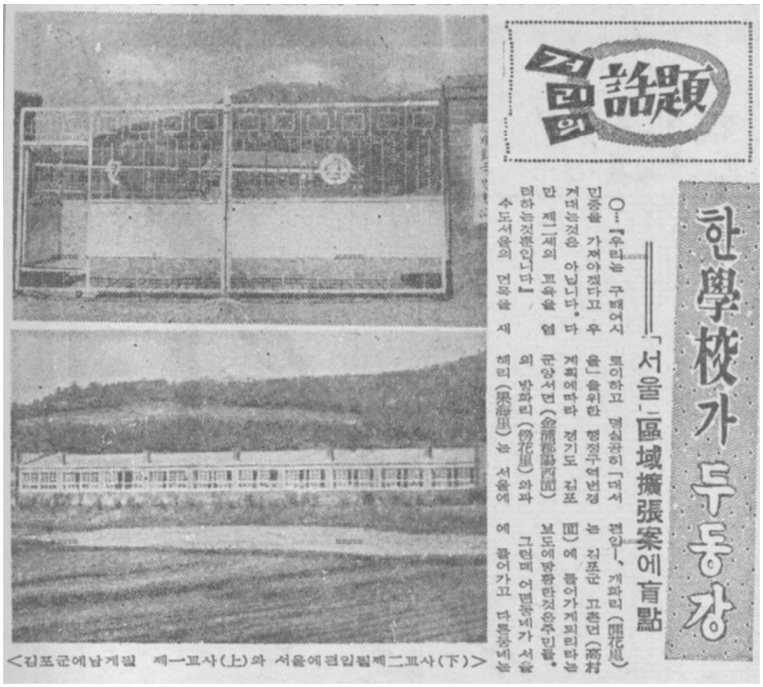
동서를 막론하고 현대국가의 행정구역을 대규모로 재조정함에 있어서는 수년 내지 십수 년의 장구한 검토심의기간을 소요하는 것이며 으로 현재 내무부로부터 어떠한 조정안이 제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나 남은 1년 동안 혁명정부가 쏟을 수 있는 정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아무래도 무리가 수반될 것이 염려되는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혁명정부가 행정구역재조정과 같은 거대한 과업에 관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 자신력을 높이 평가함에 인색하지 않겠으나 혁명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그 치를 만드는 연구기관의 발족에만 그치고 실지 단행은 금후 과제로 남겨놓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생각된다.

-조선일보 1962일 7월 8일자 사설-

급박한 서울의 확장의 인한 부조리를 고발한 기사도 있었다. 조선일보 1962년 10월 30일자 기사 '한학교가 두동강'이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서울에 편입이 되는 김포군 개화국민학교의 사연을 담았다. 김포군 개화리에 있는 첫 번째 교사는 서울에 편입이 되지 않고 새롭게 지은 두 번째 교사만 김포군 방화리에 있어 서울에 편입이 돼 이대로라면 초등학교가 두 동강이 날 처지라는 지적이다.



話題의 話題

한學校가 두동강

「서울」區域擴張案에 肯點

○…『우리는 구태여 시민증을 가져야겠다고 우겨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二세의 교육을 염려하는 것 뿐입니다.』 수도서울의 면목을 새로이하고 명실공히 「대서울」을 위한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高村面) 개화리(開花里)와 양서면(陽西面)의 방화리(芳花里) 과해리(果海里)는 서울에 편입되고 개화리는 고촌면에 남게될 제一교사(上)와 서울에편입될제二교사(下)

그림 15 조선일보 '한학교가 두동강' 기사 / 조선일보 1962년 10월 30일자

한학교가 두동강

서울 구역확장안에 맹점

"나는 시민증, 넌 도민증"

김포군하 개화국민학교의 경우...철없는 동심 벌써 농담까지

"우리는 구태여 시민증을 가져야겠다고 우겨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2세의 교육을 염려하는 것 뿐입니다."

수도 서울의 면목을 새로이하고 명실공히 '대서울'을 위한 행정구역 변경계획에 따라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의 방화리와 과해리는 서울에 편입됐다. 서울편입됐다. 개화리는 김포군 고촌면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보도에 당황한 것은 주민들.

(중략)

두동강이가 될 학교는 개화국민학교. 이번에 김포군에 그대로 남게된 개화리에 가건물로 제1교사가 있고 2년 전 방화리쪽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벽돌로 새 교사를 지었다. 새교사에는 2학년과 6학년의 5개 교실이 있고, 나머지는 구교사에서 공부를 해왔다. 이번에 새로이 행정구역이 설정된다면 새 교실이 서울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선일보 1962년 10월 30일자-

조선일보의 김포시 방화리에 대한 추가 보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에 따라 김포군 양동면과 양서면 일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편입이 됐다. 여기에 김포시 개화리가 포함돼 서울로 행정구역이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김포군 양동면 일원(가양리, 마곡리, 등촌리, 염창리, 목동리, 화곡리, 신당리, 신정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부(양동출장소 일원)
김포군 양서면 일원(내발산리, 외발산리, 송정리, 과해리, 방화리, 개화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부(양서출장소 일부)

표 2 1963년 김포군 행정구역 변경 / 법률 제1172호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63년 1월 1일)

4. 경기도 행정구역 변화와 언론 보도

사실 1960년대 70년대 보도에서 사회적 숙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 정부 정책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1962년 7월 8일자 조선일보 사설 '행정구역재조정의 구성과 현실적 제여건'과 같이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완곡한 표현으로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시흥군이 경우 안양시가 독립해 나가면 사실상 동쪽의 의왕면, 남면 지역과 서쪽의 소래읍 지역이 분리돼 버리고 안양읍에 있던 군청을 옮길 곳도 없어지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 보도는 찾을 수 없었다. 아래는 안양읍의 시 승격을 거론하는 최초의 기사인 조선일보의 1968년 3월 31일자 보도이다.

19개읍...곧 시로 승격
안양, 서귀포 등
연내 180여 지구 개편

행정구역의 전면개편을 추진중인 내무부는 30일 내년부터 경기도 동두천 등 198개 읍을 시로 승격시키기로 하고 연내 필요한 법령정비작업을 끝낸다. 내부부는 작년에서 '행정구역조사위원회'를 구성, 전국에서 4백여개의 조정대상지구를 선정, 그 중 우선 1백80여개의 문제지구에 대한 개편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조선일보 1968년 3월 31일자 기사-

이후 다른 언론도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기사는 찾을 수 없었다. 또 1981년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될 때도 언론사의 보도는 건조하다. 앞서 서울특별시가 인근 경기도를 편입해 확장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희망적인 낱말을 포함하려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인천시 7월부터 직할시로 승격
민정 발표 내주 중 입법회의에 법률안 제출
도세 2백억은 자체 개발에

민정당은 178일 오는 7월 1일부터 인천시를 정부 직할시로 승격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석순 민정당 사무처장은 이날 상오 10시 인천중 남구 천년분과위원 단합대회에 참석차 중 남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의 맹은재(중남구), 김숙현(동북구) 두 후보의 건에 따라 정부 당국과 협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내주중 입법회의에 '인천시 정부직할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1981년 3월 17일 기사-

위 기사는 당시 여당인 민정당 사무처장이 선거를 앞두고 인천시 국회의원 선거운동 자리에서까지 찾아가 '직할시' 승격 결정을 알리는 기사다. 당시 11대 총선은 기사가 보도된지 8일 만에 치러졌다. 민정당은 해당 지역구에서 맹은재 의원과 김숙현 의원 모두를 당선 시켰다.

인천시의 직할시 승격에도 무덤덤했던 언론은 광명출장소의 광명시 승격이나 송탄시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언론사가 단신으로 다룬다.

광명시(철산리 광명리) 등 10개시 신설

입법회의 내무위는 27일 과대읍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처하고 지역별 거점도시와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를 개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10개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광명시 등 시 설치와 군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내무부가 성안한 이 법안은 31일 입법회의 본 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광명시=경기도 시흥군 소하읍 일원(위성도시육성에 의한 서울시 인구집중 억제)

▲송탄시=경기도 평택군 송탄읍일원(아산만과 인접한 경기남부지방의 상업도시 개발)

▲동두천시=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일원(한수 이북의 상업중심지개발)

-중앙일보 1981년 3월 28일자 1면-

5. 1980년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숙의의 시도

서울의 주변부로서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숙의는 1980년에 들어서야 언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반작용, 혹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1980년에 들어서야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래 중앙일보의 '시흥군...지도에서 없어질 위기에' 기사는 행정구역 개편의 반작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보도다.

시흥군…지도에서 없어질 위기에

경기도시흥군이 우리나라 지도상에서 영영 사라지게 됐다.

원래 시흥군에 예속했던 안양이 시로 승격돼 분가한지 오래된 데다 공업기지의 깃발과 함께 반월출장소가 새 살림을 차리면서 시흥군 서남쪽 일부지역이 반월로 떨어져 나갔고, 지난해엔 소하읍이 광명시로 문패를 달면서 독립해 군세가 형편없이 줄어들었기 때문.

게다가 정부 제2종합청사가 들어선 과천면도 연·내에 출장소로 승격, 분가가 필연적이어서 시흥군은 군으로서 갖춰야할 인구나 면적이 크게 미흡,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시흥군은 3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 서울의 신개발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강남 지역 중 잠실과 반포·방배동을 신동면 잠실리와 반포리·방배리로, 영등포와 봉천동을 북면 영등포리와 동면 봉천리란 이름으로 휘하에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시흥군의 본격적인 조락을 예고한 신호탄은 73년7월 안양의 시승격.

안양시의 북쪽이 서울과 맞닿아 있고, 남쪽끝이 화성군과 인접해 시흥군은 이 때 벌써 동서로 갈리어 두 토막이 났다.

안양에 자리한 군청은 하루아침에 남의(?)동네에 신접살림을 차린꼴이 되었고 79년8월에는 반월출장소가 문을 열면서 수암면과 군자면의 12개리 57·2평방km가 떨어져 나갔다.

지난해 7월엔 광명시가 독립하면서 36·47평방km가 또 줄어들었다. 9년만에 핵심지역 1백52평방km가 줄어든 것이다. (후략) 군세가 이처럼 줄어들자 부천군소래면과 화성군일왕면에서 시흥군에 편입된 소래읍과 의왕읍은 물론 시흥군의 골수격인 군포읍 주민들조차 시흥군을 마다하고

시편입을 바라고 있는 실정.

-중앙일보 1982년 3월 29일자 10면 기사-

중앙일보는 위 기사에서 시흥군의 몰락의 신호탄은 '안양의 시승격'이라고 꼽고 있었다. 기사는 "시흥군은 군으로서 갖춰야할 인구나 면적이 크게 미흡,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면서 "시흥군의 골수격인 군포읍 주민들조차 시흥군을 마다하고 시편입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기도 행정구역 조정과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면 따라오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온천 발견"소식에 땅값부터"들썩"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신길리 일대 식염수온천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나돌자 부동사투기붐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열탐사연구소 대표 정장출 씨는 화산활동을 탐사하기 위해 설치한 2개의 생산정의 지하 4백48m와 5백17m 지저에서 지난달 27일 공조수온 섭씨 40.5~40.8도의 온천수를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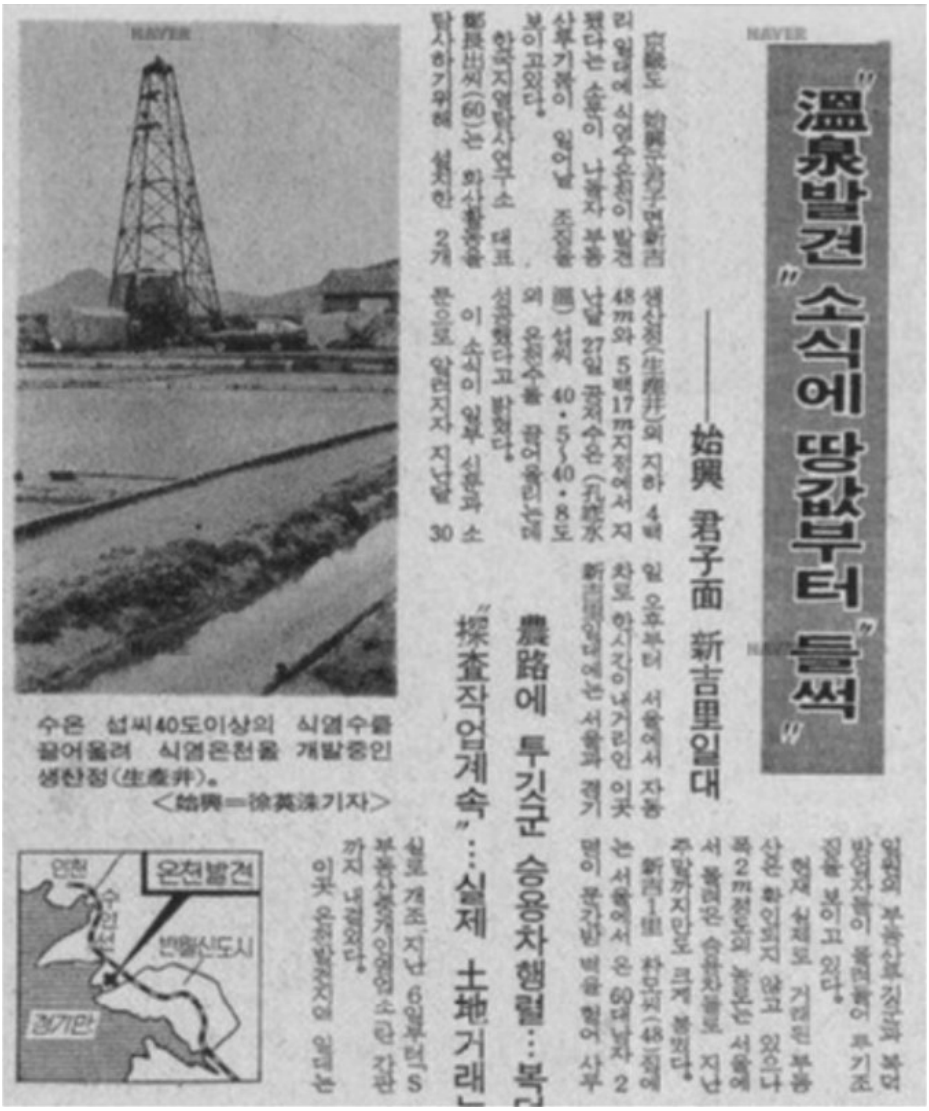
이 소식이 신문으로 알려지자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서울에서 자동차로 한시간 이내 거리인 이곳 신길리 일대에는 서울과 경기일원의 부동산 투깃군과 복덕방 업자둘이 몰려들어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략)

반월출장소측은 "현대의 온천발견지쳑은 도시계획상 그린벨트지역에 포함돼 있어 온천개발문제는 시승격 뒤에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로 밝혔다.

-동아일보 1985년 11월 11일 기사-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에 대해서도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1991년 6월 23일 조선일보는 [옆동네 통화도 시외요금 기사]를 통해 시흥시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인구수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시흥시의 주민들이 시흥시를 '전화국, 관청 불모지대'라고 지적하며 각 지역의 편입 요구에 풀어섰다. 또 이철주 시흥시장의 인터뷰를 통해 "오는 93년부터 1천8백여개 업체가 입주할 시흥공단(시화지구) 7백86만평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연간 3백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대책을 마련키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준비 안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溫泉발견" "소식에 땅값부터 "들썩"

——始興 君子面 新吉里일대

農路에 투기군 승용차행렬…북

"探査작업계속"…실제 土地거래

온천발견

연천

수원시

반월신도시

경기만

수온 섭씨40도이상의 식염수를 끌어올려 식염온천을 개발중인 생산정(生産井)。

<始興=徐英洙기자>

그림 16 동아일보 '온천발견' 소식에 땅값부터 '들썩' / 동아일보 1985년 11월 11일자 10면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요구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1993년 5월 18일자 21면 '행정구역 조정 요구 '봇물' 기사에서 "올들어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기도 주민들의 행정구역 조정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 수영리 일대,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서천리, 농서리 지역,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 일부

수도권 現場

옆동네 通話도 "市外요금"

전화局-官庁 불모지대

시흥市

경찰서-세무서-등기소등 이웃市 가야

93년 工団 유치前엔 재정難 안풀릴듯

安山편입 요구-집단 이주도

민원사무처리안내

시흥시 지역별 전화권역

그림 17 시흥시 승격과 인접 도시 편입을 요구하는 주민들에 관한 보도 / 조선일보 1991년 6월 23일 17면, 옆동네 전화도 '시외요금'.

지역 등에서 수원시로 편입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평택군 진위면 청호리, 고현리 역시 오산시 편입을 경기도 의회에 진정했고, 안성군 원곡면의 평택시 편입 요구도 있었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요구의 배경에 "80년 대에 들어 읍단위 지역의 시승격, 공단 및 대단위 택지 개발 등으로 지역개발이 가속화하면서 도시화된 지역과 인접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행정구역 조정 건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현재 20여 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가 나간 이듬해 경기도는 직접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지역주민들에게 물어서 이를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경향신문의 1993년 5월 18일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 생활권역에 가까운 지역으로 편입되기를 원했다.

행정 구역 생활권 중심 조정 요구

경기 11개 시군 1백 21개 지역 주민들 타 시도로 편입희망

行政구역조정 요구 "봇물"

水原商議 태안읍 신里등 水原市편입 건의

都心에 보리밭

수원시 편입 요구지역

그림 18 경기도민들의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 / 경향신문 1993년 5월 18일자 21면

경기도내 11개 시군의 1백 21개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당정 간에 도농 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조사 결과이다.

광명 시흥 송탄 고양 과천 등 5개 시와 화성 용인 안성 평택 여주 옹진 등 6개 군에 속한 1백

行政구역 생활권중심 조정요구

京畿 11개市·郡 1백21개지역 주민들

타시·도로 편입희망

지역별 편입희망 시·군

海上공연장

仁川앞바

그림 19 경향신문 '행정구역 생활권 중심 조정 요구' / 경향신문 1994년 3월 2일자 21면

21개 읍면 동리 주민들은 인접시와 서울, 인천 등 타 시도와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향신문 1994년 3월 2일 기사-

6. 맺음말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보도는 1960년대까지 단지 정부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쳤다. 1980년대에 들어서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나누는 초보적이나마 숙의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전까지 일제와 해방 후 독재 정부 아래서 바람직한 언론보도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언론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전까지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숙의를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사회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고 행각된다. 주민들이 국가의 행정적인 조치라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조선일보가 5·16 군사 정변 가담자들이 정권을 잡고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나서려 하자 했던 말이 당시 언론이 제기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문제제기일 수 있다. 조선일보는 군사 정변 가담자들에게 "현대국가의 행정구역을 대규모로 재조정함에 있어서는 수년 내지 십수년의 장구한 검토심의기간을 소요하는 것"이라며 "실지 단행은 금후 과제로 남겨놓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행정구역 조정과 그 문제점은 경기도 뿐 아니라 다양한 시도에서 제기됐고 일부 시도는 주민투표를 거쳐 행정구역을 바꾼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금은 시민들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득실과 명분을 따져가며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교육 수준의 향상 또는 언론의 기능 확장 등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통시적 고찰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통시적 고찰

정혜선(협성대 초빙교수)

1. 여는 글

본고에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근대초기 메이지시기부터 1990년대까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지방제도는 일제강점기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현재에도 그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일본의 지방제도의 형성과 발전은 한국의 지방제도에 대한 구체적 참고가 되며 일본 지방제도의 특성에 대한 구명은 한국 행정조직 안에 잔존하고 있는 일제청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일본 지방제도의 출발이며 형성기라 할 수 있는 근대시기의 지방자치제도를 메이지 유신 전후부터 전시체제에 이르기까지 살펴보겠다. 둘째, 패전 후 정치 이념의 민주적 전환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성장해 가는 모습과 특성을 분석하겠다. 셋째, 대도시와 광역행정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고찰하겠다.

2. 근대 일본지방자치제도의 형성과 발전

1)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형성-메이지유신과 3신법 제정

1868년 메이지 유신이후 과거의 봉건제를 타파하고, 중앙집권적 제도를 창출하여 군현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런데 메이지유신 성공이후에도 봉건적인 제후의 할거적인 세력은 여전히 강력히 존재했기 때문에 메이지 정부는 이전의 봉건적인 번제(藩制)를 폐지하

고 부현제(府縣制)로 단순 대치시키는데 불과했다.(1871) 즉 부현제는 종전의 번을 부현으로 명칭을 바꾼데 불과하였던 것이다.

부현의 구역은 대소 광협의 차이가 매우 컸고, 또 잡다한 행정구획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어 부현의 하부조직이 정비하게 된다. 즉 기존부터 존재하던 지방하부조직, 군 촌 정제를 폐지하고, 대신 기계적으로 대구, 소구(大區, 小區)로 나누어 행정구획을 확정했다. 이렇게 지방제도는 절대주의적 중앙집권적인 형태이지만, 어느 정도 확립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하부 조직으로서 대구, 소구(大區, 小區)제는 개편된다. 왜냐하면 대구 소구제는 관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행정구획을 만들어, 장기간 발달해 온 기존의 군정촌제(郡, 町, 村制)를 철폐했기 때문이다.

지방제도 하부조직이 개편되는 메이지유신기는 일본 지방제도에서 중대한 기점이 되는 시기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자치의 맹아적 형태가 발현되는 중요한 시기라 말할 수 있다.

3신법 제정

1878년에 군구정촌(郡區町村)편제법을 제정하여 부현 하부조직으로 이미 폐지 군정촌을 부활시켰고, 대구 소구를 없앴다. 다만 도시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구(區)라는 명칭을 만들어 존속시켰다. 군구정촌편제법과 더불어, 부현회규칙과 지방세규칙이 공포되었다. 부현회규칙은 '제한선거이기는 하나 공적 선거에 의해 부현회를 설치하며, 부현회의 권한으로는 지방세로서 실행되는 사항에 관해 의사권을 갖는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세규칙은 부현의 세제를 위한 준칙이며 지방세의 종류와 지방세로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정한 것이었다. 위의 세 가지 법(三法)은 3신법(三新法)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며, 삼신법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군구정촌편제법(부현-군-구-정-촌)

지방행정구획을 설정하는 법으로 기존의 대구·소구제를 폐지하고 부현 아래에 군구정촌(郡區町村)을 두었다. 구(區)는 3부(府)·5항(港)과 '사람들이 밀접한 지역'에 설치했으며, 이후 시(市)에 해당한다. 군(郡)·구(區)에는 관선에 의한 군수(郡長) 구장(區長)을 두었으며, 정촌에는 공공선거에 의한 호장을 두었다. 호장은 '행정사무에 종사할' 때에는 부지사·현령이나 군·구장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였다.

부현회규칙

제1회 지방관회의에서 가결된 구호장민회를 개정하여 공공선거로 선출된 의원에 의한 부현회 설치를 규정한 것이다. 의원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해당 군구 내에 본적을 두고 해당 부현에 5엔 이상의 조세를 납입하는 자에 한해 부여하였다.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남자로 해당 부현에 본적을 두고 만3년 이상 거주하며 10원 이상의 조세를 납입한 자에게 부여했으며, 임기는 4년으로 2년마다 의원 절반을 선출하였다. 정·부의장은 의원간 호선이었으며 부지사·현령의 인가와 내무대신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였다. 또한 의회 도중 국가의 안녕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지사와 현령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무대신에 의해 부현회의 폐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부현회의 의사 권한은 지방세 예산으로 한정되어 규칙제정권, 즉 오늘날의 조례제정권은 부지사와 현령의 고유권한으로 남아 있었다.

지방세규칙

기존 부현의 수입이었던 주민세와 부현세를 지방세로 하고 그 재원은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인 지조(地租)의 1/5 이내로 한 '지조할(地租割)'외에 '호수할(戶數割)'과 영업세 및 잡종세로 하여 지방세로 지불해야 할 비목(費目)을 설정하였다. 부현회는 각 비목의 증감을 심의할 수 있었지만 삭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상의 삼신법은 종래의 절대주의적 중앙집권제를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완화를 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적 요소가 들어가게 되었다. 중앙집권제가 부분적으로 수정되고 지방 자치적 요소가 증가한 점은 그 후 일본의 지방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삼신법은 그 이후에 수차례의 개정을 하게 된다. 이 시기는 아직 헌법의 제도와 국회의 개설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시기로, 이 법들은 메이지 정부가 스스로 제정하고, 또 그것을 개정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절대주의적 중앙집권제를 스스로 수정 또는 완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일본에서 자유민권 운동이라는 운동에 기인한 바가 컸다. 자유민권운동이 발전하면서 국회창설론이 대두하였고, 중앙집권적 국가적 관료주의에 대한 대립이 형성되었으며, 국가와 자유민권운동의 기본적 대립 하에서 절대주의적 중앙집권제가 다소 수정될 수 있었다.

2) 일본지방자치제도의 발전

① 메이지 헌법하의 지방제도

일본의 지방제도는 일본국회의 개설(1889)을 전후하여 정비를 보게 된다. 국회 개설 1년 전에 시제(市制), 정촌제(町村制)가 제정되었고 국회 개설 1년 후에는 부현제 및 군제가 제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 그 법제(시제 정촌제)의 원안이 일본정부의 법률고문격인 독일인 앨버트 모세(Albert Mosse)의 초안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초안은 독일 특히 프로이센의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서, 그 이전의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내용의 지방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미 살펴본 바처럼, 메이지 정부는 절대주의적 중앙집권제를 확립하는데 급급하여 봉건적 분권을 그냥 그대로 중앙집권적 체제로 대치시키려 했지만, 자유민권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중앙집권제를 다소 완화하는 형태로서 지방자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모세의 초안은 장기간의 심의를 거쳐 시제 정촌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모세의 초안은 인민 고유의 권리적 측면이 희박한 프로이센의 지방제도였고, 이를 토대로 한 일본의 지방 자치제도 또한 절대주의적인 메이지 정부의 국가적 통일을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하에 지방제도가 정비된 것이다. 자연히 그 목표가 지방자치 자체의 토대를 강고히 함도 아니고 인민에게 민주주의적 자치를 인정함도 아니었다. 이 시기 제정된 시제정촌제와 부현군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시제정촌제(1888)

시는 정촌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되었고 시정촌 내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만 25세 이상의 남자로 2년 이상 해당 시정촌에 거주하며 조세 또는 직접국세 2엔 이상을 납부한 자를 공민으로 간주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시정촌회 의원 선거는 시의회가 3급, 정촌의회를 2급으로 하는 등급 선거를 채용하여 고액납세자를 우대하는 제도였다. 시정촌회에는 조례제정권을 부여하였다. 집행기관의 경우 시는 시장(市長)·조역(助役)·명예직 참사(參事)회원으로 구성되는 시참사회(市參事會)에서 맡았고, 정촌은 정촌장이 맡았다. 시정촌장의 선임에서 시장은 시의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로부터 내무대신이 천황의 재가를 받아 임명하였고, 정촌장은 정촌회에서의 선거를 거친 후 부·현지사가 인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촌에 관해서는 재정 확보의 관점에서 이른바 메이지 대합병이라고 불린 대규모 정촌합병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자치라고 하지만 제한이 가해졌다. 예를 들면, 도쿄·

오사카·교토의 시장(市長)은 부지사(府知事), 조역은 부서기관(府書記官)이 겸임하는 3대 도시특례가 채용되었다. 이밖에 시정촌에서도 시는 내무대신과 부현지사, 정촌은 군수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었으며 시정촌장은 국가기관으로서 기관위임 사무를 부과하였다.

부현제 군제 도입

지방관 관제에 따라 당시 국가의 지방행정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현군에 자치를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 내부 반발이 강해 부현제 군제는 헌법 반포 후인 1890년에 제정되었다. 부현에서 우선 집행기관은 관료인 부·현지사가 맡았고, 지사와 2명의 고등관, 명예직 참사회원으로 구성되는 부현참사회는 부(副)의결기관이 되었다. 부현회는 의결기관이긴 하지만 당시 조례제정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부현회 의원 선거에는 시와 군의원과 참사회원이 선거하는 복수선거제가 채택되었다. 부·현은 내무대신 감독 아래에 있었으며, 내무대신은 부현회의 해산권도 가지고 있었다. 군에도 마찬가지로 군 의회와 군 참사회가 설치되었다. 군 의회 의원 선거는 정촌회 의원에 의한 복수선거제였지만 정수의 1/3은 대지주 의원에 의해 선출되었다.

이처럼 메이지시대 지방자치제도는 관치적(官治的) 자치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국회 개설에 대비하여 메이지 정부는 강력한 국가적 통일과 관료적 지배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고, 이 목표에 부응해 지방제도가 서둘러 완비되어 갔기 때문이다. 메이지 헌법 하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기조로 한 관료적 억압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단체의 자주성의 박탈이라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지방단체는 포괄적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기는 했지만, 지방단체의 포괄적 권한은 엄격하면서도 거의 후견인과 같은 행정 통제를 받고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단체의 자주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로 각종의 지방단체에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두었는데, 의결기관의 구성은 공민제를 토대로 한 제한선거에 의거해 이루어졌고, 그 의결기관 권한은 비교적 약하다. 그 반면 집행기관 구성원의 임명에는 국가가 광범하게 관여할 수 있었고, 지방단체의 장 가운데 어떤 것은 중앙정부가 직접 임명하기도 했다.

② 지방자치권의 확충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4년의 러일전쟁, 두 전쟁을 통해 일본의 자본주의가 확립됨에 따라 사회 상황이 현저하게 변화하였다. 일본 국내 정치상황도 1898년, 일본 최초의

정당내각인 오쿠마 시게노부 내각의 성립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정당 세력이 점차 확대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제도는 변화를 거듭하였다. 최초 제정되었던 시제정촌제와 부현제군제의 시행은 결코 쉽지 않았다. 앞서 기술한 정촌제 시행에 앞서 정촌 합병은 기존 관행을 배려하였지만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기에 정촌의 분리 합병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만이 각지에 남아 있었고, 또한 새롭게 형성된 정촌 내에서 구(舊)정촌 사이에 대립이 발생, 이는 결국 부락 간의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군(郡)제도의 시행도 군 규모와 군 구역 정리 등 군의 분리 합병 배치가 필요하였다. 군제도는 공포 다음해인 1891년에 11개 현에서 시행되었지만 이것은 군의 분리 합병 배치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제도와 시제도의 시행을 전제하는 부현제도 그 실행에 난항을 겪었고 같은 해 시행된 것은 겨우 10개 현 정도였으며 주요 부현은 10년 동안 그 실행이 어려웠다.

이러한 전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야마가타 아리토모 내각은 1899년에 부현제군제 전면 개정을 단행하였다. 개정 요점은 부현회 의원의 복수선거제를 폐지하고 부현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한편 부현회·부현참사회에 대한 부현지사의 권한도 강화하였다. 군제도 복수선거제를 없애고 현실에 맞지 않는 대지주 의원을 폐지하였다. 야마가타 내각은 또한 문관임용령을 개정하여 칙임관 임용에서도 일정한 자격자를 임용토록 하여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원래 정우계(政友系)와 비정우계 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던 이른바 게이엔시대(桂園時代)에는 정권교체가 때마다 지사가 경질되어 지사가 정쟁에 휩싸였고 지사의 정당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3대도시특례는 시행 초기부터 시민들의 강한 반대로 시행 전에 폐지되었다.

시제정촌제도 1911년에 전면 개정하여 시(市) 참사회를 기존 집행기관에서 부(副)의결기관으로 하였고, 시장을 집행기관으로 하였으며 시정촌장의 기관위임 사무 규정을 확대하는 등 행정의 효율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러일전쟁으로 지방, 특히 농촌지역은 더욱 피폐해졌다. 그 결과, 이미 1908년에 히라타 도우스케(平田東助) 내무대신을 비롯한 내무관료에 의해 이른바 지방개량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내무성의 외곽 단체로서 당시 전국에 약 100여 개 정도로 조직되어 있던 보덕사(報德社)가 중심이 되어, 정촌의 자치 의식을 고양시켜 재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기에 접어들면서 정당정치 발전과 보통선거를 위한 운동이 고양되어 지방자치권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목소리를 수용하여 정우회의 하라 다카시(原敬) 내각은 1921년에 시제정촌제와 고액납세자가 우대받는 등급선거를 개정하였으며(정촌회 의원 선거에서는 폐지, 시의회 의원 선거는 2급 선거로 완화), 공민의 자격 기준도 직접 국세 적용에서 2년 이상 해당 시정촌으로 직접 시정

촌세 납입으로 개정하였다. 또 1923년에는 정촌의 기능 확대, 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군제 폐지가 결정되어 자치단체로서 군을 폐지하였다. 더욱이 그 다음 해에는 지방행정구획으로서 군청(郡役所)도 폐지하였다.

1925년에 보통선거제도가 도입되면서 헌정회의 와카츠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내각은 다음 해에 시제정촌제, 부현제를 동시에 개정하고, 지방의회 선거에도 보통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시정촌장의 선임도 시장 선임에 대한 천황의 재가(裁可), 정촌장 선임에 대한 부현지사의 인가(認可) 필요성이 없어졌다.

정우회의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내각은 지방분권을 위한 부현 기능을 더욱 확대하였다. 1929년의 부현제 개정에서 부현에 시정촌과 동일한 조례제정권을 부여하는 것 외에 내무대신에 의한 부현 예산삭감권 폐지와 인허가권 정리도 실시하였다. 또한 도입하지 않았지만 지방재정 강화를 목적으로 토지세(地租稅)·영업수입세의 지방 위양(토지세·영업수입세 양 세금위양론)이나 지사 공공선거론을 검토하는 등 부현의 단체자치권이 확충되어 부현과 시정촌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격에 차이가 점차 없어졌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처럼 일본의 지방자치는 초기 제도의 경우 절대주의적 관료주의에 대항하여 자유민권론이 있었기에 이루어졌음을 이미 살펴 보았다. 이후 자유민권론은 의회주의적 정당적 세력으로 결합되어 그 세력을 강화하여 관료적 세력에 저항한 결과 수차례에 걸쳐 지방제도의 개정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지방자치의 확충도 전시체제로 나아감에 따라 파괴되어 갔다. 다음 절에서 전시체체의 지방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③ 전시체제의 지방제도

1929년(쇼와 4)의 대공황은 일본에도 심각한 불황을 초래하였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다음 해에는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여 이른바 '농촌 공황'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본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급변하여 구미와의 대립이 심화되었으며,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일본은 준전시체제에서 총력전을 향한 전시체제로 서서히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쟁 직전, 농촌 구제를 비롯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재편성되고 전쟁 수행을 위해 중앙 통제의 강화로 나아갔다.

농촌은 파국적 궁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1932년에 시국광구사업(時局匡救事業: 경기활성화대책을 목적으로 한 공공사업)과 농어촌경제갱생운동을 전개하였다. 시국광구사업은 실업대책으로서 토목사업을 전개하여 농촌의 과잉 노동력을 전용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지방의 토목사업비는 급증하였고 이는 국고에서 지급되었다. 농어촌경제갱생운동의

목적은 “농촌 마을 고유의 미풍인 이웃과 서로 협동하는 정신을 활용하고” 마을 사람들이 일치 협력해 농촌 재건에 힘쓰는 데에 있었다.

이외에도 궁핍해지는 국민 생활 대책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강구됨 따라,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단체는 국정을 위임받는 사무가 증대되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중앙통제가 강화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중앙이 지방의 재정세제 조정을 실시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내무성 지방국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1936년에 내무성령으로 임시재정보조금 규칙을 공포하였다. 1937년 시행된 국가 총동원법으로 인해 전쟁과 관련된 비용이 증대되면서, 지방재정은 더욱 궁핍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40년 임시재정 보조금 규칙은 지방분여세(地方分與稅) 제도로서 정착하였다. 이 제도는 일정 정도의 세금을 일단 국세로서 징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서, 이 가운데 배부세(配賦稅)는 재원 보장을 위해 제2차 세계대전 후까지 존재했다.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위임 사무처리 능력은 높아졌지만, 재정적으로 지방이 지닌 자주성은 상실되었다.

1935년에 내무성은 농어촌경제갱생운동의 말단 활동을 담당하고 있던 정내회(町內會) 부락회(部落會)를 실행 단위로 시행하여, 이른바 선거숙청운동을 시행하여 지방의 정당 세력은 쇠퇴하였다, 1940년에는 내무성 훈령으로 정내회와 부락회 그리고 인접 조직의 정비를 부현지사에게 명하였고, 이는 지역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진 조직을 시정촌의 보조적 조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었다.

1943년이 되면서 전시체제에 대응해야만 했던 결과 시제정촌제와 부현제 개정, 도쿄도제(東京都制) 제정 등을 실행하였다. 시제정촌제 개정 요점은 ① 국정위임 사무는 법률 이외에도 각종 명령으로 위임 가능하고, ② 시정촌장은 필요에 따라 시정촌 내의 단체에 대해 지시를 명할 수 있으며, ③ 시정촌회의 의결사항을 한정하고 시 의회(市會,시제정촌제 시대 시의회의 별칭)의 권한도 일부 시참사회에 위양, ④ 시장은 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 칙재(勅裁)에 의해 선임하고, 정촌장은 정촌회의 선거를 통해 지사가 인가하고, ⑤ 정내회·부락회에 관해서는 시정촌장의 직무 권한으로 한다는 등이었다.

부현제 개정으로 부현에 대한 사무는 법률·칙령 이외에도 넓게 명령에 의해 위임 가능했다. 도쿄도제는 제국의 수도다운 면모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도쿄도를 탄생시켰으며 도장관을 관리로 하는 국가적 성격을 강하게 가졌다.

또한 전시 중에 행정 종합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의 광역화가 모색되었다. 1938년,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이 내무성으로부터 독립하였고, 내무성은 ‘지방행정의 총무성’과 같은 성격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내무성은 지사(知事)에게 지방행정 광역화를 담당

시키고자 1940년에 지방연락협의회를 설치하고, 1943년에는 지방행정협의회를 확충하여 회장에 지사가 임명되도록 만들었다. 1945년에는 새로운 지방 총감부가 설치되긴 하였지만 조직이 정비되기 전에 일본은 패전을 맞이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1929년이래 지방행정의 자치화가 최대한 확충되고, 지방분권과 인민자치가 확충되었지만 준전시체제로 진행함에 따라 위축되어져갔다. 미일 전쟁을 치루는 과정에서는 그나마 불완전한 채로 지방자치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의 지방자치는 전쟁을 동원하기 위한 국가적 색채가 농후해져갔다. 지방자치는 거의 형체만을 유지하게 되었다.

3. 현대 일본 지방자치제도

1) 전후 민주화와 지방자치제도의 개혁

1945년 8월,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면서, 연합국군총사령본부(GHQ)에 의한 점령 통치가 시작되었다. GHQ의 점령 방침은 일본의 비군사화·민주화에 있었고, 지방자치제도도 그 민주주의의 일환으로서 근대화하고 민주화하여야 한다는 게 일종의 지상 명령이었다. 전후 지방자치제도는 과거의 오랫동안의 고질적인 병폐에 예리한 개혁의 메스를 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되어 일본은 독립했고, 동서냉전이 개시되면서 한국전쟁 등의 영향으로 GHQ는 점령 방침을 일본의 조기 부흥 및 수정으로 대전환한다.

1946년 9월 내무성에 의해 이루어진 제1차 지방제도 개혁에서는 지금까지 관선이었던 지사를 직접 공선제(지방의회 시정촌장도 동일)로 바꾸고, 만20세 이상 남녀의 보통 선거제를 실시했고, 조례 제정과 자치단체장·의원의 해직감사 청구 등 직접청구제도를 실시하였다. 당초 내무성은 지사의 신분은 관리로 설정하고 공공선거제 또한 부현회에 의한 호선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이는 식량·치안문제 등의 과제를 중앙정부의 지도력 하에 처리해야 할 필요에 의해 지사에 대한 내무성의 감독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GHQ가 반대했고, 공공선거에 의한 지사 관리안은 헌법 시행 후 공공의 관리로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로 바꾸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부현의 성격이 자치단체화 됨에 따라 지금까지 관선 지사가 실행하던 국정사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검토가 과제로 남았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같은 해 9월에 지방제도위원회가 설치되어 제2차 지방제도 개혁이 이루어져 1947년 5월

3일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다. 이 지방자치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개별법을 일체화한 법으로 지방자치에 관해 기본법의 성격을 가진다. 이 법에 기초하여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縣)은 시정촌(市町村)과 마찬가지로 완전 자치화하여 보통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였다. 도쿄도 특별구 등은 특별 지방자치단체화 하였고, 또한 대도시는 다른 도시들보다 자치권을 강화하여 특별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주변 법률 제정으로 지방자치권이 확대되는 한편, 기관위임 사무가 시정촌장으로부터 도도부현의 지사에게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기관위임 사무의 경우는 주무대신이 공공선거로 선출된 지사의 상급기관이 되었다. 또한 기관위임 사무를 보완하는 것으로 법률·정령(政令) 등에 의해 자치단체에 행정기관, 시설, 특징직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필수적 규제가 생겼고, 정령에서 정하는 도도부현 직원은 지방사무관으로서 국가공무원으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국가의 지방행정구획 성격에 관해서는 해결이 되었지만 기관위임 사무의 확장을 GHQ가 용인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주화에 관해서 GHQ 내부 대립도 있었지만, 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써 완전한 지방분권화 추진은 정부를 극도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대국적인 입장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과 같은 날, 새로운 일본 헌법도 시행되어 헌법 제8장에 의거 "지방자치"가 보장되었다. 제92조에는 "지방 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기초하여 법률에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기 통치를 실시하는 주민자치를 목표로 했다. 또한 국가의 관여를 가능한 배제해 자율성을 확보하는 단체자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 개혁에 대한 내무성의 자세는 GHQ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극적인 것으로 비춰졌다. 지방자치법의 당초 안(案)에서 내무대신은 자치단체에 관한 문제를 '소관 업무'라고 하였지만 GHQ의 반대로 '일반적 감독'으로 개정되었다. 당시 GHQ는 중앙부처의 민주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경찰 행정을 내무성이 소관하고 있던 점을 중앙집권적이라고 간주하여 국가지방 경찰과 자치단체 경찰로 분권화하였다. 그 외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문부성에 교육위원 공공선거제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내무성은 GHQ의 분권화 요구에 대하여 스스로를 '지방자치의 총무성'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민정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혁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GHQ에 의해 거부당하였다. 이로 인해 내무성은 지방행정을 관할하는 지방국을, 국무대신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지방자치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했다. 그러나 민주화 분권화의 요구에 대한 내무성의 자세에 불만을 가진 GHQ는 지방자치위원회의 개편을 연기시켰고, 이에 따라 1947년 12월에 드디어 내무성 해체를 결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출

향기관 설치의 국회 승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였으며, 지방공공단체는 동 규정과 각 중앙부처의 기관위임 사무에 의해 중앙부처의 피라미드식 행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지속된 지방재정의 궁핍 속에서 세제(稅制) 근대화의 필요성을 느낀 GHQ는 1949년 5월에 컬럼비아 대학 쇼우프(Carl S. Shoup)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초빙하였다. 같은 해 9월, 이른바 쇼우프 권고가 제출되었다. 이 권고는 세제 개혁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방자치 방향에 관해서도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었다. 그 요점으로는 ① 행정 책임의 명확화 ② 능률성 ③ 시정촌 우선의 사무 재분배를 꼽을 수 있다. 특히 ③은 자치단체이기도 하며 국가의 지방행정구획이기도 한 '2중적 성격'의 지방 공공단체를 개혁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무 재분배의 전제로서 세원(稅源) 분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고, 지금까지의 보조금에 의한 중앙 통제를 줄여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술한 배부세(配付稅)는 그 총액이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방이 필요로 하는 재원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못하였고 또한 지방의 재정 수요와 재정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지방재정을 조정하기 위한 지방 재정 형평 교부금제도를 창설하였고 이는 지방재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되었다. 단, 쇼우프 권고에 의한 지방세력 개혁으로 지방세가 증액되기는 하였으나, 시정촌세가 우대되어 도도부현은 불만이 남아 있었다.

쇼우프의 권고를 받아들여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 재분배을 검토하고자 1949년 12월에는 간베 마사오(神戶正雄)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간베 위원회는 다음 해 12월에 제1차 권고안(간베 권고)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간베 권고에서는 기관위임 사무의 활용은 최대한 피하고, 도도부현을 광역지자제, 시정촌을 기초자치단체로 하여 권한을 상호 명확히 하는 '분리형' 중앙-지방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GHQ는 이 시기부터 일본의 점령 방침을 전환하여, 중앙정부의 감독을 약화시키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각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이에 반대하였다. 더욱이 수용체제의 불비로 지방 측도 환영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간베 권고는 사실상 묻히고 말았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의 재 배분은 실현되지 못하였고, 독립 후에는 오히려 중앙의 지방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였다. 간베 권고에서는 시정촌의 자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촌 합병을 권고하였는데, 중앙정부 주도로 시정촌의 행·재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953년에는 시정촌 건설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재정균형교부금제도도 교부 금액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대립으로 재정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다음 해 교부 총액을 국세의 일정 비율로 반영시켜 지방 재원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제도를 재편하고, 1952년에 지방재정위원회

와 지방자치청을 통합하여 총리부 외국인 자치청을 설치, 이를 소관하게 하였다. 지방 재정의 통합 움직임은 이미 내무성이 해체된 후인 1949년 국무대신을 장으로 하는 지방자치청의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었다. 쇼우프 권고에 따라 지방재정위원회가 분리되었지만, "지방자치의 총무성"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부서가 중앙정부 수준에서 설치되기를 원하는 논의가 중앙과 지방, 양쪽 모두에 있어 자치청이 설치되었다. 자치청은 1960년에 자치성으로 승격하였다.

한편 미국의 점령 방침 전환에 따라 전후 개혁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민주적 개혁은 다양한 수정을 거치게 되었다. 우선 1952년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쿄도 특별구에서의 구장 공공선거제가 폐지되었다. 이어서 1954년에는 교육위원 공공선거제가 폐지되었고, 장(長)의 선임은 임명제로 바뀌었다. 더욱이 경찰제도도 시정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자치단체 경찰과 국가지방 경찰이 도도부현 경찰로 일원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부현제도의 방향을 둘러싼 문제도 있었다. 1956년의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도도부현을 포괄적 지방 공공단체, 시정촌을 기초적 지방 공공단체로 하여 양자의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이 개정에서는 전술한 특별시제도와 쇼우프 권고에 의한 지방세제 개혁 이후 심화되는 부현과 대도시 사이의 대립을 피하고자 특별시제도를 정령지정도시제도(政令指定都市制度 : 법정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지사의 공공선거제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1957년 10월 제4차 지방제도조사위원회는 도도부현을 폐지하고 관선 단체장을 임명하는 '지방'을 전국 7~9개로 설치하는 '지방안(地方案)'과 2~4부현을 통합하는 '현안(縣案)'으로 양론을 기술한 '지방제안(地方提案)'을 답신하였다. 그러나 이 안은 도도부현도 중앙정부도 강하게 반대하여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지만 향후 국가의 지방종합기관을 모색하는 데 활용되었다.

2) 신(新)중앙집권화-고도성장기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에 걸쳐 경기가 상승하면서 일본은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1960년의 각의에서 결정한 소득배증계획이 상징하듯이 이른바 고도경제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고도경제성장기에 지방자치제도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 '제도운용의 시대'로 불리는 한편, 동시에 개발행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화의 추진으로 '신중앙집권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은 지역 개발의 추진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1962년, 해안 지역에 석유 콤비나트와 철강 콤비나트의 거점 개발을 목표로 한 일본 전국

종합개발계획이 책정되어 입지거점 지역의 선정과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세제와 재정상 우대 조치를 포함한 신산업도시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각지의 자치단체는 중화학공업형 산업을 유치하고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로비전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당초 13개 지역에 신산업도시를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자치단체 간의 격렬한 경쟁은 보수 계열 지역 의원을 끌어들여 결국엔 의원입법으로 새롭게 10개의 공업정비특별지구가 추가 지정되었다.

이와 같이 지역 개발을 둘러싼 공공투자 및 보조금 획득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중앙직할 지방자치'가 전개되는데, 효율적인 지역 개발을 이유로 지금까지 자치단체에 있었던 권한마저 국가에 귀속되고 이는 다시 기관위임사무와 지방출향기관의 증가와 같은 중앙부처에 의한 피라미드식 행정의 강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관위임 사무의 대표적인 사례가 1964년 도로법 개정과 신(新)하천법 제정이다. 도로법 개정에서는 국도·도도부현도·시정촌도로 구분하여 간선도로망인 지정 국도와 고속도로를 건설대신 관할로 하고, 지정 구간 이외의 국도 관리를 지사 또는 정령지정도시 시장의 기관위임 사무로 하였다. 신하천법에서는 1급 하천·2급 하천·준용 하천으로 구분하여 중요 구간의 1급 하천은 건설대신이 직접 관할하고, 그 외의 1급 하천 관리 업무와 2급 하천 지정 및 관리는 지사가 그리고 준용 하천은 시정촌장의 기관위임 사무로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중앙부처 감독하에 특수법인 형태의 공단 등이 남발되었다. 앞서 엄급한 도로법 개정과 신하천법 제정으로 건설성 지방건설국이 직항사업을 담당하였다. 1963년 5월에는 농림성 농림수산국이 전국 8개 블록의 지방농정국으로 개편되어 지방출향기관으로 전환되었다. 그 외에 일본주택공단과 일본도로공단 등 공단(公團)과 사업단(事業團)이 다수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신중앙집권화' 경향은 그동안 지연되어 진행되지 않았던 부현제도의 폐지와 부현의 광역 합병을 위한 타개책으로서도 강구되었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한 것은 제1차 임시행정위원회였다. 기관 위임사무는 앞서 언급한 간베 권고에 기초하여 1952년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증가억제책을 시행하였지만, 제1차 임시행정위원회는 기관위임 사무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결론을 내려 기관위임 사무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방출향기관에 관해서도 전국을 9개 블록으로 구분하여 국가 행정의 종합출향기관을 설치하는 '지방청' 구상을 제창하였다. 또한 제10차 지방제도조사위원회는 부현합병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부현제도를 축으로 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동요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여파는 심각한 공해와 도시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공해 문제 개선을 호소하는 주민운동이 전국에서 전개되어 사회당이나 공산당 등 혁신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자치단체장에 당선되는 혁신 자치단체가 1963년의 통일 지방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탄생하였다. 혁신적 자치단체장은 보수정당이 추진해 온 개발 중시 정책을 수정하여 "주민 참여의 지방자치"를 전개하였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은 혁신적일지라도 의회 의원 과반수는 보수적인 상태였다. 그러나 예를 들면 아스카타 이치오(飛鳥田一) 요코하마 시장의 '1만명 집회' 등 시민 참가가 추진되어 국가의 공해법령보다도 훨씬 엄격한 규제의 공해조례를 제정하는 등 생활 우선, 복지 우선의 이른바 '정권교체 없는 정책 전환'이 선도되었다.

3) 지방분권개혁-저성장기

일본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고도경제성장기가 종언을 고하면서, 저성장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미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중앙집권화와 혁신 지자체의 등장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는 공공사업비가 증대되었고 또한 혁신 자치단체가 추진한 복지정책으로 사회보장비도 늘어 갔다. 이러한 두 축의 비용 증가로 국채 발행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1957년부터 당시까지의 건설 국채에 더하여 적자 국채의 발행이 거의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복지와 공공사업의 확장과 저성장에 의한 세수 저하는 행정개혁의 필요성을 인식시켰고 지방자치제도 개혁에도 영향을 미쳤다.

1981년 3월, 도코 도시오(土光敏夫)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차 임시행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증세 없는 재정 재건'을 슬로건으로 한 행·재정 개혁을 도모하였다. 제2차 임시행정위원회의 5차례에 걸친 보고에 의해 1983년에 정부는 신행정혁신대강을 내각 의결하였다. 지방에 대해서는 ① 보조금 총액 억제, ② 기관위임사무의 정리·합리화, ③지방행정의 감량화와 합리화, ④ 필수 규제의 정리·합리화 이외에 지방사무관 문제도 차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등 국가 즉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관여를 축소하는 지방분권개혁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으로부터의 재정 이전 삭감으로 지방도 심각한 재정 삭감을 강요받았다. 제2차 임시행정위원회 해산 이후에는 3차에 걸쳐 임시행정개혁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개혁이 논의되었다. 임시행정개혁 추진심의회와 제23차 지방제도위원회에서 지방제도 개혁은 시험적 자치제도·중핵시제도·광역연합제도 창설 등 시정촌으로의 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1993년 8월, 38년간 지속된 55년체제는 붕괴되고 호소카와(細川) 연립정권이 탄생하였다.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고, 호소카와 연립정권 탄생 직전,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지방분권추진에 관한 결의"와 이른바 민간임시행정위원회의 "지방분권에

관한 긴급 제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방이 담당하여 "풍요로운 사회 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수도 도쿄(東京)로의 일방적인 집중을 시정코자 하는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정·관·재계의 유착 구조에서 오는 정치 부패를 타파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행정개혁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도 지방분권을 추구하였다. 연립정권 발족 후에도 지방 6개 단체, 제24차 지방제도위원회 등의 의견서와 보고로부터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4년(헤이세이 6) 12월에 지방분권대강을 내각 의결하고, 다음 해 5월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방분권추진법을 제정하여, 같은 해 7월에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2층 구조를 전제로 실현가능한 분권을 지향 하여, 두 가지 방향성, 즉 국가의 지방에 대한 축소, 둘째로 국가로부터 지방으로의 권한 위양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그리고 중간 보고와 5차에 걸친 권고를 제출하여 1999년 7월에 지방분권일괄법이 성립되었고 또한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이 분권개혁의 최대 주안점은 기관위임 사무를 폐지함에 있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지방 공공단체가 담당하던 행정 사무와 단체위임 사무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원래 국가가 실행해야 하지만 적정한 처리를 확보할 필요성에 의해 법률이나 정령에 규정하는 법정수탁 사무와 지방 공공단체가 처리해야만 하는 자치 사무를 구분함에 따라 국가는 자치단체에 법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지휘감독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가와 지방은 대등·협력관계에 놓여졌고,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원칙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가 정당한가를 심사하는 국가지방계쟁처리위원회를 총무부에 설치하였다. 더욱이 도도부현으로부터 시정촌으로의 권한이양사항으로서 정령지정도시·중핵시와 함께 인구 20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특례시의 설치와 필수 규칙의 수정도 포함하였다. 그 외 지방 사무관의 폐지도 후에 결정하였다. 2001년 7월, 추진위원회는 해산하였지만 정령에 따라 지방분권추진회의가 설치되었다. 이 회의는 추진위원회가 남긴 과제 해결을 위해 현재 분권의 실질적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시정촌 합병을 추진하여 다음 해 10월 "사무·사업의 방향에 관한 의견"에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 적정화를 도모하였다. 더욱이 오늘날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및 세원이양(税源移譲)의 이른바 삼위일체 개혁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제고하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단, 이러한 분권개혁은 이른바 단체자치에 대한 개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직접청구와 주민투표 등 주민자치를 위한 개혁에

도 힘을 기울여야만 했다.

4. 대도시 제도와 광역행정제도

1) 대도시제도

3대도시와 6대도시

메이지 헌법의 성립, 제국의회 설립에 앞서 확립된 지방제도는 프로이센의 제도를 범례로 제정한 1888년의 시제정촌제, 1890년의 부현제군제를 중심으로 한다. 이 제도로 전국은 부현(府縣)으로 나누었고 부현은 다시 군(郡)과 시(市)로 그리고 군은 정(町)과 촌(村)으로 나뉘어졌다.

특히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교토(京都)의 3대도시에 관해서는 시제정촌제 시행에 앞서 "시제(市制) 가운데, 도쿄시 교토시 오사카시를 특례로 설정하는 건"(메이지 22년, 법률 12호)에 의해 시제특례를 설치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이 3대도시에서 각각 부지사가 시장(市長)을, 부서기관이 조역(助役)을 겸임하고, 더욱이 이 3개시 참사회는 부지사, 부서기관 및 명예직 참사회에 의해 조직되는 등의 특례를 가졌다. 또한 이에 따라 세입면에서도 도쿄부, 교토부, 오사카부에는 부의 지출이 충당해야 할 부세(府稅)를 시 부문(市部)과 군 부문(郡部)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등의 특례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특례는 부와 3개 대도시의 행정운영 일체화를 도모하기 위해 3개 도시를 일반시보다도 국가의 강력한 감독 아래에 두었고, 지방자치단체로서 독립성을 제한하는 것을 염두에 둔 제도였다. 그 이유는 시제정촌제의 재정과정에서 시장의 공공선거 제도화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였고 3개 대도시와 같이 규모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진 시에 관해서는 부(府)를 통한 정부의 통제와 관여가 가능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례하에서 예를 들면, 시 참사회원, 시의회 의원은 내무 관료인 부지사가 겸임하는 시장과 부서기관이 겸임하는 조역의 권위 앞에 의견을 충분히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3대도시의 정치상황은 폐쇄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시제 특례에 대해 3대도시로부터의 반발이 강해져 주로 해당 시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시제특례철폐운동이 벌어진 결과 1898년(메이지 31)에 이 시제 특례를 폐지하였고, 모든 시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3대도시와 요코하마(橫浜) 고베(神戶) 나고야(名古屋) 히로시마(廣島)시를 포함하는 부현은 다음 해 부현제 전면 개정 후에도 재정제도를 부현 전역

에 관한 것, 시 지역에 한정하는 것, 군 지역에 한정하는 것으로 3대 영역으로 분할하는 이른바 3부 경제제도를 채용하였다.

그 후 3개 대도시에 요코하마시, 고베시, 나고야시를 포함한 6대도시에 인구의 급격한 집중 현상이 발생하여 규모 면에서 일반시와 큰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여 1910년대에 접어들면서 구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의 제정에서 6대 대도시는 일반시와는 다른 특별한 취급을 받았다. 또한 6대 대도시는 부현의 감독으로부터 완전한 탈피를 지향하는 특별시제정운동(특별시운동) 등에 의해 6대도시의 사무처리에 관한 부현지사의 감독권 완화를 규정한 "6대 대도시 행정 감독에 관한 법률"을 1922년에 제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대전 전에는 더 이상 괄목할 만한 제도는 제정되지 않았으며, 1930년대 말 전시체제하에서 특별시 운동도 쇠퇴해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7년 지방자치법에 의해 대도시를 위한 특례제도로서 특별시제도를 설립하였다. 이는 부현과 대규모 시 사이에 발생하는 이중행정의 폐해를 제거하고 대도시에서 행정의 통일적 또는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한 제도였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시를 도도부현의 구역으로부터 독립시켜 시로서의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도도부현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가지는 특별지방공공단체로서 자리매김시키는 것이었으며, 이 특별시에는 행정구가 설치되어 공공선거로 구청장(區長)을 선출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특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었지만 이는 도쿄를 제외한 5대도시가 상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에 관계되는 각 부현으로부터의 강한 반발로 결국 특별시 지정은 시행되지 못한 채 1956년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특별시제도는 폐지되었고, 오늘날의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 제도가 설립되었다.

도제와 특별구

일본의 지방제도는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이층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도쿄도만은 시정촌과 함께 이른바 도쿄 23구로 불리는 특별구가 존재한다. 이 특별구는 각 구(區)의 장이 공공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에서 정령지정도시에서 시정(市政)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행정구와는 그 성격 차이가 있다.

도쿄도의 특별구도 기초자치단체로서 시에 준하는 존재이며 일반시와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그러나 대도시인 도쿄의 경우, 도(都)가 일체적·통일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무처리를 행하고 도제도(都制度)하의 특별구는 그 권한과

재정 면에서 일반시정촌과는 다른 위치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쿄도에서는 통상적으로 도부현(道府縣)이 담당하는 보건소 설치 등 환경·공중위생 업무가 특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일반시정촌의 담당 사무인 소방이나 하수도의 설치 관리 등은 도쿄도(都)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재정 면에서도 도쿄도와 특별구 사이에 재정조정제도가 존재하는 점이나 원래 시정촌세이지만 일부가 도세(都稅)로 징수되고 잇는 점 등을 도쿄도의 특수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쿄도의 특수성은 태평양 전쟁 중의 도제(都制) 시행 등 전쟁 이전부터 수도 도쿄에 대한 특수한 제도적 위치 형성에 기인한다.

발족 당시의 도쿄부에는 1878년 군구정촌편제법(郡區町村編制法)에 의해 15개 구(區) 6개 군(郡)을 설치하였지만, 그 후 1888년의 시제정촌제 시행으로 도쿄시가 되면서 15개 구는 그대로 도쿄시의 행정구가 되었다. 그 후 도쿄시는 주변 시정촌과의 합병으로 35개 구까지 확대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도시는 국가가 직ㅈㅂ 감독해야만 한다는 이유로 도쿄 오사카 교토의 이른바 3대도시에 관해서는 시제특례 등 일반시와는 다른 제도가 존재하였다. 특히 수도인 도쿄에 관해서는 도쿄부로부터 도쿄시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안이 몇 차례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도쿄시 구역을 '도쿄도'로 하고 관선(官選) 도장관(都長官)을 두는 안이나 역으로 일반시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시의회에서 선임하는 안이 존재하였지만 결국 어느 것도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면서 전시체제 강화의 필요성으로 도쿄부 도쿄시 사이에 이중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수도 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1943년(쇼와 18)에 국방체제 강화, 행정 능률 향상의 관점에서 도쿄부와 도쿄시를 일원화한 도쿄도제(東京都制)가 실현되엇고 도쿄부 및 도쿄시는 폐지되었다. 도의 수장은 관선 도장관이 맡았으며, 기존 도쿄시의 구(區)는 하급 조직이 되었다. 구의회가 존치된 것과도 조례 규정에 따라 도 사무를 구에 위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점 등 구에는 어느 정도 자치적인 요소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구청장은 관선이었고 또한 과세권이 없었으며, 권능은 재산 관리 등에 한정되는 등 구의 자치권은 대폭 제약되었다. 한편 서, 남, 북의 3개 다마(三多摩) 지구의 시정촌과 도(都)와의 관계는 기존의 도쿄부와의 관계에 변함이 없었다.

전후 1946년, 제1차 지방제도 개혁에서 도쿄도제 개혁으로 구청장을 공공선거로 선임하는 등 구는 일반시정촌과 동등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였고, 그 후 35개 구가 현재의 23개 구로 줄어들었다. 더욱이 1947년(쇼와 22)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구를 특별구로 공공선거에 의한 구청장에 의해 일반시정촌과 동등한 기능을 가지는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도는 기존의 시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계속 담당하였고, 특별

구의 담당 사무와 권능은 대폭 제한되었기 때문에 사무 배분 등을 둘러싼 도와 특별구와의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였다.

1952년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존의 특별구가 소유하고 있던 일반 시정촌과 유사한 자치단체의 성격은 크게 전환되어, 도의 내부 기구로서 위치 형성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구청장의 공공선거제가 폐지되고, 특별구가 처리 가능한 사무가 한정되었다. 그러나 그후 도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어 도에 대한 행정 수요가 급증한 결과, 도 행정운영의 비능률적인 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1964년에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하여 도와 특별구와의 관계를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론 특별구의 처리 사무에 복지사무소 설치 등의 사무를 부가하는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특별구의 과세권을 법정화했고 시정촌세 일부를 특별구세로 이양하였다. 더욱이 1974년의 제도 개정으로 구청장 공공선거화, 보건소 사무 이양 등을 실현하여 특별구의 자주성,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1998년의 제도 개정으로 특별구는 타 시정촌과 마찬가지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 구체적으론 도쿄도와 특별구 사이의 역할 분담이 더욱 명확해졌다. 예를 들어 일반 폐기물에 관한 사무 등을 도에서 특별구로 이양한 것 외에 특별구의 폐지·설치 및 분리 합병, 경계 변경에 관한 도지사 발의(發議) 제도가 폐지되는 등 변화가 이루어졌다.

2) 전후 광역행정제도 전개와 합병(1945~1960년대)

1947년 5월 3일 일본 헌법과 함께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어, 내정(內政)의 요충(要衝)을 담당하였던 내무성을 폐지하였다. 부현은 완전자치화하고, 지사는 공개 선거에 의해 선출하였으며, 행정구역은 전쟁 전의 지역을 답습하였다. 또한 시정촌은 자치단체 경찰과 소·중등학교의 설치가 시정촌의 사무에 속하는 등 행·재정적 업무가 확대되었다. 지방의 행정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일본 경제의 자립을 위해 방문한 도드(J.M.Dode)에 의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초(超)균형예산이 채택되어 보조금 삭감 등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자치단체화한 부현과 시정촌과의 기능적인 차이와 또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었으며, 행·재정 면에서 경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해결 방안에 직면하면서 초균형예산에 기초한 경제안정화를 세제 면에서 지탱해 준 것이 1949년에 방일한 쇼우프(C.S.Shaup)에 의한 세제 개혁 권고였다. 쇼우프 권고는 사무 배분 원칙에서 시정촌 우선 원칙을 제시함과 동시에 시정촌에 독자 재원을 부여하고 재정조정제도를 만들어 세입 결함이 발생한 시정촌에 재정 보증을 시행하는 것을 제창하였다.

쇼우프 권고에 기초하여 1949년 말 간베 마사오(神戶正雄)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간베 위원회에는 시정촌, 도도부현,국가(중앙정부)의 사무 배분, 그중에서도 기관위임 사무 폐지가 기대되었다. 1950년에 제출된 제1차 간베 권고에서는 시정촌, 도도부현, 국가의 사무 배분을 명확히 제시함과 동시에 시정촌 행·재정 능력의 향상을 지적하였고, 시정촌 합병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졌다. 다음해 1951년에는 제2차 권고를 제출하였지만 같은 해 가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강화조약이 조인된 것과 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이 권고는 실효성을 잃고 말았다.

1952년에는 쇼우프 권고와 간베 권고를 실현하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져 자치단체 조직 운영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를 받아들여 다음 해인 1953년, 시정촌합병촉진법을 제정하여 인구 8천명 미만의 정촌을 해소하고자 합병을 추진하였다. 합병 결과, 합병촉진법 시행 시에 9,868개였던 시정촌은 법이 실효되는 1956년에는 3,975개까지 감소하였다. 정부는 1956년에는 신(新)시정촌건설촉진법을 5년 시한 입법으로 정해 다시금 3,472 정촌으로 감소시켰다. 이른바 쇼와의 대합병이다. 곧이어 1956년에 제정된 시정촌합병특례법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2004년 말 효력을 상실하였다.

쇼우프 권고 및 간베 권고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합병으로 시정촌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부현 수준 이상의 광역행정론이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미 1952년에 설치된 제1차 지방제도위원회에서 부현제 개혁을 논의하여, 부현제 유지로 결론짓고 있었다. 이 당시 지사회(知事會)와 정촌회(町村會), 도도부현 의회와 정촌의회 의장회(議長會)는 부현제 유지를, 특별시제(特別市制) 도입을 주장한 시장회(市長會)와 시의회 의장회는 부현제 폐지를 주장하였다(1956년에 정령지정도시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음 해에는 관서경제연합회가 도주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등 부현제를 둘러싼 논의는 급격히 활성화되었다.

1954년에 설치된 제2차 지방제도위원회에서는 부현제가 중심의제화 되었고 시정촌 합병을 경험한 정촌회는 도주제의 지지로 전환하여 논의는 다시 도주제론으로 기운 뒤에 결론은 제4차 지방제도위원회로 넘어갔다. 1957년에 설치된 제4차 지방제도위원회에서 자치청(自治廳,1952년 설치) 주도로 정리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현을 폐지하고 전국을 7-9개 블록으로 분할하여 중간 단체인 '지방(地方)'을 설치하고 '지방의 장(地方長)'을 그 장으로 한다(지방의 장은 지방 공개 선거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가 임명).
② '지방'에는 국가의 종합 파견기관인 '지방부(地方府)'를 설치하고 '지방의 장'을 장으

로 한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으로서 3-4개의 부현을 통합하여 공개 선거에 의한 지사임명제를 유지하는 '현(縣)안'을 같이 명기하는 형태로 기재하였다. 다수결 결과 근소한 차이로 '지방제'안을 채택하였다. 결국 보고서는 정부에 제시되지 못한 채 보류되었다. 또한 1963년에 임시행정위원회의 제2전문부회가 제시한 '지방청'안은 전국종합개발계획을 전개하는데 있어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고려되었지만 최종 답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현제도 개혁은 부현 합병 중심으로 논의된다. 1963년에는 오사카(大阪) 와카야마(和歌山) 나라(奈良) 아이치(愛知) 기후(岐阜) 미에(三重) 등의 합병론이 경제계 주도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한편 같은 해 설치된 제9차 지방제도위원회는 '부현연합'을 제창하였고, 1956년 제10차 지방제도위원회에서는 '부현 합병'의 보고서 제출, 다음 해 '도도부현 합병 특례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제출되었지만 성립하지 못한 채 부현 합병 문제는 논의가 막을 내렸다.

더욱이 60년대에는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지역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지역거점개발계획을 각 중앙부처에서 제시하였고 이를 일원화하는 신산업도시건설촉진법이 1962년에 성립되었다. 신산업도시 이외에 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촉진법(1963) 제정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부담 비율이 일부 상승하면서 시정촌 합병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 효율을 우선하는 합병에 대한 비판과 공해 문제 발생, 과소 과밀 문제가 사히ㄴ문제 하면서 1969년에 자치성(현 총무성)은 광역시정촌권정비요강을, 건설성은 생활권 구상을 내세웠다. 느슨한 광역행정권의 설정은 제8,제9차 지방제도위원회 보고서에 '시정촌 연합 구상'으로서 제시된다. 자치성은 이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목표로 1974년 개정에서 '복합적 일부사무 조합(一部事務組合)'을 실현하였다. 곧이어 1977년에는 당시 국토청이 정주권 구상을 제시하여 지금까지의 개발 중시 개념에서 포괄적인 주거 환경을 중시한 권역 설정으로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자치성이 신광역시정촌권 정비 계획을 책정하는 등 각 중앙부처들이 너나없이 각종 권역을 설정하였다. 반면 시정촌이 중앙부처의 부처할거주의에 농락당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5. 나오며

본고에서는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근대초기 메이지시기부터 1990년대까지 형성과 발

전에 대해 개괄적으로 고찰하여 일본의 지방자치제도가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했음을 입증했다. 즉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1970년대 저성장시대에 지방분권개혁에 관한 공론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지방분권일괄법(1999) 등이 개정되면서, 국가의 자치단체에 대한 지휘감독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비로소 최근에 국가와 지방이 대등한 관계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 지방제도의 출발이며 형성기라 할 수 있는 근대 시기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기조로 형성되어 관료적 억압이 강했으며 지방 단체의 자주성이 현저히 제한되어 마치 중앙의 후견인과도 같은 통제 하에 지방행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지방제도는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이러한 일본 지방행정조직의 특징이 식민지 한국의 행정조직에도 그대로 관통되었고, 그 폐단 또한 일본과 비슷한 점이 적지 않다. 물론 한국에서 해방이후 다양한 행정 개혁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일제시대의 폐해는 아직도 한국의 행정 조직 저변에 잔존하면서, 계급적 발상과 태도, 구조의 경직성, 할거주의 등 권위주의적 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21세기 현재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행정조직에서의 일제청산은 절실히 요구되며, 이 글이 입증한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경직성, 중앙집권적 성격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일제강점기
상처난 경기도 행정지명

일제강점기 상처난 경기도 행정지명

편저 : 김성태(경기문화재단 수석연구원)

여는글

일제는 우리나라를 1910년 병합하자, 식민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하여 대대적인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한다. 그 개편의 핵심은 지방의 시군, 읍면, 동리를 통폐합하는 작업이었다.

이런 행정구역의 통폐합은 오랫동안 마을주민들이 사용해 온 마을이름의 소멸과 새로운 행정지명의 생성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런 통폐합 작업이 191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914년에 마무리될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면서 부작용과 문제점이 생겨났다.

그것은 역사성과 고유성, 그리고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명의 부여, 순우리말의 본뜻에서 크게 벗어난 漢字地名(한자지명)의 속출, 현지 마을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비민주적 작명, 마을의 성격을 규정하는 山(산), 川(천), 浦(포), 洞(동), 谷(곡), 驛(역), 店(점) 등 후부요소의 생략 등으로 요약된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 이루어진 행정명칭표기에 있어서의 汚點(오점)과 그 歪曲(왜곡)의 실상을 파악해 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아울러 '경기도 행정지명 바로잡기'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연구는 현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를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자연지명을 제외하고 행정지명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우선 경기도 31개 시군을 가나다 순으로 나누어, 복수의 동리를 통합하면서 새롭게 작명한 洞里名(동리명)의 정리, 3음절 지명에 얽매여 2음절 · 4음절 지명에서 浦(포) · 川(천) · 院(원) 등과 같은 핵심어를 생략한 경우, 고유한 한자지명을 바꾸

어 다른 한자 지명으로 변개한 사례 등을 정리하였다. 그런 다음 독자의 이해를 위하여 해당 시군의 지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식 · 정보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상을 바탕으로 왜곡된 행정지명을 추출하여 교정안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작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꼭 짚어두고 싶은 말이 있다. 행정지명의 개칭은 해당 주민의 의견의 수렴과 전문가의 면밀한 연구, 그리고 개명의 절대 필요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글은 필자가 몇 달간의 연구로 집필한 것이므로, 심사숙고한 연구의 결과도 아니고, 치밀한 고증을 거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명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심의를 거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이고, 학술적으로는 초안에 불과하다.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완할 계획이다.

이 책의 목차 중에서 '기본자료의 정리'는 『한국지명총람』17 · 18(한글학회, 1985·1986), 『지명유래집』(경기도, 1987), 『한국지명유래집』(국립지리정보원, 2015)을 기본텍스터 삼아 정리했고, '지명정보의 소개'는 기존 조사내용, 연구성과, 보도자료 등을 그대로 옮겼으며. 그리고 '왜곡과 교정'은 필자의 생각과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가평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可逸里(가일리) : 大逸里(대일리), 可亭里(가정리)
沙龍里(사룡리) : 沙店里(사점리), 龍門川里(용문천리) 등
山柳里(산유리) : 山踰洞(산유동) 柳洞(유동) 등
仙村里(선촌리) : 探仙里(탐선리), 石村里(석촌리) 등
雪谷里(설곡리) : 小雪里(소설리), 城谷里(성곡리) 등
松山里(송산리) : 松里(송리), 水山里(수산리)
新川里(신천리) : 沙斤川里(사근천리), 新村里(신촌리)
位谷里(위곡리) : 位育里(위육리), 道谷里(도곡리) 등

생략

彌沙里(미사리) : 彌沙川里(미사천리)
福長里(복장리) : 福長浦里(복장포리)
上色里(상색리) : 上色峴里(상색현리)
上泉里(상천리) : 上甘泉里(상감천리)
僧安里(승안리) : 僧安山里(승안산리)
濟寧里(제녕리) : 濟救寧里(제구녕리)
淸平里(청평리) : 淸平川(청평천)
下色里(하색리) : 下色峴里(하색현리)
下泉里(하천리) : 下甘泉里(하감천리)

변개

大成里(대성리) : 大升里(대승리)

지명 정보의 소개[1)]

조종면의 재탄생

2015년 12월 16일 「가평군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평군 하면이 조종면으로 행정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면은 본래 上面(상면)과 함께 朝宗縣(조종현)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으나 1396년(태조 5)에 加平縣(가평현)에 편입되어 조종면이 되었다.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서』에는 조종상면과 조종하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912년 『지방행정구역명칭편람』에는 핵심어 祖宗(조종)이 사라지고 상면과 하면으로 나뉘어 하면이 되었다.

이와 관련한 '경기북부브레이크뉴스'의 2015년 8월 29일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다. 일제잔재 청산의 좋은 사례이기에 전문을 소개한다. 특히 방위개념에 따라 단순히 명명된 행정구역명칭을 지역의 이미지 및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변경한 점은 앞으로 '경

1) 이하 '지명정보의 소개'는 기존의 조사내용, 연구성과, 보도자료 등을 轉載(전재)한 것이다. 기본 텍스터는 『한국지명총람』17 · 18(한글학회, 1985·1986), 『지명유래집』(경기도, 1987), 『한국지명유래집』(국립지리정보원, 2015)이다.

기지명 바로잡기'의 좋은 모델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지역 이름에 下(하)자가 앞에 붙으면 아래 또는 바닥, 빈곤이란 느낌을 준다. 더불어 기를 펴지 못하는 심리적 위축감을 주기도 한다. 유서 깊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녀서 '경기 금강'이라 불리는 가평군 下面(하면)이 朝宗面(조종면)으로 명칭변경에 속도를 붙여 귀추가 주목된다.

하면의 명칭변경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강점기 때 잃었던 옛 명칭인 조종면을 되찾아 9,700여 면민들의 자존감과 긍지를 고취하고 역사성과 정체성을 되찾아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다.

9,700여 면민들의 숙원인 면 명칭변경은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노인회, 기관·단체협의회 등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로부터 건의가 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명칭변경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9,700여 주민의 숙원이자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면 명칭변경은 지난 5월 주민 건의가 군에 제출되고 실태조사계획이 하면에 통보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한달 간 명칭변경과 관련해 전개하고 있는 변경이유와 찬반의견 등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27일 현재 3,796세대 중 75.3%인 2,860세대가 찬성해 지명 개명에 동의한 상태다. 주민 동의 상태는 설문조사가 끝나는 31일이면 80%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상 세대주 과반수가 조사에 참여해,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을 경우 기본조건을 갖추게 된다.

하면 명칭변경은 군에 주민동의서 제출, 조례개정, 경기도 보고절차 등을 거쳐 공식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명칭변경과 관련해 주민 양모씨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면민숙원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다져졌다"며 "조종면으로의 변경은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주민 자신감을 높여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朝宗(조종)이란 지명은 지금으로부터 997년 전인 고려 현종9년(1018년)부터 朝宗縣(조종현)으로 불려오다 1895년 하면으로 변경됐다. 縣(현)이 들어가는 지명은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지방행정구역의 하나로 요즈음 도시에 해당된다.

특히 하면이 조종면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비용도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교된 지 92년과 60년 된 초·중·고가 옛 명칭인 朝宗(조종)을 학교명으로 사용하고 있고 도서관, 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새주소 등 공공건물, 시설, 가로명도 조종이라는 명칭을 계승해 오고 있다.

하판리를 운악리로 변경

경기도 가평군은 작년 11월 조종면 '하판리' 지명을 '운악리'로 바꾸고 선포식과 표지석 제막식을 열었다. 하판리는 1914년 일제강점기의 획일적인 지명 통폐합 과정에서 하판리, 중판리, 신중리 등 3개 마을을 합쳐 부여한 지명이다. 상판리 아래 있는 마을이어서 하판리라는 식이다.(가평군 제공, 연합뉴스, 2017.08.13)

설악면

1942년 양평군에서 가평군으로 이속되었다. 雪岳(설악)이라는 지명은 고려 말 국사 普愚(보우) 스님이 이곳에 小雪庵(소설암)을 짓고 생활하다 열반에 들어 불교의 성산인 雪山(설산)과 父嶽(부악)에서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지명 유래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명지산

명지산은 盟主山(맹주산)이라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산의 형세가 마치 주위 산들의 우두머리와 같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맹주산이라는 이름이 점차 변하여 지금의 명지산으로 불리는 것으로 짐작된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연인산

戀人山(연인산)은 가평8경 중 제3경으로 꼽히는 龍湫九谷(용추구곡)의 발원지가 되는 최고봉(1,068m)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었으나, 1999년 지명공모를 통해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뜻에서 戀人山(연인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지역에는 처녀가 바위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중 아름다운 경치에 빠져 죽었다는 유래를 가진 처녀소와 소나무가 많은 산이라는 데서 유래한 松岳山(송악산)이 있는데 이 송악산이 현재의 연인산이라는 의견도 있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유명산

유명산은 가평군 설악면과 양평군 옥천면의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864m). 원래 이름은 馬遊山(마유산)이었으나 지형도상에 그 이름이 기재되지 않아 널리 알려지지 않았

다. ‘말을 방목했다’는 뜻에서 馬遊山(마유산)이라고 하였다고 전한다. 『여지도서』에는“마유산은 군의 북쪽 20리에 있다. 북쪽의 龍門山(용문산)에서 이어져 馬峴山(마현산)의 주맥을 이룬다.”고 기록되어있다. 『대동여지도』에 마유산이 표현되어 있다. 1973년 엠포르산악회가 국토 자오선 종주 등산 중 일행인 ‘진유명’의 이름을 따 有明山(유명산)이라 부르게 되었고, 산악 잡지에 기재된 이후 유명산으로 알려졌다고 한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도마치고개

道馬峙(도마치) 고개는 兩道馬峙(양도마치), 兩刀磨峙(양도마치), 兩邊馬峙(양변마치)로도 불리는데, 군의 북면 적목리에 위치한 고개이다. 강원도 화천군과 경계를 이룬다. 이 지역은 교통이 발달되기 이전,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강원도 화천군의 사창리장으로 다녔고, 그 결과 두 지역 간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두 지역은 혼인도 많이 성립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도와 도의 경계를 왕래하는 고개라는 뜻에서 도마치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고지도에서는 가평 북쪽 永平界(영평계) 가까이 도마치가 묘사되어 있는데 북으로 華岳山(화악산), 동으로 赤木山(적목산)이 함께 나타난다. 그러나 지도에 따라 도마치의 지명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해동지도』에는 兩道馬峙(양도마치), 『1872지방지도』에서는 兩刀磨峙(양도마치), 『광여도』에서는 兩邊馬峙(양변마치)라고 각각 기록되어 있다. 적목리에는 도마치 마을이 자연마을을 형성하고 있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왜곡과 교정

○ 2004년 가평군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변경해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이런 좋은 선례를 귀감 삼아 각 시군이 방위명 지명보다는 해당 동리의 정체성에 맞는 지명으로 개명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면 한다.

○ 현재 법정 동리 可逸里(가일리), 雪谷里(설곡리), 新川里(신천리), 仙村里(선촌리), 位谷里(위곡리), 沙龍里(사룡리), 松山里(송산리), 山柳里(산유리) 등은 2개 이상의 자연마을의 지명을 합성한 지명이다. 생략과 변개보다 더 무의미한 지명이다.

○ 色峴里(색현리)를 色里(색리)로, 甘泉里(감천리)를 泉里(천리)로, 淸平川(청평천)을 淸平里(청평리), 僧安山里(승안산리)를 僧安里(승안리)로, 福長浦里(복장포리) 福長里(복장리), 彌沙川里(미사천리)를 彌沙里(미사리)로 바꾸었다. 행정단위인 동리를 포함하여 세 글자 지명(이하 3음절 지명)을 만들면서 마을이름의 고유성이 사라져버렸다. 즉 고개 아래

자리한 마을, 하천변에 자리한 마을, 강안 포구에 자리한 마을, 고산 아래 자리한 마을이란 핵심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6곳 모두 원뜻을 살려 4음절 지명으로 개명함이 좋을 듯하다.

○ 국민유원지라 할 대성리유원지가 자리한 현 大成里(대성리)의 원래 이름은 大升里(대승리)였다. 뜻과 소리가 모두 왜곡된 경우이다. 참고로 대성리의 순우리말 지명은 '대생이'이다.

○ 梨谷里(이곡리)는 가평천과 연하고 있는 마을으로 순우리말 지명은 '배일'이다. 훈음차한 경우로 舟谷里(주곡리)가 제대로 된 한역이다.

○ 所法里(소법리)의 순우리말 지명은 '손일'이다. 여기서 '손'은 좁다는 의미 즉 '솔다'의 변형이고 '일'은 谷(곡)을 뜻한다. 그 의미가 모호하기 짝이 없는 '所法(소법)'보다는 '細谷(세곡)'이 원뜻에 가깝다. 이는 현 지형으로 보아도 적합하다는 느낌이 든다.

○ 유명산은 꽤 알려진 산인데, 오랫동안 사용해 온 원래 지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 하면을 조종면으로 개칭하고, 하판리를 운악리로 바꾼 것은 일제강점기 改惡(개악)한 마을지명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역민의 요청에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닌 지명으로 작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살 만하다.

○ 연인산은 지명공모를 통해 逸名山(일명산, 이름을 잃은 산)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그러나 역사성과 정체성이 없는 지명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 도마치고개는 여러 異稱(이칭)이 있지만, 경기도와 강원도를 연결한다는 의미를 지닌 『해동지도』의 兩道馬峙(양도마치, 두 道를 있는 큰 고개)를 표준한자지명으로 삼는 것이 합당하겠다.

고양

기본자료의 정리

합성

高陽(고양) : 高峰縣(고봉현), 德陽縣(덕양현)

江梅洞(강매동) : 江古山里(강고산리), 梅花井里(매화정리)

紙杻洞(지축동) : 紙亭里(지정리), 杻里(추리)
花井洞(화정동) : 花水里(화수리), 冷井里(냉정리)

변개

九山洞(구산동) : 龜山里(구산리)
一山里(일산리) : 瓦洞(와동)

지명 정보의 소개

고양

高陽(고양)이라는 명칭은 조선 태종 때 고양군 내에 있던 두 개의 현인 高峰縣(고봉현)과 德陽縣(덕양현)의 이름에서 한 자씩 따서 붙인 이름이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일산

원래 일산동은 고양군 中面(중면) 楮田一牌里(저전일패리)에 속하였고, 후곡촌·주아곡촌·와야촌 등의 마을이 있었다. 이후 1910년에 瓦洞(와동)이 되었으며, 와동은 1914년에 一山里(일산리)가 되었다. 일산의 명칭에 대한 유력한 유래설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제가 1904~1905년경에 중면의 면사무소를 옛 일산읍 백석 4리에서 일산역 부근으로 옮기면서 옛 송포면 덕이리 한뫼마을의 이름을 따 '일산'이란 새로운 행정지명으로 했다는 것이다. 둘째, 일산은 곧 고봉산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순수한 순우리말로 바꾸면 '한산'이 된다는 주장이다.

내유동

내유동은 능금꽃이 만발하던 곳으로 자연마을인 柰山(내산)과 遊山(유산)의 머릿글자를 딴 이름이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성사동

『고양군지』에 의하면 원당면 이패리에 속하였으며 星羅山村(성라산촌)과 沙斤寺里(사근

사리) 두 마을로 존재해 오던 것이 1906년에 원당면 성사리로 통합되었다고 한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행신동

幸信(행신)이라는 지명은 원래 행주동 주변에 새로 만들어진 마을이라는 뜻으로 幸新(행신)이라고 부르다가 후에 지금의 幸信(행신)으로 바뀌어졌다고 한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행주동

행주라는 이름은 고려시대부터 사용한 지명으로 살구나무가 많은 강변이라 하여 杏洲(행주)라고 불리다가 행주대첩 이후 왕이 다녀간 뒤 임금이 행차한 곳이라는 의미로 표기가 幸(행)자로 바뀌었다고 한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그러나 『태조실록』에 幸州(행주)로 적고 있기에, 왕의 행차를 계기로 杏洲(행주)에서 幸洲(행주)로 바뀌었다는 유래설은 근거가 약하다.

왜곡과 교정

○ 一山(일산)은 역사성도 정체성도 없는 그야말로 족보 없는 지명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유래도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일제강점기 지명 작명에서의 무성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九山洞(구산동)은 龜山洞(구산동)을 대체한 지명이다. 龜(구)를 정자로 적기 어려우니 누구나 읽고 쓰기 쉬운 九(구)자로 대신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본뜻을 완전히 훼손시켜 버렸다. 약자로 대체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 大化里(대화리)의 순우리말은 한곶이다. 일반적으로 지명에서 花(화)는 串(곶)의 음차이다. 그래서 花(화)와 발음이 똑같은 化(화)는 串(곶)의 훈음차로 볼 수 있다. 어쨌든 大化里(대화리)는 '大串里(대곶리)'의 雅譯(아역)이며, 엄밀하게 말해서 대곶리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역사적 지명이다.

○ 花田洞(화전동)의 순우리말은 '꽃밧'이다. 따라서 花田(화전)으로 한역한 것은 본뜻을 벗어났다. '꽃밧'을 제대로 한역하면 '串外(곶외)'가 맞다.

○ 香洞洞(향동동)의 순우리말은 향골 또는 상골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香洞(향동)으로 불렸다. 3음절 지명에 대한 강박 때문에 향동동이라는 어색한 지명이 만들어졌다. 향동으로 바꾸어야 마땅하겠다.

과천

기본 자료의 정리

변개

注岩洞(주암동) : 蹲岩里(준암리)

지명 정보의 소개

과천시

과천시의 영역 대부분은 조선시대 과천현의 현내면에 해당되며,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동면의 주암리를 합해 시흥군 과천면으로 편제되었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이렇듯 과천시는 조선시대 과천현의 하나의 면에 불과하였기에 현재 지명에서 합칭이나 약칭은 없다.

남태령

남태령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다. 정조가 화성 隆陵(융릉)으로 가는 길에 과천현 吏房(이방) 변씨에게 고개이름을 물었다. 그는 이 고개가 본디 여우고개였으나, 요망스러운 이름임에 삼남대로 상에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큰 고개라는 뜻으로 남태령이라 대답하였다. 그 이후부터 이 고개를 남태령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또한, 관악산을 넘나드는 천년 묵은 여우가 많이 나타났다는 전설이 전해져서 狐峴(호현) 또는 葉屍峴(엽시현)이라고 불렀다. 조선 정조 이전부터 이미 남태령으로 불리고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해동지도』「과천현지도」에는 현재의 남태령이 호현으로 표시되어 있다. 『광여도』 과천현에서 觀音寺(관음사) 아래 고개를 호현이라고 쓴 것이 확인된다. 김정호의 『여도비지』와 『대동지지』 및 『동여도』, 『대동여지도』에도 남태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872년지방지도』, 『과천지도』에서 남태령 지명과 함께 험준한 산세가 묘사되어 있다.(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남태령')

별양동

別陽洞(별양동)의 순우리말 지명은 '베레이' 또는 '비랭이'이다. 모두 가파른 언덕을 뜻하는 벼랑에서 유래하였다. 요컨대 벼랑을 음차한 것이 별양인 셈이다.

왜곡과 교정

○ 남태령은 治者(치자), 중앙, 서울의 입장에서 보면 남쪽에 위치한 큰 고개이지만, 과천 지역민은 여시고개 또는 여우고개로 불렸을 것이다. 중앙의 입장에서의 남태령보다는 예부터 그곳에 살았던 지역민이 여우고개로 지칭했다는 사실도 附記(부기)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 注岩洞(주암동)은 원래 과천현의 동면에 속했는데, 『호구총수』에는 蹲巖里(준암리)로 표기되어 있다. 순우리말은 줄바위 또는 죽바위이다. (『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僻字(벽자)를 피하고자 蹲(준)을 注(주)로 바꾸면서 우리말 마을이름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순우리말 지명과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注岩(주암)이란 지명이 생겨났다. 手記(수기)가 사라진 현 시점에서 원래의 지명을 따라서 준암리로 개명할 필요가 있겠다.

광명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玉吉洞(옥길동) : 玉蓮(옥련), 斗吉(두길)
下鞍洞(하안동) : 下坪(하평), 鞍峴(안현)

지명 정보의 소개

광명

광명시는 조선시대 衿川縣(금천현) 남면에 속했다가 1914년 금천, 안산, 과천의 3개 군이 시흥군으로 통합되면서 시흥군 서면이 되었다. 1970년 6월 10일 서면 광명출장소가 鐵山里(철산리)와 광명리에 설치되었다가 시흥군 광명출장소로 승격되었다. 1976년 4월 20일 광명출장소 7개 分所(분소)가 설치되었고, 1979년 5월 1일 소하읍으로, 1981년 7월 1일 현재의 광명시로 승격되었다. 참고로 광명시의 이름은 광명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광명의 순우리말은 광매였다. 광명을 廣明(광명)으로 적기도 했다.

안현 마을

하안동의 자연부락 鞍峴(안현) 마을의 순우리말은 길마재이다. '길마'는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얹는 기구인데, 사람이 말에 타기 위한 도구인 鞍裝(안장)으로 훈역하였다.

왜곡과 교정

○ 광명시는 과거 금천현이나 시흥군의 하나의 면에 불과한 지역이었다. 그런 만큼 일제강점기 지명의 왜곡, 굴절, 훼손이 별로 진행되지 않았다.

광주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檢川里(검천리) : 檢丹里(검단리) 沙川里(사천리)
高山里(고산리) : 高岑里(고잠리) 許山里(허산리) 등
光東里(광동리) : 東垈洞(동대동) 光福洞(광복동)

陵坪里(능평리) : 倉坪里(창평리) 陵谷里(능곡리) 등
陶水里(도수리) : 水東里(수동리) 陶地洞(도지동) 등
陶雄里(도웅리) : 雄洞(웅동) 陶峴里(도현리)
晩仙里(만선리) : 晩谷洞(만곡동) 塔仙洞(탑선동)
梅山里(매산리) : 梅谷里(매곡리) 獨山里(독산리) 등
木峴洞(목현동) : 鳥峴里(조현리) 木甘洞(목감동)
芳都里(방도리) : 芳燈里(방등리) 內都尺里(내도척리)
釜項里(부항리) : 釜谷洞(부곡동) 牛項洞(우항동)
仙東里(선동리) : 仙掌洞(선장동) 下東幕洞(하동막동)
水陽里(수양리) : 九陽里(구양리) 九水洞(구수동) 등
新月里(신월리) : 新丹里(신단리) 斗月里(두월리)
新峴里(신현리) : 新村里(신촌리) 台峴里(태현리)
雙東里(쌍동리) : 東山里(동산리) 小雙嶺里(소쌍령리)
陽筏里(양벌리) : 筏里(벌리) 陽村里(양촌리) 등
奄尾里(엄미리) : 奄峴里(엄현리) 尾羅洞(미라동)
梧田里(오전리) : 屯田里(둔전리) 梧野洞(오야동)
龍水里(용수리) : 水入里(수입리) 龍頭里(용두리)
柳寺里(유사리) : 柳余里(유여리) 寺洞(사동)
柳井里(유정리) : 雲井洞(운정동) 柳余洞(유여동)
二石里(이석리) : 石湖洞(석호동) 石林洞(석림동)
二仙里(이선리) : 內仙洞(내선동) 外仙洞(외선동)
長深里(장심리) : 洞深里(동심리) 長左洞(장좌동)
牆枝洞(장지동) : 牆內里(장내리) 前枝里(전지리) 後枝里(후지리)
亭支里(정지리) : 亭子洞(정자동) 支渭洞(지위동) 등
中垈洞(중대동) : 中里(중리) 垈洞(대동)
池月里(지월리) : 池谷里(지곡리) 雲月里(운월리)
楸自里(추자리) : 自作里(자작리) 楸谷里(추곡리)
炭筏洞(탄벌동) : 筏院里(벌원리) 炭洞(탄동)
鶴東里(학동리) : 鶴峴里(학현리) 東幕洞(동막동)

지명 정보의 소개

언문 부기

『조선지지자료』의 광주편에는 한자 동리명에 순우리말 諺文(언문)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순우리말 지명에 대한 단서를 전혀 확보할 수 없다. 이는 일제강점기 광주군에 속했던 지금의 성남시, 하남시, 의왕시, 남양주시 일부, 군포시 일부, 안산시 상록구, 수원시 일부 등도 마찬가지이다.

경안동

조선시대 광주부 慶安面(경안면)일대이다. 1910년 면제를 실시할 때 慶安里(경안리)였으나, 1932년 경안면을 광주면으로 부르게 되었을 때 京安里(경안리)로 개칭되었다. 2001년 광주가 시로 승격하면서 경안동이 되었다.

오야소

광주 남한산성면 오전리 梧野所(오야소) 마을은 순우리말은 '왜골'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남한산성 아래에 있는 마을임을 고려할 때 남한산성에 소요되는 기와를 전문으로 굽던 장인마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곡과 교정

○ 광주 지역에서는 대략 32개의 합성지명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檢川里(검천리), 高山里(고산리), 光東里(광동리), 陵坪里(능평리), 陶水里(도수리), 陶雄里(도웅리), 晩仙里(만선리), 梅山里(매산리), 木峴洞(목현동), 芳都里(방도리), 釜項里(부항리), 仙東里(선동리), 水陽里(수양리), 新月里(신월리), 新峴里(신현리), 雙東里(쌍동리), 陽筏里(양벌리), 奄尾里(엄미리), 梧田里(오전리), 龍水里(용수리), 柳寺里(유사리), 柳井里(유정리), 二石里(이석리), 二仙里(이선리), 長深里(장심리), 牆枝洞(장지동), 亭支里(정지리), 中垈洞(중대동), 池月里(지월리), 楸自里(추자리), 炭筏洞(탄벌동), 鶴東里(학동리) 등이 그것이다.

○ 京安洞(경안동)은 조선시대 경기도의 역원을 대표하는 慶安驛(경안역)이 있었던 곳으로 지명도가 높고 역사적 의미를 내포한 곳이다. 따라서 현재 지명개정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지명이라 판단된다.

○ 1914년 대대적인 행정지명 개편 시, 당시 광주는 두 글자 행정지명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래서 광지원, 압구정(현 서울), 곤지암 등의 이름이 온전할 수 있었고, 또 船村(선촌), 栗里(율리) 등이 그대로 船洞(선동), 栗洞(율동)으로 원뜻을 유지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중부면은 2015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남한산성면으로 면 이름을 바꾸었다. 기존의 중부면은 일제강점기 새롭게 만들어진 지명으로 역사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방위지명으로서의 정체성도 없었다. 남한산성이라는 세계적 브랜드를 선점했다는 점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개명 사례라 할 수 있다.

○ 軍月山(군월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軍月羅山(군월라산)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지역에서는'둥그레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 광주 남한산성면 光池院里(광지원리)는 광지원이라는 역원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1891년부터 1911년까지 쓰여진 『荷齋日記(하재일기)』에 보면 광지원이 확인되는 바 역사성이 녹아낸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 쌍령동은 봉화로의 雙嶺院(쌍령원)이 있던 곳이다. 조선후기 역원이 사라진 다음 주막거리로 계속 숙식제공의 기능이 유지되었다. 또한 한양에서 지방을 잇는 파발들이 쉬는 곳이기도 했다. 결국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해 교통과 숙식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역사성을 부각하는 의미에서 '쌍령원리'로 바꾸어 보는 것도 권해 본다.

○ 수청리의 자연마을은 작은 청탄과 큰 청탄이 중심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곳을 푸른여울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수청리보다는 靑灘里(청탄리)가 더 적합한 지명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지명유래집』 570쪽에서는 1914년 청탄이라 부르던 곳을 水靑里(수청리)로 이름지었다고 했지만, 『호구총수』에서도 양근 남종면에 수청리가 기재되어있으므로, 이미 조선후기부터 행정지명으로 수청리로 불렸던 것은 확실하다.

○ 광주 陶雄里(도웅리)는 사실상 陶甕里(도옹리)가 적합한 이름이라 볼 수 있다. 이 도웅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웅동과 도현리〔독고개〕의 한글자 씩을 조합해 새롭게 만든 지명인데, 『지명유래집』에서 雄里(웅리)는 甕里(옹리)의 변음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재 도웅리에는 도자기와 옹기를 전문으로 구는 장인마을이 있었고, 그런 까닭에 도옹리로 지명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곤지암읍 二仙里(이선리)는 內仙洞(내선동)과 外仙洞(외선동)을 합했기에 이선리라 하였다. 그런데 원래 지명이 仙洞(선동), 선곡이었던 바, 오히려 선동리 혹은 선곡리로 개명하는 편이 좋겠다. 즉 하나의 선동에서 외선동과 내선동으로 나누어 편의상 불렀는데,

이 둘을 합하면서 '二仙(이선)'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 文衡里(문형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진해촌, 휴곡리, 도치를 합성하면서 그곳의 산 이름인 문형산에서 이름을 따 왔다. 이에 文衡山里(문형산리)가 더 나을 듯하다.

○ 黔伏里(검복리)는 남한산성에 다니다 쉬는 검복참이 있던 곳이다. 역사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黔伏站里(검복참리)로 개명을 고려해 볼 만하다.

○ 道馬里(도마리)은 道馬峙(도마치)고개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도마치리로 개명함도 고려해 볼 만하다.

○ 퇴촌면 원당리는 원래 金尺院(금척원)이 있어서 원당 또는 원댕이라 했다. 금척원리로 개명해도 좋을 듯하다.

구리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橋門洞(교문동) : 里門洞(이문동) 白橋里(백교리) 등
峨川洞(아천동) : 峨嵯洞(아차동) 牛尾川里(우미천리)
仁倉洞(인창동) : 東倉里(동창리) 仁章里(인장리)
土坪洞(토평동) : 坪村里(평촌리) 土幕里(토막리) 등

지명 정보의 소개

구리시

九里(구리)라는 명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양주군 忘憂里面(망우리면)과 九旨面(구지면), 그리고 노해면의 일부지역을 합성하면서, 구지면의 '구'자와 망우리면의 '리'자를 합하여 구리면이라 한 데서 유래한다. 보통 구지의 어원을 '곶이' 또는 '고지'에 두면서, '고지'가 '구지'로 변하여 이를 한자로 龜旨(구지) 혹은 九旨(구지)라 표기한 것이라 한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갈매동

갈매동의 어원에 대하여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목마른 말이 화접리에 있는 샘말의 물을 먹는 형국 즉 '葛馬飮水形(갈마음수형)'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그러나 葛山(갈산)의 순우리말 '갈뫼'가 '갈매'로 음운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옛 김포 마산면 葛山里(갈산리)의 순우리말을 『조선지지자료』에서 '갈매울'로 기록한 점으로 방증된다.

수택동

지명의 유래에 대하여 『지명유래집』에서는 "마을의 사면이 물이 많고 늪으로 둘러 쌓여 있어서 水澤(수택)이란 이름이 붙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동지도』에 보이는 '洞口外澤(동구외택)'이라는 저수지에서 유래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왜곡과 교정

○ 구리시는 옛 구지면을 실질적으로 이었다. 이런 구지의 어원을 곶에서 구한 것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그리고 龜旨(구지)를 九旨(구지)로 바꾼 것은 총획이 많은 한자를 획수가 간단한 글자로 대체하는 벽자기피현상과 부합한다. 어차피 구지가 훈차가 아니라 음차인 바 문제될 바 없다고 본다.

군포

기본 자료의 정리

(해당사항 없음)

지명 정보의 소개

군포시

『여지도서』에 과천현의 南面(남면)으로 기록되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산본,

금정, 당리, 당정, 부곡 5개 리를 관장하면서 시흥군의 남면으로 편제되었다. 1979년에 군포읍으로, 1989년에 군포시로 승격되었다. 軍浦(군포)란 이름은 현재의 안양시 동안구 호계 3동에 있는 舊軍浦(구군포)에서 비롯되었는데, 구군포사거리와 안양천〔맑은내〕 사이에 軍浦場(군포장)이 생기면서 마을이 들어섰다. 1905년에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현재의 군포역 자리에 군포장역이 만들어졌고, 1925년에 안양천이 범람하자 군포장을 군포장역 앞으로 옮겼다. 1938년에 군포장역의 이름을 군포역으로 바꾸었으며, 1979년에 남면이 읍으로 승격될 때 군포역의 이름을 따라 군포읍으로 정해졌다. 『여지도서』에 '軍浦川(군포천)'이 기록되어 있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군포의 유래

군포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장은 軍浦(군포)의 '浦(포)'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 있다. 그런데 군포천은 안양천의 지류이면서, 현재 군포는 그 상류에 자리한다. 이에 포구가 자리했을 가능성은 낮다. 필자는 軍浦(군포)의 유래를 동음이의인 軍布(군포)에서 구하고자 한다. 그 근거로는 1928년 간행된 李震相(이진상)의 『寒洲集(한주집)』의 "'각 동리에는 군포 마련을 위한 전답이 있다.(各洞所有軍布田畓(각동소유군포전답))"라는 기록을 들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동리 마다 군포 마련을 위한 전답들이 자리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듯이 『園幸定例(원행정례)』에서 軍浦(군포)를 軍布(군포)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군포천에 포구가 있었다고 하면 도마교동에 굳이 '도마교'라는 큰 다리〔馬橋(마교)〕가 필요 없었을 것인데, 군포지역을 대표하는 다리로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1904년(광무8)5월 5일에 田主(전주) 幼學(유학) 任昕(임흔)이 全羅道(전라도) 寶城郡(보성군) 栗於面(율어면) 下道(하도) 慈母村(자모촌) 軍浦坪(군포평)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 명문의 내용 곧 '1904년 任昕放賣土地賣買明文(임흔방매토지매매명문)'이 남아 있는데, 상기의 전남 보성의 군포평 역시 포구가 자리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지 않아서, '軍浦(군포)'라는 지명이 포구에서 유래되지 않았다는 필자의 주장을 방증해 준다.

산본동

『호구총수』에는 과천현 남면 山底里(산저리)로 기록되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宮內(궁내), 道藏洞(도장동). 屯田(둔전). 光亭(광정), 谷蘭(곡란)을 합해 시흥군 남면의 산본리로 편제되었다. 山底(산저)와 山本(산본) 모두 '산밑'이란 순우리말 이름에 대한 한

자 표기이며, 수리산 밑에 있기 때문에 붙은 지명이다. 『조선지지자료』에도 순우리말 따 이름이 '산밑'이라고 부기해 두었다.

도마교동

『호구총수』에는 道馬橋(도마교)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한자 渡馬(도마)와 道馬(도마)는 우리말 '도마'를 음차한 것이다. 가평에는 도마치봉과 도마치고개가 있는데, 옛 문헌에는 대부분 刀磨峙(도마치)라 기록했다. 이외에도 파주 창만리에 都馬山洞(도마산동) 마을, 광주 퇴촌면에 道馬里(도마리), 포천 도평리에 道馬峙(도마치)마을, 김포 상마리에 陶馬山(도마산)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도마'에서 '마'는 모두 '馬(마)'로 표기했지만, '도'는 刀(도), 道(도), 陶(도), 都(도) 등 제각각이어서 '도'가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선 칼〔刀(도)〕의 고어가 '갈'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마의 한자표기가 문헌에는 '刀馬(도마)'인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한자 '刀馬(도마)'는 '갈마'의 훈음차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결국 도마는 지명에서 흔히 확인되는 '분기점에 있는 큰'이라는 뜻을 내포한 '葛馬(갈마)'와 비슷한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마교는 '지역 간의 분기점이 되는 큰 다리'라는 뜻으로, 도마치는 '지역을 나누는 큰 고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왜곡과 교정

○ 군포시의 행정지명은 모범적이다. 병합 지명은 물론 약칭도 없고, 문헌 속의 지명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데, 대야미동과 도마교동이 이를 대변해 준다.

○ 군포시에 '군포'라는 지명과 함께 세인의 관심을 끄는 것은, 山本(산본)을 일본식으로 읽으면 야마모토라서 일본 지명의 잔재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정조 때의 기록에 '과천현 남면 산본리'라는 기록이 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나무위키(https://namu.wiki), '산본신도시') 그런데 『일성록』의 1786년 기록 중 "과천의 서부의 金泰福(김태복)이 상언에서, "저의 先山(선산)이 果川(과천)의 山底里(산저리)에 있어 6대조 이하를 연이어 繼葬(계장)하였습니다."라는 기록에서 山底里(산저리)로 기록된 점, 무엇보다도 1789년 편찬된 『호구총수』에서 산저리로 표기한 점, 전통시대 산밑 마을을 일반적으로 山底里(산저리)로 부른 점 등으로 미루어 山本(산본)보다는 山底(산저)가 훨씬 정통성이 있는 일반 지명이라 할 수 있다.

김포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高村面(고촌면) : 高蘭台面(고란태면), 臨村面(임촌면)(또는 林村面(임촌면))
大串面(대곶면) : 大坡面(대파면), 古里串面(고리곶면)
陽村面(양촌면) : 陽陵面(양능면), 伴移村面(반이촌면)
霞城面(하성면) : 奉城面(봉성면), 霞隱面(하은면)

佳金里(가금리) : 加佐洞(가좌동) 金浦里(금포리) 등
佳峴里(가현리) : 佳岑里(가잠리) 蓑峴里(사현리) 등
開谷里(개곡리) : 開野里(개야리) 位谷里(위곡리) 등
古幕里(고막리) : 古邑里(고읍리) 草幕洞(초막동)
高亭里(고정리) : 高尺山里(고척산리) 南亭洞(남정동)
歸田里(귀전리) : 迭田里(질전리) 歸老里(귀노리)
樓山里(누산리) : 樓里(누리) 鉢山(발산) 등
大陵里(대능리) : 大坡里(대파리) 陵洞里(능동리)
道沙里(도사리) : 道移串里(도이곶리) 束沙里(속사리)
麻谷里(마곡리) : 麻東里(마동리) 杜谷里(두곡리) 등
上馬里(상마리) : 大村里(대촌리) 陶馬山里(도마산리) 등
西岩里(서암리) : 西明洞(서명동) 黔巖里(검암리)
席毛里(석모리) : 毛山里(모산리) 席山里(석산리) 등
城東里(성동리) : 東幕里(동막리) 城內里(성내리)
松麻里(송마리) : 麻店浦(마점포) 松牙里(송아리)
新雁里(신안리) : 上新村(상신촌) 雁行洞(안행동)
藥岩里(약암리) : 藥山里(약산리) 下赤巖里(하적암리)
陽谷里(양곡리) : 陽陵里(양능리) 谷村(곡촌) 등
楊澤里(양택리) : 楊存里(양존리) 澤洞(택동)
龍康里(용강리) : 康寧浦(강녕포) 興龍里(흥룡리)

柳峴里(유현리) : 日柳芝里(일유지리) 棲峴洞(서현동)
栗生里(율생리) : 栗村里(율촌리) 終生里(종생리) 등
元山里(원산리) : 元通里(원통리) 登山里(등산리)
霞沙里(하사리) : 霞隱洞(하은동) 沙草里(사초리)

생략

高陽里(고양리) = 高陽浦(고양포)
月串面(월곶면) : 月餘串面(월여곶면)
祖江里(조강리) : 祖江浦(조강포)

지명 정보의 소개

김포의 유래

『경기읍지』를 통해 김포와 관련하여 '投金灘(투금탄)·投金江(투금강)·投金瀨(투금뢰)'라고 부르는 강의 이름이 붙은 유래가 전해진다. 『성주이씨 가승』에 의하면 고려 공민왕 때 이곳에 살고 있던 이조년, 이억년 형제가 강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동생이 금덩어리 두 개를 줍게 되어 하나를 형에게 주었다. 그러나 배에 탄 동생은 수중에 금덩어리가 생기고 나니 평소에 존경하던 형이 미워져 이 금덩어리는 좋은 물건이 아니라며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 버렸고, 이를 본 형 또한 동생의 말이 옳다고 하여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 버렸다. 이 때문에 이 여울을 '금을 던진 여울'이란 뜻의 '투금뢰'라고 부른 데서 김포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다고 수록되어 있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풍무동

예전에는 풀무골, 즉 冶洞(야동)이라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풍무리로 불렸다고 한다. 이외에도 야동, 푸무골, 풀무골, 풀뭇골, 풍무동 등으로 불렸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풀무골에서 풍기는 '미천한 쟁이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감추고자 하는 雅譯(아역)으로 볼 수 있다.

동을산리 등

김포시의 지명에는 합칭도 많지만 거물대리, 오니산리, 초원지리, 보구곶리, 동을산리 등 원지명을 약칭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곳이 상대적으로 많다.

월여곶면

김포의 옛 지명 月餘串面(월여곶면)에서 月(월)은 높은 산을, 餘(여)는 끝자락을, 곶은 강이나 바다 쪽으로 돌출한 곡을 의미한다. 이에 문수산 끝자락으로 돌출한 곶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즉 월여곶면에는 '문수산 끝에 있는 곶'이란 뜻이 담겨져 있다.

왜곡과 교정

○ 김포에서는 총 28곳에서 지명의 합성이 이루어졌다. 읍면 단위에서 4곳, 동리 단위에서 24곳이다.

○ 후부요소의 생략은 3곳에서 이루어졌다. 月餘串面(월여곶면)에서 串(곶)을 뺀 月串面(월곶면), 高陽浦(고양포)에서 浦口의 의미를 뺀 高陽里(고양리), 祖江浦(조강포)에서 역시 포구의 의미를 뺀 祖江里(조강리)가 그것이다. 강박적으로 3음절 지명을 고집한 결과이다.

○ 월곶면 古幕里(고막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古邑里(고읍리)와 草幕洞(초막동)을 통합하여 고읍리와 '古'자와 초막동의 '幕(막)'자를 한 자씩 가져와 단순히 합칭한 지명이다. 여기서 고읍동은 예전에 통진현의 읍치가 자리했던 곳인 데에 비하여, 초막동은 통진현 소속 군졸들의 초막이 있었던 곳이라 한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고읍동이 主(주)이고 초막동은 從(종)이다. 따라서 고읍리로 개명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본다.

○ 柿岩里(시암리)는 감바위를 한자로 옮긴 지명이다. 여기서 '감'은 '검'이 음운변화한 것으로 감바위의 원형은 '검바위'가 맞다. 따라서 黔岩里(검암리)가 바로 훈차이다. 따라서 시암리는 한자 개명을 고려해 볼 만한다.

남양주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別內面(별내면) : 別非面(별비면) 內洞面(내동면)
瓦阜邑(와부읍) : 瓦孔面(와공면) 草阜面(초부면)
眞乾邑(진건읍) : 鎭官面(진관면) 乾川面(건천면)

加雲里(가운리) : 朝雲里(조운리) 加在洞(가재동) 등
九岩里(구암리) : 鷹巖里(응암리) 九谷里(구곡리) 등
內閣里(내각리) : 內洞(내동) 碑閣里(비각리)
鹿村里(녹촌리) : 鹿洞里(녹동리) 宮村里(궁촌리)
畓內里(답내리) : 內洞里(내동리) 畓洞里(답동리)
松陵里(송릉리) : 松亭里(송정리) 成陵里(성릉리) 등
松川里(송천리) : 松蘿洞(송라동) 長川里(장천리) 등
松村里(송촌리) : 坪村里(평촌리) 松松洞(송송동)
水山里(수산리) : 水幕洞(수막동) 內馬山里(내마산리)
水石洞(수석동) : 石室里(석실리) 水邊里(수변리) 등
新月里(신월리) : 新村里(신촌리) 月陰里(월음리)
梧南里(오남리) : 於南里(어남리) 梧山里(오산리) 등
雲水里(운수리) : 石水臺里(석수대리) 雲霞里(운하리) 등
龍井里(용정리) : 獨井里(독정리) 五龍里(오룡리)
月文里(월문리) : 文谷里(문곡리) 月谷里(월곡리) 등
栗石里(율석리) : 栗北里(율북리) 石室里(석실리)
長峴里(장현리) : 長承里(장승리) 蜂峴里(봉현리) 등
鳥安里(조안리) : 鳥洞(조동), 砂安(사안) 등
芝錦洞(지금동) : 芝沙里(지사리) 錦橋里(금교리) 등
鎭中里(진중리) : 中里(중리) 眞村里(진촌리)
好坪洞(호평동) : 好滿里(호만리) 坪洞里(평동리) 등

생략

蓮坪里(연평리) : 蓼蓮坪里(요연평리)

변개

好坪洞(호평동) : 판곡(板谷)

지명 정보의 소개

남양주시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하는 도농복합시이다. 1980년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행정구역이 될 때, 양주의 남쪽지역이라 해서 남양주군이라 하였다. 남양주군은 1995년도에 미금시와 통합되어 시로 승격되었다.

퇴계원

퇴계원읍의 퇴계원리는 退啓院(퇴계원), 渡濟院(도제원), 道濟院(도제원), 兎院(토원) 등으로도 불린 옛 이름을 그대로 계속한 지명으로, 퇴계원은 장호원·광혜원과 함께 조선시대 경기도를 대표하는 역원이었다. 이런 퇴계원은 함경도와 강원도에서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고, 자연스럽게 현재 남양주 일대의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퇴계원에 산대놀이가 발달한 이유는, 퇴계원이 교통의 요지에 자리했고 모든 물산이 모이는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퇴계원이란 지명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팔당리

팔당리의 순우리말 지명은 '다당이', '바댕이'이다. '바댕이'는 배가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줄을 당긴다는 의미라고 한다. '八堂(팔당)'이란 지명이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유래에 대하여 이런저런 주장이 있기에 소개한다.

마석우리

마석역이 자리한 磨石隅里(마석우리)의 순우리말 지명은 '맷돌모루'이다. 그 유래에 대하여 『지명유래집』에서는 "예부터 이 지역에서 맷돌이 많이 생산되었고 부락의 길이 돌아서 생겼다 하여 '맷돌머루'라 하다가 한자로 磨石隅里(마석우리)로 표기했다."고 한다. 이런 설명은 궁색한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는 모루를 모퉁이로 해석한 결과, 맷돌과 모루의 조합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루는 뫼[산]를 뜻하는 'ᄆᆞᄅᆞ/모르'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한자로 옮길 때 隅(우)'로도 한역하기도 한다. 이는 松山(송산)이 松隅(송우)와, 石山(석산)이 石隅(석우)와 통하는 사실(천소영, 『한국 지명어 연구』(이회문화사, 2003), 114~115쪽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석우리의 유래는 '맷돌을 만드는 데에 적합한 돌이 나는 산' 즉 '맷돌산'에서 찾는 것이 나을 듯하다.

왜곡과 교정

○ 남양주에서는 총 24곳에서 합성지명이 생겨났다. 읍면 단위가 3곳이고 동리 단위가 21곳이다.

○ 남양주에서 생략과 변개는 각각 1곳에서 이루어졌다. 蓼蓮坪里(요연평리)에서 僻字(벽자, 어려운 글자)인 蓼[여뀌]를 빼고 연평리로 바꾸었고, 판곡(板谷)을 好坪里(호평리)로 새롭게 이름지었다.

○ 2019년 8월 '남양주 시명 개명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현재 개명을 추진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된다. 2018년 인천 남구가 미추홀구로 개명했듯이 지역의 고유성과 역사성, 그리고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지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 車山里(차산리)의 순우리말 지명은 수레너머 또는 수리너머이다. 여기서 수레는 수리가 음운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우리말에서 '수리'는 높은 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차산리는 '높은 산 넘어 있는 마을'이란 원뜻에서 벗어난 지명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개명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이런 경우 순우리말은 '무네미' 또는 '무너미'라 일컬고, 水踰(수유), 水越(수월) 등으로 한역한다.

동두천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保山洞(보산동) : 保安里(보안리) 柷山里(축산리) 등
生淵洞(생연동) : 淵洞里(연동리) 生骨里(생골리) 등
松內洞(송내동) : 內洞里(내동리) 松蘿里(송라리)
紙杏洞(지행동) : 紙洞里(지동리) 丹杏里(단행리)

지명 정보의 소개

동두천

동두천이란 이름은 옛날부터 柯亭子里(가정자리)라고 불려오던 것이 경원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일제강점기의 문화말살정책에 의해 우리 조상의 숨결이 담겨있는 가정자리를 동두천리로 바꾸었다. 이는 동쪽에 근원을 두고 냇물이 흐르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40여 년 전까지도 일반적으로 '동두내〔東頭川〕'란 이름으로 불러왔다. 그러던 것이 현재는 '동두천(東豆川)'으로 표기되는데 '두'자의 한자 표기가 바뀌었다.(『지명유래집』)

왜곡과 교정

○ 동두천의 지명 유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발간된 『동두천 기지촌의 회상과 기록』(경기문화재단, 2020)에서 김준기가 '동두천이라는 명칭에 대한 변증'이란 간단한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신천의 지류인 동두천은 기록에 따라 '東頭川(동두천), 東豆川(동두천), 東道川(동도천)' 등 다양한 표기가 보인다. 동두천은 소요산에서 발원하여 서류하다가 신천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므로 동쪽에 머리, 즉 근원을 두고 있다는 뜻을 지닌 '東頭川(동두천)'이 가장 이치에 맞는 표기이다.

동도천이라는 표기는 신천이 '北道川(북도천)'이라 불렸던 시절 이와 대비되어 생겼던

표기라고 판단된다. '북도천'(北道川)'은 글자 그대로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이란 의미이므로 신천에는 알맞은 표기이지만, 東道川(동도천)은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아니라 '동쪽에 서 흘러오는 하천'이기 때문에 표기상의 오류임이 분명하다. 또한 동두천의 두는 '머리 두(頭)' 대신 '콩 두(豆)' 자로 표기한 자료가 다수 보인다. 일제강점기 지명의 유래를 이해하지 못하여 생긴 잘못된 표기라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 이 표기는 조선후기의 고지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豆(두)는 頭(두)의 약식 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의 주장은 동두천의 유래설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 이유는 "『임원경제지』에 양주 북쪽 40리 거리인 이담면에 '동두천장(東豆川場)'이 5일과 10일에 섰다."는 기록과, 『증보문헌비고』의 '동도천장(東道川場)'이라 표기를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주장이고 논거가 확실한 주장이기에 소개해 둔다.

부천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古康洞(고강동) : 古里洞(고리동) 康將洞(강장동)
富川(부천) : 仁川(인천) 富平(부평)
玉吉洞(옥길동) : 斗吉洞(두길동) 玉蓮洞(옥련동) 등

변개

槐安洞(괴안동) : 果安里(과안리)
陶唐洞(도당동) : 都堂里(도당리)
範朴洞(범박동) : 凡朴洞(범박동)
春衣山(춘의산) : 春宜山(춘의산)

지명 정보의 소개

부천

富川市(부천시) 지역 대부분은『해동지도』의 「부평부지도」에 표시된 玉毛面(옥모면), 石

川面(석천면), 上梧亭面(상오정면), 下梧亭面(하오정면). 注火串面(주화곶면)에 속해 있었다. 『여지도서』「부평부」방리 항목에도 면의 이름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만 『호구총수』와 『1872지방지도』「부평부지도」에는 옥모면이 玉山面(옥산면)으로 기록되어 있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왜곡과 교정

○ 부천은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부평군 16개 면 전 지역과 인천부의 12개 면, 남양군의 대부·영흥 2개 면, 강화군의 북도면 등을 합해 설치되었다. 설치 당시 15개 면 체제로 출발하였다. 지명은 富平(부평)과 仁川(인천)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다. 그런데 이후 인천과 강화, 남양지역에 속했던 동리는 모두 부천에서 떨어져 나가고 부평의 玉山面(옥산면), 石川面(석천면), 上梧亭面(상오정면), 下梧亭面(하오정면). 注火串面(주화곶면)에 속했던 곳만 현재 부천시 영역이다. 따라서 시 이름의 개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陶唐洞(도당동)은 원래 都堂里(도당리)였다. 都堂(도당)은 마을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기에 붙여진 지명이다. 이런 역사성을 지닌 지명이 마을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않는 陶唐洞(도당동)으로 바뀐 것은 매우 아쉽다. 바로 잡았으면 한다.

○ 한편 梧亭洞(오정동)은 일제강점기 이후 梧丁洞(오정동)으로 적어 오던 것을 1995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순우리말로 '오동정이'로 부른 점으로 미루어, 오동나무가 있는 정자가 마을의 표지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좋은 개명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성남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壽井區(수정구) : 壽進洞(수진동) 福井洞(복정동)

高登洞(고등동) : 登子里(등자리) 高山洞(고산동)
金土洞(금토동) : 金峴洞(금현동) 遁土里(둔토리)

東遠洞(동원동) : 遠川洞(원천동) 東幕洞(동막동)
盆唐洞(분당동) : 盆店里(분점리) 唐隅里(당우리)
沙松洞(사송동) : 沙村里(사촌리) 松峴里(송현리)
三坪洞(삼평동) : 三街里(삼가리) 洑坪里(보평리)
書峴洞(서현동) : 陽峴洞(양현동) 遯書村(둔서촌) 등
野塔洞(야탑동) : 塔洞(탑동) 梧野所洞(오야소동)
雲中洞(운중동) : 中山雲里(중산운리) 山雲里(산운리)
倉谷洞(창곡동) : 細谷洞(세곡동) 倉洞(창동)

생략

梧野洞(오야동) : 梧野谷(오야곡)

변개

丹垈洞(단대동) : 丹臺里(단대리)

지명 정보의 소개

성남

城南(성남)의 순우리말은 '성내미', '성나미'이다. 1946년 광주면 중부면에 성남출장소가 설치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분당구

盆唐(분당)이란 지명은 분당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盆店里(분점리)와 唐隅里(당우리)가 합성되어 盆唐里(분당리)가 되면서부터이다. 분당리는 당모루·장터·안골·점골 등의 자연마을을 합한 지명이다. 옛날에는 동이점이라 불렀으나 이후에 盆店里(분점리)라 하였다가 다시 분점리의 '분'자와 당우리의 '당'자를 취하여 분당리로 칭하게 되었다. 분점리는 동이를 구웠다는 甕器店(옹기점)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당우리(당모루)는 당집이 있는 당모퉁이 동네라는 의미로 부르던 이름이라고 한다. 원래는 '唐(당)'이 아닌 '堂(당)'이 맞

지만, 고려말 귀화한 唐誠(당성)의 후손이 사는 고을로서 '당모루'라고도 칭하였으므로 두 글자를 혼용하여 唐隅里(당우리)가 되었다고 전한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달래내고개

달이내고개, 달리내고개, 다리내고개, 月川峴(월천현), 穿川峴(천천현), 懸川峴(현천현) 등으로 불린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시 구간을 구분하는 실질적인 경계가 되었다. 『1872지방지도』에 穿川峴(천천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중정남한지』에 "월천현은 일명 懸川峴(현천현)이라고도 하며 『여지승람』에는 천천현으로 되어 있다. 청계산과 天臨山(천림산) 중간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대동여지도』의 청계산 자락에 월천현이 보인다. 조선시대 천림산봉수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월천현의 유래에 대해서는 남원윤씨, 안동 권씨 등의 족보 및 묘표에 나타나고 있는 월천(또는 월오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한다. 『조선지지자료』 광주군 대왕면 영치현명에 月峴(월현), 달리내고개가 노상동과 금현동 사이에 있는 고개로 수록되어 있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왜곡과 교정

○ 성남에서는 합성지명이 총11곳이다. 그중에서 수정구는 최근에 생겨난 지명이지만, 나머지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동리 통합의 결과이다. 수도권 사람들에게 익숙한 분당, 서현, 야탑 등의 지명이 모두 본뜻이 전혀 없는 합성지명인 셈이다.

○ 교통방송에서 자주 들어서 익숙한 달래내 고개의 한자지명은 月川峴(월천현), 穿川峴(천천현), 懸川峴(현천현) 등이다. 이런 한자지명보다는 달래내고개는 발음하기가 쉽고 정감도 느껴진다. 순우리말 지명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며, 앞으로 지명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 성남시 구미동에 위치한 오리역은 역 이름을 梧里(오리)로 적고 있다. 명백한 오류이다. 『지명유래집』에는 "오리뜰은 옛날에 오리떼들이 뜰에 많이 앉아 진풍경을 이루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이상윤 남72세 외 2명)"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무렵에 제작된 1:25.000 지도에는 현재의 벽산아파트 주변을 오리뜰이라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듯이 1910년대에 제작된 『근세지도』에서는 鳧坪(부평)이라 적고 있다. 이에 오리역의 한자명 梧里(오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오리뜰'로 바꾸어야 마땅하겠다.

○ 수내동은 순우리말 지명이 '숲내'로 『지명자료집』에 적고 있다. 그런데 『조선지지자

료』를 보면 수내동 앞을 흐르는 하천으로 추정되는 藪川(수천)을 '숫내'로 표기했는데, 이를 한자로 옮기면 炭川(탄천)이 된다. 따라서 수내동의 지명 유래는 '숲내'와 '숯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수원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細柳洞(세류동) : 細洞里(세동리) 上柳川(상유천)
二儀洞(이의통) : 儀上洞(의상동), 儀下洞(의하동)

변개

高等洞(고등동) : 高等村(고등촌)
九雲洞(구운동) : 九雲乭(구운돌)
松竹洞(송죽동) : 大松竹里(대송죽리)
莘洞(신동) : 申木洞(신목동)
二儀洞(이의동) : 義谷德洞(의곡덕동)
芭長洞(파장동) : 琶洞(파동)
好梅實(호매실) : 好梅折(호매절)

지명 정보의 소개

장안문

장안문이 있는 장안동은 처음에 장안구 관할이었지만 현재는 팔달구 관할로 바뀌었다. 따라서 장안구는 화성의 정문인 長安門(장안문)에서 명칭이 유래되었지만, 장안구에는 장안동도 없고 장안문도 자리하지 않는다.

칠보산

七寶山(칠보산)을 『수원부읍지』에는 鴟岳山(치악산)으로, 『화성지』에는 雉岳山(치악산)

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화성지』에는 七寶山(칠보산)을 花山(화산, 현재의 융건릉 뒷산)의 主脈(주맥)으로 기술하고 있다. 『해동여지도』, 『 광여도』, 『해동지도』등의 고지도에도 鴟岳山(치악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팔도군현지도』와 『해동여지도』에는 앞의 지도에 치악산으로 표기한 곳에 '曾岳山(증악산)'으로 표시되어 있다. (『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황구지천

黃口池川(황구지천)은 원래 '亢串川(항곶천)'으로도 불리었는데, 항곶천은 바다와 만나던 곳의 옛 지명 亢串津(항곶진, 현재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 항곶천이 변하여 황구지천으로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사근천을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大川(대천, 현 황구지천)에 합류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亢串川(항곶천)의 亢(항)은 크다는 뜻이고, 串(곶)의 우리말은 '구지'이다. 뜻을 그대로 따라 한역한다면 大串(대곶)이 된다. 어쨌든 大串(대곶)보다는 '항구지'라는 순우리말을 음차하여 원뜻을 그대로 지녔고, 차별성 있는 특이한 느낌을 주기에 좋은 작명 사례라 할 수 있다.

왜곡과 교정

○ 수원시 지명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2015)의 '제4부 경기도편'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다. 위 책에는 『호구총수』와 함께 『華城誌(화성지』에 기록된 옛지명들을 소개하고 있어 아주 유익하다. 이글에서 중요한 부분을 위에서 그대로 옮겨 소개했다.

○ 鍊武洞(연무동)은 일제강점기까지 '紙所洞(지소동)'이라 하다가 1949년에 鍊武洞(연무동)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연무'라는 동 이름은 이 지역 부근에 있는 동장대에서 옛날에 군사 훈련과 무술 연마가 이루어졌던 鍊武臺(연무대)가 자리했기에 붙인 이름이라 한다. 현지의 랜드마크를 지명으로 삼은 좋은 사례이지만, 원래 이곳에 종이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특수구역이었던 사실이 묻히게 되어 아쉽다.

○ 迎華洞(영화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북부면 관할의 觀吉洞(관길동)과 榮華洞(영화동)을 합친 것이다. 영화동은 迎華驛(영화역)이라는 역촌에서 유래되었다. 지역의 명소인 영화역에서 지명을 딴 점은 고무적이나, 후부요소를 살려 영화역동으로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亭子洞(정자동)은 만석거에 있던 交龜亭(교구정, 현 영화정)이란 정자 이름을 타서 작명하였다. 정자의 이름을 살려 '交龜亭洞(교구정동)'으로 했다면 나았을 듯하다. 정자동은 너무 흔한 지명이기에 차별성과 변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 好梅實(호매실)은 전국에 '홈실'이 많은데 '호매실'도 그 하나로 볼 수 있다. '홈'은 '홈통'이란 말에 살아 있듯이 '물대는 통' 즉 속을 파낸 통나무이다. 한자로는 楠(남)/椧(명)이라 쓴다[2]. 따라서 호매실은 음차지명으로서는 고유성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好梅實(호매실)의 '實'은 '室(실)'로 바꾸어야 합당하다. 일반적으로 室(실)이 마을을 나타내는 한자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한자명 '好梅實(호매실)'은 '좋은 매실이 나던 곳'으로 오해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 芭長洞(파장동)은 『華城誌(화성지)』에 琶洞(파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조 때 萬石渠(만석거, 지금의 화서동 서호)를 만들고 이곳에 연꽃과 파초를 심고 나서부터 동 이름의 표기가 파초 '芭(파)'를 쓴 '芭洞(파동)'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내용을 정리한 『신구대조』에 처음으로'파장동'이라는 지명이 나타난다. (『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2015)) 芭洞(파동)을 芭長洞(파장동)으로 바꾼 이유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3음절 지명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이라 추측된다. 문헌 속 芭洞(파동)으로 개명을 고려할 만하다.

○ 九雲洞(구운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내용을 정리한 『신구대조』에 형석면의 上九雲石(상구운석)과 下九雲石(하구운석) 두 동리를 합쳐 일형면 '구운리'로 변경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의 속칭은 군돌, 군들, 구운석, 공석 등이다. 군돌과 군들은 "본래 들녘의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논과 밭이 많아 들이 무리지어 있다는 뜻에서 군들 혹은 군돌 이라고 불리었다."고 한다(광교IT기자단(www.ggitjournal.com) '사랑과 정이 넘치는 마을, 구운동을 찾아가다'). 현지의 지명을 고려할 때 위 기사의 지명유래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이에 '군들'을 훈차하여 群坪洞(군평동)로 해야 원뜻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 莘洞(신동)은 1899년에 발간된 『수원군읍지』의 '申木洞(신목동)' 이 지역으로 추정된다. 순우리말 지명은 '신나무실'이다. 그래서 申木洞(신목동)으로 표기한 듯하다. 그런데 신나무의 정확한 한자는 椵(신) 또는 神木(신목)이다. 현재 신동의 '莘(신)'은 족두리풀이므로 喬木(교목)인 신나무와는 무관하다. 이러니 신동은 神木洞(신목동)이 가장 적합한 지명이라 할 수 있다.

2) 신종원 교수님께서 고견을 주었다.

○ 二儀洞(이의동)은 『호구총수』에 기록된 용인군 지내면 義谷德洞(의곡덕동)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의동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 시 儀上洞(의상동)과 儀下洞(의하동)을 합치면서 새롭게 만든 지명이다. 두 개의 마을을 합쳤다하여 '二(이)'를 붙인 점, 원뜻과 무관한 '儀(의)'를 핵심어로 삼은 점 등은 문제이다. 『호구총수』의 기록을 따라 義谷德洞(의곡덕동)으로 개명할 필요가 있다.

○ 松竹洞(송죽동)의 순우리말은 솔대이다. 솔대는 솔등성이를 뜻하는 '솔댕이', '솔띠'의 축약 혹은 변이음으로 볼 수 있다. 우리말 지명에서 '솔'의 음차인 松(송)과 등성이의 훈차인 脊(척)을 결합하여 '松脊洞(송척동)'이라해야 원뜻에 가장 가깝다.

시흥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桂壽洞(계수동) : 桂日(계일) 壽老谷(수노곡)
果林洞(과림동) : 木瓜洞(목과동) 重林洞(중림동)
錦李洞(금이동) : 錦月山(금월산) 桃李峴(도리현)
道倉洞(도창동) : 道頭里(도두리) 江倉里(강창리)
芳山洞(방산동) : 山井里(산정리) 芳谷里(방곡리)
新川洞(신천동) : 蛇川里(사천리) 新村里(신촌리), 竹院(죽원)
長谷洞(장곡동) : 長下里(장하리) 島村里(도촌리), 鷹谷里(응곡리)
長峴里(장현리) : 長上里(장상리) 鳥峴里(조현리)
下上洞(하상동) : 下職串里(하직곶리) 上職串里(상직곶리)

생략

論谷洞(논곡동) : 論知谷里(논지곡리)
物旺洞(물왕동) : 勿項洞里(물항동리)
烏耳島(오이도) : 吾叱耳島(오질이도)
銀杏洞(은행동) : 銀杏亭(은행정)

下中洞(하중동) : 下職串中里(하직곶중리)

변개

去毛洞(거모동) : 去毛浦(거모포)
大也洞(대야동) : 大阿洞(대아동)
梅花洞(매화동) : 梅着里(매착리)
銀杏洞(은행동) : 三里(삼리)
下職串(하직곶) : 荷池谷(하지곡)

지명 정보의 소개

시흥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조선시대의 시흥현(옛 금천현), 과천현, 안산군 지역을 합해 시흥군으로 편제하였다. 현재의 시흥시는 조선시대의 인천부(옛 소래읍)와 안산군(옛 군자면과 수암면) 지역이며, 시흥시의 이름이 유래된 조선시대의 시흥현 영역과는 관련이 없다. 『신증동국여지승람』「금천현」 군명에 始興(시흥)이란 이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려 때의 별호였다. 1795년에 금천현에서 시흥현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914년 시흥현·과천현·안산군을 합해 하나의 행정단위로 만들 때 군청이 옛 시흥현 지역이었던 영등포에 들어서면서 시흥군의 이름이 채택되었다. 옛 시흥현의 중심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시흥동에 있었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오이도

『호구총수』에 烏耳島里(오이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옥귀섬에 대한 한자 표기이다. 『조선지형도』에는 오이도와 함께 玉貴島(옥귀도)가 표기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안산군」봉수에는 吾叱哀(오질애)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의 안산군 산천 항목에는 吾叱耳島(오질이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질은 'ㅅ' 받침을 대신하는 것으로 오질의 옷은 옥귀섬의 옥을 쓴 것이다. 규장각 소장 『해동지도』「안산군」에는 오이도로, 주기에는 오질이도로 표기하였다. 1922년에 오이도 근처에 군자염전을 만들기 위해 제방을 쌓으면서 육지와 연결되었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군자동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구정리, 산북리를 합해 군자봉의 이름을 따서 시흥군 군자면

관할의 君子里(군자리)로 편제되었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소래산

시흥시의 랜드마크는 소래산이다. 이 소래산의 유래에 대해서는 蘇定方(소정방)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산을 뜻하는 수리/소리가 음운변화한 '솔'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하여 남양주 송천리의 松羅(송라)마을이 송라산이 뒤편에 있어서 '송라'라 하였는데 일명 '소래비'라고도 불리는 점, 양주 운암리 松羅(송라)마을이 소래산 북쪽에 위치해 붙여진 이름이라는 점, 이천 松羅里(송라리)의 우리말 명칭이 '소래울'인 점, 파주 창만리 송라동마을의 우리말 지명이 '소라울'인 점, 그릇의 한 종류인 소래기를 '松羅(송라)'라 표기하는 점 등을 참고해 보자. 그러면 현재 소래산의 한자지명은 松羅山(송라산) 또는 松蘿山(송라산)에서 유래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참고로 羅(라)는 '늘어서다', '망라하다'의 의미가, 蘿(라)는 '산채가 무성한'의 의미가 내포되었다.

한편, 소래산은 '솔애산'이 음운변화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솔'은 '높은 산'을 뜻하고 崖(애)는 한자의 뜻 그대로 벼랑을 말한다. 따라서 소래산은 '높고 가파른 산'에서 유래된 지명일 수도 있다.

왜곡과 교정

○ 현재 금천구청역이 개명 이전에는 시흥역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금천구에 시흥동이 있고, 시흥사거리 · 시흥IC · 시흥대교 · 시흥중학교 등이 서울시 금천구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일반인들은 지금의 금천구청역 일대를 시흥시 지역으로 착각을 하기도 한다. 한편 '시흥'이란 시명은 정체성이 애매한 지명이다. 한때는 금천에 포함되었다가, 또 안산에 포함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는 이 두 곳을 관할했다가 지금은 두 곳이 모두 분리되어 옛 시흥군의 일부(소래읍, 군자면, 수암면)만 남은 상태이다. 한마디로 1914년 시흥군의 탄생 이후 풀질과 가위질을 너무 당하여 고유성과 역사성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어쨌든 시흥이 금천의 異名(이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시명을 고민해 볼 만하다.

○ 군자동은 동리 통합시 구정리와 산북리가 합해져 새롭게 생겨난 이름이다. 구산리, 구북리, 정산리, 정북리 등 어색한 이름 대신에 두 동리의 표지물인 군자봉의 이름을 따서 군자리로 했다. 동리 명칭의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銀杏洞(은행동)의 순우리말은 '은행정', '으능정'이다. 은행나무가 있는 정자가 마을의 標識物(표지물)이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銀杏亭洞(은행정동)이 원뜻에 맞는

지명이다.

○ 物旺洞(물왕동)은 勿項洞里(물항동리)가 변개한 것이다. 물항동리에서 勿(물)을 우리말 '물〔수〕'의 음차로 보고 項(항)을 우리말 '목'의 훈차로 본다면, 그 유래는 '물길이 모이는 길목'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勿項洞(물항동)이 더 원뜻에 부합되는 지명이라 할 수 있다.

○ 果林洞(과림동)은 木瓜洞(목과동)과 重林洞(중림동)을 합성한 지명이다. 여기서 중림동은 重林道(중림도)의 중심 역원이었던 重林驛(중림역)이 있었던 역사적 장소이다. 정체성이 전혀 없는 과림동보다는 重林驛洞(중림역동)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명이다.

○ 下上洞(하상동)과 下中洞(하중동)은 모두 조선시대 職串里(직곶리)에 속했던 지역이다. 하상, 하중과 같은 방위지명만으로는 지역의 역사성과 차별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옛 지명를 살려 관곡지가 있는 하중동을 職串北洞(직곶북동), 그 아래의 하상동을 職串南洞(직곶남동)으로 해야 원뜻에 가까운 지명이 될 수 있다.

○ 논곡동은 원래 論知谷里(논지곡리)였고 순우리말 지명은 '논줄'이다. 여기서 논지는 논줄의 음차로 생각된다. 어쨌든 논곡동보다는 논지곡동이 더 원뜻에 가까운 지명이다.

○ 去毛洞(거모동)의 순우리말은 거무개이다. 우리말 '개'는 포구를 말하니 '검은 포구'인 셈이다. 여기서 '검다'는 것은 포구의 바닷물이 검다는 뜻이 아니고, 지형적으로 북쪽 또는 뒤쪽에 자리잡고 있기에 붙여졌다. 따라서 거모리는 後浦(후포) 또는 北浦(북포)로 한역해야 원뜻을 가장 잘 반영한 지명이 된다. 지금의 거모동은 거무개를 음차한 지명인데,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개〔浦(포)〕가 빠졌다. 去毛浦洞(거모포동), 또는 '거무개동'으로 해야 올바르다.

안산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木內洞(목내동) : 梨木洞(리목동) 陵山里(능산리)
城谷洞(성곡동) : 茂谷洞(무곡동) 城頭里(성두리)
新吉洞(신길동) : 般谷里(반곡리) 城內里(성내리), 赤吉里(적길리) 등

元谷洞(원곡동) : 茅谷里(모곡리) 元上里(원상리)
元時洞(원시동) : 元下里(원하리) 時雨洞(시우동)

생략

月陂洞(월피동) : 月入皮里(월입피리)

변개

豊島(풍도) : 楓島(풍도)

지명 정보의 소개

안산

안산이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940년(고려 태조 23)부터이다. 조선시대에 안산은 줄곧 경기도에 소속되어 郡守(군수)가 관할하는 지방 행정구역으로 존속하였다. 1914년에 옛 안산군은 폐지되고, 시흥군 君子面(군자면)과 秀岩面(수암면) 두 면의 관할로 나누어졌다. 이후 계속 시흥군 관할 지역으로 있다가, 1976년 반월 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반월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이때 화성군 반월면, 시흥군 군자면과 수암면 3개 면 지역이 반월출장소 관할 지역이었다. 반월 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1986년 에 반월출장소는 안산시로 승격되었다. 2002년에 區制(구제)가 실시되어, 常綠區(상록구)와 檀園區(단원구) 두 행정구가 설치되었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안산천

安山川(안산천)의 옛 이름은 板川(판천)이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지명에서 板(판)은 일반적은 넓은, 너른의 훈음차이다. 관리에 편리한 행정지명하천과 함께 옛지명도 홍보해 사용했으면 한다.

본오동

本五洞(본오동)이란 지명은 조선시대 五里(오리)을 本五里(본오리)와 分五里(분오리)로 나눈 데에서 생겨났다. 따라서 본오동은 원리 五里의 중심지였을 것이라 추측된다.(『한국

지명유래집 : 중부편』)

왜곡과 교정

○ 豊島(풍도)는 조선시대에는 남양군에 속하기도 하였고 수원군 관할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단풍나무 楓(풍)자를 써 楓島(풍도)라고 하였다. 1894년 일본이 청나라 함대를 기습하여 격침시킴으로써 청일전쟁을 일본의 승리로 이끈 역사의 현장이다. 이에 일본은 楓島(풍도)를 그들이 애용하는 지명인 豊島(풍도)로 바꾸고, 자신들이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한 그 전투를 '豊島海戰(풍도해전)'이라 불렀다. 이렇듯 풍도는 일제가 자의적으로 바꾼 이름이다. 반드시 楓島(풍도)로 되돌려야 할 최우선 지명이다.

○ 현재 안산의 법정동 중에서 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등의 일련번호지명이 있다. 이들 지명은 순우리말 지명이 있다. 구룡골〔일동〕, 솔이웃〔이동〕, 배다리〔사동〕, 배웃〔본오동〕이 그것이다. 해당 동리의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순우리말를 참고하고, 현재 지역의 차별성을 찾아서 개명할 필요가 있겠다.

○ 月陂洞(월피동)의 순우리말 지명은 '달이피'이고 그것을 훈음차한 것이 月入皮里(월입피리)이다. 여기서 한자 月(월)은 높은 산을 뜻하는 순우리말 'ᄃᆞᄅᆞ'가 음운변화를 거쳐 '달'이 된 것을 음훈차한 것이고, 入(입)은 '들어갔다'의 훈차이며, 皮(피)는 陂(피)의 誤字(오자)인 듯하다. 어쨌든 원 지명을 보면 '산쪽으로 들어간 비탈'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월피동은 온전한 뜻을 지니지 않았으므로, 月入陂洞(월입피동)으로 개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상록구의 區(구) 이름은 심훈의 소설 『상록수』에서 따온 이름이고, 단원구는 안산 출신의 단원 김홍도의 호에서 따온 것이다. 역사성을 짙게 내포하고 있고 지역의 대표적 역사 인물을 근거로 하였다. 아주 훌륭한 작명의 일례이다.

안성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佳柳里(가유리) : 柳驛里(유역리) 上佳里(상가리) 下佳里(하가리)

開山里(개산리) : 開鬱里(개울리), 梧山里(오산리)
開井里(개정리) : 開理村(개리촌), 九井里(구정리)
桂勒里(계륵리) : 桂村(계촌) 勒洞(륵동)
古銀里(고은리) : 銀石里(은석리) 古木里(고목리) 등
孔道邑(공도읍) : 孔梯面(공제면), 道一面(도일면)
金山里(김산리) : 山田里(산전리) 金玉洞(김옥동) 등
基率里(기솔리) : 基洞(기동) 沙率里(사솔리)
南楓里(남풍리) : 南光里(남광리) 楓井里(풍정리)
內康里(내강리) : 康村(강촌) 內洞(내동) 등
內芳里(내방리) : 流芳里(류방리), 內洞(내동)
內隅里(내우리) : 內洞(내동), 石隅里(석우리)
內長里(내장리) : 長山里(장산리) 內土里(내토리) 등
菱菊里(능국리) : 菊洞(국동) 菱洞(능동) 등
堂木里(당목리) : 唐津(당진) 木洞(목동) 등
堂旺洞(당왕동) : 堂山里(당산리), 實旺里(실왕리)
大葛里(대갈리) = 大坪里(대평리) 上葛里(상갈리) 下葛里(하갈리)
德山里(덕산리) : 上德里(상덕리) 下德里(하덕리) 桂山里(계산리) 등
東新里(동신리) : 東門里(동문리), 坪村(평촌), 新基(신기)
東平里(동평리) : 平章洞(평장동) 東陽里(동양리) 등
斗峴里(두현리) : 三峴里(삼현리) 斗坪里(두평리)
萬井里(만정리) : 萬家垈(만가대), 天井里(천정리)
梅山里(매산리) : 九山里(구산리) 梅谷里(매곡리) 등
舞陵里(무릉리) : 舞魚山(무어산), 陵里(릉리), 坪村(평촌) 등
美山里(미산리) : 山村(산촌) 美里川(미리천) 등
美獐里(미장리) : 新美洞(신미동) 獐項里(장항리)
芳新里(방신리) : 芳美洞(방미동) 新下里(신하리) 등
芳草里(방초리) : 草幕里(초막리) 銀石里(은석리) 등
洑東里(보동리) : 小東山(소동산) 洑頭里(보두리) 등
鳳山里(봉산리) = 花山里(화산리) 鳳凰里(봉황리)
山坪里(산평리) : 山亭里(산정리), 坪里(평리)
三閑里(삼한리) : 三岩里(삼암리) 閑沙村(한사촌) 鵲村(작촌)

上三里(상삼리) : 上上洞(상상동), 三綱里(삼강리), 本里(본리)
上中里(상중리) : 上里(상리), 下里(하리)
石下里(석하리) : 白石里(백석리), 下里(하리)
素內里(소내리) : 內洞(내동) 素沙洞(소사동)
松井里(송정리) : 舊松山里(구송산리), 獨井里(독정리)
松川里(송천리) : 大松里(대송리) 川屯里(천둔리)
新令里(신령리) : 累令里(누령리) 新里(신리)
新陵里(신릉리) : 新洞里(신동리), 水陵里(수릉리)
薪安里(신안리) : 薪谷(신곡), 同安里(동안리)
新長里(신장리) : 長谷(장곡), 新基(신기)
雙芝里(쌍지리) = 雙嶺里(쌍령리) 奉芝谷(봉지곡) 등
兩基里(양기리) : 新基(신기), 筏基(벌기) 등
兩邊里(양변리) : 東邊里(동변리), 西邊里(서변리)
陽福里(양복리) : 陽峽里(양협리), 福居里(복거리), 金光里(금광리)
龍月里(용월리) : 龍頭里(용두리) 月谷里(월곡리) 등
元谷面(원곡면) : 元堂面(원당면), 盤谷面(반곡면)
月香里(월향리) = 月洞(월동) 香林洞(향림동)
栗谷里(율곡리) : 栗峴里(율현리) 品谷里(품곡리) 등
長溪里(장계리) : 泉溪里(천계리) 上長里(상장리) 등
長陵里(장릉리) : 陵北里(능북리) 下長里(하장리)
長岩里(장암리) : 長峴里(장현리) 廣巖店里(광암점리) 등
長院里(장원리) : 烈院里(열원리) 長在里(장재리) 등
長竹里(장죽리) : 元竹里(원죽리), 長在洞(장재동)
芝文里(지문리) : 上芝村(상지촌) 下芝村(하지촌) 洞文里(동문리)
珍沙里(진사리) : 珍村(진촌) 獨沙谷(독사곡)
眞村里(진촌리) : 眞木亭里(진목정리) 羅村(나촌)
賢梅里(현매리) : 臥賢里(와현리), 梅香里(매향리)
玄水洞(현수동) : 玄岩里(현암리), 水春村(수춘촌)
和谷里(화곡리) : 大和里(대화리) 愚谷里(우곡리) 등
花鳳里(화봉리) : 花川里(화천리) 鳳凰里(봉황리) 등

생략

九沙里(구사리) : 九沙孔里(구사공리)
陽地里(양지리) :陽地邊里(양지변리)

변개

明堂里(명당리) : 明棠里(명당리)　　迪加里(적가리) : 節可里(절가리)
新興里(신흥리) : 龍洞奉(용동봉)

지명 정보의 소개

고삼면

古三面(고삼면)은 본래 조선시대 陽智縣(양지현)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양지군 고북면·고서면·고동면 등 세 개의 면을 합쳐 고삼면으로 하였다.

삼죽면

조선시대 죽산부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서일면, 서이면, 서삼면을 합쳐 竹三面(죽삼면)이라 하고 안성군에 편입시켜 13개 동리를 관할하게 하였다.

일죽면

본래 조선시대 죽산부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제촌면 · 북일면 · 북이면 · 남일면 · 남이면과, 음죽군 서면 일부를 합쳐 竹一面(죽일면)이라 하고 안성군에 편입시켜 15개 동리를 관할하게 하였다. 1917년 죽일면을 일죽면으로 고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왜곡과 교정

○ 안성은 다른 시군에 비하여 법정동이 월등하게 많다. 그리고 용인 고삼면이 1963년 용인시에서 편입된 이후 행정구역의 통폐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일제

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실상을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대상이다. 또 안성은 『조선지지자료』에 한자명 동리촌과 함께 언문(순우리말)이 부기되어 있어서 마을의 고유지명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명유래집』의 내용도 충실하여 지명의 유래를 추적하는 데에 좋은 단서를 제공한다.

○ 뿐만 아니라 안성시 중심가의 계동, 영동, 구포동, 금산동, 낙원동, 당왕동, 대천동, 동본동, 봉남동, 봉산동, 명륜동, 서인동, 석정동, 성남동, 숭인동, 연지동, 옥천동, 인지동 등은 일제강점기 왜색 후부요소인 '○○町(정)'으로 바뀌었던 곳이다. 수원 중심가의 지명과 함께 경기도에서 왜색지명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이들 동리 중 일부를 통폐합하였던 소화정, 대화정, 명치정, 동본정, 서본정 등은 완연히 왜식지명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1943년을 기점으로 일본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안성과 수원의 중심가를 일제가 완전히 왜식지명으로 바꾸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안성과 용인 일대의 면의 명칭 중에는 삼죽면, 원삼면, 고삼면, 남사면 등과 같은 지명이 주목된다. 몇 개의 면을 하나로 통합할 때 숫자에 따라 ○삼면, ○사면 등과 같이 지명을 정했던 것이다. 이런 지명은 해당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나쁜 사례라 할 수 있다.

○ 지금의 일죽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죽이면, 죽삼면과 함께 죽일면이었다. 그래서 죽일면의 면장은 '죽일면장'(죽일 놈의 면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에 1917년 일죽면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는데, 이는 1914년 당시 행정지명의 작명이 현지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잘 보여준다.

○ 동리면의 작명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당 동리의 지역성을 완전히 무시한 합성이 이루어졌고, 자연부락의 고유지명과 부합되지 않은 한자지명을 양산했다. 이는 바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 東本洞(동본동)은 왜식지명의 東本町(동본정)의 후부요소만 바꾼 것이다. 원래 東里(동리)였던 곳이므로 '東里洞(동리동)'으로 반드시 개명해야 할 지명이다.

○ 西仁洞(서인동)도 왜식지명인 西本町(서본정)에 속했던 곳이다. 해방 이후 새롭게 개명하면서 지역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념어 '仁(인)'을 넣었다. 차라리 옛 지명을 살려 西里洞(서리동)으로 하는 편이 좋겠다.

○ 明倫洞(명륜동)도 원래 향교동이었던 곳을 일제가 명륜정으로 바꾸었던 곳이다. 명륜동도 무난하지만 그래도 원래 이름을 찾아 향교동으로 바꾸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 城南洞(성남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새롭게 작명한 행정지명이다. 안성을 대표하는 '안성 장터'가 자리했던 곳이다. 원지명을 살려서 안성장터동 또는 場基洞(장기

동)으로 개명할 이유가 충분하다.

○ 崇仁洞(숭인동)은 원래 물방앗골, 수용골, 숭용골 등으로 불렸던 곳이다. 일제강점기의 왜색지명의 잔재가 남아있을 뿐만아니라 지역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숭인동을 버리고, 옛 지명을 살려 水舂洞(수용동) 또는 물방아동으로 개명했으면 한다.

○ 榮洞(영동)은 벌말 또는 평촌이었던 곳인데, 일제강점기 榮町(영정)으로 작명되었다가 해방 이후 왜색지명의 잔재를 지닌 榮洞(영동)으로 후부요소만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래 지명을 되살려 평촌동으로 개명할 필요가 있다.

○ 道基洞(도기동)의 순우리말 지명은 독머리, 도구머리, 석두 등이다. 가장 원형은 독머리인 바, 여기서 독은 돌[석]의 순우리말이고, 머리는 평야지대에 산기슭이나 봉우리가 머리처럼 툭 뛰어나온 지형을 가리킨다. 따라서 훈차하면 石頭(석두)가 된다. 이렇듯 현재의 도기동은 원뜻을 유추하기 어려운 雅譯(아역)이다. 石頭里(석두리)가 적합하지만 '돌대가리'라는 나쁜 어감이 있으므로 '독머리'의 독을 음차하여 '獨頭里(독두리)' 정도로 개명할 수도 있겠다. 한편, 도구머리의 어원을 마을 입구에 있는 비석의 받침돌인 龜趺(귀부)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돌+거북(龜)+머리'의 조합이라는 이야기이다. 이 견해를 따른다면 '石龜頭里(석구두리)'가 순우리말 지명에 맞는 한역인 듯하다.

○ 堂旺洞(당왕동)은 당산 밑에 자리하므로 당산 또는 당목골로 불리던 마을이다. 원뜻을 따르면 堂山里(당산리) 또는 堂項里(당항리)가 적합하다. 참고로 이 당왕리는 일제강점기 때 왜색지명인 堂旺町(당왕정)으로 표기되었다가 1947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 玉川洞(옥천동)은 안성천보의 물문이 있어 '물문거리'로 불리던 지역으로 일제강점기 옥천정으로 새롭게 작명된 곳이다. 왜색 지명의 잔재가 남아있으므로 순우리말 지명을 살려 '水門洞(수문동)'으로 개명할 필요가 충분하다.

○ 仁智洞(인지동)은 옹기점이 있어서 옹기전거리라 불리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서리에 편입되었다가 1943년 행정구역변경에 의하여 소화정 2정목이라 하다가, 1947년 왜색 동명 변경에 따라 인지동으로 새롭게 작명해 독립 법정동이 되었다. 마을의 정체성이 전혀 없는 인지동을 버리고 '甕店洞(옹점동)' 등과 같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지명으로 개명할 필요가 있다.

○ 玉山洞(옥산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순우리말 지명은 '옥산들'이었다. 마을의 정체성이 담긴 후부요소를 살려 '玉山坪洞(옥산평동)'이나 원래의 지명을 살려 '옥산들'로 바꾸어 봄직하다. 이외에도 九沙里(구사리)는 九沙孔里(구사공리)를, 陽地里(양지리)는 陽地邊里(양지변리), 玉明堂里(명당리)는 明棠里(명당리)를, 迪加里(적가리)는 節可里(절가리)를, 新興里(신흥리)는 龍洞奉(용동봉)를 개변·변경하는 방식으로 원지명을 개명한 경우이다. 따라서 원지명으로 환원을 고민할 만한 대상이다.

안양

기본 자료의 정리

(해당사항 없음)

지명 정보의 소개

안양

조선시대 후기의 과천현 下西面(하서면)과 上西面(상서면)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상·하 서면을 합했다 하여 이서면으로 하였다. 보통이라면 兩西面(양서면)이라 작명했을 터인데, 이서면이라 한 점이 이채롭다. 현재 서이면사무소가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일제강점기 서이면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다. 어쨌든 안양동에 자리 잡은 경부선의 안양역이 일대의 중심지역으로 자리 매김하면서 안양면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안양'은 '安養寺(안양사)에서 유래된 바, 역사성도 깊고 뜻도 좋으므로 아주 적절한 지명이라 볼 수 있다. 안양시는 법정동이 7개(안양, 석수, 박달, 비산, 관양, 평촌, 호계)에 불과하므로 지명 관련 특별한 정보는 없는 편이다.

비산동

飛山洞의 순우리말은 '날미'이다. 여기서 미는 뫼의 변음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날은 '날다'의 뜻이 아니라, '늘어나다'의 '느르'〔延〕가 '나'로 변한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비산동의 옛 마을인 '안날미'와 '밧날미'는 호칭의 주체를 중심으로 안쪽으로 늘어진 산, 바깥쪽으로 늘어진 산이라는 뜻을 지닌다.(천소영, 『한국 지명어 연구』(이회문화사, 2003), 242쪽)

왜곡과 교정

○ 1973년 기존의 一洞里(일동리)를 冠陽里(관양리, 관악산 아래 남쪽)로 바꾼 점, 만안구를 萬安橋(만안교)에서 이름을 따 온 점 등은 좋은 사례이다.

양주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廣沙洞(광사동) : 廣岩里(광암리) 插沙洞(삽사동)
廣積面(광적면) : 廣石面(광석면) 石積面(석적면)
基山里(기산리) : 基谷里(기곡리) 中山里(중산리) 등
德溪洞(덕계동) : 遯溪里(둔계리) 道德里(도덕리) 등

晩松洞(만송동) : 回晩里(회만리) 松浪里(송랑리)
防城里(방성리) : 防築洞(방축동) 山城洞(산성동)
福池里(복지리) : 弘福里(홍복리) 華池里(화지리) 등
三崇洞(삼숭동) : 光崇里(광숭리) 三佳垈里(삼가대리)
蓮谷里(연곡리) : 蓮坪里(연평리) 蘭谷里(난곡리) 등
靈場里(영장리) : 大古靈里(대고령리) 馬場里(마장리) 등
玉井洞(옥정동) : 玉洞里(옥동리) 冷井里(냉정리) 등
雲岩里(운암리) : 笠岩里(입암리) 發雲里(발운리) 등
栗亭洞(율정동) : 貴栗里(귀율리) 茅亭里(모정리) 등
隱縣面(은현면) : 默隱面(묵은면) 縣內面(현내면)
弘竹里(홍죽리) : 弘洞里(홍동리) 川竹里(천죽리) 등
悔亭洞(회정동) : 德亭里(덕정리) 寡悔里(과회리)
孝村里(효촌리) : 孝佳洞(효가동) 新村里(신촌리) 등

생략

三上里(삼상리) : 三牌上里(삼패상리)

변개

德亭洞(덕정동) : 儒散亭(유산정)

梧山里(오산리) : 孤山(고산)

지명 정보의 소개

양주

양주는 경기 북서부의 宗家(종가) 격이다. 의정부시, 구리시, 동두천시, 와부읍과 조안면을 제외한 남양주시, 연천군 전곡읍·청산면, 고양시 덕양구 일부, 서울시 은평구 일부, 도봉구·강북구·노원구·중랑구 일대 등이 모두 옛 양주 땅이었다. 『조선지지자료』에 양주편만 누락되어 순우리말 지명을 참고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17개의 합성지명이 만들어졌다. 그중 2곳은 읍면 단위의 합성으로, 광적면과 은현면이 이에 해당된다.

왜곡과 교정

○ 장흥면 橋峴里(교현리)는 우이령을 끼고 있는 마을이다. 이 우이령을 '다리고개'로 불렸고, 이 다리고개에 연원하여 현 교현리를 1914년 이전에는 達峴(달현)마을로 표기했다. 순우리말 다리는 산을 의미하는 'ᄃᆞᄅᆞ'에서 음운변화한 것이고, 達(달)은 'ᄃᆞᄅᆞ'의 한자 표기이다. 따라서 橋峴里(교현리) 산을 의미하는 '다리'를 교각 다리로 오인하여 誤記(오기)한 것이다. 達峴里(달현리) 또는 '다리고개'로 바꾸어야 마땅하다.

○ 三上里(삼상리)는 원지명인 三牌上里(삼패상리)의 핵심어인 牌(패)를 없애서 애써 2음절 전부요소를 만든 사례이다. 참고로 牌(패)는 入番(입번)할 때 番(번)을 갈아서던 한 무리로, 대개 40~50명이 한 조를 이루는 작은 부대를 말한다.

양평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楊平郡(양평군) : 楊根郡(양근군) 砥平郡(지평군)

兩西面(양서면) : 西始面(서시면) 西中面(서중면)

葛雲里(갈운리) : 葛里(갈리) 沒雲里(몰운리)
桂亭里(계정리) : 桂良里(계랑리) 松亭里(송정리)
公興里(공흥리) : 興淸里(흥청리) 公山里(공산리)
交坪里(교평리) : 交岩里(교암리) 坪里(평리) 등
丹石里(단석리) : 巨丹里(거단리) 松石里(송석리)
大石里(대석리) : 大甘里(대감리) 白石里(백석리) 등
大心里(대심리) : 大灘里(대탄리) 上心里(상심리)
大坪里(대평리) : 坪場里(평장리) 大寺里(대사리) 등
大興里(대흥리) : 新興里(신흥리) 大谷里(대곡리)
德村里(덕촌리) : 退村里(퇴촌리) 德洞里(덕동리)
東梧里(동오리) : 東門里(동문리) 梧里(오리)
馬龍里(마룡리) : 龍潭里(용담리) 馬川里(마천리) 등
望陵里(망능리) : 望里(망리) 斗陵里(두릉리)
梅月里(매월리) : 月隱里(월은리) 雪梅里(설매리)
茂旺里(무왕리) : 草旺里(초왕리) 茂村里(무촌리)
白安里(백안리) : 白洞里(백동리) 長安里(장안리)
鳳城里(봉성리) : 奉谷里(봉곡리) 城山里(성산리)
西厚里(서후리) : 西次南里(서차남리) 厚谷里(후곡리)
石谷里(석곡리) : 下谷里(하곡리) 上石里(상석리) 등
石山里(석산리) : 石峴里(석현리) 三山里(삼산리) 등
洗月里(세월리) : 月里(월리) 洗心里(세심리) 등
松鶴里(송학리) : 松山里(송산리) 鶴谷里(학곡리) 등
松峴里(송현리) : 松亭里(송정리) 山峴里(산현리)
水陵里(수능리) : 水回里(수회리) 陵谷里(능곡리)
新論里(신론리) : 新垈里(신대리) 古論里(고론리) 등
新福里(신복리) : 新村里(신촌리) 福洞里(복동리)
新店里(신점리) : 瓮店里(옹점리) 新村里(신촌리)
新花里(신화리) : 新堂谷里(신당곡리) 內生花里(내생화리) 등
雙鶴里(쌍학리) : 雙村(쌍촌) 鶴村里(학촌리)

我新里(아신리) : 我吾里(아오리) 新垈里(신대리)
兩水里(양수리) : 兩水頭里(양수두리)
延壽里(연수리) : 延安里(연안리) 長壽里(장수리)
梧村里(오촌리) : 梧里(오리) 新村里(신촌리) 등
玉峴里(옥현리) : 松峴里(송현리) 玉鉤里(옥구리) 등
旺倉里(왕창리) : 倉村里(창촌리) 旺忠里(왕충리)
雲沁里(운심리) : 雲浦里(운포리) 上沁里(상심리)
元德里(원덕리) : 德岩里(덕암리) 元堂里(원당리) 등
月山里(월산리) : 月坡里(월파리) 山峴里(산현리)
日新里(일신리) : 新村里(신촌리) 老日里(노일리)
全壽里(전수리) : 全義里(전의리) 壽垈里(수대리) 등
曹峴里(조현리) : 曹佐里(조좌리) 赤峴里(적현리)
花暘里(화양리) : 暘谷里(양곡리) 外生花里(외생화리)

생략

介軍面(개군면) : 介軍山面(개군산면)
兩水里(양수리) : 兩水頭里(양량수두리)
仙遊峙(선유치) : 仙遊於峙(선유어치)
龜尾里(구미리) : 龜尾浦(구미포)

변개

西宗面(서종면) : 西終面(서종면)
楊平(양평)나루 : 葛山(갈산)나루
注邑山(주읍산) : 趨揖山(추읍산)

지명 정보의 소개

양평

『순종실록』의 1908년(순종원년)에 반포된 칙령에 따라 "경기 양근군(楊根郡)과 지평군

(砥平郡)을 합하여 양평군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楊平(양평)과 관련한 최초의 기록이다. 어쨌든 양평이란 지명은 21세기 들어와 생겨났다.

오빈역

娛賓驛(오빈역)은 『여지도서』와 『광여도』, 『 대동여지도』에도 묘사되어 있다. 경기도 양주 평구역을 본역으로 하며, 지평의 백동역 · 전곡역과 이어져 강원도 원주 · 영월까지 연결되는 平邱道(평구도)의 주요 역이었다. 지금은 흔적이 남아 있지 않지만, 최근 중앙선 복선전철화 계획에 오빈역 설치가 결정되었다.

개군면

介軍面(개군면)은 조선시대 여주군 관할로 介軍山面(개군산면)으로 불리웠다. 1914년 개군면으로 개칭되었고, 1963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임진왜란 1592년(선조 25) 당시에 지역 주민과 관군이 협동하여 구미포에서 왜군과 격전을 벌여 개군산이라는 이름을 얻게된 것에서 지명이 유래한다고 전한다.

옥천면

玉泉面(옥천면)은 원래 양근현의 읍치가 있던 곳이다. 조선시대 1747년(영조 23) 양근 읍치를 갈산리로 옮긴 후 古邑內面(고읍내면)으로 불렸다. 1914년 고읍면이 되었고, 1931년 옥천리의 이름을 본떠서 옥천면으로 개칭되었다. '어디를 가든지 맑은 물이 흐르고 구슬 같은 샘이 있다.'하여 玉泉(옥천)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고 전한다.(이상 (『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왜곡과 교정

○ 양평군은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강점기에도 면 지명에서 방위가 들어간 지명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끊임없이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한 점은 다른 시군에 본보기가 될 만하다.

○ 현재 西宗面(서종면)의 원래 이름은 西終面(서종면)이었다. '마칠 終(종)'자가 상서롭지 못하다하여 '마루 宗(종)'자로 고쳤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어쨌든 자기 고장의 품격을

좀더 높이고자 하는 미칭으로 볼 수 있다.

○ 용문면은 조선시대 砥平縣 上西面(상서면)과 下西面(하서면) 일대이다. 1914년 두 면을 합쳐 용문면으로 개칭하였다. 해당 지역의 표지물인 용문사의 이름을 따서 작명한 것이다. 방위개념 지명에 비하여 역사성이 있는 점, 위치 파악이 용이한 점 등으로 좋은 사례이다.

○ 지평면은 지평현이 1908년 양근현과 합칭되면서 원래 이름을 잃고, 1914년 일제강점기 이후 砥堤面(지제면)으로 불렸으나 2006년 지평면으로 면 이름을 변경하였다. 유구한 역사를 지녔고 자기 정체성을 지닌 지명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사례이다.

○ 통방산의 벽계천은 일제강점기 때 沙器幕川(사기막천)으로 불렸으나 1995년 벽계천으로 변경하였다. 사기막은 자기공방소가 있었던 장소에서 유래된 지명인데, 아무 의미도 없는 壁溪川(벽계천)으로 바꾼 점은 아쉽다.

○ 양평군의 동리 중에서 가장 일반인에게 알려진 곳은 양수리일 것이다. 이 양수리의 순우리말 지명인 '두물머리'는 아직도 남아있고, 사람들이 애용하는 사실은 다행이고 또 앞으로 '지명 바로잡기'의 좋은 본보기이다. 이에 '두물머리동'으로 개명할 필요가 있겠다.

○ 注邑里(주읍리)는 注邑山(주읍산)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그런데 주읍산은 趨揖山(추읍산) 또는 趨邑山(추읍산)으로 불렸는데, 일제강점기 注邑山(주읍산)으로 개명한 것을 1995년 고유지명인 추읍산으로 환원했다. 이렇듯 주읍리의 유래가 되었던 주읍산이 고유지명인 추읍산으로 제자리를 찾았으므로, 당연히 주읍리도 趨揖里(추읍리) 또는 趨邑里(추읍리)로 개명해야 마땅하겠다. 한자명은 趨揖(추읍)이 趨邑(추읍)보다 의미 해석이 완전하므로 趨揖里(추읍리)가 좋겠다.

○ 娛賓里(오빈리)는 조선시대 平丘道(평구도)에 속했던 娛賓驛(오빈역)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3음절 지명에 대한 강박으로 핵심어인 후부요소 역을 생략하였다. 역사성을 되살려서 오빈역리로 바꾸어 봄 직하다.

여주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加南邑(가남읍) : 近南面(근남면),加西面(가서면) 등

陵西面(능서면) : 首界面(수계면), 吉川面(길천면)
大神面(대신면) : 等神面(등신면), 大松面(대송면)
北內面(북내면) : 北面(북면), 池內面(지내면)
占東面(점동면) : 占梁面(점량면), 近東面(근동면)
興川面(흥천면) : 興曲面(흥곡면), 吉川面(길천면)

加山里(가산리) : 長山洞(장산동) 才加洞(재가동) 등
傑隱里(걸은리) : 傑村(걸촌) 耆隱洞(기은동) 등
寬閑里(관한리) : 寬谷洞(관곡동) 閑田洞(한전동) 등
廣大里(광대리) : 廣石洞(광석동) 大井洞(대정동)
歸白里(귀백리) : 歸來洞(귀래동) 下白羊洞(하백양동)
內楊里(내양리) : 內安洞(내안동) 楊花洞(양화동)
陵峴洞(능현동) : 草峴里(초현리) 陵村(능촌)
多大里(다대리) : 多洞(다동) 下大洞(하대동)
丹峴洞(단현동) : 丹江里(단강리) 鳥峴洞(조현동)
唐辰里(당진리) : 辰頭里(진두리) 唐底洞(당저동) 등
大塘里(대당리) : 靑唐里(청당리) 大旺里(대왕리) 등
大新里(대신리) : 新文洞(신문동) 大寺洞(대사동) 등
德山里(덕산리) : 德坪洞(덕평동) 長山洞(장산동) 등
德坪里(덕평리) : 德谷洞(덕곡동) 坪村(평촌)
道谷里(도곡리) : 道壯里(도장리) 釜谷里(부곡리)
道全里(도전리) : 全巨論里(전거논리) 道城村(도성촌) 등
梅龍洞(매룡동) : 梅也洞(매야동) 龍耕洞(용경동)
文章里(문장리) : 文岩洞(문암동) 照章洞(조장동)
本斗里(본두리) : 本洞(본동) 斗里峰里(두리봉리)
富九里(부구리) : 夫谷洞(부곡동) 九谷洞(구곡동)
三橋洞(삼교동) : 三台洞(삼태동) 牛橋洞(우교동)
三軍里(삼군리) : 三中洞(삼중동) 色軍里(색군리)
三承里(삼승리) : 三莊里(삼장리) 元承里(원승리) 등
上橋里(상교리) : 上高洞(상고동) 橋項洞(교항동)
西院里(서원리) : 西化洞(서화동) 院村(원촌)

石隅里(석우리) : 立石洞(입석동) 牆隅洞(장우동) 등
聖薪里(성신리) : 薪里(신리) 聖子洞(성자동)
松村里(송촌리) : 松山里(송산리) 應村(응촌)
莘根里(신근리) : 梧根洞(오근동) 莘隱里(신은리)
新南里(신남리) : 新陽洞(신양동) 九南洞(구남동)
新接里(신접리) : 接佳洞(접가동) 新村(신촌)
新海里(신해리) : 獻海洞(헌해동) 新洞(신동) 등
心石里(심석리) : 黑石洞(흑석동) 公心里(공심리)
安金里(안금리) : 安定洞(안정동) 金橋洞(금교동) 등
兩巨里(양거리) : 上巨里(상거리) 下巨里(하거리)
兩貴里(양귀리) : 上貴洞(상귀동) 貴日洞(귀일동)
淵陽洞(연양동) : 陽村(양촌) 淵村(연촌)
梧溪里(오계리) : 崇溪洞(숭계동) 梧柳洞(오류동)
五鶴洞(오학동) : 鶴洞(학동) 五川洞(오천동)
玉村里(옥촌리) : 玉垈里(옥대리) 坪村(평촌) 등
龍隱里(용은리) : 龍巨洞(용거동) 莘隱里(신은리)
元富里(원부리) : 夫土里(부토리) 元亭里(원정리)
潤村里(윤촌리) : 潤洞(윤동) 酸村(산촌)
栗極里(율극리) : 栗洞(율동) 釜極洞(부극동) 등
栗村里(율촌리) : 栗里(율리) 明村(명촌)
隱峰里(은봉리) : 周峰里(주봉리) 自隱洞(자은동) 등
長安里(장안리) : 安平洞(안평동) 巾長里(건장리)
長岩里(장암리) : 長山洞(장산동) 佐岩洞(좌암동) 등
店峰洞(점봉동) : 店村里(점촌리) 鉢峰里(발봉리)
中岩里(중암리) : 銅岩洞(동암동) 中山洞(중산동) 등
川松洞(천송동) : 川四洞(천사동) 松浦洞(송포동)
下林里(하림리) : 桂林洞(계림동) 下九洞(하구동)
玄水里(현수리) : 水弄洞(수농동) 玄湖洞(현호동) 등
峴岩洞(현암동) : 甕岩洞(옹암동) 峴底洞(현저동) 등
花坪里(화평리) : 花蓮(화련) 坪里(평리)

생략

上巨里(상거리) : 上巨里谷里(상거리곡리)
上白里(상백리) : 上白羊洞(상백양동)
上品里(상품리) : 上品谷洞(상품곡동)
新津里(신진리) : 新津驛村(신진역촌)
下巨里(하거리) : 下巨里谷里(하거리곡리)
下多里(하다리) : 下多佛里(하다불리)

변개

卜大里(복대리) 福大里(복대리)
五今里(오금리) 烏金洞(오금동)

지명 정보의 소개

마암과 여주

신륵사 맞은 편의 상리 영월루 북쪽 강안에 큰 바위들이 깎아 세운 듯이 절벽을 이루고 있고 그 밑으로는 기암 괴석이 충첩해 있다. 이 절벽이 끝나는 곳에서 수면으로 약간 떨어진 자리에 하나의 큰 암석이 있는데 물결이 칠 때마다 부침한다. 이 큰 암석이 여흥민씨의 시조가 탄생했다는 馬巖(마암)인데, 이 마암에는 큰 巖穴(암혈)이 있고, 이 암혈에서 민씨의 시조가 나왔다고 전해온다. 옛날 이 암혈에서 黃馬(황마)와 驪馬(여마)가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 이것이 구전되어 여주의 옛 이름인 黃驪(황려)가 생겨났다고 한다. (『지명유래집』) 그후 황려는 공양왕 원년에 驪興(여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세종대왕릉의 천장과 함께 驪州(여주)로 승격하였다. 그리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여주군이 되었다가, 2013년 도동복합 형태의 여주시로 출범하였다.

여강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곧 한강 상류이며 주 북쪽에 있다.”고 하여 여주를 지나는 한강을 驪江(여강)으로 불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왜곡과 교정

○ 여주는 다른 시군에 비하여 面里(면리)의 통폐합이 아주 적게 일어났다. 1963년 개군면이 양평군으로 移屬(이속)되었을 뿐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61곳의 합성지명이 생겨났다. 그 중에서 읍면 단위는 5곳으로 加南邑(가남읍), 陵西面(능서면), 大神面(대신면), 北內面(북내면), 占東面(점동면), 興川面(흥천면) 등이 그것이다.

○ 하품리는 옛날 삼정승이 살아 '品室(품실)'로 불렸던 곳이다. 일제 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변 마을들과 통·폐합돼 상품리와 하품리로 분리되었다. 그 이후 2006년까지 이어지다가 2006년에 마을주민들이 마을이름 변경을 추진해 2013년 名品里(명품리)로 지명이 개칭되었다.

○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梨浦洑(이포보)로 유명해진 이포나루는 한자명이 梨浦(이포)이지만 과일 배〔梨(리)〕와는 무관한 지명이다. 이포의 우리말은 '배개'인 바, 이를 통하여 '배〔船(선)〕가 많이 모이는 개〔浦口(포구)〕'에서 유래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한편 梨浦里(이포리)를 『조선지지자료』에 '천양'이라 했는데 이는 川寧(천녕)의 변음으로, 이포리가 고려시대와 조선전기 옛 川寧縣(천녕현)의 중심지였던 사실을 전해 준다.

○ 가남면에 위치한 여주맛있는휴게소(여주휴게소)의 초기 이름은 소재지 면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가남휴게소였다. 그런데 가남은 '간암'과 발음이 비슷하여, 일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기도 했다. 이에 현재 가남읍도 꼭 고집해야 할 지명이 아닌 듯하다. 원래 가남읍 자체가 近南面(근남면)과 加西面(가서면)을 합칭한 지명이기 때문이다. 2013년 가남면에서 가남읍으로 승격할 때 개명을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연천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百鶴面(백학면) : 百嶺里(백령리), 鶴谷里(학곡리)
旺澄面(왕징면) : 高旺里(고왕리), 澄波里(징파리)
靑山面(청산면) : 靑松面(청송면), 山內面(산내면)
佳川里(가천리) = 佳佐里(가좌리) 荊川里(형천리)

高陵里(고능리) = 陵洞里(능동리) 高山里(고산리) 등
古莊里(고장리) = 古里洞里(고리동리) 伍莊垈里(오장대리)
東梨里(동이리) = 東部里(동부리) 梨洞里(이동리)
東中里(동중리) = 中洞里(중동리) 東幕里(동막리) 등
栢石里(백석리) = 栢村里(백촌리) 盆石里(분석리) 등
兩遠里(양원리) = 上遠里(상원리) 下遠里(하원리) 등
伍炭里(오탄리) = 炭釜里(탄부리) 伍莊垈里(오장대리)
獐鶴里(장학리) = 獐項里(장항리) 羅鶴里(나학리)
中沙里(중사리) = 中山里(중산리) 沙洞里(사동리)
合水里(합수리) = 上水里(상수리) 下水里(하수리)

생략

沙是里(사시리) : 沙也是里(사야시리)
黃地里(황지리) : 黃地基里(황지기리)

지명 정보의 소개

연천

구한말 연천현이 1895년에 연천군이 되었으며, 1906년에 철원군의 官仁面(관인면)을 편입하였다. 1914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인접한 마전군(군내면·서면·북면·동면·화진면), 적성군과 삭령군의 4개 면, 그리고 현재의 전곡읍인 양주군 嶺斤面(영근면)을 통합하였다. 이때 1914년에 영근면이 전곡면으로 개칭되었다. 1938년에 군내면이 연천면으로 개칭되었고, 1945년에 적성면, 남면 일원과 백학면, 전곡면 일부를 파주군에 이관하였다. 1963년에는 철원군 신서면을 편입하였다. 1983년에는 관인면을 포천군에 이관하고, 포천군 청산면을 편입하였다. 현재 연천군은 2읍 8면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조선지지자료』에는 지금의 연천에 편입된 麻田(마전), 朔寧(삭녕), 長湍(장단)의 한자지명에 우리말을 부기해 두지 않았다. 이는 연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말 지명을 파악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한탄강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大灘(대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양주 북쪽 74리 지점인데, 물의 근원 가운데 하나는 영평현 백운산에서 나오고, 하나는 강원도 鐵原府(철원부)로 되어 있다. 또한 大灘津(대탄진)이라는 나루터가 있으며 양주와 연천을 통과할 수 있고 겨울에는 다리를 놓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나루터에는 상선의 출입이 용이하리만큼 수심이나 강우량이 충분하였다."고 했다. 『해동지도』「적성현」편에서 대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여지도』와 『광여도』 등에는 양주에 大灘(대탄)이 표기되어 있다. 연천의 지도에 표기된 것은 『팔도군현지도』에서부터이다. 형상이 은하수같이 넓고 큰 여울〔灘(탄)〕이라 하여 漢灘(한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아미천

『해동지도』에 따르면 峨嵋川(아미천)은 오봉산 서사면의 끝자락을 가로질러 남서방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광여도』에서는 峨嵋川(아미천)이 차탄천과 합류함을 명확히 표기하였다. 한편『1872지방지도』에서는 峨眉川(아미천)이 연천 동쪽의 寶蓋山(보개산)에서 발원하여 차탄천과 나란히 남쪽 방향으로 흐르다가 읍으로부터 5리 떨어진 지점에서 차탄천과 합류한다고 했다. (『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따라서 현 我眉川(아미천)은 원래 한자표기에서 크게 벗어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미산면

嵋山(미산)이라는 지명은 1914년의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마전군이 연천군으로 편입되면서 마전군 군내면과 동면, 그리고 서면의 일부를 통합하였으며, 아미리에 있는 峨嵋山(아미산)의 이름을 따서 미산면이라 하였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왜곡과 교정

○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연천에서 합성지명은 총 14곳에서 만들어졌다. 그중에서 읍면 단위의 합성은 3곳에서 이루어졌다. 百鶴面(백학면), 旺澄面(왕징면), 靑山面(청산면)이 그것이다.

○ 연천읍을 흐르는 我眉川(아미천)은 한자 원래의 峨嵋川(아미천)을 쉬운 한자로 바꾸다 보니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또 미산면은 峨嵋山(아미산)에서 '峨(아)'를 생략하여 면의 이름으로 삼았는데 이 역시 원뜻을 벗어났다. 한탄강 역시 大灘(대탄)이라는 오래된 지명을 바꾼 것이다. '한탄'이란 어감도 썩 좋지 않은 편이다.

○ 百嶺里(백령리)는 전통시대 장단면 동파역과 군남면 오계역을 연결하였던 백령역이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역사성을 살려 백령역리로 바꾸어 봄직하다.

오산

기본 자료의 정리

변개

佳水洞(가수동) : 加水洞(가수동)
陽山洞(양산동) : 洋傘峰里(양산봉리)
烏山洞(오산동) : 烏梅里(오매리)
外三美洞(외삼미동), 內三美洞(내삼미동) : 三旀谷(삼며곡)
園洞(원동) : 원통골
銀溪洞(은계동) : 金谷洞(금곡동)
靑鶴洞(청학동) : 학고개

지명 정보의 소개

오산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水原君(수원군) 城湖面(성호면)이라는 일개 面(면)에 불과하였던 곳이 1960년 오산읍을 거쳐 1989년 오산시가 되었다. 이런 까닭에 지명 관련 정보는 다른 시군에 비하여 부족한 편이다.

매홀

삼국시대에 수원 일대는 고구려의 買忽(매홀, 맷골, 물골)로 불렸다. 이런 매홀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 현재 수원시내나 수원고읍성이 있었던 융건릉 일대보다는 현재 세교지구 일대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매홀이라는 지명이 이 일대에 많이 남아있는 점, 삼국시대 축조된 독산성과 가깝고 고대 읍치의 입지적 요건을 갖춘 점, 무엇보다도 경기지역의 최대의 백제고분군이 오산수청동유적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왜곡과 교정

○ 『지명유래집』 등에서 오산의 원지명이 鰲山(오산)이었다고 하고, 그런 개명을 쉬운 글자인 烏山(오산)으로 일본인들이 바꾸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태종실록』에 태종이 "水原府(수원부) 烏山(오산)에 머물렀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또 『간이집』에는 "〈權元帥幸州碑(권원수행주비)〉에서 독산성 전투 시 왜군이 오산에 자신들의 병력을 배치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조선전기부터 烏山(오산)이란 지명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가 원래 鰲山(오산)이었던 지명을 오산으로 바꾸었다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 오산시는 다른 시군과는 달리 합성지명이 한 건도 없다. 그에 비하여 부정적 이미지의 지명을 밝고 좋은 이미지의 한자를 택하여 바꾼 경우 즉 雅譯(아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세하다.

○ 錦岩洞(금암동)은 黔岩(검암)의 미칭이다. 조선시대 禁松(금송) 정책의 대상이었던 禁山(금산)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錦山(금산) 혹은 琴山(금산)으로 바꾼 경우와 비슷하다. 참고로 조선시대 禁山(금산)제도는 國用材(국용재), 造船材(조선재), 宮用材(궁용재)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으로써 소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한 제도이다. 이런 禁山(금산) 지역에 살던 백성들은 공노비에 가까운 신분이었기에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시 禁山(금산) 대신에 錦山(금산)이라는 미칭을 선호하였다.

○ 園洞(원동)도 이와 같은 미칭으로 추측된다. 원동은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靑好驛(청호역)이 자리했던 곳으로 옛 수원군 청호면 2동과 3동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1912년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驛村(역촌)이라 기재했으며, 『조선지지자료』에는 역촌과 함께 園洞(원동)이 함께 적혀 있다. 나중에 이 역촌이 원동으로 바뀌는데, 역말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분이 일반적으로 하층민이었기에 역촌보다는 원동을 선택한 듯하다. 역사성을 살려 靑好驛洞(청호역동)으로 바꾸어 봄 직하다.

○ 銀溪洞(은계동)도 미칭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은계동은 원래 동탄면 金谷里(금곡리)였는데, 1987년 당시 화성군에 속했던 오산읍으로 편입되었다. 이때 금곡리를 은계동으로 개명했는데, 쇠골로 불리던 金谷(금곡)은 야철을 하던 곳이었다. 조선시대 야철업은 천민들이 주로 했기에 금곡이란 이름 속에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은계리로 바꾼 듯하다. 원뜻을 살려 금곡동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 斗谷洞(두곡동)도 마찬가지이다. 옛 한자지명은 馬遊洞(마유동)이었고 우리말 지명은 '말여울'이다. 지명에서 馬遊(마유)는 일반적으로 목마장이 있었던 곳으로 보고 있다. 조선시대 목마장 역시 하층민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그런 까닭에 근대에 들어서면서 마을지명에 용량단위 斗(두, 말)를 넣어서 아역한 듯하다. 이 역시 개명을 고려해 볼 대상이다.

○ 佳水洞(가수동)도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에는 加水里(가수리)이다. 이 역시 미칭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현재 가수동에 자리한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부지에서 신라의 마을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이곳에 우물이 여러 곳 발굴되었다.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던 듯하다.

○ 紙串洞(지곶동)의 순우리말은 '조꼬지', '조이고지', '종이고지'이다. 종이를 만드는 造紙所(조지소)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역사성을 살려 造紙所洞(조지소동)으로 개명도 고려해 볼 만하다.

○ 陽山洞(양산동)의 옛 이름은 洋傘峰里(양산봉리)였고, 三美洞(삼미동)은 三旀谷(삼며곡)이었다. 모두 벽자를 기피하여 雅譯(아역)한 지명으로 보인다. 굳이 개명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의 지명은 원 지명의 유래를 반영하지 못한 사실은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용인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水枝區(수지구) : 水眞面(수진면), 枝內面(지내면)
器興區(기흥구) : 器谷面(기곡면), 駒興面(구흥면)

稼倉里(가창리) : 稼谷里(가곡리) 內倉(내창) 등
葛潭里(갈담리) : 葛月里(갈월리) 琶潭里(파담리)

古基洞(고기동) : 遜基洞(손기동) 古分峴(고분현)
高塘里(고당리) : 笋塘里(순당리) 高安谷(고안곡)
古林洞(고림동) : 林院里(임원리), 古陣里(고진리)
金魚里(금어리) : 金川里(금천리) 魚梅里(어매리)
南谷里(남곡리) : 南村(남촌) 龍谷里(용곡리) 月谷里(월곡리)
農書洞(농서동) : 農事洞(농사동) 內書川(내서천)
東林里(동림리) : 旺林(왕림) 東山里(동산리)
東栢洞(동백동) : 東幕(동막) 栢峴(백현)
東川洞(동천동) : 遠川洞(원천동) 東幕里(동막리)
麻北洞(마북동) : 麻谷(마곡) 北洞(북동)
麻城里(마성리) : 城底里(성저리) 麻柯里(마가리)
麻坪洞(마평동) : 麻南里(마남리), 麻北里(마북리), 新坪里(신평리) 등
梅山里(매산리) : 古梅谷(고매곡) 上馬山(상마산)
防衙里(방아리) : 牙谷(아곡) 防築洞(방축동)
栢峰里(백봉리) : 栢洞(백동) 峰里(봉리)
寶亭洞(보정동) : 寶樹院(보수원) 篤亭里(독정리) 등
沙岩里(사암리) : 龍巖里(용암리) 沙田里(사전리)
上葛洞(상갈동) : 上葛川(상갈천), 下葛川(하갈천)
上下洞(상하동) : 上支石(상지석) 下支石(하지석) 壽院洞(수원동)
石川里(석천리) : 黃石里(황석리) 斜川里(사천리) 玉川里(옥천리)
宋門里(송문리) : 旌門里(정문리) 松洞(송동) 등
植金里(식금리) : 植松里(식송리) 金谷里(금곡리) 등
新葛洞(신갈동) : 新村(신촌) 葛川(갈천) 등
新鳳洞(신봉동) : 棲鳳洞(서봉동) 新里(신리)
彦南洞(언남동) : 彦洞(언동) 南洞(남동)
驛北洞(역북동) : 驛洞(역동), 北洞(북동)
靈德洞(영덕동) : 靈通(영통) 德洞(덕동)
英門里(영문리) : 墟門(허문) 英谷(영곡) 등
玉山里(옥산리) : 下山里(하산리) 牙山里(아산리) 玉川里(옥천리) 등
旺山里(왕산리) : 旺谷(왕곡) 茅山里(모산리) 등
雲鶴洞(운학동) : 魚得雲洞(어득운동) 鶴村(학촌) 등

柳防洞(유방동) : 防築洞(방축동), 柳谷(유곡)
柳雲里(유운리) : 柳室(유실) 巢雲(소운)
日山里(일산리) : 下馬山(하마산) 開日里(개일리)
長坪里(장평리) : 長在里(장재리) 坪栗里(평율리) 등
前垈里(전대리) : 新垈(신대) 前串里(전곶리) 釜谷(부곡)
佐恒里(좌항리) : 恒谷里(항곡리) 佐賛里(좌찬리)
竹陵里(죽능리) : 勝竹里(승죽리) 陵村(능촌)
草芙里(초부리) : 草下里(초하리) 芙谷(부곡)
坪倉里(평창리) : 坪村(평촌) 都倉里(도창리)
下葛洞(하갈동) : 下葛川(하갈천)

생략

甫羅里(보라리) : 甫羅山里(보라산리) :
書川洞(서천동) : 鋤斤川洞(서근천동)

변개

芝谷洞(지곡동) : 智谷洞(지곡동)

지명 정보의 소개

용인

龍仁(용인)이란 명칭은 고려시대 龍駒縣(용구현)과 處仁縣(처인현)이 합쳐진 것으로『세종실록지리지』에 관련 기록이 처음 등장한다. 여기에 일제강점기 陽智郡(양지군) 전부와 竹山郡(죽산군)의 일부가 용인군에 이속되어 지금의 용인의 대체적인 범위가 되었다.

남사면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군의 남쪽에 위치한 縣內面(현내면), 道村面(도촌면), 西村面(서촌면), 南村面(남촌면) 등 4개 면을 합쳐 南四面(남사면)으로 하여 11개 동리로 개편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남쪽의 면 4개소를 합했다 하여 '남사'라 이름 붙였다.

원삼면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죽산군 원일면의 9개 동리, 근삼면 석곡리의 일부지역, 양지군 목악면의 6개 동리, 양지군 주서면의 광곡리를 합쳐 遠三面(원삼면)이라고 칭했다. 당시 면 3개소를 합했다 하여 '원삼'이라 이름 붙였다.

내사면을 양지면으로

1914년 4월 1일 용인군·양지군·죽산군 일부 지역이 용인군으로 통합되었다. 이때 읍내면·주동면·주북면·주사면 4개면이 합쳐지면서 읍내면의 '내'자와 4개면의 '사'를 따서 內四面(내사면)이라 이름 붙여졌다. 이후 1996년 3월 1일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하면서 陽智面(양지면)으로 개칭되었다.

외사면을 백암면으로

1914년 4월 1일 용인군이 양지군을 통합하고 죽산군의 일부를 편입하면서 외사면, 원삼면과 함께 내사면으로 개편되었다. 이때 내사면은 죽산군의 근일면, 근삼면, 양지군의 박곡면, 고안면 4개 면을 통합했다고 하여 外四面(외사면)으로 이름지었다. 1996년 용인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용인시로 승격되면서 白岩面(백암면)으로 변경되었다.

김량장동

김량장동 조선시대 용인현의 水餘面(수여면)에 속했던 巢鶴洞(소학동)과 虎洞(호동) 일부가 합쳐져 새롭게 탄생한 지명이다. 그 유래는 金嶺驛(김령역), 金良驛(김량역), 金良店(김량점), 金良場(김량장)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그럼 金良(김량)이란 본 지명의 유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현재로는 각종 추측이 난무하지만, 필자는 『조선지지자료』에 옛 수여면 소학동에 '金陽碑(김양비)'가 있었다고 기록한 점으로 미루어, 역사인물 金陽(김양)에게서 유래되었을 개연성도 있다고 본다. 이런 추측은 지명에서 '金'은 일반적으로 '금'으로 읽는데, 김량장역에서 모두 '김'으로 읽는 점으로도, 이 지명이 人名(인명)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왜곡과 교정

○ 용인시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합성지명이 45개소 만들어졌다. 이중 읍면 단위는 2곳으로 만들어졌다. 현 水枝區(수지구)와 옛 駒興面(구흥면)이 그것이다. 그래서 고유지명을 간직한 곳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 『지명유래집』에서 고유지명에 대한 언급이 소략한 편이다. 따라서 현 행정지명의 고유지명을 되찾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

○ 용인시는 1996년 용인시로 승격하면서 일제강점기 무성의하게 작명된 외사면과 내사면을 각각 백암면과 양지면으로 바꾸었다. 모두 역사성을 지닌 지명으로 차별성과 고유성도 지니게 되었다. 이제는 정체성이 모호한 원삼면과 남사면도 적절한 다른 이름을 찾아 개명해야 할 것이다.

○ 구성동의 중리 마을에 있던 漁汀(어정) 마을은 1995년 御井(어정) 마을로 지명이 변경되었다. 신경준이 편찬한 『道路攷(도로고)』의 동래로를 보면 서울 한강진을 건너 新院(신원)-月川峴(월천현)-板橋店(판교점)-險川(험천)-龍仁(용인)-於汀介(어정개)-直谷(직곡)-金嶺驛(김령역)-陽智(양지)-佐贊驛(좌찬역)-白巖里(백암리) 등을 거쳐 동래로 이른다. 여기서 지금 어정역이 자리한 곳은 於汀介(어정개)였던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따라서 '御井(어정)'은 근거 없는 진술 혹은 기록에 의하여 고유지명를 바꾼 결과로 생겨난 지명이다. 가능하다면 현재의 御井驛(어정역)은 於汀介驛(어정개역)으로 역 이름을 바꾸었으면 한다.

○ 용인시는 양지면 평창리와 좌항리 경계에 있는 일본식 명칭인 佐田(좌전)고개를 고유이름인 佐贊(좌찬)고개로 바꾸었다. 카카오맵에서 '좌찬고개'를 검색하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소재로 지도상에 위치가 표시되는데 원지도 상에는 '좌전고개'라 적혀 있다. 한편 좌찬고개는 바로 인접한 佐贊里(좌찬리)라는 지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현재 좌찬리는 법정동이 아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恒谷里(항곡리)와 좌찬리를 합하여 佐恒里(좌항리)라 했기 때문이다. 역사성을 따져 좌항리를 좌찬리로 개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 『조선지지자료』 용인편의 모현면 동리촌 항목에는 '古梅谷里(고매곡리)'가 확인된다. 『지명유래집』 용인편에서는 처인구 모현면의 中村(중촌)마을을 소개하면서, "윗고매 또는 윗고밀이라고 하는 마을의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라 '아랫고매곡' 또는 '고밀'이라 부르다가 1914년 경에 상촌과 진해촌 중심에 위치하였다 하여 중촌이라 부른다고 한다."라고 기록했다. 이렇게 왜곡된 지명을 주민들은 개명을 요구하여 관철하여 원래의 고유지명인 '고매곡'으로 되돌렸다. 아주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 기흥구 上下洞(상하동)은 아주 잘못된 지명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上支石(상지석), 下支石(하지석), 壽院洞(수원동) 중에서 상지석과 하지석의 '상', '하' 지명을 따서 상하리라 했다. 지역의 표지물 또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支石(지석)'이란 기존의 지명을 두고 정체성은 물론 의미도 없는 상하리로 이름지은 점은 아주 유감이고, 당시 동리 지명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꼭 바꾸어야 할 지명 중 하나이다.

○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甫羅山里(보라산리)를 甫羅里(보라리)로, 鋤斤川洞(서근천동)을 書川洞(서천동)으로 줄여 개명하였다. 마을의 자연지형을 보여주는 후부요소를 모두 제거했다. 마을의 정체성을 반영한 원래의 지명으로 되돌렸으면 한다.

의왕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古川洞(고천동) : 坪沙川(평사천), 古井洞(고정동), 古古里(고고리) 등
內遜洞(내손동) : 遜洞(손동), 義逸內洞(의일내동), 葛山洞(갈산동) 一部(일부)
五全洞(오전동) : 五馬洞(오마동), 金朱洞(금주동), 藤谷洞(등곡동)
旺谷洞(왕곡동) : 內旺倫(내왕륜), 谷沙川(곡사천), 通山洞(통산동)
浦一洞(포일동) : 浦一洞(포일동), 浦二洞(포이동), 葛山洞(갈산동) 一部(일부)
鶴儀洞(학의동) : 鶴峴洞(학현동), 義逸外洞(의일외동)

지명 정보의 소개

의왕

조선시대 광주 義谷面(의곡면)과 王倫面(왕륜면)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두 곳을 합쳐 儀旺面(의왕면)이라 하여 수원군 관할로 두었다. 1936년에 같은 군의 일형면과 합해 일왕면으로 되었다.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면서 화성군의 관할로 변경되었다. 1963년에 옛 일형면 지역이 수원시에 편입되면서 나머지 지역이 화성군에서 시흥군의 의왕면으로 바뀌었다. 1980년에 의왕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3년에 화성군

반월면의 월암·초평 2개 리를 편입하였다. 1989년에 의왕시로 승격되었고, 2007년에 의왕시의 한자를 '義王市(의왕시)'로 변경하였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조선지지자료』에서 현 의왕시의 마을 정보는 광주군 편의 旺倫面(왕륜면), 儀谷面(의곡면)에서 찾을 수 있지만, 동리명 아래에 우리말이 언문으로 전혀 부기되어 있지 않아서 순우리말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儀旺(의왕)에서 義王(의왕)으로

경기 의왕시는 일제의 잔재로 인식돼 온 옛 한자 이름을 버리고 본래의 한자 지명을 회복하게 됐다. 의왕시는 시의 한자 명칭을 '儀旺(의왕)'에서 '義王(의왕)'으로 변경해 다음 달 20일부터 사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왕이라는 지명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인 광주부 義谷面(의곡면)과 王倫面(왕륜면)의 머리글자에서 유래됐으나 1914년 조선총독부가 행정구역을 개편해 의곡면과 왕륜면을 합치면서 수원군 儀旺面(의왕면)으로 표기했다.

이때 의로운 왕이라는 의미의 '義王(의왕)'에서 '義(의)'자를 '거동 儀(의)'자로 바꾸고 王(왕)자 옆에 일본을 상징하는 日(일)자를 붙여 민족정기를 훼손하려 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2004년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에서 83.4%가 한자 지명 변경에 찬성하자 시 및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05년 11월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됐고 이달 19일 공포됐다.(동아일보 2007년 1월 23일자, '의왕시 옛 한자지명 회복')

왜곡과 교정

○ 의왕시의 지명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보도내용은 儀旺(의왕)을 義王(의왕)으로 바꾼 것이다. 관찬사료인 『호구총수』에는 旺倫面(왕륜면)이 王倫面(왕륜면)으로, 儀谷面(의곡면)이 義谷面(의곡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해 왜곡된 한자지명을 바꾼 점은 높이 살 만하다. 다만 의왕 역시 합칭이므로 그때 정체성과 상징성이 없는 의왕이라는 지명 대신에 다른 지명을 고민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古川洞(고천동)은 坪沙川(평사천), 古井洞(고정동), 古古里(고고리), 內谷里(내곡리) 등을 합성하여 새롭게 만든 지명이다. 이 고천동 지역은 肆覲坪行宮(사근평행궁)이 자리했던 삼남로의 교통요지이며 사근천이 지나는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옛 지명을 따

라 沙近乃洞(사근내동)으로 개칭하면 좋겠다.

○ 浦一洞(포일동) 은 浦一洞(포일동), 浦二洞(포이동), 葛山洞(갈산동) 一部를 합쳐서 포일동으로 했다. 3음절 지명을 고집의 결과이다. 그냥 浦洞(포동)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편 포일동의 순우리말이 '벌모루' 또는 '포모루'이므로 이를 한역하여 浦隅洞(포우동)으로 개명하거나, 순우리말 지명을 따라서 '벌모루동'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의정부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金梧洞(금오동) : 金谷里(금곡리) 上西梧里(상서오리) 등
新谷洞(신곡동) : 新村里(신촌리) 鉢谷里(발곡리)
龍峴洞(용현동) : 魚龍里(어룡리) 陽峴里(양현리)
長岩洞(장암동) : 長者里(장자리) 巖里(암리)
虎院洞(호원동) : 樓院里(누원리) 虎洞里(호동리) 등

지명 정보의 소개

의정부의 유래

현 의정부시는 조선시대 양주에 속했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양주의 시북면과 둔야면이 통합한 柴屯面(시둔면)이 지금의 의정부시의 토대가 되었다. 시에 대한 기존의 지명유래인 '태조환궁설화'는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하며, 지명은 '屯夜(둔야)'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한다. 곧 이 지역에 議政府(의정부) 소속의 '議政府屯(의정부둔)'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로부터 유래하여 '의정부'라는 지명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에도 '議政府(의정부)'가 아닌 '意情埠(의정부)'로 표기하여 이를 의미상 명백히 구분하였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왜곡과 교정

○ 의정부의 지명유래와 관련해서는 '태조환궁설화'는 그야말로 허구이다. 현재 의정부 일대에 의정부에 속한 屯田(둔전)이 있었던 데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꼭 둔전이 아니더라도 의정부에서 관용경비로 사용할 稅穀(세곡)을 받치는 곳이 있었던 것 같고, 이에 의정부라는 동리 명칭이 생겨난 듯하다. 이런 견해는『해동지도』광주부 와부읍 지도에 '議政府柴場(의정부시장)'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도 방증된다. 참고로 의정부시는 조선시대 의정부리라는 마을이 도시화가 되면서 시로 발전한 경우이다.

○ 의정부의 지명에서 개명이 필요성이 있는 지명은 虎院洞(호원동)이다. 이 호원동은 樓院里(누원리)와 虎洞里(호동리)를 합칭한 것인데, 호동리에 비하여 누원리가 역사적으로 훨씬 유명한 곳이었다. 구체적으로 조선시대에 함경도 원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에 樓院(누원)이란 역원이 있었고, 이후에는 누원점이라 상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 누원과 누원점은 우리나라 正史(정사)에 빈번하게 등장할 정도로 의정부를 대표하는 옛 마을이었다. 따라서 호원동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지명보다는 樓院洞(누원동)으로 개명하는 쪽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綠楊洞(녹양동)은『 세종실록지리지』등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綠楊坪牧場(녹양평목장)'에서 지명을 따 왔다. 이렇게 좋은 사례를 본받았으면 한다.

이천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大月面(대월면) : 大面(대면) 月面(월면)
麻長面(마장면) : 麻面(마면) 長面(장면)
慕加面(모가면) : 慕面(모면) 加面(가면)
栢沙面(백사면) : 栢面(백면) 沙面(사면)
夫鉢邑(부발읍) : 夫面(부면) 鉢面(발면)
新屯面(신둔면) : 新面(신면) 屯面(둔면)
新屯面(신둔면) : 新面(신면) 屯面(둔면)
戶法面(호법면) : 戶面(호면) 法面(법면)

柯山里(가산리) : 柯木洞(가목동) 末山(말산)
各坪里(각평리) : 各時洞(각시동) 坪村(평촌)
京沙里(경사리) : 京仕垈(경사대) 沙玉里(사옥리)
高塘里(고당리) : 高尺洞(고척동) 池洞(지동)
高白里(고백리) : 高寺里(고사리) 白鹿洞(백록동)
官庫洞(관고동) : 官後里(관후리) 可庫前(가고전)
金堂里(금당리) : 金城洞(금성동) 堂前里(당전리)
老塔里(노탑리) : 塔村(탑촌) 老坪里(노평리) 등
大冠里(대관리) : 大旺里(대왕리) 冠谷(관곡)
大西里(대서리) : 大井里(대정리) 近西里(근서리)
大竹里(대죽리) : 大山洞(대산동) 孝竹村(효죽촌)
大興里(대흥리) : 大洞(대동) 凡興里(범흥리)
斗美里(두미리) : 斗赤洞(두적동) 侍美洞(시미동)
木竹里(목죽리) : 木栗里(목율리) 竹栗里(죽율리)
方楸里(방추리) : 方角洞(방각동) 舊楸洞(구추동)
沙音洞(사음동) : 沙器幕(사기막) 切音里(절음리)
山星里(산성리) : 上山洞(상산동) 八星里(팔성리)
山陽里(산양리) : 陽阿里(양아리) 龍山洞(용산동)
上龍里(상룡리) : 上洞(상동) 龍村(용촌)
上峯里(상봉리) : 上八界(상팔계) 高峯里(고봉리) 등
石山里(석산리) : 石橋村(석교촌) 下山洞(하산동)
善邑里(선읍리) : 邑里(읍리) 善興里(선흥리) 등
松界里(송계리) : 下八界(하팔계) 松洞(송동) 등
松末里(송말리) : 上末谷(상말곡) 松溫洞(송온동)
松山里(송산리) : 山垈里(산대리) 松谷里(송곡리) 등
水廣里(수광리) : 水北(수북) 廣峴(광현) 등
樹山里(수산리) : 樹谷里(수곡리) 鶯山洞(앵산동)
新元里(신원리) : 新垈洞(신대동) 元積洞(원적동)
新楸里(신추리) : 上楸洞(상추동) 下楸洞(하추동)
新筆里(신필리) : 細筆里(세필리) 新楸洞(신추동)

新河里(신하리) : 輻河(복하) 新村(신촌) 등
巖山里(암산리) : 垂岩里(수암리) 九山里(구산리)
梁坪里(양평리) : 坪村(평촌) 郡梁(군량)
於石里(어석리) : 於隱洞(어은동) 石堂里(석당리)
梧南里(오남리) : 梧倉里(오창리) 南川洞(남천동)
五城里(오성리) : 尺五里(척오리) 長城洞(장성동)
瓦峴里(와현리) : 瓦洞(와동) 皓峴里(호현리)
月浦里(월포리) : 都月里(도월리) 退浦里(퇴포리) 등
梨黃里(이황리) : 梨木亭(이목정) 黃庭浦(황정포) 등
印後里(인후리) : 後洞(후동) 印培(인배)
自石里(자석리) : 黑石里(흑석리) 自隱洞(자은동) 등
長陵里(장능리) : 長水洞(장수동) 陵洞(능동) 등
長岩里(장암리) : 文岩(문암) 長壽王(장수왕)
長泉里(장천리) : 寒泉洞(한천동) 長角里(장각리)
諸蔘里(제료리) : 諸葛村(제갈촌) 蔘谷里(요곡리) 등
陳加里(진가리) : 加洞(가동) 陳內(진내)
珍岩里(진암리) : 珍村(진촌) 階岩里(계암리)
豊界里(풍계리) : 豊土里(풍토리) 赤界里(적계리)
行竹里(행죽리) : 行尋村(행심촌) 分竹里(분죽리) 등
玄方里(현방리) : 玄岩(현암) 溫方里(온방리)
灰億里(회억리) : 灰橋(회교) 億萬里(억만리)

생략

丹月洞(단월동) : 丹月川(단월천)
大浦洞(대포동) : 大浦川里(대포천리)
道岩里(도암리) : 道月岩(도월암)
道岩里(도암리) : 道月岩(도월암)
薪葛里(신갈리) : 薪葛山(신갈산)
牙美里(아미리) : 牙美垈(아미대)
增浦洞(증포동) : 梨增浦(이증포)

지명 정보의 소개

이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이천이란 이름은 利涉大川(이섭대천)이라는 뜻을 취한 것이다.”라고 지명의 유래를 분명히 하고, 또 南川(남천)을 설명하면서 “태조가 장차 백제를 치려고 이 고을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占(점)을 쳤는데 이섭대천이라는 占辭(점사)를 얻었기 때문에 이천이라고 하였다.”고 기록했다. 따라서 ‘큰 냇물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는 의미의 이섭대천이란 표현에서 첫 글자 ‘利(이)’와 끝 글자 ‘川(천)’을 따와 이천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쨌든 이천은 경기도 시군 지명 중에서 그 유래가 제대로 밝혀진 유일한 사례이다.

장호원

長湖院(장호원)이라는 지명은 이 지역에 있던 長海院(장해원)이라는 역원과 관련이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 음죽현 편에 “장해원은 현 동쪽 13리 지점에 있다.”라는 관련 기록이 처음 등장한다. 이후 장해원이란 명칭은 『여지도서』, 『 해동지도』, 『 여지도』, 『조선지도』등에서도 계속되다가 『1872지방지도』「충주목지도」에서 長湖院(장호원)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기록된다. 『1872지방지도』「음죽현지도」에는 長院(장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왜곡과 교정

○ 長湖院邑(장호원읍)은 1941년 淸渼面(청미면)이 장호원읍으로 승격하면서 새롭게 탄생한 행정지명이다. 이전 지명인 청미면은 陰竹郡(음죽군) 남면과 동면을 합쳐서 1914년 새롭게 생겨난 지명이었다. 어쨌든 청미면은 해당지역을 흐르는 대표 하천을, 장호원은 역원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역이다. 모두 행정지명 부여의 좋은 사례이다.

○ 戶法面(호법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戶面(호면)과 法面(법면)이 합치면서 새롭게 붙인 지명이다. 그런데 1789년 간행된 『호구총수』에는 戶法面(호법면)이 있다. 따라서 합칭된 지명이 아니라 부활한 지명이라 하는 것이 정확하다.

○ 雪星面(설성면)은 1914년 음죽군의 근동면과 원북면을 합쳐 이천군에 이속하면서 새롭게 붙인 이름이다. 그곳의 鎭山(진산)인 雪城山(설성산)에서 따온 이름인 듯한데, 한자

가 바뀌었다. 雪城面(설성면)으로 바로잡았으면 한다.

○ 新楸里(신추리)는 1914년 上楸洞(상추동)과 楸洞(추동)를 합치면서 새롭게 지은 이름이다. 신추리보다는 楸洞里(추동리)가 더 나은 듯하다.

○ 增浦洞(증포동)는 梨增浦(이증포)를, 道岩里(도암리)는 道月岩(도월암)를, 牙美里(아미리)는 牙美垈(아미대)를, 大浦洞(대포동)은 大浦川里(대포천리)를, 丹月洞(단월동)은 丹月川(단월천)을, 薪葛里(신갈리)는 薪葛山(신갈산)을 줄여서 만든 지명이다. 지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浦(포), 山(산), 川(천), 岱(대), 岩(암) 등 핵심요소를 빼버렸다. 이 역시 교정의 대상이다.

파주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炭縣面(탄현면) : 炭浦面(탄포면) 縣內面(현내면)

加野里(가야리) : 陽野里(양야리) 加佐洞(가좌동) 등
葛谷里(갈곡리) : 葛洞里(갈동리) 隱谷里(은곡리) 등
江井里(강정리) : 江蓮里(강련리) 堀井里(굴정리)
巨谷里(거곡리) : 金谷里(금곡리) 巨路里(거노리)
陵山里(능산리) : 棠山里(당산리) 陵洞里(능동리)
內浦里(내포리) : 內洞里(내동리) 長浦里(장포리) 등
大陵里(대능리) : 五陵里(오능리) 大位里(대위리) 등
德隱里(덕은리) : 德玉里(덕옥리) 龍隱洞(용은동) 등
德泉里(덕천리) : 豐德里(풍덕리) 泉川里(천천리)
東文里(동문리) : 東幕里(동막리) 文平里(문평리) 등
斗浦里(두포리) : 斗文里(두문리) 長浦里(장포리) 등
麻山里(마산리) : 龍山里(용산리) 麻沙里(마사리)
法院里(법원리) : 法儀里(법의리) 院基里(원기리) 등
烽岩里(봉암리) : 烽峴里(봉현리) 絃岩里(현암리) 등

三防里(삼방리) : 屯防里(둔방리) 三峴里(삼현리)
新山里(신산리) : 新店里(신점리) 花山里(화산리)
龍尾里(용미리) : 虎尾里(호미리) 九龍里(구룡리)
獐谷里(장곡리) : 基谷里(기곡리) 獐山里(장산리)
檣峴里(장현리) : 牆坪里(장평리) 松峴里(송현리) 등
點元里(점원리) : 點希陵里(점희능리) 元堂里(원당리)
倉萬里(창만리) : 斗萬里(두만리) 社倉里(사창리)

생략

斗只里(두지리) : 斗只浦里(두지포리)
亭子里(정자리) : 亭子浦里(정자포리)
魚龍里(어룡리) : 魚龍浦里(어룡포리)

변개

金繩里(금승리) 金蠅里(금승리)
陌今里(맥금리) 麥今洞(맥금동)
斗只里(두지리) 頭耆津(두기진)
舟月里(주월리) 漢夜里(한야리)
馬智里(마지리) 馬蹄里(마제리)

지명 정보의 소개

파주

坡州市(파주시)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교하군 전체, 연천군의 적성면, 장단군의 장단면·군내면·진동면·진서면이 편입되어 현재에 이른다. 그리고 운정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교하읍이 교하동, 운정 1, 2, 3동으로 분동하였다. 『조선지지자료』 중 교하, 적성 편에는 한자 동리명에 우리말이 부기되어 있으나 파주, 장단 편에는 절대다수 동리에 우리말 부기가 없다.

운정

파주를 대표하는 마을은 최근 대단위 신도시가 들어선 雲井(운정)지구이다. 雲井(운정)

이란 지명은 문학적이지만 우리말로 '구름우물'로 번역하면 원뜻을 크게 훼손한다. 雲井(운정)의 순우리말은 '굴우물'이다. 이런 雲井(운정)〔굴우물〕이란 지명은 전국에서 널리 확인되는데, 일반적으로 땅을 파서 만든 인위적 우물이 아니라, '동굴에서 나오는 우물', '굴에서 물이 쏟은 우물'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금촌

金村里(금촌리)의 지명 유래에 대하여 원래는 新花里(신화리)였으나 경의선을 신설하고 역명을 지을 당시 일본인에게 이 마을 이름이 새마을이라고 하자, '쇠마을'로 듣고 금촌리로 표기했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1912년 간행된『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교하군 아동면에 '新金村里(신금촌리)'가 야동리, 아동리와 함께 확인된다. 따라서 위의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왜곡과 교정

○ 龍尾里(용미리)는 虎尾里(호미리)와 九龍里(구룡리)에서 한 글자씩을 따 온 합성명칭이다. 이 지역의 랜드마크는 단연 용암사의 쌍미륵불이고, 이곳의 고개를 雙佛峴(쌍불현)이라 했다. 이에 雙佛里(쌍불리)로 개칭을 고려할 만하다.

○ 汾水里(분수리)는 의주대로변에 자리했던 역원인 焚修院(분수원)이 자리했던 곳이다. 역사성과 정체성을 고려하여 焚修院里(분수원리)로 개칭할 것을 권한다.

○ 東坡里(동파리)는 의주대로에 속했던 역원인 東坡驛(동파역)이 있었던 곳이다.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후부요소인 '驛(역)'을 되살려, 동파역리로 개명해 볼 만하다.

○ 탄현면 금승산업단지가 자리한 金繩里(금승리)는『호구총수』뿐만 아니라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한『신구대조』, 그리고 해방 이후의 1959년과 1963년에 간행된『대한민국 지방행정구역 명감』에도 金蠅里(금승리)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金蠅里(금승리)가 그 이후 정확히 어느 시점에 한자지명이 변경되었는지는 몰라도 1993년 간행된『경기도 지방행정구역요람』에서는 金繩里(금승리)로 바뀌어 있다. 이 금승리의 순우리말 지명이 '쇠파리'인 점으로 미루어 金蠅里(금승리)가 옳은 지명인 듯하다. 다만, 조선시대 여러 문집에 '金繩里(금승리)'로 적혀 있는 곳도 있으므로, 굳이 이미지가 좋지 않은 金蠅里(금승리, 쇠파리)로 개명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본다.

○ 최근 衙洞里(아동리)가 衙洞洞(아동동) , 冶洞里(야동리)가 冶洞洞(야동동), 木洞里(목

동리)가 木洞洞(목동동), 瓦洞里(와동리)가 瓦洞洞(와동동)으로 바뀌었다. 행정단위요소 洞(동)이 두 개가 연이어 발음되기에 의미도 희박하고 발음도 어색하다. 순우리말 지명과 역사성을 고려해 官衙洞(관아동), 冶爐洞(야노동, 혹은 冶鐵洞(야철동), 木村洞(목촌동), 瓦村洞(와촌동) 등으로 개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斗只里(두지리)는 斗只浦里(두지포리)를, 亭子里(정자리)는 亭子浦里(정자포리)를, 魚龍里(어룡리)는 魚龍浦里(어룡포리)를, 亭子里(정자리)는 亭子浦里(정자포리)를 줄여서 3음절 지명으로 만든 경우이다. 동리의 정체성을 지닌 포구의 의미가 모두 빠졌다. 4음절 지명이 부자연스럽지 않은 현재, 원래 지명으로 환원되었으면 한다.

○ 陌今里(맥금리)은 麥今洞(맥금동)를, 馬智里(마지리)는 馬蹄里(마제리)를, 斗只里(두지리)는 頭耆津(두기진)을 쉬운 한자 또는 새로운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또는 舟月里(주월리)는 漢夜里(한야리)를, 金繩里(금승리)는 金蠅里(금승리)를 미칭하였다.

○ 주월리는 원래 한자지명이 漢夜里(한야리)이고 순우리말 지명은 '한뱀이'이다. 그 의미는 '넓은 논 배미가 펼쳐진 들판'인데, 현지의 지형과 잘 부합된다. 다른 미칭은 몰라도, 주월리는 개칭할 필요가 있겠다.

평택

지명 정보의 정리

합성

古德面(고덕면) : 宗德面(종덕면), 古頭面(고두면) 등
西炭面(서탄면) : 一西面(일서면), 二西面(이서면), 二炭面(이탄면)
松炭洞(송탄동) : 松庄面(송장면), 一炭面(일탄면), 二炭面(이탄면)
梧城面(오성면) : 梧井面(오정면), 宿城面(숙성면) 등
靑北面(청북면) : 靑龍面(청룡면), 栗北面(율북면) 등
浦升邑(포승읍) : 浦內面(포내면), 升良面(승량면)
玄德面(현덕면) : 玄巖面(현암면), 廣德面(광덕면) 등

老成里(노성리) : 老中里(노중리), 老上里(노상리), 新成里(신성리)일부
老瓦里(노와리) : 老蓮里(노련리), 瓦七洞(와칠동)

斗井里(두정리) : 斗谷里(두곡리), 月井里(월정리)
石斤里(석근리) : 石橋里(석교리), 西斤里(서근리)
石峰里(석봉리) : 院峰里(원봉리) 黑石里(흑석리)
石井里(석정리) : 玄石里(현석리), 西井里(서정리) 등
松花里(송화리) : 松中里(송중리), 松下里(송하리), 開花里(개화리)
新宮里(신궁리) : 下宮里(하궁리), 新興里(신흥리) 등
新虎里(신호리) : 新里(신리) 虎峙洞(호치동)
安亭里(안정리) : 西亭里(서정리), 鞍峴里(안현리)
坪宮里(평궁리) : 上宮里(상궁리), 上坪里(상평리)
咸井里(함정리) : 京井里(경정리), 咸登村(함등촌)

생략

芝山里(지산리) : 乾芝山里(건지산리)
七槐洞(칠괴동) : 七槐亭里(칠괴정리)
黃山里(황산리) : 黃山堂(황산당)
檜花里(회화리) : 檜花亭里(회화정리)

변개

棹頭里(도두리) : 頓頭亭里(돈두정리)
石峯里(석봉리) : 黑石里(흑석리)
通伏洞(통복동) : 通洑里(통보리)
檜花里(회화리) : 海停(해정)

지명 정보의 소개

평택과 월경지

평택의 일부 지역은 조선후기 양성, 직산의 越境地(월경지, 지방 행정 단위의 소속 영역 중 다른 지방 행정 단위의 영역을 넘어 들어가 위치한 지역)였다. 구체적으로 통합 이전의 송탄시와 평택시 일부 그리고 서탄·고덕·오성·청북·포승·현덕면 등지에 양성현 소속 땅이 있었다. 또 직산은 현재의 오승·포승·현덕·안중면 등지에 관할지역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1896년 구한말 행정구역 개편 때, 월경지들이 정리되었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1912년 간행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진위 마산면 月境里(월경리), 진위 일북면 月境里(월경리)가 행정지명으로 확인된다.

요컨대 조선시대 평택의 일부 지역은 양성과 직산의 월경지였다. 현재 동리 단위의 행정지명에는 월경지를 구체적으로 비정해 주는 귀중한 지명 자료라 할 수 있다.

평택

현재의 平澤(평택)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지금의 영역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의 평택군 전역, 수원군의 토진·수북·청룡·감미·율북·포내·현암·승량·안외·광덕·가사·종덕·오타·숙성·언북·오정면 등 16개 면, 양성군 승량원면의 5개 리, 양성면의 4개 리, 원당면의 4개 리, 구룡면의 5개 리, 영통면의 1개 리, 용인군 서촌면의 1개 리, 직산군 삼서면의 2개 리을 합쳐서 진위군을 편성하였다. 1926년 군청 소재지 병남면을 평택면으로 개칭하고, 송장면과 탄현면을 합해 송탄면을 신설하였다. 1938년 진위군이 현재의 평택군으로 개칭되었으며, 이듬해에 평택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평택시')

이렇듯 지금의 평택은 1914년 조선시대의 평택 거의 전부, 진위 일부, 수원 일부, 양성 일부 등의 통폐합으로 생겨났다. 불과 9개 리가 이속된 양성을 제외하면 평택, 진위, 수원의 '한지붕 세가족'인 셈이다. 더하여 송탄은 1981년 송탄시로 승격하였다가 1995년 다시 평택시로 통합되었다. 이런 통폐합의 과정이 복잡하여 지명연구 시 자료가 균질하지 않은 약점이 있다.

『조선지지자료』에서 수원군에 속했던 토진·수북·청룡·감미·율북·포내·현암·승량·안외·광덕·가사·종덕·오타·숙성·언북·오정면 등 16개 면의 한자지명에 우리말을 부기하지 않아서 해당 동리의 우리말 지명을 아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에 비하여 『조선지지자료』에서 진위군은 우리말 지명을 충실하게 부기하였다. 이런 까닭에 옛 수원지역의 우리말 지명의 추적에는 한계가 있다.

왜곡과 교정

○ 평택의 행정지명 중에서 총 19곳은 합성지명이다. 그중에서 7곳은 읍면 단위로 松炭洞(송탄동), 浦升邑(포승읍), 古德面(고덕면), 西炭面(서탄면), 梧城面(오성면), 靑北面(청북면), 玄德面(현덕면) 등이 그것이다.

○ 素沙洞(소사동)은 조선 10대로 중의 하나인 해남로가 지나는 곳이었고, 또 9대로인 충청수영로가 분기해 나가는 곳이기도 했다. 이렇듯 교통의 요충지였기에 그곳에 자리했던 素沙店(소사점)이 주막으로 유명했다. 역사성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素沙店洞(소사점동)

으로 개명하는 것도 좋겠다.

○ 檜花里(회화리)는 檜花亭里(회화정리)를, 七槐洞(칠괴동)는 七槐亭里(칠괴정리)를, 黃山里(황산리)는 黃山堂(황산당)에서 마을의 정체성을 지닌 亭(정)과 堂(당)을 빼고 3음절 지명을 고집했다. 원래 지명으로 환원했으면 한다.

○ 芝山里(지산리)의 원지명은 乾芝山里(건지산리)이고 순우리말 지명은 건지미이다. 여기서 '건'은 음차한 접두사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래지명으로 되돌리면 좋을 듯하다.

포천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內村面(내촌면) : 내동면(內洞面), 동촌면(東村面)

雲山里(운산리) : 雪雲里(설운리) 大回里(대회리) 등
注院里(주원리) : 法院里(법원리) 金注里(금주리)

변개

加采里(가채리) : 加次里(가차리)
金珠里(금주리) : 金注里
都坪里(도평리) : 桃坪里(도평리)
射亭里(사정리) : 射廳里(사청리)
花峴面(화현면) : 火峴面(화현면)

지명 정보의 소개

포천

포천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명의 합성, 생략, 변개가 아주 조금 이루어졌다. 행정지명과 관련해서는 『조선지지자료』뿐만 『지명유래집』의 기록이 상

세하고 다른 시군에 비하여 정확한 편이다. 또 두세 개 이상의 동리를 통합할 경우에도 합칭을 아주 드물게 하여 원지명이 그대로 유지한 행정지명이 대부분이다. 경기도 지명유래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송우리

松隅里(송우리)는 소흘읍의 소재지로 순우리말 지명 '솔모루'를 한역한 것이다. 이곳은 예로부터 동북대로, 즉 京元街路(경원가로)의 중심지였다. 송우리는 점막과 역원이었던 곳으로 옛날 동대문 밖으로는 제일 큰 시장이 섰다는 유명한 곳이다.

산정리

山井里(산정리)는 山內洞(산내동)과 井項(정항, 우물목)의 이름을 합하여 산정리가 된 곳인데, 이곳에 거대한 호수가 조성됨으로써 마치 땅 이름이 현실을 만들어 낸 듯이 느껴진다. 산정호수는 이 지명을 딴 것이다.

왜곡과 교정

○ 포천시는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행정지명 개명 시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1995년 明德里(명덕리)의 '墨防洞(묵방동)'마을 지명을 먹뱅이로, 화현면 花峴里(화현리)의 '江口洞(강구동)'마을 지명을 '康衢洞(강구동)'으로, 소흘읍 이동교리 '水內(수내)'마을을 '茂蘭(무란)'으로 바꾸었다. 고유지명을 찾아서 원뜻으로 개명했거나, 마을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의미를 담은 지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양문리는 조선 10대로인 경흥로에 속한 양문역이 자리했던 곳이다. 현재 역말이 그곳이다. 이에 후부요소인 '驛(역)'을 되살려 양문역리로 개칭해 볼 만하다.

○ 雲川里(운천리)는 마을 앞을 흐르는 屈雲川(굴운천)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3음절 지명에 대한 강박에서 '운천리'로 이름지었다. 굴운천리로 개명해 볼 만하다.

○ 花峴面(화현면)은 적군의 동향을 살펴 중앙에 봉화로 알리던 烽火峴(봉화현)이라는 산봉우리가 있어 화재 또는 火峴(화현)이라 불리어 왔다. 그러나 불고개는 어감이 좋지 않아 花(화)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꼭 어감 때문에 개명해야 했다면, 烽峴面(봉현면)으로 바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

○ 眞木里(진목리)의 순우리말 지명은 '참나무정이'이다. 이를 한역하면 眞木亭(진목정)

이 된다. 현재의 지명은 3음절 지명에 얽매여 핵심어인 '亭(정)'을 없애버렸다. 따라서 진목정리로 개명했으면 한다.

○ 광릉국립수목원이 자리한 竹葉山(죽엽산)은 內村面(내촌면)과 加山面(가산면)에 인접해 있는 토산으로서 예로부터 임목이 울창하였다. 400여 년 동안 엄격한 보호 아래 관리된 임상이라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명산이다. 그런데 그 이전의 고지도와 『신증동국여지승람』등의 기록에서는 注葉山(주엽산)으로 주로 표기되어 있다. 세조의 무덤인 광릉과 국립수목원으로 유명한 명산인 바, 산의 성격과 전혀 무관한 '竹葉(죽엽)'을 버리고 원래이름인 注葉山(주엽산)으로 개명이 필요하다.

○ 포천 관내의 抱川川(포천천), 永平川(영평천), 明德川(명덕천) 등은 원래 고유지명을 가지고 있었다. 즉 조선시대 포천천은 高橋川(고교천) 또는 七里川(칠리천), 영평천은 南大川(남대천), 명덕천은 六松亭川(육송정천)으로 불렸다. 상기 행정지명의 하천명은 관리를 맡은 관청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졌지만, 역사적 정체성이 없다. 따라서 현재 지명에 옛지명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하남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校山洞(교산동) : 客山里(객산리) 校村(교촌)
新長洞(신장동) : 長禮村(장례촌) 新坪里(신평리)
春宮洞(춘궁동) : 春長里(춘장리) 宮村(궁촌)
豊山洞(풍산동) : 荒山洞(황산동) 豊德洞(풍덕동)

변개

德豊洞(덕풍동) : 德峰谷(덕봉곡)
望月洞(망월동) : 望月浦(망월포)

기존 정보의 소개

하남

河南市(하남시)는 1989년 광주시의 동부읍(12개 리)과 서부면(11개 리), 중부면 일부(상산곡리) 등 24개 법정리 지역을 합쳐 10개 洞(동)으로 승격시켜 탄생되었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광주의 동부면과 서부면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라후기부터 조선전기가지 광주부의 읍치가 자리했던 곳이다. 그런 만큼 지명에 공공시설과 관련한 지명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 창우리, 교산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등이 그것이다.

광암동

『호구총서』에는 광주 西部面(서부면) 관할 동리로 항동, 감천동, 冬音岩里(동음암리), 초덕리, 춘장리, 향교동이 있다. 또 1912년에 간행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의 광주 서부면 동리에는 창동, 학암동, 감일동, 감이동, 감북동, 廣岩洞(광암동), 초이동, 초일동, 춘장리, 궁촌, 항동의 순서로 관할 마을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두 자료를 순서대로 비교해 볼 때 '冬音岩里(동음암리)'는 '廣巖里(광암리)'에 대응한다. 이런 판단이 맞다면 지명에 자주 등장하는 '冬音(동음)'은 '廣(광)'의 고대어일 가능성도 있다.

왜곡과 교정

○ 望月洞(망월동)의 원래 이름은 望月浦(망월포)이고 순우리말은 '멍덜개', '망달개'인데, 이를 통하여 포구였던 마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래지명을 되살려 '망월포동'으로 개명하였으면 한다.

○ 덕풍동은 慶安驛(경안역, 광주)과 平丘驛(평구역, 양주)를 잇는 德豊驛(덕풍역)이 자리했던 곳이다. 역사성을 살려 덕풍역동으로 개명하면 좋을 듯하다.

화성

기본 자료의 정리

합성

梅松面(매송면) : 梅谷面(매곡면), 松洞面(송동면)
峰潭邑(봉담읍) : 三峰面(삼봉면), 葛潭面(갈담면)
西信面(서신면) : 徐如堤面(서여제면), 新里面(신리면)
楊甘面(양감면) : 楊干面(양간면), 上忽面(상홀면), 甘味面(감미면)
正南面(정남면) : 正林面(정림면), 南谷面(남곡면)
鄕南邑(향남읍) : 貢鄕面(공향면), 南面(남면)

古井里(고정리): 大角洞(대각동), 遠井洞(원정동), 古棧洞(고잔동) 등
古浦里(고포리): 古棧洞(고잔동), 浦幕洞(포막동)
求文川里(구문천리): 求密洞(구밀동), 文彦洞(문언동), 石川洞(석천동)
箕川里(기천리) : 上沙川里(상사천리), 下沙川里(하사천리), 下箕洞(하기동)
南田里(남전리) : 大田洞(대전동), 新南洞(신남동) 등
梅谷里(매곡리) : 梅安洞(매안동) 斗谷(두곡)
文湖里(문호리): 粉知串洞(분지곶동), 西湖洞(서호동), 文起里(문기리)
三花里(삼화리) : 蓮花洞(련화동), 梨花洞(리화동), 到葩洞(도파동)
尙安里(상안리) : 尙林洞(상림동), 代安里(대안리)
水花里(수화리): 山花洞(산화동), 水充洞(수충동), 良哲里(량철리)
新天里(신천리): 天燈洞(천등동), 新洞(신동)
雙松里(쌍송리): 松峙洞(송치동), 雙峰洞(쌍봉동)
雙井里(쌍정리): 大井洞(대정동), 伏井洞(복정동)
雙鶴里(쌍학리) : 東鶴洞(동학동) 白鶴洞(백학동)
安石里(안석리): 擧石洞(거석동), 安義洞(안의동)
兩老里(양노리) : 仲老洞(중로동), 百老洞(백로동)
龍浦里(용포리): 羔浦洞(고포동), 龍水洞(룡수동)
遠泉里(원천리): 遠幕洞(원막동), 泉谷洞(천곡동)

柳浦里(유포리) : 浦村洞(포촌동), 柳池洞(류지동)
六一里(육일리): 六校洞(륙교동), 北一洞(북일동)
紫安里(자안리) : 紫陽里(자양리), 新安洞(신안동)
長德里(장덕리): 長串洞(장곶동), 德防洞(덕방동)
芝月里(지월리) : 長芝洞(장지동) 眞月洞(진월동)
芝花里(지화리): 花梁洞(화량동), 居芝洞(거지동)
昌谷里(창곡리) : 篤谷洞(독곡동), 箭帶洞(전대동), 彦昌洞(언창동)
靑蓼里(청료리) : 靑令洞(청령동), 蓼谷洞(료곡동)
靑園里(청원리): 上園洞(상원동), 靑山洞(청산동)

생략

古毛里(고모리) : 古毛老洞(고모로동)
於川里(어천리) : 於良川里(어량천리)
錦堂里(금당리) : 錦堂谷洞(금당곡동)
溫石洞(온석동) : 溫乭串洞(온돌곶동)
睦洞(목동) : 睦族洞里(목족동리)
長之洞(장지동) : 長之川里(장지천리)
仙甘洞(선감동) : 仙甘島(선감도)

변개

旗安洞(기안동) : 旗田里(기전리)
中洞(중동) : 僧村(승촌)
梅香里(매향리) : 古溫里(고온리)
花山洞(화산동) : 串山(곶산)
龍水里(용수리) : 龍所洞里(용소동리)

지명 정보의 소개

화성

화성시는 조선시대 말까지 수원군과 남양군으로 행정 구역이 나뉘어져 있었다. 오늘날 화성시 관할 읍면동 가운데 봉담읍·우정읍·향남읍·매송면·팔탄면·장안면·양감면·정남면·동탄면·진안동·병점동·반월동·기배동·화산동·동탄동 등은 조선시대 수원부의 관할 지역이었다. 그리고 비봉면·마도면·송산면·서신면·남양동은 조선시대 남양군에 속해 있었다.

화성시는 1831년 편찬한 지방읍지인 『화성지』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하여 관련 문헌자

료가 풍부한 편이다. 다만 『조선지지자료』를 보면, 지금의 화성시에 해당되는 당시 수원군의 행정지명에는 우리말을 거의 부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우리말 지명을 추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동탄

지금의 東灘(동탄)이란 지명은 동탄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의 동탄면에서 유래하였다. 동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옛 수원군의 東北面(동북면)과 漁灘面(어탄면)에서 한 글자씩을 따와 새롭게 만든 합칭이다.

기안리

지금의 旗安里(기안리)는 『화성지』에는 용복면 旗田里(기전리)로 기록되어 있다. 기안리라는 이름은 정조가 사도세자를 顯隆園(현륭원, 현 융건릉)에 모시고 제사를 드릴 때 이 마을에 旗(기)를 꽂게 하였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병점

조선시대 삼남대로가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다.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떡을 파는 떡장수가 많아 '떡가게'라는 뜻의 '餠店(병점)'이라 불렀다고 한다.

화산

花山(화산)은 옛 수원부 읍치의 주산이며, 나중에는 현륭원의 주산이 되었다. 『 수원부읍지』에 수록된 지도에는 串山(곶산)으로 표시되어 있다. 튀어나온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이름이다. '곶'의 음을 살리되 뜻이 좋은 花山(화산)으로 바꾼 사례에 속한다.

장안면

長安面(장안면)이라는 이름은 장안리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화성지』에 장안면 관할 동으로 場內里(장내리)가 제일 먼저 나온다. 이 장내리는 예전에 말을 사고파는 馬場(마장)이 서서, 마장리로 부르다가 장내리로, 후에 다시 長安里(장안리)로 바뀌었다고 한다.

남양호

南陽湖(남양호)는 화성시의 우정면 이화리와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를 연결하는 남양방조제로 인해 만들어진 인공호이다. 예전에 이곳은 汾陽灣(분양만)이라 불렀다.

시화방조제

1985년 계획수립시 시흥군 군자면과 화성군 대부면을 이었기 때문에 시흥과 화성에서 한 글자씩을 따와서 '시화'방조제'라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지금의 대부면은 안산시 관할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지명 개명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신외리

新外里(신외리)는 옛날에 포구가 있던 곳으로 한말에는 '南陽仁川(남양인천)'이라 불렸다. 남양에 있는 인천의 越境地(월경지)였기 때문이다.

왜곡과 교정

○ 화성시에서는 모두 33곳의 합성지명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중에서 읍면 단위는 모두 6곳인데, 峰潭邑(봉담읍), 鄕南邑(향남읍), 梅松面(매송면), 西信面(서신면), 楊甘面(양감면), 正南面(정남면) 등이 그것이다.

○ 봉담면 桐化里(동화리)는 옛 桐化驛(동화역)이 자리했던 곳이다. 『호구총수』에는 驛村里(역촌리)로 기록했는데, 1912년에 간행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역원의 이름을 따서 동화역으로 했다. 역사성을 차별적인 지명으로 개명한 좋은 선례이다.

○ 中洞(중동) 마을 뒤편에는 萬儀寺(만의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 만의사는 유서 깊은 대찰이었고, 그런 연유로 현재 중동에는 스님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僧村(승촌)으로 불렀다고 『지명유래집』(371쪽)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마을 주민 12인이 증언한 점, 또 현재 만의사가 중건되어 마을 뒤편에 자리한 점, 마을의 위치가 '가운데'에 자리하지 않은 점, 僧村(승촌)이 중마을·중말을 거쳐 中村(중촌)으로 바뀌었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으로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사하촌의 일반적인 작명법에 따라 萬儀洞(만의동)으로 개명해도 좋을 듯하다.

○ 仙甘洞(선감동)은 仙甘島(선감도)를, 溫石洞(온석동)은 溫乭串洞(온돌곶동)을, 古毛里

(고모리)는 古毛老洞(고모로동)을, 錦堂里(금당리)는 錦堂谷洞(금당곡동)을, 睦洞(목동)은 睦族洞里(목족동리)을, 長之洞(장지동)은 長之川里(장지천리)를, 於川里(어천리)는 於良川里(어량천리)를 줄여서 3음절 지명으로 만든 것들이다. 대부분은 지형의 속성을 지닌 핵심어를 뺀 경우이다. 이중 장지동, 어천리, 목동, 오석동 등은 개명을 고려해 볼 만하다.

닫는글

아래의 표는 이제까지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나누어, 일제강점기에 합성, 생략, 변개가 이루어진 지명을 정리한 것이다. 일단, 경기도에서 일제강점기 왜곡과 굴절이 이루어진 행정지명은 대략 656개소이다. 비록 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더라고 해도 일제강점기 행정지명의 왜곡의 대략을 파악할 수 있다.

시군	합성지명		생략지명	변개지명	합계
	읍면	동리			
가평		8	9	1	18
고양		4		2	6
과천				1	1
광명		2			2
광주		32			32
구리		4			4
군포					
김포	4	24	3		31
남양주	3	21	1	1	26
동두천		4			4
부천		3	4		7
성남	1	10	1	1	13
수원		2		7	9
시흥		9	5	5	19
안산		5	1	1	6
안성		62	2	9	73
안양					
양주	4	13	1	2	20
양평	2	42	4	3	51
여주	5	56	6	2	69
연천	3	11	2		16
오산				7	7

시군	합성지명		생략지명	변개지명	합계
	읍면	동리			
용인	2	43	2	1	48
의왕		6			6
의정부		5			5
이천	8	51	7		66
파주	1	21	3	5	30
평택	7	12	4	4	27
포천	1	2		5	8
하남		4		2	6
화성	6	27	7	5	45
합계	47	483	62	64	656

표 1 일제강점기 경기도 시군별 왜곡지명 현황표

합성지명은 읍면 단위가 47곳, 동리 단위가 483곳 총 577곳이다. 이들 지명은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통합대상의 기존 지명에서 한 글자씩을 따와서 새롭게 만든 지명이다. 예컨대 동막과 백현을 합성하여 만든 용인 동백동이 이런 경우이다. 이런 합성지명은 새롭게 작명된 마을이름이 해당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에, 지명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

생략지명은 총 62개소에서 이루어졌다. 기존의 4음절 지명을 3음절로 줄이면서 생겨난 왜곡이다. 이 과정에서 고유지명에 내포되어 있는 해당 동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핵심어 즉 浦(포), 山(산), 川(천), 谷(곡), 洞(동), 串(곶), 所(소), 驛(역), 院(원) 등이 삭제되었다. 예컨대 제주 서귀포시를 서귀시로 작명한 셈이다. 이들 한자지명은 가능한 원래의 지명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변개지명은 모두 64개소이다. 기존 지명의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느낌을 주는 새로운 지명으로 雅譯(아역)한 경우이다. 조선시대 지명에는 신분차별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개변은 신분해방과 함께 마을주민들이 천민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공들의 집단 거주지인 陶谷(도곡)마을을 道谷(도곡)마을로, 옹기를 굽던 독쟁이마을을 篤亭(독정)마을 등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바야흐로 마을이름이 자신의 신분과 전혀 무관해진 현 시점에서, 원래의 지명을 되찾아 지역의 역사성을 되살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우선 행정지명의 개칭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합성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시군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군도 있다. 예컨대 읍면 단위의 합성을 두고 볼 때 가평, 고양, 광주, 수원, 시흥, 안산, 안성 등에서는 전혀 없었지만 여주, 이천, 평택, 화성 등지에서는 5개소 이상이나 이루어졌다. 또 생략지명도 과반 이하의 시군에서 적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명의 변개도 행정권역이 매우 좁은

현재의 오산에서는 7곳인 데에 비하여, 큰 고을인 연천, 이천, 용인, 안산, 김포, 고양, 광주, 성남, 양주, 여주 등에서 전혀 없거나 한두 곳에 불과하다. 요컨대 일제에 의한 행정지명의 작명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글은 경기도의 행정지명을 대상으로 합성, 생략, 변개 지명을 추출하고 그것을 개략적으로 분석해 본 것이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필자가 이 분야에 전공자도 아니기에 오류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엄정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자인한다. 이에 이글에서 제시한 개명 대상과 제안 지명은 그야말로 '개인적 의견 제시'에 불과하고, 시안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이 글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개명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진행되어야 하겠다.

역사성을 내포한 경기도의 지명

역사성을 내포한 경기도의 지명

김성태(경기문화재단 수석연구원)

여는 글

이 글에서는 행정지명 중에서도 마을지명을 다루고자 한다. 전통시대 마을은 지방행정조직의 최말단이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세금 수취를 위한 가장 기본행정단위였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였다.

이런 까닭에 자연지명과는 달리 마을지명에는 통치자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고, 마을마다 그들만의 고유한 역사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통치자는 그들의 입장에서 마을의 정체성과 고유성에 입각하여 개별 마을에 이름을 부여하여 구분·식별하였다.

이처럼 마을지명에는 역사성이 내포되어 있고, 治者(치자)의 입장이 짙게 녹아 있는데, 이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 鐵場(철장), 磁器所(자기소), 陶器所(도기소), 樓亭(누정), 山城(산성), 驛(역), 烽火(봉화), 大堤(대제), 寺院(사원), 人物(인물), 津渡(진도), 王陵(왕능), 廟祠(묘사), 越境處(월경처) 등으로 편목을 나눈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또 『목민심서』 호전 제2조 세법에서 除役村으로 읍내(邑內), 계방촌(契房村), 점촌(店村), 학궁촌(學宮村) 역촌(驛村), 원촌(院村), 사촌(寺村), 창촌(倉村), 외창(外倉), 궁전촌(宮田村), 둔전촌(屯田村), 포촌(浦村) 도촌(島村), 영촌(嶺村) 등을 열거하고 있는 점은 필자의 시각을 더욱 옹호해 준다.

이처럼 마을지명에는 역사성이 녹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전통마을에 대한 지명은 국어학자에 의한 음운학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는 마을 주민의 제보를 검증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문자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주장이 그대로 정설로 굳어져 각종 지역학 관련 책자에 인용, 재인용되고 있다.

이 글은 그동안 소홀했던 역사적, 고고학적 관점에서 마을지명의 유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912년 간행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 역사성을 내포한 지명을 선별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 책에는 일제에 의한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마을지명이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면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고, 또 행정지명만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렇게 뽑은 지명들을 39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 정리하였는데, 이를 본문에서는 '1912년 관련 행정지명'이란 소절로 정리했다. 그런 다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경기도박물관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발간한 『경기문화유적지도』Ⅰ~Ⅲ에서 마을지명과 일치되는 유적을 소개하였다. 이를 본문에서는 '2000년 지명 일치 유적'이란 소절로 정리했다.

관아(官衙)

지명 : 아곡, 관동, 관+방위, 방위+문, 고읍, 읍내 등

전통시대 군현지도를 보면 읍치는 진산을 배후에 두고 왕권을 상징하는 客舍(객사), 守令(수령)의 집무·생활공간인 衙舍(동헌)와 內衙(내동), 고을 향민을 대표하는 鄕廳(향청), 지방통치의 종교적·이념적 역할을 하는 향교 안의 文廟(문묘), 공립중등교육기관인 鄕校(향교), 곡물저장을 위한 창고인 司倉(사창) 등이 중심을 이룬다. 또 주변으로는 토지의 신인 '社(사)'와 곡물의 신인 '稷(직)'을 제사지내는 社稷壇(사직단), 마을의 수호신인 성황신을 제사하는 城隍壇(성황당), 돌림병을 예방하기 위해 주인이 없는 외로운 혼령을 국가에서 제사 지내주던 제단인 厲壇(여단) 등의 제단을 배치했다. 그리고 읍치소의 범위를 설정하고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邑城(읍성)을 두거나 진산에 군현성을 축조했다. 그리고 읍치소의 중심 건물이나 거리에는 선정을 베푼 수령의 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석인 선정비군이 자리한다. 이에 '官衙(관아)'를 연상하는 '官(관)'·'衙(아)'·'館(관)', 읍성을 존재를 보여주는 '門(문)', 읍치소 자체를 나타내는 '읍'·'군'·'고읍' 등이 포함된 지명의 경우는 읍치소가 자리했던 마을로 보아도 무방하다.

한편, 경기도에는 읍성유적이 제대로 남아 있는 곳이 없다. 아래의 동문리, 홍문동, 남문리, 서문리, 관문리 등의 지명은 邑城(읍성)의 존재를 암시하기에 학술적 의미가 있다.

참고로 용인 모현면에는 官廳里(관청리, 현 한국외국어대 용인 캠퍼스)가 있다. 그런데 조선후기 이곳에 살았던 西坡(서파) 柳僖(류희, 1773~1837)의 호가 '觀靑農夫(관청농부)'이다. 문헌기록 어디에도 모현면에 읍치소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바, 상기 官廳里(관청

리)는 觀靑里(관청리)의 미칭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미칭은 자기가 사는 마을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지역민의 소박한 마음이 애교로 받아줄 수 있지만, '바른지명세우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왜곡, 굴절된 지명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겠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용인 현내면 衙谷(아곡), 이천 읍면 관후리, 양평 읍내리 官門(관문)리, 양평 군내면 官上(관상)리, 양평 남중면 동문리, 여주 주내면 弘門(홍문)동, 안성 거곡면 동문리, 진위 군내면 남문리·서문리, 수원 장주면 官村, 수원 남면 官洞(관동), 통진 군내면 古邑(고읍)리, 교하 아동면 아동리, 장단 동도면 古邑(고읍)리, 적성 동면 읍내리, 적성 동면 館洞(관동)리, 연천 군내면 읍내리, 마전 군내면 邑部(읍부)리, 과천 군내면 관문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과천 관아지, 富林軒址(부림헌지), 穩穩舍(온온사), 선정비군(과천 관문동), 상적동관아지(성남 상적동 옛골), 처인성(용인 아곡리)

객사(客舍)

지명 : 객사동, 객산동

고려, 조선시대 관아를 구성하는 중심 건물은 동헌과 객사였다. 동헌은 관찰사·수령의 政廳(정청)으로서 지방의 일반행정 업무와 재판 등을 보는 곳이었다. 客館(객관)으로도 불리던 客舍(객사)는 왕을 상징하는 殿牌(전패)를 모시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예를 올리던 곳으로, 외국 사신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리들의 숙소로도 사용되었다. 관찰사나 수령이 일을 보는 동헌보다 격이 높았으며, 관리는 이곳에 머물면서 敎旨(교지)를 전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객사는 읍치소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건물이고 일반적으로 동헌과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객사가 있었던 마을은 군현에서 가장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평택 팽성읍 객사리에는 '팽성 객사'가 남아 있으며, 하남 客山(객산) 아래에서는 고려시대 廣州客舍(광주객사)로 추정되는 하남교산동건물지가 발굴되었다. 마을 지명으로는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객사마을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객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은 조선시대 '대로 중의 대로'라 할 수 있는 의주대로의 길목에 있었던 碧蹄館(벽제관)이다. 중국 사신이 유숙하던 객사였는데, 발굴조사를 거쳐 현재 정비된 상태이다. 이 벽제관은 아쉽게도 아직 건물은 복원되지 않았는데, 그에 비하여 남한산성 내의 고 광주부 읍치에 자리했던 人和館(인화관)은 현재 복원된 상태이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가평 군내면 客舍村(객사촌), 광주 동부면 客山洞(객산동), 적성 동면 객현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하남 교산동 건물지, 彭城邑(팽성읍) 客舍(객사, 평택 객사리)

향교(鄕校)

지명 : 교촌, 교동, 구교동, 향교말, 향교리, 구교동

조선은 유교이념을 국시로 삼았다. 그리하여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증등 교육기관인 향교를 세워 유생들에게 유학을 가르쳤다. 이들 향교는 한 고을마다 하나씩을 건립하는 것을 원칙인데, 실제로 그렇게 실행되었다. 향교는 반드시 관아와 객사가 있는 읍치소에 설치되었다. 지금 시군 단위 공립 중고등학교가 면소재지 혹은 군청소재지에 자리하는 것과 상통한다. 따라서 현재 향교가 남아 있거나 향교에서 유래된 지명이 남아 있는 곳, 즉 교촌, 교동, 구교동, 향교말, 향교리, 구교동 등과 같이 '校(교)'가 들어간 지명이 있는 곳은 조선시대 군현의 치소였다고 보면 틀림없다. 한편, 읍내 혹은 구읍 같은 지명이 있는 곳에는 부근에 향교가 자리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912년 관련 행정 지명

가평 군내면 향교리, 광주 동부면 校村(교촌), 광주 왕륜면 교동, 양지 읍내면 교동, 양평 군내면 교촌리, 양평 고읍면 교촌리, 여주 주내면 교동, 죽산 부일면 구교동, 죽산 부일면 교동, 안성 동리면 교동, 양성 군내면 교동, 진위 군내면 교촌, 과천 군내면 校洞(교동)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수원향교(수원 교동), 마전향교지(연천 마전리 향교말), 양근향교(양평 옥천리 교촌), 여주향교(여주 교리 향교말), 적성향교(파주 읍내), 구읍리 선정비군(파주 구읍리), 지평향교(양평 지평리 관교)

서원(書院)

지명 : 서원말, 서원마을, 서원촌

서원은 향교와 같은 중등교육기관이지만, 설립자가 국가가 아니라 특정 학파나 지방의 유림 또는 문중이었다. 그런 까닭에 향교와는 달리 읍치소에 자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심신을 수련하고 조용히 공부하기에 적합한 곳, 즉 경관이 빼어난 장소에 주로 자리하였다. 그래서 서원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된 경우는 흔하지 않았고, 그 결과 서원에서 유래된 지명은 향교에 비하여 드문 편이다. 다만 서원의 이름이 그대로 마을 이름이 된 경우는 있는데, 석실서원에서 유래한 석실마을이 대표적이다. 한편, 드물게는 서원리를 줄여서 '院里'(원리)라고도 했다. 이는'명고서원(明皐書院, 포저 조익과 아들 조복양, 손자 조지겸의 위패를 봉안)이 자리했던 현재 화성 매송면 원리(일제강점기 수원 매곡리 서원촌)가 대표적이다.

1912년 관련 행정 지명

수원 매곡면 서원촌, 포천 가산면 서원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석실서원지(남양주 덕소2리 석실마을), 深谷書院(심곡서원, 용인 상현리 서원말), 雲溪書院(운계서원, 양평 덕촌리 서원말), 행주서원지(고양 행주외동 서원촌)

창고(倉庫)

지명 : 社倉(사창)리, 司倉里(사창리), 貢稅(공세)리, 창촌, 창말, 창동리, 동창리, 현창리 등등

왕조국가가 성립된 삼국시대 이래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 징수가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양곡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를 설치했다. 또 흉년을 대비하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곡식을 저장해 두는 곡물창고도 필요했다. 우리가 국사시간에 배운 상평창, 의창 등이 그런 제도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곡간이 반드시 요충지에 자리했을 것이다.

역사상 창고는 크게 나누어 漕倉(조창, 또는 공세창), 司倉(사창), 社倉(사창)으로 나눌 수 있다. 조창은 전국 각 지방에서 조세의 명목으로 납부한 미곡을 수납하여 경창으로 운송하기 위해, 연해나 하천의 포구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국영 창고를 총칭한다. 司倉(사창)은 관아건물의 일부분으로, 군현에 필요한 곡식 등을 보관하는 관영 창고이다. 그리고 사창은 빈민 구휼을 목적으로 지방의 촌락에 설치했던 곡물대여기관으로 민가 주도로 운영되었다.

촌락 단위에 설치된 것은 사창인데,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군현의 치소를 벗어난 곳의 창고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 社倉(사창)일 가능성이 높고, 마을지명에서 흔히 확인되는 창말, 창촌, 창동 등은 社倉(사창) 또는 유사한 기능을 지닌 곡물창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명의 한자명이 司倉(사창)이거나 군현의 치소였던 곳에 위치한 마을의 지명에 '倉(창)'이 들어가면 일단 社倉(사창)이 아니라 司倉(사창)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社倉(사창)은 조선시대 鄕里(향리)에 설치된 빈민규휼을 위한 곡물 대여 곳간을 말한다. 동일한 목적을 지닌 義倉(의창)이 나라에서 설치한 관설창고로서 관 주도적인 데에 비하여, 사창은 민간자치적 구호 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사창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논의는 조선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866년(고종 3) 社倉節目(사창절목)을 마련하고 社還制(사환제)를 경기, 삼남, 해서 등 5로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부터이다. 사창 절목에 따르면, "사창은 곡물을 저장하기 위한 흙으로 지은 곳집〔倉庫(창고)〕으로 각 면의 큰 동리 중 인가가 가장 밀집한 곳에 지었다"라고 하였다. 또 『機長縣圖(기장현도)』에는 "海倉(해창) 및 司倉(사창)은 와가(瓦家)로 되어 있는 반면, 면 단위로 설치된 社倉(사창)은 모두 초가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기장

현도』에는 해창과 사창(司倉), 그리고 사창(社倉)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중 사창(社倉)은 현청 내에 있었던 司倉(사창)과 달리 상북면, 하북면, 상서면, 동면, 읍내면, 남면 등 6개 면에 각각 편제되어 있다.“고 기록했다. (출처 : 『디지털부산문화대전』 ‘기장현 사창’). 이런 기장현의 사창을 참고할 때, 경기도의 군현에도 面(면) 단위로 司倉(사창)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조선시대 사창 건물이 남아 있거나 그 터가 보존된 곳은 없고, 아래와 같이 4개 시군에 각 한곳의 지명이 확인될 뿐이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漕倉(조창)〕 용인 기곡면 공세동, 여주 개군산면 공세리, 수원 貢鄕面(공향면) 창촌, 양지 주동면 공세동

〔司倉(사창)〕광주 동부면 上司倉洞(상사창동) 下司倉洞(하사창동), 양주 접동면 縣倉里(현창리), 용인 현내면 창동, 양주 구지면 東倉里(동창리)

〔社倉(사창)〕 양평 남면 사창리, 안성 입장면 社倉(사창)리, 수원 상홀면 社倉(사창), 파주 광탄면 社倉(사창)리

〔社倉(사창) 추정〕 양주 이담면 창동리, 양주 해등어면 창동리, 광주 오포면 창평리, 광주 왕륜면 창촌, 광주 서부면 창동, 양지 주동면 都倉(도창)리, 양지 고서면 창리, 양평 동종면 창대리, 양평 상동면 창촌리, 양평 상동면 舊倉(구창)리, 양평 남중면 창촌리, 양평 북하도면 창리, 여주 주내면 창동, 죽산 원삼면 창동, 죽산 근삼면 內倉(내창), 안성 구룡동면 창리, 수원 용복면 庫舍村(고사촌), 수원 정림면 창촌, 수원 양간면 舊倉(구창), 수원 서신리면 舊沒倉(구몰창), 수원 안외면 창촌, 수원 언북면 倉內(창내), 파주 칠정면 倉內(창내)

역원(驛院)

지명 : 역촌, 역말, 역동, 원터, 원기, 관곡, 신원, ○○원

중앙관청의 공문을 지방관청에 전달하며 외국 사신의 왕래와 관리의 여행 또는 부임 때 마필을 공급하던 곳을 역이라 하고, 숙식 편의를 제공하던 공공 여관을 원이라 했다. 역과 원은 서로 밀접한 관련하에 설치되기 때문에 흔히 驛院(역원)이라 일컬었다.

이런 역원에는 인간과 물자가 경유하기에 자연히 취락이 발달하였는데, 이런 취락을 역취락과 원취락이라 한다. 이렇게 국영(國營)으로 운영되던 원은 도처의 요지에 민간 여행

자를 위한 점막(店幕)이 생기면서 은 피폐해진다. 그리하여 원취락은 16~17세기경 대부분 소멸되고, 18세기에는 사설 주막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역원취락은 각 가로를 따라 가촌 또는 노변 취락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본래 역과 원은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별개의 장소에 입지하였다.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서 형성된 역원취락 가운데 일부는 오늘날 교통 취락으로 발전한 곳도 있으나, 근대에 들어서자 정치·사회 제도의 변혁 및 교통 혁명 때문에 대부분은 없어지게 되었다. 경기도에서 역원취락의 지명이 지금도 남아있는 곳은 인덕원, 퇴계원, 장호원, 광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과거 경기도 권역에서 원터 유적은 2012년 한백문화재연구원이 발굴한 '서울 원지동 원지'가 유일한데, '원터'라는 지명을 가진 곳에서 조선시대 院(원)이 발굴된 대표적 사례이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별비면 退溪院里(계원리), 양주 해등어면 上樓院(상누원)리, 광주 군내면 廣池院(광지원)리, 광주 경안면 역촌, 광주 언주면 역촌, 용인 서변면 寶樹院(보수원), 용인 구흥면 驛(역)촌, 용인 수여면 역동, 용인 박곡면 신원리, 용인 모현면 院村(원촌), 용인 상동면 원촌, 양지 고북면 柳驛里(유역리), 죽산 남면 東注院(동주원)리, 안성 가사면 역촌, 안성 덕산면 원촌, 수원 매곡면 院坪(원평), 수원 장주면 역촌, 수원 晴湖(청호)면 역촌, 수원 포내면 海湖院(해호원), 수원 언북면 安頭院(안두원), 과천 동면 院基洞(원기동), 통진 하은면 水站(수참)리, 고양 신혈면 舊擺撥(구파발)리, 파주 천현외면 院基里(원기리), 파주 광탄면 汾水院(분수원), 장단 동도면 石柱院(석주원)리, 용인 구흥면 上館谷(상관곡) 下館谷(하관곡, 구흥역), 양평 서시면 新院(신원)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대광리 건물지(연천 대광리 원뒷골), 東陽院址(동양원지, 의왕 청계동 원터), 新津驛址(신진역지, 여주 신진리 신진역말), 雙鹿院 터(쌍녹원 터, 안산 장하동 원뒤)

참고1 :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기지역의 역명

迎曙道(영서도) : 迎曙(영서, 양주) 碧蹄(벽제, 고양) 馬山(마산, 파주) 東坡(동파, 장단),

靑郊(청교,개성), 狻猊(산예, 개성), 中連(중란, 풍덕)

良才道(양재도) : 良才(양재, 과천), 樂生(낙생, 廣州) 駒興(구흥, 용인), 金嶺(금령, 용인), 佐贊(좌찬, 竹山), 分行(분행, 죽산), 無極(무극, 음죽), 康福(강복, 안성), 加川(가천, 양성), 海門(해문, 남양), 菁好(청호, 수원) 長足(장족, 수원), 同化(동화, 수원)

平丘道(평구도) : 平丘(평구, 양주), 綠楊(녹양, 양주), 安奇(안기, 포천), 梁文(양문, 영평), 奉安(봉안, 양주), 娛賓(오빈, 楊根), 雙樹(쌍수, 양주), 白冬(백동, 砥平), 田谷(전곡, 지평), 仇谷(구곡, 양주), 甘泉(감천, 가평), 連洞(연동, 가평)

重林道(중림도) : 重林(중림, 인천), 慶信(경신, 인천), 盤乳(반유, 금천), 石谷(석곡, 안산), 金倫(금륜, 양천), 終生(종생, 통진), 南山(남산, 양천)

慶安道(경안도) : 慶安(경안, 광주), 德豊(덕풍, 광주), 楊花(양화, 여주), 新津(신진, 여주), 安平(안평, 여주) 阿川(아천, 이천), 吾川(오천, 이천), 留春(유춘, 음죽), 桃源(도원, 장단), 仇和(구화, 장단), 白嶺(백령, 장단), 玉溪(옥계, 연천)

참고 2 :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기지역의 원명

廣州(광주) : 沙平(사평), 板橋(판교), 東陽(동양), 末乙川(말을천), 黃橋(황교), 雙嶺(쌍령), 金尺(금척), 利夫(이부), 鳳獻(봉헌), 芚入(둔입), 大也(대야), 渡迷(도미), 仁德(인덕), 沙斤乃(사근내), 鄭金(정금), 廣津(광진)

驪州(여주) : 草溪(초계), 加老介(가노개), 破場(파장), 新院(신원), 福川(복천), 寶通(보통), 子川(자천), 普濟(보제)

利川(이천) : 仍邑(잉읍), 貫川(관천)

楊根(양근) : 月溪(월계), 多樂(다락), 末院(말원), 草院(초원)

砥平(지평) : 之德(지덕)

陰竹(음죽) : 富民(부민), 貫寺(관사), 長海(장해)

陽智(양지) : 承寶(승보)

竹山(죽산) : 大平(대평), 普賢(보현), 通梨(통이), 獐項(장항), 梨院(이원)

果川(과천) : 露梁(노량), 仁德(인덕), 彌勒(미륵), 吾金(오금), 要光(요광)

水原(수원) : 烏山(오산), 大梯(대제), 蛇院(사원)

富平(부평) : 球瑟(구슬), 大也(대야)

南陽(남양) : 鎭水(진수)

仁川(인천) : 彌羅(미라), 濟物(제물)

安山(안산) : 雙鹿(쌍록)

安城(안성) : 光寶(광보), 大悲(대비)
振威(진위) : 長好(장호), 李方(이방), 白峴(백현), 葛院(갈원)
龍仁(용인) : 普施(보시), 弘化(홍화), 金嶺(금령)
金浦(김포) : 廣因(광인)
衿川(금천) : 觀音(관음), 楊花渡(양화도)
陽城(양성) : 禪院(선원), 所草(소초)
通津(통진) : 祖江(조강), 甲串(갑곶), 溫山(온산)
楊州(양주) : 廣濟(광제), 廣仁(광인), 相知(상지), 陶孔(도공), 德海(덕해), 道濟(도제)
坡州(파주) : 焚修(분수), 廣灘(광탄), 惠陰(혜음), 檜院(회원), 梨川(이천), 兜率(도솔)
高陽(고양) : 德水(덕수), 仁厚(인후), 利泰(이태), 重房(중방), 興福(흥복)
抱川(포천) : 碧呑石(벽탄석), 功德(공덕)
交河(교하) : 冷井(냉정), 洛河(낙하)
加平(가평) : 狄栗(적률), 林草(임초)
長湍(장단) : 通濟(통제), 冷井(냉정), 吾目(오목), 藥師(약사), 蓮花(연화), 石柱(석주), 淑川(숙천), 禪具(선구), 天壽(천수)
江華(강화) : 甲串津(갑곶진), 寅石津(인석진), 昇天府津(승천부진)
豊德(풍덕) : 昇天浦(승천포), 冷井(냉정), 光大(광대), 臨海(임해)
麻田(마전) : 東指(동지)
漣川(연천) : 松折(송절)
喬桐(교동) : 東津(동진)

주막(酒幕)

지명 : 점막, 주막

주막은 길손을 대상으로 술과 밥을 팔고 잠자리도 제공하는 집이다. 임진왜란 이후 院(원)이 쇠퇴하면 私商(사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막이 길거리, 나루터, 광산촌, 장터, 역말 등에 들어서기 시작해, 후기로 갈수록 번창하였다.

『조선지지자료』 경기도 편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1910년 무렵 서울과 양주를 제외하고 전역에 걸쳐 600여 곳의 주막이 있었다. 이들 주막은 인가들과 떨어진 곳에 홀로 존재하지 않고, 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락 내에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주막이 행정지명으로 『조선지지자료』에 기록된 곳은 이천군 鉢面(발면) 店幕(점막) 등 단 세 곳에 불과하다. 이에 주막이 마을의 이름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었던 듯하다. 다만 600여 곳의 지명이 확인되므로, 소지명으로는 널리 사용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1912년 관련 행정 지명

진위 군내면 주막리

『조선지지자료』관련 행정 지명

광주 경안면 주막리, 양평 읍내면 주막리, 이천 발면 점막

오리정(五里亭)

지명 : 김포 갈산 2리 오리정

조선시대를 포함하여 전통시대에는 지방 고을 청사에서 5리쯤 떨어져 있는 곳에 亭子(정자)를 지어 議政(의정)이나 관찰사 등을 맞이하는 용도, 문과에 새로 급제하여 고향에 돌아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환영식장,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신을 맞이하는 곳 등으로 사용했다. 한편,

조선시대 도로에는 5리마다 정자를 세워 五里亭(오리정)이라 하고, 30리마다 楡柳(유류)를 심어 여행자가 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조선중기 문신인 김세렴의 『동명집』에 수록된 '수재 장선충을 전송하다'라는 칠언고시에는 '십리정과 오리정엔 꽃이 활짝 피어 있고〔花開十里五里亭〕라는 구절이 있다. 이로 미루어 오리정은 주읍지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에 적지 않게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오리정은 『춘향전』에서 성춘향과 이도령이 이별의 정을 나눈 전북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27번지 소재 오리정(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56호)이다. 경기도에는 통진현에 속했던 오리정이 있던 김포시 월곶면 갈산 2리 오리정 마을이 대표적이다. 또 경기도에는 옛 남양도호부에 속했던 오리정이 현재 '오리정순두부'란 맛집으로 남아 있다. 현재 분당선 오리역은 梧里(오리)로 표기되어 있으나, 위치로 보아 용인현의 오리정이 있던 곳일 가능성도 있다.

관방(關防)

지명 : 산성, 성곡, 성동, 성남, 남성, 성내, 성외, 성산, 성하, 성저

경기도에는 왜구의 침입이 하삼도 지역에 비하여 극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평지에 읍성을 거의 축조하지 않았고 유적으로 제대로 남아 있는 경우는 고려시대 토성인 용인 처인성을 제외하고는 없다. 따라서 지명에서의 城(성)이 들어가면 일단 산성으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경기도의 산성은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하면서 군사적,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요충지에 군현을 설치하고 그곳의 진산에 군현성을 쌓으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 결과 조선시대 군현의 진산에는 신라산성이 대부분 지금도 남아 있다. 그에 비하여 통일신라, 고려시대가 되면 국경선이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로 올라가면서 경기지역에는 산성의 축조가 활발하지 않게 되고 신라 때에 축성된 군현성은 폐성이 되거나 피난성으로 전락한다. 한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도성방어와 왕실보호를 위하여 경기지역에 대규모 산성을 축조하는데 남한산성, 북한산성, 문수산성, 화성 등이 그것이다. 어쨌든 경기도 전역의 군사적 요충지와 정치행정의 중심에 산성이 축조되었기에 그와 관련한 지명이 많고, 또 지역도 31개 시군에 걸쳐 골고루 산재해 있다.

한편, 『용비어천가』에서는 城山(성산)을 '잣뫼'로, '金城(금성)'을 '쇠잣'으로 한자 표기했다. 이에 城(성)의 우리말은 '잣'이었음을 알 수 있고, 마을과 고개 이름에서 자주 등장하는 栢(백, 또는 柏)은 잣나무를 뜻하기 보다는 성곽을 훈차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용인 東栢洞(동백동)은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東幕洞(동막동)과 栢峴洞(백현동)을 합칭한 지명인데, 여기서의 백현동은 배후에 石城山(석성산)에서 유래된 우리말 '잣골'을 훈차한 한자 지명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지명에 栢(백)이 들어갔다고 하여 그 유래를 무조건 잣나무에서 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산성과 관련된 지명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1912년 관련 행정 지명

성남시, 양주 백석면 산성리, 양주 하도면 산성리, 포천 군내면 하산성리, 포천 청송면 哨城(초성)리, 영평 서면 姑蘇城里(고소성리), 영평 군내면 성동리, 가평 남면 高城里(고성리), 광주 군내면 南城(남성)리, 광주 구천면 城內洞(성내동), 용인 수여면 東陣里(동진리)

· 古陣里(고진리), 용인 박곡면 城底里(성저리), 양지 목악면 城里(성리), 양평 동종면 성산리, 양평 북상도면 城谷(성곡)리, 안성 덕산면 城下(성하)리, 수원 태촌면 馬城(마성)리, 수원 남면 吉城里(길성리), 수원 포내면 城外(성외)리, 통진 보구곶면 산성리, 고양 구이면 城洞(성동), 교하 신오리면 城洞(성동)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길성리토성(화성 길성리), 寶蓋山城(보개산성, 용인 마성리 성밑), 성곡동 성지(안산 성곡동 해봉산), 신상리 성지(가평 현리 성고개), 제요리 토성지(이천 제요리 반월성), 오두산성(파주 성동리), 성동리산성(포천 성동리), 임진산성(용인 풍덕천동 임진산)

봉수(烽燧)

지명 : 봉현, 봉수, 봉화

烽燧(봉수)는 烽(봉, 횃불)과 燧(수, 연기)로써 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의 통신제도이다. 『증보문헌비고』의 봉수조에 의하면 전국 5로의 주요선로를 直烽(직봉)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모두 서울의 목멱산에 도달하게 되어 있었다. 이런 까닭에 모든 직봉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경기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경기도 요해처에는 봉수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모두 54여 곳의 봉수가 보고되어 있다.

이런 봉수 관련 지명은 일반적으로 '烽(봉)'자가 널리 쓰였으나, 그에 못지 않게 望臺(망대)가 있었다하여 '望(망)'자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망우리면 烽峴里(봉현리), 가평 상면 烽燧里(봉수리), 김포 검단면 봉화촌, 파주 백석면 烽峴(봉현)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대산봉수(파주 烽岩里 봉우재), 장암동 봉수지(의정부 장암동 봉화재)

참고 1 : 기존 알려진 조선시대 경기지역 봉수(54곳)

할미산, 혜재곡, 적골산, 미로곡, 독산, 잉읍점, 대이산, 가구산, 남산(경봉수), 무악서봉, 무악동봉, 천림산, 석성산, 건지산, 망이산, 화성봉돈, 건달산. 서봉산, 독산성, 괴태길곶, 홍천산, 염불산, 해운산, 형도, 무응고리, 오질애, 정왕산, 선산(문학산), 축곶, 백선산, 약산, 대모성, 진강산, 망산, 수정산, 진망산, 성산(화개산), 별립산, 하음성산, 송악(남산), 주산(남산), 주산(냉정산), 개화산, 장봉도, 말도, 불음도, 검단산, 형제봉, 성산, 봉현, 도라산, 성산, 대산, 소달산(독산)

출처 : 김주홍, 「조선시대의 봉수제」『역사와 실학』, 역사실학회, 2001.

참고 2 : 최근 발견된 경기, 서울, 인천 지역 망대(29곳)

서울 봉산, 서울 봉제산 망대, 서울 불암산망대, 서울 개웅산망대, 광주 망덕산, 안성 망월산망대, 안성 진재봉망대, 고양 망월산망대, 안산 풍도 후망산망대, 화성 제부도 당산망대, 화성 해망산, 양평 고동산망대, 여주봉우재망대, 여주 연대산, 연천 눌목리망대, 연천 두루봉망대, 연천 간파리망대, 연천 아미리망대, 연천 고성리망대, 연천 차탄리망대, 연천 국사봉망대, 연천 금굴산망대, 연천 장탄리망대, 연천 마차산망대, 연천 봉화재망대, 인천 대이작도 부아산망대, 인천 자월도 국사봉망대, 인천 덕적도 덕적진봉수1, 인천 덕적도 덕적진봉수2, 인천 덕적도망재[1)]

마장(馬場)

지명 : 마장, 목장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지역에는 조선시대 왕실과 軍營(군영)에 필요한 말을 키우는 목장이 설치 · 운영되었다. 중앙정부와 왕실의 긴급한 수요를 바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목장은 말의 도망을 막기 위한 목책 설치가 필요 없는 섬이 대부분이나, 내륙의 경우에는 강이나 바다를 끼고 좁고 길쭉하게 돌출한 串(곶)을 이용하였다.

조선시대 각 자료에 나타나는 경기도의 목장의 수를 보면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

1) 우리나라 봉수 관련 유일 · 최고의 전문가인 김주홍(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박사께서 특별히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26곳,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28곳, 『목장지도』(1678) 30곳, 『여지도서』(1765) 8곳, 『대동여지도』(1861) 21곳, 『증보문헌비고』(1908) 24곳이다. 이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은 현 의정부의 녹양목장이고, 장단의 호곶목장도 유명했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백석면 마장리, 가평 군내면 하마장리, 수원 포내리 牧場(목장)리, 파주 광탄면 마장리

참고 1 : 『증보문헌비고』의 경기도 유폐목장 현황

유목장 : 大阜島(대부도), 靈興島(영흥도), 仙甘島(선감도), 召忽島(소홀도), 伊作島(이작도), 小牛島(소우도), 伊側島(이측도), 佛島(불도), 楓島(풍도), 立破島(입파도) [이상 남양], 陽也串(양야곶). 洪原串(홍원곶) [이상 수원]), 槐台串(괴태곶) [양성]

폐목장 : 德積島(덕적도), 昇黃島(승황도), 禿甲島(독갑도) [이상 남양], 壺串(호곶) [장단], 沙牧島(사목도) [파주]

소재불명 : 項浦(항포), 吾朶庄(오타장), 振威屯(진위둔)

궁평(宮坪)

지명 : 궁평, 궁촌, 궁뜰, 궁안, 궁내, 궁리

우리나라 지명 중에는 궁촌, 궁말, 궁평, 궁내 등 宮(궁)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적지 않다. 이들 지명에 대한 시군 지명유래집을 보면 대부분 공주와 옹주가 살던 宮家(궁가)나 그들의 무덤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궁말이 자리하는 곳이 군현의 치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일반 농촌인 사실, 그리고 궁말에 옹주묘가 자리한 경우가 대부분 없는 사실 등을 참고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특히 조선시대의 공주나 옹주들이 왕실의 재정적 지원으로 사치를 누리며 부유하게 살았던 점에서 궁촌을 궁가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다.

그럼 궁촌의 유래는 어디에 있는가? 그 실마리는 궁장토에서 찾으면 될 듯하다. 宮房田(궁방전)이라고도 하는 宮庄土(궁장토)는 조선 후기에 후비·왕자대군·왕자군·공주·옹주 등

의 궁방에서 소유하거나 또는 收租權(수조권)을 가진 토지로, 궁방의 소요 경비와 그들이 죽은 뒤 제사를 받드는 비용을 위해 지급되었다. 이런 궁방전은 후기로 갈수록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하여 늘어만 갔고, 그에 따라 전국에 걸쳐 궁방전이 왕실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이런 궁방전을 염두에 둘 때, 宮坪(궁평)은 궁방전이 있는 벌판을 뜻하며, 궁촌은 이런 궁방전을 경작하는 마을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평택 고덕면 궁리의 지명유래를 "조선후기 마을에 궁방전이 많아 '궁말', '궁안'으로 불렸던 것이 한자로 표기하면서 유래됐다."는 설명으로 뒷받침된다. 또 충남 보령시 궁촌동의 궁촌에 대하여 宮中(궁중)에서 땅을 거느린 마을이라 궁말 또는 궁촌이라고 부른 데에서 유래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한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시북동 궁촌리, 양주 접동면 宮洞里(궁동리), 양주 상도면 궁촌리, 양주 하도면 궁촌리, 포천 가산면 궁촌리, 포천 청송면 궁평리, 광주 도척면 궁평리, 광주 왕륜면 궁촌, 광주 서부면 궁촌, 광주 낙생면 궁내촌, 양평 상서면 궁촌리, 여주 금사면 宮里(궁리), 안성 영통면 궁리, 진위 오타면 궁리, 남양 신리면 궁평동

둔전(屯田)

지명 : 둔전, 둔, 도감, 호조

屯田(둔전)은 변경이나 군사 요지에 설치하여 군량에 충당한 토지로 후대에는 관청의 경비를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하기도 하였다. 전자는 국둔전(國屯田), 후자는 관둔전(官屯田)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국둔전은 삼국통일기에 처음 등장하였으나 기록은 고려 시대에 와서 나타났다. 관둔전은 고려 숙종 4년(1099)에 처음 설치되었다. 조선 전기의 둔전제는 고려 말 권문세족에게 겸병된 둔전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조선 전기의 둔전은 주로 부역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점차 並作經營(병작경영)에 의한 운영으로 바뀌어 갔다. 임란 이후에는 영아문둔전(營衙門屯田)이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중앙관청에 의해 설치된 관둔전 성격이 강한 둔전이었다. 유사어로는 官屯田(관둔전), 軍屯田(군둔전), 營門屯田(영문둔전), 衙門屯田(아문둔전) 등이 있다.(출처:『한국고전용어사전』'둔전' 항목)

일반적인 둔전인 관둔전과 군둔전을 제외하고 아문둔전으로는 시흥의 호조벌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조선지지자료』에는 파주 都內面(도내면) 都監坪(도감평)이 확인된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별비면 都監里(도감리), 광주 군내면 둔전리, 광주 오포면 둔리, 광주 대왕면 둔전리, 용인 박곡리 둔전, 수원 북부면 둔동, 파주 천현외면 屯防(둔방)리, 진위 五朶(오타)면 防禦廳里(방어청리), 진위 오타면 守禦廳里(수어청리), 수원 삼봉면 水營洞(수영동), 연천 서면 軍營(군영)리

도촌(島村)

지명 : 島村(도촌), 島里(도리), 섬말, 셤말, 슴말

『조선지지자료』와 『(경기도) 지명유래집』의 가평, 고양, 양평, 광주 등에서 섬마을 즉 島村(도촌)이란 지명을 찾아보면 한 시군에 하나 정도는 확인된다. 만약 전수조사를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섬말이란 이름을 지닌 마을이 더 나올 듯하다. 그런데 상기 섬말 지명이 확인되는 곳은 모두 내륙지방이다. 그런데 왜 '섬'이 마을 지명에 들어갔을까? 지명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이다.

현재 행정지명으로 도촌이란 지명이 남아 있는 곳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이다. 이 도촌동의 유래에 대하여 『디지털성남문화대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도촌동은 마을 앞과 뒤에 하천이 있고, 마을 앞 중앙에 뒤 산맥이 끊어졌다 약간 솟아 있는 것이 마치 섬처럼 생겼다 하여 섬말 즉 도촌(島村)이라 칭한 데에서 유래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마을 대부분에는 앞으로 하천이 흐르고 뒤로는 굴곡진 구릉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섬말[島村]이란 지명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은 궁색한 감이 든다.

그럼 島村(도촌)의 유래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 실마리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구할 수 있는데, 결론은 鎭堡(진보)가 있는 마을로서 요역이 면제된 곳을 島村(도촌)이라 했던 것이다. 이는 『목민심서』 호전 제2조 세법에서 확인되는데, 지명의 유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대목이기에 전부를 소개한다. "제역촌(除役村, 요역이 면제된 마을)은 첫째 읍내(邑內), 둘째 계방촌(契房村, 아전들이 사사로 보유하는 마을), 셋째 점촌(店村, 鍮店 · 鐵店 · 瓷器店 · 瓦器店), 넷째 학궁촌(學宮村, 향교가 있는 마을), 다섯째 역촌(驛村), 여섯째 원촌(院村, 곧 野站), 일곱째 사촌(寺村, 절 입구에 있는 마을), 여덟째 창촌(倉村,

外倉이 있는 곳), 아홉째 궁전촌(宮田村, 宮結이 있는 곳), 열째 둔전촌(屯田村, 京司·京營의 소용이 나오는 곳), 열한째 포촌(浦村, 감영에 浦保錢을 내는 곳), 열둘째 도촌(島村, 鎭堡에 속한 곳), 이 열셋째, 영촌(嶺村, 가마를 메는 곳)이다.

『조선지지자료』 관련 지명

광주 돌마면 도촌리, 양평 남종면에 셤말(도촌리), 고양시 원당면 원당리 슴말(도촌) 가평 설악면 창의리 섬말(도리)

월경지(越境地)

지명 : 月境(월경)

월경지는 해당 군현의 관할 범위 밖의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갑) 군현의 행정 관할 범위 내에 토지가 있지 않고, (을) 군현의 행정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갑) 군현의 관할 하에 있는 특수 구역을 말한다. 현재로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월경지가 있었던 이유는 세금과 같은 물자 조달과 관계가 있다. 특히 내륙에 위치한 주읍에서 생산되지 않는 어물·소금 등 해산물의 공급처로 해안가에 월경지를 두어 주읍의 부족분을 채웠다. 어쨌든 1912년 행정지명에서는 '越境(월경)'를 '月境(월경)'으로 간단한 글자를 택해 표기했다.

1912년 관련 행정 지명

진위 마산면 月境里(월경리), 진위 일북면 月境里(월경리)

제언(堤堰)

지명 : 언북, 방축(방죽), 보촌, 보동, 보평, 축동

조선 후기 이앙법의 발달로 水田(수전)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 용수의 확보는 농업 생산

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므로 정부는 수리시설을 축조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런 수리시설은 규모에 따라 堤堰(제언), 洑(보), 防築(방축), 垌(동)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시대가 내려올수록 산골의 높고 건조한 곳과 넓은 들녘의 척박한 지역까지 수리시설이 확충되면서 제언보다는 규모가 작은 보와 방축이 많이 만들어졌다. 한편 경기도 서해안 지역은 내륙 깊숙이 들어오는 內灣(내만) 갯벌이 형성된 곳으로, 만입부 초입을 막아 농경지를 확보하기도 했다.

19세기 『萬機要覽(만기요람)』 財用編(재용편) 5 堤堰(제언) 各道堰洑條(각도언보조)에는 경기도에 314개의 제언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포천 가사면 방축리, 광주 낙생면 洑坪(보평)리, 용인 수여면 방축동, 용인 현내면 방축동, 양평 하북면 보평리, 안성 가사면 방축동, 안성 덕곡면 방축동, 안성 우곡면 洑(보)리, 안성 소촌면 洑頭里(보두리), 안성 송로리면 방축동, 안성 구천리면 방축리, 안성 영통면 中洑里(중보리), 수원 북부면 보동, 수원 삼봉면 방축동, 수원 용복면 中洑(중보)평, 수원 공향면 방축동, 수원 장주면 보촌, 수원 현암면 堰城里(언성리), 수원 현암면 방축동, 수원 堰北(언배)면, 파주 광탄면 방축리, 파주 백석면 방축리

사찰(寺刹)

지명 : 寺村(사촌), 寺洞(사동), 절골, 大寺(대사), 불당, 불곡, 古寺(고사), (절 이름)洞(동) · 里(리) · 村(촌)

불교는 삼국시대 중기부터 고려시대까지 왕실과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국교로서의 위상을 유지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국가적으로는 억불숭유 정책을 펼쳤지만 왕실은 원찰의 형태로 죽은 선왕 · 비빈 · 공주의 명복을 빌었고, 민간에서도 불교는 부녀자들의 기복의 대상이었다.

이런 이유로 근세까지도 군현 단위에 명찰이 한두 곳은 있었고 읍면 단위에 중소 사찰이 한둘 씩은 자리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읍치에 사찰이 들어서는 것은 금지되었기에, 사찰은 읍치소와는 멀리 떨어진 경관이 빼어난 곳에 입지했다. 그리고 불교건축은 불국토를 장엄해야하기에 전각들이 모두 기와집이고, 단청으로 장식되어 화려했다. 그리고

이런 불교사찰은 주변의 자연마을에서 볼 때 그야말로 '랜드마크'였고, 식별 기능이 탁월했다. 즉 인접 마을의 지명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했을 것이다.

한편 사찰 관련 지명의 마을에는 사찰 소유의 전답을 얻어 살아가는 소작 농민들이 주로 살았다. 즉 이른바 사하촌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절의 이름을 딴 경우 그럴 가능성은 더 높다고 판단된다. 『목민심서』 호전 제2조 세법에 따르면, 이런 寺村(사촌)에는 요역이 면제되었다고 한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사찰명을 따른 지명] 양주 고주내면 내회암리, 양주 해등어면 영국리, 광주 군내면 법화동, 고양 신혈면 津寬內(진관내)리, 광주 의곡면 상청계동·하청계동, 광주 구천면 암사동, 용인 수진면 서봉동, 양평 북하도면 용문천리, 수원 문시면 培養寺(배양사), 광주 군내면 불당동, 광주 세촌면 상대원리 하대원리, 여주 부일면 대평원, ,

[사하촌으로 추정되는 지명] 광주 경안면 寺洞(사동), 광주 실촌면 寺洞(사동). 양평 서중면 寺村(사촌)리, 진위 이서면 寺洞(사동),

[사찰 주변 마을] 용인 서초면 寺後(사후), 양평 동종면 竹寺(죽사)리, 영평 읍내리 大寺(대사)리, 여주 개군산면 불곡리, 안성 가동면 北寺(배사)리, 죽산 남이면 대사리, 안성 공제면 불당리, 통진 반이촌면 불당동, 삭녕 군내면 古寺里(고사리), 양평 남면 대사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회암사지(양주 고주내면 내회암리), 고달사지(여주 상교리 고달), 舍那寺(사나사, 양평 용천리 절골), 영국사지(양주 해등어면 영국리, 현 서울시 도봉구), 법화사지(광주 군내면 법화동, 현 하남시 상사창동), 진관사(고양 신혈면 津寬內里(리), 현 서울시 은평구), 청룡사(안성 청룡리), 칠장사(안성 칠장리), 청계산(광주 의곡면 상청계동·하청계동, 현 의왕시 청계동), 암사지(광주 구천면 암사동, 현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서봉사(용인 수진면 棲鳳洞), 용문사(양평 북하도면 용문천리), 대원사(광주 세촌면 상대원리 하대원리, 현 성남 중원구), 흥국사(고양 지축동 절골), 老溫寺洞(노온사동) 사지(수원 노온사동), 龍珠寺址(용주사지, 양평 석곡2리 용주골), 文殊寺(문수사, 김포 성동리 문수골), 培岩寺址(배암사지, 김포 홍신1리 불당마을), 舊谷寺(구곡사) 미륵불(여주 가업리 구절골), 금곡리 사지(파주 금곡리 불당재), 노동리 사지(연천 노동리 절터골), 불곡골리 미륵불(양평 불곡리), 성사동 사지(고양 성사3동 사근절이), 연라리 사지(여주 연라리 절골), 要腰寺址(요요사지,

김포 장기동 절터골), 원당리 사지(연천 원당리 불당골, 절텃골), 자작리 사지(연천 자작리 승절골), 장암동 사지(의정부 장암동 절터골), 長興寺址(장흥사지, 여주 장흥리 절골), 절골 사지(평택 지산동 절골) , 항소리 사지(양평 항소1리 절골), 불당골 사지(용인 두창4리 불당골), 노온사지(과천 남면 老溫寺里)

佛像(불상)

지명 : 미륵, 부처, 석불

고려시대 불교사찰에 대한 국가적 지원으로 사찰은 최소한 읍면 단위에 한둘씩은 건립되었을 듯하다. 지금 교회에 비교될 정도로 전국 방방곡곡에 건립되었던 고려시대의 사찰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원찰과 거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사의 위기를 맞았다. 절이 폐사되면 금속으로 만든 불상과 종탁 등 이동 가능한 것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무기류 등을 만드는 데에 재활용되지만, 이동이 불가한 탑과 석불은 현지에 남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석불과 탑은 里程標(이정표)가 되어 마을을 지칭하는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불교지식에 부족한 현지인들은 폐사지에 남겨진 석불을 포괄적으로 돌부처로 부르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미륵으로 불렀다. 이에 자연마을의 이름에는 미륵이 들어가는 곳이 적지 않고, 이런 마을에는 석불이 남아 있는 폐사지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흥미로운 점은 행정지명으로 미륵동은 아주 드문 데에 비하여 법정지명(즉 자연마을)으로는 미륵이나 석불이 들어간 지명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는 점이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수원 일용면 미륵동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상구리 사지(여주 상구리 미륵골), 강내리 사지(연천 강내리 부처골), 계신리 마애여래입상(여주 계신리 석불암), 도곡리 탑재(여주 도곡리 미륵골), 북삼리 마애석불입상(연천 북삼리 미륵밭), 삼거리 사지(연천 삼거리 부처골), 어석리 석불입상(이천 어석2리 미륵

당), 이평리 미륵불상(이천 이평리 미륵골), 청안리 미륵불(여주 청안리 미륵골), 彌坪里(미평리) 약사여래입상(용인 미평리 미륵뜰)

석탑(石塔)

지명 : 탑골, 탑동, 탑석, 탑현

바로 앞의 미륵 관련 지명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시대 억불숭유 정책으로 수많은 절들이 폐사되자, 석불과 탑만이 폐사지에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있게 되었다. 이들 석탑 역시 지명의 이정표가 되었고, 그래서 탑 관련 지명이 많이 남아 있다.

현재 탑동이라 지명을 가진 곳 중에서 불교유적이 발견된 곳은 동두천 탑동에 소재한 회암사 암자지와 그곳에 있는 불상이다. 현재 탑동의 지명 유래인 석탑은 없지만, 일제 때 반출되었다는 조사 기록으로 미루어, 아래 탑동마을에 있었던 석탑들도 그런 운명을 겪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현재의 수원시 탑동 485번지에 건립 연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탑 부재가 있는 것으로 뒷받침된다.

1912년 관련 행정 지명

양주 둔야면 塔石里(탑석리), 포천 서면 탑동리, 광주 돌마면 하탑동·상탑동, 양평 동종리 塔谷(탑곡)리, 양평 서시면 탑곡리, 수원 형석면 탑동, 수원 초평면 탑동, 수원 오정면 탑현, 수원 언북면 탑현, 여주 강천면 탑전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탑동석불(동두천 탑동), 회암사 암자지(동두천 탑동)

태실(胎室)

지명 : 태봉리, 태봉산, 태전리, 태산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하면 그 태(胎)를 봉안하는 곳을 胎室(태실) 또는 胎封(태봉)이라

한다. 그중에서도 나중에 왕위에 오른 왕자의 태실을 태봉(胎峰)이라 한다. 지명과 관련하여 현재 창경궁 양화당 뒤편 언덕에 자리한 성종대왕의 태실은 광주시 경안면 태전리에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태전리도 태실과 관련된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영창대군 태실(가평 태봉리 태봉), 태봉리 사지(가평 태봉리 절골), 효자동 태묘, 태묘비(고양 효자동 태봉)

능묘(陵墓)

지명 : 능곡, 능말, 능산, 능촌, 능리, 능동, 마분, 말무덤, 능+방위

전통시대 무덤은 피장자의 신분에 따라 크게 陵(능), 園(원), 墓(묘)로 구분된다.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이다. 원은 왕세자와 왕세자비 무덤을 말하는데 왕을 생산한 후궁의 무덤도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묘는 능과 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대부와 일반 서민의 무덤을 말한다.

현재 능원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기에 능원이 소재한 동리는 쉽게 확인된다. 그런데 경기도를 포함 전국의 지명에 陵谷(능곡) 또는 능골이란 지명이 허다하다. 그리고 이런 陵(능)이 들어가는 지명에 대한 유래를 보면 풍수지리 상 왕릉이 들어설 자리였다는 등 그럴싸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능묘 유적과 능곡이라는 지명을 연결해 검토해 보면 능곡이란 결국 왕실 가족에 속하지만 능원에 묻힐 수 없는 大君(대군), 君(군), 公主(공주)와 翁主(옹주),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등의 무덤이 있거나 석물로 단장된 일반 사대부의 무덤과 지명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지명에서의 陵(능)은 大墓(대묘)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능곡은 그런 대묘가 있는 마을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정몽주의 무덤이 있는 곳이 용인 능원리 능골, 유자신의 무덤이 있는 곳이 시흥 능곡인 점으로 쉽게 방증된다.

그런 한편으로 김포 능동의 경우 김포 장릉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에 장릉과 무관한 지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옛 양주 망우리면 · 능후면 · 능내면과, 여주 능서면 등과 같이 실제 왕릉이 자리한 곳과 인접 마을의 이름에 능+방위가 들어가면 이는 왕릉과 관련된 지명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능묘와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해 둘 사실이 있다. 그것은 지명에서 흔히 접하는 말무덤〔馬墳〕이 들어간 지명이다. 지명유래집을 보면 말무덤을 '말이 묻힌 무덤'이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견강부회의 전형이다. 우리말에서 말[馬]는 크다는 뜻이다. 이는 국어사전에서 확인되는 바로 말개미는 큰 개미, 말벌은 큰 벌을 의미한다. 지명에서 마한은 큰 나라, 馬峙(마치)는 큰 고개를 뜻한다. 따라서 소지명에 보이는 마총, 마분, 말무덤은 高塚(고총)으로 보면 되겠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영근면 능동리, 양주 백석면 古陵(고능)리, 양주 초부면 능내리, 광주 오포면 능곡리, 광주 왕륜면 묘동, 양평 동종면 능산리, 양평 서종면 능곡리, 여주 근동면 능촌, 여주 원삼면 능촌, 안성 조령면 능리, 안성 금곡면 능리, 수원 남부면 능동, 수원 문시면 능곡, 수원 태촌면 능동, 수원 동북면 능동, 수원 안외동 陵隅(능우), 안산 인화면 능곡리, 통진 군내면 능동, 통진 대파면 능동, 교하 아동면 금릉리, 파주 천현외면 五陵里(오능리), 파주 백석면 능동리, 파주 오리면 능동리, 부평 서면 馬墳(마분)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경안공주 묘(여주 덕평리 능안골), 전 고려 고양왕릉(고양 원당동 왕능골), 광해군 묘(남양주 松陵里, 成陵), 구래리 고분군(김포 구래리 능골), 金稛(금균) 묘 신도비(광주 능평리), 金自知(금자지) 선생묘(양평 왕창리 능골), 김협 묘(동두천 걸산동 능말), 柳自新(류자신) 묘(시흥 능곡동), 李畬(이여) 묘(양평 계정리 산소골), 李從茂(이종무)장군 묘(용인 고기리 능뒤골), 臨瀛大君(임영대군) 사당 및 묘(의왕 내손동 능안), 목기선 묘(동두천 생연동 능안), 민유중 묘 신도비(여주 능현리 뒷골), 선인군 이흠 묘(파주 운천2리 능말), 송질 묘와 신도비(양주 선암리 능골), 심우승 묘 신도비(광주 도수리 능안골), 元萬里(원만리) 묘(여주 상구리 능말), 월산대군 사당·묘·신도비(고양 신원동 능골), 이필행 묘 신도비(가평 선촌리 능안), 정몽주·이석형 묘(용인 陵院里 능곡), 정약용 묘(남양주 능내리), 趙公瑾(조공근)선생 묘 신도비(양평 도곡리 능말), 沈龜齡(심구령) 묘 신도비(광주 검천리 능골), 한양조씨 묘역(파주 능산리), 합수리 고분군(연천 합수리 능골)

사당(祠堂)

지명 : 사당, 제청, 재청, 묘동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고조 이하의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던 곳을 사당,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을 齋室(재실), 묘제를 지내기 위하여 무덤 가까이에 지은 목조건축물을 祭閣(제각) · 祭廳(제청) · 祭舍(제사)라 한다. 이런 건물은 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인 位田(위전)을 두었다.

이런 재실은 무덤 가까이에 있기에 묘주의 후손들이 사는 세거마을과 떨어져 있고, 사당과 재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집과 위토가 가까이 있기에 별도의 마을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경우 사당, 묘동, 재실 등으로 불렸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별비면 廟洞里(묘동리), 양주 노원면 廟洞里(묘동리), 영평 일동면 社堂里(사당리), 양평 남종면 祭廳里(제청리), 수원 초평면 闕里社(궐리사), 과천 상북면 舍堂里(사당리), 여주 개군산면 祭田里(제전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金錫胄(김석주) 묘와 신도비(광주 귀여리 재청말), 박장휘 묘(동두천 지행동 사당골)

비석(碑石)

지명 : 비석골, 비석거리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비석이 세워졌다. 치적이나 선행을 돌에 새기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비석 중에서 마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비석은 신도비와 선정비이다. 신도비는 정2품 이상의 고관대작을 지낸 사람의 무덤 아래에 자리하기에 마을과 가까운 곳에 자리

한다. 그리고 선정비는 수령이나 관리를 기리기 위한 비석이기에 주로 관아나 향교 근처에 위치한다. 이런 비석들은 고을 전체에 분포하지 않으므로 특정 마을의 이정표가 되기도 하여, 관련 지명이 간혹 확인된다. 한편, 선정비군이 있는 지역은 과거 읍치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柴北洞(시배동) 碑隅里(비우리), 양주 접동면 碑閣里(비각리), 진위 서파면 碑前里(비전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廣石洞(광석동) 선정비군(시흥 물왕동 비석골), 朴瀰(박미) · 朴東亮(박동량) 묘 및 신도비(시흥 군자동 비앞골), 어룡리 선정비(포천 어룡리 비석거리)

정려(旌閭)

지명 : 정문, 효자

조선시대는 충·효·열을 기본윤리로 삼아, 충신·효자·열녀를 찾아내 그 행적을 기록하고 표창하였는데, 표창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旌閭(정려)를 내리는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정려가 내려지면 해당 가문에서는 정려각(정문)을 세우고 旌板(정판)이라 불리는 명정현판을 걸어두었다.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양반들은 동족마을을 이루고 살았고, 그런 까닭에 자기 문중에서 정려를 받는 인물이 나면 자연스럽게 마을의 자랑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정려각은 특정마을을 지칭하는 標識物(표식물)이 되어 행정지명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지 주서면 旌門里(정문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柳複立(유복립) 정려각(용인 송문리 정문), 박태성 정려비(고양 효자동), 초계정씨 정려(이천 산성1리 정문말), 한명윤 · 박행장 충렬각(화성 정문리)

와촌(瓦村)

지명 : 와촌, 와가, 와동

『화성성역의궤』에는 화성을 건설하면서 수용된 집에 대한 보상액을 기록해 두었는데, 크게 집의 종류를 瓦家(와가), 草家(초가), 土室(토실)로 대별하여, 기와집은 1칸당 25냥, 초가는 1칸당 5냥, 토실은 1칸당 1~1.5냥 정도로 보상해 주었다. 어쨌든 이를 통해 조선시대 부호들의 마을인 와촌, 일반상민의 마을인 초가마을, 그리고 하층민이 사는 움막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접동면 瓦村里(와촌리), 가평 상면 瓦家洞(와가동), 수원 광덕면 와촌, 안산 인화면 瓦上里(와상리), 고양 중면 와동, 교하 와동면 와동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芝谷里(지곡리) 古家(고가)(용인 지곡리 개와집말)

동막(東幕)

지명 : 동막, 수막, 토막, 초막, 막곡, 막골,

지명을 분석해 보면 '幕(막)'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자주 확인되고, 그중에서 동막이 가장 흔하다. 이 동막은 영화 〈웰컴 투 동막골〉로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기도 하다.

이 동막이란 지명에 대한 지명유래는 독을 굽는 마을인 '독막'이 음운변화하여 된 것,

동쪽이 막힌 마을이기 때문, 군막이 있은 데에서 유래, 굴막이 있었기 때문 등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동막골 중에서 옹기를 구웠다는 곳은 마포 동막을 제외하고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점, 서막·남막·북막이 없기에 동막의 東(동)이 동쪽을 가르키지 않는 점, 1718년 柳光宅(류광도) 書簡(서간)에서 남동막이란 지명이 확인되는 점, 幕(막)을 '막혔다'로 해석하는 것은 그 설명이 궁색한 점 등이다.

필자는 이런 동막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幕(막, 또는 莫)에 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동막골은 기본적으로 유개념으로 막골[幕谷(막곡)]이다. 막골은 글자 그대로 움막집으로 이루어진 마을 즉 전술한 『화성성역의궤』의 토실마을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고유적으로 발굴되는 수혈주거지가 이런 움막의 실물흔적이며, 문헌 속의 草屋土室(초옥토실)이 이런 움막집의 일반적 명칭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움막의 지붕은 초본류이기에 草幕(초막), 흙을 파고 지었기에 土幕(토막), 널빤지 나뭇가지를 엮어서 벽체와 지붕을 만들었기에 板幕(판막) 등으로 불렸던 것이다. 지금으로 보자면 비닐하우스 집, 컨테이너 집, 판자집 등이 이런 움막집의 범주에 속할 듯하다. 한편으로 그런 움막집들이 물가에 있다면 水幕(수막), 들판에 있다면 野幕(야막),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遠幕(원막), 포구에 있으면 浦莫(포막), 산지에 농막으로 지었다면 山幕(산막) 등으로 불렸을 것이다.

그럼 동막동에서 東(동)은 어떤 의미로 막곡 앞에 붙였을까? 확언하기 어렵지만, 우리말 '동떨어진'의 '동'과 상통한다고 생각되며, 이런 판단이 인정된다면, 동막골은 '동떨어진 곳에 자리한 움막촌'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층민으로 구성된 외진 마을로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은 동막이란 지명이 읍내리 혹은 군내리와 같이 읍치와 함께 자리한 경우가 없는 점, 현재에도 동막이란 자연지명을 유지한 곳은 대부분 산지구릉지대인 점 등으로 일단 뒷받침된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이담면 동막동, 양주 둔야면 동막동, 양주 주벌면 水幕洞(수막동), 양주 구지면 土幕里(토막리), 광주 초월면 상동막리·중동막리, 하동막리, 광주 낙생면 동막동, 용인 동변면 동막, 용인 수진면 동막리, 용인 박곡면 동막, 용인 서촌면 동막, 양평 하서면 幕谷里(막곡리), 양평 고읍면 동막리, 양평 서중면 동막리, 양평 하북면 동막리, 여주 근남면 동막리, 죽산 북일면 草幕里(초막리), 안성 조령면 동막, 진위 여방면 莫谷里(막곡리), 진위 이서면 野幕里(야막리), 남양 화척지면 遠幕洞(원막동), 과천 남면 초막리, 통진 군내면 초막동, 통진 보구곶면 동막리, 마전 북면 동막리

당산(堂山)

지명 : 원당, 당골, 당곡, 신당, 당산, 당현

민간에서 신을 모시기 위해 사당 형태로 지은 종교건축물을 神堂(신당)이라 한다. 신당에는 할미당, 국사당, 산신당, 산제당, 서낭당, 당산 등 다양하고, 그런 지명들이 『조선지지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1912년 행정지명의 경우 종개념인 국사, 산신, 성황 등으로 지명을 삼지 않고 원당, 당산, 당골 등과 같은 유개념을 택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어쨌든 '堂(당)'이 들어가는 지명은 신당과 관련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해동어면 원당리, 광주 초월면 원당리, 용인 박곡리 堂谷(당곡), 양평 남시면 新(신)당곡리, 양평 남시면 구당곡리, 양평 상북면 神堂(신당)리, 여주 등신면 당산동, 여주 등신면 堂隅(당우)동, 죽산 제촌면 唐村(당촌), 안성 죽촌면 堂里(당리), 안성 북리면 당리, 안성 원당면 내원당리, 수원 송동면 당산, 수원 태촌면 堂峴(당현), 수원 태촌면 당곡, 수원 현암면 堂峴(당현), 과천 남면 당리, 과천 상북면 당산리, 김포 고현내면 당곡리, 김포 노장면 원당리, 김포 노장면 당하리, 고양 원당면 원당리, 교하 와동면 당하리, 파주 칠정면 堂洞(당동)리, 장단 진현내면 원당리, 장단 고남면 원당리

장생(長牲)

지명 : 장승, 長牲(장생), 長承(장승), 長勝(장승), 長星(장성), 長勝(장승), 長升(장승), 長僧(장승), 長丞(장승), 장승

장승은 마을 또는 절 입구 또는 길가에 세워 지역 간의 경계표 구실, 이정표 구실,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했다. 이런 까닭에 장승 이름이 들어간 지명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910년대 지명을 보면 장승거리, 장승거리 주막, 장승박이, 장승박이고개, 장승박이내, 장승박이보, 장승들, 장승모루 등이 아주 많이 확인되지만, 행정지명은 아래와 같이 두 곳에서 확인될 뿐이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접동면 長牲里(장생리), 수원 매곡면 長牲峴(장생현)

요(窯) 일반

지명 : 釜谷(부곡), 가마골

우리나라 가마터는 땔감이 풍부하고, 물의 이용이 편리하며, 수로를 통하여 완성품을 운반하기에 적합한 곳에 입지했다. 아울러 배후에 두터운 수요처가 있으면 금상첨화였다. 이런 도자 산업 발전에 적합한 곳이 경기도였고, 특히 경기도 광주는 한강을 통하여 완성품을 최대수요처인 한양으로 운반하거나, 도자 재료를 각지에서 수운으로 가져오기에 편리한 곳에 자리하여, 조선시대 우리나라 백자 생산의 중심지였다.

조선후기부터 농업생산력의 증대, 상공업의 발달, 그리도 장시의 확대 등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인구의 집중화와 연동하여 식생활 용기의 생산도 더욱 증대되었고, 그에 따라 경기지역에 자기, 도기, 옹기, 기와 등을 생산하는 장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특수촌락도 발달하였다. 그리고 이들 제품의 생산에는 燔造(번조)를 위한 목재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했고, 이런 까닭에 가마시설은 대부분 森林(삼림)이 풍부한 山間(산간)에 자리했다.

어쨌든 전통시대 가장 널리 사용된 물품은 목기를 제외하고는 도기 · 자기 · 옹기였다. 이중에서 질이 아주 좋은 上品(상품)의 磁器(자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현이나 면리 단위를 수요처로 삼았다. 이런 까닭에 하품자기, 도기, 옹기를 굽는 가마터가 널리 분포하였고, 가마터를 운영하던 장인들이 사는 산간마을에 두루 분포했다.

가마의 종류에는 자기가마, 도기가마, 기와가마, 숯가마 등 다양하지만 지명에는 이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가마골이라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이를 한자로 옮길 때에는 釜谷(부곡)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자 '釜(부)'는 우리가 흔히 가마솥이라 부른 발이 없는 솥을 뜻한다. 번조한 용기를 만드는 생산시설인 가마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한자로, 우리땅 이름을 한자지명으로 잘못 옮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올바른 한자 지명은 窯谷(요곡)이다.

지명 : 釜谷里(부곡리), 釜谷洞(부곡동), 釜洞(부동)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장흥면 부곡하리, 광주 실촌면 부곡동, 용인 박곡면 부곡, 여주 금사면 부곡리, 여주 개군산면 釜洞里(부동리), 안산 군내면 부곡리, 파주 주내면 부곡리, 파주 천현외면 부곡리

자기요(瓷器窯)

지명 : 사기막골, 사기막, 沙器洞(사기동), 陶匠(도장)골

우리는 흔히 유약을 바른 백자와 청자를 도자기라 부른다. 그런데 학술적으로는 질그릇은 陶器(도기)라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기그릇은 磁器(자기, 또는 瓷器)라 하는데, 이는『세종실록지리지』편목에서 磁器所(자기소)와 陶器所(도기소)로 구분한 사실에 근거한다. 그런데 이런 자기를 향리의 일반민들은 沙器(사기)라 불렸고, 그것이 지명에 그대로 반영되어 사기를 생산하는 가마가 있는 곳을 사기막골이라 지칭했다. 여기서 사기는 생산물품, 幕(막)은 공방인 草幕(초막), 골은 자기 장인이 거주하는 마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지역 사기막골 중에서 국가의 사옹원에서 운영하던 분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民需用(민수용)의 하품의 자기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민수품은 넓게는 군현 단위, 좁게는 동리 단위를 대상으로 유통되었고, 번조에 필요한 삼림을 찾아 최소 10년 단위로 옮겨 다녔을 것이기 때문에, 각 군현에는 지금 알려진 곳보다 훨씬 많은 사기막골이 존재했으리라 판단된다.

한편, 경상북도 고령 대평리 분청사기요지(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79호)를 옛 가마골, 사기골과 함께 陶庄(도장)골이라 부렸던 사실로 미루어, 사기요가 있던 곳을 사기막골과 함께 '도장골'로도 불렸을 가능성도 있다. 또 옹기를 팔던 곳을 '독점'이라 했던 사실을 참고할 때, 사기막에서 생산한 자기를 팔던 곳을 '沙器店(사기점)' 또는 '沙店(사점)'으로 지명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광주 군내면 沙器洞(사기동), 이천 둔면 사기막, 양평 남종면 사기막리, 양평 남종면 분원리, 양평 북하도면 沙店(사점)리, 안성 조령면 사기막

2000년 일치 관련유적

계정리 백자요지1-4(양평 계정3리 사기막골), 대대리 백자요지(용인 대대리 사기렴), 문원동 백자요지1, 2(과천 문원동 사기막골), 봉무리자기산포지 1, 2(용인 봉무리 도장골), 부곡리 요지1~3(양주 부곡리 윗가마골), 부곡리 요지1~3(연천 부곡리 점말, 사기막골), 분원리 도요지(광주 분원리), 삼회리 요지(가평 삼회리 사기막골), 서리 분청요지, 백자요지1~6, 중덕 고려백자요지(용인 서리 사기막골), 신복리 백자요지(양평 신복2리 사기막골), 신하리 요지(가평 신하리 사기점터), 원암리 요지(용인 원암리 사기막골), 탑동 요지(동두천 탑동 사기막골), 효자동 백자요지1-3(고양 효자동 사기막골)

옹기요(甕器窯)

지명 : 옹점, 독정, 독곡, 동이점, 분점리, 도곡, 점촌, 점말, 옹기점말, 독쟁이

전통시대 식탁용기는 주로 자기를 사용하였다. 일반인의 생각과는 달리 조선시대 백자는 하층민도 사용할 정도로 보편적이었다. 이런 자기와는 달리 저장용기는 독[甕(옹)]을 사용하였다. 독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질그릇보다는 질그릇[陶器(도기)]에 유약을 바른 옹기로 제작되었다. 이런 독은 일반백성이 주로 사용하고, 대형용기는 자기가 아닌 도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에 비하여 그 쓰임새가 훨씬 다양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독뿐만 아니라 소래기, 화로, 밥통, 소줏고리, 젓독, 촛병, 솥, 시루, 물동이, 주전자, 약탕관, 뚝배기, 술병, 심지어 악기에 이르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물건들이 옹기로 만들어져 쓰였다. 그리고 그런 만큼 자기 가마에 비하여 옹기 가마가 훨씬 많았다.

옹기굽는 일은 '천민이 하는 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옹기제작에 종사하던 장인들은 그들의 마을이 '독점', '동이점' 등으로 불리는 것을 꺼려했다. 천민마을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랬다. 그래서 신분사회가 와해되는 일제강점기가 되자, '陶谷(도곡)', '道谷(도곡)' 등과 같은 異稱(이칭) 혹은 美稱(미칭)을 원했다. 한편으로는 원래의 뜻과는 거리가

멀지만, 발음 '독점'을 변용한 '獨井(독정)', '篤亭(독정)', '獨亭(독정)' 등으로 바꾸어 사용했다. 이에 원뜻을 유지한 甕(옹)과 盆(분)이 들어간 지명은 물론 獨(독), 篤(독), 道(도), 陶(도) 등의 지명이 店(점)을 연상시키는 井(정), 亭(정) 등과 결합하거나, 마을을 뜻하는 谷(곡)과 결합하면 일단 옹기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판매하던 장인마을이 있었던 곳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옹기를 파는 곳인 옹기점이 있는 곳을 그냥 '店村(점촌)'으로 줄여서 지칭했다. 즉 지명에서 '점촌'이라 하면 상가가 늘어선 곳인 상점밀집지대를 말하기 보다는 옹기점이 있는 마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백석면 甕場里(옹장리), 광주 돌마면 甕店里(옹점리), 용인 서변면 篤亭里(독정리), 양주 건천면 下獨井里(하독정리), 포천 내북면 獨谷里(독곡리), 광주 돌마면 盆店里(분점리), 양평 동종면 道谷里(도곡리), 양평 서시면 陶谷里(도곡리), 양평 서시면 盆店里(분점리), 양평 북하도면 道谷里(도곡리), 죽산 원삼면 篤村(독촌), 안성 원당면 獨亭里(독정리), 수원 갈담면 獨井里(독정리), 수원 태촌면 篤才洞(독재동), 수원 포내면 道谷(도곡), 과천 하북면 甕幕洞(옹막동), 과천 하북면 甕店里(옹점리), 김포 노장면 獨井里(독정리), 여주 근동면 店村里(점촌리), 수원 형석면 점촌, 수원 안녕면 店村(점촌), 수원 삼봉면 舊店里(구점리), 수원 숙성면 점촌, 과천 군내면 內店里(내점리), 통진 군내면 점촌, 파주 광탄면 신점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도신리 요지(연천 도신리 점촌), 동안동 독터골 요지(동두천 동안동 독터골), 화산동 옹기요지(용인 화산리 요산동)

와요(瓦窯)

지명 : 瓦谷(와곡), 왜골, 梧野所(오야소)

전통시대 민수용 기와는 현지에서 전문장인이 생산한 것을 사용했다. 기와집 한 채를 짓는 데에 필요한 기와의 숫자가 방대하고, 기와의 무게도 자기와 옹기에 비할 바가 아니

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기와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기와생산지는 광역의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없었고, 읍면 단위로 산발적으로 분포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17세기 이후 관영와요가 해체되면서 기와의 생산은 전문장인에 의한 사설와요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일정의 장소에 瓦窯(와요)를 설치하고 장기간 窯業(요업)을 했으리라 짐작되고, 그에 따라 기와생산을 전업으로 하는 특수촌락이 형성되었을 것은 뻔하다.

이들 마을을 토착민들은 왜골로 불렸고, 한자로는 瓦谷(와곡)으로 주로 기록했다. 그런데 앞에서의 '독점'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와 굽는 일은 '천민들이 하는 일'로 취급받았기에 왜골이란 말 대신에 원뜻과 전혀 의미가 상통하지 않는 '梧野谷(오야곡)'이란 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성남 梧野洞(오야동)에서 확인되는데, 원래 이곳의 옛지명은 瓦室(와실), 왜실이었다. 참고로 오야동의 지명에 대하여 "이 지역에 오동나무가 많아서 오야소(梧野所)라 하고, 오동나무 열매가 잘 열렸으므로 오야실(梧野實)이라 칭하던 것이 오야리로 변했다."는 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광주 돌마면 梧野所洞(오야소동), 안성 升良院面(승량원면) 瓦谷(와곡), 진위 마산면 瓦谷里(와곡리), 수원 남곡면 瓦谷(와곡)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향동 와요지(하남 항동 왜골)

탄요(炭窯)

지명 : 炭洞(탄동), 炭洞里(탄동리), 숯골

숯은 음식조리용의 연료뿐만 아니라 금, 은, 동, 철과 같은 금속을 연마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또 능원묘에도 숯이 사용되어 특정 마을이나 사찰을 지정하여 공납토록 하였다. 한편 통일신라의 사치를 언급하면서 '숯으로 지은 밥을 먹었다.'고 한 기록으로 미루어, 땔감으로 사용되기도 했을 듯하다. 이처럼 숯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수요처가 있었고 그것도 다양했기에, 숯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숯가마[炭窯(탄요)]가 경영되었고, 이는 고고

학적 발굴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런 숯의 수요는 일제강점기부터 크게 늘어났다. 다다미를 선호했던 일본인들이 숯을 이용한 화로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숯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製炭(제탄)이 장려되었다. 그러자 숯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고, 큰 이익을 남기는 사업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는 원불교의 창시자인 박중빈이 1910년대에 동지들과 함께 숯장사를 하여 경제적 기초를 세운 사실로 알 수 있다. 이처럼 숯이 자본주의경제의 도입과 함께 하나의 상품이 되자, 그에 맞추어 숯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마을이 생겨났고, 그 결과 경기도의 마을 이름에도 炭洞(탄동), 숯골과 같은 지명이 확인된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광주 경안면 炭洞(탄동), 광주 초월면 탄동, 연천 관인면 탄동리, 광주 세촌면 탄동

대장간

지명 : 冶洞(야동)

인터넷에서 특이한 마을이름으로 가끔식 회자되는 야동리, 야동은 대장간이 있던 마을을 말한다. 『조선지지자료』를 보면 金浦(김포) 古縣內面(고현내면) 新里(신리)에는 야막거리란 곳이 있었는데, '冶幕巨里(야막거리)'라 한자로 적고, 그것의 언문이 '대졍간거리'라고 부기했다. 이에 冶洞(야동)은 쇠를 달구어 각종 연장을 만든 대장간이 있던 마을을 뜻한다. 또 충북 충주시 소태면 冶洞里(야동리)는 '풀무골'이라고도 한다. 이에 야동리는 풀무간(대장간)이 있던 마을인 '풀무골'의 뜻을 옮긴 한자 지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김포 풍무동에는 冶洞(야동)이란 지명이 남아 있고 豊舞洞(풍무동)은 풀무골에서 變異(변이)된 지명으로 미칭에 해당된다.

대장간은 자급자족을 기본으로 하는 전통시대 농촌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 따라서 마을 단위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에 따라 야동, 풀무골이라는 지명도 흔했으리라 본다. 한편 우리가 시골 장터에서 보는 대장간은 대부분 무딘 농기구나 기타 각종 연장을 불에 달구어 벼리기도 하고 새로 만드는 작업 즉 단조작업을 하던 곳이다. 그러나 무쇠를 틀에 넣어 솥을 비롯한 탕비용 용기를 만드는 주조 작업을 수행하는 冶匠(야장)도 있었을 듯하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冶洞(야동)으로 지칭했는지 이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다만 전술한 충주 소태면 야동리의 지명 유래가 솥을 만들던 골짜기라는 '풀무골'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을 감안할 때, 주조작업이 이루어지던 곳도 冶洞(야동) 또는 풀무골로 불렸을 가능성은 있다.

다음(daum) 지도에서 '풀무골'을 검색하면 안성 서운면 북산리, 화성 양감면 사창리, 안성 고삼면 쌍지리, 이천 장호읍읍 풍계리, 하남 위례광장로 9-9, 여주 능서면 양거리, 양평 양서면 신원리, 양주 광적면 석우리, 연천 미산면 유촌리, 평택 포승면 석정리, 용인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등이 확인된다.

1912년 관련행정 지명

수원 포내면 冶洞(야동), 교하 아동면 冶洞里(야동리)

야철(冶鐵)

지명 : 금곡, 우곡, 쇠골

금곡리는 아주 흔한 마을 이름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金谷(금곡)의 어원에 대하여 아직까지 시원한 설명을 본 적이 없다. 기껏해야 쇠가 많이 나왔다거나, 철광맥이 있어서 금곡리로 했다는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인정한다면, 금곡리라는 마을 이름이 제한적으로 나와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도에만 해도 전 지역에 걸쳐서 금곡리라 지명이 확인된다. 따라서 금곡리의 마을 유래가 철광산에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의 지명유래에 대한 설명이 참고된다. "金谷(금곡)이라는 지명은 금정산(金井山)의 주봉(主峰)인 고당봉(姑堂峰)에서 낙동강변 쪽으로 뻗어내린 첫 골짜기(谷)로서 붙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정산의 서쪽 골짜기에 金(금)이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해서 金脈(금맥)을 찾아 뚫어 놓은 굴이 많아 金(금)이 생산되는 골짜기라서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금곡동 공창마을 뒷산 도덕골 아래 위치한 불메 등에서 옛날 쇠를 달구고 남은 쇠똥(쇠 녹은 덩어리, 슬래그)이 발견되었는데 가야시대 쇠를 녹이던 冶鐵址(야철지)라서 쇠 金(금)자를 써서 붙여진 지명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또 광양의 '생쇠골'이란 곳이 일제 때 광양 출신의 독립운동가 황벽학(1876~1927)선생이 일본군의 조총에 맞서 싸우기 위해 지리산 백운사의 포수를 모아 대장간을 만들어

각종 무기를 제작했다고 해서 '생쇠골'이라 했고, 그때의 철광석을 녹이던 야철로가 현재의 고로와 비슷한 형태였다는 기록도 주목된다.

이런 사례들을 감안할 때, 쇠골이란 마을지명은 철광석을 녹여 鐵(철)을 추출해 내던 冶鐵爐(야철로)를 운영하던 곳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추측은 전국 각지에서 야철로가 발굴되고 있는 점으로 방증된다. 또 『高麗史(고려사)』 기록에 나타나는 '다인철소(多仁鐵所)'로 비정될 만큼 야철 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충북 제천의 이류면 일대에서 야철의 흔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그런 지역 중에 금곡리가 포함되어 있는 점도 쇠골이 제철과 관련된 지명임을 뒷받침해 준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시북동 금곡리, 양주 楱伐面(주벌면) 금곡리,광주 낙생면 금곡동, 양지 주동면 금곡리, 이천 백면 牛谷(우곡), 양평 하서면 금곡리, 여주 근남면 금곡동, 진위 일탄면 우곡리, 수원 매곡면 금곡리, 수원 오정면 금곡, 김포 검단면 금곡리, 파주 천현내면 금곡리, 파주 파평면 금곡리, 장단 상도면 금곡리

고인돌

지명 : 지석, 광암, 구암, 귀암, 괸돌

고인돌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청동기시대의 무덤이다. 일반적으로 산언저리나 평원에 자리잡은 마을에 거대한 바위가 떼지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또 마을 주변의 논이나 밭 가운데서 바둑판처럼 편평한 돌을 흔히 볼 수는 없다. 특히 받침돌을 橋脚(교각)처럼 세우고 그 위에 큰 바위를 올린 경우는 아주 드물게 확인되다. 어쨌든 마을 주민들은 위와 같은 바위가 있을 경우 이를 두고 廣巖(광암, 너븐돌), 支石(지석, 괸돌), 龜巖(구암, 거북바위) 등으로 지칭하고 그런 바위들이 있는 마을을 광암리, 지석리, 귀암리 등의 행정지명으로 기록했다. 한편, 양평 대석리에 지석묘군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지역에 따라서는 고인돌을 大石(대석)으로 불렸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대개의 고인돌은 지상이나 지하의 무덤방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얹어 만드는데, 덮개돌의 형태에 따라 크게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탁자식은 일반 탁자의 다리처럼 받침돌이 긴 형식이고, 바둑판식은 바둑판의 고임목처럼 받침

돌이 덮개의 두께보다 짧은 형식이다. 그에 비해 '개석식'은 받침돌이 없이 땅 위에 바로 덮개돌이 놓인 형식이다. 추측컨대 마을주민들은 바둑판식과 개석식은 괸돌 또는 고인돌로 지칭하고, 개석식은 너븐돌, 거북바위 등으로 구분했을 듯하다. 이런 추측은 광암이란 지명이 지석보다 많은 사실을 경기지역에서 개석식이 탁자식보다 많이 확인되는 사실과 연결해 보면 가능하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고주내면 광암리, 양주 이담면 광암리, 광주 별비면 광암리, 양주 하도면 광암리, 광주 서부면 광암동, 용인 동변면 하지석·상지석, 이천 신면 지석, 죽산 남일면 광암리, 교하 지석면 상지석리·하지석리, 적성 남면 龜岩里(구암리)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광암동 지석묘(하남 광암동), 대석리 지석묘군(양평 大石里), 지석리 지석묘(이천 지석리 괸돌마을)

입석(立石)

지명 : 선돌, 입석

우리말로 선돌로 불리는 입석은 마을 어귀에 홀로 세워져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마을을 지칭하는 상징물로 적합했고, 마을 지명 중에 '立石(입석)'이라는 행정지명도 간혹 확인된다. 이런 선돌은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쳐 만들어진 선사시대 유적이다. 건립 목적은 근세까지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점으로 미루어, 정령 숭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12년 관련 행정지명

양주 시북동 입석리, 가평 외서면 상입석·하입석, 여주 지내면 입석동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녹양동 선돌(의정부 녹양동 아랫선돌), 석우리 선돌(여주 석우리 선돌)

교량(橋梁)

지명 : 석교, 판교, 세교, 삽교

전통시대 마을 이름에는 다리 이름이 들어간 지명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런 다리명 지명은 거의 절대다수가 석교, 판교, 주교, 灰板橋(회판교), 섶다리, 흙다리 등과 같이 재료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나라 지명에서 비교적 많이 확인되는 잔다리 즉 細橋(세교)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잔다리를 細橋(세교)로 훈독한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잔다리는 '가는 다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細橋(세교)'는 '棧橋(잔교)'로 옮겼어야 옳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棧橋(잔교)는 절벽과 절벽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인데, 중요한 점은 가설 재료로는 칡덩굴, 등나무 등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사전적 정의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의미의 잔교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명 細橋(세교)의 원뜻인 '잔다리'는 칡이나 등나무들을 얽혀서 만들 작은 다리를 지칭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잘 다듬은 목판재 목재로 가공하지 않은 작은 다리, 마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용이 들지 않는 재료로 간단히 만든 다리,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에 설치한 다리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추정은 문헌에서 細橋(세교)라는 다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 『조선지지자료』에서 인천 중구 운남동의 잔다리를 小橋(소교)로 훈독한 사실, 마을 지명에 판교와 석교보다 세교가 더 많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입증된다.

한편 '다리'를 교량으로 보지 않고, '뜰(들)'의 어원인 '드르'. 'ᄃᆞ리'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 따르자면 세교는 '좁은 들', 판교는 '넓은 들', 삽교는 '샛들'로 해석된다. (천소영, 『한국 지명어 연구』, 이회문화사, 2003, 219쪽) 이 주장도 설득력이 있으므로 소개해 둔다.

1912년 관련 행정 지명

양평 읍내면 석교리, 광주 낙생면 판교리, 수원 토진면 판교동, 수원 숙성면 梁橋洞(동)(양교동), 죽산 남이면 판교리, 진위 성남면 세교리, 수원 안녕면 세교리, 수원 문시면 下細橋(하세교), 진위 오타면 插橋里(삽교리), 수원 숙성면 舟橋洞(주교동), 고양 원당면 주교리, 안산 북방면 渡馬橋(도마교)

2000년 지명 일치 유적

석산리 석교(이천 석산3리 석교)

닫는 글

이상의 본론에서 살펴본 내용 중에서 필자 나름대로 새롭게 밝혔거나, 기존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거나,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島村(도촌)이란 지명을 섬과 연결하면 이는 큰 오산이다. 『목민심서』 호전 제2조 세법을 보면 除役村(제역촌)으로 진보에 속한 마을을 島村(도촌)이라 했다. 鎭堡(진보)가 해안가와 섬을 중심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도촌이라 했으리라 추측된다.

와촌은 기와를 굽던 곳이 있던 마을이 아니라, 기와집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촌을 말한다. 『화성성역의궤』에는 화성을 건설하면서 수용된 집에 대한 보상액을 기록해 두었는데, 집의 종류를 크게 瓦家(와가), 草家(초가), 土室(토실)로 대별했다. 와촌은 부촌, 초옥은 초가삼간의 상민촌, 그리고 토실은 수혈의 움막집이 주류인 빈민촌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바로 위와 관련하여 전통시대 고을 마다 두세 개는 있었던 '동막' 지명은 '독을 만드는 마을', '동쪽 막힌 곳에 자리한 마을'이 아니라, 광의로는 움막촌을 지칭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東(동)'은 동쪽이 아님이 확실한데, 일반 촌락과 동떨어져 있기에 '동'을 붙인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마을 지명 중에서 흔한 것 중 하나가 金谷(금곡)이다. 이런 금곡을 철광산이 있었다거나, 철광맥이 있었다거나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그 유래를 밝히고 있으나, 궁색한 느낌이 든다. 고고학 발굴성과를 참고할 때, 야철을 위하여 爐(노)를 설치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장인이 있던 마을을 지칭한 것으로 보아야 합당할 듯합니다.

細橋(세교) 지명은 '가는 다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세교의 우리말 지명은 '잔다리'이다. 이는 '棧橋(잔교)'를 우리말로 바꾼 경우이다. 원뜻에 충실하자면 칡덩굴, 등나무 등, 잔가지 등을 이용해 만든 작은 다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량 관련 지명이 石橋(석교), 板橋(판교), 灰板橋(회판교) 등과 같이 가설재료로 이름을 삼는다는 사실로도 방증된다. 따라서 세교는 목재나 석재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架構(가구)방식으로 튼실하게 만든 다리가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잔가지, 칡덩굴, 등나무 등을 서로 얽혀서 만든 소형의 하급 다리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궁평, 궁내, 궁뜰 등 宮(궁)자가 들어간 지명은 宮家(궁가)가 있었거나 궁에 살 수 있는 왕실인물이 살았던 곳일 가능성보다는 왕실에 세금을 내는 궁장토가 있었던 마을을 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둔전 지명은 둔전토가 있던 곳을 말하는데, 단순히 '둔전말'이라는 일반명사화된 지명 이외에, 도감, 수어청, 방어청, 수영청, 도감, 호조 등 軍營(군영) 관련 지명이 들어간 지명도 둔전이 있던 마을을 뜻한다.

능곡, 능말 등의 지명은 王陵(왕릉)과는 무관한 지명이다. 지명에서의 陵(능)은 사대부의 묘 중에서 석물을 제대로 갖춘 大墓(대묘)를 지칭한다고 보면 좋겠다. 이는 사대부 묘의 분포지도와 지명을 연결해 보면 입증된다.

月境(월경)이란 지명은 달(moon)과 아무런 연계가 없다. 지명 속 '월경'은 해당 군현의 관할 범위 밖의 토지인 越境地(월경지)를 뜻한다. 참고로 토속어로 산을 '월'이라 했다. 이에 영암과 강진에 자리한 월출산은 달이 떠오른 산이 아니라 '평지에 솟아있는 산'이란 뜻이 더 적합할 듯하다.

釜谷(부곡)과 같이 '釜(부)'가 들어가는 지명은 '솥'과는 전혀 무관한 지명이다. 도기와 자기를 굽는 가마가 있던 마을을 뜻한다. 한자로는 窯谷(요곡)이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말을 잘못 번안한 대표적인 지명이다. 어쨌든 '사기' 혹은 '도장'이 들어간 지명은 도자기 중에서 고급용기인 자기를 굽던 마을로 보면 된다.

사기막과는 달리 옹점, 독정, 독곡, 도곡, 동이점, 점말, 점촌, 독쟁이 등은 일상용기인 도기(후대에는 옹기)를 굽던 마을을 뜻한다. 전통시대 옹기쟁이는 천민으로 취급 받았기에 道谷(도곡)과 같은 지명으로 粉飾(분식)했다. 원래의 마을이름을 신분해방 시점과 함께 美稱(미칭)으로 의도적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이다.

社倉(사창)은 빈민 구제를 구휼을 목적으로 지방의 촌락에 설치한 곡물대여기관으로, 관아건물의 일부분의 관청에 필요한 곡물을 보관하는 司倉(사창)과는 구분되며, 조세로 거

두어 드린 미곡을 보관하기 위하여 수상교통의 중심지에 설치한 조창과도 구별된다. 이런 점에서 '사창'이 들어간 촌락은 社倉(사창)이 있었던 마을로 볼 수 있으며, 흔한 지명인 倉洞(창동)은 대부분 社倉(사창)이 있었던 곳으로 보면 되겠다.

원터, 원기, ○○원 등은 원님이 계시던 관아가 아니라 공공여관으로 숙식을 제공하던 院(원)취락이 있었던 곳이다. 이런 원취락은 조선후기가 되면 주막으로 대체된다.

城(성)이 들어가면 성곽과 관련된 지명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다만 성을 土俗語(토속어)로는 '잣'이라 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栢(백, 잣 백)이 들어가 지명 역시 산성과 관련된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 구체저으로 栢峴(백현)은 잣나무가 많은 고개가 아니라, 산성이 있는 산에 있는 고개라는 의미일 수 있다.

烽(봉)이 들어가면 烽燧(봉수)와 관계한 지명임은 자명하다. 다만 '望(망)'자자 들어간 지명도 봉수와 관련한 望臺(망대)가 있던 곳일 가능성이 있다.

사당, 묘, 재 등이 들어가는 지명은 문중의 사당이나 재실이 있는 마을을 지칭한다. 사당에는 선산이 있고, 위토가 주변에 있으며, 그것을 관리하는 묘지기 · 산지기들이 있기에 자연히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정문, 이문이 들어가 지명은 정려각이 있는 마을을 뜻한다. 효자동 역시 효행으로 정려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정판을 걸어둔 정려각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당산, 당골, 신당 등의 지명은 전통시대 마을마다 있던 당집과 관련한 지명이다. 1912년 행정지명의 경우 종개념인 국사, 산신, 성황 등으로 지명을 삼지 않고 원당, 당산, 당골 등과 같은 유개념을 택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와촌이 아니라 와곡, 왜골 지명이 들어가면, 이는 기와를 굽던 와요가 있던 마을을 지칭한다. 기와를 토속어를 따서 梧野(오야)로 바꾼 점은 흥미롭다. 성남 오야동이 대표적이다.

야동은 대장간이 있던 마을을 뜻한다. 이런 야동을 '풀무골'이라고 하는 사실, 冶幕巨里(야막거리)를 '대장간거리'라 부른 사실 등으로 미루어 冶鐵(야철)과는 무관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야철과 관계한다면 冶爐(야로)라는 지명으로 적었을 듯하다.

오리정은 단순한 정자가 아니라 국가에서 설치한 정자로, 관찰사 등을 맞이하는 용도, 문과(文科(문과))에 새로 급제하여 고향에 돌아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환영식장,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신을 영접하는 곳 등으로 사용했다. 梧里(오리)라는 지명 중 일부는 원래 五里(오리)를 잘못 表記(표기)한 것일 수 있다.

이 글은 몇 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조선지지자료』, 『(경기도) 지명유래집』 등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주장의 근거로 이용하지 않았기에 논증의 근거가

견고하지 않다. 둘째로, 지명 관련 역사에 대하여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은 단점도 있다. 예컨대 驛院(역원) 관련 지명을 분석할 때 역원에 대한 사전적 연구성과만을 참고하였다. 셋째로, 필자가 이 분야에 비전공자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지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지만 두세 달 정도 공부하여 이 글을 작성했던 그런 만큼 논증에 약점이 있으리라 본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역사적 관점, 고고학적 성과, 문화유적지도 작성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행정지명을 살펴보았기에, 지명 연구에 새로운 시도였다고 자평해 본다. 앞으로 이 글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도 높은 단행본으로 간행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져본다.

어원으로 경기도 행정지명의 본뜻 밝히기

어원으로 경기도 행정지명의 본뜻 밝히기

반재원(훈민정음연구소장)[1)]
김성태(경기문화재단 수석연구원)

여는글

이 책의 발간 목적은 왜곡, 굴절된 경기도 행정지명를 바로 잡는 데에 있다. 이런 목적에 부합되게 이 글에서는 경기도 지명 중에서 원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한자화된 땅이름을 추출하여, 그 참뜻을 밝히고 그 유래를 사실에 최대한 가깝게 밝혀보는 데에 있다.

지명의 본뜻이 왜곡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 그러나 대대적인 지명의 왜곡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이고, 1914년 식민지 정책에 알맞게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면서 일단락된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漢譯(한역)된 지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이글의 주 목적이다.

경기도가 1987년 발간한 『지명유래집』은 경기도 최초의 31개 시군을 모두 포괄하는 지명관련 단행본이라는 가치는 지니지만, 내용은 왜곡·굴절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지명의 유래와 관련해서는 한자 지명을 자의적으로 뜻 새김한 견강부회식의 설명이 적지 않은 편이다. 이는 국어학과 역사학, 그리고 지역학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에 의하여 집필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이 글의 또 다른 집필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부터는 경기도 행정지명 중에서 왜곡이 심하게 이루어진 訓音借(훈음차) 지명 곧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옮겼는데 원뜻과는 전혀 무관한 한자를 택하여 우리 땅이름을 왜곡

1) 제3장 '어원으로 풀어본 경기도의 관심지명'은 반재원이, 그 나머지는 김성태가 집필하였다.

시킨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원뜻에 가깝게 해석해 보고자 한다. 지면상 모든 훈음차를 검토할 수 없기에, 비교적 널리 사용하고 일반인들이 그 유래를 오해하기 쉬운 지명을 대상으로 고찰해 보겠다.

지명 속 어원과 본뜻

■ 馬 : 크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韓山郡(한산군)은 원래 百濟(백제)의 馬山縣(마산현)"이라고 기록하였듯이, 馬(마)는 '크다'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지명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馬峴(마현), 馬峙(마치), 馬山(마산), 馬墳(마분), 馬塚(마총), 馬灘(마탄) 등은 동물 말과는 전혀 무관하다. 馬峴(마현)과 馬峙(마치)는 큰 고개를, 馬山(마산)은 큰 산, 馬墳(마분)과 馬塚(마총)은 큰 무덤, 馬灘(마탄)은 큰 여울을 뜻한다.

가평 道馬峙(도마치) 고개 : 강원도와 경기도를 경계 짓는 큰 고개란 의미이다.

광주 퇴촌면 刀馬峙(도마치) 고개 : '刀馬(도마)'는 의미가 없고, '馬峙(마치)'가 핵심어이다.

군포 渡馬橋洞(도마교동) : 〔호구총수〕에서는 道馬橋(도마교)라고도 기록했는데, 이 지명에서 핵심어는 '馬橋(마교)' 즉 '큰 다리'이다. 따라서 '渡馬(도마)' 혹은 '道馬(도마)'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안성 天馬峰(천마봉) : '하늘에 닿을 듯한 큰 봉우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안성 소현리 馬峴(마현)마을 : '큰 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양평 馬峙(마치) : 현지인들은 '말티'고개라 부른다. 역시 '큰 고개'란 뜻이다.

옛 양평 馬岩洞(마암동) : 말 모양의 바위가 있는 마을이 아니라 '큰 바위가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안성 馬井里(마정리) : 동물 말〔馬(마)〕과는 전혀 무관한 뜻으로, '큰 우물이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연천 馬巨里(마거리) : '큰 거리에 위치한 마을'이란 뜻이다.

옛 용인 馬墳里(마분리) : '큰 무덤이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이천 馬岩里(마암리) : '큰 바위가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고인돌이 분포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천 雪馬峙(설마치) : '오랫 동안 눈에 쌓여 있는 높은 고개'란 뜻이다.

안성 신흥리 마암마을 : '큰 바위가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고인돌이 분포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포 馬松里(마송리) : '큰 소나무가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파주 馬井里(마정리) : '큰 우물이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파주 파평면 馬山里(마산리) 등 : 馬山(마산)은 아주 흔한 지명으로 순우리말은 '말뫼', '말미', '말메' 등이다. 馬山(마산)이란 지명이 들어간 마을은 배후에 '큰 산'이 자리한 마을이란 뜻이다.

■ 獐(장) : 늘어지다

지명에서 獐(장)은 사슴과 동물 노루와는 무관하다. '늘어진, 늘어뜨린, 늘인'의 어원인 '느르'를 가훈차한 것이 獐(장)이다. 파주의 獐山(장산)은 순우리말로 '놀미'인데, '늘어진 산'에서 유래되었고, 지명에서 자주 쓰이는 獐項(장항)은 '노루가 다니는 길목'이 아니라, 길이 좁아지는 요긴한 길목이나 산줄기가 길게 뻗은 곳, 또는 막다른 산마루에 붙여지는 이름이다.(천소영, 『한국 지명어 연구』(이회문화사, 2003), 254쪽) 이는 화성 獐田里(장전리)의 '노루밭'을 노루와 연결하기보다는 '길게 늘어진 밭' 혹은 '넓은 밭'으로 풀이하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다.

경기도에서 獐(장)이 들어가는 지명은 가평 獐項峴(장항현)〔노루무고개〕, 연천 장학리 獐項(장항)마을, 평택 獐堂洞(장당동)〔노루댕이〕, 고양 獐項洞(장항동)〔노루멱이〕, 안성 미장리 獐項(장항)마을, 연천 장학리 獐項(장항)마을, 파주 장곡리 獐山(장산)마을 등이다.

■ 蟹(해) : 가장자리

지명에서는 갑각류 절지동물인 가재를 石蟹(석해) 또는 줄여서 蟹(해)로 표기한다. 우리가 지명에서 널리 볼 수 있는 佳才(가재), 可在(가재), 加佐(가좌), 佳士(가사), 加沙(가사), 嘉士(가사), 加實(가실), 稼室(가실) 또는 加谷(가곡), 柯谷(가곡), 佳谷(가곡) 등은 모두 가장자리의 뜻을 지닌 'ᄀᆞᆺ'에 기원을 둔 음차이다. 즉 중심지로부터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 또는 자연지물의 끝자락에 위치한 마을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사례가 가재울이다.

경기도에서는 고양 加佐洞(가좌동)〔가재울〕, 용인 加佐里(가좌리)〔가재울〕, 이천 加佐里(가좌리)〔가재울〕, 연천 가천리 加佐(가좌)마을〔가재울〕, 평택 가재동 佳坐(가좌)마을〔가재

울], 양주 우고리 加自(가자)마을[가재울], 연천 현가리 加尺(가척)마을[가재울], 이천 加佐里(가좌리)[가재울], 용인 가재월리 加佐(가좌)마을, 김포 가금리 加佐(가좌)마을[가재울], 오산 가수동 加士(가사)마을[가숫골], 용인 가창리 稼谷(가곡)마을[가울], 남양주 嘉谷里(가곡리), 평택 佳谷里(가곡리)[개실], 파주 가야리 加佐(가좌)마을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이천 蟹越里(해월리)의 순우리말은 '게넘이'이다. 중심마을로부터 산을 넘어 가장자리에 있는 마을이라 의미가 담겨있다.

■ 梨(이) : 선박

4대강 사업의 梨浦洑(이포보)로 유명해진 이포나루는 한자명이 梨浦(이포)이지만 과일 배[梨(이)]와는 무관한 지명이다. 이포의 우리말은 '배개'인 바, 이를 통하여 '배[船]가 많이 모이는 개[浦口]'에서 유래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포천 梨谷里(이곡리)의 원래 지명은 舟谷里(주곡리)였다. 따라서 '梨(이)'가 들어간 지명 대부분은 과일 배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舟(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浦口(포구)와 관련되거나 지형상 串(곶)인 곳의 지명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수원 梨木洞(이목동)과 이천 이황리의 梨木亭(이목정)마을처럼 순우리말 '배나무'로 적시되지 않은 '梨○'형 지명은 과일 배와 연결해 설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가평 梨泉里(이천리) : 원래 背峙(배치)라고 불렸던 점으로 미루어, 과일 배와는 무관한 假借(가차)일 가능성이 높다.

가평 梨花里(이화리) : 이곳에 鹽倉(염창)이 있었던 점, 현재 남이섬 가평선착장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浦口(포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그 포구를 '배곶(배를 댈 수 있는 포구가 있는 곶)'으로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곶'이 '배꽃'으로 음운변화를 하였고, 이를 훈차하여 '梨花(이화)'로 적은 데에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여주 梨湖里(이호리) : 순우리말 지명이 '배미'이다. 이 이호리는 남한강변을 끼고 있는 마을이다. 따라서 지명 속 '梨(이)'는 운송 수단 '배'를 가훈차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천 梨峙里(이치리) : 순우리말 지명이 '배치', '배티'이다. '배후에 고개가 있는 마을' 또는 '고개 아래 있는 마을'을 뜻한다.

화성 梨花里(이화리) : 먼 옛날부터 마을 앞이 바다여서 배가 마을 앞까지 드나들어서 뱃골[舟谷(주곡)]이라 불렀다 한다. 여기서 梨花(이화)는 배곶의 가훈차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참고로 인천 계양구 梨花洞(이화동) 역시 순우리말 지명이 '배고지', '배꼬지'로 정

확한 훈차를 하자면 '舟串(주곶)'이 된다.

안성 梨峴里(이현리) : 순우리말 지명이 '배티'로 정확한 훈차를 하자면 '背峙(배치)'가 맞을 듯하다.

이천 梨峙里(이치리) : 순우리말 지명이 '배티'로 정확한 훈차를 하자면 '背峙(배치)'가 맞을 듯하다. '뒤편에 고개가 있는 마을' 또는 '고개 아래 마을'이란 뜻이다.

파주 梨川里(이천리) : 문산천에 접하고 있는 입지로 미루어, '배가 드나드는 마을'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舟川(주천)'이 지명의 정체성에 부합한다.

■ 松(송) : 좁다, 솔다, 솟다

우리말에서 '솔다'는 '공간이 좁다'는 뜻이다. 예컨대 "살이 쪄서 저고리의 품이 솔다.", "요즘 유행하는 옷들은 소매도 솔고 바짓가랑이도 솔아서 우리 같은 사람은 입을 수가 없다.", "이렇게 솔아 빠진 방에서 어떻게 다섯 식구가 잘 수 있겠나?" 등이 그것이다. 이에 지명에서 '松(송)'은 細(세)의 우리말인 '솔'의 가훈차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 소나무 군락지는 禁山(금산)이라 하여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소나무 군락지가 있을 경우 禁山(금산)의 미칭인 錦山(금산)이나 琴山(금산)으로 마을 지명을 지었을 개연성이 높다. 또 조선시대 소나무에 대한 남벌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소나무가 무성한 마을은 흔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일단 지명에 松(송)이 들어갔을 경우, 무조건 소나무와 연결하여 지명을 유래하는 것은 지극히 조심해야 할 듯하다. 특히 松峴(송현)의 경우, 소나무가 무성한 고개이기보다는 큰고개[馬峙(마치)]와 대비되는 '작은 고개'를 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은 경기도 지명에서의 松峴(송현)이란 지명이 들어간 곳의 지형이 대부분 나지막한 고개인 사실로 뒷받침된다. 덧붙여 松山(송산)은 '작은 동산', 松谷(송곡)은 '좁고 작은 골짜기'에서 유래된 지명일 수도 있겠다.

광주 상번천리 松峴(송현) : 순우리말로는 솔치고개이다. 상번천리 지역이 조선시대 대표적인 백자도요지가 분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소나무가 무성한 고개가 있었을 가능성보다는 '좁은 고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화성 松橋里(송교리) : 순우리말로는 솔다리이다. 이를 두고 『지명유래집』에서는 소나무로 만든 다리라고 그 유래를 밝혔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木橋(목교)'라고 표기했을 것이다. 다리의 경우 그 재료에 따라 석교, 판교, 회교 등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솔다리는 '폭이 좁은 다리'에서 유래하였다고 보아야 옳을 듯하다.

연천 송현 : 순우리말은 솔고개 또는 솔개이다. 지형상 마을을 넘나드는 작은 고개들이 많은 점으로 미루어 소나무와는 무관한 지명으로 보인다.

부천 松內洞(송내동) : 『지명유래집』에서는 "소나무가 무성한 곳에 마을이 생겼다고 하는 데서 지은 이름"이라고 그 유래를 설명했지만 어색하다. 순우리말이 '솔안말'인 점으로 미루어, '작은 안쪽 마을'에서 그 유래를 찾는 것이 더 합당할 듯하다.

용인 松田里(송전리) : 현 지명을 보면 곡간에 좁고 긴 전답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도 송전은 '소나무 밭'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세장한 밭'에서 그 유래를 찾는 것이 옳겠다.

화성 茂松里(무송리) : 순우리말은 '수리재'이다. '수리'가 높은 곳을 의미하는 우리말인 점을 고려할 때, 소나무와는 완전히 무관한 지명이다. 주변 일대 중에서 높은 지형이기에 '수리재'〉'술재'〉'솔재'로 음은변화하였고, 이를 '松(송)'으로 가훈차한 것이다.

포천 松隅里(송우리) : 한자를 그대로 풀어 '소나무 모퉁이'로 하면 지명의 의미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솔모루'로 바꾸고, '나지막한 작은 산의 모퉁이에 자리한 마을'로 풀이하면 자연스럽다.

■ 柏(백) : 성곽

『용비어천가』에서 金城(금성)은 '쇠잣', 烏島城(오도성)은 '오도잣', 城山(성산)은 '잣뫼'로 표기했다. 이렇듯 성곽의 순우리말은 '잣'이었다. 우리나라는 '성곽의 나라'라 할 정도로 전국의 군사요충지와 주요 행정거점에는 성곽이 어김없이 분포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성곽에 유래한 지명이 아주 많다. 그런데 성곽이 있는 마을에 지명을 부여할 때, 성동리산성이 있는 영중면 잣골마을〔城洞里(성동리)〕, 파주 적성면 잣고개〔城峴(성현)〕, 포천 웃잣뒤〔上城北里(상성배리)〕 등과 같이 제대로 훈차를 한 경우도 있지만, '잣'을 堅果(견과) 잣으로 오인하여 '柏(백)'으로 가훈차한 사례도 적지 않은데, 栢峴(백현)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산성 아래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의 이름에 柏(백)이 음절로 들어갔다면, 그 유래를 일단 성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반면에 연천 백석리의 柏村(백촌)마을, 용인 고안리 栢洞(백동)마을처럼 순우리말 지명이 '잣나무골'로 부리는 경우에는 견과 잣과 관련된 지명으로 볼 수 있다.

남양주 내각리 栢岺(백령) : 순우리말은 '잣고개'이다. 남양주 별내면 광전리와 진접읍 내각리를 연결하는 고개이름이다. 이 고개길과 바로 인접해 퇴뫼산성이 자리한다.

용인 栢峴(백현) : 용인 동백동 백현마을의 순우리말 지명은 '잣고개'이다. 바로 배후에 石城山(석성산)산성(또는 보개산성)이 자리한다. 현재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곳이 백현으로 추정되는데, 산성이 있는 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마을이름을 '백현'으로 가훈차했다. 견과 잣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연천 백석리 栢村(백촌)마을 : 연천 미산면 백석리는 栢村里(백촌리)와 盆石里(분석리)를 합칭한 동리명인데, 백촌마을은 배후의 아미성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竹(죽) : 크다〔大〕

우리나라의 죽림 분포가능지역은 강원도 양양에서부터 동해안을 따라 내려와 경상북도 안동과 김천, 충청북도 영동, 전라북도 무주, 충청남도 부여로 연결되는 선의 이남지방이다. 그런데 경기도의 마을지명에서 '竹(죽)'이 들어가는 지명이 적지 않다. 『삼국지연의』에서 관우가 "대나무는 불에 탈지언정 그 마디가 휘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듯이 대나무는 절개의 상징이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죽림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도 지명으로 애용된 듯하다.

한편으로 竹(죽)은 크다〔大(대)〕의 假字(가자)로 사용되기도 한 듯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개인 죽령의 순우리말 지명이 '대재'인데 그 높은 고개에 대나무가 자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 파주 죽원리가 순우리말 '대굴원'에서 유래된 사실, 시흥 죽율동의 순우리말 지명이 '한배미', 또는 '대야미'인 사실 등이 이런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용인 죽전동도 탄천과 풍덕천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해 그 일대에 넓은 들이 형성되었기에 붙여진 이름일 가능성이 더 높다. 곧 大田(대전)이 더 적합한 지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죽전동 관내에 대지초등학교, 대일초등하교, 대청초등학교, 대현초등학교, 대일초등학교, 대덕초등학교 등 유독 '大(대)'자가 들어가는 학교이름이 많은 점으로도 뒷받침된다.

■ 梅(매), 鷹(응) : 뫼, 산

梅(매)를 비롯하여 每(매), 母(모), 鷹(응) 등이 들어간 한자는 山(산)의 순우리말인 뫼의 변형인 매, 메, 미, 모 등을 음차한 것이다. 전국에서 梅花(매화)가 들어간 지명이 메꼬지 또는 멧곶 등의 순우리말로 불리는 사실, 현 오산시의 오산동의 烏梅(오매)마을의 우리말 지명이 '오미, 외미'인 사실, 연천 杜梅里(두매리)의 우리말지명이 '두메골'인 사실, 화성 매곡리 梅安(매안)마을에 梅(매)를 山(산)으로 바꿀 때 '산 안쪽 마을'로 이해되는 사실 등

으로 미루어, 지명에서의 매화는 산이 돌출한 지형을 지칭한 것으로 '매화꽃'과는 무관하다. 또 산마을을 가리키는 매골, 맷골, 매실 등이 梅谷(매곡), 梅溪(매계), 梅室(매실) 등으로 차자되는 사실도 梅(매), 每(매), 母(모), 鷹(응) 등이 들어간 지명이 모두 음차된 지명임을 보여준다.

수원 好梅實(호매실) : 천보산 아래의 산마을이기에 지명 속에 매실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지명은 好梅室(호매실)로 바꾸어야 합당하다.

화성 梅花里(매화리) : 순우리말은 매골, 맷골이지만 원래는 매곶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바닷쪽으로 돌출한 마을 지형을 따서 뫼곶>메곶/매곶>매골 등으로 음운변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원 梅山里(매산리) : 순우리말은 매산이다. 팔달산에서 뻗어 내린 가지능선에 자리한 마을이기에 뫼산/메산 등으로 불리다 매산으로 음차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의미를 지닌 뫼와 산이 겹친 지명인데, 우리가 지금도 흔히 말하는 '역전앞'과 같은 경우이다.

수원 梅灘洞(매탄동) : 우리말 이름은 매탄이다. '매화가 있는 여울'에서 유래했기보다는 '여울을 포함하고 있는 산마을'에서 지명이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1910년대 1:50,000 지형도를 보면 청명산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산마을과 현재의 원천리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주 梅柳洞(매류동) : 순우리말은 '마릿골'이다. 이는 '마리+골'로 구성된 것인데, 여기서 '마리'를 'ᄆᆞᄅᆞ'의 변형으로 보면, 이 역시 산과 관련한 지명이며 따라서 매류도 마리를 음차한 지명으로 볼 수 있다.

이천 신하리 梅花谷(매화곡)마을 : 이 마을의 순우리말 지명은 '매지울'이었다. 화성 매화리와 마찬가지로 '뫼곶'에서 유래한 지명일 개연성이 있다.

연천 梅峴里(매현리) : 순우리말 지명은 '매고개'이다. '매화가 있는 고개'에서 유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안성 매산리 梅谷(매곡)마을 : 우리말 지명은 '미역골'이다. 여기서 梅(매)가 山(산)의 우리말인 '미'와 대응한다. 매화나무와는 무관한 지명일 듯하다.

광주 매산리 梅谷(매곡)마을 : 매봉산 아래에 있는 산마을이기에 '묏골'이라 부르다가 음운변화하여 '매골'이 된 것을 훈차하여 梅谷(매곡)이라 했을 가능성이 있다.

화성 삼존리 매봉산 등 : 경기도에는 화성 삼존리 매봉산을 비롯하여 동 운평리, 양평 운심리, 동 망미리, 동 회현리, 동 중동리, 동 고송리, 동 월산리, 고양 신원동, 여주 장풍리, 동 지내리, 광주 장심리 등에 곳곳에서 매봉산이 확인되며, 이를 한역하여 鷹峯山(응

봉산)으로 지도에 기록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를 그대로 받아 들여 대부분의 『지명유래집』에서 조류 매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 산지명에서의 매는 뫼가 음운변화한 것으로 매〔鷹(응)〕와는 별로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 葛(갈) : 갈라지다, 분기하다

지명에서 '가라'와 '가리'는 갈래 즉 分岐(분기)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런 가리와 가라의 말 모음 탈락형이 '갈'이고, 이를 음차하여 대부분 '葛(갈)'로 표기한다.(천소영, 『한국 지명어 연구』(이회문화사, 2003), 64쪽) 따라서 葛(갈)이 들어간 지명은 덩굴성 식물 칡과는 무관한 우리말 '갈'의 음차일 뿐이다. 그런데 『지명유래집』을 보면 葛(갈)이 들러간 지명에 대하여 그 유래를 훈차로 보아 칡과 연관하여 구하고 있다. 다만 양평 갈산리〔칡미〕와 평택 갈원동〔칡원, 칠원〕처럼 순우리말에 '칙', '칠', '칡미' 등이 들어간 경우에는 칡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안양 葛山(갈산), 안성 갈산리, 이천 갈산동, 구리 갈매동, 용인 갈담리 葛月(갈월)마을, 의왕 포일동 갈산마을 : 순우리말은 '갈뫼'이다. 주능선에서 갈라져 내려온 가지능선을 지칭한 것으로 파악된다.

과천 葛峴里(갈현리), 파주 葛峴里(갈현리), 안성 갈현동, 양평 갈현 : 순우리말은 '가루개'이다. 양쪽 지역을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고개 즉 '갈림고개'라는 의미를 지닌 듯하다.

평택 갈천리, 용인 상갈천·하갈천 : 큰 강의 본류로 흘러드는 支流(지류)인 갈천을 끼고 있는 마을을 뜻하는 듯하다.

평택 葛串里(갈곶리) : 순우리말은 '갈고지'이다. 연안에서 갈라져 돌출해 있는 곳이란 의미를 지닌 듯하다.

■ 楸(추) : 갈래

지명에서 가끔씩 확인되는 楸洞(추동) 혹은 楸谷(추곡)은 가래나무 열매로 인식하여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순우리말은 '가래울' 또는 '가래골'이므로, 이는 '가ᄅᆞ'에 어원을 둔 '갈라지다'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경기도에서는 광주 추자리 楸峴(추현)〔가래울고재〕, 안성 楸谷里(추곡리)〔가래울〕, 여주 사곡리 楸谷(추곡)마을〔가래울〕, 포천 楸洞里(추동리)〔가래울〕, 이천 신추리 楸洞(추동)〔가

래골], 파주 내포리 楸洞(추동)마을[가래울], 포천 가산리 楸谷(추곡)마을[가래울] 등이 이에 속한다.

■ 花(화), 化(화) : 곶(串)

세계유산 융건릉이 자리한 화산은 옛 수원부 읍치의 주산이었다가, 나중에는 현륭원의 주산이 되었다. 이 화산은 『수원부읍지』에 수록된 지도에는 곶산(串山)으로 표시되어 있다. 튀어나온 지형적 특징을 반영한 이름이다. 따라서 원래는 곶산으로 불렸는데, '곶'의 음을 살리되 뜻이 좋은 花山(화산)으로 바뀐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지명에서는 花(화)가 串(곶)의 가훈차로 사용된 경우가 가끔씩 있다. 특히 평지에 돌출한 지형이라든가, 아니면 바다와 하천에 뻗어나온 지형에 '花(화)'가 들어갈 경우 더욱 그러하다.

아주 드문 사례지만, 串(곶)을 化(화)로 가훈차한 경우도 있다. 고양 일산의 大化(대화)가 그런 곳으로, 순우리말 지명이 순우리말로 '한곶'인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大串(대곶)보다는 좋은 의미를 지닌 大化(대화)라는 미칭을 사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達(달), 月(월) : 높은 산

한자 達(달)의 순우리말 어원은 '돌'이다. 수식으로 사용할 때는 높다[高(고)]는 의미를 지니며, 지명에서 접미사로 사용될 때에는 山(산) 또는 峰(봉)의 의미를 지니나, '높은 곳의 거주지'라는 좀더 구체적인 곳을 지칭한다. 경기도에서는 현재의 고양시 일대에 자리했던 고구려의 達乙省縣(달을생현)이 대표적이다. '돌'을 남방에서는 月(월)로 주로 표기한다. 영암과 강진의 경계에 자리한 月出山(월출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월출산이 평지에 높이 돌출해 있기에 이런 산이름으로 불린 듯하다.

가평 達田里(달전리) : 현재 해발 150m 위치에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높은 곳에 밭이 있는 마을'이란 의미에서 유래된 듯하다.

군포 速達洞(속달동), 안양 박달동 : 군포 속달동은 수리산 아래의 깊고 높은 곳에 자리한 마을에서 유래된 듯하다. 이런 견지에서 안양 博達洞(박달동)도 넓고 높은 곳에 자리한 마을에서 지명이 유래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안산 달미역 : 달산리 마을이 자리했던 곳이다. 순우리말은 '달미'이다. 주변 일대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했던 마을이기에 '달미'라 부르고 그것을 達山(달산)으로 훈차했다. 현재

는 안산시 선부동 관할이다.

남양주 부평리 達馬垈(달마대) : 순우리말은 '달마골'이다. 높은 곳에 있는 넓은 지대에서 유래되었다.

파주 朴達山(박달산) : 광탄면에 위치한 산으로 해발 369m이다. 조선시대에는 발산(鉢山(발산))이라 불렸고 수리봉이라고도 불리었다 한다. 그 유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박달이라는 이름은 산에 박달나무가 많아 붙여졌으며, 수리봉이란 이름은 이 산에 독수리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능선이 넓고 편편하고〔博(박)〕하고 일대 다른 지역보다는 높기에 붙여진 이름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朴(박)'은 '博(박)'의 借字(차자)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전국에서 널리 확인되는 박달재 혹은 박달산은 박달나무와는 무관한 지명으로 볼 수 있다.

여주 高達山(고달산) 등 : 개성 仁達峰(인달봉), 고양 見達山(견달산)〔본달산〕, 화성 建達山(건달산), 파주 達里峴(달리현)〔달구니고개〕, 수원 八達山(팔달산) 등도 높은 산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파주 月籠山(월농산) : 月龍山(월룡산)으로 표기하고 우리말로는 '다랑산'이라 불렸다. 여기서 月(월)은 천체 달이 아니라, 높은 산을 뜻하는 'ᄃᆞᄅᆞ'의 변형인 '달'을 음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 이유는 우리말 지명이 '높다'는 의미가 내포된 '다랑산'이기 때문이다. 이 월룡산은 백제시대 산성이 자리하고, 또 옛 교하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다. 그래서 '月(월)'이라는 지명으로 한자 표기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연천 마전리 月谷(월곡)마을 : 산골마을을 훈차하여 월곡마을이라 했다.

화성 지월리 眞月(진월)마을 : 순우리말은 '진달아니'이다. 여기서 달을 山(산)으로 보면, '산 안 쪽에 자리한 마을'로 풀이된다. 『지명유래집』에서의 "마을 뒤에 있는 양념산이 달과 같이 생겼다 하여 진월이라 칭했다."는 견해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시흥 月串里(월곶리) : 순우리말 지명은 '달고지'이다. 月串(월곶)이란 지명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데, 천체 달과는 무관하고, '산이 바다 쪽으로 돌출한 지명'을 가리킨 경우이다. 적합한 훈차는 '山串(산곶)'이다. 그러나 월곶이 훨씬 부르기도 편하고 정감이 있다. 물론 달고지가 가장 아름답고 부르기 편하다.

평택 月谷洞(월곡동) : 순우리말 지명은 '달구리'이다. 산으로 둘러쌓인 지형에서 유래된 듯하다. '구리'를 '우리'의 변형으로 보면 '산이 우리처럼 둘러싼 마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안성 월향리 月老(월노)마을 : 순우리말은 '다리골'인데, 산을 뜻하는 고유어 'ᄃᆞᄅᆞ'의 흔적이 남아있다. 따라서 月(월)은 천체 달과는 무관하다.

안성 月井里(월정리) : 순우리말은 '달우물'이다. '산에 위치한 우물'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광주 지월리 雲月(운월)마을 : 마을 배후의 雲山(운산)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천체 달과는 무관한 지명일 가능성이 높다.

남양주 月山里(월산리) : 순우리말 지명은 '달메, 당미'이다. 지형을 고려할 때 '높은 산을 양쪽에 끼고 있는 마을'에서 유래한 지명일 가능성이 높다.

성남 月川峴(월천현) : 경부고속도로에서 성남과 서울의 경계에 있는 고개이다. 수도권 대표적 정체 지역으로 유명하여 방송에서 자주 접하는 지명이다. 순우리말로는 '달래내, 다리내'고개이다. 한자로는 縣川(현천)으로도 표기하는 바, 역시 懸(현)은 '높은 곳에 매달려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달래내고개의 핵심어절인 '달'은 한자 月(월)보다는 山(산)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주변 지역의 산보다는 높은 산을 의미한다.

하남 望月洞(망월동) : 지형으로 미루어 '검단산, 운길산 등 높은 산을 바라보고 있는 마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겠다.

포천 葛月里(갈월리) : 순우리말 지명은 '칡월, 칠월이, 칠원리'이다. 지형으로 미루어 '여러 갈래의 산에 둘러싸인 마을'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葛(갈)은 갈래, 月(월)은 뫼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안성 망월산, 고양 망월산 : '달을 바라보는 산'보다는 '望臺(망대, 봉수)가 설치되었던 산'에서 유래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안성 망월산에는 망대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月山(월산)은 '높은 산'을 의미한다.

■ 獨(독), 甕(옹) : 돌〔石(석)〕

獨島(독도)의 순우리말 지명은 돌섬이고, 이를 원칙대로 훈차하면 石島(석도)이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돌〔石(석)〕을 민간에는 '독'으로 불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돌의 고유어인 '독'을 獨(독) 또는 甕(옹)으로 표기하였다.

경기도에서 한자 獨(독)이 들어간 지명은 연천의 獨井(독정)마을, 남양주 용정리의 獨井(독정)마을, 안성 송정리의 獨井(독정)마을, 현재 그 지명이 사라진 김포의 甕井里(옹정리)〔독우물골〕, 광주 매산리의 獨山(독산)마을, 안성 진사리의 獨沙谷(독사곡)마을 등에서 확인된다. 여기서 獨井(독정)은 '돌우물', 獨山(독산)은 '돌산', 獨沙(독사)는 '돌모래'로 불린 사실로 미루어, 獨(독)은 '돌'의 가훈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獨(독)은 용기 '독'의 음차로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亭(정)과 결합하여 獨亭(독정)

으로 표기한 마을은 독 굽던 마을일 가능성이 높다.

안성 칠곡리 獨亭(독정)마을 : 홀로 떨어져 있는 정자이기보다는 바위 위에 세운 정자에서 유래되었을 듯하다. 그러나 현재 인천 용현동 獨亭(독정)마을의 순우리말이 '독쟁이'인 점으로 미루어 옹기를 굽던 마을일 가능성도 있다.

안성 도곡리 獨谷(독곡)마을, 포천 기지리 獨谷(독곡)마을 : 순우리말 지명은 '독골'이다. 옹기를 굽던 마을일 가능성이 높다.

여주 현암동 甕岩(옹암)마을 : 옹암은 독처럼 생긴 바위를 뜻하기보다는 독바위 즉 돌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牆(장) : 경계

우리말 담의 한자는 牆(장)이다. 그런데 우리말 담은 그 의미가 담장보다는 산과 계곡 등이 마을을 담장처럼 둘러싼 경우를 지칭한다. 또는 담은 일정한 경계를 의미하기도 하며, 한자 牆(장)에도 여러 의미 중에 '경계'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까닭에 광주 장지동 牆內(장내)마을, 여주 석우리 牆隅(장우)마을, 파주 장현리 牆坪(장평)마을, 화성 牆外里(장외리) 등의 지명 유래를 설명할 때에는, 『지명유래집』에서처럼 '담장 밖 마을'보다는 기존 마을 밖에 새롭게 생겨난 마을 정도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듯하다.

■ 三田(삼전) : 삼밭

三田渡碑(삼전도비)로 유명한 서울 송파구 三田渡(삼전도)의 순우리말은 '삼밭나루'이다. 삼밭을 三田(삼전)으로 표기한 것은 대표적인 음차인 바, 이는 원뜻과는 너무나 먼 지명이다. 훈차에 따라 麻田(마전)으로 해야 마땅하다. 경기도에서 삼밭을 三田(삼전)으로 표기한 경우는 여주 연양리 三田(삼전)마을이 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삼밭마을은 麻田(마전)으로 표기되어 있다.

■ 夜味(야미) : 논배미

포천 夜味里(야미리)는 큰 논배미가 있으므로 배미, 바미, 밤리, 야미, 율곡 등으로 불렀

다. 이에 4호선 大夜味驛(대야미역)의 역 이름은 '큰 논배미'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배미'가 논두렁으로 둘러싸인 논의 하나하나의 구역을 말하는 바, 야미·배미·바미가 들어가는 곳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큰 논이 펼쳐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군포 대야미동, 포천 야미리〔바미, 배미〕, 시흥 죽율리〔한배미, 대야미〕, 여주 율촌리〔배미〕, 포천 八夜里(팔야리)〔여덟배미〕, 가평 栗吉里(율길리)〔뱀기리〕 등이 있다. 이런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蛇(사), 栗(율), 夜(야)가 들어있는 지명의 경우, 한자 그대로의 뜻보다는 水田(수전)인 논〔畓(답)〕에서 유래한 지명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듯하다.

■ 古棧(고잔) : 곶안

古棧(고잔)은 우리말로 '곶안'이다. 이를 음차하여 한자로 적은 것이 古棧(고잔)이다. 경기도 서해안에는 곶이 발달하였고, 그런 만큼 곶 안에 자리한 마을도 많았다. 그래서 고잔이라 지명이 흔히 확인된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평택 청북읍 고잔리, 연천 왕징면 고잔상리와 고잔하리, 화성 고정리 고잔마을, 화성 고포리 고잔마을 등이 대표적이다.

■ 雲井(운정) : 굴우물

雲井(운정)이란 지명은 문학적이지만 우리말로 '구름우물'로 번역하면 원뜻을 크게 훼손한다. 雲井(운정)의 순우리말은 '굴우물'이다. 이런 雲井(운정, 굴우물)이란 지명은 전국에서 널리 확인되는데, 일반적으로 땅을 파서 만든 인위적 우물이 아니라, '동굴에서 나오는 우물', '굴에서 물이 쏟은 우물'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경기도에는 광주 유정리 雲井(운정)마을, 화성 운평리 雲井(운정)마을 등이 확인된다.

■ 수리/소리, 솔/술

순우리말 '수리'는 가장 높은 곳이나 그런 지형을 가리킨다. 머리의 꼭대기인 정수리, 꽃술, 입술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 수리가 음운변화한 말이 소리, 솔, 술 등인데 소리개/솔개, 독수리 등이 그것이다.

경기도의 지명 중에서 군포와 안산 경계의 修理山(수리산)이 가장 대표적이며, 가평 외방리의 옛 秀理峴里(수리현리)〔수리재〕, 화성 茂松里(무송리)〔수리재, 술재〕, 양평 鷲踰峴

(취유현)〔수리너머고개〕이 있다.

한편 시흥을 대표하는 명산인 소래산의 유래는 수리가 음운변화하 솔에 벼랑〔崖(애)〕가 더해져 솔애〉소래의 변화를 거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蘇定方(소정방)과 관련하여 그 유래를 풀이한 기존의 견해는 견강부회로 볼 수 있다.

어원으로 풀어본 경기도의 관심 지명

■ 판문점

판문점은 널문리 즉 넓은 들판이다. 그 들판을 가로 지르는 사천이라는 개천이 홍수 때에는 범람하여 넓은 들판이 물난리가 나서 널물리라 한 것인데 '널'은 널판지, '물'은 문이 되어 판문점(板門店)이 되었다.

■ 판교

판교도 '너들이'이며 '너들이'는 '넓은들'이다. 그 너들이가 '너드리' '널다리'가 되고 널판지로 변하여 판교(板橋)가 되었다. 널빤지로 만든 다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 월곶

김포에 월곶이 있고 강화도에도 월곶이 있다. 월곶은 땅의 튀어나온 지역이라는 뜻이다. '월月'은 다, 짜, 따, 땅이다. 달곶이 땅곶이자 월곶(月串)이다.

■ 모란시장

대동강 모란봉은 구부러진 강의 물 안쪽 지역이다. '물안의 봉우리'가 '물안봉' '무란봉' '모란봉'이 되었다. 대동강 바깥쪽은 곶밖이다. 성남시 5일장 모란시장은 모란봉이 고향인 북한 실향민들이 채소 장사를 하면서 생겨난 시장으로 고향의 이름을 따서 모란시장이 되었다. 모란꽃과는 관계가 없다.

■ 남이섬

가평의 남이섬은 '남쪽의 섬'이라는 뜻으로 '남의 섬'인데 그것이 '남이섬'이 되어 엉뚱하게 남이장군이 전사한 곳이 되어 가짜무덤까지 만들어 놓았다. 남이섬은 원래 섬이 아니었으나 일제 때 수력발전소를 만들기 위하여 댐을 막아서 물이 차올라 섬이 되었다. 춘천 쪽에서 바라보면 남쪽에 있는 섬이므로 '남의 섬' '남이섬'이 되었다. 남이장군의 무덤은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남전 2리 산145번지에 있다. 남전2리 바로 뒷동산이다. 무덤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것은 어머니가 남양홍씨라서 외가동네에 산소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 청평

청평은 가평과 마주보는 들판이므로 맞뜰, 막뜰인데 '막'이 '맑'이 되어 '맑들'이 되면서 맑은 들판, 청평(淸平)이 되었으니 원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고 말았다.

■ 오이도

시흥의 오이도는 조선 초기에 오즐애(吾叱哀), 오즐이도(吾叱耳島)로 불리다가 정조 때 오이도(烏耳島)가 되었다. 짐작컨대 외딴섬인 외도, 외섬, 오이섬이 오이도가 된 것으로 보인다. 참오이는 참외, 물오이는 물외로 '외'와 '오이'가 서로 넘나드는 이치와 같다고 하겠다.

■ 신갈

신갈(新葛)은 물이 갈라지는 곳으로 원래 갈리, 갈동이다. 신갈은 세 갈래이다. 하갈은 아랫 갈래이며, 구갈은 옛 갈래이며, 상갈은 윗 갈래, 중갈은 중간 갈래이다. 모두 칡과는 관계가 없다.

■ 죽전

용인 죽전동은 옛날에 큰 연못이 있어서 '대지(大池)'라 한 것이 나중에 못이 메워지고 넓은 평지가 되어 '대전(大田)'이 되었고 '대전'의 '대'가 '대나무 죽'으로 변하면서 '죽전(竹田)'이 되었다. 지금의 경기도 분당선 죽전역이다. 결국 죽전이나 대전이나 같은 뜻이다.

■ 임진강

파주의 임진강의 임진(臨津)은 앞 나루이다. '임'은 우리말의 '이마'이다. 남풍을 마파람이라고 하듯이 이마도 '남쪽' '앞'이라는 뜻이다. 신안군 임자도(荏子島)의 '임'도 이마, 앞, 앞섬이다. 즉 개성에서 서울로 건너오는 남쪽나루, 앞 나루가 임진나루이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 올 때 제사를 지낸 일과는 연관이 없다

■ 소래포구와 송도

솔모루는 좁은 모퉁이 마을이다, 소매가 좁은 것을 '소매가 솔다'라고 한다. 소래포구도 폭이 솔고 좁아 '솔포구' '소래포구'가 되었다. 소나무와는 연관이 없다. 송파(松坡)도 솔고개, 목이 좁은 고개, 즉 작은 언덕이라는 뜻이다. 경복궁옆의 송현(松峴)동도 폭이 솔고 좁은 고개인데 소나무가 많은 고개로 와전되었다. 송도라는 지명도 인천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있는데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방풍림으로 소나무를 심어서 송도가 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솔고 좁은 섬이라는 뜻인 솔섬에서 온 지명이다.

■ 동막골

'리里'와 '촌村'을 '마을'이라 함은 '막을幕乙'이니 마을입구에 이문里門 즉 방범 초소를 세운 때문이다. 즉 '막을'이 마을이 되었다. 이문은 한굉閈閎(閈-이문 한, 閎-마을문 굉)이라 했으며 마을의 큰 대문이라는 뜻이다. 연천의 동막골은 '독막'이라 하여 독을 짓는 막, 즉 독(옹기)을 굽는 가마터인 '독막골'이 '동막골' '동막리'가 되었다. 또 동막은 동네와 동떨어진 곳에 지어 놓은 중환자나 난치병 환자를 격리 치료하는 요양처로도 보고 있다.

■ 금곡

옛 우리 땅 간도는 '사이섬' '새섬'이 변한 땅이름이다. 사이섬이 '간도(間島)'로, 새섬이 '조도(鳥島)'와 '신도(新島)'로 변하고 또 새섬이 쇠섬, 소섬으로 변하여 '금도(金島)'와 '우도(牛島)'로도 변하였다. 조령(鳥嶺)도 문경 사이재, '문경새재'인데 '새'가 조(鳥)로 변한 이름이다. 삽교(揷橋)는 '사이다리' '좁은 다리' '샅다리'이다. 사타구니, 사타리도 '샅다리' '좁은 다리'에서 온 말이다. '사다리'도 좁은 다리이다. 삽시간도 좁은 시간, 짧은 시간이

다.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내인 '사이내'는 '새내'가 되어 '조천(鳥川)'이 되고 또 '쇠내'가 되어 '금천(金川)'이 되기도 한다. 즉 신령(新嶺), 조령, 새령, 새이령, 쇠령, 금령이 모두 같은 어원이다. 남양주의 금곡도 샛골, 사이골인데 쇳골로 발음이 변하면서 금곡(金谷)이 되었다.

닫는글

이상의 연구 결과를 경기도 행정지명과 우리땅 이름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우리말을 한역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방법 즉 훈차, 음차, 훈음차 중에서 가장 원뜻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는 마지막 훈음차이다. 큰 무덤을 뜻하는 '말무덤'을 '大墓(대묘)' 또는 '大墳(대분)'으로 한역하지 않고, 크다의 의미를 지닌 馬墳(마분)으로 한역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한자화된 지명만을 두고 볼 때, 그 원뜻에 오해를 초래하였고, 그런 결과가 각종 지명유래집에서 속출하고 있고, 현재에도 시군 단위 지명유래집과 향토지에서 무비판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간행한 『지명유래집』(1987)에서 흔하게 확인되는데, 앞으로 차근차근 바로 잡아나가야 할 교정 대상이다. 지역민과 후손에게 잘못된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전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행정지명에서 좋은 뜻을 지녔거나 교화적 상징이 담긴 松(송), 竹(죽), 栢(백), 梅(매), 梨(이) 등과 같은 식물명 한자를 비롯하여 馬(마), 獐(장), 鷹(응), 蟹(해), 수리 등과 같은 동물명 한자는 해당 지명의 속성과는 대부분 무관한 편이다. 그야말로 자기 마을의 이름을 좋은 뜻을 지닌 한자를 가져와 작명한 雅譯(아역)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어찌보면 소박한 소망의 발로라 할 수 있으나 지명이 지닌 속성에서 크게 어긋난 것은 분명하다. 어쨌든 행정지명에 동식물 이름이 들어간 경우, 그 유래를 한자의 뜻 풀이에서 찾는 방식은 극히 신중해야 할 점이다.

참고로 이처럼 원뜻이 훼손된 행정지명이 많은 이유로는 일제에 의하여 다급하게 행정구역의 개편과 한역화가 이루어진 점, 무엇보다도 物名(물명)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가 아니라 지방행정의 실무자와 이장에 의하여 작명이 이루어진 점, 작명자가 이해관계자인 까닭에 자기 고장을 의도적으로 미화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부족한 면이 많지만, 국어학적 측면에서 경기도 행정지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역 과정에서 원뜻이 훼손된 땅이름을 살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부족한 지면과 한정된 시간 때문에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 글이 시안적 성격이 강하므로 향후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결판을 내고자 한다.

경기도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경기도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류명환(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한 경기도는 북쪽으로 휴전선 너머 북한의 개성특별시와 황해북도, 동쪽으로 강원도, 서쪽으로 서해, 남쪽으로 충청남·북도와 접한다. '경기(京畿)'라는 칭호는 1018년(현종 9)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1390년(공양왕 2)에는 경기좌도(京畿左道)와 경기우도(京畿右道)로 분리되었다. 1402년(태종 2)에는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라고 하였다가 1413년(태종 13) 다시 경기로 고쳤다. 조선 후기까지 경기에는 38개 군현이 있었지만 1895년(고종 32) 23부제가 실시되면서 한성부·인천부·개성부·충주부·공주부·춘천부 등으로 분리되었다가 1896년 13도제가 실시되면서 다시 경기도로 복원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는 한성부가 경성부로 개칭된 후 경기도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에는 2부 20군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진행되었다. 이때 충청남도 평택군이 경기도 진위군에 편입되었고, 1938년 10월 1일 진위군이 평택군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에는 경성부가 서울시로 개칭되었고, 1946년에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로 승격되면서 경기도에서 분리되었다. 6·25전쟁 이후 경기도는 휴전선 이남의 2시 19군을 관할하게 되었다. 1981년에는 인천시가 인천직할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되었고, 1995년에는 경기도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다. 현재 경기도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28시 3군을 관할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소속된 행정구역은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17개 구, 37개 읍, 103개 면, 598개 법정동, 1,414개 법정리로 편제되어 있다.

경기도 지역은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대체로 한성부를 제외하고 38개 군현 체제를 유지한다. 38개 군현 중 휴전선 북쪽에 위치한 개성·풍덕, 인천광역시에 속한 인천·부평·교동·강화를 제외한 32개 군현과 충청도 평택 지역이 현재의 경기도 행정구역 범위에 전체 혹은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 지역의 고지명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세계지도, 조선전도, 도별도, 대축척 조선전도에 그려진 「경기지도」와 경기도 소속 군현을 그린 군현지도 등의 고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18세기부터 『해동지도(海東地圖)』(보물 제1591호)·『조선지도(朝鮮地圖)』(보물 제1587호)·『여지도(輿地圖)』 등 경기도 군현을 그린 여러 유형의 군현지도가 제작되었고, 19세기에는 『동여도(東輿圖)』(보물 제1358호)·『청구도(靑邱圖)』(보물 제1594호)·『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보물 제850호) 등 대축척 조선전도와 읍지의 부도가 편찬되어 경기도의 조선시대 모습은 이 지도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경기도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31개 시군과 하위 읍면동리를 대상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명과 조선시대 고지도에 언급된 지명 비교를 통해 경기도 지명의 역사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경기도 지명의 고지도 수록 개관

1) 조선 전기

현재 전하는 지도 중에 가장 오래된 지도가 1402년(태종 2) 제작된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이다. 이 지도의 조선도 부분에 경기도 관련 지명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경기도 38개 군현 중 개성부(開城府), 장단(長湍), 풍덕(豊德), 강화(江華), 교동(喬桐), 김포(金浦), 통진(通津), 인천(仁川), 부평(富平), 양천(陽川), 안산(安山), 고양(高陽), 교하(交河), 파주(坡州), 삭녕(朔寧), 가평(加平), 양주(楊州), 광주(廣州), 과천(果川), 금천(衿川), 용인(龍仁), 수원(水原), 남양(南陽), 양근(楊根), 지평(砥平), 여주(驪州), 이천(利川), 음죽(陰竹), 양지(陽智), 죽산(竹山), 안성(安城), 양성(陽城), 진위(振威) 등 33개 군현과 충청도 평택(平澤)이 표시되어 있다. 마전(麻田), 포천(抱川), 영평(永平), 적성(積城), 연천(漣川) 등 5개 군현은 누락된 반면, 1413년(태종 13)부터 1469년(예종 1) 사이에 있다가 여주목에 통합된 천녕(川縣)과 정포(井浦,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정포마을), 영종(永宗), 1629년(인조 7) 교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경기수영이 있던 화량(花梁,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과 수영(水營), 제물(濟物), 덕적도(德積島), 용호산(龍虎

山, 연천군 왕징면), 화악산(花岳山), 삼각산(三角山) 등이 기록되어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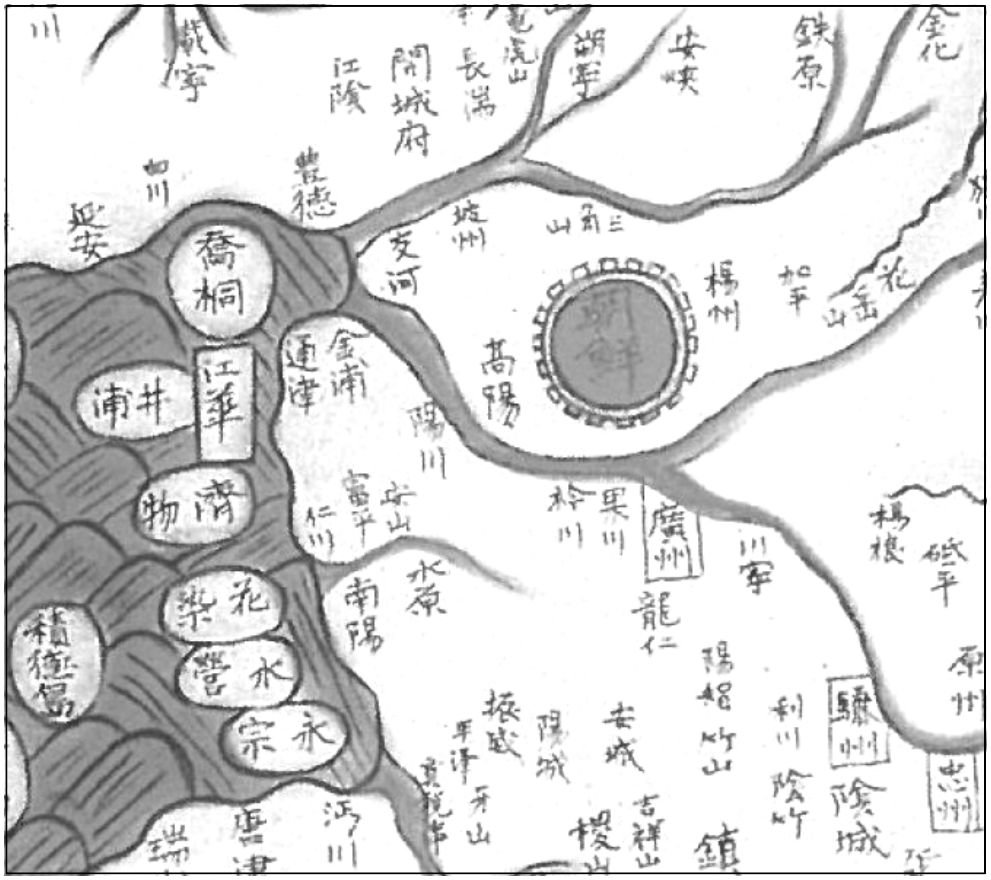


그림 1.「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경기 부분도 ,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조선 전기의 조선과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그린 세계지도인「화동고지도(華東古地圖)」에는 경도(京都)와 함께 개성부, 양주, 여주 등 38개 경기도 군현 및 충청도 평택의 지명만 기록되어 있다.(그림 2)

그림 2.「화동고지도」 경기 부분도 ,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또, 1530년(중종 25)에 완성된『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동람도(東覽圖)』「경기지도」에는 경도와 한성부(漢城府), 경기 38개 군현 지명, 한성부의 삼각산 · 북악(北岳) · 인왕산(仁王山) · 목멱산(木覓山), 개성부의 송악산(松岳山) · 오관산(五冠山) · 천마산(天磨山), 광주목의 검단산(黔丹山) · 대모산(大母山) · 남한산(南漢山), 여주목의 북성산(北城山) · 오압산(烏鴨山) · 여강(驪江), 이천도호부의 원적산(圓寂山) · 대덕산(大德山), 양근군의 마유산(馬遊山), 지평현의 용문산(龍門山) · 송현(松峴), 음죽현의 백족산(百足山), 양지현의 정수산(定水山), 죽산현의 정배산(鼎陪山) · 칠현산(七賢山), 과천현의 관악산(冠岳山) · 청계산(淸溪山), 수원도호부의 광교산(光敎山), 부평도호부의 계양산(桂陽山), 남양도호부의 비봉산(飛鳳山), 인천도호부의 소래산(蘇來山), 안산군의 수리산(修理山), 안성군의 서운산(瑞雲山) · 구포산(九苞山), 진위현의 무봉산(舞鳳山), 용인현의 보개산(寶蓋山), 양성현의 천덕산(天德山)이 수록되어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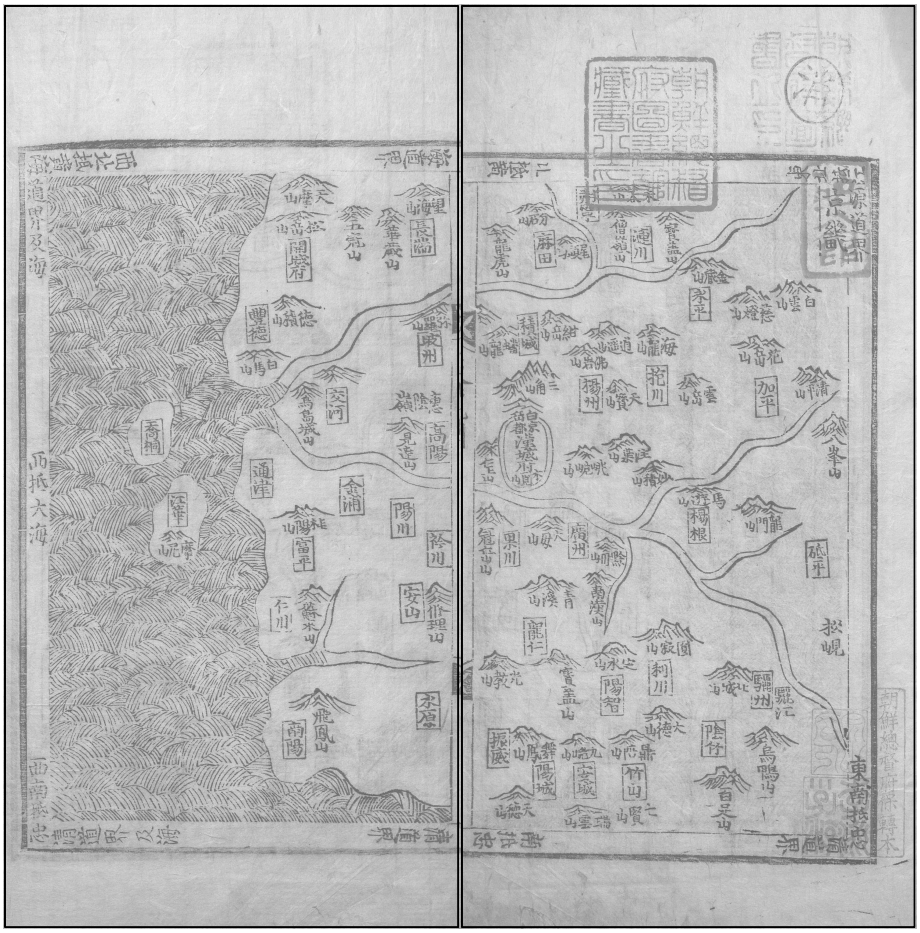


그림 3.『동람도』「경기지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또, 양주목의 소요산(逍遙山)·천보산(天寶山)·불암산(佛岩山)·주엽산(注葉山)·묘적산(妙寂山)·아차산(峨嵯山), 파주목의 미라산(彌羅山)·반룡산(蟠龍山), 고양군의 견달산(見達山)·혜음령(惠陰嶺), 영평현의 금장산(金藏山)·백운산(白雲山)·자등산(慈燈山), 포천현의 해룡산(海龍山)·운악산(雲岳山), 적성현의 감악산(紺岳山), 교하현의 오도성산(烏島城山), 가평현의 화악산·청평산(淸平山), 장단도호부의 망해산(望海山)·화장산(華藏山)·용호산, 강화도호부의 마니산(摩尼山), 풍덕군의 덕적산(德積山)·백마산(白馬山), 삭녕군의 말탄산(末呑山)·승령산(僧嶺山), 마전군의 미두산(尾頭山)·분석산(分石山), 연천현의 보개산(寶蓋山), 강원도 홍천현의 팔봉산(八峯山) 등 65개 산천이 묘사되어 있다.

2) 조선 후기

그림 4『해동지도』「광주부지도」/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7세기부터 조선전도와 『동람도』 유형의 도별도가 많이 제작되는데, 대부분의 「경기지도」에는 『동람도』에 기록된 지명들과 함께 남양도호부의 청명산(淸明山)·화량, 인천도호부의 제물·자연도(紫燕島)·영종·초지(艸芝), 강화도호부의 정포·철곶(鐵串), 교동도호부의 월곶(月串)·수영, 통진도호부의 문수산(文殊山), 파주목의 월롱산(月籠山), 교하군의 구조산(鷗鳥山), 영평현의 현등산(懸燈山), 경안도(慶安道)·도원도(桃源道)

· 양재도(良才道) · 중림도(重林道) · 평구도(平丘道) 등 역도가 표시되어 있다.

18세기 영조대부터 정상기『동국지도』유형의「경기지도」와 경기도 소속 군현을 그린 여러 가지 유형의 채색 필사본 군현지도가 제작되면서 읍치와 산천 외에도 세부적인 동리 지명들이 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군현지도는 오늘날 시군에 있는 주요 읍면동리 지명의 단초를 제공한다. 당시 가장 많이 제작된 형태는 회화식 군현지도인데, 홍문관에서 제작된『해동지도』(古大4709-41, 규장각한국학연구원)가 대표적이다. 이외에『여지도』(한貴古朝61-3, 국립중앙도서관),『광여도(廣輿圖)』(古4790-58,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여지도』(古4709-68, 규장각한국학연구원),『지승(地乘)』(奎1542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에도 유사한 내용이 묘사되어 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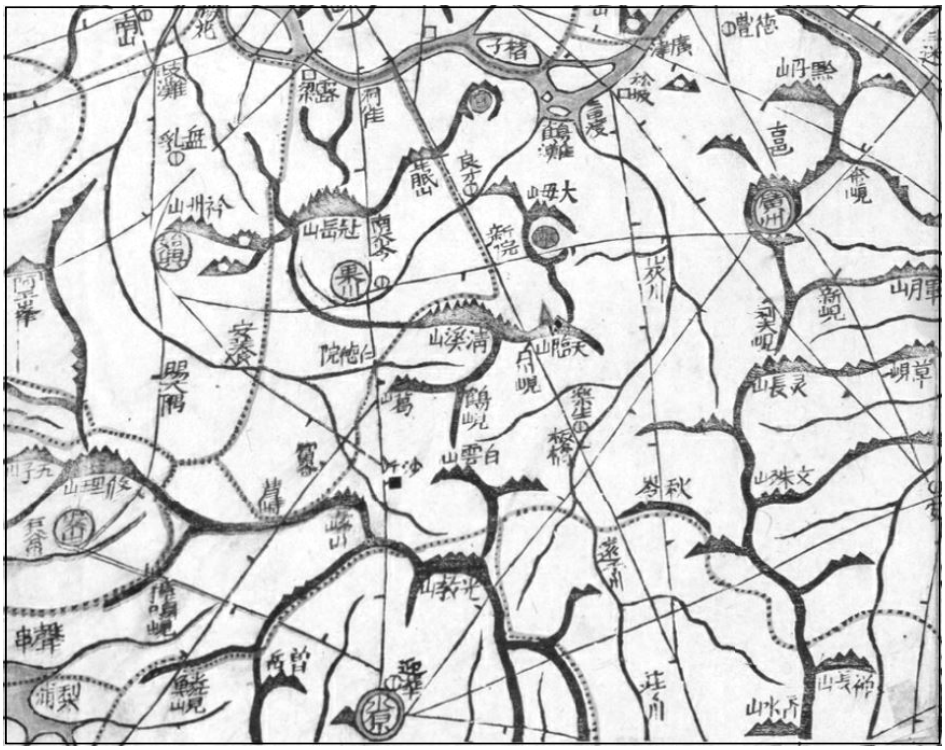


그림 5.『대동여지도』13책 4면 부분도 ,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또한, 대축척 조선전도 제작을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20리 방안지도는 비변사에서 제작한 대축척 전국 군현지도인데, 전국의 군현을 동일한 크기의 4.2㎝ 방안에 통일된 기호를 사용하여 편찬되었다. 이 방안지도는『조선지도』(奎16030, 규장각한국학연구원)가 대표적이며,『지도(地圖)』(귀K2-458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팔도지도(八道地

圖)』(한貴古朝61-21, 국립중앙도서관),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古貴2107-36, 국립중앙도서관)[보물 제1593호], 『강역전도(疆域全圖)』(일본 동양문고) 등이 있다.

19세기에는 김정호(金正浩)가 『조선지도』·『해동여지도』 등 20리 방안지도를 이용하여 1834년(순조 34)에 필사본 『청구도(靑邱圖)』, 1861년(철종 12)에 목판본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등 대축척 조선전도를 제작하였다.(그림 5) 또, 1872년에는 전국의 군현을 회화식으로 그린 『1872년 지방지도』가 제작되었는데, 이 지도에 경기도 주요 군현의 동리 지명이 가장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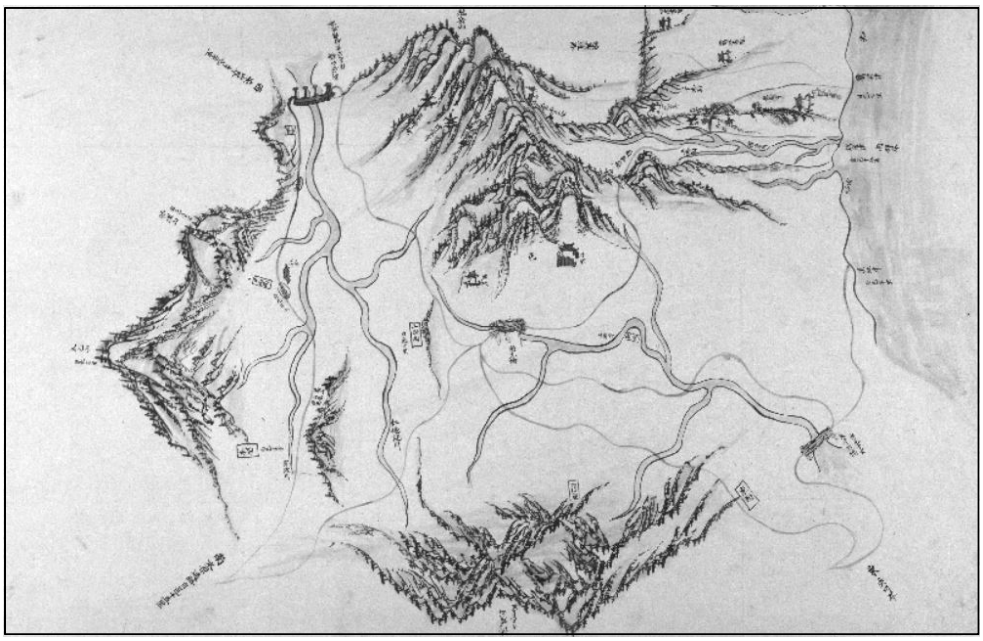


그림 6. 『1872년 지방지도』「과천지도」,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 시군별 법정동리 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경기도 31개 시군별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은 18세기 회화식 군현지도를 대표하는 『해동지도』, 18세기 방안식 군현지도를 대표하는 『조선지도』, 19세기 대축척 조선전도를 대표하는 『대동여지도』, 19세기 전국의 군현을 그린 『1872년 지방지도』 등 4개 지도를 대상으로 현재 사용하는 법정동리 지명과 관련성이 있는 지명을 발췌하여 비교하였다. 다만, 『조선지도』에 누락된 가평군, 양주목, 연천현, 영평현, 포천현 등 5개 군현은 거의 동

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古4709-111,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수록된 지명으로 대체하였다.

1) 가평군(加平郡)[1읍 5면 61리]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가평읍(加平邑)[14개 리] 개곡리(開谷里), 경반리(鏡盤里), 금대리(金垈里), 달전리(達田里), 대곡리(垈谷里), 두밀리(杜密里), 마장리(馬場里), 복장리(福長里), 산유리(山柳里), 상색리(上色里), 승안리(升安里), 읍내리(邑內里), 이화리(梨花里), 하색리(下色里)	가평 색현(色峴)	가평 색현(色峴)	가평 색치(色峙)	가평 색현(色峴)
북면(北面)[8개 리] 도대리(道大里), 목동리(沐洞里), 백둔리(柏屯里), 소법리(所法里), 이곡리(梨谷里), 적목리(赤木里), 제령리(濟寧里), 화악리(華岳里)	가평 북면(北面) 가평 화악산(華岳山) 영평 적목촌(赤木村)	가평 북면(北面) 가평 화악산(花岳山) 영평 적목치(赤木峙)	가평 적목치(赤木峙) 가평 화악(華岳)	가평 북면(北面) 가평 화악산(華岳山) 영평 적목리도성(赤木里刀城)
상면(上面)[10개 리] 덕현리(德峴里), 봉수리(燧藪里), 상동리(霜洞里), 연하리(連下里), 원흥리(元興里), 율길리(栗吉里), 임초리(林草里), 태봉리(胎封里), 행현리(杏峴里), 항사리(項沙里)	가평 연동역(連洞驛)	가평 연동역(連洞驛)	가평 연동(連洞)	가평 상면(上面) 가평 연동역촌(連洞驛村)
설악면(雪岳面)[15개 리] 가일리(可逸里), 묵안리(墨安里), 미사리(彌沙里), 방일리(訪逸里), 사룡리(沙龍里), 선촌리(仙村里), 설곡리(雪谷里), 송산리(松山里), 신천리(新川里), 엄소리(嚴沼里), 위곡리(位谷里), 이천리(梨川里), 창의리(倉宜里), 천안리(天安里), 회곡리(檜谷里)		양근 방일천(放逸川)	양근 방일천(放逸川)	
조종면(朝宗面)[7개 리] 대보리(大報里), 마일리(馬日里), 상판리(上板里), 신상리(新上里), 신하리(新下里), 운악리(雲岳里), 현리(縣里)	가평 운악산(雲岳山) 가평 조종면(朝宗面)	가평 운악산(雲岳山) 가평 조종면(朝宗面)	가평 운악(雲岳) 가평 조종(朝宗)	가평 대보단고지(大報壇古址) 가평 운악산(雲岳山) 가평 조종천(朝宗川)
청평면(淸平面)[7개 리] 고성리(高城里), 대성리(大成里), 삼회리(三會里), 상천리(上泉里), 청평리(淸平里), 하천리(下泉里), 호명리(虎鳴里)	가평 감천역(甘泉驛) 가평 고성령(高城嶺) 가평 청평천(靑平川)	가평 감천역(甘泉驛) 가평 청평산(淸平山)	가평 감천(甘泉) 가평 청평천(淸平川)	가평 감천역촌(甘泉驛村) 가평 고성현(高城峴) 가평 청평천(淸平川) 가평 호명현(虎鳴峴)

표 1. 가평군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가평군은 조선 후기 가평군에 속했던 지역이다. 1942년에는 양평군 설악면이 편입되었는데, 조선 후기 양근군 북상도면(北上道面)과 북하도면(北下道面) 지역으로 1914년 양평군 설악면으로 개편되었던 곳이다. 가평군 61개 법정리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가평읍 산유리(山柳里, 남면 山踰洞+柳洞), 설악면 가일리(可逸里, 북상도면 可亭里+大逸里)·사룡리(沙龍里, 북하도면 沙店里+龍門川里)·선촌리(仙村里, 북하도면 探仙里+石村里)·설곡리(雪谷里, 북상도면 小雪里+城谷里)·송산리(松山里, 북하도면 松里+水山里)·신천리(新川里, 북하도면 新村里+沙斤川里)·위곡리(位谷里, 북하도면 位育里+道谷里)·창의리(倉宜里, 북하도면 倉里+三宜里)·천안리(天安里, 북상도면 天峴里+안성골) 등 10개가 확인된다. 즉 설악면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평군 법정리 지명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기존의 동리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가평군의 고지명은 『해동지도』와 『조선지도』·『대동여지도』·『1872년 지방지도』에 거의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가평읍 상색리(上色里)와 하색리(下色里)는 색현(色峴) 혹은 색치(色峙)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북면(北面)은 모든 지도에 기록되어 있으며, 북면 적목리(赤木里)는 1914년 영평군 이동면에서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영평지도」에 적목촌(赤木村) 혹은 적목치(赤木峙)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 북면 화악리(華岳里)는 화악산(華岳山) 혹은 화악산(花岳山)으로 수록된 산 이름과 관련이 있다. 상면 연하리(連下里)는 조선시대에 있던 연동역(連洞驛)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설악면은 양근군에서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양근지도」에 방일리(訪逸里)와 관련이 있는 방일천(放逸川)이 묘사되어 있다. 조종면(朝宗面)은 고려시대 조종현(朝宗縣)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조종면(朝宗面), 조종천(朝宗川) 등의 관련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조종면 운악리(雲岳里)는 이곳에 위치한 운악산(雲岳山)을 대표 지명으로 사용하였다. 청평면(淸平面)은 청평천(靑平川)·청평산(淸平山) 등의 관련 지명이 수록되어 있고, 청평면 상천리(上泉里)와 하천리(下泉里)는 감천역(甘泉驛)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청평면 고성리(高城里)는 고성령(高城嶺), 호명리(虎鳴里)은 호명현(虎鳴峴) 등에서 관련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2) 고양시(高陽市)[3구 53동]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덕양구(德陽區)[32개 동] 강매동(江梅洞), 고양동(高陽洞), 관산동(官山洞), 내곡동(內谷洞), 내유동(奈遊洞), 대자동(大慈洞),	고양 대자산(大玆山) 고양 벽제점(碧蹄店) 고양 신원점(新院店) 양주 북한(北漢)	고양 벽제역(碧蹄驛) 고양 원당면(元堂面) 양주 북한(北漢)	고양 벽제(碧蹄) 고양 신원(新院) 고양 행주(幸州) 고양 화전리(花田里)	고양 관산리(館山里) 고양 대자상리(大慈上里) 고양 대자하리(大慈下里) 고양 대장리(大壯里)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대장동(大壯洞), 덕은동(德隱洞), 도내동(道乃洞), 동산동(東山洞), 벽제동(碧蹄洞), 북한동(北漢洞), 삼송동(三松洞), 선유동(仙遊洞), 성사동(星沙洞), 신원동(新院洞), 신평동(新坪洞), 오금동(梧琴洞), 용두동(龍頭洞), 원당동(元堂洞), 원흥동(元興洞), 주교동(舟橋洞), 지축동(紙柵洞), 토당동(土堂洞), 행신동(幸信洞), 행주내동(幸州內洞), 행주외동(幸州外洞), 향동동(香洞洞), 현천동(玄川洞), 화전동(花田洞), 화정동(花井洞), 효자동(孝子洞)				고양 덕은리(德隱里) 고양 도내동리(道乃洞里) 고양 동행신리(東幸信里) 고양 삼송리(三松里) 고양 서행신리(西幸信里) 고양 신원리(新院里) 고양 용두리(龍頭里) 고양 주교리(舟橋里) 고양 토당리(土堂里) 고양 행주리(幸洲里) 고양 향동리(香洞里) 양주 북한(北漢)
일산동구(一山東區)[13개 동] 마두동(馬頭洞), 문봉동(文峰洞), 백석동(白石洞), 사리현동(沙里峴洞), 산황동(山黃洞), 설문동(雪門洞), 성석동(城石洞), 식사동(食寺洞), 장항동(獐項洞), 정발산동(鼎鉢山洞), 중산동(中山洞), 지영동(芝英洞), 풍동(楓洞)	고양 문봉서원(文峰書院)			고양 마두리(馬頭里) 고양 백석리(白石里) 고양 사리현(沙里峴) 고양 산황리(山黃里) 고양 식사리(食寺里) 고양 정발산(鼎鉢山) 고양 풍동리(楓洞里)
일산서구(一山西區)[8개 동] 가좌동(加佐洞), 구산동(九山洞), 대화동(大化洞), 덕이동(德耳洞), 법곶동(法串洞), 일산동(一山洞), 주엽동(注葉洞), 탄현동(炭峴洞)			고양 주엽리(注葉里)	고양 가좌동(加佐洞) 고양 구산리(九山里) 고양 대화리(大化里) 고양 법곶리(法串里) 고양 주엽리(注葉里)

표 2. 고양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고양시는 조선 후기 고양군에 속했던 지역이다. 다만, 덕양구 북한동과 효자동은 경성부, 덕양구 벽제동 · 선유동 · 오금동 · 지축동은 양주목, 덕양구 신평동은 김포군에 편제되었던 곳이다. 1992년에는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되었다. 고양시 53개 법정동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일산동구 성석동(城石洞, 구이면 城洞+교하현 上支石里), 일산서구 일산동(一山里, 중면 瓦洞 개칭)을 들 수 있으며, 대부분 지역은 기존의 동리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고양시의 고지명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동지도』와 『조선지도』 · 『대동여지도』에 선택된 지명은 벽제(碧蹄)와 신원(新院) 등 일부에 불과하다. 덕양구 벽제동(碧蹄洞) · 신원동(新院洞)은 조선시대 역원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각각 벽제점(碧蹄店) · 벽제역(碧蹄驛), 신원(新院) · 신원점(新院店) 등으로 수록되어 있다. 덕양구 북한동(北漢洞)은 경성부 은평면 지역이 1914년 고양군에 편입된 곳

으로 북한산(北漢山)을 끼고 있어 유래된 지명이다. 일산동구 문봉동(文峰洞)은 민순(閔純)·남효온(南孝溫)·김정국(金正國)·기준(奇遵)·정지운(鄭之雲)·홍이상(洪履祥)·이신의(李愼儀)·이유겸(李有謙) 등 고양8현(高陽八賢)을 모신 문봉서원(文峰書院)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다. 덕양구 화전동(花田洞)과 일산서구 주엽동(注葉洞)은 『대동여지도』에도 화전리(花田里), 주엽리(注葉里)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1872년 지방지도』에는 덕양구 지역에 관산리(館山里) · 대자상리(大慈上里) · 대자하리(大慈下里) · 대장리(大壯里) · 덕은리(德隱里) · 도내동리(道乃洞里) · 동행신리(東幸信里) · 삼송리(三松里) · 서행신리(西幸信里) · 신원리(新院里) · 용두리(龍頭里) · 주교리(舟橋里) · 토당리(土堂里) · 행주리(幸洲里) · 향동리(香洞里), 일산동구 지역에 마두리(馬頭里) · 백석리(白石里) · 사리현(沙里峴) · 산황리(山黃里) · 식사리(食寺里) · 정발산(鼎鉢山) · 풍동리(楓洞里), 일산서구 지역에 가좌동(加佐洞) · 구산리(九山里) · 대화리(大化里) · 법곶리(法串里) · 주엽리(注葉里) 등 다수의 동리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3) 과천시(果川市)[10동]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10개 동] 갈현동(葛峴洞), 과천동(果川洞), 관문동(官門洞), 막계동(莫溪洞), 문원동(文原洞), 별양동(別陽洞), 부림동(富林洞), 원문동(原文洞), 주암동(注岩洞), 중앙동(中央洞)				

표 3. 과천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과천시는 조선 후기 과천현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과천군 군내면이 시흥군 과천면으로 되었다가, 1986년에 과천시로 승격되었다. 과천시 10개 법정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의 동리 지명과 1982년에 개칭한 지명을 사용하였다. 한편, 과천시의 고지명은 『해동지도』와 『조선지도』·『대동여지도』·『1872년 지방지도』에서 관련 법정동 지명이 확인되지 않는다.

4) 광명시(光明市)[8동]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8개 동] 가학동(駕鶴洞), 광명동(光明洞), 노온사동(老溫寺洞), 소하동(所下洞), 옥길동(玉吉洞), 일직동(日直洞), 철산동(鐵山洞), 하안동(下安洞)				시흥 광명리(光明里) 시흥 노온사리(老溫寺里) 시흥 소하리(所下里) 시흥 일직리(一直里) 시흥 철산리(鐵山里)

표 4. 광명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광명시는 조선 후기 시흥현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흥군 서면과 남면이 병합되어 시흥군 서면으로 되었다. 1979년에는 서면이 소하읍으로 승격되었고, 1981년에는 소하읍이 광명시가 되었다. 광명시 8개 법정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기존의 동리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광명시의 고지명은 『해동지도』와 『조선지도』·『대동여지도』에서 관련 법정동 지명이 확인되지 않지만 『1872년 지방지도』「시흥현지도」에 광명리(光明里), 노온사리(老溫寺里), 소하리(所下里), 일직리(一直里), 철산리(鐵山里) 등 5개 동리가 수록되어 있다.

5) 광주시(廣州市)[3읍 4면 13동 69리]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13개 동] 경안동(京安洞), 목동(木洞), 목현동(木峴洞), 삼동(三洞), 송정동(松亭洞), 쌍령동(雙嶺洞), 역동(驛洞), 장지동(墻枝洞), 중대동(中岱洞), 직동(直洞), 탄벌동(炭筏洞), 태전동(胎田洞), 회덕동(回德洞)	광주 경안면(慶安面) 광주 쌍령(雙嶺)	광주 경안면(慶安面) 광주 쌍령(雙岭)	광주 경안(慶安) 광주 쌍령(雙嶺)	광주 경안면(慶安面) 광주 대쌍령(大雙嶺) 광주 소쌍령(小雙嶺)
곤지암읍(昆池岩邑)[16개 리] 건업리(建業里), 곤지암리(昆池岩里), 만선리(晩仙里), 봉현리(鳳峴里), 부항리(釜項里), 삼리(三里), 삼합리(三合里), 수양리(水陽里), 신대리(新垈里), 신촌리(新村里), 연곡리(蓮谷里), 열미리(悅美里), 오향리(五香里), 유사리(柳寺里), 이선리(二仙里), 장심리(長深里)	광주 곤지암주막(昆池岩酒幕)	광주 곤지암(昆之岩)	광주 곤지애(昆池厓)	광주 곤지암(崑池岩)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오포읍(五浦邑)[7개 리] 고산리(高山里), 능평리(陵坪里), 매산리(梅山里), 문형리(文衡里), 신현리(新峴里), 양벌리(陽筏里), 추자리(楸自里)	광주 신현(新峴)	광주 오포면(五浦面)	광주 신현(新峴)	광주 오포면(五浦面)
초월읍(草月邑)[12개 리] 늑현리(勒峴里), 대쌍령리(大雙嶺里), 도평리(島坪里), 무갑리(武甲里), 산이리(酸梨里), 서하리(西霞里), 선동리(仙東里). 신월리(新月里), 쌍동리(雙東里), 용수리(龍水里), 지월리(池月里), 학동리(鶴東里)	광주 늑현(勒峴) 광주 무갑산(武甲山) 광주 초월면(草月面)	광주 무갑산(武甲山) 광주 초월면(草月面)	광주 무갑산(武甲山)	광주 무갑산(武甲山) 광주 초월면(草月面)
남종면(南終面)[8개 리] 검천리(檢川里), 귀여리(歸歟里), 금사리(金沙里), 분원리(分院里), 삼성리(三成里), 수청리(水靑里), 우천리(牛川里), 이석리(二石里)	광주 금사면(金沙面) 양근 우천(牛川)	양근 남종면(南終面) 양근 분원리(分院里)	광주 우천(牛川) 양근 분원(分院) 양근 수청진(水靑津)	양근 귀여리(歸歟里) 양근 남종면(南終面) 양근 분원(分院)
남한산성면(南漢山城面)[8개 리] 검복리(黔伏里), 광지원리(光池院里), 불당리(佛堂里), 산성리(山城里), 상번천리(上樊川里), 엄미리(奄尾里), 오전리(梧田里), 하번천리(下樊川里)				광주 불당봉(佛堂峯)
도척면(都尺面)[8개 리] 궁평리(宮坪里), 노곡리(老谷里), 도웅리(陶雄里), 방도리(芳都里), 상림리(祥林里), 유정리(柳井里), 진우리(鎭牛里), 추곡리(楸谷里)	광주 도척면(都尺面)			광주 도척면(都尺面)
퇴촌면(退村面)[10개 리] 관음리(觀音里), 광동리(光東里), 도마리(道馬里), 도수리(陶水里), 무수리(無愁里), 영동리(嶺東里), 오리(梧里), 우산리(牛山里), 원당리(元堂里), 정지리(亭支里)	광주 도마산(刀馬山) 광주 퇴촌면(退村面)	광주 퇴촌면(退村面)		광주 도마치(刀馬峙) 광주 우산(牛山) 광주 퇴촌면(退村面)

표 5. 광주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광주시는 조선 후기 광주부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에는 양평군 남종면이 편입되었는데, 조선 후기 양근군 남종면에 편제되었던 곳이다. 2001년에는 광주군이 광주시로 승격되었다. 광주시 82개 법정동리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목현동(木峴洞, 경안면 木甘洞+鳥峴里), 장지동(墻枝洞, 경안면 牆內洞+前枝里+後枝里), 중대동(中垈洞, 경안면 中里+垈洞), 탄벌동(炭筏洞, 경안면 炭洞+筏院里), 곤지암읍 만선리(晩仙里, 실촌면 晩谷洞+上塔仙洞+下塔仙洞)·부항리(釜項里, 실촌면 釜谷洞 +牛項洞)·삼합

리(三合里, 세 마을 통합) · 수양리(水陽里, 실촌면 九水洞+九陽里) · 유사리(柳寺里, 실촌면 柳余里+寺洞) · 이선리(二仙里, 실촌면 內仙洞+外仙洞) · 장심리(長深里, 실촌면 長在洞+洞深里), 남종면 검천리(檢川里, 남종면 檢丹里+沙川里) · 삼성리(三成里, 세 마을 통합) · 이석리(二石里, 퇴촌면 石湖洞+石林洞), 남한산성면 엄미리(奄尾里, 군내면 奄峴里+尾羅洞) · 오전리(梧田里, 군내면 梧野洞+屯田里), 도척면 도웅리(陶雄里, 도척면 陶峴里+雄洞) · 방도리(芳都里, 도척면 芳燈里+內都尺里) · 유정리(柳井里, 도척면 柳余洞+雲井洞) · 진우리(鎭牛里, 도척면 鎭村里+牛峙洞), 오포읍 고산리(高山里, 오포면 高岑里+許山里) · 능평리(陵坪里, 오포면 陵谷里+倉坪里) · 매산리(梅山里, 오포면 梅谷里+獨山里) · 신현리(新峴里, 오포면 新村里+台峴里) · 양벌리(陽筏里, 오포면 陽村里+筏里) · 추자리(楸自里, 오포면 楸谷里+自作里), 초월읍 선동리(仙東里, 초월면 仙掌洞+下東幕洞) · 신월리(新月里, 초월면 新丹里+斗月里) · 쌍동리(雙東里, 초월면 小雙嶺里+東山里) · 용수리(龍水里, 초월면 龍頭里+水入里) · 지월리(池月里, 초월면 池谷里+雪月里) · 학동리(鶴東里, 초월면 鶴峴里+上東幕洞+中東幕洞), 퇴촌면 광동리(光東里, 퇴촌면 光福洞+東垈洞) · 도수리(陶水里, 퇴촌면 陶池洞+水東里) · 정지리(亭支里, 퇴촌면 亭子洞+支渭洞) 등 35개가 확인된다.

한편, 광주시의 고지명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이 없었던 읍면 지명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안동(京安洞) · 쌍령동(雙嶺洞)은 경안면(慶安面) · 쌍령(雙嶺)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곤지암읍 곤지암리(昆池岩里)는 지도에 따라 곤지암주막(昆池岩酒幕), 곤지암(昆之岩), 곤지애(昆池厓), 곤지암(崑池岩) 등 발음이 같은 한자를 사용하여 표기되어 있다. 오포읍(五浦邑) · 초월읍(草月邑) · 도척면(都尺面) · 퇴촌면(退村面)은 오포면 · 초월면 · 도척면 · 퇴촌면으로 수록되어 있다. 오포읍 신현리(新峴里)는 신현(新峴), 초월읍 늑현리(勒峴里)는 늑현(勒峴), 초월읍 무갑리(武甲里)는 무갑산(武甲山), 남종면 분원리(分院里)는 분원(分院), 남종면 우천리(牛川里)는 우천(牛川), 퇴촌면 도마리(道馬里)는 도마산(刀馬山) · 도마치(刀馬峙)에서 관련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6) 구리시(九里市)[7동]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7개 동] 갈매동(葛梅洞), 교문동(橋門洞), 사노동(四老洞), 수택동(水澤洞), 아천동(峨川洞), 인창동(仁倉洞), 토평동(土坪洞)				

표 6. 구리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구리시는 조선 후기 양주목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양주군 구지면(九旨面)과 망우리면(忘憂里面)이 병합되어 양주군 구리면(九里面)으로 되었다. 1963년에는 구 망우리면 지역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편입되었다. 1973년에는 구리면이 구리읍으로 승격되었고, 1986년에는 구리읍이 구리시가 되었다. 구리시 7개 법정동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교문동(橋門洞, 구지면 白橋里+里門洞), 아천동(峨川洞, 구지면 峨嵯洞+牛尾川里), 인창동(仁倉洞, 구지면 仁章里+東倉里), 토평동(土坪洞, 구지면 土幕里+坪村里) 등 4개가 확인된다. 한편, 구리시의 고지명은 『해동지도』와 『조선지도』·『대동여지도』·『1872년 지방지도』에서 관련 법정동 지명이 확인되지 않는다.

7) 군포시(軍浦市)[9동]

군포시는 조선 후기 과천현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과천군 남면이 그대로 시흥군 남면으로 되었다. 1979년에는 남면이 군포읍으로 승격되었고, 1989년에는 군포읍이 군포시가 되었다. 1994년에는 화성군 반월면 일부가 편입되었는데, 과거 광주부 북방면(北方面) 지역으로 1906년 안산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수원군 반월면으로 개편되었던 곳이다. 군포시 9개 법정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의 동리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9개 동] 금정동(衿井洞), 당동(堂洞), 당정동(堂井洞), 대야미동(大夜味洞), 도마교동(渡馬橋洞), 둔대동(屯垈洞), 부곡동(富谷洞), 산본동(山本洞), 속달동(速達洞)			과천 부곡(富谷)	과천 군포장(軍浦場) 과천 군포천(軍浦川)

표 7. 군포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한편, 군포시의 고지명은 『해동지도』와 『조선지도』에서 관련 법정동 지명이 확인되지 않는다. 부곡동(富谷洞)은 『대동여지도』 과천현 부분도에 부곡(富谷)으로 수록되어 있고, 『1872년 지방지도』 「과천지도」에는 군포시 지명의 기원이 된 군포장(軍浦場)과 군포천(軍浦川)이 기록되어 있다.

8) 김포시(金浦市)[3읍 3면 9동 57리]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9개 동] 감정동(坎井洞), 걸포동(傑浦洞), 구래동(九來洞), 마산동(麻山洞), 북변동(北邊洞), 사우동(沙隅洞), 운양동(雲陽洞), 장기동(場基洞), 풍무동(豊舞洞)	김포 걸포리(傑浦里) 김포 운양산(雲陽山)			김포 운양산(雲陽山)
고촌읍(高村邑)[5개 리] 신곡리(新谷里), 전호리(錢湖里), 태리(台里), 풍곡리(楓谷里), 향산리(香山里)	김포 신곡(薪谷)			
양촌읍(陽村邑)[8개 리] 구래리(九來里), 누산리(樓山里), 대포리(大浦里), 석모리(席毛里), 양곡리(陽谷里), 유현리(柳峴里), 학운리(鶴雲里), 흥신리(興新里)				
통진읍(通津邑)[9개 리] 가현리(佳峴里), 고정리(高亭里), 귀전리(歸田里), 도사리(道沙里), 동을산리(冬乙山里), 마송리(馬松里), 서암리(西岩里), 수참리(水站里), 웅정리(甕井里)				
대곶면(大串面)[13개 리] 거물대리(巨勿垈里), 대능리(大陵里), 대명리(大明里), 대벽리(大碧里), 상마리(上馬里), 석정리(石井里), 송마리(松麻里), 쇄암리(碎岩里), 신안리(新雁里), 약암리(藥岩里), 오니산리(吾尼山里), 율생리(栗生里), 초원지리(草元芝里)				통진 쇄암진(碎岩津)
월곶면(月串面)[10개 리] 갈산리(葛山里), 개곡리(開谷里), 고막리(古幕里), 고양리(高陽里), 군하리(郡下里), 보구곶리(甫口串里), 성동리(城東里), 용강리(龍康里), 조강리(祖江里), 포내리(浦內里)	통진 보구곶면(甫口串面) 통진 월여곶면(月余串面) 통진 조강(祖江)	통진 보구곶면(甫口串面) 통진 월여곶면(月余串面) 통진 조강(祖江)	김포 월여곶(月余串) 통진 조강(祖江)	통진 보구곶면(甫口串面) 통진 월여곶면(月餘串面) 통진 조강포(祖江浦)
하성면(霞城面)[12개 리] 가금리(佳金里), 마곡리(麻谷里), 마근포리(麻近浦里), 마조리(麻造里), 봉성리(奉城里), 석탄리(石灘里), 시암리(柿岩里), 양택리(楊澤里), 원산리(元山里), 전류리(顚流里), 하사리(霞沙里), 후평리(後坪里)	통진 봉성면(奉城面)	통진 봉성면(奉城面)	김포 봉성(奉城)	통진 마근포(麻近浦) 통진 봉성면(奉城面) 통진 시암진(柿巖津)

표 8. 김포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김포시는 조선 후기 김포군과 통진도호부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김포군과 통진군이 김포군으로 통합되었다. 1998년에는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되었다. 김포시 6개 읍면과 66개 법정동리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고촌읍(高村邑, 김포군 高蘭台面+臨村面), 대곶면(大串面, 통진군 大坡面+古里串面), 양촌읍(陽村邑, 통진군 陽陵面+半伊村面), 하성면(霞城面, 통진군 霞陰面+奉城面), 대곶면 대능리(大陵里, 대파면 大坡里+陵洞里) · 대벽리(大碧里, 대파면 大坡里+碧井里) · 상마리(上馬里, 대파면 上赤岩里+陶馬山里) · 송마리(松麻里, 고리곶면 松牙里+麻唐浦) · 약암리(藥岩里, 대파면 藥山里+下赤岩里) · 율생리(栗生里, 대파면 栗村里+終生里), 양촌읍 누산리(樓山里, 양릉면 樓里+溫山+鉢山) · 석모리(席毛里, 양릉면 席山里+毛山里) · 양곡리(陽谷里, 양릉면 陽陵里+谷村) · 유현리(柳峴里, 상곶면 四柳芝里+棲峴洞) · 학운리(鶴雲里, 상곶면 鶴峴里+황구루미) · 흥신리(興新里, 반이촌면 흥양굴+新村里), 월곶면 개곡리(開谷里, 월여곶면 開野里+位谷里) · 고막리(古幕里, 군내면 古邑里+草幕洞) · 성동리(城東里, 보구곶면 城內里+東幕里) · 용강리(龍康里, 보구곶면 興龍里+康寧浦), 통진읍 가현리(佳峴里, 반이촌면 佳岑里+蓑峴里) · 고정리(高亭里, 월여곶면 高尺山里+南亭洞) · 귀전리(歸田里, 질전면 歸老里+迭田里) · 도사리(道沙里, 반이촌면 道伊串里+束沙里) · 서암리(西岩里, 월여곶면 西明洞+黔岩里), 하성면 가금리(佳金里, 소이포면 佳佐洞+金浦里) · 마곡리(麻谷里, 봉성면 麻東里+麻西里+杜谷里) · 양택리(楊澤里, 소이포면 楊存里+澤洞) · 원산리(元山里, 질전면 元通里 +登山里) · 하사리(霞沙里, 하음면 霞隱洞+沙草里) 등 읍면 4개와 법정리 26개가 확인된다.

한편, 김포시는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으로 지명의 변화가 심하였기 때문에 고지도에 수록된 고지명의 개수는 많지 않다. 걸포동(傑浦洞)은 걸포리(傑浦里), 운양동(雲陽洞)은 운양산(雲陽山), 고촌읍 신곡리(新谷里)는 신곡(薪谷), 대곶면 쇄암리(碎岩里)는 쇄암진(碎岩津), 월곶면(月串面)은 월여곶면(月余串面), 월곶면 보구곶리(甫口串里)는 보구곶면(甫口串面), 월곶면 조강리(祖江里)는 조강(祖江), 하성면 봉성리(奉城里)는 봉성면(奉城面), 하성면 마근포리(麻近浦里)는 마근포(麻近浦), 하성면 시암리(柿岩里)는 시암진(柿巖津)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9) 남양주시(南楊州市)[6읍 3면 11동 49리]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11개 동] 금곡동(金谷洞), 다산동(茶山洞), 도농동(陶農洞), 별내동(別內洞), 삼패동(三牌洞), 수석동(水石洞), 이패동(二牌洞), 일패동(一牌洞), 지금동(芝錦洞), 평내동(坪內洞), 호평동(好坪洞)				
오남읍(梧南邑)[3개 리] 양지리(陽地里), 오남리(梧南里), 팔현리(八賢里)				
와부읍(瓦阜邑)[5개 리] 덕소리(德沼里), 도곡리(陶谷里), 월문리(月文里), 율석리(栗石里), 팔당리(八堂里)	광주 팔당리(八堂里)			양주 덕소장(德沼場)
진건읍(眞乾邑)[6개 리] 배양리(培養里), 사능리(思陵里), 송능리(松陵里), 신월리(新月里), 용정리(龍井里), 진관리(眞官里)		양주 사능(思陵) 양주 진관면(眞官面)	양주 사능(思陵)	양주 사능(思陵) 양주 진관(眞官)
진접읍(榛接邑)[8개 리] 금곡리(金谷里), 내각리(內閣里), 내곡리(內谷里), 부평리(富坪里), 연평리(蓮坪里), 장현리(長峴里), 진벌리(榛伐里), 팔야리(八夜里)	양주 진벌면(榛伐面)			양주 진벌(榛伐)
퇴계원읍(退溪院邑)[1개 리] 퇴계원리(退溪院里)	양주 퇴계원(退啓院)		양주 퇴계원(退溪院)	
화도읍(和道邑)[10개 리] 가곡리(嘉谷里), 구암리(九岩里), 금남리(琴南里), 녹촌리(鹿村里), 답내리(沓內里), 마석우리(磨石隅里), 묵현리(墨峴里), 월산리(月山里), 차산리(車山里), 창현리(倉峴里)				
별내면(別內面)[3개 리] 광전리(廣田里), 용암리(龍岩里), 청학리(靑鶴里)				
수동면(水洞面)[7개 리] 내방리(內坊里), 송천리(松川里), 수산리(水山里), 외방리(外坊里), 운수리(雲水里), 입석리(立石里), 지둔리(芝屯里)		가평 입석리(立石里)	가평 입석천(立石川)	
조안면(鳥安面)[6개 리] 능내리(陵內里), 삼봉리(三峰里), 송촌리(松村里), 시우리(時雨里), 조안리(鳥安里), 진중리(鎭中里)				

표 9. 남양주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남양주시는 조선 후기 양주목에 속했던 지역이다. 다만, 수동면 내방리 · 외방리 · 입석리는 가평군, 와부읍 팔당리는 광주부에 편제되었던 곳이다. 1980년에는 남양주군이 양주군에서 분리되었고, 1995년에는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되어 남양주시가 되었다. 남양주시 9개 읍면과 60개 법정동리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별내면(別內面, 양주군 別非面+內洞面), 와부읍(瓦阜邑, 양주군 瓦孔面+草阜面), 진건읍(眞乾邑, 양주군 眞官面+乾川面), 진접읍(榛接邑, 양주군 榛伐面+接洞面), 화도읍(和道邑, 양주군 上道面와 下道面 두 면 통합), 금곡동(金谷洞, 양주군 金村面+골짜기), 수석동(水石洞, 미음면 水邊里+石室里+石島里), 지금동(芝錦洞, 미음면 芝沙里+錦橋里), 평내동(坪內里, 상도면 宮坪+墻內里), 호평동(好坪洞, 상도면 好滿里+坪洞里), 별내면 광전리(廣田里, 별비면 廣岩里+麻田里), 수동면 송천리(松川里, 상도면 松蘿洞+長川里) · 수산리(水山里, 진벌면 水幕洞+內馬山里) · 운수리(雲水里, 상도면 雲霞里+石水臺里), 오남읍 오남리(梧南里, 건천면 梧山里+於南上里+於南下里), 와부읍 도곡리(陶谷里, 와공면 陶山里+陶心里+골짜기) · 월문리(月文里, 와공면 月谷里+文谷里) · 율석리(栗石里, 와공면 栗北里+石室里), 조안면 송촌리(松村里, 초부면 松松洞+坪村里) · 조안리(鳥安里, 초부면 鳥洞里+고안) · 진중리(鎭中里, 초부면 鎭村里+中里), 진건읍 송능리(松陵里, 건천면 松亭里+成陵里) · 신월리(新月里, 진관면 新村里+月陰里) · 용정리(龍井里, 건천면 五龍洞+上獨井里+下獨井里), 진접읍 내각리(內閣里, 접동면 內洞里+碑閣里) · 부평리(富坪里, 진벌면 富洞里+後坪里) · 장현리(長峴里, 접동면 長承里+蜂峴里), 화도읍 구암리(九岩里, 상도면 九谷里+鷹岩里) · 녹촌리(鹿村里, 하도면 鹿洞里+宮村里) · 답내리(沓內里, 상도면 沓洞里+內洞里) · 묵현리(墨峴里, 상도면 墨洞+양현) · 창현리(倉峴里, 창고+하도면 獐峴里) 등 읍면 5개와 법정동리 29개가 확인된다.

한편, 남양주시는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으로 지명의 변화가 심하였기 때문에 고지도에 수록된 고지명의 개수는 많지 않다. 와부읍 팔당리(八堂里)는 팔당리(八堂里), 와부읍 덕소리(德沼里)는 덕소장(德沼場), 진건읍 사능리(思陵里)는 사능(思陵), 진건읍 진관리(眞官里)는 진관면(眞官面), 진접읍 진벌리(榛伐里)는 진벌면(榛伐面), 퇴계원읍 퇴계원리(退溪院里)는 퇴계원(退啓院) · 퇴계원(退溪院), 수동면 입석리(立石里)는 입석리(立石里) · 입석천(立石川)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10) 동두천시(東豆川市)[12동]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12개 동] 걸산동(傑山洞), 광암동(廣岩洞), 동두천동(東豆川洞), 보산동(保山洞), 상봉암동(上鳳巖洞), 상패동(上牌洞), 생연동(生淵洞), 송내동(松內洞), 안흥동(安興洞), 지행동(紙杏洞), 탑동동(塔洞洞), 하봉암동(下鳳巖洞)				양주 동두천장(東豆川場)

표 10. 동두천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동두천시는 조선 후기 양주목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양주군 이담면(伊淡面)이 그대로 양주군 이담면으로 되었다. 1963년에는 이담면이 동두천읍으로 승격되었고, 1981년에는 동두천읍이 동두천시가 되었다. 1973년에는 포천군 포천면 탑동리가, 1983년에는 양주군 은현면 상패리가 각각 편입되었다. 동두천시 12개 법정동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보산동(保山洞, 이담면 保安里+杻山里), 생연동(生淵洞, 이담면 生骨里+淵洞里), 송내동(松內洞, 이담면 松蘿里+內洞里), 지행동(紙杏洞, 이담면 紙洞里+杏丹里) 등 4개가 확인된다.

한편, 동두천시의 고지명은 『해동지도』와 『조선지도』·『대동여지도』에서 관련 법정동 지명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872년 지방지도』「양주지도」에는 동두천시 지명의 기원이 된 동두천장(東豆川場)이 기록되어 있다.

11) 부천시(富川市)[24동]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24개 동] 계수동(桂壽洞), 고강동(古康洞), 괴안동(槐安洞), 내동(內洞), 대장동(大壯洞), 도당동(陶唐洞), 범박동(範朴洞), 삼정동(三井洞), 상동(上洞), 소사동(素砂洞), 소사본동(素砂本洞), 송내동(松內洞), 심곡동(深谷洞), 심곡본동(深谷本洞), 약대동(若大洞), 여월동(如月洞),	부평 상오정면(上梧亭面) 부평 하오정면(下梧亭面)	부평 상오면(上梧面) 부평 하오면(下梧面)		부평 대장교(大壯橋) 부평 상오정면(上梧丁面) 부평 하오정면(下梧丁面)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역곡동(驛谷洞), 오정동(梧亭洞), 옥길동(玉吉洞), 원미동(遠美洞), 원종동(遠宗洞), 작동(鵲洞), 중동(中洞), 춘의동(春衣洞)				

표 11. 부천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부천시는 조선 후기 부평도호부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부평군 수탄면 · 수곡면 · 옥산면 · 석천면이 부천군 계남면(桂南面)으로 되었다. 1931년에는 계남면이 소사면(素砂面)으로 개칭되었고, 1941년에는 소사읍으로 승격되었다. 1963년에는 소사읍의 일부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었고, 1973년에는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되었다. 1975년에는 김포군 오정면이 부천시에 편입되었는데, 과거 부평도호부 상오정면 · 하오정면 지역으로 1914년 부천군 오정면으로 개편되었던 곳이다. 1983년에는 시흥군 소래읍의 계수리와 옥길리가 편입되었는데, 과거 인천도호부 황등천면(黃等川面) 지역으로 1914년 부천군 소래면으로 개편되었던 곳이다.

부천시 24개 법정동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계수동(桂壽洞, 황등천면 계일+수로동), 고강동(古康里, 하오정면 고리울+강장동), 옥길동(玉吉洞, 황등천면 옥련리+두길리) 등 3개가 확인된다. 한편, 부천시의 고지도에 수록된 법정동 지명은 거의 없다. 다만, 대장동(大壯洞)은 대장교(大壯橋), 오정동(梧亭洞)은 상오정면(上梧亭面) · 하오정면(下梧亭面) 등에서 관련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12) 성남시(城南市)[3구 44동]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분당구(盆唐區)[18개 동] 구미동(九美洞), 궁내동(宮內洞), 금곡동(金谷洞), 대장동(大庄洞), 동원동(東遠洞), 백현동(栢峴洞), 분당동(盆唐洞), 삼평동(三坪洞), 서현동(書峴洞), 석운동(石雲洞), 수내동(藪內洞), 야탑동(野塔洞), 운중동(雲中洞), 율동(栗洞), 이매동(二梅洞), 정자동(亭子洞), 판교동(板橋洞), 하산운동(下山雲洞)	광주 판교주막(板橋酒幕)	광주 판교역(板橋驛)	광주 판교(板橋)	광주 판교주막(板橋酒幕)
수정구(壽井區)[17개 동] 고등동(高登洞), 금토동(金土洞),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단대동(丹垈洞), 둔전동(屯田洞), 복정동(福井洞), 사송동(沙松洞), 산성동(山城洞), 상적동(上笛洞), 수진동(壽進洞), 시흥동(始興洞), 신촌동(新村洞), 심곡동(深谷洞), 양지동(陽地洞), 오야동(梧野洞), 창곡동(倉谷洞), 탄동(炭洞), 태평동(太平洞)				
중원구(中院區)[9개 동] 갈현동(葛峴洞), 금광동(金光洞), 도촌동(島村洞), 상대원동(上大院洞), 성남동(城南洞), 여수동(麗水洞), 은행동(銀杏洞), 중앙동(中央洞), 하대원동(下大院洞)				광주 갈현(葛峴)

표 12. 성남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성남시는 조선 후기 광주부에 속했던 지역이다. 1973년에 광주군 대왕면 · 낙생면 · 돌마면과 중부면 단대리 · 상대원리 · 탄리 · 수진리 · 복정리 · 창곡리가 통합되어 성남시가 설치되었다. 성남시 지역은 조선 후기 광주부 대왕면 · 낙생면 · 돌마면 · 세촌면이 1914년에 광주군 대왕면 · 낙생면 · 돌마면 · 중부면으로 개편되었던 곳이다. 성남시 44개 법정동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분당구 동원동(東遠洞, 낙생면 東幕洞+遠川洞) · 분당동(盆唐洞, 돌마면 盆店里+唐隅里) · 삼평동(三坪洞, 낙생면 三街里+狀坪里) · 서현동(書峴里, 돌마면 遯書村+陽峴洞) · 야탑동(野塔洞, 돌마면 梧野所+上塔洞+河塔洞) · 운중동(雲中洞, 낙생면 山雲里+中山雲里), 수정구 고등동(高登洞, 대왕면 高山洞+登子里) · 금토동(金土洞, 대왕면 金峴洞+遁土里) · 사송동(沙松洞, 대왕면 沙村里+松峴洞) · 상적동(上笛洞, 대왕면 路上里+笛洞) · 창곡동(倉谷洞, 세촌면 細谷洞+서부면 倉洞) 등 11개가 확인된다.

한편, 성남시의 고지명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과 1989년 법정동명 개칭의 영향으로 지도에 수록된 고지명의 개수는 많지 않다. 다만, 분당구 판교동(板橋洞)은 판교주막(板橋酒幕) · 판교역(板橋驛), 중원구 갈현동(葛峴洞)은 갈현(葛峴) 등에서 관련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13) 수원시(水原市)[4구 56동]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권선구(勸善區)[16개 동] 고색동(古索洞), 속반정동(谷泮亭洞), 구운동(九雲洞), 권선동(勸善洞), 금곡동(金谷洞), 당수동(棠樹洞), 대황교동(大皇橋洞), 서둔동(西屯洞), 세류동(細柳洞), 오목천동(梧木川洞), 입북동(笠北洞), 장지동(長芝洞), 탑동(塔洞), 평동(坪洞), 평리동(坪里洞), 호매실동(好梅實里)	광주 입북언(笠北堰)	수원 호매절면(好梅折面)	수원 대황교(大皇橋) 수원 서둔(西屯)	
영통구(靈通區)[7개 동] 망포동(網浦洞), 매탄동(梅灘洞), 신동(莘洞), 영통동(靈通洞), 원천동(遠川洞), 이의동(二儀洞), 하동(下洞)				
장안구(長安區)[11개 동] 상광교동(上光敎洞), 송죽동(松竹洞), 연무동(鍊武洞), 영화동(迎華洞), 율전동(栗田洞), 이목동(梨木洞), 정자동(亭子洞), 조원동(棗園洞), 천천동(泉川里洞), 파장동(芭長洞), 하광교동(下光敎洞)	수원 광교산(光敎山)	수원 광교면(光敎面)	수원 광교산(光敎山) 수원 영화(迎華)	수원 광교산(光敎山) 수원 영화역(迎華驛)
팔달구(八達區)[22개 동] 고등동(高等洞), 교동(校洞), 구천동(龜川洞), 남수동(南水洞), 남창동(南昌洞), 매교동(梅校洞), 매산로(梅山路) 1가·2가·3가, 매향동(梅香洞), 북수동(北水洞), 신풍동(新豊洞), 영동(榮洞), 우만동(牛滿洞), 인계동(仁溪洞), 장안동(長安洞), 중동(中洞), 지동(池里), 화서동(華西洞), 팔달로(八達路) 1가·2가·3가				수원 팔달산(八達山)

표 13. 수원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수원시는 조선 후기 수원부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수원군 남부면과 북부면 일부가 통합되어 수원면이 되었다. 1931년에는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격되었고, 1936년에는 일형면, 안룡면, 태장면의 각 일부가 수원읍에 편입되었다. 1949년에는 수원읍이 수원부로 승격되었다가 수원시로 변경되었다. 1963년에는 화성군 일왕면의 구 일형면 지역(상광교리·하광교리·조원리·송죽리·파장리·정자리·이목리·율전리

· 천천리 · 탑리 · 구운리), 태장면 일부(원천리 · 매탄리 · 권선리), 안룡면 일부(곡반정리 · 대황교리 · 장지리 · 고색리 · 평리 · 오목천리)가 편입되었다. 1983년에는 용인군 수지면 하리와 이의리가 편입되었고, 1987년에는 화성군 매송면 금곡리와 호매실리가 편입되었다. 1994년에는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와 신리 · 망포리 일부,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부가 편입되었다. 1995년에는 화성군 태안읍 신리와 망포리 전체가 편입되었다.

수원시 56개 법정동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이의동(二儀洞, 지내면 儀上+儀下) 외에 대부분 지역은 기존의 동리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수원시의 법정동 지명이 고지도에 수록된 개수는 많지 않다. 권선구 대황교동(大皇橋洞)은 대황교(大皇橋), 권선구 서둔동(西屯洞)은 서둔(西屯), 권선구 입북동(笠北洞)은 입북언(笠北堰), 권선구 호매실동(好梅實里)은 호매절면(好梅折面), 장안구 상광교동(上光敎洞) · 하광교동(下光敎洞)은 광교면(光敎面) · 광교산(光敎山), 장안구 영화동(迎華洞)은 영화역(迎華驛), 팔달구 팔달로(八達路)는 팔달산(八達山) 등에서 관련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14) 시흥시(始興市)[30동]

시흥시는 조선 후기 안산군과 인천도호부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산군 군내면 · 인화면 · 초산면이 시흥군 수암면, 안산군 마유면 · 대월면 · 와리면이 시흥군 군자면, 인천부 신현면 · 전반면 · 황등천면이 부천군 소래면이 되었다. 1973년 부천군이 폐지되면서 소래면은 시흥군에 편입되었다. 1989년 소래읍과 수암면, 군자면이 통합되어 시흥시가 설치되었다. 시흥시 30개 법정동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계수동(桂壽洞, 황등천면 계일+수로동), 과림동(果林洞, 황등천면 木瓜+重林洞), 금이동(錦李洞, 전반면 錦月山+桃李峴), 도창동(道倉洞, 전반면 道頭里+江倉里), 방산동(芳山洞, 신현면 芳谷里+山井里), 신천동(新川洞, 신현면 新村里+蛇川里), 장현동(長峴洞, 마유면 長上里+鳥峴里) 등 7개가 확인된다.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30개 동] 거모동(去毛洞), 계수동(桂壽洞), 과림동(果林洞), 광석동(廣石洞), 군자동(君子洞), 금이동(錦李洞), 논곡동(論谷洞), 능곡동(陵谷洞), 대야동(大也洞), 도창동(道倉洞), 매화동(梅花洞), 목감동(牧甘洞), 무지내동(茂芝內洞), 물왕동(物旺洞),	안산 정왕산봉대(正往山烽臺)	안산 군자산(君子山) 안산 정왕산(正往山)	안산 군자봉(君子峰) 안산 정왕산(正往山)	시흥 안현리(安峴里) 안산 광석장(廣石場) 안산 군자산(君子山) 안산 정왕산봉대(正往山烽臺)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미산동(米山洞), 방산동(芳山洞), 산현동(山峴洞), 신천동(新川洞), 안현동(鞍峴洞), 월곶동(月串洞), 은행동(銀杏洞), 장곡동(長谷洞), 장현동(長峴洞), 정왕동(正往洞), 조남동(鳥南洞), 죽율동(竹栗洞), 포동(浦洞), 하상동(下上洞), 하중동(下中洞), 화정동(花井洞)				

표 14. 시흥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한편, 시흥시의 고지명은 광석동(廣石洞)은 광석장(廣石場), 군자동(君子洞)은 군자산(君子山)·군자봉(君子峰), 안현동(鞍峴洞)은 안현리(安峴里), 정왕동(正往洞)은 정왕산(正往山)·정왕산봉대(正往山烽臺) 등에서 관련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15) 안산시(安山市)[2구 30동]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단원구(檀園區)[15개 동] 고잔동(古棧洞), 대부남동(大阜南洞), 대부동동(大阜東洞), 목내동(木內洞), 대부북동(大阜北洞), 선감동(仙甘洞), 선부동(仙府洞), 성곡동(城谷洞), 신길동(新吉洞), 와동(瓦洞), 원곡동(元谷洞), 원시동(元時洞), 초지동(草芝洞), 풍도동(豊島洞), 화정동(花井洞)	남양 대부도(大阜島) 남양 선감도(仙監島) 수원 풍도(楓島) 안산 구초지보(旧草芝堡)	남양 대부면(大部面) 남양 선감(仙甘) 수원 풍도(楓島) 안산 구초지(旧草芝)	남양 대부도(大阜島) 남양 선감미도(仙甘彌島) 수원 풍도(楓島) 안산 초지(草芝)	남양 대부도아(大阜島衙) 남양 선감도(仙甘島) 수원 풍도(楓島) 안산 구초지(舊草芝)
상록구(常綠區)[15개 동] 건건동(乾乾洞), 본오동(本五洞), 부곡동(釜谷洞), 사동(四洞), 사사동(沙士洞), 성포동(聲浦洞), 수암동(秀岩洞), 양상동(楊上洞), 월피동(月陂洞), 이동(二洞), 일동(一洞), 장상동(章上洞), 장하동(章下洞), 팔곡이동(八谷二洞), 팔곡일동(八谷一洞)	광주 사사리언(沙士里堰)			

표 15. 안산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안산시는 조선 후기 안산군과 광주부·남양도호부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산군 군내면·인화면·초산면이 시흥군 수암면, 안산군 마유면·대월면·와

리면이 시흥군 군자면, 안산군 월곡면 · 북방면 · 성곶면이 수원군 반월면이 되었다. 이중 반월면 지역은 1906년 광주군에서 이속되었는데, 조선 후기 광주부에 편제되었던 곳이다. 1979년에는 반월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6년에는 안산시로 승격되었다. 안산시 30개 법정동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단원구 목내동(木內洞, 와리면 梨木里+陵內里) · 성곡동(城谷洞, 와리면 城頭里+茂谷洞) · 신길동(新吉洞, 와리면 新角里+赤吉里) · 원곡동(元谷洞, 와리면 元上里+茅谷里) · 원시동(元時洞, 와리면 元下里+時雨洞) 등 5개가 확인된다.

한편, 안산시의 고지명은 조선 후기 남양도호부 소속이었던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단원구 대부남동(大阜南洞) · 대부동동(大阜東洞) · 대부북동(大阜北洞)은 대부도(大阜島) · 대부면(大部面), 단원구 선감동(仙甘洞)은 선감도(仙監島) · 선감미도(仙甘彌島) · 선감도(仙甘島), 단원구 초지동(草芝洞)은 구초지보(旧草芝堡) · 초지(草芝), 단원구 풍도동(豊島洞)은 풍도(楓島), 상록구 사사동(沙士洞)은 사사리언(沙士里堰) 등에서 관련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16) 안성시(安城市)[1읍 11면 33동 158리]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33개 동] 가사동(加士洞), 가현동(加峴洞), 계동(桂洞), 구포동(九苞洞), 금산동(錦山洞), 금석동(金石洞), 낙원동(樂園洞), 당왕동(堂旺洞), 대천동(大泉洞), 도기동(道基洞), 동본동(東本洞), 명륜동(明倫洞), 발화동(發花洞), 봉남동(鳳南洞), 봉산동(鳳山洞), 사곡동(沙谷洞), 서인동(西仁洞), 석정동(石井洞), 성남동(城南洞), 숭인동(崇仁洞), 신건지동(新乾芝洞), 신흥동(新興洞), 신모산동(新茅山洞), 아양동(娥洋洞), 신소현동(新蘇峴洞), 연지동(蓮池洞), 영동(榮洞), 옥산동(玉山洞), 옥천동(玉川洞), 인지동(仁智洞), 중리동(中里洞), 창전동(倉前洞), 현수동(玄水洞)		안성 가사면(加士面) 안성 옥산(玉山)	안성 구포산(九苞山)	안성 가사면(加士面) 안성 계촌(桂村) 안성 구포산(九包山) 안성 금석리(金石里) 안성 도기(道基) 안성 사곡(沙谷) 안성 옥산평(玉山坪) 안성 중리(中里)
공도읍(孔道邑)[11개 리] 건천리(乾川里), 마정리(馬井里),				양성 건천리(乾川里) 양성 대신두리(大薪頭里)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만정리(萬井里), 불당리(佛堂里), 승두리(蠅頭里), 신두리(薪頭里), 양기리(兩基里), 용두리(龍頭里), 웅교리(熊橋里), 중복리(中伏里), 진사리(珍沙里)				양성 마정리(馬井里) 양성 불당리(佛堂里) 양성 상용두리(上龍頭里) 양성 소신두리(小薪頭里) 양성 승두리(蠅頭里) 양성 하용두리(下龍頭里)
고삼면(古三面)[7개 리] 가유리(佳柳里), 대갈리(大葛里), 봉산리(鳳山里), 삼은리(三隱里), 신창리(新倉里), 쌍지리(雙芝里), 월향리(月香里)	양지 삼은현(三隱峴)			
금광면(金光面)[14개 리] 개산리(開山里), 금광리(金光里), 내우리(內隅里), 사흥리(四興里), 삼흥리(三興里), 상중리(上中里), 석하리(石下里), 신양복리(新陽福里), 오산리(梧山里), 오흥리(五興里), 옥정리(玉井里), 장죽리(長竹里), 한운리(閑云里), 현곡리(玄谷里)				안성 한운동(閑雲洞)
대덕면(大德面)[14개 리] 건지리(乾芝里), 내리(內里), 대농리(大農里), 명당리(明堂里), 모산리(茅山里), 무능리(舞陵里), 보동리(潽東里), 삼한리(三閑里), 소내리(素內里), 소현리(蘇峴里), 신령리(新令里), 죽리(竹里), 진현리(辰峴里), 토현리(兎峴里)				죽산 건지산봉수(乾芝山烽燧) 안성 명당리(明堂里) 안성 진현리(辰峴里) 안성 토현(兎峴)
미양면(薇陽面)[18개 리] 갈전리(葛田里), 강덕리(康德里), 개정리(開井里), 계륵리(桂勒里), 고지리(古地里), 구례리(九禮里), 구수리(九水里), 마산리(馬山里), 법전리(法田里), 보체리(保體里), 신계리(新溪里), 신기리(新基里), 양변리(兩邊里), 양지리(陽支里), 용두리(龍頭里), 정동리(井洞里), 진촌리(眞村里), 후평리(後坪里)				안성 구수동(九水洞) 안성 마산리(馬山里) 안성 법전리(法典里) 안성 보체리(保體里) 안성 신계촌(新溪村) 안성 신기리(新基里) 안성 양지촌(陽支村) 안성 용두리(龍頭里) 안성 정동리(井洞里) 안성 진촌(辰村) 안성 후평(後坪)
보개면(寶蓋面)[19개 리] 가율리(加栗里), 곡천리(曲川里), 구사리(九士里), 기좌리(其佐里), 남풍리(南楓里), 내방리(內芳里), 동신리(東新里), 동평리(東平里), 복평리(伏坪里), 북가현리(北加峴里),		안성 기좌면(其佐面)		안성 곡천(曲川) 안성 구사곡(九沙谷) 안성 기좌면(其佐面) 안성 북좌면(北佐面) 안성 오두리(烏頭里) 안성 이전리(泥田里)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북좌리(北佐里), 불현리(佛峴里), 상삼리(上三里), 신안리(新安里), 신장리(新長里), 양복리(陽福里), 오두리(烏頭里), 이전리(泥田里), 적가리(迪加里)				안성 적가리(迪可里)
삼죽면(三竹面)[10개 리] 기솔리(基率里), 내강리(內康里), 내장리(內長里), 덕산리(德山里), 마전리(麻田里), 미장리(美獐里), 배태리(排台里), 용월리(龍月里), 율곡리(栗谷里), 진촌리(眞村里)				
서운면(瑞雲面)[14개 리] 동촌리(洞村里), 북산리(北山里), 산평리(山坪里), 송산리(松山里), 송정리(松井里), 신기리(新基里), 신능리(新陵里), 신촌리(新村里), 신흥리(新興里), 양촌리(陽村里), 오촌리(梧村里), 인리(仁里), 청룡리(靑龍里), 현매리(賢梅里)	안성 서운산(瑞雲山) 안성 청룡사(靑龍寺)	안성 서운산(瑞雲山)	안성 서운산(瑞雲山)	안성 북산리(北山里) 안성 서운산(瑞雲山) 안성 송정리(松亭里) 안성 신기리(新基里) 안성 신촌(新村) 안성 양촌(陽村) 안성 오촌(梧村) 안성 청룡리(靑龍里)
양성면(陽城面)[18개 리] 구장리(舊場里), 난실리(蘭室里), 노곡리(老谷里), 덕봉리(德峯里), 도곡리(桃谷里), 동항리(東恒里), 명목리(名木里), 미산리(美山里), 방신리(芳新里), 방축리(防築里), 산정리(山井里), 삼암리(三岩里), 석화리(石花里), 이현리(梨峴里), 장서리(長西里), 조일리(照日里), 추곡리(楸谷里), 필산리(筆山里)	양성 이현(梨峴)	양성 이현(梨峴)		양성 덕봉서원(德峯書院) 양성 산정리(山井里) 양성 삼암정(三岩井) 양성 석화리(石花里) 양성 이현(梨峴) 양성 조일리(造逸里) 양성 추곡(楸谷) 양성 필산(筆山)
원곡면(元谷面)[8개 리] 내가천리(內加川里), 반제리(盤諸里), 산하리(山下里), 성은리(聖恩里), 성주리(聖住里), 외가천리(外加川里), 지문리(芝文里), 칠곡리(七谷里)		양성 가천역(加川驛)	양성 가천(加川)	양성 반제리(盤諸里) 양성 평가천(坪加川)
일죽면(一竹面)[15개 리] 가리(佳里), 고은리(古銀里), 금산리(金山里), 능국리(菱菊里), 당촌리(唐村里), 방초리(芳草里), 산북리(山北里), 송천리(松川里), 신흥리(新興里), 월정리(月井里), 장암리(長岩里), 주천리(注川里), 죽림리(竹林里), 화곡리(和谷里), 화봉리(花鳳里)				죽산 주천장(注川場)
죽산면(竹山面)[10개 리]	죽산 칠장사(七長寺)	죽산 칠장사(七長寺)		죽산 칠장사(七長寺)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당목리(唐木里), 두교리(斗橋里), 두현리(斗峴里), 매산리(梅山里), 용설리(龍舌里), 장계리(長溪里), 장능리(長陵里), 장원리(長院里), 죽산리(竹山里), 칠장리(七長里)				

표 16. 안성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안성시는 조선 후기 안성군·양성현·죽산도호부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군·양성군·죽산군이 통합되어 안성군이 되었는데, 당시 안성군 지역은 읍내면·금광면·대덕면·미양면·보개면·서운면, 양성군 지역은 공도면·양성면·원곡면, 죽산군 지역은 일죽면·이죽면·삼죽면으로 편제되었다. 1963년에는 용인군 고삼면이 편입되었는데, 조선 후기 양지현에 편제되었던 곳이다. 1983년에는 원곡면 용이리·죽백리·청룡리·월곡리와 공도면 소사리가 평택군 평택읍으로 이관되었다. 1998년에는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었다.

안성시 12개 읍면과 191개 법정동리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고삼면(古三面, 양지군 古東+古西+古北), 공도읍(孔道邑, 양성군 孔梯面+道一面), 삼죽면(三竹面, 죽산군 서면 지역), 원곡면(元谷面, 양성군 元堂面+盤谷面), 일죽면(一竹面, 죽산군 남면·북면 지역), 당왕동(堂旺洞, 북리면 堂山里+實旺里), 현수동(玄水洞, 가동면 玄岩里+水春村), 고삼면 가유리(佳柳里, 고북면 上佳里+下佳里+柳驛里)·대갈리(大葛里, 고서면 大坪里+上葛里+下葛里)·봉산리(鳳山里, 고동면 鳳凰里+花山里)·쌍지리(雙芝里, 고동면 雙嶺里+奉芝谷)·월향리(月香里, 고동면 月洞+香林里), 공도읍 만정리(萬井里, 구천리면 萬家垈+天井里)·양기리(兩基里, 구천리면 新基+筏基)·진사리(珍沙里, 구룡동면 珍村+獨沙谷), 금광면 개산리(開山里, 가동면 開鬱里+梧山里)·내우리(內隅里, 가동면 內洞+石隅里)·사흥리(四興里, 조령면 4개 마을 통합)·삼흥리(三興里, 조령면 3개 마을 통합)·상중리(上中里, 월동면 上里+中里)·석하리(石下里, 월동면 白石里+下里)·오흥리(五興里, 조령면 5개 마을 통합)·장죽리(長竹里, 월동면 長在洞+元竹里), 대덕면 무능리(舞陵里, 금곡면 舞魚山+陵里)·보동리(洑東里, 소촌면 洑頭里+小東山)·삼한리(三閑里, 견내면 三岩里+閑沙村)·소내리(素內里, 금곡면 素沙洞+內洞)·신령리(新令里, 죽촌면 新里+累令里), 미양면 개정리(開井里, 우곡면 開理村+九井里)·계륵리(桂勒里, 목촌면 桂村+勒洞)·양변리(兩邊里, 목촌면 東邊里+西邊里), 보개면 가율리(加栗里, 율동면 加佐洞+栗洞)·남풍리(南楓里, 서이면 南光里+서삼면 楓井里)·내방리(內芳里, 가사면 內洞+流芳里)·동신리(東新里, 거곡면 東門里+新基)·동평리(東平里, 서삼면 東陽里+平章洞)·상삼리(上

三里, 거곡면 上上洞+三綱里) · 신안리(薪安里, 북좌면 薪谷+同安里) · 신장리(新長里, 율동면 新基+長谷) · 양복리(陽福里, 거곡면 陽峽里+福居里), 삼죽면 기솔리(基率里, 서이면 基洞+沙率里) · 내강리(內康里, 서이면 內洞+康村) · 내장리(內長里, 서일면 內土里+長山里) · 덕산리(德山里, 서일면 上德里+下德里+桂山里) · 미장리(美獐里, 서이면 新美洞+獐項里) · 용월리(龍月里, 서일면 龍頭里+月谷里) · 율곡리(栗谷里, 서일면 栗峴里+品谷里) · 진촌리(眞村里, 서이면 眞木亭里+羅村), 서운면 산평리(山坪里, 입장면 山亭里+坪里) · 신능리(新陵里, 기촌면 新洞里+水陵里) · 현매리(賢梅里, 송죽면 臥賢里+梅香里), 양성면 미산리(美山里, 금곡면 美里村+山村) · 방신리(芳新里, 덕산면 芳美洞+新下里), 원곡면 지문리(芝文里, 원당면 上芝村+下芝村+洞文里) · 칠곡리(七谷里, 원당면 7개 마을 통합), 일죽면 고은리(古銀里, 북일면 古木里+銀石里) · 금산리(金山里, 남일면 金玉洞+山田里) · 능국리(菱菊里, 제촌면 菱洞+菊洞) · 방초리(芳草里, 북일면 五方里+草幕里) · 송천리(松川里, 남이면 大松里+川屯里) · 신흥리(新興里, 새로 명명) · 장암리(長岩里, 남이면 長峴里+廣岩店里) · 화곡리(和谷里, 북이면 大和里+愚谷里) · 화봉리(花鳳里, 남이면 花川里+鳳凰里), 죽산면 당목리(唐木里, 남면 唐津+木洞) · 두교리(斗橋里, 남면 斗村+沙斤橋) · 두현리(斗峴里, 부이면 斗坪里+三峴里) · 매산리(梅山里, 부일면 梅谷里+九山里) · 용설리(龍舌里, 남면 龍岩+舌洞) · 장계리(長溪里, 부이면 上長里+泉溪里) · 장능리(長陵里, 부이면 下長里+陵北里) · 장원리(長院里, 부일면 長在里+烈院里) 등 읍면 5개와 법정동리 67개가 확인된다.

한편, 안성시는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으로 지명의 변화가 심하였기 때문에 『해동지도』·『조선지도』·『대동여지도』에 수록된 고지명의 개수는 많지 않지만 『1872년 지방지도』에는 적지 않은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가사동(加士洞)은 가사면(加士面), 계동(桂洞)은 계촌(桂村), 구포동(九苞洞)은 구포산(九包山), 금석동(金石洞)은 금석리(金石里), 도기동(道基洞)은 도기(道基), 사곡동(沙谷洞)은 사곡(沙谷), 옥산동(玉山洞)은 옥산평(玉山坪), 중리동(中里洞)은 중리(中里) 등에서 관련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1872년 지방지도』「안성군지도」·「양성현지도」·「죽산부지도」에는 공도읍의 건천리(乾川里) · 대신두리(大薪頭里) · 소신두리(小薪頭里) · 마정리(馬井里) · 불당리(佛堂里) · 상용두리(上龍頭里) · 하용두리(下龍頭里) · 승두리(蠅頭里), 금광면의 한운동(閑雲洞), 대덕면의 건지산봉수(乾芝山烽燧) · 명당리(明堂里) · 진현리(辰峴里) · 토현(兎峴), 미양면의 구수동(九水洞) · 마산리(馬山里) · 법전리(法典里) · 보체리(保體里) · 신계촌(新溪村) · 신기리(新基里) · 양지촌(陽支村) · 용두리(龍頭里) · 정동리(井洞里) · 진촌(辰村) · 후평(後坪), 보개면의 곡천(曲川) · 구사곡(九沙谷) · 기좌면(其佐面) · 북좌면(北佐面) · 오두리(烏頭里) · 이전리(泥田里) · 적가리(迪可里), 서운면의 북산리(北山里) · 서운산(瑞雲山) · 송정리(松亭

里)·신기리(新基里)·신촌(新村)·양촌(陽村)·오촌(梧村)·청룡리(靑龍里), 양성면의 덕봉서원(德峯書院)·산정리(山井里)·삼암정(三岩井)·석화리(石花里)·이현(梨峴)·조일리(造逸里)·추곡(楸谷)·필산(筆山), 원곡면의 반제리(盤諸里)·평가천(坪加川), 일죽면의 주천장(注川場), 죽산면의 칠장사(七長寺) 등이 기록되어 있다.

17) 안양시(安養市)[2구 7동]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동안구(東安區)[4개 동] 관양동(冠陽洞), 비산동(飛山洞), 평촌동(坪村洞), 호계동(虎溪洞)				
만안구(萬安區)[3개 동] 박달동(博達洞), 석수동(石水洞), 안양동(安養洞)	과천 안양대천(安養大川)	과천 안양(安陽)	시흥 안양(安養)	과천 만안석교(萬安石橋) 시흥 만안교(萬安橋) 시흥 박달리(博達里) 시흥 안양리(安陽里)

표 17. 안양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안양시는 조선 후기 과천현과 시흥현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과천군 상서면과 하서면이 통합되어 시흥군 서이면(西二面)으로 되었다. 1941년에는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되었고, 1949년에는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었다. 1963년에는 시흥군 동면 안양리와 서면 박달리가 안양읍에 편입되었는데, 조선 후기 시흥현 군내면에 편제되었던 곳이다. 1973년에는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었다.

안양시 7개 법정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의 동리 지명과 1973년에 개칭한 지명을 사용하였다. 한편, 안양시의 고지명은 주요 고지도에 안양시 지명의 기원이 된 안양(安養), 안양(安陽), 안양대천(安養大川) 등이 기록되어 있다. 『1872년 지방지도』「시흥현지도」에는 만안교(萬安橋), 박달리(博達里), 안양리(安陽里) 등 관련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18) 양주시(楊州市)[1읍 4면 17동 37리]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17개 동] 고암동(高岩洞), 고읍동(古邑洞),	양주 회암사대(檜岩寺垈)	양주 회암면(檜岩面)	양주 고읍(古邑)	양주 회암(檜巖)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광사동(廣沙洞), 남방동(南坊洞), 덕계동(德溪洞), 덕정동(德亭洞), 마전동(麻田洞), 만송동(晩松洞), 봉양동(鳳陽洞), 산북동(山北洞), 삼숭동(三崇洞), 어둔동(於屯洞), 옥정동(玉井洞), 유양동(維楊洞), 율정동(栗亭洞), 회암동(檜岩洞), 회정동(悔亭洞)				
백석읍(白石邑)[7개 리] 가업리(加業里), 기산리(基山里), 방성리(防城里), 복지리(福池里), 연곡리(蓮谷里), 오산리(梧山里), 홍죽리(弘竹里)	양주 백석면(白石面)	양주 백석면(白石面)		양주 백석(白石)
광적면(廣積面)[7개 리] 가납리(佳納里), 광석리(廣石里), 덕도리(德道里), 비암리(比岩里), 석우리(石隅里), 우고리(遇古里), 효촌리(孝村里)	양주 광석면(廣石面)			양주 광석(廣石)
남면(南面)[10개 리] 경신리(庚申里), 구암리(龜巖里), 두곡리(杜谷里), 매곡리(梅谷里), 상수리(湘水里), 신산리(莘山里), 신암리(神巖里), 입암리(笠巖里), 한산리(閑山里), 황방리(篁芳里)	적성 상수역(湘水驛)	적성 남면(南面) 적성 상수역(湘水驛)	적성 상수(湘水)	적성 남면(南面) 적성 상수역(湘水驛)
은현면(隱縣面)[6개 리] 도하리(道下里), 봉암리(鳳岩里), 선암리(仙岩里), 용암리(龍岩里), 운암리(雲岩里), 하패리(下牌里)				
장흥면(長興面)[7개 리] 교현리(橋峴里), 부곡리(釜谷里), 삼상리(三上里), 삼하리(三下里), 석현리(石峴里), 울대리(鬱垈里), 일영리(日迎里)	양주 장흥면(長興面)	양주 장흥면(長興面)		양주 울대(鬱垈) 양주 장흥(長興)

표 18. 양주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양주시는 조선 후기 양주목에 속했던 지역이다. 다만, 남면 지역은 적성현에 편제되었던 곳이다. 2003년에는 양주군이 양주시로 승격되었다. 양주시 5개 읍면과 54개 법정동리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광적면(廣積面, 양주군 廣石面+石積面), 은현면(隱縣面, 양주군 默隱面+縣內面), 고암동(高岩洞, 회천면 高障里+甕岩洞), 광사동(廣沙洞, 고주내면 廣岩里+插沙洞), 덕계동(德溪洞, 천천면 道德里+遞溪里), 만송동(晩松洞, 고주내면 回晩里+松浪里), 봉양동(鳳陽洞, 鳳鳴朝陽 용어 차용), 삼숭동(三崇洞, 고

주내면 三佳垈里+光崇里), 옥정동(玉井洞, 회암면 玉洞里+冷井里), 율정동(栗亭洞, 회암면 貴栗里+茅亭里), 회정동(悔亭洞, 천천면 寡悔里+德亭里), 백석읍 방성리(防城里, 백석면 防築里+山城里) · 복지리(福池里, 백석면 弘福里+華池里) · 연곡리(蓮谷里, 백석면 蓮坪里+蘭谷里) · 홍죽리(弘竹里, 백석면 弘洞里+川竹里), 은현면 운암리(雲岩里, 남면 發雲里+笠巖里) 등 읍면 2개와 법정동리 14개가 확인된다.

한편, 양주시는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은 심하지 않았지만 고지도에 수록된 고지명의 개수는 많지 않다. 고읍동(古邑洞)은 고읍(古邑), 회암동(檜岩洞)은 회암면(檜岩面) · 회암사대(檜岩寺垈), 백석읍(白石邑)은 백석면, 광적면 광석리(廣石里)는 광석면(廣石面), 남면(南面)은 남면, 남면 상수리(湘水里)는 상수역(湘水驛), 장흥면(長興面)은 장흥면, 장흥면 울대리(鬱垈里)는 울대(鬱垈) 등에서 관련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19) 양평군(楊平郡)[1읍 11면 110리]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양평읍(楊平邑)[12개 리] 공흥리(公興里), 대흥리(大興里), 덕평리(德坪里), 도곡리(道谷里), 백안리(白安里), 봉성리(鳳城里), 신애리(新愛里), 양근리(楊根里), 오빈리(梧濱里), 원덕리(元德里), 창대리(倉垈里), 회현리(會賢里)			양근 오빈(梧濱)	
강상면(江上面)[7개 리] 교평리(交坪里), 대석리(大石里), 병산리(屛山里), 세월리(洗月里), 송학리(松鶴里), 신화리(新花里), 화양리(花陽里)				
강하면(江下面)[6개 리] 동오리(東梧里), 성덕리(聖德里), 왕창리(旺倉里), 운심리(雲沁里), 전수리(全壽里), 항금리(恒今里)				
개군면(介軍面)[13개 리] 계전리(桀田里), 공세리(貢稅里), 구미리(九尾里), 내리(內里), 부리(釜里), 불곡리(佛谷里), 상자포리(上紫浦里), 석장리(石墻里), 앙덕리(仰德里), 자연리(自烟里), 주읍리(注邑里), 하자포리(下紫浦里), 향리(香里)	여주 구미포촌(龜尾浦村)	여주 개군산면(介軍山面)		여주 개군산면(介軍山面) 여주 앙덕진(仰德津) 여주 자포진(紫浦津)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단월면(丹月面)[9개 리] 덕수리(德水里), 명성리(明星里), 보룡리(寶龍里), 봉상리(鳳上里), 부안리(富安里), 산음리(山陰里), 삼가리(三加里), 석산리(石山里), 향소리(杏蘇里)				
서종면(西宗面)[8개 리] 노문리(蘆門里), 도장리(道壯里), 명달리(明達里), 문호리(汶湖里), 서후리(西厚里), 수능리(水陵里), 수입리(水入里), 정배리(鼎排里)	양근 서종면(西終面)	양근 서종면(西終面)		양근 서종면(西終面)
양동면(楊東面)[8개 리] 계정리(桂亭里), 고송리(高松里), 금왕리(金旺里), 단석리(丹石里), 매월리(梅月里), 삼산리(三山里), 석곡리(石谷里), 쌍학리(雙鶴里)	지평 삼산(三山)			
양서면(楊西面)[11개 리] 국수리(菊秀里), 대심리(大心里), 도곡리(陶谷里), 목왕리(木旺里), 복포리(福浦里), 부용리(芙蓉里), 신원리(新院里), 양수리(兩水里), 용담리(龍潭里), 증동리(澄東里), 청계리(淸溪里)	광주 양수두(兩水頭)			양근 도곡리(陶谷里) 양근 복포점막(伏浦店幕) 양근 부용산(芙蓉山) 양근 양수두(兩水頭)
옥천면(玉泉面)[4개 리] 신복리(新福里), 아신리(我新里), 옥천리(玉泉里), 용천리(龍川里)				양근 옥천리(玉泉里)
용문면(龍門面)[13개 리] 광탄리(廣灘里), 금곡리(金谷里), 다문리(多文里), 덕촌리(德村里), 마룡리(馬龍里), 망능리(望陵里), 삼성리(三星里), 신점리(新店里), 연수리(延壽里), 오촌리(梧村里), 조현리(曹峴里), 중원리(中元里), 화전리(花田里)	지평 용문사(龍門寺) 지평 중원산(中元山)	양근 용문산(龍門山)	지평 광탄(廣灘) 지평 용문산(龍門山)	양근 용문산(龍門山) 지평 광탄교(廣灘橋) 지평 금곡사창(金谷社倉)
지평면(砥平面)[10개 리] 곡수리(曲水里), 대평리(大坪里), 망미리(望美里), 무왕리(茂旺里), 송현리(松峴里), 수곡리(水谷里), 옥현리(玉峴里), 월산리(月山里), 일신리(日新里), 지평리(砥平里)	지평 망미산(望彌山)	지평 망미산(望彌山)	여주 곡수천(曲水川) 지평 망미산(望美山)	지평 곡수장(曲水場) 지평 망미산(望美山)
청운면(靑雲面)[9개 리] 가현리(加峴里), 갈운리(葛雲里), 다대리(多大里), 도원리(桃源里),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비룡리(飛龍里), 삼성리(三聖里), 신론리(新論里), 여물리(余勿里), 용두리(龍頭里)				

표 19. 양평군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양평군은 조선 후기 양근군과 지평현에 속했던 지역이다. 1908년 양근군과 지평군이 통합되어 양평군이 되었다. 1931년에는 고읍면이 옥천면, 1938년에는 갈산면이 양평면으로 개칭되었다. 1942년에는 설악면이 가평군에 이관되었고, 1963년에는 여주군 개군면이 편입되었다. 1979년에는 양평면이 양평읍, 2006년에는 지제면이 지평면으로 되었다.

양평군 12개 읍면과 110개 법정리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강상면 교평리(交坪里, 남시면 交岩里+坪里) · 대석리(大石里, 남시면 大甘里+白石里) · 세월리(洗月里, 남시면 洗心里+月里) · 송학리(松鶴里, 남시면 松山里+鶴谷里) · 신화리(新花里, 남시면 新堂谷里+內生花里) · 화양리(花暘里, 남시면 外生花里+暘谷里), 강하면 동오리(東梧里, 남중면 東門里+梧里) · 왕창리(旺倉里, 남중면 旺忠里+倉村里) · 운심리(雲沁里, 남중면 雲浦里+上沁里) · 전수리(全壽里, 남중면 全義里+壽垈里), 단월면 보룡리(寶龍里, 하북면 寶山亭+道龍里) · 부안리(富安里, 하북면 富祿+良安里) · 석산리(石山里, 하북면 石峴里+三山里), 서종면 서후리(西厚里, 서종면 西次南里+厚谷里) · 수능리(水陵里, 서종면 水回里+陵谷里), 양동면 계정리(桂亭里, 상동면 桂良里+松亭里) · 단석리(丹石里, 상동면 巨丹里+松石里) · 매월리(梅月里, 상동면 雪梅里+月隱里) · 석곡리(石谷里, 상동면 上石里+下谷里) · 쌍학리(雙鶴里, 상동면 雙里+鶴村里), 양서면 대심리(大心里, 서시면 大灘里+上心里), 양평읍 공흥리(公興里, 읍내면 公山里+興淸里) · 대흥리(大興里, 동종면 大谷里+新興里) · 백안리(白安里, 읍내면 白洞里+長安里) · 봉성리(鳳城里, 동종면 奉谷里+城山里) · 신애리(新愛里, 읍내면 新晩里+愛谷) · 원덕리(元德里, 동종면 元堂里+德岩里), 옥천면 신복리(新福里, 고읍면 新村里+福洞里) · 아신리(我新里, 고읍면 我吾里+新垈里) · 용천리(龍川里, 고읍면 龍門山+斜川里), 용문면 덕촌리(德村里, 하서면 德洞里+退村里) · 마룡리(馬龍里, 하서면 馬川里+龍潭里) · 망능리(望陵里, 하서면 上望里+下望里+斗陵里) · 신점리(新店里, 하서면 新村里+瓮店里) · 연수리(延壽里, 상서면 延安里+長壽里) · 오촌리(梧村里, 하서면 梧里+間村里) · 조현리(曹峴里, 하서면 曹佐里+赤峴里) · 화전리(花田里, 상서면 꽃길+田谷里), 지평면 대평리(大坪里, 남면 大寺里+坪場里) · 무왕리(茂旺里, 하동면 茂村里+草旺里) · 송현리(松峴里, 군내면 松亭里+山峴里) · 옥현리(玉峴里, 남면 玉鉤里+松峴里) · 월산리(月山里, 군내면 月坡里+巨山里) · 일신리(日新里, 하동면 老日里+新村里), 청운면 갈운리(葛雲里, 상북면 上葛里+下葛里+沒雲里) · 신론리(新論里, 상북면 新垈里+古論

里) 등 46개가 확인된다.

한편, 양평군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으로 지명의 변화가 심하였기 때문에 고지도에 수록된 고지명의 개수는 많지 않다. 양평읍 오빈리(梧濱里)는 오빈(梧賓), 개군면(介軍面)은 개군산면(介軍山面), 개군면 구미리(九尾里)는 구미포촌(龜尾浦村), 개군면 상자포리(上紫浦里)·하자포리(下紫浦里)는 자포진(紫浦津), 개군면 앙덕리(仰德里)는 앙덕진(仰德津), 서종면(西宗面)은 서종면(西終面), 양동면 삼산리(三山里)는 삼산(三山), 양서면 도곡리(陶谷里)는 도곡리, 양서면 복포리(福浦里)는 복포점막(伏浦店幕), 양서면 부용리(芙蓉里)는 부용산(芙蓉山), 양서면 양수리(兩水里)는 양수두(兩水頭), 옥천면 옥천리(玉泉里)는 옥천리, 용문면은 용문산(龍門山), 용문면 광탄리(廣灘里)는 광탄교(廣灘橋), 용문면 금곡리(金谷里)는 금곡사창(金谷社倉), 용문면 중원리(中元里)는 중원산(中元山), 지평면 곡수리(曲水里)는 곡수장(曲水場), 지평면 망미리(望美里)는 망미산(望美山) 등에서 관련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20) 여주시(驪州市)[1읍 8면 23동 123리]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23개 동] 가업동(稼業洞), 교동(校洞), 능현동(陵峴洞), 단현동(丹峴洞), 매룡동(梅龍洞), 멱곡동(覓谷洞), 삼교동(三橋洞), 상거동(上巨洞), 상동(上洞), 신진동(新津洞), 연라동(烟羅洞), 연양동(淵陽洞), 오금동(五今洞), 오학동(五鶴洞), 우만동(又晩洞), 월송동(月松洞), 점봉동(店峰洞), 창동(倉洞), 천송동(川松洞), 하거동(下巨洞), 하동(下洞), 현암동(峴岩洞), 홍문동(弘門洞)	여주 신진역(新津驛) 여주 연라산(烟羅山) 여주 우만진(又晩津)	여주 신진역(新津驛)	여주 신진(新津)	여주 신진역(新津驛) 여주 우만(牛晩) 여주 홍문(弘門)
가남읍(加南邑)[20개 리] 건장리(建章里), 금곡리(金谷里), 금당리(金塘里), 대신리(大新里), 본두리(本斗里), 삼군리(三軍里), 삼승리(三承里), 상활리(上活里), 송림리(松林里), 신해리(新海里), 심석리(心石里), 안금리(安金里), 양귀리(兩貴里), 연대리(蓮臺里), 오산리(五山里), 은봉리(隱峰里),	여주 금당천(金塘川)	여주 금당천(金唐川)	여주 금당천(金塘川)	여주 연대사창(蓮坮社倉)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정단리(鼎丹里), 태평리(太平里), 하귀리(下貴里), 화평리(花坪里)				
강천면(康川面)[9개 리] 가야리(伽倻里), 간매리(看梅里), 강천리(康川里), 걸은리(傑隱里), 굴암리(窟岩里), 도전리(道全里), 부평리(釜坪里), 이호리(梨湖里), 적금리(赤今里)				
금사면(金沙面)[11개 리] 궁리(宮里), 금사리(金沙里), 도곡리(道谷里), 상호리(上虎里), 소유리(巢由里), 외평리(外坪里), 이포리(梨浦里), 장흥리(長興里), 전북리(箭北里), 주록리(走鹿里), 하호리(下虎里)	여주 이포진(梨浦津)	여주 금사면(金沙面) 여주 이포진(梨浦津)	여주 이포(梨浦)	여주 궁리촌(宮里村) 여주 금사면(金沙面) 여주 소유곡(巢由谷) 여주 이포진(梨浦津) 여주 장흥촌(長興村)
능서면(陵西面)[13개 리] 광대리(廣大里), 구양리(九陽里), 내양리(內楊里), 마래리(馬來里), 매류리(梅柳里), 매화리(梅花里), 백석리(白石里), 번도리(番都里), 신지리(新池里), 양거리(兩巨里), 오계리(梧溪里), 왕대리(旺垈里), 용은리(龍隱里)				여주 매류사창(梅柳社倉)
대신면(大神面)[19개 리] 가산리(加山里), 계림리(桂林里), 당남리(塘南里), 당산리(堂山里), 도롱리(道弄里), 무촌리(茂村里), 보통리(甫通里), 상구리(上九里), 송촌리(松村里), 양촌리(楊村里), 옥촌리(玉村里), 윤촌리(潤村里), 율촌리(栗村里), 장풍리(長豊里), 천남리(川南里), 천서리(川西里), 초현리(草峴里), 하림리(下林里), 후포리(後浦里)	여주 보통리(甫統里)			여주 당산사창(堂山社倉) 여주 보통리사창(甫通里社倉)
북내면(北內面)[15개 리] 가정리(稼亭里), 내룡리(內龍里), 당우리(堂隅里), 덕산리(德山里), 상교리(上橋里), 서원리(西院里), 석우리(石隅里), 신남리(新南里), 신접리(新接里), 외룡리(外龍里), 운촌리(雲村里), 장암리(長岩里), 주암리(注岩里), 중암리(中岩里), 지내리(池內里)				여주 당우사창(堂隅社倉)
산북면(山北面)[7개 리]	여주 주어산(走魚山)			여주 송현(松峴)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명품리(明品里), 백자리(柏子里), 상품리(上品里), 송현리(松峴里), 용담리(龍潭里), 주어리(走魚里), 후리(後里)				
점동면(占東面)[15개 리] 관한리(覓閑里), 뇌곡리(雷谷里), 당진리(唐辰里), 덕평리(德坪里), 도리(道里), 부구리(富九里), 사곡리(沙谷里), 삼합리(三合里), 성신리(聖莘里), 원부리(元富里), 장안리(長安里), 처리(處里), 청안리(淸安里), 현수리(玄水里), 흔암리(欣岩里)				여주 청안촌사창(淸安村社倉) 여주 흔암사창(欣巖社倉)
흥천면(興川面)[14개 리] 계신리(桂信里), 귀백리(歸白里), 내사리(內絲里), 다대리(多大里), 대당리(大塘里), 문장리(文章里), 복대리(卜大里), 상대리(上大里), 상백리(上白里), 신근리(莘根里), 외사리(外絲里), 율극리(栗極里), 하다리(下多里), 효지리(孝池里)	여주 고흥천(古興川)			여주 복대동사창(福大洞社倉) 여주 상백양(上白羊)

표 20. 여주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여주시는 조선 후기 여주목에 속했던 지역이다. 다만, 남종면 지역은 양근군에 편제되었던 곳이다. 2013년에는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되었다. 여주시 9개 읍면과 146개 법정동리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가남읍(加南邑, 여주군 加西面+近南面), 대신면(大神面, 여주군 大松面+等神面), 북내면(北內面, 여주군 北面+池內面), 점동면(占東面, 여주군 占梁面+近東面), 흥천면(興川面, 여주군 興谷面+吉川面), 능현동(陵峴洞, 근동면 陵村+草峴里), 단현동(丹峴洞, 근동면 丹江里+烏峴洞), 매룡동(梅龍洞, 주내면 梅也洞+龍耕洞), 삼교동(三橋洞, 근동면 三台洞+牛橋洞), 연양동(淵陽洞, 주내면 淵村+陽村), 오학동(五鶴洞, 북면 五川洞+鶴洞), 점봉동(店峰洞, 근동면 店村里+鉢峰里), 천송동(川松洞, 북면 川西洞+松浦洞), 현암동(峴岩洞, 북면 峴底洞+甕岩洞), 가남읍 금당리(金塘里, 근남면 金大洞+松塘洞)·대신리(大新里, 가서면 大寺洞+新文洞)·본두리(本斗里, 소개면 本洞+斗里峰里)·삼군리(三軍里, 소개면 三申洞+色軍里)·삼승리(三承里, 근남면 三莊里+元承里)·상활리(上活里, 가서면 上應洞+活山洞)·신해리(新海里, 소개면 日新洞+가서면 獻海洞)·심석리(心石里, 소개면 公心里+黑石洞)·안금리(安金里, 근남면 安定洞+金橋洞)·양귀리(兩貴里, 소개면 上貴洞+근남면 貴日洞)·은봉리(隱峰里, 가서면 自隱洞+소개면 周峰里)·화평리(花坪里, 소개면 花蓮+坪里), 강천면 걸은리(傑隱里, 강천면 傑村+

耆隱洞)·도전리(道全里, 강천면 道城村+全巨論里), 금사면 도곡리(道谷里, 금사면 道壯里+釜谷里), 능서면 광대리(廣大里, 수계면 廣石洞+大井洞)·내양리(內楊里, 길천면 內安洞+楊花洞)·번도리(番都里, 길천면 番頭里+都洞)·양거리(兩巨里, 수계면 上巨里+下巨里)·오계리(梧溪里, 수계면 梧柳洞+崇溪洞)·용은리(龍隱里, 수계면 龍巨洞+길천면 莘隱里), 대신면 가산리(加山里, 등신면 才加洞+長山洞)·송촌리(松村里, 대송면 松山里+鷹村)·양촌리(楊村里, 길천면 楊花洞+흥곡면 평촌)·옥촌리(玉村里, 대송면 玉垈里+坪村+谷村)·윤촌리(潤村里, 대송면 潤洞+酸村)·율촌리(栗村里, 대송면 栗里+明村)·하림리(下林里, 등신면 下九洞+佳林洞), 북내면 덕산리(德山里, 지내면 德坪洞+長山洞)·상교리(上橋里, 북면 上高洞+橋項洞)·서원리(西院里, 지내면 西化洞+院村)·석우리(石隅里, 지내면 石墻洞+墻隅洞)·신남리(新南里, 북면 新陽洞+九南洞)·신접리(新接里, 지내면 新村+接住洞)·장암리(長岩里, 지내면 長山洞+佐岩洞)·중암리(中岩里, 지내면 中山洞+銅岩洞), 점동면 관한리(寬閑里, 점량면 寬谷洞+閑田洞)·당진리(唐辰里, 점량면 唐底洞+辰頭里)·덕평리(德坪里, 점량면 德谷洞+坪村)·부구리(富九里, 점량면 夫谷洞+九谷洞)·장안리(長安里, 점량면 巾長里+安平洞)·성신리(聖莘里, 점량면 聖子洞+莘里)·원부리(元富里, 점량면 元亨里+夫土里)·현수리(玄水里, 점량면 玄湖洞+水弄洞), 흥천면 계신리(桂信里, 흥곡면 桂章洞+忠信洞)·귀백리(歸白里, 길천면 歸來洞+下白羊洞)·다대리(多大里, 흥곡면 上多洞+下多洞+下大洞)·대당리(大塘里, 길천면 大旺里+靑塘里)·문장리(文章里, 흥곡면 文岩洞+照章洞)·신근리(莘根里, 길천면 莘隱里+梧根洞)·율극리(栗極里, 길천면 栗洞+釜極洞) 등 읍면 5개와 법정동리 60개가 확인된다.

한편, 여주시는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으로 지명의 변화가 심하였기 때문에 고지도에 수록된 고지명의 개수는 많지 않다. 신진동(新津洞)은 신진역(新津驛), 연라동(烟羅洞)은 연라산(烟羅山), 우만동(又晩洞)은 우만진(又晩津), 홍문동(弘門洞)은 홍문(弘門), 가남읍 금당리(金塘里)는 금당천(金塘川), 가남면 연대리(蓮臺里)는 연대사창(蓮坮社倉), 금사면 궁리(宮里)는 궁리촌(宮里村), 금사면 소유리(巢由里)는 소유곡(巢由谷), 금사면 이포리(梨浦里)는 이포진(梨浦津), 금사면 장흥리(長興里)는 장흥촌(長興村), 점동면 청안리(淸安里)는 청안촌사창(淸安村社倉), 점동면 흔암리(欣岩里)는 흔암사창(欣巖社倉) 등에서 관련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21) 연천군(漣川郡)[2읍 8면 96리]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연천읍(漣川邑)[10개 리] 고문리(古文里), 동막리(東幕里), 부곡리(釜谷里), 상리(上里), 옥산리(玉山里), 와초리(瓦草里), 읍내리(邑內里), 차탄리(車灘里), 통현리(通峴里), 현가리(玄加里)	연천 동막동(東幕洞)	연천 차탄(車灘)	연천 차탄(車灘) 연천 통현(通峴)	연천 고문리(古文里) 연천 차탄장(車灘場) 연천 통현점(通峴店)
전곡읍(全谷邑)[8개 리] 간파리(干坡里), 고능리(高陵里), 눌목리(訥木里), 마포리(馬浦里), 신답리(薪沓里), 양원리(兩遠里), 은대리(隱垈里), 전곡리(全谷里)		양주 간파현(干坡峴)	적성 간파현(干坡峴)	적성 간파령(干坡嶺)
군남면(郡南面)[7개 리] 남계리(楠溪里), 삼거리(三巨里), 선곡리(仙谷里), 옥계리(玉溪里), 왕림리(旺林里), 진상리(進祥里), 황지리(黃地里)	연천 옥계역(玉溪驛) 연천 진상리(進上里)		연천 옥계(玉溪)	마전 남계리(南溪里) 연천 왕림(王林)
미산면(嵋山面)[8개 리] 광동리(廣洞里), 동이리(東梨里), 마전리(麻田里), 백석리(栢石里), 삼화리(三和里), 아미리(峨嵋里), 우정리(牛井里), 유촌리(柳村里)	마전 삼화평(三和坪) 연천 아미천(峨嵋川)			마전 광동리(廣洞里) 마전 삼화리(三和里) 마전 아미리(峨嵋里) 마전 우정상리(牛井上里) 마전 우정하리(牛井下里) 마전 유촌리(柳村里)
백학면(百鶴面)[14개 리] 갈현리(葛峴里), 구미리(九尾里), 노곡리(盧谷里), 두일리(斗日里), 두현리(頭峴里), 매현리(梅峴里), 백령리(百嶺里), 석장리(石墻里), 오음리(梧陰里), 전동리(箭洞里), 통구리(通口里), 포춘리(浦春里), 학곡리(鶴谷里), 항동리(項洞里)	장단 매현리(梅峴里) 장단 오음리(五音里)	장단 백령역(白嶺驛) 장단 백학산(白鶴山)	장단 백령(百嶺) 적성 구미연(仇尾淵) 적성 두일리(斗日里)	마전 석장리(石墻里) 장단 매현리(梅峴里) 장단 백령리(百嶺里) 적성 구미연(龜尾淵) 적성 두일장(斗日場) 적성 전동리(箭洞里) 적성 통구리(通口里) 적성 학곡리(鶴谷里)
신서면(新西面)[10개 리] 갈현리(葛峴里), 내산리(內山里), 답곡리(畓谷里), 대광리(大光里), 덕산리(德山里), 도밀리(道密里), 도신리(道新里), 마전리(馬田里), 승양리(承陽里), 신현리(薪峴里)				철원 답동(畓洞) 철원 대광탄막(大光炭幕) 철원 신서면(新西面)
왕징면(旺澄面)[18개 리] 가천리(佳川里), 강내리(江內里), 강서리(江西里), 고왕리(高旺里), 고잔상리(高棧上里), 고장리(古莊里), 고잔하리(高棧下里), 귀존리(貴存里),	장단 임강고읍(臨江古邑)	마전 고왕산(古王山) 마전 고잔(古棧) 장단 고임강(古臨江)	마전 고왕산(高王山) 장단 임강(臨江)	마전 노동리(盧洞里) 마전 무등리(無等里) 마전 작동리(鵲洞里) 장단 기곡리(基谷里) 장단 임강서원(臨江書院)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기곡리(基谷里), 냉정리(冷井里), 노동리(盧洞里), 동중리(東中里), 무등리(無等里), 북삼리(北三里), 오탄리(伍炭里), 임강리(臨江里), 작동리(鵲洞里), 장학리(獐鶴里)				
장남면(長南面)[5개 리] 고랑포리(高浪浦里), 반정리(伴程里), 원당리(元堂里), 자작리(自作里), 판부리(板浮里)	장단 고랑포(古浪浦) 장단 원당리(元堂里) 장단 판부리(板浮里)	장단 판부(板浮)	장단 고랑리(高浪里)	장단 고랑포(皐浪浦) 장단 자작리(自作里)
중면(中面)[11개 리] 도연리(陶淵里), 마거리(馬巨里), 삼곶리(三串里), 어적산리(魚積山里), 적거리(赤巨里), 적동산리(積洞山里), 적음리(笛音里), 중사리(中沙里), 진곡리(辰谷里), 합수리(合水里), 횡산리(橫山里)	연천 삼곶리(三串里) 연천 적거리(赤巨里) 연천 횡산리(橫山里)			연천 상삼곶리(上三串里) 연천 횡산(橫山)
청산면(靑山面)[5개 리] 궁평리(宮坪里), 대전리(大田里), 백의리(白蟻里), 장탄리(長灘里), 초성리(哨城里)				

표 21. 연천군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연천군은 조선 후기 연천현과 마전군 · 삭녕현 · 양주목 · 장단도호부 · 철원도호부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에는 행정구역 개편 때 연천군 · 마전군 · 적성군 전체와 삭녕군 군내면 · 서면 · 남면 · 동면, 양주군 영근면이 통합되어 연천군이 되었다. 당시 연천군 지역은 군내면 · 군남면 · 중면 · 관인면, 마전군 지역은 미산면 · 왕징면 · 백학면, 적성군 지역은 남면 · 적성면, 삭녕군 지역은 북면 · 서남면 · 동면, 양주군 지역은 영근면으로 편제되었다. 1963년에는 철원군 신서면과 장단군 장남면이 편입되었고, 1983년에는 포천군 청산면이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1989년에는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하였다.

연천군 10개 읍면과 96개 법정리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청산면(靑山面, 양주군 靑松面+山內面), 군남면 선곡리(仙谷里, 남면 仙遊洞+細谷里), 미산면 동이리(東梨里, 군내면 東部里+梨洞里) · 백석리(栢石里, 동면 栢村里+盆石下里), 신서면 도신리(道新里, 신서면 道浪里+新順里) · 마전리(馬田里, 신서면 渴馬里+栗田里), 왕징면 가천리(佳川里, 서면 佳佐里+荊川里) · 고장리(古莊里, 남면 古里洞里+伍莊垈里) · 동중리(東中里, 북면 東幕里+中洞里) · 북삼리(北三里, 북면 3개 리 통합) · 오탄리(伍炭里, 남면 伍莊垈里+炭釜里) · 장학리(獐鶴里, 서면 獐項里+羅鶴里), 전곡읍 고능리(高陵里, 영근면 高山里+陵洞里) · 양원리(兩遠里, 영근면 上遠里+下遠里), 중면 중사리(中沙里, 북면 中

山里+沙洞里) · 합수리(合水里, 북면 上水里+下水里) 등 읍면 1개와 법정리 15개가 확인된다.

한편, 연천군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은 심하지 않았지만 『해동지도』·『조선지도』·『대동여지도』에 수록된 고지명의 개수는 많지 않다. 반면, 『1872년 지방지도』「연천현지도」·「마전군지도」·「장단부지도」에 연천읍에는 고문리(古文里) · 차탄장(車灘場) · 통현점(通峴店), 전곡읍에는 간파령(干坡嶺), 군남면에는 남계리(南溪里) · 왕림(王林), 미산면에는 광동리(廣洞里) · 삼화리(三和里) · 아미리(峨嵋里) · 우정상리(牛井上里) · 우정하리(牛井下里) · 유촌리(柳村里), 백학면에는 석장리(石墻里) · 매현리(梅峴里) · 백령리(百嶺里) · 구미연(龜尾淵) · 두일장(斗日場) · 전동리(箭洞里) · 통구리(通口里) · 학곡리(鶴谷里), 왕징면에는 노동리(蘆洞里) · 무등리(無等里) · 작동리(鵲洞里) · 기곡리(基谷里) · 임강서원(臨江書院), 장남면에는 고랑포(皐浪浦) · 자작리(自作里), 중면에는 상삼곶리(上三串里) · 횡산(橫山) 등 다수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22) 오산시(烏山市)[24동]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24개 동] 가수동(佳水洞), 가장동(佳長洞), 갈곶동(葛串洞), 고현동(高峴洞), 궐동(闕洞), 금암동(錦岩洞), 내삼미동(內三美洞), 누읍동(樓邑洞), 두곡동(斗谷洞), 벌음동(伐音洞), 부산동(釜山洞), 서동(西洞), 서랑동(西廊洞), 세교동(細橋洞), 수청동(水淸洞), 양산동(陽山洞), 오산동(烏山洞), 외삼미동(外三美洞), 원동(園洞), 은계동(銀溪洞), 지곶동(紙串洞), 청학동(靑鶴洞), 청호동(淸湖洞), 탑동(塔洞)	진위 청호주막(靑好酒幕)	수원 삼미면(三彌面) 수원 청호면(靑好面)	수원 오산(烏山)	수원 부산(釜山) 수원 양산봉(陽傘峯)

표 22. 오산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오산시는 조선 후기 수원부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수원군 어탄면 · 초평면 · 청호면 · 산성면 · 문시면이 통합되면서 수원군 성호면으로 되었다. 1941년에는 성호면이 오산면으로 개칭되었고, 1960년에는 오산면이 오산읍으로 승격되었다. 1987년에는 동탄면 금곡3리가 편입되어 은계리로 개칭되었다. 1989년에는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되었다. 1995년에는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 고현리 · 청호리 각 일부가 오산

시에 편입되었다.

오산시 24개 법정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의 동리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오산시의 고지명은 고지도에 일부 지명만 기록되어 있다. 청호동(淸湖洞)은 청호주막(靑好酒幕)·청호면(靑好面), 내삼미동(內三美洞)과 외삼미동(外三美洞)은 삼미면(三彌面), 오산동(烏山洞)은 오산(烏山), 부산동(釜山洞)은 부산(釜山), 양산동(陽山洞)은 양산봉(陽傘峯) 등에서 관련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23) 용인시(龍仁市)[3구 3읍 4면 35동 72리]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기흥구(器興區)[18개 동] 고매동(古梅洞), 공세동(貢稅洞), 구갈동(舊葛洞), 농서동(農書洞), 동백동(東栢洞), 마북동(麻北洞), 보라동(甫羅洞), 보정동(寶亭洞), 상갈동(上葛洞), 상하동(上下洞), 서천동(書川洞), 신갈동(新葛洞), 언남동(彦南洞), 영덕동(靈德洞), 중동(中洞), 지곡동(芝谷洞), 청덕동(淸德洞), 하갈동(下葛洞)	용인 상갈천(上葛川) 용인 하갈천(下葛川)	용인 갈천(葛川)	용인 갈천(葛川)	용인 상갈천(上葛川) 용인 중동(中洞) 용인 지곡(芝谷) 용인 하갈천(下葛川)
수지구(水枝區)[7개 동] 고기동(古基洞), 동천동(東川洞), 상현동(上峴洞), 성복동(星福洞), 신봉동(新鳳洞), 죽전동(竹田洞), 풍덕천동(豊德川洞)				용인 성복동(星福洞) 용인 죽전(竹田) 용인 풍덕천(豊德川)
처인구(處仁區) 시내[10개 동] 고림동(古林洞), 김량장동(金良場洞), 남동(南洞), 마평동(麻坪洞), 삼가동(三街洞), 역북동(驛北洞), 운학동(雲鶴洞), 유방동(柳防洞), 해곡동(海谷洞), 호동(虎洞)	양지 김량교(金良橋) 양지 해곡리(海谷里)	양지 해곡리(海谷里)	용인 처인(處仁)	용인 김량(金良) 용인 처인창(處仁倉) 용인 호동(虎洞)
처인구 모현읍(慕賢邑)[8개 리] 갈담리(葛潭里), 능원리(陵院里), 동림리(東林里), 매산리(梅山里), 오산리(吳山里), 왕산리(旺山里), 일산리(日山里), 초부리(草芙里)		용인 모현면(慕賢面)		용인 모현면(慕賢面)
처인구 이동읍(二東邑)[9개 리] 덕성리(德成里), 묘봉리(卯峰里), 묵리(墨里), 서리(西里), 송전리(松田里), 시미리(時美里),	용인 묘봉산(妙峰山) 용인 어비곡(魚肥谷)	용인 어비천(魚肥川)	용인 어비천(魚肥川)	용인 묘봉산(卯峰山) 용인 송전동(松田洞) 용인 어비동(魚肥洞) 이천 시미동(侍美洞)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어비리(魚肥里), 천리(泉里), 화산리(華山里)				
처인구 포곡읍(蒲谷面)[9개 리] 가실리(稼室里), 금어리(金魚里), 둔전리(屯田里), 마성리(麻城里), 삼계리(三溪里), 신원리(新院里), 영문리(英門里), 유운리(留雲里), 전대리(前垈里)	용인 포곡면(蒲谷面)	용인 포곡면(蒲谷面)		용인 둔전(屯田) 용인 신원(新院) 용인 포곡면(蒲谷面)
처인구 남사면(南四面)[11개 리] 방아리(防牙里), 봉명리(鳳鳴里), 봉무리(鳳舞里), 북리(北里), 아곡리(衙谷里), 완장리(完庄里), 원암리(元岩里), 전궁리(全宮里), 진목리(眞木里), 창리(倉里), 통삼리(通三里)	용인 완장리(完章里)			용인 완장리(完章里) 용인 원암동(元巖洞) 용인 전궁동(全宮洞) 용인 진목동(眞木洞)
처인구 백암면(白岩面)[13개 리] 가좌리(加佐里), 가창리(稼倉里), 고안리(高安里), 근곡리(近谷里), 근삼리(近三里), 근창리(近倉里), 박곡리(朴谷里), 백봉리(栢峰里), 백암리(白岩里), 석천리(石川里), 옥산리(玉山里), 용천리(湧泉里), 장평리(長坪里)	양지 고안면(高安面) 양지 박곡면(朴谷面) 죽산 근삼면(近三面)	양지 고안면(高安面) 양지 박곡면(朴谷面) 죽산 근삼면(近三面)	죽산 백암리(白岩里)	양지 고안면(高安面) 양지 박곡촌면(朴谷村面) 죽산 근삼면(近三面)
처인구 양지면(陽智面)[10개 리] 남곡리(南谷里), 대대리(大垈里), 송문리(松門里), 식금리(植金里), 양지리(陽智里), 정수리(定水里), 제일리(霽日里), 주북리(朱北里), 추계리(秋溪里), 평창리(坪倉里)	양지 정수산(定水山) 양지 추계고현(秋溪古縣)	양지 정수산(定水山) 양지 주북면(朱北面) 양지 추계고현(秋溪古縣)	양지 추계(秋溪)	양지 정수산(定水山) 양지 주북면(朱北面) 이천 대대리(大垈里)
처인구 원삼면(遠三面)[12개 리] 가재월리(加在月里), 고당리(高塘里), 독성리(篤城里), 두창리(杜倉里), 맹리(孟里), 목신리(木新里), 문촌리(文村里), 미평리(彌坪里), 사암리(沙岩里), 좌항리(佐恒里), 죽능리(竹陵里), 학일리(學日里)	죽산 원삼면(遠三面)	죽산 원삼면(遠三面)		죽산 원삼면(遠三面)

표 23. 용인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용인시는 조선 후기 용인현 · 양지현 · 죽산도호부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용인군 · 양지군 · 죽산군이 통합되어 용인군이 되었는데, 당시 용인군 지역은 수여면 · 포곡면 · 모현면 · 읍삼면 · 수지면 · 기흥면 · 남사면 · 이동면, 양지군 지역은 내사면 · 고삼면, 죽산군 지역은 외사면 · 원삼면으로 편제되었다. 1996년에는 용인군이 용인

시로 승격되었고, 2005년에는 구제가 실시되어, 3개 구(처인구 · 기흥구 · 수지구)가 신설되었다.

용인시 3개 구 7개 읍면 107개 법정동리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기흥구(器興區, 용인군 器谷面+駒興面), 수지구(水枝區, 용인군 水眞面+枝內面), 이동읍(二東邑, 용인군 上東面+下東面), 농서동(農書洞, 기곡면 農事洞+內書川), 동백동(東栢洞, 동변면 東幕+栢峴), 마북동(麻北洞, 읍내면 麻谷+北洞), 보정동(寶亭洞, 서변면 寶樹院+篤亭里), 상하동(上下洞, 동변면 上支谷+下支谷), 신갈동(新葛洞, 구흥면 新村+葛川), 언남동(彦南洞, 읍내면 彦洞+南洞), 영덕동(靈德洞, 판내면 靈通+德洞), 청덕동(淸德洞, 동변면 水靑洞+德水洞), 고기동(古基洞, 수진면 古分峴+遜基洞), 동천동(東川洞, 수진면 東幕里+遠川洞), 상현동(上峴洞, 지내면 上里+晩峴), 신봉동(新鳳洞, 수진면 新里+棲鳳洞), 고림동(古林洞, 수여면 古陣里+林院里), 마평동(麻坪洞, 주서면 麻南里+麻北里+新坪里), 역북동(驛北洞, 수여면 驛洞+北洞), 운학동(雲鶴洞, 주서면 魚得雲洞+鶴村), 유방동(柳防洞, 수여면 柳谷+防築洞), 남사면 방아리(防牙里, 현내면 防築洞+남촌면 牙谷), 모현읍 갈담리(葛潭里, 모현면 葛月里+琵潭里) · 능원리(陵院里, 모현면 陵谷+院村) · 동림리(東林里, 모현면 東山里+旺林) · 매산리(梅山里, 모현면 古梅谷+上馬山) · 왕산리(旺山里, 모현면 旺谷+茅山里) · 일산리(日山里, 모현면 開日里+下馬山) · 초부리(草芙里, 모현면 草下里+芙谷), 백암면 가창리(稼倉里, 근삼면 稼谷里+內倉) · 근곡리(近谷里, 근삼면+石谷洞) · 근창리(近倉里, 근삼면+원삼면 倉洞) · 백봉리(栢峰里, 고안면 栢洞+峰洞) · 석천리(石川里, 근일이면 黃石里+斜川里+玉川里) · 옥산리(玉山里, 근일이면 玉川里+下山里+牙山里) · 장평리(長坪里, 근일이면 長在里+坪栗里), 양지면 남곡리(南谷里, 읍내면 南村+龍谷里) · 송문리(松門里, 주서면 松洞+旌門里) · 식금리(植金里, 주동면 植松里+金谷里) · 평창리(坪倉里, 주동면 坪村+都倉里), 원삼면 고당리(高塘里, 원일면 高安洞+蕈塘里) · 독성리(篤城里, 원삼면 篤村+목악면 城里) · 두창리(杜倉里, 원삼면 杜村+倉洞) · 목신리(木新里, 목악면 木岳里+新基里) · 사암리(沙岩里, 원일면 沙田里+龍岩里) · 좌항리(佐恒里, 원일면 佐贊里+恒谷里) · 죽능리(竹陵里, 원삼면 勝竹里+陵村), 이동읍 화산리(華山里, 하동면 華鶴山+牟山洞), 포곡읍 금어리(金魚里, 수여면 金川里+魚梅里) · 마성리(麻城里, 포곡면 麻柯里+城底里) · 영문리(英門里, 포곡면 英谷+墟門) · 유운리(留雲里, 포곡면 留室+巢雲) · 전대리(前垈里, 포곡면 前谷里+新垈) 등 구 2개, 읍면 1개와 법정동리 50개가 확인된다.

한편, 용인시는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으로 고지도에 수록된 고지명의 개수는 많지 않지만 『해동지도』 · 『조선지도』 · 『대동여지도』에 수록된 지명은 대부분 『1872년 지방지도』 「용인현지도」 · 「양지현지도」 · 「죽산지도」에 반영되어 있다. 기흥구에는 상

갈천(上葛川)·중동(中洞)·지곡(芝谷)·하갈천(下葛川), 수지구에는 성복동(星福洞)·죽전(竹田)·풍덕천(豊德川), 처인구에는 김량(金良)·처인창(處仁倉)·호동(虎洞), 이동읍에는 묘봉산(卯峰山)·송전동(松田洞)·어비동(魚肥洞)·시미동(侍美洞), 포곡읍에는 둔전(屯田)·신원(新院)·포곡면(蒲谷面), 남사면에는 완장리(完章里)·원암동(元巖洞)·전궁동(全宮洞)·진목동(眞木洞), 양지면에는 정수산(定水山)·주북면(朱北面)·대대리(大垈里) 등에서 관련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24) 의왕시(義王市)[11동]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11개 동] 고천동(古川洞), 내손동(內蓀洞), 삼동(三洞), 오전동(五全洞), 왕곡동(旺谷洞), 월암동(月岩洞), 이동(二洞), 청계동(淸溪洞), 초평동(草坪洞), 포일동(浦一洞), 학의동(鶴儀洞)	광주 청계산(淸溪山)	광주 청계산(淸溪山)	광주 청계산(淸溪山)	광주 청계산(淸溪山)

표 24. 의왕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의왕시는 조선 후기 광주부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광주군 의곡면과 왕륜면이 통합되어 수원군 의왕면(儀旺面)으로 되었다. 1936년에는 수원군 의왕면과 일형면이 통합되어 일왕면으로 되었다가 1963년에 구 일형면 지역이 수원시에 편입되면서 시흥군 의왕면으로 개편되었다. 1980년에는 의왕면이 의왕읍으로 승격되었고, 1983년에는 화성군 반월면 월암리와 초평리가 의왕읍에 편입되었다. 1989년에는 의왕읍이 의왕시로 승격되었고, 2007년에는 의왕시의 한자 명칭을 의왕시(儀旺市)에서 의왕시(義王市)로 변경하였다.

의왕시 11개 법정동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고천동(古川洞, 왕륜면 古井洞+古古里+坪沙川), 내손동(內蓀洞, 의곡면 義逸內洞+蓀洞), 오전동(五全洞, 왕륜면 五馬洞+全朱洞), 왕곡동(旺谷洞, 왕륜면 內旺倫+谷沙川), 학의동(鶴儀洞, 의곡면 鶴峴洞+義逸外洞) 등 5개가 확인된다. 한편, 의왕시의 고지도에 수록된 법정동 지명은 청계동(淸溪洞)의 기원이 된 청계산(淸溪山)이 유일하다.

25) 의정부시(議政府市)[13동]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13개 동] 가능동(佳陵洞), 고산동(高山洞), 금오동(金梧洞), 낙양동(洛陽洞), 녹양동(綠楊洞), 민락동(民樂洞), 산곡동(山谷洞), 신곡동(新谷洞), 용현동(龍峴洞), 의정부동(議政府洞), 자일동(自逸洞), 장암동(長岩洞), 호원동(虎院洞)		양주 녹양역(綠陽驛)	양주 녹양(綠楊)	양주 녹양역(綠楊驛)

표 25. 의정부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의정부시는 조선 후기 양주목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양주군 시북면과 둔야면이 통합되어 양주군 시둔면(柴芚面)으로 되었다. 1938년에는 시둔면이 양주면으로 개칭되었고, 1942년에는 양주면이 의정부읍으로 승격되었다. 1963년에는 의정부읍이 의정부시로 승격되었다. 1980년에는 양주군 별내면 고산리와 산곡리가 편입되었다.

의정부시 13개 법정동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가능동(佳陵洞, 시북면 佳佐洞+魚陵里), 금오동(金梧洞, 시북면 金谷里+西梧里), 신곡동(新谷洞, 둔야면 新村里+鉢谷里), 용현동(龍峴洞, 둔야면 魚龍里+陽峴里), 장암동(長岩洞, 둔야면 長者里+鳥岩里), 호원동(虎院洞, 둔야면 虎洞里+樓院里+長水院里) 등 6개가 확인된다. 한편, 의정부시의 고지도에 수록된 법정동 지명은 녹양동(綠楊洞)의 기원이 된 녹양역(綠楊驛)이 유일하다.

26) 이천시(利川市)[2읍 8면 15동 117리]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15개 동] 갈산동(葛山洞), 고담동(高潭洞), 관고동(官庫洞), 단월동(丹月洞), 대포동(大浦洞), 사음동(沙音洞), 송정동(松亭洞), 안흥동(安興洞), 율현동(栗峴洞), 장록동(長錄洞), 중리동(中里洞), 증일동(曾日洞), 증포동(增浦洞), 진리동(陳里洞),	이천 안흥제언(安興堤堰)		양지 진리(陳里)	이천 갈산리(葛山里) 이천 단월천(丹月川) 이천 대포천(大浦川) 이천 송정(松亭) 이천 안흥리(安興里) 이천 장록리(長鹿里) 이천 증일리(曾日里) 이천 이증포(梨增浦)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창전동(倉前洞)				이천 진리(陳里)
부발읍(夫鉢邑)[14개 리] 가산리(柯山里), 가좌리(加佐里), 고백리(高白里), 대관리(大冠里), 마암리(馬岩里), 무촌리(茂村里), 산촌리(山村里), 송온리(松溫里), 수정리(水井里), 신원리(新元里), 신하리(新河里), 아미리(牙美里), 응암리(鷹岩里), 죽당리(竹堂里)		양지 마암(馬岩)		이천 가좌동(加佐洞) 이천 마암리(馬巖里) 이천 무촌리(茂村里) 이천 수정리(水井里) 이천 아미대리(峨尾垈里) 이천 응암리(鷹巖里)
장호원읍(長湖院邑)[13개 리] 나래리(羅來里), 노탑리(老塔里), 대서리(大西里), 방추리(方楸里), 선읍리(善邑里), 송산리(松山里), 어석리(於石里), 오남리(梧南里), 와현리(瓦峴里), 이황리(梨黃里), 장호원리(長湖院里), 진암리(珍巖里), 풍계리(豊界里)				음죽 나래동(羅來洞) 음죽 장원(長院)
대월면(大月面)[10개 리] 구시리(九時里), 군량리(郡梁里), 대대리(大垈里), 대흥리(大興里), 도리리(道理里), 부필리(夫必里), 사동리(巳洞里), 송라리(松蘿里), 장평리(長坪里), 초지리(草芝里)		이천 초지면(草枝面)		이천 상군량리(上郡梁里) 이천 도리동(道理洞) 이천 부필리(富筆里) 이천 송라동(松蘿洞) 이천 장평동(長坪洞) 이천 초지곡면(草芝谷面) 이천 하군량리(下郡梁里)
마장면(麻長面)[13개 리] 각평리(各坪里), 관리(冠里), 덕평리(德坪里), 목리(木里), 양촌리(陽村里), 오천리(午川里), 이치리(梨峙里), 이평리(泥坪里), 작촌리(芍村里), 장암리(長巖里), 표교리(標橋里), 해월리(蟹越里), 회억리(灰億里)		이천 오천면(五川面)	이천 오천(吾川)	이천 덕평리(德坪里) 이천 오천역(吾川驛) 이천 이치(梨峙) 이천 이평리(泥坪里)
모가면(暮加面)[11개 리] 두미리(豆美里), 산내리(山內里), 서경리(西坰里), 소고리(所古里), 소사리(素沙里), 두곡리(松谷里), 신갈리(薪葛里), 양평리(梁坪里), 어농리(於農里), 원두리(院頭里), 진가리(陳加里)		이천 소사참(素沙站)		이천 산내리(山內里) 이천 서경평(西京坪) 이천 소사리(素沙里) 이천 송곡리(松谷里) 이천 신갈산리(薪葛山里) 이천 어농동(於農洞) 이천 원두리(院頭里)
백사면(栢沙面)[12개 리] 경사리(京沙里), 내촌리(內村里), 도립리(道立里), 도지리(道知里), 모전리(牟田里), 백우리(白隅里), 상용리(上龍里), 송말리(松末里),				이천 도립리(道立里) 이천 도지곡리(道知谷里) 이천 모전리(牟田里) 이천 신대리(新垈里) 이천 우곡리(牛谷里)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신대리(新垈里), 우곡리(牛谷里), 조읍리(助邑里), 현방리(玄方里)				이천 조읍동(助邑洞)
설성면(雪星面)[12개 리] 금당리(金堂里), 대죽리(大竹里), 상봉리(上峰里), 송계리(松界里), 수산리(樹山里), 신필리(新筆里), 암산리(巖山里), 자석리(自石里), 장능리(長陵里), 장천리(長泉里), 제요리(諸寥里), 행죽리(行竹里)	음죽 설성산(雪城山)	음죽 설성산(雪城山)		음죽 설성산(雪城山)
신둔면(新屯面)[13개 리] 고척리(高尺里), 남정리(南井里), 도봉리(道峰里), 도암리(道巖里), 마교리(馬橋里), 소정리(小亭里), 수광리(水廣里), 수남리(水南里), 수하리(水下里), 용면리(龍眠里), 인후리(印後里), 장동리(長洞里), 지석리(支石里)		이천 고척참(高尺站)		이천 고척리(高尺里) 이천 남정동(南井洞) 이천 도봉리(道峰里) 이천 마교리(馬橋里) 이천 수남리(水南里) 이천 수하리(水下里) 이천 장동리(長洞里) 이천 지석리(支石里)
율면(栗面)[10개 리] 고당리(高塘里), 본죽리(本竹里), 북두리(北斗里), 산성리(山星里), 산양리(山陽里), 석산리(石山里), 신추리(新楸里), 오성리(五城里), 월포리(月浦里), 총곡리(叢谷里)				음죽 북두리(北斗里) 음죽 상율면(上栗面) 음죽 총곡(叢谷) 음죽 하율면(下栗面)
호법면(戶法面)[9개 리] 단천리(丹川里), 동산리(東山里), 매곡리(梅谷里), 송갈리(松葛里), 안평리(安坪里), 유산리(酉山里), 주미리(珠美里), 주박리(珠珀里), 후안리(厚安里)		이천 호법면(戶法面)		이천 동단천리(東丹川里) 이천 동단색리(東山色里) 이천 상송갈리(上松葛里) 이천 서단천리(西丹川里) 이천 주박촌리(住珀村里) 이천 호법면(戶法面)

표 26. 이천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이천시는 조선 후기 이천도호부와 음죽현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천군 · 음죽군이 통합되어 이천군이 되었는데, 당시 이천군 지역은 읍내면 · 신둔면 · 백사면 · 부발면 · 대월면 · 모가면 · 호법면 · 마장면, 음죽군 지역은 청미면 · 설성면 · 율면으로 편제되었다. 1938년에는 읍내면이 이천읍으로 승격되었고, 1941년에는 청미면이 장호원읍으로 승격되었다. 1996년에는 이천군이 이천시로 승격되었다.

이천시 10개 읍면 132개 법정동리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대월면(大月面, 이천군 大面+月面), 마장면(麻長面, 이천군 麻面+長面), 모가면(暮加面, 이천군 暮面+加面), 백사면(栢沙面, 이천군 栢面+沙面), 부발읍(夫鉢邑, 이천군 夫面+鉢面), 신둔면(新屯面, 이천군 新面+屯面), 호법면(戶法面, 이천군 戶面+法面), 관고동(官庫洞, 읍

면 官後里+可庫前), 사음동(沙音洞, 둔면 沙器幕+切音里), 대월면 대흥리(大興里, 초면 大洞+凡興里), 마장면 각평리(各坪里, 장면 各時洞+坪村) · 장암리(長巖里, 장면 長壽旺+門岩) · 회억리(灰億里, 마면 灰橋+億萬里), 모가면 두미리(豆美里, 모면 豆赤洞+侍美洞) · 양평리(梁坪里, 가면 郡梁+坪村) · 진가리(陳加里, 가면 陳內+加洞), 백사면 경사리(京沙里, 사면 京仕垈+沙玉里) · 상용리(上龍里, 백면 上洞+龍村) · 송말리(松末里, 사면 松溫洞+上末谷) · 현방리(玄方里, 사면 玄岩+溫方里), 부발읍 가산리(柯山里, 발면 柯木洞+末山) · 고백리(高白里, 부면 高寺里+白鹿洞) · 대관리(大冠里, 부면 大旺里+冠谷) · 신원리(新元里, 부면 新垈洞+元積洞) · 신하리(新河里, 발면 新村+福河) · 죽당리(竹堂里, 부면 竹洞+당재), 설성면 금당리(金堂里, 서면 金城洞+堂前里) · 대죽리(大竹里, 원북면 大山洞+孝竹村) · 상봉리(上峰里, 근북면 上八界+高峰里) · 송계리(松界里, 근북면 松洞+下八界) · 수산리(樹山里, 원북면 樹谷里+鶯山洞) · 신필리(新筆里, 군내면 新楸洞+서면 細筆里) · 암산리(巖山里, 근북면 垂巖里+九山里) · 자석리(自石里, 근북면 自隱洞+黑石里) · 장능리(長陵里, 서면 長水洞+長栗里+陵洞) · 장천리(長泉里, 원북면 長角里+寒泉洞) · 제요리(諸蓼里, 서면 諸葛村+蓼谷里) · 행죽리(行竹里, 서면 行尋村+分竹里), 신둔면 수광리(水廣里, 둔면 水北+廣峴) · 인후리(印後里, 둔면 印培+後洞), 율면 고당리(高塘里, 하율면 高尺洞+池塘) · 본죽리(本竹里, 상율면 本栗里+竹栗里) · 산성리(山星里, 상율면 上山洞+八星里) · 산양리(山陽里, 상율면 龍山洞+陽阿里) · 석산리(石山里, 상율면 石橋村+下山洞) · 오성리(五城里, 상율면 尺五里+長城洞) · 월포리(月浦里, 하율면 都月里+退浦里), 장호원읍 노탑리(老塔里, 동면 老坪里+塔村) · 대서리(大西里, 남면 大井里+近西里) · 방추리(方楸里, 군내면 方魚洞+舊楸洞) · 선읍리(善邑里, 군내면 善興里+邑里) · 송산리(松山里, 남면 松谷里+山垈里) · 어석리(於石里, 남면 於隱洞+石堂里) · 오남리(梧南里, 남면 梧倉里+南川洞) · 와현리(瓦峴里, 동면 瓦洞+皓峴里) · 이황리(梨黃里, 동면 梨木亭+黃庭浦) · 진암리(珍巖里, 남면 珍村+階巖里) · 풍계리(豊界里, 동면 豊土里+赤界里), 호법면 매곡리(梅谷里, 호면 梅勺里+土谷) · 안평리(安坪里, 호면 安古里+上坪) · 유산리(酉山里, 호면 酉良谷+梧山) · 후안리(厚安里, 호면 後美村+安古里) 등 읍면 7개와 법정동리 55개가 확인된다.

한편, 이천시는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으로 고지도에 수록된 고지명의 개수는 많지 않지만『1872년 지방지도』「이천부지도」·「음죽현지도」에는 다수의 동리 지명이 반영되어 있다. 이천 시내 지역에는 갈산리(葛山里) · 단월천(丹月川) · 대포천(大浦川) · 송정(松亭) · 안흥리(安興里) · 장록리(長鹿里) · 증일리(曾日里) · 이증포(梨增浦) · 진리(陳里), 부발읍에는 가좌동(加佐洞) · 마암리(馬巖里) · 무촌리(茂村里) · 수정리(水井里) · 아미대리(峨尾垈里) · 응암리(鷹巖里), 장호원읍에는 나래동(羅來洞) · 장원(長院), 대월면에는 상군

량리(上郡梁里)·도리동(道理洞)·부필리(富筆里)·송라동(松蘿洞)·장평동(長坪洞)·초지곡면(草芝谷面)·하군량리(下郡梁里), 마장면에는 덕평리(德坪里)·오천역(吾川驛)·이치(梨峙)·이평리(泥坪里), 모가면에는 산내리(山內里)·서경평(西京坪)·소사리(素沙里)·송곡리(松谷里)·신갈산리(薪葛山里)·어농동(於農洞)·원두리(院頭里), 백사면에는 도립리(道立里)·도지곡리(道知谷里)·모전리(牟田里)·신대리(新垈里)·우곡리(牛谷里)·조읍동(助邑洞), 신둔면에는 고척리(高尺里)·남정동(南井洞)·도봉리(道峰里)·마교리(馬橋里)·수남리(水南里)·수하리(水下里)·장동리(長洞里)·지석리(支石里), 율면에는 북두리(北斗里)·상율면(上栗面)·총곡(叢谷)·하율면(下栗面), 호법면에는 동단천리(東丹川里)·동단색리(東山色里)·상송갈리(上松葛里)·서단천리(西丹川里)·주박촌리(住珀村里)·호법면(戶法面) 등에서 관련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27) 파주시(坡州市)[4읍 9면 22동 104리]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22개 동] 검산동(檢山洞), 교하동(交河洞), 금릉동(金陵洞), 금촌동(金村洞), 다율동(多栗洞), 당하동(堂下洞), 동패동(東牌洞), 맥금동(陌今洞), 목동동(木洞洞), 문발동(門發洞), 산남동(山南洞), 상지석동(上支石洞), 서패동(西牌洞), 송촌동(松村洞), 신촌동(新村洞), 아동동(衙洞洞), 야당동(野塘洞), 야동동(冶洞洞), 연다산동(煙多山洞), 오도동(吾道洞), 와동동(瓦洞洞), 하지석동(下支石洞)	교하 아동면(衙洞面) 교하 지석면(支石面)	교하 아동면(衙洞面) 교하 오도산(烏島山) 교하 와동면(瓦洞面) 교하 지석면(支石面)	교하 지석(支石)	교하 검산리(檢山里) 교하 다율리(多栗里) 교하 당하리(堂下里) 교하 동패리(東牌里) 교하 맥금리(陌今里) 교하 목동리(木洞里) 교하 산남리(山南里) 교하 상지석리(上支石里) 교하 서패리(西牌里) 교하 송촌리(松村里) 교하 신촌리(新村里) 교하 아동리(衙洞里) 교하 야동리(冶洞里) 교하 연다산리(煙多山里) 교하 오도리(吾道里) 교하 와동리(瓦洞里) 교하 하지석리(下支石里)
문산읍(文山邑)[10개 리] 내포리(內浦里), 당동리(堂洞里), 마정리(馬井里), 문산리(汶山里), 사목리(沙鶩里), 선유리(仙遊里), 운천리(雲泉里), 이천리(梨川里), 임진리(臨津里), 장산리(長山里)	파주 임진강(臨津江)	파주 마정면(馬井面) 파주 이천(梨川) 파주 임진(臨津)	파주 문산포(文山浦) 파주 이천(梨川) 파주 임진(臨津) 파주 장산(長山)	파주 문산포장(汶山浦場) 파주 마정면(馬井面) 파주 사목포(沙鶩浦) 파주 운천(雲泉) 파주 이천점(梨川店) 파주 임진진(臨津鎭) 파주 장산진(長山津)
법원읍(法院邑)[10개 리]				파주 상하금곡(上下金谷)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가야리(加野里), 갈곡리(葛谷里), 금곡리(金谷里), 대능리(大陵里), 동문리(東文里), 법원리(法院里), 삼방리(三防里), 오현리(梧峴里), 웅담리(熊潭里), 직천리(直川里)				
조리읍(條里邑)[7개 리] 뇌조리(弩造里), 능안리(陵案里), 대원리(大院里), 등원리(登院里), 봉일천리(奉日川里), 오산리(梧山里), 장곡리(獐谷里)	파주 봉일천(奉日川)	파주 봉일천(奉日川) 파주 조리면(助里面)	파주 봉일천(奉日川)	교하 등원리(登院里) 교하 오산(五山) 파주 봉일천(奉日川) 파주 조리동면(條里洞面)
파주읍(坡州邑)[7개 리] 백석리(白石里), 봉서리(鳳棲里), 봉암리(烽岩里), 부곡리(釜谷里), 연풍리(延豊里), 파주리(坡州里), 향양리(向陽里)	파주 연풍천(延豊川)	파주 백석면(白石面)		파주 봉서산(鳳棲山) 파주 연풍천(延豊川)
광탄면(廣灘面)[9개 리] 기산리(基山里), 마장리(馬場里), 발랑리(發郎里), 방축리(防築里), 분수리(汾水里), 신산리(新山里), 영장리(靈場里), 용미리(龍尾里), 창만리(倉滿里)	파주 광탄천(廣灘川)	파주 광탄면(廣灘面) 파주 분수원(分水院)	파주 광탄(廣灘) 파주 분수원(分手院)	파주 광탄면(廣灘面) 파주 마장리(馬場里) 파주 분수원(汾水院)
군내면(郡內面)[7개 리] 방목리(芳木里), 백연리(白蓮里), 송산리(松山里), 읍내리(邑內里), 점원리(點元里), 정자리(亭子里), 조산리(造山里)	장단 백연촌(白蓮村) 장단 송산(松山) 장단 정자포창(亭子浦倉) 장단 하방목리(下方木里)		장단 정자포(亭子浦)	장단 백연리(白蓮里) 장단 조산리(造山里)
월롱면(月籠面)[5개 리] 능산리(陵山里), 덕은리(德隱里), 도내리(都內里), 영태리(英太里), 위전리(葦田里)	파주 월롱산(月籠山)	파주 월롱산(月籠山)	교하 월롱산(月籠山)	교하 월롱산(月籠山)
장단면(長湍面)[8개 리] 강정리(江井里), 거곡리(巨谷里), 노상리(蘆上里), 노하리(蘆下里), 도라산리(都羅山里), 동장리(東場里), 석곶리(石串里), 정동리(井洞里)	장단 도라산(道羅山)		장단 도라산(都羅山)	장단 도라산(都羅山) 장단 정동리(井洞里)
적성면(積城面)[16개 리] 가월리(佳月里), 객현리(客峴里), 구읍리(舊邑里), 답곡리(沓谷里), 두지리(斗只里), 마지리(馬智里), 무건리(武建里), 설마리(雪馬里), 식현리(食峴里), 어유지리(魚遊池里), 율포리(栗浦里), 자장리(紫長里), 장좌리(長佐里), 장현리(墻峴里), 적암리(赤巖里), 주월리(舟月里)	장단 장좌지(長佐地) 적성 두지평(頭只坪) 적성 설마치(雪馬峙)	적성 두지평(斗只坪) 적성 설마치(雪馬峙)	적성 설마치(雪馬峙)	적성 마지현(馬之峴) 적성 무건리(武建里) 적성 설마령(雪馬嶺) 적성 율포(栗浦) 적성 적암리(赤岩里)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진동면(津東面)[5개 리] 동파리(東坡里), 서곡리(瑞谷里), 용산리(龍山里), 초리(哨里), 하포리(下浦里)	장단 진동면(津東面) 장단 동파역촌(東坡驛村) 장단 서곡(瑞谷) 장단 용산(龍山) 장단 초리(硝里) 장단 하포(下浦)	장단 동파참(東坡站) 장단 서곡(瑞谷) 장단 하포(下浦)	장단 동파(東坡)	장단 진동면(津東面)
진서면(津西面)[2개 리] 금릉리(金陵里), 어룡리(魚龍里)	장단 금릉(金陵) 장단 어룡포(魚龍浦)			장단 금릉리(金陵里)
탄현면(炭縣面)[11개 리] 갈현리(葛峴里), 금산리(錦山里), 금승리(金蠅里), 낙하리(洛河里), 대동리(大洞里), 만우리(萬隅里), 문지리(文智里), 법흥리(法興里), 성동리(城洞里), 오금리(吾今里), 축현리(柵峴里)	교하 낙하진로(洛河津路)	교하 낙하(洛河)	장단 낙하(洛河)	교하 갈현리(葛峴里) 교하 금승리(金蠅里) 교하 낙하진(洛河津) 교하 대동리(大洞里) 교하 만우리(萬隅里) 교하 법흥리(法興里) 교하 성동리(城洞里) 교하 오금리(吾今里) 교하 축현리(柵峴里)
파평면(坡平面)[7개 리] 금파리(金坡里), 눌노리(訥老里), 덕천리(德泉里), 두포리(斗浦里), 마산리(麻山里), 율곡리(栗谷里), 장파리(長坡里)	장단 파평산(坡平山)	파주 파평면(坡平面)	파주 파평(坡平)	파주 눌노리장(訥老里場) 파주 파평면(坡平面)

표 27. 파주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파주시는 조선 후기 파주목 · 교하군 · 적성현 · 장단도호부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파주군과 교하군이 통합되어 파주군이 되었는데, 당시 파주군 지역은 주내면 · 천현면 · 월롱면 · 광탄면 · 조리면 · 임진면 · 파평면, 교하군 지역은 와석면 · 청석면 · 탄현면 · 아동면으로 편제되었다. 1945년에는 38선 이남의 연천군이 파주군에 편입되었고, 1972년에는 장단군 장단면 · 진동면 · 진서면을 편입하였다. 1983년에는 양주군 백석면 영장리와 기산리가 광탄면에 편입되었다. 1996년에는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되었다.

파주시 13개 읍면 126개 법정동리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탄현면(炭縣面, 교하군 炭浦面+ 縣內面), 광탄면 기산리(基山里, 백석면 基谷里+中山里) · 신산리(新山里, 광탄면 新店里+조리면 花山里) · 영장리(靈場里, 백석면 大古靈里+甕場里) · 용미리(龍尾里, 광탄면 九龍里+虎尾里) · 창만리(倉滿里, 광탄면 社倉里+斗滿里), 군내면 점원리(點元里, 진현내면 點希陵里+元堂里), 문산읍 내포리(內浦里, 조리면 內洞里+長浦里), 법원읍 가야리(加野里, 천현외패면 加佐洞+陽野里) · 갈곡리(葛谷里, 천현외패면 葛洞里+隱谷里) · 대능리(大陵里, 천현외패면 大位里+五陵里) · 동문리(東文里, 천현외패면

東幕里+文平里) · 법원리(法院里, 천현외패면 法儀里+院基里) · 삼방리(三防里, 천현외패면 三峴里+屯防里) · 오현리(梧峴里, 천현외패면 梧里洞+車峴洞), 월롱면 능산리(陵山里, 조리면 陵洞里+棠山里) · 덕은리(德隱里, 자곡면 德玉里+龍隱洞), 장단면 강정리(江井里, 상도면 江連里+堀井里) · 거곡리(巨谷里, 상도면 巨路里+金谷里), 적성면 장현리(墻峴里, 동면 墻坪里+松峴里), 조리면 장곡리(獐谷里, 조리면 獐山里+基谷里), 파주읍 봉암리(烽岩里, 백석면 烽峴里+絃岩里), 파평면 금파리(金坡里, 파평면 金谷里+파현골) · 마산리(麻山里, 파평면 麻沙里+龍山里) 등 읍면 1개와 법정동리 23개가 확인된다.

한편, 파주시의 고지명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기 때문에 『해동지도』와 『조선지도』·『대동여지도』에 선택된 지명이 많고, 『1872년 지방지도』「파주지도」·「교하군지도」·「장단부지도」·「적성지도」에도 다수의 동리 지명이 확인된다. 파주 시내 지역에는 검산리(檢山里) · 다율리(多栗里) · 당하리(堂下里) · 동패리(東牌里) · 맥금리(陌今里) · 목동리(木洞里) · 산남리(山南里) · 상지석리(上支石里) · 서패리(西牌里) · 송촌리(松村里) · 신촌리(新村里) · 아동리(衙洞里) · 야동리(冶洞里) · 연다산리(煙多山里) · 오도리(吾道里) · 와동리(瓦洞里) · 하지석리(下支石里), 문산읍에는 문산포장(汶山浦場) · 마정면(馬井面) · 사목포(沙鶩浦) · 운천(雲泉) · 이천점(梨川店) · 임진진(臨津鎭) · 장산진(長山津), 조리읍에는 등원리(登院里) · 오산(五山) · 봉일천(奉日川) · 조리동면(條里洞面), 파주읍에는 봉서산(鳳棲山)과 연풍천(延豊川), 월롱면에는 월롱산(月籠山), 장단면에는 도라산(都羅山)과 정동리(井洞里), 적성면에는 마지현(馬之峴) · 무건리(武建里) · 설마령(雪馬嶺) · 율포(栗浦) · 적암리(赤岩里), 탄현면에는 갈현리(葛峴里) · 금승리(金蠅里) · 낙하진(洛河津) · 대동리(大洞里) · 만우리(萬隅里) · 법흥리(法興里) · 성동리(城洞里) · 오금리(吾今里) · 축현리(杻峴里), 파평면에는 눌노리장(訥老里場)과 파평면(坡平面) 등에서 관련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28) 평택시(平澤市)[4읍 5면 27동 110리]

평택시는 조선 후기 평택현 · 진위현 · 수원부 · 양성현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진위군과 평택군 및 수원군 일부가 통합되어 진위군이 되었는데, 당시 진위군 지역은 북면 · 서탄면 · 송탄면 · 고덕면 · 병남면, 수원군 지역은 청북면 · 포승면 · 현덕면 · 오성면, 평택군 지역은 부용면 · 서면으로 편제되었다. 1938년에는 진위군이 평택군으로 개칭되었고, 평택면이 평택읍으로 승격되었다. 1981년에는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되었고, 1983년에는 안성군 원곡면 용이리 · 죽백리 · 청용리 · 월곡리와 안성군 공도면

소사리가 평택군 평택읍으로 편입되었다. 1986년에는 평택읍이 평택시로 승격되어 평택군과 분리되었다. 1995년에는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되었다.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27개 동] 가재동(佳才洞), 군문동(軍門洞), 도일동(道日洞), 독곡동(獨谷洞), 동삭동(東朔洞), 모곡동(茅谷洞), 비전동(碑前洞), 서정동(西井洞), 세교동(細橋洞), 소사동(素沙洞), 신대동(新垈洞), 신장동(新場洞), 용이동(龍耳洞), 월곡동(月谷洞), 유천동(柳川洞), 이충동(二忠洞), 장당동(獐堂洞), 장안동(長安洞), 죽백동(竹栢洞), 지산동(芝山洞), 지제동(芝制洞), 청룡동(青龍洞), 칠괴동(七槐洞), 칠원동(七院洞), 통복동(通伏洞), 평택동(平澤洞), 합정동(蛤井洞)	양성 소사교(素沙橋)	수원 청룡면(青龍面) 양성 도일면(道一面) 양성 소사(素沙) 평택 통복포(通伏浦)	수원 유천(柳川) 양성 소사평(素沙坪)	양성 소사교(素沙橋) 양성 월곡(月谷) 양성 유천리(柳川里) 양성 장당리(獐堂里) 양성 죽백리(竹柏里) 양성 청룡리(青龍里) 진위 군문포(軍門浦) 진위 칠원점(七院店)
안중읍(安仲邑)[10개 리] 금곡리(金谷里), 대반리(大盤里), 덕우리(德佑里), 삼정리(三井里), 성해리(城海里), 송담리(松潭里), 안중리(安仲里), 용성리(龍城里), 학현리(鶴峴里), 현화리(玄華里)			수원 안중(安中) 수원 용성(龍城)	수원 안중장(安仲場)
청북읍(青北邑)[12개 리] 고렴리(古念里), 고잔리(高棧里), 백봉리(栢峰里), 삼계리(三溪里), 어소리(魚沼里), 어연리(魚淵里), 옥길리(玉吉里), 율북리(栗北里), 토진리(土津里), 한산리(閑山里), 현곡리(玄谷里), 후사리(後寺里)		양성 율북면(栗北面)		수원 백봉(栢峯) 수원 토진면(土津面) 양성 율북(栗北) 진위 고잔포(古棧浦)
팽성읍(彭城邑)[25개 리] 객사리(客舍里), 근내리(近乃里), 남산리(南山里), 내리(內里), 노성리(老成里), 노양리(老陽里), 노와리(老瓦里), 대사리(大沙里), 대추리(大秋里), 도두리(棹頭里), 동창리(東倉里), 두리(頭里), 두정리(斗井里), 본정리(本井里), 석근리(石斤里), 석봉리(石峰里), 송화리(松花里), 신궁리(新宮里), 신대리(新垈里), 신호리(新虎里), 안정리(安亭里), 원정리(院井里), 추팔리(秋八里), 평궁리(坪宮里), 함정리(咸井里)	평택 객사(客舍) 평택 도두정(棹頭亭)			평택 객사리(客舍里) 평택 근내동(近乃洞) 평택 남산리(南山里) 평택 내리(內里) 평택 노양제(老陽堤) 평택 대추리(大秋里) 평택 동창리(東倉里) 평택 두리(頭里) 평택 상신대리(上新垈里) 평택 원정리(院井里) 평택 추팔리(秋八里) 평택 팽성고기(彭城古基) 평택 하신대리(下新垈里)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포승읍(浦升邑)[9개 리] 내기리(內基里), 도곡리(道谷里), 만호리(晩湖里), 방림리(芳林里), 석정리(石井里), 신영리(新榮里), 원정리(遠井里), 홍원리(洪原里), 희곡리(希谷里)		수원 홍원(洪原)	수원 홍원곶(洪原串)	수원 홍원목(洪原牧) 양성 방림동(芳林洞) 양성 신영리(新榮里) 양성 희곡(希谷)
고덕면(古德面)[11개 리] 궁리(宮里), 당현리(堂峴里), 동고리(東古里), 동청리(東淸里), 두릉리(杜陵里), 문곡리(杜陵里), 방축리(防築里), 여염리(余染里), 율포리(栗浦里), 좌교리(坐橋里), 해창리(海倉里)	진위 해창(海倉)			양성 동청리(東靑里) 양성 율포리(栗浦里) 진위 해창포(海倉浦)
서탄면(西炭面)[10개 리] 금각리(金角里), 금암리(金岩里), 내천리(奈川里), 마무리(馬頭里), 사리(寺里), 수월암리(水月岩里), 장등리(長登里), 적봉리(赤峰里), 황구지리(黃口池里), 회화리(檜花里)		진위 내천(奈川)	진위 내천(奈川)	진위 황구포(黃口浦)
오성면(梧城面)[9개 리] 교포리(橋浦里), 길음리(吉音里), 당거리(堂巨里), 숙성리(宿城里), 신리(新里), 안화리(安化里), 양교리(梁橋里), 죽리(竹里), 창내리(倉內里)		수원 숙성면(宿城面)		수원 숙성면(宿城面)
진위면(振威面)[12개 리] 가곡리(佳谷里), 갈곶리(葛串里), 견산리(見山里), 고현리(高峴里), 동천리(東泉里), 마산리(馬山里), 봉남리(鳳南里), 신리(新里), 야막리(野幕里), 은산리(銀山里), 청호리(淸湖里), 하북리(下北里)	진위 청호주막(靑好酒幕)	진위 마산면(馬山面) 수원 청호면(靑好面)		진위 마산면(馬山面)
현덕면(玄德面)[12개 리] 권관리(權管里), 기산리(岐山里), 대안리(大安里), 덕목리(德睦里), 도대리(道垈里), 방축리(防築里), 신왕리(新旺里), 운정리(雲井里), 인광리(仁光里), 장수리(長水里), 화양리(華陽里), 황산리(黃山里)				

표 28. 평택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평택시 9개 읍면 137개 법정동리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고덕면(古德面, 진위군 古頭面+수원군 宗德面), 서탄면(西炭面, 진위군 一西面+二西面+二炭

面), 오성면(梧城面, 수원군 梧井面+宿城面), 청북읍(靑北邑, 수원군 靑龍面+栗北面), 포승읍(浦升邑, 수원군 浦內面+升良面), 현덕면(玄德面, 수원군 玄巖面+廣德面), 진위면 은산리(銀山里, 마산면 銀井洞+山內里), 팽성읍 노성리(老成里, 남면 老上里+老中里+新成里)·노양리(老陽里, 경양면 老下里+桂陽)·노와리(老瓦里, 동면 老蓮里+瓦也洞)·두정리(斗井里, 남면 斗谷里+月井里)·본정리(本井里, 경양면 本堰里+鯨井里)·석근리(石斤里, 남면 石橋里+西斤里)·석봉리(石峰里, 북면 黑石里+院峯里)·송화리(松花里, 남면 松中里+松下里+開花里)·신궁리(新宮里, 읍내면 新興里+下宮里)·신호리(新虎里, 북면 新里+虎峙洞)·안정리(安亭里, 남면 鞍峴里+西亭里)·평궁리(坪宮里, 동면 上坪里+읍내면 上宮里)·함정리(咸井里, 서면 咸登村+京井里), 포승읍 석정리(石井里, 포내면 玄石里+西井里) 등 읍면 6개와 법정동리 15개가 확인된다.

한편, 평택시는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이 적었지만 고지도에 수록된 고지명의 개수는 많지 않다. 다만, 『1872년 지방지도』「진위현지도」·「평택현지도」·「양성지도」·「수원부지도」에는 다수의 동리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평택 시내 지역에는 소사교(素沙橋)·월곡(月谷)·유천리(柳川里)·장당리(獐堂里)·죽백리(竹柏里)·청룡리(靑龍里)·군문포(軍門浦)·칠원점(七院店), 청북읍에는 백봉(栢峯)·토진면(土津面)·율북(栗北)·고잔포(古棧浦), 팽성읍에는 객사리(客舍里)·근내동(近乃洞)·남산리(南山里)·내리(內里)·노양제(老陽堤)·대추리(大秋里)·동창리(東倉里)·두리(頭里)·상신대리(上新垈里)·원정리(院井里)·추팔리(秋八里)·팽성고기(彭城古基)·하신대리(下新垈里), 포승읍에는 홍원목(洪原牧)·방림동(芳林洞)·신영리(新榮里)·희곡(希谷), 고덕면에는 동청리(東靑里)·율포리(栗浦里)·해창포(海倉浦) 등에서 관련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29) 포천시(抱川市)[1읍 11면 6동 82리]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6개 동] 동교동(東橋洞), 선단동(仙壇洞), 설운동(雪雲洞), 신읍동(新邑洞), 어룡동(魚龍洞), 자작동(自作洞)				
소흘읍(蘇屹邑)[9개 리] 고모리(古毛里), 무림리(茂林里), 무봉리(茂峰里), 송우리(松隅里), 이가팔리(二加八里), 이곡리(梨谷里), 이동교리(二東橋里), 직동리(直洞里), 초가팔리(初加八里)	포천 소흘면(所屹面)	포천 소흘면(蘇屹面) 포천 송우(松隅)	포천 송우(松隅)	포천 무림산(茂林山) 포천 무봉(茂峰) 포천 상송우장(上松隅場) 포천 소흘면(蘇屹面) 포천 직동산(直洞山) 포천 하송우장(下松隅場)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가산면(加山面)[8개 리] 가산리(加山里), 감암리(甘巖里), 금현리(金峴里), 마산리(馬山里), 마전리(麻田里), 방축리(坊築里), 우금리(友琴里), 정교리(鼎橋里)	포천 가산면(加山面)			포천 가산사창(加山社倉)
관인면(官仁面)[6개 리] 냉정리(冷井里), 사정리(射亭里), 삼율리(三栗里), 중리(中里), 초과리(初果里), 탄동리(炭洞里)				
군내면(郡內面)[8개 리] 구읍리(舊邑里), 명산리(鳴山里), 상성북리(上城北里), 용정리(龍井里), 유교리(柳橋里), 좌의리(左儀里), 직두리(稷頭里), 하성북리(下城北里)				포천 명산(鳴山) 포천 성북산(城北山)
내촌면(內村面)[6개 리] 내리(內里), 마명리(馬鳴里), 소학리(巢鶴里), 신팔리(薪八里), 음현리(陰峴里), 진목리(眞木里)				포천 내동사창(內洞社倉)
신북면(新北面)[12개 리] 가채리(加采里), 갈월리(葛月里), 계류리(溪流里), 고일리(古日里), 금동리(琴洞里), 기지리(機池里), 덕둔리(德屯里), 만세교리(萬歲橋里), 삼성당리(三星堂里), 삼정리(三政里), 신평리(新坪里), 심곡리(深谷里)	영평 만세교(萬世橋)	영평 만세교(萬世橋) 포천 심곡산(深谷山)	영평 만세교(萬歲橋) 포천 심곡산(深谷山)	포천 계류산(溪流山) 포천 고일산(古日山) 포천 만세교천(萬世橋川) 포천 심곡산(深谷山)
영북면(永北面)[7개 리] 대회산리(大回山里), 문암리(文岩里), 산정리(山井里), 소회산리(小回山里), 야미리(夜味里), 운천리(雲川里), 자일리(自逸里)				
영중면(永中面)[6개 리] 거사리(居士里), 금주리(金珠里), 성동리(城洞里), 양문리(梁文里), 영송리(永松里), 영평리(永平里)	영평 금주산(金柱山) 영평 양문역촌(梁文驛村)	영평 금주산(金主山)	영평 금주산(錦珠山) 영평 양문(梁文)	영평 금주산(金柱山) 영평 양문역(梁文驛)
이동면(二東面)[4개 리] 노곡리(蘆谷里), 도평리(都坪里), 연곡리(燕谷里), 장암리(場岩里)				영평 노곡리(蘆谷里) 영평 이동면(二東面)
일동면(一東面)[6개 리] 기산리(機山里), 길명리(吉明里), 사직리(社稷里), 수입리(水入里), 유동리(柳洞里), 화대리(禾垈里)	영평 기산촌(機山村)			영평 일동면(一東面) 영평 화대리(禾垈里)
창수면(蒼水面)[7개 리] 가양리(可養里), 고소성리(姑蘇城里),	영평 상추동촌(上楸洞村)			영평 고소성(姑蘇城) 영평 상추동(上楸洞)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신흥리(新興里), 오가리(伍佳里), 운산리(雲山里), 주원리(注院里), 추동리(楸洞里)				영평 하추동(下楸洞)
화현면(花峴面)[3개 리] 명덕리(明德里), 지현리(芝峴里), 화현리(花峴里)				

표 29. 포천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포천시는 조선 후기 포천현·영평현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포천군과 영평군이 통합되어 포천군이 되었는데, 당시 포천군 지역은 군내면·가산면·내촌면·소흘면·서면·신북면·청산면, 영평군 지역은 영중면·창수면·영북면·일동면·이동면으로 편제되었다. 1983년에는 연천군 관인면이 편입되었고, 청산면이 연천군으로 이관되었으며, 내촌면 화현출장소가 화현면으로 승격되었다. 2003년에는 포천군이 포천시로 승격되었다.

포천시 12개 읍면 88개 법정동리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내촌면(內村面, 포천군 內洞面+東村面), 창수면(蒼水面, 영평군 蒼玉屛+金水亭), 영북면 산정리(山井里, 북면 산안+정항), 창수면 신흥리(新興里, 새로 명명)·운산리(雲山里, 하리면 雪雲里+북면 大回山里) 등 읍면 2개와 법정동리 3개가 확인된다.

한편, 포천시는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이 적었지만 고지도에 수록된 고지명의 개수는 많지 않다. 다만, 『1872년 지방지도』「포천현지도」·「영평군지도」에는 다수의 동리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소흘읍에는 무림산(茂林山)·무봉(茂峰)·상송우장(上松隅場)·소흘면(蘇屹面)·직동산(直洞山)·하송우장(下松隅場), 군내면에는 명산(鳴山)·성북산(城北山), 신북면에는 계류산(溪流山)·고일산(古日山)·만세교천(萬世橋川)·심곡산(深谷山), 영중면에는 금주산(金柱山)·양문역(梁文驛), 일동면에는 일동면(一東面)·화대리(禾垈里), 이동면에는 노곡리(蘆谷里)·이동면(二東面), 창수면에는 고소성(姑蘇城)·상추동(上楸洞)·하추동(下楸洞) 등에서 관련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30) 하남시(河南市)[24동]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24개 동] 감북동(甘北洞), 감이동(甘二洞),	광주 덕풍역(德豊驛) 광주 망월사(望月寺)	광주 덕풍역(德豊驛) 광주 망월(望月)	광주 덕풍(德豊)	광주 당정도(堂亭島) 광주 덕풍역(德豊驛)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감일동(甘一洞), 광암동(廣岩洞), 교산동(校山洞), 당정동(堂亭洞), 덕풍동(德豊洞), 망월동(望月洞), 미사동(渼沙洞), 배알미동(拜謁尾洞), 상사창동(上司倉洞), 선동(船洞), 상산곡동(上山谷洞), 신장동(新長洞), 창우동(倉隅洞), 천현동(泉峴洞), 초이동(草二洞), 초일동(草一洞), 춘궁동(春宮洞), 풍산동(豊山洞), 하사창동(下司倉洞), 학암동(鶴岩洞), 하산곡동(下山谷洞), 항동(項洞)	광주 창우(倉隅)			광주 망월봉(望月峯)

표 30. 하남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하남시는 조선 후기 광주부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광주군 동부면과 서부면이 그대로 광주군 동부면과 서부면으로 되었다. 1980년에는 동부면이 동부읍으로 승격되었다. 1989년에는 광주군 동부읍과 서부면 및 중부면 상산곡리를 통합하여 하남시가 설치되었다.

하남시 24개 법정동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교산동(校山洞, 동부면 校村+客山洞), 신장동(新長洞, 동부면 新坪里+長禮村), 춘궁동(春宮洞, 서부면 春長里+宮村), 풍산동(豊山洞, 동부면 德豊洞+荒山洞) 등 4개가 확인된다. 한편 하남시는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이 적었지만 고지도에 수록된 지명의 개수는 많지 않다. 당정동(堂亭洞)은 당정도(堂亭島), 덕풍동(德豊洞)은 덕풍역(德豊驛), 망월동(望月洞)은 망월봉(望月峯), 창우동(倉隅洞)은 창우(倉隅) 등에서 관련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31) 화성시(華城市)[4읍 9면 25동 169리]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시내[25개 동] 금곡동(金谷洞), 기산동(機山洞), 기안동(旗安洞), 능동(陵洞), 목동(睦洞), 반송동(盤松洞), 반월동(半月洞), 반정동(泮亭洞), 방교동(防橋洞), 배양동(培養洞), 병점동(餠店洞), 산척동(山尺洞), 새솔동, 석우동(石隅洞), 송동(松洞), 송산동(松山洞), 신동(新洞), 안녕동(安寧洞),				수원 안녕면(安寧面)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영천동(英川洞), 오산동(梧山洞), 장지동(長芝洞), 중동(中洞), 진안동(陣鴈洞), 청계동(淸溪洞), 황계동(黃鷄洞)				
남양읍(南陽邑)[15개 리] 남양리(南陽里), 무송리(茂松里), 문호리(文湖里), 북양리(北陽里), 송림리(松林里), 수화리(水花里), 시리(匙里), 신남리(新南里), 신외리(新外里), 안석리(安石里), 온석리(溫石里), 원천리(遠泉里), 장덕리(長德里), 장전리(獐田里), 활초리(活草里)				남양 무송현(茂松峴) 남양 시리동(匙里洞)
봉담읍(峰潭邑)[16개 리] 내리(內里), 당하리(堂下里), 덕리(德里), 덕우리(德佑里), 동화리(桐化里), 마하리(馬霞里), 분천리(汾川里), 상기리(上箕里), 상리(上里), 세곡리(細谷里), 수기리(水機里), 수영리(水營里), 와우리(臥牛里), 왕림리(旺林里), 유리(柳里), 하가등리(下加等里)	남양 분천치(分川峙)	수원 갓등면(笠等面)		
우정읍(雨汀邑)[13개 리] 국화리(菊花里), 매향리(梅香里), 멱우리(覓祐里), 석천리(石川里), 운평리(雲坪里), 원안리(元安里), 이화리(梨花里), 조암리(朝巖里), 주곡리(珠谷里), 한각리(閑角里), 호곡리(虎谷里), 화산리(花山里), 화수리(花樹里)				수원 우정면(雨井面)
향남읍(鄕南邑)[21개 리] 갈천리(葛川里), 관리(官里), 구문천리(求文川里), 길성리(吉城里), 도이리(桃李里), 동오리(東梧里), 발안리(發安里), 방축리(防築里), 백토리(白土里), 상두리(上斗里), 상신리(上新里), 송곡리(松谷里), 수직리(水直里), 요리(料里), 장짐리(長朕里), 제암리(堤巖里), 증거리(增巨里), 평리(坪里), 하길리(下吉里), 행정리(杏亭里), 화리현리(禾里峴里)				수원 발안장(發安場)
마도면(麻道面)[10개 리] 고모리(古毛里), 금당리(錦堂里),	남양 해문(海門)	남양 마도면(麻道面) 남양 해문(海門)	남양 해문(海門)	남양 고모동(古毛洞) 남양 마도면(麻道面)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두곡리(斗谷里), 백곡리(白谷里), 석교리(石橋里), 송정리(松亭里), 슬항리(瑟項里), 쌍송리(雙松里), 청원리(靑園里), 해문리(海門里)				남양 송정동(松亭洞)
매송면(梅松面)[7개 리] 송라리(松蘿里), 숙곡리(肅谷里), 야목리(野牧里), 어천리(漁川里), 원리(院里), 원평리(院坪里), 천천리(泉川里)				
비봉면(飛鳳面)[8개 리] 구포리(鳩浦里), 남전리(南田里), 삼화리(三花里), 쌍학리(雙鶴里), 양노리(兩老里), 유포리(柳浦里), 자안리(紫安里), 청요리(靑蓼里)	남양 구포(鳩浦) 남양 비봉산(飛鳳山)	남양 비봉산(飛鳳山)	남양 구포(鳩浦) 남양 비봉산(飛鳳山)	남양 구포장(鳩浦場) 남양 비봉산(飛鳳山)
서신면(西新面)[12개 리] 광평리(廣坪里), 궁평리(宮坪里), 매화리(梅花里), 백미리(百味里), 사곶리(仕串里), 상안리(尙安里), 송교리(松橋里), 용두리(龍頭里), 장외리(墻外里), 전곡리(前谷里), 제부리(濟扶里), 홍법리(弘法里)	수원 홍법산(弘法山)			남양 제부도(濟扶島) 남양 홍법동(弘法洞)
송산면(松山面)[15개 리] 고정리(古井里), 고포리(古浦里), 독지리(禿旨里), 마산리(馬山里), 봉가리(鳳歌里), 사강리(沙江里), 삼존리(三尊里), 신천리(新天里), 쌍정리(雙井里), 용포리(龍浦里), 육일리(六一里), 중송리(中松里), 지화리(芝花里), 천등리(天燈里), 칠곡리(漆谷里)	남양 송산면(松山面) 남양 천등산(天登山)	남양 송산면(松山面) 남양 천등산(天登山)	남양 마산진(馬山津) 남양 천등산(天燈山)	남양 마산진(馬山津) 남양 삼존동(三尊洞) 남양 송산면(松山面) 남양 중송동(中松洞) 남양 천등산(天燈山)
양감면(楊甘面)[7개 리] 대양리(大陽里), 사창리(社倉里), 송산리(松山里), 신왕리(新旺里), 요당리(蓼塘里), 용소리(龍沼里), 정문리(旌門里)	수원 사창(社倉)			수원 사창(社倉)
장안면(長安面)[10개 리] 금의리(錦衣里), 노진리(蘆眞里), 덕다리(德多里), 독정리(篤亭里), 사곡리(沙谷里), 사랑리(沙浪里), 석포리(石浦里), 수촌리(水村里), 어은리(漁隱里), 장안리(長安里)				수원 장안면(長安面)
정남면(正南面)[19개 리] 계향리(桂香里), 고지리(古支里), 관항리(官項里), 괘랑리(掛囊里),	수원 망월대(望月臺)			

법정동리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귀래리(歸來里), 금복리(錦福里), 내리(內里), 덕절리(德節里), 망월리(望月里), 문학리(文學里), 발산리(鉢山里), 백리(栢里), 보통리(普通里), 수면리(水面里), 신리(新里), 오일리(五逸里), 용수리(龍水里), 음양리(陰陽里), 제기리(諸岐里)				
팔탄면(八灘面)[16개 리] 가재리(佳才里), 고주리(古洲里), 구장리(舊場里), 기천리(箕川里), 노하리(路下里), 덕우리(德右里), 덕천리(德泉里), 매곡리(梅谷里), 서근리(西斤里), 월문리(月門里), 율암리(栗巖里), 지월리(芝月里), 창곡리(昌谷里), 하저리(下楮里), 해창리(海倉里), 화당리(花塘里)	남양 서근진(西近鎭) 남양 저팔리면(楮八里面) 수원 팔탄산(八呑山) 수원 해창(海倉)	남양 저팔면(楮八面) 수원 해창(海倉)		수원 팔탄면(八灘面)

표 31. 화성시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화성시는 조선 후기 수원부와 남양도호부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수원군과 남양군 및 안산군·광주군 일부가 통합되어 수원군이 되었는데, 당시 수원군 지역은 수원면·일형면·태장면·안룡면·매송면·봉담면·향남면·양감면·정남면·동탄면·성호면, 남양군 지역은 은덕면·마도면·송산면·서신면·비봉면·팔탄면·장안면, 안산군 지역은 반월면, 광주군 지역은 의왕면으로 편제되었다. 1949년에는 수원읍이 수원부로 분리·승격되면서 수원군은 화성군으로 개칭되었다. 1989년에는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되어 화성군에서 분리되었다. 2001년에는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되었다.

화성시 13개 읍면 194개 법정동리 중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받은 지명은 매송면(梅松面, 수원군 梅谷面+松洞面), 봉담읍(峰潭邑, 수원군 三峰面+葛潭面), 서신면(西新面, 수원군 西如堤面+新里面), 양감면(楊甘面, 수원군 楊澗面+甘味面), 우정읍(雨汀邑, 수원군 雨井面+鴨汀面), 정남면(正南面, 수원군 正林面+南谷面), 향남읍(鄕南面, 수원군 貢鄕面+南面), 남양읍 문호리(文湖里, 화척지면 文起里+西湖洞)·수화리(水花里, 화척지면 水充洞+山花洞)·안석리(安石里, 둔지곶면 安儀洞+學石洞)·원천리(遠泉里, 화척지면 遠幕洞+泉谷洞)·장덕리(長德里, 둔지곶면 長串洞+德防洞), 마도면 쌍송리(雙松里, 마도면 雙峯洞+松峙洞)·청원리(靑園里, 마도면 靑山洞+上園洞), 비봉면 남전리(南田里, 미지곶면 新南洞+大田洞)·삼화리(三花里, 미지곶면 3개 마을 통합)·쌍학리(雙鶴里, 미지곶면 東鶴洞+白鶴洞)·양노리(兩老里, 미지곶면 仵老洞+百老洞)·유포리(柳浦里, 미지곶

면 柳池洞+浦村洞) · 자안리(紫安里, 저팔리면 紫陽洞+新安洞) · 청요리(靑蓼里, 저팔리면 靑令洞+蓼谷洞), 서신면 상안리(尙安里, 서여제면 尙林洞+代安洞), 송산면 고정리(古井里, 세곶면 古棧洞+遠井洞) · 고포리(古浦里, 송산면 古棧洞+浦幕洞) · 신천리(新天里, 세곶면 新洞+天燈洞) · 쌍정리(雙井里, 세곶면 大井洞+伏井洞) · 용포리(龍浦里, 세곶면 龍水洞+羔浦洞) · 육일리(六一里, 수산면 六校洞+北一洞) · 지화리(芝花里, 송산면 居芝洞+花梁洞), 우정읍 석천리(石川里, 압정면 돌파기+가래내) · 운평리(雲坪里, 우정면 구름울+평밭), 장안면 노진리(蘆眞里, 초장면 노정+진목), 정남면 음양리(陰陽里, 정림면 陰村+陽村), 팔탄면 기천리(箕川里, 팔탄면 저팔리면 下箕洞+上沙川洞+下沙川洞) · 매곡리(梅谷里, 공향면 梅安洞+斗谷) · 율암리(栗巖里, 팔탄면 栗里洞+立岩洞) · 지월리(芝月里, 팔탄면 長芝洞+眞月洞) · 창곡리(昌谷里, 팔탄면 彦昌洞+篤谷洞), 향남읍 구문천리(求文川里, 분향리면 求密洞+文彦洞+石川洞) · 상신리(上新里, 분향리면 上洞+新洞) · 하길리(下吉里, 분향리면 下洞+安吉里) 등 읍면 7개와 법정동리 34개가 확인된다.

한편, 화성시는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이 적었지만 고지도에 수록된 고지명의 개수는 많지 않다. 다만, 『1872년 지방지도』「수원부지도」·「남양지도」에는 일부 동리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안녕동(安寧洞)은 안녕면(安寧面), 남양읍 무송리(茂松里)는 무송현(茂松峴), 남양읍 시리(匙里)는 시리동(匙里洞), 봉담읍 분천리(汾川里)는 분천치(分川峙), 봉담읍 하가등리(下加等里)는 갓등면(舡等面), 향남읍 발안리(發安里)는 발안장(發安場), 마도면 고모리(古毛里)는 고모동(古毛洞), 마도면 송정리(松亭里)는 송정동(松亭洞), 마도면 해문리(海門里)는 해문(海門), 비봉면 구포리(鳩浦里)는 구포장(鳩浦場), 서신면 제부리(濟扶里)는 제부도(濟扶島), 서신면 홍법리(弘法里)는 홍법동(弘法洞), 송산면 마산리(馬山里)는 마산진(馬山津), 송산면 삼존리(三尊里)는 삼존동(三尊洞), 송산면 중송리(中松里)는 중송동(中松洞), 송산면 천등리(天燈里)는 천등산(天燈山) 등에서 관련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경기도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31개 시군과 17개 구, 37개 읍, 103개 면, 598개 법정동, 1,414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명과 현재 사용하는 지명들이 조선시대 고지도 중 『해동지도』(보물 제1591호) · 『조선지도』(보물 제1587호) · 『대동여지도』(보물 제850호) ·

『1872년 지방지도』에 기록된 고지명 현황을 살펴보았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도 현재까지 읍면동리 지명은 계속 개칭이 이루어졌으며, 신설된 동리 지명도 시군에 따라 다수 나타난다. 이러한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914년에 변경된 지명을 살펴보면 46개 읍면과 534개 법정동리 지명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 안성시는 5개 읍면 · 67개 동리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주시 5개 읍면 · 60개 동리, 이천시 7개 읍면 · 55개 동리, 용인시 2개 구 · 1개 읍면 · 50개 동리, 양평군 46개 동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오산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양시는 2개 동리, 수원시는 1개 동리, 포천시는 2개 읍면 · 3개 동리로 나타나 도시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의 읍면동리 지명과 관련 있는 지명이 군현별로 중복된 지명을 제외하고 고지도에 수록된 것은 『해동지도』에는 159개, 『조선지도』에는 137개, 『대동여지도』에는 105개, 『1872년 지방지도』에는 458개의 지명이 확인된다. 군현별로는 지도제작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록된 내용에 있어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특히 『1872년 지방지도』의 경우, 시군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가장 많이 수록된 곳은 이천시 60개, 안성시 59개, 파주시 57개, 평택시 36개, 연천군 32개, 용인시 29개, 고양시 28개 등으로 나타나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이 심하게 진행된 안성시, 이천시 등도 높기 때문에 지도제작자의 주관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별로는 전체 수록 지명이 117개로 가장 많은 파주시를 사례로 살펴보면 면과 동리 지명을 중심으로 산천, 장시, 역원 관련 지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해동지도』에는 25개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동면 · 지석면 등 면 지명 3개, 임진강 · 연풍천 등 하천 지명 4개, 월롱산 · 파평산 등 산 지명 4개, 백연촌 · 하방목리 · 어룡포 등 동리 및 포구 지명 9개 외에도 고개, 창고 관련 지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지도』에는 20개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동면 · 마정면 등 면 지명 8개, 임진 · 봉일천 등 하천 지명 2개, 오도산 · 월롱산 등 산 지명 2개, 이천 · 하포 등 동리 및 포구 지명 4개 외에도 고개, 역원 관련 지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15개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석 · 광탄 등 면 지명 3개, 임진 · 봉일천 등 하천 지명 2개, 월롱산 · 도라산 등 산 지명 2개, 문산포 · 정자포 등 동리 및 포구 지명 4개 외에도 고개, 역원 관련 지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1872년 지방지도』에는 57개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정면 · 조리동면 등 면 지명 5개, 봉일천 · 연풍천 등 하천 지명 2개, 봉서산 · 월롱산 등 산 지명 3개, 아동리 · 야동리 등 동리 및 포구 지명 39개,

문산포장·눌노리장 등 장시 2개 외에도 고개, 역원 관련 지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경기도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읍면과 법정동리 지명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이후 지속적인 개칭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지명의 변화로 인해 원지명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는 고지도에 수록된 지명과의 연관성 또한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지명 개편 과정에서 고지도 등에 수록된 원지명의 고증을 통해 무분별하게 신설되고 있는 지명에 좀 더 역사성이 부여되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假10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화동고지도(華東古地圖)」(古軸4709-11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72년 지방지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古 4709-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奎1033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조선지도(朝鮮地圖)』(奎1603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古4709-11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해동지도(海東地圖)』(古大4709-4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기혁, 『부산고지도』(부산광역시, 2008)
월지유칠,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中央市場, 1917)
조선총독부,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조선총독부, 1912)

가평군청(http:,,www.gp.go.kr)
경기도청(https:,,www.gg.go.kr)
고양시청(http:,,www.goyang.go.kr)
과천시청(https:,,www.gccity.go.kr)
광명시청(http:,,www.gm.go.kr)
광주시청(https:,,www.gjcity.go.kr)
구리시청(http:,,www.guri.go.kr)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군포시청(http:,,www.gunpo.go.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snu.ac.kr)
김포시청(https:,,www.gimpo.go.kr)
남양주시청(https:,,www.nyj.go.kr)
동두천시청(https:,,www.ddc.go.kr)
부천시청(http:,,www.bucheon.go.kr)
서울특별시청(https:,,www.seoul.go.kr)
성남시청(https:,,www.seongnam.go.kr)
수원시청(https:,,www.suwon.go.kr)

시흥시청(http:,,www.siheung.go.kr)
안산시청(http:,,www.ansan.go.kr)
안성시청(https:,,www.anseong.go.kr)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양주시청(https:,,www.yangju.go.kr)
양평군청(https:,,www.yp21.go.kr)
여주시청(https:,,www.yeoju.go.kr)
연천군청(http:,,www.yeoncheon.go.kr)
오산시청(https:,,www.osan.go.kr)
용인시청(https:,,www.yongin.go.kr)
의왕시청(https:,,www.uiwang.go.kr)
의정부시청(https:,,www.ui4u.go.kr)
이천시청(https:,,www.icheon.go.kr)
파주시청(http:,,www.paju.go.kr)
평택시청(https:,,www.pyeongtaek.go.kr)
포천시청(http:,,www.pocheon.go.kr)
하남시청(http:,,www.hanam.go.kr)
화성시청(http:,,www.hscity.go.kr)

금석문에
반영된 경기도 지명

금석문에 반영된 경기도 지명

신종원(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우선(백두대간인문학연구소장)

이 글은 경기도 금석문에서 경기도의 지명을 찾아 기존의 『경기도 역사지명 사전』(동아시아역사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관련 항목에 덧붙인 것이다. 『경기도 역사지명 사전』은 10 명의 연구원이 집필한 공동연구이므로 매 항목마다 본래의 필자와 금석문 필자 두 사람을 모두 밝혀두었다.

집필은 신종원과 김우선이 공동으로 맡았다. 신종원은 회천동~경안동 11항목, 김우선은 가산면~화도읍 56항목을 담당하였다.

■ 회천동 檜泉洞 • Hoechendong

- 유형 경기도 양주시 ← 楊州牧: 행정_동
- 전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57), 『 해동지도』, 『 팔도군현지도』, 『호구총수』, 『 동국여도』, 『 청구도』, 『 양주목읍지』, 『 조선지지략』, 『 양주군읍지』, 『양주읍지』, 회암사지공선사부도비, 임추신도비, 임권신도비, 회암사지공선사부도비,
- 주소 경기도 양주시 회천동

양주군 7면의 하나로, 시의 북동쪽에 위치한 동이다. 본래 양주군의 지역으로서 회암사의 이름을 따서 회암면이라 하여 회암 · 송현 · 모정 · 귀율 · 옥동 · 냉정 · 우산 · 마한의 8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천천면의 덕정, 괴회,둔계, 도덕, 고자의 5개 동리와 어등산면의 이리, 삼리, 사리, 오리, 일리의 5개 리와 고주내 면의 삼가대리 일부를 병합하여 회암과 천천의 이름을 따서 회천면이라 하고, 회정, 덕계, 고

암, 회암, 율정, 옥정, 덕정, 봉양의 8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회암면은 조선시대 최대의 사찰인 회암사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회암'이란 이름은 금석문에 "임자년(1372) 9월 16일 왕명에 따라 회암사에다 부도를 세우고 탑에다 깨끗한 뼈를 넣으려는 직전에 사리 몇 알을 얻었다."(회암사지공선사부도비, 1378)라고 처음 나온다. 그 뒤『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을 비롯하여『여지도서』(1757) ,『 해동지도』,『 팔도군현지도』,『 호구총수』,『 동국여도』,『 청구도』,『 양주목읍지』,『 조선지지략』,『 양주군읍지』,『양주읍지』에서도 확인된다. 천천면은 '샘내'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천천(泉川)'으로 표기하였던 데서 유래한다. 회천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발행된『신구대조』이다. 회천동은 대한제국 시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회암면과 천천면에 속한 지역이었다. 동쪽은 동두천시와 포천군 포천읍, 소흘면, 남쪽은 주내면, 서쪽은 백석면, 광적면, 은현면, 북쪽은 동두천시에 닿아있다. 문화유적은 회암리에 회암사지 · 회암사지선각왕사비 · 회암사지부도 · 회암사지쌍사자석등 · 지공선사부도 및 석등 · 나옹선사부도 및 석등 · 무학대사비 · 회암사지부도탑 · 회암사지맷돌, 옥정리에 선돌 등이 있다. 그 밖에 율정리에 삼국시대 것으로 추측되는 갈궁지(葛宮址)가 있다. 금석문으로는 임추신도비(1550)와 임권신도비(1560)에 회암사의 배경인 '天寶山'이 보인다.(양보경, 신종원)

■ 홍복산 弘福山 • Hongboksan

- 유형 역사지명류 ← 楊州牧: 산천
- 전거『신증동국여지승람』(1530), 행주대첩비,『여지도서』(1757),『대동지지』, 행주대첩비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 양주시 장흥면 · 백석면

홍복산(弘福山)은 경기도 의정부시와 양주시 장흥면 · 백석면 경계에 있는 높이 347m의 산이다. 산에 대한 금석문 자료로는 행주대첩비(1602)에 "공(권율)의 무덤은 서울 서쪽인 홍복산에 있다."라고 보인다.『여지도서』(1757)에는 "백석면(白石面)에 있다. 불국산에서 잘록한 모양을 이루고 남쪽을 향해 뻗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양보경,신종원)

■ 고양시 高陽市 • • Goyang-Si

- 유형 현 행정구역 ← 高陽郡: 행정_시
- 전거 『세종실록지리지』(1432),『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여지도서』(1757),『대동지지』

(1866),『증보문헌비고』(1908),『조선지지자료』(1911), 행주대첩비, 유림신도비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연혁】 고양시의 남부 지역은 본래 고구려 개백현(皆伯縣) 또는 왕봉현(王逢縣)이었다. 이 명칭은 이 지역의 한씨(漢氏) 미녀가 고구려 안장왕(安藏王)을 만난 데서 유래했다고『삼국사기』지리지에 전한다. '개백'은 뵙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왕을 뵙는다는 한자 표현이 왕봉(王逢)이기 때문이다. 신라 경덕왕대에는 같은 의미를 가진 우왕현(遇王縣)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는 행주(杏洲)라 했는데, 이는 살구나무가 많은 강변지역이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한다.『고려사』지리지에 따르면 고려 성종대부터는 일명 '덕양(德陽)'이라고도 불렀다. 고려 현종은 이곳을 양주(楊州)의 속군으로 삼았는데, 조선 태조가 고봉현(高峯縣)에 속하게 했다. 당시까지의 읍치는 행주내동에 속하는 행주산성의 서북편 능선자락으로 추정된다. 고양시의 북부 지역은 원래 고구려의 달을성현(達乙省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이 고봉현(高峰縣)으로 이름을 고쳤다고『삼국사기』지리지에 전한다. 이 명칭도 한씨 미녀가 높은 산마루에서 봉화를 피워 안장왕을 맞이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한다. '달(達)'은 고구려 지역에서 우세한 지명 어소(語素)이다. 고구려어에서 '달을(達乙)'은 높다는 뜻이고, '성(省)'은 발음상 성이나 산과 통할 수 있다. 따라서 달을성은 높은 산봉우리에 설치한 성이라는 의미로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뒤에 기존의 백제 지명을 고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치소는 현재 고봉산성이 위치한 고봉산 주변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고양시의 남부와 북부가 고구려로 편입된 시기에 대해서는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한 475년부터 고구려의 안장왕이 백제의 6군(郡)을 함락한 529년까지 의견이 분분하다.『세종실록지리지』(1454)에 따르면 1413년(태종 13년) 고봉현(高峯縣)의 '고(高)'와 덕양현(德陽縣)의 '양(陽)'을 따서 고양현으로 합쳤다. 이것이 '고양'이라는 지명의 출발이다. 1471년(성종 2년)에는 덕종(德宗)의 경릉(敬陵)과 예종(睿宗)의 창릉(昌陵)이 있다 하여 고양현이 군으로 승격했다. 1504년(연산군 10년)에는 고양군을 폐지하고 왕의 사냥터로 삼았으며, 나머지 범위를 인근 고을로 나누어 편입시켰다. 1506년 중종이 즉위하면서 고양군은 복구되었다. 1544년에는 관아가 서삼릉 희릉(禧陵) 일대로부터 대자동 고읍마을로 옮겨갔다. 1625년에는 이를 다시 고양동 벽제관 서북쪽으로 옮겼다. 이후 고양군의 영역에 변화도 적지 않았으나, 고양군의 존재 자체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1992년 2월부터 고양군은 시로 승격되었다. 1996년 3월에는 덕양구와 일산구가 설치되었고, 2005년 5월에는 일산구가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로 나뉘었다. 2008년 1월 현재 고양시는 39개 행정동을 거느리고 있다. 고양시는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정책에 따라 위성도시의

하나로서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 영향으로 서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도시규모에 비해 자족적 기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 같은 대규모 시설의 유치, 화훼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갖춘 광역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군에 대해서는 행주대첩비(1602)에 "공(권율)은 … 고양의 행주산성에 주둔하였다."라는 금석문 자료가 있다. 유림신도비(1695)에는 '高陽 陶井里'가 나와 있다.(이부오, 신종원)

■ 벽제관 碧蹄館 • Byeokjegwan

- 유형 역사지명류 ← 高陽郡: 공관, 고적
- 전거 『여지도서』, 『조선지지자료』, 행주대첩비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벽제관(碧蹄館)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벽제역(碧蹄驛)에 설치되었던 역관(驛館)이다. 조선시대에 서울로부터 중국으로 통하는 관서로에 설치되었던 역관 중 하나이다.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과 개성의 제릉(齊陵: 태조비 신의왕후의 능)으로 행차하는 국왕의 숙소로 이용되었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사신들이 도성에 들어오기 하루 전에 묵고서 예의를 갖추는 곳이기도 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고양군 역원조에는 벽제역이 군치 동쪽 15리 지점에 있다고 했다. 이는 당시 원당동 서삼릉에 있었던 군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벽제관은 1476년(성종7)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 책에는 명(明)의 사신으로 와서 이곳에 묵었던 예겸(倪謙) 등의 시가 실려 있다. 이 시는 『여지도서』(1757) 고양군 역원조에도 반복해 실렸으며, 군치와의 위치관계도 같다. 그러나 당시에는 군치가 벽제관의 서북쪽으로 인접해 있었으므로, 방향에 대한 기록은 시의에 맞지 않게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을 답습한 셈이다. 18세기 중엽의 『해동지도』와 19세기 전반의 『광여도』에서 관아 남쪽에 벽제역촌(碧蹄驛村)을 표기한 것은 현존 벽제관지의 위치와 일치한다. 현재의 벽제관은 1625년(인조3) 고양군의 청사를 옮겨오면서 함께 건립한 것이다. 『조선지지자료』(1911) 고양조에서 '300년 전'에 설립되었다고 한 기록도 이와 부합한다. 이곳은 북쪽의 혜음령과 동북방의 퇴패치(退敗峙), 그리고 서남으로 통하는 길목이었다. 임진왜란 때 이곳 주변에서 명(明)의 이여송(李如松)이 왜군과 싸워 참패한 것으로 유명하다. 벽제관은 일제 때 일부가 헐린 뒤 6·25전쟁으로 소실되었다. 이석희(李錫嬉)의 『고양군지』(1755)에는 벽제관 앞에 벽제역이 위치한다고 하여 두 시설의 관계를 짐작케 해준다. 벽제관지는 1960년경까지 객관문이 남아 있었다가 쇠락한 뒤, 1998년 발굴조사로 주춧돌들이 정

연한 형태로 드러나 있다. 벽제관지는 1965년 2월 2일 사적 제144호로 지정되었고, 면적은 4,175㎡이다. 벽제관에 대해서는 행주대첩비(1602)에 "마침내 벽제관에서 실패를 당하여 사태는 다시 불리하게 되었다."라고 나온다.(이부오, 신종원)

■ 천보산 天寶山 • Cheonbo-san

- 유형 역사지명류 ← 楊州牧: 산천
- 전거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불암사사적비
- 주소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천보산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에 있는 높이 423m의 산이다. 『여지도서』(1757)에는 포천(抱川) 축석령에서 갈라져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로 기록되어 있다. 불암사사적비(1629)에 '天寶山'이 나온다.(양보경, 신종원)

■ 죽산면 竹山面 • Juksan-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安城郡: 행정_면
- 이칭 개차산(皆次山), 개산군(介山郡), 죽주부(竹州府)
- 전거 『세종실록지리지』(1432),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57), 『대동지지』(1864), 『증보문헌비고』(1908), 『조선지지자료』(1911) 홍계남장군고루비
- 주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면은 경기도 안성시 남동부에 있는 면이다. 면사무소는 죽산면 죽산리 348번지에 있다. 서쪽은 안성시 삼죽면 · 금광면, 북쪽은 일죽면과 용인시 백암면, 동쪽은 충청도 음성군 삼성면, 남쪽은 진천군 만승면과 더불어 경계를 이룬다. 죽산면은 곧 죽산현(竹山縣)을 전신으로 삼는다. '죽산'(竹山)이라는 명칭은 1172년 이래 감무(監務)가 설치되었던 죽주(竹州)를 1413년(태종 13년)에 죽산현으로 고치면서 처음 등장했다. 죽산은 죽주라는 명칭을 현(縣)의 격에 맞춰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곳은 원래 고구려의 개차산(皆次山)이었고 신라 경덕왕대부터는 개산군(介山郡)이었다. 죽주는 고려 초에 죽주부(竹州府)로 승격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죽산면 지역에는 원래 죽산군 부일면 · 부이면 · 남면 · 북일면이 위치했다. 죽산면 소재지의 죽산리와 그 남쪽의 장원리는 원래 부일면이었고, 면소재지 동북부의 매산리는 부일면 외에 북일면 일부가 편입되어 만들어졌다, 면소

재지 서남쪽의 장능리 · 장계리 · 두현리 등은 원래 부이면, 남부의 칠장리 · 용설리 · 두교리 · 당목리 등은 남면이었다. 이상에서 남면은 『여지도서』(1757) 안성군 지도에서도 등장한다. 북일면은 근일면(近一面)으로, 부일면 · 부이면은 남부면(南部面) · 부내일면(府內一面) 등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기전읍지(畿甸邑誌)』(1894) 죽산부도부터 부일면 · 부이면 · 북일면이 확인된다. 이는 적어도 18세기 중엽 훨씬 이전부터 형성되어 내려왔던 편성을 기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전국의 군 · 면이 통폐합되면서 죽산군은 해체되고 위 면들이 통합되어 죽이면(竹二面)으로 편성되었다. 1917년에 이죽면으로 고쳤고, 1992년 10월 1일부터 죽산면으로 바꿨다. 죽산면은 1998년 4월 1일 안성군이 시로 승격하면서 안성시에 속하게 되었다. 비봉산(飛鳳山: 360m)은 안성군 이죽면 · 삼죽면과 용인군 외사면 경계에 있는 산이다. 이죽면 매산리 경내의 산정에 죽주산성(竹州山城: 1,688m)의 옛 자취가 전한다. 도덕산(道德山: 366m)은 이죽면 장능리와 삼죽면 진촌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칠현산(七賢山: 516m)은 이죽면 칠장리와 금광면 사흥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칠장산(七長山: 492m)은 금광면과 이죽면 · 삼죽면 경계에 있는 산이다. 여기에 고려초 혜초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칠장사(七長寺)가 전한다. 죽림산(竹林山: 240m)은 일죽면 죽림리 · 화봉리와 삼죽면 용설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죽산천(竹山川)은 이죽면 칠장리 칠장산과 덕성산에서 흘러나와 이죽면과 일죽면의 경계를 이루고 일죽면 월정리에서 장암천을 더하여 청미천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장암천(長岩川)은 일죽면 장암리 죽림사에서 흘러나와 월정리에 이르러 죽산천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홍계남장군고루비(1745)에 '竹山'이 보인다.(이부오, 신종원)

■ 양지면 陽智面 • Yangji-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龍仁縣: 행정_면
- 이칭 양량(陽良) · 양산(陽山) · 추계(秋溪)
- 전거 『세종실록지리지』(1454),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대동지지』, 『증보문헌비고』, 『조선지지자료』, 홍계남장군고루비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면이다. 면사무소는 양지면 양지리 701-9번지에 있다. 동쪽으로 이천시, 남쪽으로 용인시 원삼면, 서쪽으로 용인시 시가지, 북쪽으로 용인시 포곡면 및 광주시와 더불어 경계를 이룬다. 양지면은 곧 옛날의 양지현(陽智縣)이다. 『여지도서』(1759)에 따르면, 양지현은 본래 수주(水州)의 양량부곡(陽良部曲)이었다.

조선 1339년(정종 1)에 지금의 이름인 '양지(陽智)'로 고치고, 현(縣)으로 승격시켜 감무(監務)를 설치했다. 1413년(태종 13년)에 규정에 따라 현감으로 만들고, 고을의 읍내를 광주(廣州) 추계향(秋溪鄕)으로 옮겼다. 또 죽주(竹州)의 고안(高安)·대곡(大谷)·목악(木岳)·제촌(蹄村) 등 네 부곡을 양지에 소속시키고,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편입시켰다.『여지도서』에는 18세기 양지현이 현내면(縣內面)·주동면(朱東面)·고북면(古北面)·고서면(古西面)·고동면(古東面)·목악면(木岳面)·주서면(朱西面)·주북면(朱北面)·박곡면(朴谷面)·고안면(高安面)·제촌면(蹄村面) 등 모두 11개 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동쪽으로는 이천부(利川府), 남쪽으로는 죽산현(竹山縣)과 안성군(安城郡), 서쪽으로는 용인현(龍仁縣), 북쪽으로는 광주(廣州)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1895년 지방 관제 개편으로 양지군으로 변경되어 충주부에 편제되었다가 1896년 다시 경기도로 이속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경기도 용인군에 속하게 되었는데, 현내면·주북면·주서면·주동면 등 4개 면은 내사면(內四面)이 되었고, 고동면·고북면·고서면 등 3개 면은 고삼면(古三面)이 되었고, 박곡면·고안면은 외사면(外四面)의 일부, 목악면은 원삼면(遠三面)의 일부가 되었다. 1995년 일제식 지명을 변경하면서 내사면과 외사면을 각각 양지면과 백암면으로 고쳤다. 현재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속해 있다. 오봉산(五峯山: 418m)은 양지면 식금리와 내사면 추계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정수산(定水山: 420m)은 양지면 양지리와 내사면 정수리·추계리 경계에 걸쳐 있는 산이다. 홍계남장군고루비(1745)에 '陽智'가 보인다.(정치영, 신종원)

■ 수락산 水落山 • Suraksan

- 유형 역사지명류 ← 楊州牧: 산천
- 전거 『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대동지지』, 하원군이정신도비
-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경기도 의정부시·남양주시 별내면

수락산(水落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경기도 의정부시·남양주시 별내면에 걸쳐 있는 높이 638m의 산이다. 북쪽의 의정부로부터 남쪽의 태릉까지 연결되며, 중간지점인 덕릉고개를 중심으로 북쪽은 수락산, 남쪽은 불암산(佛巖山, 508미터)이다.『여지도서』(1757)에는 포천 축석령에서 남쪽으로 뻗어 나온 산으로 기록되었다. 대부분이 돌산으로 화강암의 암벽이 노출되어 있어서, 수목은 적으나 옥류동·금류동·은선동의 세 폭포를 이루었으므로 수락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서울과 의정부간의 국도를 사이에 두고 서쪽에 자리잡은 북한산(北漢山)과 도봉산(道峰山)을 마주보고 있다. 서쪽 사면에 쌍암사(雙巖寺)

· 석림사(石林寺), 남쪽 사면에 계림암(鷄林庵) · 흥국사(興國寺), 동쪽 사면에 내원암(內院庵) 등이 있고, 이 암자의 뒤에는 고려시대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2m의 석조미륵입상(石造彌勒立像)이 있다. 금석문으로는 하원군이정신도비(1604)에 "양주 남면 수락산 기슭 선영의 옆"이라고 되어 있다.(양보경, 신종원)

■ 병점동 餠店洞 • Byeongjeom-dong

- 유형 현 행정구역 ← 南陽都護府: 행정_동
- 전거 『조선지형도』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화성시의 동쪽에 있는 법정동이며 행정동은 병점1동과 병점2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병점동은 원래 수원군 태촌면(台村面)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태촌면과 장주면(章州面)이 통합되어 태장면(台章面) 관할이 되었다. 그 후 1963년 태장면과 안용면을 통합하여 태안면(台安面)을 설치함에 태안면 관할이 되었으며, 1985년 태안면은 읍으로 승격되었다. 2006년 태안읍이 해체되고 동체제로 전환되면서 병점동(餠店洞)이 되었다. 병점동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로 삼남으로 통하는 큰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도 국도 1호선과 수도권전철 1호선이 남북을 가로질러 통과하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이곳에는 체사(遞使)나 행인들이 쉬었다가 가는 곳으로 떡을 파는 떡장수들이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마을을 떡가게가 많은 거리, 즉 '떡전거리'라 부르게 되었는데 한역하여 병점(餠店)이라 하게 되었다. 근대 지명의 훈독 표기로는 トクチョムリ(떡점리)(『조선지형도』), 떡뎜거리=Ttök-tuöm-köri(Koto, 1903)라고 적었다.(박병철, 신종원)

■ 구리 舊里 • Guri

- 유형 여주시
- 전거 明成皇后誕降舊里碑(1904)
- 주소 경기도 여주읍 능현리

'구리'는 보통명사로서 한 인물이 태어나서 자란 곳을 말한다. 이곳에서 고종황제의 왕비 명성황후가 출생하여 성장하였다. 능현리는 1917년도까지는 지명에 보이지 않는다.(신종원)

■ 경안동 京安洞 • Gyeingandong

- 유형 현 행정구역 ← 廣州牧: 행정_동
- 전거 『지명유래집』(경기도, 1987)
- 주소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경안동(京安洞)은 광주시의 중부에 위치한 동이다. 1910년 8월 29일 면제를 실시할 때는 경안(慶安)이라고 했다 하는데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 보면 '경안동' 또는 '경안리'는 보이지 않는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결과 파발막 · 관말 · 내곡동 · 가골 · 장터를 병합하여 경안리(慶安里)가 되었다. 『지명유래집』 562쪽에 따르면 1932년 7월 5일 경안면을 광주면으로 개칭할 때 서울이 가깝다고 하여 경안리(京安里)라고 부르게 되었다(윤양섭 남 85살 외 2명). 2001년 광주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경안동이 되었다. 경안동은 현재 경안동 · 역동 · 쌍령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이다.(신종원)

■ 가산면 加山面 • Gasan-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抱川縣 : 행정_면
- 전거 『호구총수』(1789), 『여지도서』(1757), 이몽량신도비, 이몽윤묘갈
- 주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경기도 포천시의 남부에 있는 면으로, 동쪽으로 내촌면, 서쪽으로 선단동 · 소흘읍, 남쪽으로 소흘읍 · 내촌면, 북쪽으로 선단동 · 군내면과 접하고 있다. 가산면은 마산리 · 감암리 · 방축리 · 가산리 · 정교리 · 금현리 · 우금리 · 마전리의 8개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가산면(加山面)의 이름에 대해서는 『포천군사』에 원래 화산면(花山面)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청량면의 일부 지역을 편입하면서 더할 '가(加)'를 붙여 가산면이라고 불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호구총수』(1789)에 이미 가산면(加山面)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가산리(加山里)라는 동리가 있었다. 한편 화산이란 이름은 화산(花山) 아래에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여지도서』(1757)에는 화산면(花山面)이라 쓰여 있고, "처음 경계는 관문에서 남쪽으로 15리이다.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248호이다. 남자는 403명, 여자는 314명이다."라고 적혀 있다. 『호구총수』(1789)에는 가산면에 마산리(馬山里) · 후평리(後坪里) · 서원리(書院里) · 궁촌리(宮村里) · 방축리(防築里) · 가산리(加山里) · 정교리(鼎橋里) · 용화동리(龍化洞里) · 금치리(金峙里) · 추곡리(楸谷里) · 황방리(況防里)의 11개

동리가 소속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화산면에 청량면(淸凉面)의 마전(麻田) · 우금(友琴) · 감암(甘岩)의 3개 동리와 내소면(內所面)의 이가팔리(二加八里) 일부를 병합하여 가산면이라 하였으며, 마전 · 우금 · 감암 등 8개 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가산면에는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을 배향한 화산서원이 있으며 특산물로 포도가 유명하다. 금석문으로는 이몽량신도비(1604)에 '抱川縣 花山里', 이몽윤묘갈(1720)에 '抱川 楸谷'이 나와 있다.(정치영, 김우선)

■ 갈현동 葛峴洞 • Galhyeon-dong

- 유형 현 행정구역 ← 果川郡: 행정_동
- 이칭 가루개
- 전거 『호구총수』(1789), 김약노묘갈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갈현동은 과천시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동이다. 안양시의 동안구와 의왕시에 접해 있다. 본래 과천군 군내면으로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과천군이 시흥군에 흡수 통합되면서 시흥군 과천면 지역이었다. 『신구대조』에 의하면 과천군은 4개의 면으로 편성되어 시흥군에 통합되었는데 과천면, 서면, 서이면, 남면 등이 그것이다. 시흥군 과천면은 관문리 · 문원리 · 갈현리 · 하리 · 막계리 · 주암리 등 6개리로 편성되었다. 그 중 갈현리(葛峴里)는 가루개와 그 근처의 가일(加日) · 찬우물(冷井) · 벌말 · 제비울 · 옥탑골(玉塔谷) · 자경골(自耕)을 합하여 편성되었다. 1986년 과천이 시로 승격되면서 갈현동이 되었다. 『호구총수』(1789)에는 과천현 현내면에 갈현리(葛峴里)로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지형도』에는 갈현리란 한자 위에 일본의 가타카나로 '가루개'란 발음이 적혀 있다. 갈현이란 한자어 지명은 고유어 지명 가루개를 바탕으로 한역한 것이다. 가루개는 갈고개라고도 하는데 '갈'은 갈라짐[分支]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악산과 청계산을 잇는 지맥에 의해 물이 양쪽으로 나뉘어 흐르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자어 지명 갈현(葛峴)으로 인하여 이곳에 칡이 많아서 생성된 지명이라는 설도 있으나 믿기 어렵다. '고개'는 유성음 아래에서 '오개' 로 변하는 경우가 있음을 애오개(<애고개), 배오개(<배고개) 등의 지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루개는 갈+고개 → 갈오개(ㄱ탈락) → 가루개(연철, 음성모음화)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단어이다. 금석문으로는 김약노묘갈(1755)에 '果川 冷井洞'이 나와 있다.(박병철, 김우선)

■ 강화읍 江華邑 • Ganghwa-eup

- 유형 현 행정구역 ← 江華都護府: 행정_읍
- 이칭 부내면
- 전거 『세종실록지리지』(1432),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강도지』(1696), 『여지도서』(1757), 『여지도서』(1757), 『강화부읍지』(1871년 이후), 『조선지지자료』(1911), 유수이공용희중수문묘기적비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강화군의 동북단 한강과 염하의 합류점에 위치하는 읍으로 관청리에 군청이 있다. 동쪽은 강 건너 김포군 월곶면, 서쪽은 내가면, 남쪽은 선원면, 북쪽은 바다 건너 개풍군 대성면과 흥교면에 닿는다. 1232년(고려 고종19) 몽골의 침입을 받아 개경에서 강화로 피난한 후 이곳을 도읍지로 삼아 강도(江都)라 하였다. 1377년(우왕3) 강화현이 강화부로 승격된 이후 부의 치소가 자리하고 있어 조선시대 이래 부내면이라 하였다. 동문(東門)·숙곶(稤串)·홍문(紅門)·종각(鐘閣)·구촌(舊村)·신촌(新村)·남산(南山)·관청하(官廳下)·부사후(府司後)·서문(西門)·당주(唐州)·국정(國淨)의 12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당주동은 송해면으로 넘기고, 송정면(松亭面)의 신성동(申城洞)과 장령면(長嶺面)의 전지역 곧 소산(小山)·고성(高城)·만수(萬壽)·대묘(大廟)·옥포(玉浦)·장승(長承)·용정(龍井)·장동(長洞)·왕림(旺林)·연미(燕尾)·갑곶(甲串)의 11개 동을 합병하여 관청·신문(新門)·남산·국화(菊花)·갑곶(甲串)·용정·월곶(月串)·옥림·대산(大山)의 9개 법정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938년 강화군의 이름을 따라 강화면으로 고쳤다. 1973년 7월 1일 읍으로 승격되었다(대통령령 제6543호). 다시 1995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편제되었으며, 9개의 법정리와 26개의 행정리로 편성되어 있다. 읍의 동남쪽에 강화대교가 설치되어 있어 김포반도와 연결된다. 읍의 서쪽에는 마니산, 진강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고려산(436m)이 있어 하점면 및 내가면과 경계를 이룬다. 갑곶리(甲串里)에는 갑곶돈대(甲串墩臺), 월곶리에는 시장곡돈대, 남산리에 승천포돈대 등 관방유적이 남아 있다. 금석문으로는 유수이공용희중수문묘기적비(1870)에 '西都'(江華)가 나와 있다.(김동수, 김우선)

■ 과천동 果川洞 • Gwacheon-dong

- 유형 현 행정구역 ← 果川縣: 행정_동

- 이칭 하리
- 전거 『호구총수』(1789), 이우신신도비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과천시의 북쪽에 위치한 동으로 서울특별시의 관악구 및 서초구와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남태령과 우면산의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1986년에 과천이 시로 승격되면서 하리(下里)가 과천현의 옛 이름을 따서 과천동으로 개명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과천현의 현내면에 속해 있었으며, 1914년의 행정구역개편 때 뒷골(後谷)·하락골(河洛洞)·안골(內谷)·한내·삼거리·선바위(立岩)·광창(光昌)을 합해 시흥군 과천면의 하리(下里)로 편제되었다. 과천시로 승격할 때 하리와 막계동의 궁말, 벌말을 합하여 과천동이 되었다. 하리란 명칭은 과천의 아래쪽이란 의미에서 붙였다는 설과 남태령 밑이기 때문에 붙였다는 설 등이 있다. 행정동으로 과천동에 속한 주암동(注岩洞)은 원래 과천현의 동면에 속해 있다가 1914년의 행정구역개편 때 돌무께(石浦)와 삼부굴(三浦)을 합해 시흥군 과천면의 주암리로 편제되었다. 『호구총수』(1789)의 과천현 동면에 준암리(蹲巖里)로 기록되어 있는데 고유어지명 줄바위 또는 죽바위를 한역한 표기이다. 과천동은 남태령로의 서쪽, 과천대로의 동쪽에 해당하는데, 녹지공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다. 과천동의 남태령과 우면산 밑에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은 관악산과 청계산에서 흘러내리는 양재천을 젓줄로 삼아 상하벌에서 농사를 지어 과천에서는 비교적 물산이 풍부했던 지역이다. 과천대로 동쪽 '상하벌'이라는 너른 벌에는 옛길이 지나고 있는데, 과천시에서 이 도로명을 '상하벌길'이라 하였다. 금석문으로는 이우신신도비(1756)에 '果川 塘村'이 나와 있다.(박병철, 김우선)

■ 광탄면 廣灘面 • Gwangtan-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坡州牧: 행정_면
- 전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호구총수』(1789), 『파주목읍지』(1871), 이사관묘갈, 송거신신도비
- 주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파주시의 남동부에 있는 면으로, 동쪽으로 양주시, 서쪽으로 월롱면·조리읍, 남쪽으로 고양시, 북쪽으로 법원읍·파주읍과 접하고 있다. 광탄면은 용미리·분수리·신산리·창만리·마장리·영장리·기산리·발랑리·방축리 등 9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광탄면

의 이름은 양주시 백석읍과 광적면에서 흘러내려 온 물이 이곳에서 합류하여 문산천을 이루는데 그 부분에 넓은 여울이 형성되어 있어 한자로 '광탄(廣灘)'이라 부른 데서 유래하였다. 광탄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주 남쪽 10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양주 고령산(高嶺山)에서 나와서 주 서쪽 10리 지점을 경유하여 장보포(長甫浦)로 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광탄 언덕에는 광탄원(廣灘院)이 있었다고 한다. 광탄면은 삼국시대 술이홀현이었고, 통일신라시대 때 경덕왕이 이를 교하군 봉성현으로 바꾸면서 봉성현 소속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봉성현이 양주, 그리고 개성 소속으로 바뀌었다가 1174년(명종4) 서원현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광탄면 지역은 서원현 소속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1398년(태조7)에 서원군과 파평현을 합쳐서 원평군을 만들면서 여기에 속하게 되었으며, 1459년(세조5)에 원평도호부가 파주목으로 승격되면서 조선 말기까지 파주목에 속하였다. 『호구총수』(1789)에는 파주목 광탄면에 호미리(虎尾里)·구룡리(九龍里)·내동리(內洞里)·마장리(馬場里)·시공동(柴工洞)·우랑동(牛郎洞)·제근리(祭斤里)·사근리(射斤里)·토란리(土亂里)·오산리(梧山里)·발랑리(發郎里)·검전리(儉田里)·두만리(斗滿里)·방축리(防築里) 14개의 동리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871년 간행된 『파주목읍지』에는 광탄면이 읍치에서 동남쪽으로 25리 떨어져 있으며, 438호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광탄면은 1895년 파주목에서 파주군으로 소속이 바뀌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주군 백석면 마장리의 일부가 광탄면 마장리로 편입되었다. 1983년에는 양주군의 영장리와 기산리가 광탄면에 편입되었다. 금석문으로는 이사관묘갈(1473)에 '馬場', 송거신신도비(1880)에 '廣灘面 柴公洞'이 나와 있다.(정치영, 김우선)

■ 검단동 黔丹洞 • Geumdan-dong

- 유형 현 행정구역 ← 金浦縣: 행정_동
- 전거 박정신도비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검단동은 원래 김포 검단면(黔丹面) 지역이다. 조선 시대 중기에 검단 지역은 검단면·노장면(蘆長面)·마산면(馬山面) 등 3개면이 있었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 때에 검단면으로 합해지고 검단면의 금곡리·당하리 지역 일부는 양촌면과 계양면에 편입된다. 1995년 인천시에 편입되면서 법정리를 동으로 개정하고 검단동을 설치하고 검단 출장소를 병설하였다. 검단동의 '검'자는 검다는 뜻이며 '단'자는 붉다는 뜻이다. 서해안 일대가 넓은 갯벌로 되어 있어 '개흙이 검다'란 의미와 서해안 갯벌이 석양에 붉게 노을이 지면 '홍학

의 날개와 같다'하여 '단'자를 써서 '검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검'은 '신성하고 으뜸이다'라는 뜻과 제단을 의미하는 '단'을 합하여 '검단'이라 했다고도 하는데, '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제단'이 이곳에 있어 붙여졌다고도 한다. 이는 백제의 도읍지라고 추축되는 하남시의 위례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검단이라는 땅이름이 있다고 하여 나온 이야기이다. 금석문으로는 박정신도비(1712)에 '金浦 馬山面 杜毛谷'이 보인다.(김동수, 김우선)

■ 고삼면 古三面 • Gosam-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安城郡: 행정_면
- 전거 윤삼산신도비
- 주소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안성시의 북쪽에 위치한 면이다. 쌍령산-봉황산을 연결하는 산줄기의 동편에 위치한 한천 유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7개의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고삼이라는 이름은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전국의 군·면이 통폐합되면서 처음 생겼다. 이 일대는 원래 양지군에 속했다. 동북부의 봉산리·삼은리·쌍지리·월향리 일대는 고동면(古東面)이었고, 면소재지 북쪽의 가유리 일대는 고북면(古北面), 면소재지 서남쪽의 대갈리·신창리 일대는 고서면(古西面)이었다. 이 지역과 죽산군 서삼면(西三面) 풍정리를 합쳐 용인군 고삼면으로 편성했다. 1915년에는 19개 리 중에서 3개 리는 양성면으로, 16개 리는 용인군 고삼면으로 편성되었다. 1963년 다시 안성군 고삼면으로 편입되었다. 고삼면은 1998년 4월 1일 안성군이 시로 승격하면서 안성시에 속하게 되었다. 고삼(古三)을 구성했던 고동·고북·고서 3면은 옛 양지현의 치소에 연원을 두고 있다. 원래 양지현의 관아는 1399년부터 1413년 추계향(秋溪鄕)으로 옮기기까지 현 고삼 지역에 있었다. 19세기 전반의 『광여도』에서 고서면과 고북면 사이에 위치한 고창(古倉)이 이곳이다. 이곳은 면소재지 동북편, 즉 고삼저수지 북쪽으로 위치한 월향리 향림부락으로 추정된다. 이곳이 양지 고현(古縣)의 치소였기 때문에 이곳을 기준으로 3개의 면 이름이 생겼고, 1914년에는 다시 고(古)자 들어가는 면이 3개 있었다고 해서 고삼(古三)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현재 한천 상류인 고삼면의 월향리·봉산리·삼은리 일대에는 고삼저수지가 위치해 뛰어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금석문으로는 윤삼산신도비(1486)에 '竹山縣 楓井里'가 나와 있다.(이부오, 김우선)

■ 군자동 君子洞 • Gunja-dong

- 유형 현 행정구역 ← 安山郡: 행정_군
- 전거 『여지도서』(1757), 『호구총수』(1789), 『조선지지자료』(1911), 박동량신도비
- 주소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시흥시에 속한 행정동이다. 법정동인 거모동 · 군자동 · 월곶동을 포함한다. 시흥시를 서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길게 관통한다. 군자동은 『호구총수』(1789) 안산조에서 마유면(馬遊面) 구지정리(九之井里)와 산북리(山北里)라 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조선지지자료』(1911) 안산조에서는 구지정리가 구정리(구지물)로 바뀌었다. 구정리는 군자봉의 서남쪽 즉 영동고속도로 군자요금소 동쪽에 위치한 아랫말과 그 북쪽의 양지편, 그리고 군자봉 서북쪽의 웃말 일대를 가리킨다. 산북리는 군자봉 동북쪽의 산뒤부락 일대이다. 1912년 2월 5일 안산군 내 동리의 구역과 명칭을 변경할 때 이 일대는 군자리로 합쳐졌다. 1914년 3월 1일 시흥군에 속했고, 1914년 3월 13일에는 시흥군 군자면에 속했다. 1989년 1월 1일 시흥시가 탄생하면서 군자동이 법정동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당시 안산시에 이미 군자동이 있어 행정동 이름은 거모동으로 정해졌다. 1994년 1월 1일 안산시 군자동이 원곡본동으로 바뀌자, 1994년 7월 1일 시 조례 제374호에 따라 행정동 이름을 거모동에서 군자동으로 바꾸게 되었다. '군자(君子)'라는 명칭은 1912년 당시 현재 시흥시청 남쪽으로 인접한 해발 198.5m의 군자산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된다. 군자산은 조선의 단종이 안산시 목내동에 있는 어머니 현덕왕후(顯德王后)의 소릉(昭陵)으로 가는 길에 이 산을 보고 마치 연꽃처럼 생겨 군자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이름했다고 한다. 단종은 재위 2년째인 1454년 9월 29일에 이 능을 참배하고 다음날 안산에 머문 적이 있다. 군자라는 산 이름은 『여지도서』(1757) 안산군조 지도와 산천조에서 군자산(君子山)으로 처음 확인된다. 이후 군자산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군자봉과 혼용되었다. 군자봉은 봉우리가 하나여서 '일봉산(一峰山)'이라 하기도 하고, 산의 내령이 서쪽으로 뻗어 있어 '서령산(西嶺山)'이라고도 불렸다. 군자동은 주변의 대표적인 산이름으로 동리명을 통합한 사례에 해당한다. 금석문으로는 박동량신도비(1725)에 '安山郡 西嶺山'이 나와 있다.(이부오, 김우선)

■ 기흥동 器興洞 • Giheung-dong

- 유형 현 행정구역 ← 龍仁縣: 행정_동
- 전거 『호구총수』(1789), 이예견묘갈

• 주소 경기도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기흥동은 용인시 기흥구의 남쪽에 위치한 동이다. 조선 시대 기곡면 지역으로 2005년 기흥구 신설과 함께 기흥읍에 속해 있던 고매리와 공세리를 합쳐 기흥동으로 분할하였다. 고매리는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기곡면의 고매동(古梅洞)에 공세동 일부를 흡수하여 고매리라 하여 새로이 신설된 기흥면에 편제하였다. 공세리는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기곡면의 공세동(貢稅洞)과 한의동(汗宜洞) 일부를 흡수하여 공세리라 하고 새로이 신설된 기흥면에 편제하였다. 공세동은 『호구총수』(1789) 기곡면(器谷面)에 공세동(貢稅洞)으로 한자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의동(汗宜洞)은 한의동(汗儀洞)으로 한자가 다르게 나타난다. 금석문으로는 이예견묘갈(1763)에 '龍仁 器谷'이 나와 있다.(이건식, 김우선)

■ 고양동 高陽洞 • Goyang-dong

• 유형 현 행정구역 ← 碧蹄邑: 행정_동
• 이칭 읍내리
• 전거 『삼국사기』(1145), 『세종실록지리지』(1454), 『호구총수』(1789), 김천령묘갈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고양시 덕양구에 속한 행정동이다. 고양시의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며 법정동인 고양동·선유동·벽제동·대자동 일부를 포함한다. 고양동은 옛 고양군의 관아가 있던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군청 관아는 원래 1413년부터 서삼릉의 희릉 자리에 위치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뒤 대자동(大慈洞) 고읍마을로 이전했다가 임진왜란으로 이곳이 불타자 1625년 고양동으로 이전했다. 이곳의 관아는 1914년 군청이 서대문 부근의 적십자병원 자리로 옮겨지기까지 유지되었다. '고양'이라는 명칭은 『세종실록지리지』(1454)에 따르면 1413년 고봉현(高峯縣)의 '고(高)'와 덕양현(德陽縣)의 '양(陽)'을 따서 만들어졌다. 『삼국사기』(1145) 지리2에 따르면 이곳은 원래 고구려의 달을성현(達乙省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이 고봉현(高峰縣)으로 이름을 고쳤다고 한다. '달(達)'은 고구려 지역에서 우세한 지명 어소(語素)이다. 고구려어에서 '달을(達乙)'은 높다는 뜻이고, '성(省)'은 발음상 성이나 산과 통할 수 있다. 따라서 달을성은 높은 산봉우리에 설치한 성이라는 의미로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뒤에 기존의 백제 지명을 고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덕양현은 본래 개백현(皆伯縣)인데, 이는 이 지역의 한씨(漢氏) 미녀가 고구려 안장왕을 만난 데서 유래했다고 하여 신라 경덕왕대에 우왕현(遇王縣)으로 고쳐졌다. 고려 초에는 행주(幸州)라 했다가

고려 성종대에 별호로서 덕양(德陽)이라 불렀다. 고양동은 1789년의 상황을 전하는 『호구총수』(1789)에서는 사리대면(沙里大面) 읍내리로 등장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벽제면 고양리로 바뀌었다. 이는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상편에 반영되어 있다. 1980년 벽제읍 고양리로 바뀌었다가 1992년부터는 고양시 고양동이 되었고, 1996년 고양시에 구가 설치되면서 덕양구로 편입되었다. 현재 이곳에는 옛 관아의 흔적은 없으나, 고양향교가 남아 있고 중국에서 오는 사신이 마지막으로 묵었던 벽제관(碧蹄館) 터도 보존되어 있어 옛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다소나마 보여주고 있다. 금석문으로는 김천령묘갈(1695)에 '大慈山'이 나와 있다.(이부오, 김우선)

■ 남종면 南終面 • Namjong-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廣州牧: 행정_면
- 전거 여지도서(1765), 호구총수(1789), 심귀령묘갈
- 주소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남종면은 광주시의 동북부에 위치한 면이다. 서쪽으로 경안천, 북쪽으로 남한강, 동쪽으로 양평군, 남쪽으로 퇴촌면에 접한다. 남종면은 조선시대에는 양근군에 속하였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남종면의 방리에는 수청리, 사천리, 귀여리, 우천리, 내동리, 분원리 등이 있었다. 호구총수에도 수청리·사천리·귀여리·우천리·내동리·분원리 등의 방리가 기록되어 있다. 1908년(융희 2) 9월 16일 제41788호로 공포된 칙령에 따라 양근군과 지평군을 합하여 양평군을 설치할 때 남종면은 양평군에 속하게 되었다. 1912년에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대수청리·소수청리· 검단리·사천리·귀여리·제청리·분원리·우천리 등 8개 동리가 등재되어 있다. 수청리가 대와 소 2개 동리로 분할되었고, 종래의 내동리는 없어지고, 검단리와 제청리가 추가되었다. 1913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부터는 남종면이 광주군에 속하게 되었다. 이때 수청리·검천리·귀여리·우천리·분원리 등 5개 동리로 통폐합하게 된다. 5개 동리의 명칭은 1917년에 타다시치 오치(越智唯七)가 편찬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지도서』의 양근군조에는 "금상 영조(영조) 임신년(1752)에 광주 번조소를 군 남족 50리에 있는 남종면으로 이설하여 매년 사옹원과 관원이 임금이 사용하는 그릇[御用之器]의 제조를 감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899년 민영석이 편찬한 『양근군읍지』(장서각 2-4160)의 방리 남종면 조에 있는 "분원동에 자기 번조회사가 있다"는 기사를 고려하면, 영조 때 광

주 변조소가 분원리에 설치된 이래 조선 후기 까지 중단 없이 분원리에서 자기가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석문으로는 심귀령묘갈(1905)에 '陽根 南面 沙川里'가 나와 있다. (이건식, 김우선)

■ 내가면 內可面 • Naega-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江華郡: 행정_면
- 전거 『호구총수』(1789), 『강화부읍지』(1871년 이후), 적석사사적비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군의 서부에 위치한 면이다. 면소재지는 고천리이다. 동쪽은 강화읍 선원면 · 불은면 남쪽은 양도면, 서쪽은 바다 건너 삼산면, 북쪽은 하점면에 닿는다. 『호구총수』(1789)에 강화부의 17면 중의 하나로 나오고 있어 그 이름의 연원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간점면의 안쪽이 되므로 내간면이라 하다가, 조선시대 이후 외가면(外加面)의 안쪽에 있다는 뜻으로 내가면이라 하였다 한다. 고상(古上) · 고하(古下) · 구상(鳩上) · 구하(鳩下) · 황청(黃淸) · 포촌(浦村) · 오상(鰲上) 등 7개동을 관할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위량면의 외주동과 정포동을 병합하고 고천(古川) · 오상(鰲上) · 구하(舊下) · 황청(黃淸) · 외포(外浦) 등 5개리를 개편 관할하였으나 면 이름의 변경은 없었다. 1995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편제되었다. 면의 중앙에 고려저수지(내가저수지)가 있고. 면의 동쪽은 고려산과 혈구산이, 남쪽은 퇴모산이 둘러싸고 있는 분지형 지역이며 서쪽은 해안과 연접한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고려산', '고려천', '고려저수지 등 고려라는 지명이 많이 쓰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면의 서남쪽에 위치한 외포항은 교동, 삼산, 서도의 입 · 출항지로서 여객선과 화물선이 운항되어 왔으나 2014년 교동대교, 2017년 석모대교 개통 이후 그 기능이 위축되었다. 금석문으로는 적석사사적비(1714)에 '高麗山'이 나와 있다.(김동수, 김우선)

■ 대곶면 大串面 • Daegot-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利川都護府: 행정_면
- 전거 『호구총수』(1789), 이항묘갈
- 주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본래 통진군의 지역으로서 대파면(大坡面)이라 하여 거물대, 초원지, 오리산, 대파, 능동, 어모로, 벽정, 대촌, 상적암, 하적암, 도마산, 약산, 율촌, 종생, 모정의 15개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고리곶면(古里串面)의 쇄암, 석정, 마당, 송아, 대명, 상신, 안항의 7개 동리와 반이촌면의 해란, 사현, 가잠의 3개리와 양릉면의 오라리 일부를 병합하여 대파와 고리곶의 이름을 따서 대곶면(大串面)이라 하여 쇄암, 석정, 송마, 대명, 신안, 거물대, 초지원, 오리산, 대릉, 대벽, 상마, 약암, 율생, 가현의 14개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그후 1983년 2월 15일 기현리를 통진면에 넘겨주어서(대통령령 제11027호) 현재 13개리가 되었다. 동쪽은 양촌면, 남쪽은 양촌면과 바다 건너 옹진군 영종면, 서쪽은 바다 건너 강화군 길상면과 불은면, 북쪽은 월곶면과 통진면에 닿아있다. 금석문으로는 이항묘갈(1711)에 '通津 石井里'가 나와 있다.(김동수, 김우선)

■ 덕진진 德津鎭 • Deokjin-jin

- 유형 역사지명류 ← 江華都護府: 방어
- 전거 『여지도서』(1757), 『강화부지』(1783), 『조선지지자료』(1911), 양헌수승전비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덕진진(德津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에 있는 진(鎭)이다. 덕진진은 염하 어귀를 지키는 중요한 요새인데 여기에 소속된 용두돈은 광성보 쪽에 있지만 김포반도의 덕포진 포대와 마주보고 급류가 흐르는 염하 어귀에 위치한 초지진과 광성보의 중간에서 서로를 연결시켜 주고 있다. 옛날에 나루터가 있었는데 "이 나루에선 무리하게 나루질을 하지 말고, 덕이 있게 차분하게 나루질을 해야 된다."고 해서, 덕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유택하의 『여지도서』(1757) 강도부지 진보조에는 "관아의 남쪽 30리에 있다. 남쪽으로 초지진(草芝鎭)과의 거리는 15리이다. 옛날에는 덕포(德浦) 첨사(僉使)를 두어 수영(水營)에 속하였는데, 1726년(영조2)에 임금에게 요청하여 첨사를 없애고 별장(別將)을 두었고, 통진(通津) 건너편 해안에 첨사진(僉使鎭)을 옮겨 설치했다. 1737년(영조13)에 만호로 승격시키고, 진의 이름은 '덕진'으로 바꾸었다."고 하였다. 김노진의 『강화부지』(1783) 진보조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첨사를 없애고 별장을 둔 자가 유수 서필원이고, 만호로 승격시킨 자는 유수 허질(許秩)이라는 사실이 추가되었다. 고려시대 몽고의 침략 당시에도 이곳은 강화를 지키는 외성의 중요한 일부였으며 병인양요 때에는 양헌수 장군의 부대가 야음을 틈타 이 진을 지나 정족산성으로 들어가 프랑스 군을 격파하였다. 그리고 신미양요 때에는 미국 해군과 우리 수비군이 치열한 포격전을 전

개하였으며 이때 진의 건물과 돈대 및 포대가 파괴되었다. 덕진진의 성문루인 공해루도 모두 소실되어 홍예문만 남아 있었던 것을 1976년부터 1977년까지 복원하고 성곽 일부도 수리하는 한편 덕진돈도 복원했다. 아울러 강화 제1의 포대인 남장포대도 보수했는데 포좌가 15문에 달한다. 용두포대는 광성보에 포함시켜 복원했다. 덕진진 남장포대 옆에는 대원군이 세운 "다른 나라의 배는 결코 강화해협을 들어올 수 없다."라는 쇄국 의지를 나타내는 비가 서있다. 현재 사적 제226호로 지정되어 있다. 금석문으로는 양헌수승전비(1873)가 있으며, '鴻寬山', '孫乭', '鼎足山'이 나와 있다.(김동수, 김우선)

■ 모현면 慕賢面 • Mohyeon-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龍仁縣: 행정_면
- 전거 『여지도서』(1759), 『호구총수』(1789), 「남직화(南稷和) 호구단자」(국립중앙도서관, 古文古朝51-다117), 『대동지지』(1864), 오윤겸묘갈
- 주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모현면은 용인시 처인구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면이다. 모현면(慕賢面)은 『여지도서』(1759)에 모현촌면(慕賢村面 : 기묘장적(己卯帳籍):373호, 남자 683명 여자 603명)이 나타난다. 『호구총수』(1789)에도 모현촌면(慕賢村面)으로 나타난다. 동리에는 수상동(水上洞)과 수하동(水下洞)의 둘이 있었다. 1828년(순조 28)에 작성된 「모현촌수상왕림리무자식호구단자(慕賢村水上旺林里戊子式戶口單子)」(규장각고문서 170640)에서 모현촌(慕賢村)으로 나타난다. '모현촌(慕賢村) 수상(水上) 왕림리(旺林里)'에서 수상(水上)은 『호구총수』(1789)에서 말한 수상동(水上洞)으로 추정되고, 왕림리(旺林里)는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의 모현면 조에 실린 왕림리(旺林里)로 추정된다. 수상동(水上洞)과 왕림리(旺林里)의 관계가 주목되는데, 자세치 않다. 『대동지지』(1864)에서는 묘현(墓賢)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1873년에 작성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남직화(南稷和) 호구단자」(古文古朝51-다117)에서는 거주지가 '용인현모현촌파담(龍仁縣慕賢村琶潭)'으로 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의 『1872년도 지방도』의 용인현 지도에는 모현면(慕賢面)으로 표시되었다. 따라서 19세기 말에 '모현면'과 '모현촌면'이 수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동지지』(1864)의 모현(慕賢)은 그 발음이 '모현'이다. 그러나 이모음역행동화에 의해 '묘현'으로 발음되어, '묘현(墓賢)' 같은 표기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의 모현면에는 오산리(吳山里), 부곡리(芙谷里), 원촌리(院村里), 왕림리(旺林里), 상마산리(上馬山里), 동산리(東山里), 개

일리(開日里), 고매곡리(古梅谷里), 갈월리(葛月里), 파담리(琶潭里), 왕곡리(旺谷里), 우명동(牛鳴洞), 하마산(下馬山), 초하리(草下里), 관청리(官廳里), 모산리(茅山里) 등 16개의 동리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의 결과 갈담리(葛潭里), 동림리(東林里), 릉원리(陵院里), 매산리(梅山里), 오산리(吳山里), 왕산리(旺山里), 일산리(日山里), 초부리(草芙里) 등 8개의 동리로 개편되어 모현면에 편제되었다. 2005년 용인시로 승격됨에 따라 처인구가 신설되어 모현면이 이 구에 편제되었다. 금석문으로는 오윤겸묘갈(1647)에 '龍仁縣 慕賢里'가 나와 있다.(이건식, 김우선)

■ 문수사 文殊寺 • Munsusa

- 유형 역사지명류 ← 通津縣 : 신앙
- 이칭 문수암
- 전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조선지지자료』(1911), 『통진읍지』(1899), 문수사풍담대사비, 민응형신도비, 민도묘갈
- 주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 37번지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 37번지 문수산 정상 가까이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불우조에는 "문수사(文殊寺) · 흥룡사(興龍寺)는 아울러 비아산(比兒山)에 있다"고 나온다. 산천조에 "비아산은 현 북쪽 6리 지점에 있으며 진산이다"고 하였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문수산은 일명 비예산(比睨山)이라 하였으며 통진부에서 북쪽으로 10리 정도 떨어져 있으며, 부평 안남산(安南山)에서 북쪽으로 줄기가 이어져 읍치의 주맥을 형성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통진읍지』(1899) 사찰조에는 "문수사는 군의 서쪽 10리 문수성내 북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고 나온다. 문수사는 신라 혜공왕때 창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고려 때 지었다는 설도 있다. 1614년(광해군6)에 도욱(道旭)이 중건하고, 1809년(순조9)에 광선(光善)이 중수하였으며, 1915년에 주지 박보윤(朴普閏)이 요사를 지었다. 1927년 2월에 490근 무게가 나가는 종을 달고 1936년에는 주지 정남성(鄭南星)이 대웅전을 중건하였다 한다. 현재는 근년에 세운 대웅전과 요사채만 남아있다. 대웅전 옆에는 5층으로 추정되는 석탑의 잔해가 남아 있고 요사채 앞에 불상을 얹었던 것으로 보이는 연화대좌가 있다. 대웅전 서쪽 언덕위에 1668년(현종9)에 세운 풍담(楓潭)의 부도와 탑이 있다. 금석문으로는 문수사풍담대사비(1668)에 '文殊寺', 민응형신도비(1671)에 '通津縣 文殊山', 민도묘갈(1717)에 '通津縣 文殊山'이 나와 있다.(김동수, 김우선)

■ 문원동 文原洞 • Munwon-dong

- 유형 과천시 문원동 ← 果川縣: 행정_동
- 전거 『호구총수』(1789), 정문형묘갈, 심우준묘갈
- 주소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시의 동남쪽에 위치한 동으로 의왕시 청계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옛 과천현 현내면(縣內面)에 속했던 곳이다. 1895년(고종32) 지방 관제 개편에 따라 과천현이 군으로 승격되자 현내면은 군내면으로 개칭되었다. '현내(縣內)' 또는 '군내(郡內)'는 '고을 안'이란 뜻으로, 행정단위가 현이면 현내(縣內), 군이면 郡內(군내)라고 하며 대개 읍치(邑治) 근처에 이런 이름을 붙인다. 『신구대조』에 의하면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시흥군 과천면에 편성된 6개의 리 중, 주암리를 제외한 5개 지역은 모두 군내면에 속하였다. 『호구총수』(1789)의 과천현 현내면에 문원리(文原里)라는 기록이 있으며 1914년의 행정구역개편 때 향교말(校洞)·다락터(樓基)·홍촌말(洪村)·새술막(外店)·구리안(九里內)·베레이(또는 배랭이, 別陽)를 합해 시흥군 과천면의 문원리로 편제되었다. 1982년에 원문리의 북쪽 지역에 중앙·별양·원문 3개 지역이 떨어져 나가 독자적인 행정단위가 되었고, 1986년에 과천시로 승격되면서 문원동이 되었다. 문원리라는 지명은 향교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이며 향교에 있던 대성전(大成殿)인 문묘(文廟)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원리의 중심 마을은 향교말·홍촌말·새술말이었으나 현재 이곳의 대부분은 중앙동 관할지역이 되었다. 금석문으로는 정문형묘갈(1501)에 '果川縣 別王里', 심우준묘갈(1625)에는 '果川 別王村'이 나와 있다.(박병철, 김우선)

■ 백사면 栢沙面 • Baeksa-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利川都護府: 행정_면
- 전거 『여지도서』(1759), 『호구총수』(1789), 엄유이설단비
- 주소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백사면은 이천시의 북쪽에 위치한 면이다. 백사면의 영역과 명칭은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정하여졌다. 즉 백면, 사북면 9개 동리, 여주군 흥곡면 외사 상대, 하대 등 각 일부를 병합하여 백토리와 사북의 이름을 따서 백사면이라 했다. 백면은 『여지도서』(1759)에 백토리면(栢土里面)으로 나타난다. 온방리(溫方里), 상동리(上洞里), 우곡리(牛谷

里), 칠전리(漆田里), 조읍동리(助邑洞里), 도지곡(道知谷), 모전리(牟田里) 등의 동리가 있었다. 361호, 남자 981명, 여자 870명 등이 있었다. 『호구총수』(1789)에는 온방리(溫方里), 상동(上洞), 우곡리(牛谷里), 칠전리(漆田里), 조읍동(助邑洞), 도지곡(道知谷), 모전리(牟田里) 등이 있었다.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에는 백면이라 하여 우곡(牛谷), 도지곡(道知谷), 모전(牟田), 조읍동(助邑洞), 상동(上洞), 백우(白隅), 용촌(龍村), 내촌(內村) 등의 동리가 있었다. 사북면은 『여지도서』(1759)에 사북면(沙北面)으로 나타난다. 도봉리(道峯里), 신대리(新垈里), 사북리(沙北里), 장동리(長洞里), 경사대리(京士垈里), 도립리(道立里), 말곡리(末谷里), 흑암리(黑巖里) 등의 동리가 있었다. 288호, 남자 973명, 여자 879명 등이 있었다. 『호구총수』(1789)에는 도봉리(道峯里), 신대리(新垈里), 사옥리(沙玉里), 경사대리(京沙垈里), 장동리(長洞里), 말곡리(耒谷里) 등이 있었다.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에는 사면이라 하여 도봉리(道峰里), 신대동(新垈洞), 장동(長洞), 경사대(京仕垈), 사옥리(沙玉里), 도입리(道立里), 상말곡(上末谷), 현암(玄岩), 온방리(溫方里), 어산리(魚山里), 송온동(松溫洞) 등이 있었다. 금석문으로는 엄유이설단비(조선 말기)에 '沙玉村'이 보인다.(이건식, 김우선)

■ 상면 上面 • Sang-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朝宗縣 : 행정_면
- 전거 『삼국사기』(1145),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57), 『해동지도』, 『광여도』, 이정구신도비, 이우신신도비
- 주소 경기도 가평군 상면

가평군 서부에 위치한 면으로, 면소재지는 연하리(連下里)이다. 현재 연하(連下)·항사(項沙)·행현(杏峴)·임초(林草)·덕현(德峴)·태봉(胎封)·상동(霜洞)·율길(栗吉)·봉수(烽燧) 등 9개 법정리와 14개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상면(上面)은 본래 하면(下面)과 더불어 조종현(朝宗縣)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조종현은 가평군의 영현(領縣)으로 본래 고구려의 심천현(深川縣) 혹은 복사매현(伏斯買縣)이라 불리던 지역으로, 신라시대에는 준수현(浚水縣) 혹은 준천현(浚川縣)이라 불리었다. 이후 고려 1018(현종9)년에 조종현이라 개칭되고, 1396년(태조5)에 조종현이 조종면으로 되면서 현재의 상면 지역은 조종상면(朝宗上面)이라 불리었는데, 1895년(고종32) 상면과 하면으로 분할되었다. 『삼국사기』(1145)에 의하면 "준수현(浚水縣)은 가평군의 영현으로 본래 고구려의 심천현(深川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의 조종현(朝宗縣)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

승람』(1530)에는 가평현의 속현으로“서쪽 45리 지점에 있다. 본래 고구려 심천현인데 일명 복사매라 하기도 한다. 신라에서 준천이라 고쳐 가평군 속현으로 만들었고, 고려에서 지금 명칭으로 고쳤다. 현종조에 가평과 함께 춘주에 예속시켰다. 본조 태조 때에 가평감무를 설치하면서 이 현을 다시 예속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1757) 방리(坊里)조에 조종면은 율길리(栗吉里) · 연동리(連洞里) · 임초리(林草里) · 현리(縣里) · 대부산리(大釜山里) · 신복리(新卜里) · 판미리(板尾里) 7개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각 리에 대한 위치와 호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해동지도』와 『광여도』 등에는 조종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872지방지도』의 「가평현지도」에는 상면이 기록되어 있다. 금석문으로는 이정구신도비(1656)에 ‘朝宗縣’이 나와 있다.(양보경, 김우선)

■ 서운면 瑞雲面 • Seoun-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楊根郡: 행정_면
- 전거 『여지도서』(1757), 청룡사중수사적비
- 주소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안성시의 최남단에 위치한 면이다. 서운산을 동쪽으로 끼고서 청룡천 상류에 펼쳐져 있다. 14개 법정리를 거느린다. 서운면 지역은 원래 안성군의 덕곡면(德谷面) · 기촌면(奇村面) · 송죽면(松竹面) · 입장면(笠場面) 지역이었다. 서운면 중부의 인리 · 양촌리 · 동촌리 등은 원래 덕곡면이었고, 북부의 오촌리 · 신기리는 기촌면, 서부의 현매리 · 송정리 · 송산리는 송죽면, 서남부의 청룡리 · 신흥리 · 북산리는 입장면이었다. 이상의 면(面)들은 『여지도서』(1757) 안성군 지도에서도 등장하므로 적어도 18세기 중엽 훨씬 이전부터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전국의 군 · 면이 통폐합되면서 이 지역은 모두 통합되어 서운면(瑞雲面)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1998년 4월 1일 안성군이 시로 승격하면서 서운면은 안성시에 속하게 되었다. 이 때 서운면 중리가 안성2동으로 편입되었다. ‘서운’이라는 이름은 서운면 동남쪽 경계에 위치한 해발 547.4미터의 서운산을 고려해 붙여졌다. 이 산 이름은 1364년 대장암(大藏庵)을 청룡사로 중창하던 나옹화상(懶翁和尙)이 오색 빛의 상서로운 구름을 탄 푸른 용이 하늘로 오르는 것을 보고서 지었다고 전한다. 1720년의 중수사적비(重修事蹟碑)에서는 ‘서운’이라는 이름이 청룡사 지역이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모습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사적비에는 “한양성내 新興津의 두 사찰 기물을 모두 이곳에 실어 날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이부오, 김우선)

■ 서종면 西宗面 • Seojong-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楊根郡: 행정_면
- 전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57), 이만웅신도비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양평군 서북부에 위치하는 면으로 서쪽은 남양주군과 북쪽은 가평군과 인접해 있고 면소재지는 문호리(汶湖里)이다. 면 전체가 산지에 가까우며, 서쪽은 북한강이 면계를 이루고 있어 중앙의 하천들이 북한강으로 흘러든다. 서종면은 본래 양근군의 지역으로서 양근 읍내 서쪽 끝이 되므로 서종면(西終面)이라 하여 서차남(西次南) · 후곡(厚谷) · 동점(洞店) · 수회(水回) · 능곡(陵谷) · 낙촌(落村) · 내수입(內水入) · 외수입(外水入) · 공곡(貢谷) · 야미(也味) · 사기막(沙器幕) · 화야(禾也) · 삼회(三會) · 영천(永川) · 노문(蘆門) · 이치(梨峙) · 외수여(外水餘) · 정배(鼎排) · 반곡(盤谷) · 명달(明達) · 도장(道壯)의 22개 동리를 관할하다가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4월 1일 군 · 면 폐합 조치에 따라 양서면(楊西面)의 석장리(石墻里) 일부와 설악면(雪嶽面)의 음방리(陰方里) 일부와 고읍면(古邑面)의 양현리(兩峴里) 일부를 합쳐 서후 · 수릉 · 수입 · 삼회 · 노문 · 문호 · 정배 · 명달 · 도장의 9개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그 후인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거, 삼회리를 가평군 외서면으로 이전시켜 현재 8개리를 관할중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서종(西終)은 서북쪽으로 처음이 30리, 끝이 70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1757) 에 의하면 서종면(西終面)은 서차남리(西次南里) · 도장리(道壯里) · 내수여리(內水餘里) · 외수여리(外水餘里) · 수팔리(水八里) 5개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각 리의 위치와 호구내용이 확인된다. 『해동지도』에는 서종면 내수여리 · 서차리 · 수여리가 기록되어 있다. 서종면은 구한말까지 서종면(西終面)으로 불려오다가 서종면(西宗面)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문과 급제 후 공조판서 등을 역임했던 효간공 유치선(兪致善, 1813~1872)이 당시 경기감사로 문호리(汶湖里) 개군면 일대 살았는데 서종면의 '마침 종(終)'자가 상서롭지 못하다하여 '마루 종(宗)'자로 고쳤다는 설과 순정효황후가 태어난 곳으로 황실의 상징인 '종(宗)'자로 고쳤다는 설이 현지주민들 사이에 구전된다고 전해진다. 금석문으로는 이만웅신도비(1698)에 '楊根'이 나와 있다.(양보경, 김우선)

■ 선원면 仙源面 • Seonwon-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江華都護府: 행정_면

- 전거 『호구총수』(1789), 강화충렬사비
- 주소 경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강화군의 중동부에 위치한 면이다. 면 소재지는 금월리이다. 동쪽은 바다 건너 김포군 월곶면, 남쪽은 불은면, 서쪽은 불은면 · 내가면, 북쪽은 강화읍에 닿는다. 『호구총수』(1789)에 강화부의 17면 중의 하나로 나오고 있어 그 이름의 연원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제23대 고종 때에 선원사(禪源寺)가 이곳에 있었다 하여 선원면(禪源面)으로 호칭하게 되었다 하는데 조선 인조 이후부터 선(禪)을 선(仙)으로 바꿔 선원면(仙源面)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는, 광해군 때 김상용(金尙容)이 선원사 부근에 살면서 자신의 호를 선(仙)자로 고친 선원(仙源)이라 하였는데, 그가 병자호란 때 이곳에서 절사(節死)하였으므로 그의 호를 따라 선원면으로 고쳤다고 한다. 또는 신선이 사는 별천지 즉 이상향이란 뜻에서 연유되었다고도 한다. (『강화지명지』, 47쪽) 조선시대 이래로 선원면은 연(烟) · 남산(南山) · 대문(大門) · 금월(錦月) · 신지(神智) · 냉정(冷井) · 선행(仙杏) · 창(倉) · 이정(梨井) · 신당(神堂) 등 10개 동을 관할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 때 장령면(長嶺面) 갑곶(甲串)동 일부를 편입하여 금월 · 연 · 지산 · 신정 · 창 · 선행 · 냉정 등 7개리로 개편하였다. 이때 면 이름은 변경이 없었다. 1995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편제되었다. 신정리에 더러미돈대, 연리에 용진돈대와 웅골돈대, 화도돈대가 남아 있다. 선행리에 충렬사가 있는데 병자호란 때 순절한 선원 김상용의 집터에 지은 사당이다. 한편 창리는 고려 고종 때 창고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성이 축조되어 있던 곳이라 전한다. 금석문으로는 강화충렬사비(1701)에 '甲串鎭', '仙源村'이 나와 있다.(김동수, 김우선)

■ 소하동 所下洞 • Soha-dong

- 유형 현 행정구역 ← 始興縣: 행정_동
- 전거 『여지도서』(1757), 『호구총수』(1789), 함천군묘갈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광명시의 남부에 위치하는 동이다. 조선시대에 시흥현 서면에 속해 있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서러리 · 가리대리 · 오리동을 합해 시흥군 서면 소하리로 되었다. 예전에 서면사무소가 이곳에 있었다. 1979년 서면이 읍으로 승격될 때 소하동의 이름을 따서 소하읍으로 하였다. 1981년 광명시가 설치될 때 광명시에 편입되어 일직리와 합해 소하

동으로 되는 동시에 소하동을 갈라서 소사 1 · 2 동회가 되었다. 2008년 현재 소하1동과 2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옛 소하리가 있던 소하1동에는 기아자동차 소하동공장이, 옛 일직리가 있던 소하2동에는 KTX의 광명역이 자리 잡고 있다. 『여지도서』(1757) 와 『호구총수』(1789)의 금천현 서면에 소하리(所下里) · 가리대리(加里大里) · 일직리(一直里) · 사견우리(四犬隅里, 일명 자경리)로 기록되어 있는 지역이다. 앞의 4개 마을 이름의 한자는 순우리말 지명의 소리를 따서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직리는 일직리(一直里) · 일직리(日直里) 등으로 표기되며, 사견우리와 자경리는 동일한 소리에 대한 다른 한자 표기이다. 옛 소하리의 자연마을 중 하나였던 서러리는 발음을 따서 설월리(雪月里) 또는 서월리(鋤月里)의 한자로 표기되었으며, 오리동(梧里洞)은 작은말이라고도 한다. 1995년 '자경리(自京里)'는 '자경리(自警里)'로 바뀌었다. 금석문으로는 함천군묘갈(1586)에 '衿川縣 所下里'가 나와 있다.(양보경, 김우선)

■ 송탄동 松炭洞 • Songtan-dong

- 유형 현 행정구역 ← 振威縣: 행정_동
- 전거 충의제각비
- 주소 경기도 평택시 송탄동

평택시의 동쪽에 위치하는 행정동으로 1981년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 분리될 당시에는 동부동(東部洞)이라 하였다. 1995년 평택시 · 평택군 · 송탄시를 합쳐 평택시가 도농복합시로 출범하면서 명칭 '송탄(松炭)'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6년 송탄동(松炭洞)으로 개칭하였다. 이 행정동은 모곡동 · 칠괴동 · 칠원동 · 도일동 · 가재동 · 장안동 등 6개의 법정동을 관할한다. 평택시 행정동 중 면적이 가장 넓으며, 동서고속도로 송탄 I.C와 모곡산단 · 칠괴산단 등이 입지해 있다. 모곡동 · 칠괴동 · 칠원동 · 도일동 등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 이전에는 진위군(振威郡) 여방면(余方面) 관할이었으며 가재동과 장안동은 진위군 송장면(松庄面)의 관할이었던 곳이다. 이들 지역이 모두 송탄면(松炭面) 관할로 편성된 후 오늘날까지 하나의 행정동 관할이 되었다. '송탄(松炭)'이라는 명칭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송장면과 일탄면(一炭面) · 탄현(炭峴)에서 이탄면(二炭面)과 함께 분할된 명칭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다 합성하여 만든 것이다. 금석문으로는 충의제각비(1800, 평택시향토유적 제5호)에 '盤芝'와 '城峴'이 나와 있다. 『평택시사』에 따르면 '반지'는 서정동에서 동령마을에 이르는 도로 옆에 위치한 해발 88m의 산으로 반지산, 돌산 등으로 불렀는데, 채석장과 도시개발로 일부만 남아있다. 반지산은 1922년에 개교한 서정리초등학교의 교가에

도 나오는 산이다. '성현'[성고개]은 오달제 유허지인 동령마을에 옛 토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오며, 원래 유허비가 있던 자리이다.(박병철, 김우선)

■ 와부읍 瓦阜邑 • Wabu-eup

- 유형 현 행정구역 ← 楊州牧: 행정_읍
- 전거 『지명유래집』(경기도, 1987), 송백당유허비, 석실서원묘정비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남양주시의 남서쪽 끝에 있는 읍이다. 동쪽은 한강 건너 양평군 서종면과 양서면, 남쪽은 한강 건너 광주군 남종면과 동부면, 서쪽은 미금읍, 북쪽은 화도면에 인접해 있다. 한말까지 이 지역의 대부분은 양주군 와공면과 광주군 초부면 동부면에 속해 있었다. 1906년 초부면이 양주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와공면의 '와'자와 초부면의 '부'자를 따서 와부면이라 하였으며, 율석, 덕소, 도곡, 월문, 능내, 조안, 진중, 송촌, 삼봉, 시우, 팔당리의 11개 리로 구성되었다. 율석리는 와공면의 율북과 석실리 일부를 통합한 것이며, 덕소리는 와공면 덕소리 전부, 석실 월곡리와 금촌면 사패리 각 일부를 병합하였다. 도곡리는 와공면 도산리와 도심리를 병합하였으며, 월문리는 와공면 문곡리 일부, 월곡리, 그리고 하도면 맹기리와 차산리 일부를 합한 것이다. 능내리는 초부면 봉안 마현리 일부와 능내리를 합하였고, 조안리는 초부면 조동 고랑리 전부와 마현 진촌리 각 일부를 합하였다. 진중리는 초부면 중리 전부와 진촌리 일부를 합하였고, 송촌리는 초부면 평촌리 일부와 송송동을 합하였다. 삼봉리는 초부면 삼봉리 전부, 평촌리와 하도면 백월리 각 일부를 합한 것이며, 시우리는 하도면 시우동이 편입된 것이다. 팔당리는 광주군 동부면 팔당리가 양주군으로 편입된 것이다. 1940년 2월 14일 조안출장소가 신설되었고, 1980년 4월 1일 남양주군에 편입되었으며 그 해 12월 1일 와부읍으로 승격되었다. 1986년 조안출장소가 조안면으로 분리 승격되었고 1989년 1월 1일 조안면 시우리 일부가 와부읍에 편입되었다. 1998년 현재 덕소, 도곡, 팔당, 월문, 율석리를 관할하고 있다. 금석문으로는 송백당유허비(1861)에는 "석실에 위치하고 있는 송백당" 외에 석실서원묘정비(1672)에 "石室 선생께서 몸소 예의의 큰뜻을 맡으시어"라 적고 있다.(양보경, 김우선)

■ 수리산 修理山 • Surisan

- 유형 역사지명류 ← 廣州牧 : 산천

- 전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59), 『대동지지』(1864), 『조선지지자료』(1911),『고려사』(1451) ,『증지수좌관오묘지명(證智首座觀奧墓誌銘)』, 정난종신도비, 윤행직묘갈, 한장석신도비
- 주소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수리산(修理山)은 북쪽으로 경기도 안양시, 동쪽으로 군포시, 남쪽으로 화성군, 서쪽으로 안산시에 접하는데, 군포시 속달동에 있는 475m의 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따르면 견불산(見佛山)이란 명칭으로도 불렸다. 1906년(광무 10) 9월 24일에 칙령 제49호로 경기도 광주군의 성곶면(聲串面)·월곡면(月谷面)·북방면(北方面) 등이 안산(安山)으로 이속되기 전까지 수리산은 경기도 광주군에 속하였다. 수리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의 광주목·과천현·안산군 조에 모두 실려 있다. 이로 보면 조선 초기에는 수리산의 서쪽에 안산군, 북쪽에 과천현, 동쪽에 광주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리산의 명칭 유래와 관련해서 여러 속설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신뢰할만한 설명인가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동지지』(1864)의 안산군 조에서 "수리산은 동쪽 5리에 있는데 태을산(太乙山)이라 하기도 하고 견불산(見佛山)이라고도 한다. 자못 험준하고 높은 취암봉(鷲岩峯)이 있다. 방언에서 취(鷲)를 수리[修理]라 한다"로 설명한 것을 일례로 들 수 있다. 취암봉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의 안산군 조에는 취암(鷲巖)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수리산의 '수리'가 기원적으로 '취'에서 출발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후대에 수리[修理]를 수리[鷲]로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다. 취암이『조선지지자료』(1911)에는 '수암봉(秀岩峯)'으로 표기된 것도 그러한 가능성을 더해 준다. 수리산과 이곳에 소재한 수리사(修理寺)의 명칭은 동일 기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리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관련된 문헌이나 금석문의 기록은 없다. 다만 1158년(고려 의종 12)에 세워진 『증지수좌관오묘지명(證智首座觀奧墓誌銘)』에 승려 관오(觀奧)를 '수리사 주지'로 설명한 명문과 『고려사』(1451) 열전 최충헌(崔忠獻) 조에 수리사 소속의 승군들이 흥왕사(興王寺)·홍원사(弘圓寺)·경복사(景福寺)·왕륜사(王輪寺)·안양사(安養寺) 소속의 승군과 함께 최충헌을 죽이고자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1217년(고려 고종4)의 일로 기록되어 있어 수리사의 창건 연대가 오래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지장골의 명칭이 지장보살 친견 설화에서 유래했다는 속설이 전한다. 수리산이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의 광주목, 과천현, 안산군 등에 모두 실려 있으나 견불산이라는 명칭을 안산군 조에만 제시한 것을 고려해 보면, 지장보살 친견 설화의 발생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9세기의 광주목, 과천현, 안산군 읍지에 견불산이라는 명칭이 모두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지장보살 친견 설화가 널리 확대된

것으로 이해된다. 금석문으로 정난종신도비(1525)에 '見佛山', 윤행직묘갈(1857)에 '安山 修理山 橫火谷', 한장석신도비(1894)에 '修理山 太乙峰'이 나와 있다.(김우선)

■ 송산동 松山洞 • Songsan-dong

- 유형 현 행정구역 ← 楊州牧: 행정_동
- 전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대동여지도』, 정문부신도비, 윤리묘갈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동

의정부시의 동북부에 있는 동으로, 동쪽으로 자금동, 서쪽으로 양주시, 남쪽으로 가능동, 북쪽으로 양주시와 접하고 있다. 송산동은 송산1동과 송산2동의 2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송산1동은 다시 고산동 · 산곡동 · 용현동 등 3개의 법정동, 송산2동은 낙양동과 민락동의 2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산이란 이름의 유래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조선시대 양주목에 있다가 폐지된 특수행정구역인 송산처(松山處)에서 왔다는 설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양주목에는 "송산처가 주 동쪽 15리 지점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 다른 하나는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인 송산(松山) 조견(趙狷)이 이곳에 은거하였는데 그의 호를 따서 이름 지었다는 설이다. 『대동여지도』에는 천보산(天寶山)의 동쪽 주엽산(注葉山)에서 내려오는 산줄기에 송산이 표시되어 있다. 송산동을 이루는 고산동 · 산곡동 · 용현동 · 낙양동 · 민락동 가운데 고산동 · 산곡동은 조선시대 양주목 내동면 지역이었다. 고산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입암리(笠岩里)와 고산리(高山里) 일부를 합쳐 고산리가 되었고, 산곡동은 산곡리(山谷里) · 고산리의 일부와 별비면(別非面) 흑석리(黑石里)의 일부를 합쳐 산곡리가 되었다. 고산리와 산곡리는 1914년 양주군 별내면 소속이 되었다가 1980년 의정부시로 편입되면서 고산동과 산곡동이 되었다. 고산이란 이름은 마을 부근에 있는 산이 높아서 '높은뫼'라고 칭한 데서 유래한 것이며, 산곡은 산골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용현동은 조선시대 양주목 둔야면 소속으로, 1914년 시북면 어룡리(魚龍里) · 탑석리(塔石里) · 양현리(陽峴里)와 둔야면 둔야리(芚夜里) 일부를 합하여 용현리가 되었다. 용현은 어룡리와 양현리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든 이름이다. 낙양동과 민락동은 조선시대 양주목 시북면 소속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낙양동은 시북면 곤제리(昆弟里) · 궁촌리(宮村里) · 양지리(陽地里)를 합쳐서 낙양리가 되었고, 민락동은 시북면 삼귀리(三歸里) · 민락리(民樂里) · 오목설(梧木里)와 내동면 고산리 일부를 합쳐 민락리가 되었다. 낙양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태종(太宗)의 총애를 받던 조말생(趙末生)이 곤제리에 자리를 잡고 꽃동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무학대사가 이를 보고

마치 중국의 낙양과 같다고 하여 '낙양화원'이라고 이름 지은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민락은 용암산 아래에 마을이 위치하여 미르기 · 미라기 또는 미락 · 민락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용현리 · 낙양리 · 민락리는 1938년에 양주면, 1942년에 의정부읍, 1963년에는 의정부시 소속이 되었으며, 1964년 동제 실시에 따라 모두 동이 되었고, 행정동인 송산동 소속이 되었다. 송산동은 2003년 송산1 · 2동으로 나누어졌다. 금석문으로는 정문부신도비(1861)에 '松山', 윤리묘갈(1721)에 '楊州 松山'이 나와 있다.(정치영, 김우선)

■ 시흥시 始興市 • Siheung-si

- 유형 현 행정구역 ← 衿川縣: 행정_시
- 전거 『세종실록지리지』(1432),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57), 『대동지지』(1866), 『증보문헌비고』(1908), 『조선지지자료』(1911), 박서신도비
- 주소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는 경기도 중서부에 있는 시이다. 시청은 시흥시 장현동 300번지에 놓였다. 북쪽으로 부천시, 동쪽으로 광명시 · 안양시, 남쪽으로 안산시, 서쪽으로 인천광역시와 경계를 이룬다. 아울러 황해에 닿는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현재의 시흥시 지역은 동북쪽의 잉벌노현(仍伐奴縣: 서울시 시흥동)과 남쪽의 장항구현(獐項口縣: 안산) 사이에 위치했다. 거리상으로 보면 시흥시 지역은 장항구현에 속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신라 경덕왕대에 장항구현은 장구현(獐口縣)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고려 초에는 안산현이 된 뒤 1038년에는 안산군으로 승격했다. 조선시대에 와서 시흥의 북부 지역은 인천에, 남부 지역은 안산에 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1789년을 반영하는 『호구총수』에서 시흥시의 북부 지역인 과림동 · 신천동 · 신현동 · 대야동 · 은행동 일대는 인천에 속했고, 남부 지역인 군자동 · 목감동 · 연성동 · 정왕동 · 정왕본동 일대는 안산에 속했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의 시흥군(서울시 시흥동) · 안산군 · 과천군을 통합한 시흥군이 새롭게 탄생했다. 이때 현 시흥시의 남부 지역인 목감동 · 연성동 · 정왕동 · 정왕본동 일대는 시흥군에 편입된 반면, 북쪽의 은행동 · 신천동 · 신현동 · 대야동 일대는 부천군 소래면에 편입되었다. 1914년에 편성된 시흥군 중에서 1936년에 현 구로구 · 영등포구 일대가 서울로 편입되었고, 1949년과 1963년에 걸쳐 동면 · 신동면이 서울로 편입되었다. 1973년 7월 1일에는 안양읍이 안양시로 독립해 나가는 대신 대야리 · 매화동 · 신현동 · 은행동 등의 소래면이 시흥군으로 편입되었다.

1981년 7월 1일에는 소하읍과 광명출장소가 광명시로 독립해 나갔고, 1986년 1월 1일에는 과천시가 독립해 나갔다. 1989년 1월 1일에는 군포읍이 군포시로, 의왕읍이 의왕시로 승격해 나갔다. 이때 소래읍 수암면·군자면이 시흥시로 승격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시흥시는 14개 행정동을 거느리고 있다. 시흥이라는 지명은 현재의 시흥시와는 관계없이 출현했다. 『고려사』 지리지에 따르면 성종대(981~997)에 금주(衿州: 서울시 시흥동)를 일명 시흥(始興)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정조 19년(1795) 윤2월 1일 기존의 금천현(衿川縣)을 시흥현(始興縣)으로 고쳤는데, 이는 옛 명칭을 따른 것이라 했다. 이는 정조의 수원 행차로를 과천 방면으로부터 금천 방면으로 바꾸면서 금천현의 지방관을 현감에서 현령(縣令)으로 바꾸는 등 읍격의 상승을 꾀하면서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의 금주에 대한 별칭이 조선시대 정조의 수원 행차를 계기로 공식적인 지명이 된 것이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따라 '시흥'의 공간적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서울의 팽창과 위성도시들의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 1914년의 시흥군 범위는 점차 축소의 길을 걸었다. 그 결과 원래 시흥현과 관계없는 지역에 현재의 시흥시가 탄생하게 되었다. 시흥시는 원래 서해안 갯벌을 끼고 있었으나, 1980년 후반부터 오이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시화방조제와 시화공단이 건설되면서 시흥시 지역은 대규모 공단을 낀 공업도시로 변화했다. 금석문으로는 박서신도비(1665)에 '衿川縣'이 보인다.

소래산(蘇萊山: 299m)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에 근거를 두고 시흥시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옛날에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공략하기 위하여 덕적도를 거쳐 이 산에 머물렀던 일에서 '소래'(蘇萊)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전한다. 중턱의 대야동 산140-3번지에 보물 제1324호로 지정된 시흥소래산마애상(始興蘇萊山磨崖像)이 전한다. 성주산(聖柱山: 208m)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와 시흥시 대야동에 걸쳐 있는 산이다. 와우산(臥牛山)이라고도 이른다. 소래산과 맞닿아 있다. 목감천(牧甘川: 35㎞)은 시흥시 목감동에서 흘러나와 광명시 일대를 거쳐서 안양천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이부오, 김우선)

■ 실촌읍 實村邑 • Silchon-eup

- 유형 현 행정구역 ← 廣州牧: 행정_읍
- 전거 『여지도서』(1759), 『호구총수』(1789), 김약시묘갈
- 주소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실촌읍(實村邑)은 광주시의 동남부에 위치한 읍이다.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오향리에는 1708년(숙종34)에 건립된 송승희묘표(宋承禧墓表)가 있다. 이 묘표에 '숭정신미천우광주

실촌오향곡(崇禎辛未遷于廣州實村五香谷)'의 기록이 있다. 숭정(崇禎) 신미(辛未)는 1631년을 말한다. 실촌(實村)이 사용된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다만 실촌(實村)이 면명인지 동리명인지 미상이다. 『여지도서』(1759) 에 실촌면(實村面)은 일리(一里 : 198호, 남자 396명, 여자 519명), 이리(二里 : 135호, 남자 429명, 여자 626명), 삼리(三里 : 187호, 남자 384명, 여자 436명) 등 3개의 동리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호구총수』(1789)에도 1리, 2리, 3리 등 3개의 동리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에는 실촌면이 곤지암리(昆池岩里) · 묵방리(墨坊里), 구양리(九陽里) · 구수리(九水里) · 신촌(新村) · 복상동(卜尙洞) · 상조현동(上鳥峴洞) · 하조현동(下鳥峴洞) · 설월리(雪月里) · 우항동(牛項洞) · 외선동(外仙洞) · 내선동(內仙洞) · 상탑선리(上塔仙里) · 하탑선리(下塔仙里) · 만곡동(晩谷洞) · 유여리(柳余里) · 사동(寺洞) · 지음리(知音里) · 야동(冶洞) · 국정포동(國井浦洞), 건업리(建業里) · 동심리(洞深里) · 장재동(長在洞) · 연곡동(烟谷洞) · 부곡동(釜谷洞) · 오향동(五香洞) · 하열미동(下悅美洞) · 중열미동(中悅美洞) · 상열미동(上悅美洞) · 대석리(大石里) 등 30개의 동리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의 결과 곤지암리(昆池岩里 : 곤지암리(昆池岩里)와 묵방리(墨坊里)의 병합) · 수양(水陽 : 구양리(九陽里), 구수리(九水里), 복상동(卜尙洞) 등의 병합) · 봉현리(鳳峴里 : 상조현동(上鳥峴洞), 하조현동(下鳥峴洞), 설월리(雪月里) 등의 병합) · 이선리(二仙里 : 외선동(外仙洞)과 내선동(內仙洞)의 병합) · 만선리(晩仙里 : 상탑선리(上塔仙里), 하탑선리(下塔仙里), 만곡동(晩谷洞) 등의 병합] · 유사리(柳寺里)[유여리(柳余里)와 사동(寺洞)의 병합) · 삼합리(三合里 : 지음리(知音里), 야포동(冶浦洞), 국정포동(國井浦洞) 등의 병합) · 건업리(建業里) · 장심리(長深里 : 동심리(洞深里)와 장재동(長在洞)의 병합) · 연곡리(蓮谷里 :연곡동(烟谷洞)의 이표기) · 부항리(釜項里 : 부곡동(釜谷洞)과 우항동(牛項洞)의 병합) · 오향리(五香里 : 부곡동(釜谷洞)의 일부 지역과 오향동(五香洞)의 병합) · 열미리(悅美里 : 하열미동(下悅美洞) · 중열미동(中悅美洞) · 상열미동(上悅美洞) 등의 병합) · 신촌리(新村里) 등 14개의 동리로 구성되었다. 실천면의 새로운 동리명은 동리명의 본래 의미를 상실케 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었다. 대석리(大石里)는 관련 자료가 없어 불명이다. 1973년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해 도척면의 삼리와 초월면의 신대리를 이속받았다. 2001년 광주군이 광주시로 승격하면서 실촌면은 실촌읍으로 승격되었다. 금석문으로는 김약시묘갈(1725)에 '廣州 金光村'이 나와 있다.(이건식, 김우선)

■ 약산 藥山 • Yaksan

- 유형 역사지명류 ← 金浦郡: 산천
- 전거 『세종실록지리지』(1432),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통진읍지』(1899) ; 『통진부지도』(1872), 심달원신도비
- 주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 상마리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와 상마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20m이다. 약초가 많았고 말을 달렸다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산천조엔 "약산은 현의 남쪽 24리 지점에 있다"고 나온다. 『통진읍지』(1899) 산천조엔 언급이 없다. 약산은 승마산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봉우리로 구분되기도 하는 것 같다. 『지명유래집』(1995)에는 "옛날에 적의 행방과 아군의 소식을 전할 때 말 대신 이용한 산이라 하여 승마산이라 불렀다"는 전언을 채록해 두었다. 『김포군지』(1993)에는 "약산은 약암리 뒷산의 이름인데, 이 산에 좋은 약초가 많이 있었으며 약수도 있어 산의 이름을 약산이라 불렀다"고 하고 "승마산은 산의 정상이 말의 안장과 같이 생겨서 말을 타고 달리는 형국이라 하여 승마산이라 부른다"고 약산과 승마산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통진부지도』(1872, 규 10364)에는 대파면과 고이곶면의 중간 아래쪽 지점에 약산, 그리고 그 아래에 승마봉(昇馬峰)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봉우리의 이름이 달랐음을 보여준다. 금석문으로는 심달원신도비(1563)에 '通津 藥山'이 나와 있다.(김동수, 김우선)

■ 양성면 陽城面 • Yangseong-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安城府: 행정_면
- 이칭 사복홀(沙伏忽), 적성(赤城)
- 전거 『세종실록지리지』(1432),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57), 『대동지지』(1864), 『증보문헌비고』(1908), 『조선지지자료』(1911), 오완묘갈, 오두규묘갈
- 주소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면은 경기도 안성시 서북부에 있는 면이다. 면사무소는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327번지에 위치한다. 동쪽은 안성시 고삼면 · 대덕면, 북쪽은 용인시 이동면, 서쪽은 용인시 남사면 · 원곡면, 남쪽은 안성시 공도읍과 더불어 경계를 이룬다. 양성면은 원래 고구려의 사복홀(沙伏忽)이었다. 이를 신라 경덕왕대에 적성(赤城)으로 고쳤다. 양성(陽城)이라는 이

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초였다. 적성의 적(赤)을 한자의 의미에 맞춰 양(陽)으로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다. 이곳에는 명종대(1170~1197)에 감무(監務)가 설치된 뒤 1413년(조선 태종13) 에 충청도로부터 경기도로 이속되었다. 이때부터 양성현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양성현 관아는 현 양성초등학교 자리에 위치했었다. 그런데 1872년의 「양성지도」에서는 신읍(新邑)과 그 서남쪽, 즉 아곡의 서쪽 산자락 끝에 구읍(舊邑)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의 지형과 비교할 때, 신읍은 양성초등학교 자리이고, 구읍 자리는 현 양성면사무소 서북에 위치한 해발 79.2미터의 봉우리 동편 즉 현재의 경기빌라 주변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양성현 관아가 언젠가 이곳으로부터 양성초등학교 자리로 옮겨간 것이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1593년(선조26) 6월 5일 보고에서 왜군이 양성 등 경기도 지역의 광범위한 지역을 점거해 분탕질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구(舊) 현치가 임진왜란 시에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전국의 군 · 면이 통폐합되면서 기존 양성현이 양성면으로 격하되었다. 양성면에 속한 지역 중 면사무소가 위치한 동항리와 석화리 · 구장리 일대는 원래 양성현 읍내면이었고, 그 북쪽의 산정리 · 이현리 · 도곡리 · 조일리 일대는 지동면(紙洞面), 면소재지 동쪽의 필산리 · 방축리 일대는 송오리면(松五里面), 최북단의 미리내 · 난실리 일대는 금곡면(金谷面), 남쪽의 방신리 · 덕봉리 · 명목리 일대는 덕산면(德山面)이었다. 양성현의 나머지 지역 중 현재의 공도읍에는 1914년 당시에 공도면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원곡면 서쪽의 평택시 고덕면 장당동 · 율포리 · 동척리, 청북면 율북리 · 한산리 · 어연리 · 현곡리 · 삼계리에 이르는 좁고 길쭉한 범위도 양성현에 속했다. 양성현은 세곡을 운송하기 위해 청북면 삼계리 옹포(瓮浦)에 해창(海倉)을 두었는데, 이 때문에 양성현에 속한 일종의 월경지가 서해안까지 뻗쳐 있었던 것이다.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 도곡리 일대도 양성현의 월경지였다. 이 중에서 어연리 · 율북리 · 한산리 등은 1896년에 수원군으로, 원정리 · 도곡리 등은 1914년에 진위군으로 편입되었다. 양성면은 1998년 4월 1일 안성군이 시로 승격하면서 안성시에 속하게 되었다. 천덕산(天德山: 320m)은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 산정리와 원곡면 성주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쌍령산(雙嶺山: 502m)은 양성면 · 고삼면과 용인시 원삼면 경계에 있는 산이다. 고성산(高城山: 298m)은 양성면 덕봉리와 원곡면 칠곡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한천(漢川)은 안성천의 한 지류를 이룬다. 금석문으로는 오완묘갈(1759)에 '陽城縣 天德山', 오두규묘갈(1858)에 '陽城'이 나와 있다.(이부오, 김우선)

■ 양주동 楊州洞 • Yangju-dong

- 유형 현 행정구역 ← 楊州牧: 행정_동
- 전거 어사대비(御射臺碑)
- 주소 경기도 양주시 양주동

양주시의 동남쪽에 위치한 동이다. 2003년 양주군이 시로 승격되기 전에는 양주읍이었다. 양주읍은 옛 양주의 읍치가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는 양주의 중심지라는 뜻으로 주내면으로 불렸다. 주(州)가 들어가는 지명은 그 지역의 정치 · 경제 · 문화의 중심지를 뜻하는 것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양주 땅이름 역사』에 의하면 양주읍 일대가 양주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조선 초기이다. 당시 양주는 오늘날의 서울을 포함하는 거대 행정구역이었는데, 새로운 조선왕조의 수도 한양이 한강유역에 조성되면서 양주의 중심지는 동촌 대동리로 이전되었다. 얼마 후 양주의 중심지는 다시 오늘날의 고읍동, 즉 조선 초기 당시 고주내(古州內) 지역에 조성되었고, 이후 오늘날의 유양동 일대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조선개국 초기부터 양주읍은 양주지역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양주읍은 주내 혹은 읍내로 불리어왔다. 양주읍 일대는 대한제국 시기까지만 해도 읍내면 · 고주내면 · 천천면에 속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읍내면의 동부리 · 남방리 · 산북리 · 마전리 · 어둔리 전부, 고주내면의 광암리 · 삽사동 · 고읍리 · 송랑리 · 회만리 · 광숭리 전부와 삼가대리 일부, 천천면의 도덕리 · 고장리 일부를 합하여 주내면으로 하고, 면사무소는 유양리에 설치하였다. 양주읍은 2000년 주내면에서 양주읍으로 승격되었고, 2003년 양주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양주1동과 양주2동으로 바뀌었다. 현재 양주1동은 유양동 · 어둔동 · 산북동 · 마전동 · 남방동, 양주2동은 광사동 · 만송동 · 삼숭동 · 고읍동 등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유적은 유양리에 어사대비 · 양주향교, 그리고 어둔리와 유양리 일대에는 대모산성이 있고, 그 밖에 만송리에 양효공사우가 있다. 금석문으로는 어사대비(1792)에 '光陵'이 나와 있다.(양보경, 김우선)

■ 왕곡동 旺谷洞 • Wanggok-dong

- 유형 현 행정구역 ← 王倫面: 행정_동
- 전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호구총수』(1789), 『조선지지자료』(1911), 김세연묘갈
- 주소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왕곡동은 법정동으로 의왕시의 행정동인 고천동과 오전동 일부에 포함된다. 백운산 서남쪽의 소하천인 왕곡천 유역과 오봉산 동쪽의 안양천 상류 유역과 거의 일치한다. 『조선지지자료』(1911) 광주조에 의하면 광주군 왕륜면 곡사동·통산동이었다가 1914년 부령 제111호에 따라 수원군 의왕면 왕곡리로 되었다. 1936년 10월 1일부터는 면 이름이 바뀌어 일왕면(日旺面)에 속했다. 1949년 8월 15일부터 화성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63년 1월 1일부터는 시흥군 의왕면으로 편입되었고, 1980년 12월 1일부터 의왕읍에 속했다. 1989년 1월 1일 의왕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의왕시(儀旺市) 왕곡동이 되었다. 2007년 시 이름의 변경으로(義王市) 고천동이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과천현조에는 청계산과 청계사가 나와 있어 이 일대는 원래 과천현에 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치로 보아 삼국시대에는 율목군(栗木郡: 과천)에, 통일신라기에는 율진군(栗津郡: 과천)에 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6세기 중엽부터 광주목에 속했다. 예전에 오봉산 동쪽 골짜기에 우물이 있어 '골우물'이라 불렸는데, 이 때문에 주변의 취락이 '골우물'로 불렸다가 조선 말엽부터 고우물(고정동)로 불렸다고 한다. 평사천(벌사그내)은 옛 의왕읍의 중심지로서, 본래 모래벌을 이룬 데서 유래했다. 금석문으로는 김세연묘갈(1863)에 '廣州 王倫 紅靑洞'이 보인다. 홍청동은 왕림과 오전동 오매기 사이에 있다. 청풍 김씨가 처음으로 터잡은 토질이 음지쪽은 푸르고, 양지쪽은 붉은 색을 띄고 있어서 '홍청골[紅靑洞]'이라고 했다. (김우선)

■ 왕징면 旺澄面 • Wangjing-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漣川縣: 행정_면
- 전거 『호구총수』(1789), 강시신도비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연천군의 서부에 있는 면으로, 동쪽으로 중면 · 군남면, 서쪽으로 장단군, 남쪽으로 백학면 · 미산면, 북쪽으로 중면과 강원도 금천군과 접하고 있다. 왕징면은 현재 무등리 · 노동리 · 동중리 · 북산리 · 강서리 · 강내리 · 고왕리 · 기곡리 · 작동리 · 고잔상리 · 고잔하리 · 임강리 등 18개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왕징(旺澄)이란 이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마전군 북면의 소재지인 징파리(澄波里)와 장단군 강신면의 소재지인 고왕리(高旺里)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만든 것이다. 왕징면은 조선시대 마전군(麻田郡) 지역으로, 마전읍내 북쪽이 되므로 북면(北面)이라 하여 무등리(無等里) · 징파리(澄波里) · 애동리(艾洞里) · 노동리(蘆洞里) · 중동리(中洞里) · 동막리(東幕里)의 6개 리를 관할한 것으로 『호구총

수』(1789)에 기록되어 있다. 1895년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기존의 6개 리에 외곡리(外谷里)·유림장리(楡林場里)를 추가하여 8개 리로 개편하였고, 장단도호부 강동면(江東面) 지역의 고잔(高棧)·기곡(基谷)·산점(山店)의 3개 리를 기곡·기석(基石)·산점·고왕(高旺)·고잔상·고잔중·고잔하리로 개편하고 강동면을 강신면(江新面)이라 개칭하여 마전군에 편입하였다. 1914년에 마전군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북면의 8개 리를 무등·북삼(北三)·노동·동중(東中)의 4개 리로, 강신면의 7개 리를 기곡·고왕·고잔상·고잔하 등 4개 리로 축소하여 병합하였고, 연천군 서면(西面) 지역이었던 계명(鷄鳴)·군영(軍營)·영정(永貞)·안월(安月)·소포(少浦)·야전(野前)의 6개 리를 강서(江西)·강내(江內) 2개 리로 개편하여 편입시켰으며, 마전군 서면 지역이던 작동리(鵲洞里)를 편입시켜서 왕징면이라 하여 총 11개 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왕징면 전 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북한 땅이 되었다가, 6·52전쟁 후인 1954년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하여 행정권이 수복되면서 일부 지역에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다. 1963년에는 과거 연천군 서남면(西南面) 지역이었던 귀존(貴存)·가천(佳川)·냉정(冷井)·고장(古莊)·오탄(伍炭)·장학(獐鶴)·솔현(率賢)·석둔(席屯)의 8개 리와, 장단군 강상면(江上面)의 임강(臨江)·마성(馬城)·구화(九化)·자하(紫霞)·갈운(葛雲)·덕적(德積)의 6개 리를 편입하여 25개 리를 관할하였다. 이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현재는 18개 법정리를 두고 있다. 이 중 무등·동중·노동·북삼의 4개 리에만 주민이 살고 있으며, 그 외 14개 법정리에는 거주하는 주민은 없고 강서·강내·작동 등 3개 리에 출입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석문으로는 강시신도비(조선 초기)에 '臨江縣'이 나와 있다.(정치영, 김우선)

■ 오포읍 五浦邑 • Opo-eup

- 유형 현 행정구역 ← 廣州牧: 행정_읍
- 전거 『영조실록』, 『여지도서』(1759), 『호구총수』(1789), 김균신도비, 김자수신도비
-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오포읍(五浦邑)은 광주시의 서남부에 위치한 읍이다. 『영조실록』 1744년(영조 20) 8월 29일 조에는 "전 광주부윤(廣州府尹) 서명형(徐命珩)이 (중략) 오포리(五浦里)에다 큰 집을 지었었는데"의 표현이 나온다. 여기에서 말하는 오포리(五浦里)는 오포면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광주목의 방면명이 이 시기 이후에 이루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지도서』(1759) 에 오포면은 상동(上洞 : 167호, 남 267명, 여자 802명), 중동(中洞 : 174호, 남자 398명, 여자 540명), 수동(水東 : 208호, 남자 471명, 여자 787명), 군수둔리(軍需

屯里 : 9호, 남자 21명 여자 16명) 등의 4개 동리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호구총수』(1789)에는 상일리(上一里) · 상이리(上二里) · 상삼리(上三里) · 태척리(泰尺里) · 중동(中洞) · 수동리(水洞里) · 수둔리(守屯里) · 관둔리(官屯里) 등의 8개 동리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동리의 분할과 새로운 동리인 태척리(泰尺里)와 관둔리(官屯里)가 추가되었다. 수둔리(守屯里)는 '군수둔리(軍需屯里)'의 이표기로 추정된다. 규장각 소장의 고문서인 어서각수호등장(御書閣守護等狀)에는 '오포면상동분이리(五浦面上洞分二里)'의 기록이 있다. 이것은 상이리(上二里)가 상동(上洞)에서 분할된 것임을 말해 준다. 이 문서의 작성 연대는 '병인(丙寅) 12월(月)'로 되어 있다.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에는 오포면이 둔리(屯里) · 벌리(筏里) · 양촌리(陽村里) · 외곡리(外谷里) · 매곡리(梅谷里) · 독산리(獨山里) · 자작리(自作里) · 진해촌(眞海村) · 휴곡리(鵂谷里) · 문현동(文顯洞) · 능곡리(陵谷里) · 창평동(倉坪洞) · 차곡리(車谷里) · 태현리(台峴里) · 신촌리(新村里) · 목동(木洞) · 고잠리(高岑里) · 추곡리(楸谷里) · 허산리(許山里) 등의 19개 동리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1914년 행정 구역의 개편 결과 오포면은 양벌리(陽筏里 : 둔리(屯里) · 벌리(筏里) · 양촌리(陽村里) 등의 병합) · 매산리(梅山里 : 외곡리(外谷里) · 매곡리(梅谷里) · 독산리(獨山里) 등의 병합) · 문형리(文衡里 : 진해촌(眞海村)과 휴곡리(鵂谷里)의 병합) · 추자리(楸自里 : 추곡리(楸谷里)와 자작리(自作里)의 병합) · 능평리(陵坪里 : 능곡리(陵谷里), 창평동(倉坪洞), 차곡리(車谷里) 등의 병합) · 신현리(新峴里 : 태현리(台峴里)와 신촌리(新村里)의 병합) · 고산리(高山里 : 고잠리(高岑里)와 허산리(許山里)의 병합] · 목리(木里) 등의 8개 동리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동리의 병합 결과이다. 문현동(文顯洞)은 관련 자료가 없어 불명이다. 1973년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해 목리를 광주읍에 이속시켰다. 2001년 광주군이 광주시로 승격하면서 오포면은 오포읍으로 승격되었다. 금석문으로는 김균신도비(1905)에 '五浦 台峴'이 나와 있다.(이건식, 김우선)

■ 우저서원 牛渚書院

- 유형 역사지명류 ← 金浦縣: 유적
- 전거 중봉조공유허추모지비
- 주소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492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순절인인 조헌(趙憲: 1544~1592)을 모시는 서원으로 1648년(인조26)에 창건되었고 1675년(숙종1)에 사액(賜額)받았다. 조헌은 자(字)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 시호는 문렬(文烈), 본관은 배천(白川)으로, 1567년(명종22) 문과(文科)

에 급제하여 정주교수(定州敎授), 통진현감(通津縣監), 전라도사(全羅都事), 보은현감(報恩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선조25)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沃川) 등지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청주성(淸州城)을 탈환하는 등 많은 공을 세우고 다시 8월에 금산(錦山)에서 왜군과 격전하다가 700의사와 함께 장렬히 전사하였다. 1604년(선조37)에 이조판서, 1754년(영조30)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서원은 조헌의 옛 집터에 세워진 것으로 1834년(순조34)에 한차례의 중수를 거쳤다. 1871년(고종8)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서도 제외된 47개의 서원 가운데 하나이다. 본당(本堂)은 목조 단층의 기와 건물이고, 강당으로 여택당(麗澤堂) · 동재와 서재, 그리고 조헌선생유허추모비(趙憲先生遺墟追慕碑)가 서있는 비각이 있다. 유허추모비의 비문은 이정구(李廷龜)가 짓고 글은 김현성(金玄成)이 썼는데 서원과는 별도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90호로 지정되어 있다. 본당과 강당 앞에 각각 내 · 외삼문이 있는데 모두 솟을대문이다. 전체적으로 매우 조촐한 규모이다. 현재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중봉조공유허추모지비(1617)에 '錦山', '沃川 安邑縣'이 나와 있다.(김동수, 김우선)

■ 원삼면 遠三面 • Wonsam-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용인현: 행정_면
- 전거 조중회묘갈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은 용인시 처인구의 남동부에 위치한 면이다. 1914년 이전에는 죽산군에 속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원일면의 9개 동리, 근삼면의 식곡리 일부와 양지군 목악면의 6개 동리, 양지군 주서면의 광곡리 등을 병합하여 원삼면이라 하여 용인군에 편제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원삼면은 두창리, 문촌리, 죽릉리, 독성리, 가좌리, 미평리, 사암리, 좌향리, 맹리, 고당리, 학일리, 목신리 등의 동리를 관할하였다. 1973년 대통령령 제 6542호에 따라 가좌리를 외사면에 다시 이속시켰다. 2005년 용인시로 승격될 때 원삼면은 처인구에 속하게 되었다. 금석문으로는 조중회묘갈(1786)에 '竹山 朔寧山 高峙洞'이 나와 있다.(이건식, 김우선)

■ 원신동 元新洞 • Wonsin-dong

- 유형 현 행정구역 ← 高陽郡: 행정_동

- 전거 『호구총수』(1789), 「고양군지도」(1872), 『조선지지자료』(1911), 김우신신도비, 이언홍묘갈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신동

고양시 덕양구에 속한 행정동이다. 법정동인 신원동과 원당동을 포함하고 있다. 고양시청의 동쪽에 위치하며 덕양구의 중앙부를 이룬다. 최근에 개통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북쪽으로 끼고 있으며, 신원동은 통일로 · 공릉천과 인접해 있다. 원신동은 1992년 고양군이 시로 승격할 때 원당동의 원(元)과 신원동의 신(新)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원당(元堂)은 1413년 고봉현이 고양현으로 변하면서 최초의 관아가 들어선 데서 유래했다. 이 관아는 장경왕후의 묘를 이장한 희릉(禧陵)이 들어서면서 대자동으로 옮겨갔다. 그 뒤 서삼릉에 왕실의 재실이 있어 역시 원당이라 했다. 신원(新院)은 서울과 의주를 잇는 경의대로상에 원(院)이 새롭게 설치되면서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새원마을은 대자동에 위치해 있다. 신원동이 조선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이 현재의 신원초등학교 앞에 짓고 살았던 궁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원당동은 조선후기까지 원당면 일패리에 속했다. 이는 『호구총수』(1789)와 「고양군지도」(1872)에서 신원리와 함께 확인된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의 『조선지지자료』(1911)와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 상편에서는 원당면에 원당리와 신원리가 확인된다. 1979년에는 원당면이 원당읍으로 승격했고, 1992년부터는 고양시에 속하다가 1996년부터는 고양시 덕양구에 속하고 있다. 원당동에는 고려가 멸망한 뒤 만들어진 고릉(高陵) 즉 공양왕릉을 비롯해 조선시대의 서삼릉이 위치하며 농협대학교 · 한양서울골프장 · 한국보이스카웃 중앙훈련원, 한국마사회 목장 등이 위치해 있다. 신원동에는 조선시대의 월산대군묘와 그 사당 등이 자리한다. 이처럼 원신동은 문화유적의 보고인 관계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개발이 억제되어 왔으나, 최근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가까이 지나면서 경관이 크게 변화했다. 금석문으로는 김우신신도비(1511)에 '高陽 大慈山', 이언홍묘갈(1548)에 '高陽郡 蕨山'이 보인다.(이부오, 김우선)

■ 용문면 龍門面 • Yongmun-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楊根郡: 행정_면
- 전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57), 용문사정지국사비, 조형생묘갈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양평군의 중앙에 위치한 면으로, 면소재지는 다문리(多文里)이다. 유명 문화유적으로는

용문산(龍門山) · 용문사(龍門寺) · 운계서원(雲溪書院)이 있으며, 천연기념물로는 용문산 용문사경 내의 은행나무가 유명하다. 본래 지평군의 지역으로서 지평 읍내 서쪽이 되므로 하서면(下西面)이라 하여 용담(龍潭) · 마천(馬川) · 금곡(金谷) 등 20개리를 관할하다가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지방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서면(上西面)의 전곡(田谷) · 신촌(新村) 등 13개 동리와 동종면(東終面)의 원당리(元堂里) 일부와 하북면의 하광리(下廣里), 상광리(上廣里) 일부와 여주군 개군면의 공세리(貢稅里) 일부를 합쳐 용문면이라 하여 화전 · 삼성 · 다문 · 연수 · 마룡 · 금곡 · 광탄 · 망릉 · 중원 · 조현 · 덕촌 · 오촌 · 신점의 13개리로 개편 관할하고 있다. 용문면이란 지명은 용문산과 용문사가 있다 하여 비롯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의하면 상서면은 끝이 15리에 있고, 하서면은 서북쪽으로 끝이 3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1757) 에 의하면 상서면은 화곡리(花谷里) · 성천리(星川里) · 진리(陣里)의 3개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아에서 15리, 하서면은 마흔천리(馬欣川里)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아에서 30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금석문으로는 용문사정지국사비(1398)에 '彌智山', 조형생묘갈(1832)에 '砥平'이 나와 있다. (양보경, 김우선)

■ 이동면 二東面 • Idong-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龍仁縣: 행정_면
- 전거 『여지도서』(1759), 『대동지지』(1864), 『용인군지도읍지』(1899), 『조선지지자료』(1911), 이귀산묘갈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동면은 용인시 처인구의 남부에 위치한 면이다. 이동면은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결과 상동면, 하동면, 남촌면의 방목동 등을 병합하고 상동과 하동을 이동(二東)으로 명명하여 형성된 면이다. 『여지도서』(1759)에 상동촌면(上東村面 : 기묘장적(己卯帳籍): 283호, 남자 533명, 여자 845명)이 보인다. 『호구총수(1789)』에도 상동촌면(上東村面)이 보인다. 그리고 덕의동(德義洞), 묵동(墨洞), 천동(泉洞) 등이 제시되었다. 『대동지지』(1864) 용인현 방리 조에 상동촌(上東村)이 보인다. 규장각 소장의 『용인군지도읍지』(1899)의 방리 조에도 상동촌면(上東村面)이 보인다. 그런데 『조선지지자료』(1911)와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에는 상동면(上東面)으로 되어 있다. 촌(村)이 표기되지 않았다. 두 자료 모두 묵동(墨洞), 덕성동(德成洞), 천동(泉洞), 서동(西洞), 원촌(院村) 등의 동리명이 기록되어 있다. 『호구총수』(1789)에 비해 서동(西洞), 원촌(院村) 등의

동리가 추가되었다. 『여지도서』(1759)에 하동촌면(下東村面 : 기묘장적(己卯帳籍): 306호, 남자 586명, 여자 820명)이 보인다. 『호구총수』(1789)에도 하동촌면(下東村面)이 보인다. 그리고 송전동(松田洞), 어비동(魚肥洞), 묘봉동(卯峯洞), 묘산동(卯山洞), 모산동(牟山洞), 시미동(時美洞) 등이 제시되었다. 『대동지지』(1864) 용인현 방리 조에 하동촌(下東村)이 보인다. 『용인군지도읍지』(1899)의 방리 조에도 하상동촌면(下上東村面)이 보인다. 그런데 『조선지지자료』(1911)와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에는 상동면(上東面)으로 되어 있다. 촌(村)이 표기되지 않았다. 두 자료 모두 묘봉동(卯峰洞), 송전동(松田洞), 어비동(魚肥洞), 모산동(牟山洞), 요산동(堯山洞), 시미동(時美洞) 등의 6개 동리를 제시하였다. 『호구총수』(1789)에 비해 요산동(堯山洞)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결과 이동면은 천리(泉里), 서리(西里), 덕성리(德成里), 묵리(墨里), 시미리(時美里), 화산리(華山里), 묘봉리(卯峰里), 송전리(松田里), 어비리(魚肥里) 등의 9개 동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따르면 덕성리(德成里)는 묵동(墨洞) 일부를, 묵리(墨里)는 한덕, 굴암, 장촌, 거문정 등을, 시미리(時美里)는 세때배기, 쌍괴정, 비룡 등을, 어비리(魚肥里)는 장배미, 점촌, 장서리, 남촌면의 방목동, 수역리 등을, 천리(泉里)는 통적골, 구시울, 노루실 등을, 화산리(華山里)는 모산동과 요산동 등을 병합한 것이라 한다. 동리의 구역을 새로이 개편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동면은 2005년 용인시의 승격에 따라 처인구에 속하게 되었다. 금석문으로는 이귀산묘갈(1831)에 이동면의 '九水洞'이 나와 있다.(이건식, 김우선)

■ 이의동 二儀洞 • lui-dong

- 유형 경기도 수원시 ← 水原府: 행정_부
- 전거 『호구총수』(1789), 『화성지』, 심온신도비
- 주소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수원시 영통구의 동쪽에 위치한 법정동으로 행정동은 광교1동이다. 원래 이의동은 영통동 · 하동과 더불어 용인군 지내면(枝內面)에 속했었다. 『호구총수』(1789)에 기록된 용인군 지내면 의곡덕동(義谷德洞) · 하동(下洞) · 영통리(靈通里)가 지금의 이의동 · 하동 · 영통동에 해당한다. 『화성지』에는 영통동이 수원부 장주면 영통리로 기록되어 있다. 고지도에서 이러한 행정구역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동국여도』를 보면, 광교산에서 무봉산(無鳳山, 현재의 동탄면 동쪽 경계부근에 있는 산)에 이르는 대각선 방향의 산줄기가 수원과 용인의 경계로 표시되어 있다. 지금의 영통동 너머 신갈저수지 바로 북쪽에 위치한 청명

산(淸明山)은 지도에서 빠져 있다. 『동국여도』보다 앞선 고지도들도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1872지방지도』에서는 수원과 용인의 경계가 청명산이다. 1983년 용인군 수지면 이의리 및 하리가 수원시 이의동으로 편입되었으며, 1988년 장안구, 1993년 팔달구를 거쳐 2003년 현재의 영통구 이의동으로 정해졌다. 금석문으로는 심온신도비(1737)에 '龍仁 山儀谷'이 보인다. 이의동의 중심인 산의실(山儀室) 마을은 심온의 묘소에서 유래한 지명이다.(김우선)

■ 일동면 一東面 • Ildong-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永平縣 : 행정_면
- 전거 『호구총수』(1789), 양사언묘갈
- 주소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경기도 포천시의 중동부에 있는 면으로, 동쪽으로 가평군, 서쪽으로 영북면 · 신북면, 남쪽으로 화현면과 가평군, 북쪽으로 영북면 · 이동면과 접하고 있다. 일동면은 길명리 · 유동리 · 기산리 · 화대리 · 사직리 · 수입리의 6개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일동(一東)의 이름 유래는 조선시대 영평현에 소속되어 동면(東面)이라 부르던 곳으로 1895년(고종32) 영평현이 포천군에 병합되면서 동면을 둘로 나누어 일동면과 이동면이라 하였다고 『포천군사』에 적혀 있다. 그러나 『호구총수』(1789)에 이미 일동면이란 이름이 적혀 있으며, 길명리(吉明里) · 유동리(柳洞里) · 기산리(機山里) · 화대리(禾垈里) · 사당리(社堂里) · 수입리(水入里) · 산내야지리(山內也之里)의 7개 동리를 관할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여지도서』(1757)에는 조량면(助良面)으로 기록되어 있다. 1895년(고종32)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일동면으로 고쳤으며, 1914년 포천군에 편입되었다. 일동면의 면사무소는 기산리에 있으며, 양사언(楊士彦)의 묘와 그를 배향한 길명사(吉明祠)가 있다. 금석문으로는 양사언묘갈(1630)에 '永平縣 金烏山'이 나와 있다.(정치영, 김우선)

■ 적성면 積城面 • Jeokseong-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坡州牧: 행정_면
- 이칭 칠중현(七重縣), 중성(重城)
- 전거 『세종실록지리지』(1432),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57), 『호구총수』(1789), 『대동지지』(1864), 『증보문헌비고』(1908), 『조선지지자료』(1911), 김인묘갈

• 주소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적성면은 경기도 파주시 북동부에 있는 면이다. 면사무소는 적성면 청송로 1177번지에 있다. 북쪽은 임진강, 동쪽은 감악산을 끼고 연천군 전곡읍, 남쪽은 파주시 법원읍, 서쪽은 파주시 파평면과 경계를 이룬다. 적성면은 곧 옛날의 적성현(積城縣)을 전신으로 삼는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따르면, 적성현은 본래 고구려 칠중현(七重縣)으로, 신라 경덕왕이 중성(重城)이라 고쳐서 내소군(來蘇郡) 속현으로 만들었으며, 고려 초에 명칭을 그와 같이 고쳤다. 적성현은 조선시대 내내 존속하다가 1914년 연천군에 병합되었다. 한편 적성면은 조선시대 적성현 현내면(縣內面) 지역이었다. 현내면이란 이름은 적성 읍치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며, 『호구총수』(1789)에는 현내면에 관동리(館洞里) · 가월리(佳月里) · 검상동리(檢詳洞里) · 수곡리(樹谷里) · 한야리(漢夜里) · 설마동리(雪馬洞里)의 6개 리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현내면은 동면(東面)의 객현(客峴) · 백운(白雲) · 장평(墻坪) · 송현(松峴) · 산덕(山德) · 율포(栗浦) · 어유지(魚遊池) · 적암(赤岩) · 눌목(訥木)의 9개 동리와 서면(西面)의 두지(斗只) · 마지(馬智) · 식현(食峴) · 도장(道長) · 무건(武建) · 답곡(畓谷) · 자장(紫長) · 현석(玄石) · 장파(長坡)의 9개 동리, 마전군(麻田郡) 군내면의 삼화리(三和里)와 장단군 고남면(古南面)의 장좌리(長佐里), 그리고 양주군 영근면(嶺斤面)의 하원리(下遠里) 일부와 파주군 파평면의 천천리(泉川里)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적성면이라 하여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당시 적성면은 구읍 · 가월 · 주월 · 설마 · 객현 · 삼화 등 19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945년 해방 후 38선으로 국토가 갈라지자 삼화리는 그 북쪽이 되었으며, 그 해 11월에 연천군의 적성 · 남면의 2개 면을 편입하였다가, 1946년에 남면을 양주군에 넘겨주는 동시에 연천군 백학면의 노곡(蘆谷) · 학곡(鶴谷)의 2개 리와 통구리(通口里) · 구미리(九尾里)의 각 일부 지역, 그리고 전곡면(全谷面)의 양원(兩遠) · 간파(干波)의 2개 리를 편입하였다. 1953년 휴전 이후, 휴전선 이남인 백학면과 전곡면을 복구시키고, 1962년에는 눌목리를 연천군 전곡면에 넘겨주어서 모두 17개 리가 되었다가, 1973년 장파리를 파평면에 넘겨주어서 현재의 16개 리를 거느리게 되었다. 적성면 구읍리에는 칠중성(七重城: 사적 제437호)이 있는데, 신라 선덕여왕 때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성이다. 금석문으로는 김인묘갈(1715)에 '積城 群芳谷'이 나와 있다.(정치영, 김우선)

■ 지평면 砥平面 • Jipyung-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砥平縣: 행정_면

- 이칭 지현(砥峴), 지제(砥堤)
- 전거 『세종실록지리지』(1432),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57) , 『대동지지』(1864), 『증보문헌비고』(1908), 『조선지지자료』(1911), 조인보묘갈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면은 경기도 양평군 남동부에 있는 면이다. 면사무소는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581-2번지에 놓였다. 동쪽으로 양동면, 북쪽으로 단월면, 서북쪽으로 용문면, 서쪽으로 개군면, 남쪽으로 여주군 북내면 · 대신면과 더불어 경계를 이룬다. 지평면은 본디 고구려의 지현현(砥峴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지평현(砥平縣)으로 개칭하였다. 개칭된 명칭 지평(砥平)은 1908년 양근군(楊根郡)과 합병하여 양평군(楊平郡)을 편성할 때까지 군현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양평군 출범 후 '지평'이라는 명칭을 상당기간 사용하지 않았으나 2006년 지제면(砥堤面)을 지평면으로 개칭하면서 현재는 면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라 경덕왕 때 지평현(砥平縣)은 삭주(朔州)의 영현(領縣)이었으며 1018년(고려 현종 9)에 광주(廣州)에 속하였다가 1378년(우왕4) 신우(辛禑)가 유모 장씨의 고향이므로 감무를 두었다가 뒤에 파하였으며, 1391년(공양왕3)에 현의 경내에 철장(鐵場)을 두고 감무를 설치하여 겸하게 하였다. 조선 태종(太宗) 13년(1413)에 현감을 두었고 1685년(숙종11)에 양근군에 속했다가 다시 지평현(砥平縣)이 되었다. 1895년(고종32) 군이 되었으며 1908년 양근군과 합병되면서 남면 · 하동면 · 군내면의 일부를 합해 양평군 지제면(砥堤面)으로 편성하였다. 2006년 전통성과 역사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제면을 지평면으로 개칭하였다. 미지산(彌智山) · 부동산(不動山) · 소산(所山) 및 구질현(仇叱峴) 등의 산명이 문헌에 전하나, 미지산을 제외하고는 지금의 명칭을 찾기 어렵다. 미지산은 이 곧 용문산을 말하니, 약간의 거리가 있는 셈이다. 송현(松峴)은 지평면 송현리에 있는 산이다. 전곡천(田谷川)은 청운면 풍류산에서 흘러나와 지평면과 용문면 및 양평읍과 개군면 등의 경계를 이루고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양평읍과 개군면의 경계를 이루는 데서 '흑천'(黑川)으로 바뀌어 불린다. 금석문으로는 조인보묘갈(1808)에 '龍門山', '砥平縣 退村里'가 나와 있다. (양보경, 김우선)

■ 진위면 振威面 • Jinwi-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振威縣: 행정_면
- 이칭 연달부곡(淵達部曲), 금산(金山), 송촌활달(松村活達)
- 전거 『세종실록지리지』(1432),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57), 『대동지지』

(1866),『증보문헌비고』(1908),『조선지지자료』(1911), 정도전설단비

- 주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위치】 진위면은 평택시 북동부에 있는 면이다. 면사무소는 진위면 봉남리 228번지에 놓였다. 남쪽으로 평택시 신장동·지산동, 북쪽으로 오산시, 동쪽으로 용인시, 서쪽으로 평택시 서탄면과 더불어 경계를 이룬다.【연혁】 진위면은 곧 진위현(振威縣)을 전신으로 삼는다.『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따르면, 동쪽으로 양성현 경계까지 13리, 남쪽은 충청도 직산현 경계까지 37리, 서편으로는 수원부(水原府) 경계까지 12리, 북쪽으로 용인현 경계까지 33리 되는 거리의 넓이에 걸쳤다. 치소(治所)는 현재의 진위면 봉남리에 있었다. 고구려 시기에는 부산현(釜山縣)이라 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연달부곡(淵達部曲) 또는 금산(金山)이라 하였으며 송촌활달(松村活達)이라 하기도 하였다. '진위(振威)'라는 명칭은 신라 경덕왕의 개칭명이며 통일신라 시기에는 지금의 수원 즉 수성군(水城郡)의 속현이었다. 고려 시기에도 그대로였으며 명종(明宗) 때 감무(監務)를 두었고, 그 뒤에 현령(縣令)이 되었다. 조선 태조 때 충청도로부터 경기도로 이속되었으며 고종 때 군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충청남도 평택군과 경기도 수원군 일부를 편입하여 진위군(振威郡)에 병합하였다. 당시 진위군은 북면(北面)·서탄면(西炭面)·송탄면(松炭面)·고덕면(古德面)·병남면(丙南面)·청북면(靑北面)·포승면(浦升面)·현덕면(玄德面)·오성면(梧城面)·부용면(芙蓉面)·서면(西面) 등 11면으로 편성하였다. 이 중 예전의 진위현 지역은 북면·서탄면·송탄면·고덕면·병남면 등에 편성되었다. 오래 전부터 군현명(郡縣名)으로 사용해 오던 진위(振威)라는 명칭이 1938년 진위군(振威郡)을 평택군(平澤郡)으로 개칭하면서 일시 소멸되었다. 그러나 예전의 진위군청 소재지가 위치한 봉남리를 중심으로 한 북면(北面)을 1948년 진위면(振威面)으로 개칭하면서 비록 작은 행정단위 명칭이기는 하지만 그 명칭을 계승하게 되었다.【고적】 무봉산성(舞鳳山城)은 진위면 동천리 무봉산(舞鳳山: 200m)에 있는 삼국시대의 산성이다. 무봉산 9부 능선에 동서로 긴 타원형으로 뻗쳤다. 무봉산에 또한 942년에 창건된 만기사(萬奇寺)가 있으며, 보물 제567호로 지정된 철조여래좌상이 여기에 전한다. 금석문으로는 정도전설단비(1882)에 '振威 銀山里'가 나와 있다.(박병철, 김우선)

■ 천보산 天寶山 • Cheonbo-san

- 유형 역사지명류 ← 楊州牧 : 산천
- 전거 『세종실록지리지』(1432),『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여지도서』(1757),『대동지지』

(1864), 불암사사적비

- 주소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천보산(天寶山)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에 있는 높이 423m의 산이다. 『여지도서』(1757)에는 포천(抱川) 축석령에서 갈라져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로 기록되어 있다. 금석문으로는 불암사사적비(1731)에 '楊州 天寶山'이 나와 있다.(양보경, 김우선)

■ 탄현면 炭縣面 • Tanhyeon-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坡州牧 : 행정_면
- 전거 『여지도서』(1757), 황수신신도비, 황신묘갈
-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파주시의 중서부에 있는 면으로, 동쪽으로 문산읍 · 월롱면 · 금촌동, 서쪽으로 한강 건너 김포시와 임진강 건너 개풍군, 남쪽으로 금촌동 · 교하읍, 북쪽으로 임진강 건너 장단면과 접하고 있다. 탄현면은 현재 축현리 · 금승리 · 낙하리 · 문지리 · 오금리 · 금산리 · 만우리 등 11개 법정리로 이루어져 있다. 탄현(炭縣)이란 이름은 과거에 있었던 탄포면(炭浦面)의 '탄(炭)'자와 현내면(縣內面)의 '현(縣)'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탄포는 숯개내라고도 했는데, 월롱면 월롱산에서 발원하여 탄현면 금승리, 그리고 금산리와 오금리를 지나 만우리에서 임진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내의 이름이고, 현내면은 교하군의 읍치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탄현면은 조선시대 교하군 탄포면 · 현내면 · 신오리면(新五里面) 지역이었다. 『여지도서』(1757)에 따르면, 당시에 탄포면에는 유현리(杻峴里) · 오금리(吾今里) · 금승리(金蠅里) 등 3개 리, 현내면에는 갈현리(葛峴里) · 법흥리(法興里) · 맥금리(麥今里) · 검산리(黔山里) 등 4개 리, 신오리면에는 성동리(城洞里) · 대동리(大洞里) · 만우리(萬隅里) 등 3개 리가 소속되어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탄포면 전역과 현내면의 법흥 · 맥금 일부, 신오리면의 성동 · 대동 · 만우 · 금산의 4개 동리와 청암면(靑岩面)의 송촌 · 연다산 · 오도 · 갈현의 각 일부와 파주군 오리면의 능동리 일부와 자곡면의 덕옥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탄현면이라 하여 파주군에 편입하였다. 1939년 면소재지가 오금리에서 축현리로 이전되었다. 금석문으로 황수신신도비(1469)에 '金蠅里', 황신묘갈(1507)에 '交河'가 나와 있다.(정치영, 김우선)

■ 통진읍 通津邑 • Tongjin-eup

- 유형 현 행정구역 ← 通津縣: 행정_현
- 전거 『세종실록지리지』(1432),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57), 『대동지지』(1866), 『증보문헌비고』(1908), 『조선지지자료』(1911), 심연원신도비, 심강신도비, 권수묘갈
- 주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통진읍은 김포시 중부에 있는 읍이다. 읍사무소는 통진읍 마송리 111-27번지에 있다. 동쪽으로 김포시 하성면, 서쪽과 북쪽으로 월곶면, 남쪽으로 대곶면·양촌면과 더불어 경계를 이룬다. 통진읍은 곧 통진현(通津縣)을 전신으로 삼는다. 통진현은 현재의 김포시 월곶면, 대곶면, 양촌면, 하성면 지역을 포괄하던 바였다. 치소(治所)는 김포군 월곶면 군하리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따르면, 동으로 김포현 경계까지 33리, 남으로 부평부 경계까지 33리, 서로 강화부 경계까지 9리, 북으로 풍덕군(豊德郡) 경계까지 15리 되는 거리의 넓이에 걸쳤다. 조선시대에 현재의 김포시의 월곶면, 대곶면, 양촌면, 하성면 지역에 존속하였던 군현으로 1914년에 김포군에 통합되었다. 삼국시대에 김포반도 지역에는 여러 군현들이 존속하였는데. 월곶 일대에 자리잡았던 평회압(平淮押) 현은 신라 경덕왕 16년에 분진현으로 이름을 바꾸고 장제군(부평)의 속현이 되었다가 고려 때 통진현으로 다시 개칭하였다. 한편 현재의 대곶면 지역에 있었던 옛 수이홀(首爾忽) 현과 하성면 지역에 있었던 동자홀(童子忽) 현은 경덕왕 16년에 각각 수성현(戍城, 장제군 영현), 동성현(童城, 장제군 영현)으로 개칭된 뒤 고려초에 수성현은 수안현(守安縣)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고, 이후 1391년(공양왕3) 모두 통진현에 병합되었다. 통진현은 이때 처음 감무를 두었다가 조선조에 들어와 1413년(태종13) 현감을 두었다. 다시 1694년(숙종20)에 통진부로 승격되었다가 1895년(고종32)의 개편 때 다시 통진군으로 되었다. 1914년 4월1일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 때 김포, 통진 및 양천군이 '김포군'으로 통합되었는데 통진군에 속했던 부내면, 보구곶면, 월여곶면, 소이곶면, 고리곶면, 반이촌면, 질전면, 봉성면, 대파면, 양릉면, 상곶면, 하은면 등 11개 면은 지역조정을 거쳐 월곶, 하성, 양촌, 대곶면으로 조정되었다. 해방 후인 1983년 2월 15일 양촌면의 마송, 도상, 수침동 3개리, 월곶면의 종정, 고정, 서암, 귀전, 동을산동 5개 리, 대곶면의 가현리를 병합하여 통진면을 새로이 설치하면서(대통령령 제11027호) 옛날의 통진현의 이름이 다시 쓰이게 되었다. 1983년 1월 10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따라 양촌면의 마송, 도사, 수침의 3개리와 월곶면의 옹정, 고정, 서암, 귀전, 동을산의 5개리와 대곶면의 가현리를 병합하여 전 통진

군의 이름을 따서 통진면이라 하여 9개리를 관할하게 하였다. 2004년 1월 1일 통진읍으로 승격되었다. 비아산(比兒山) · 동성산(童城山) · 수안산(守安山) 등의 산악과 대명곶(大明串) · 사포(蛇浦) · 대포(大浦) · 갑곶진(甲串) 등의 포구를 경내에 가진다. 고정리지석묘(高亭里支石墓: 경기기념물 제91호)는 통진읍 고정리에 전하는 청동기시대의 무덤이다. 모두 3기가 있다. 수안산성(守安山城: 경기기념물 제159호)은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수안산에 있는 삼국시대의 성벽이다. 수안산 봉수터가 성안에 전한다. 금석문으로는 심연원신도비(1560), 심강신도비(1596)에 '通津 甕井里', 권수묘갈(1774)에 '通津縣 明月山'이 나온다.(김동수, 김우선)

■ 퇴촌면 退村面 • Toechon-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廣州牧: 행정_면
- 전거 『여지도서』(1759), 『호구총수』(1789), 김상악신도비
- 주소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퇴촌면(退村面)은 광주시의 동부에 위치한 면이다. 『여지도서』(1759) 에 보면, 퇴촌면(退村面)에는 일리(一里 : 152호, 남자 320명, 여자 328명), 이리(二里 : 128호, 남자 272명, 여자 322명), 영동리(嶺東里 : 40호, 남자 79명, 여자 94명) 등의 동리가 있다. 그런데 『호구총수』(1789)에는 수동리(水東里)와 우산동(牛山洞)이 추가되어 5개의 동리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에는 퇴촌면이 도마동(道馬洞) · 과학동(過鶴洞) · 삼정동(三政洞) · 족자동(簇子洞) · 석림동(石林洞) · 석호동(石湖洞) · 배알미동(拜謁浘洞) · 금사동(金沙洞) · 오리동(梧里洞) · 동대동(東垈洞) · 지위동(支渭洞) · 정자동(亭子洞) · 광복동(光福洞) · 도지동(陶池洞) · 수동리(水東里) · 탑선동(塔仙洞) · 상관음동(上觀音洞) · 하관음동(下觀音洞) · 하우산동(下牛山洞) · 상우산동(上牛山洞) · 영동리(嶺東里) 등 21개의 동리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결과 도마리(道馬里) · 금사리(金沙里) · 오리(梧里) · 관음리(觀音里 : 상관음동(上觀音洞)과 하관음동(下觀音洞)의 병합) · 우산리(牛山里 : 하우산동(下牛山洞)과 상우산동(上牛山洞)의 병합) · 영동리(嶺東里) · 삼성리(三成里 : 삼정동(三政洞), 과학동(過鶴洞), 족자동(簇子洞) 등을 병합) · 광동리(光東里 : 광복동(光福洞)과 동대동(東垈洞)의 병합) · 도동리(陶東里 : 수동리(水東里), 탑선동(塔仙洞), 도지동(陶池洞) 등을 병합) · 정지리(亭支里 : 정자동(亭子洞)과 지위동(支渭洞)의 병합) · 이석리(二石里 : 석호동(石湖洞)과 석림동(石林洞)의 병합) · 원당리(元堂里) · 무수리 등 13개의 동리명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동리들

을 병합한 결과이며, 또 배알미동(拜謁浬洞)은 동부면에 이속시킨 것이며, 원당리(元堂里)와 무수리는 초월면에서 이속 받은 것이다. 무수리는 새로이 동리를 세운 것이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해 금사리(金沙里)·삼성리(三成里)·이석리(二石里) 등을 남종면에 이속시켰다. 1870년(고종7)에 작성된 규장각 소장의 임재성호구단자(林在聲戶口單子)에는 동대리(東臺里)가 나오는데, 이는 '동대리(東垈里)'의 이표기로 생각된다. 조선 개국공신이었던 조영무(趙英茂)가 은퇴하여 광주에 와서 기거하였고, 현재 조영무의 묘가 광동리에 있다. 그리고 조영무의 호가 퇴촌(退村)인 점에서 퇴촌면(退村面)의 명칭은 조영무의 호 퇴촌(退村)에서 나왔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선후 관계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한편『중정남한지』(1846)에는 고려말의 상서 벼슬을 한 왕씨와 백씨의 두 사람이 마을에 살구나무를 심어 행양동(杏陽洞) 또는 상서동(尙書洞)으로 부른다는 속설이 있다. 금석문으로는 김상악신도비(1878)에 '廣州 無愁洞'이 보인다.(이건식, 김우선)

■ 포곡읍 蒲谷邑 • Phogok-eup

- 유형 현 행정구역 ← 龍仁縣: 행정_읍
- 전거 『여지도서』(1759), 『호구총수』(1789), 이유겸신도비, 정호선신도비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읍은 용인시 처인구의 중북부에 위치한 읍이다.『여지도서』(1759)에 포곡면(蒲谷面 : 기묘장적(己卯帳籍):382호, 남자 742명, 여자 851명)이 보인다.『호구총수』(1789)의 포곡면(蒲谷面)에 수상동(水上洞), 수동동(水東洞), 수하동(水下洞) 등 3개 동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에는 포곡면이 가실(稼室), 냉천(冷泉), 당곡(堂谷), 도사리(都事里), 동막(東幕), 두계동(杜溪洞), 둔전(屯田), 류실(留室), 마가실(麻柯室), 부곡(釜谷), 소운동(巢雲洞), 성저리(城底里), 소운리(巢雲里), 신대(新垈), 신원리(新院里), 영곡(英谷), 이성동(二星洞), 전곶리(前串里), 허문(墟門) 등 18개 동리를 관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도사리(都事里)는『조선지지자료』(1911)에 도사리(道士里)로 되어 있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수여면의 금전, 어매의 2개리를 병합하고, 금어리(金魚里), 삼계리(三溪里), 류운리(留雲里), 가실리(稼室里), 전대리(前垈里), 영문리(英門里), 마성리(麻城里), 신원리(新院里), 둔전리(屯田里) 등으로 개편하였다. 금어리(金魚里)는 금천리와 어매리를, 삼계리(三溪里)는 당곡, 두계동, 도사리 등을, 유운리(留雲里)는 유실과 소운을, 가실리(稼室里)는 동막, 이성 등을, 전대리(前垈里)는 신대, 부곡, 전곶리 등을, 영문리(英門里)는 허문, 영곡, 냉천 등을, 마성리(麻城里)는 마가리와

성저리를, 신원리(新院里)는 벗말, 양달말, 선장, 논골 등을 병합한 것이었다. 둔전리(屯田里)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포곡면은 2005년 처인구에 편입된 후 읍으로 승격되었다. 금석문으로는 이유겸신도비(1669)에 '冷泉洞', 정호선신도비(1802)에 '蒲谷面 釜谷'이 나와 있다.(이건식, 김우선)

■ 하남시 河南市 • Hanam-si

- 유형 현 행정구역 ← 廣州牧: 행정_시
- 전거 『세종실록지리지』(1432),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57), 『대동지지』(1866), 『증보문헌비고』(1908), 『조선지지자료』(1911), 사충서원묘정비
- 주소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는 경기도 중부에 있는 시이다. 시청은 하남시 시청길 2번지에 놓였다. 동남쪽은 광주시, 동북쪽은 한강을 끼고 남양주시, 서쪽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 송파구, 서남쪽은 남한산성을 끼고 성남시 중원구, 북쪽은 한강을 넘어 구리시와 더불어 경계를 이룬다.

하남시는 광주군 동부면이 1980년 12월 1일 동부읍으로 승격된 데서 유래한다. 1989년 1월 1일 하남시로 승격되었다. 시로 승격할 때 광주군 동부읍 ,서부면, 중부면 상산곡리를 합쳤다. 『여지도서(1759)』와 『호구총수(1789)』에 따르면 광주군 동부면은 사창리(司倉里), 산곡리자(山谷里自), 덕풍리(德豐里), 황산리(荒山里), 둔지리(屯地里), 팔당리(八堂里) 등의 동리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에 의하면 동부면에는 상사창리(上司倉里), 하사창리(下司倉里), 교촌(校村), 덕풍동(德豊洞), 황산동(荒山洞), 선촌(船村), 망월리(望月里), 미사촌(渼沙村), 장례촌(長禮村), 신평리(新坪里), 당정리(堂亭里), 창우동(倉隅洞), 팔당리(八堂里), 배알미리(拜謁尾里), 하산곡동(下山谷洞), 천현동(泉峴洞), 객산동(客山洞) 등 17개의 동리명이 있었다. 그리고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 결과 광주군 동부면에는 교산리(校山里), 덕풍리(德豊里), 풍산리(豊山里), 선리(船里), 망월리(望月里), 미사리(渼沙里), 신장리(新長里), 당정리(堂亭里), 창우리(倉隅里), 배알미리(拜謁尾里), 하산곡리(下山谷里), 천현리(泉峴里) 등의 12개의 동리명으로 조정되었다. 이것은 덕풍리(德豊里), 선리(船里), 망월리(望月里), 미사리(渼沙里), 당정리(堂亭里), 창우리(倉隅里), 배알미리(拜謁尾里), 하산곡리(下山谷里), 천현리(泉峴里) 등 9개의 동리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말하며, 신장리(新長里)(신평리(新坪里)와 장례촌(長禮村)), 교산리(校山里)(교촌(校村)과 객산동(客山洞)) 등 2개의 동리 명칭은 각각 2개의 동리를 병합한 명칭이었다. 상사창리(上司倉里)와 하사창리(下司倉里)는 서부면으로 이속시켰으며, 팔당리(八堂里)는 양주군 와부면으로 이속시켰고, 덕풍리의 일부

지역과 황산동(荒山洞)을 병합하여 풍산리(豊山里)를 구성하였다. 『여지도서(1759)』와 『호구총수(1789)』에 따르면 광주군 서부면(西部面)은 항동(項洞), 춘장리(春長里), 초덕리(草德里), 감천리(甘泉里), 동음암리(冬音巖里) 등의 동리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에 의하면 서부면에는 창동(倉洞), 학암동(鶴岩洞), 감일동(甘一洞), 감이동(甘二洞), 감북동(甘北洞), 광암동(廣岩洞), 초이동(草二洞), 초일동(草一洞), 춘장리(春長里), 궁촌(宮村), 항동(項洞) 등의 동리명이 있었다. 그리고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 결과 광주군 서부면에는 (창동(倉洞), 학암동(鶴岩洞), 감일리(甘一里), 감이리(甘二里), 감북리(甘北里), 광암리(廣岩里), 초이리(草二里), 초일리(草一里), 춘궁리(春宮里), 항리(項里), 상사창리(上司倉里), 하사창리(下司倉里) 등의 동리명이 있게 되었다. 이것은 춘장리(春長里)와 궁촌(宮村)을 병합하여 춘궁리(春宮里)를 구성한 것이며, 상사창리(上司倉里)와 하사창리(下司倉里)를 동부면에서 이속받고, 창동(倉洞)은 중부면에 이속시킨 것이다. 하남시는 현재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풍산동, 초이동, 감북동, 춘궁동 등의 행정동과 24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검단산(黔丹山: 657m)은 하남시 창우동과 광주군 동부읍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양주시의 운길산(雲吉山)·예봉산(禮峰山) 등과 마주한다. 백제 검단선사(黔丹禪師)가 이곳에 은거했던 까닭에 검단산으로 불렸다. 객산(客山: 291m)은 하남시 남쪽에 자리한 산이다. 삼국시대 초기의 여러 고분(古墳)이 흩어져 있으며, 산록의 선법사(善法寺) 경내에 태평이년명마애약사불좌상(太平二年銘磨崖藥師佛坐像: 보물 제981호)이 전한다. 금암산(金岩山: 322m)은 경기도 하남시 항동·광암동 및 춘궁동에 걸쳐 있는 산이다. 으로 남한산의 한 줄기로서 바위가 얼기설기 얽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얼거산'으로도 불렸다. 백제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금암산 마애불이 전한다. 금석문으로는 사충서원묘정비(1786)에 '寶光里'가 나와 있다.(이건식, 김우선)

■ 하성면 霞城面 • Hasung-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金浦郡: 행정_면
- 전거 권수묘갈
- 주소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김포시 1읍, 7면의 하나. 본래 통진군의 지역으로서 봉성산(奉城山)이 있으므로 봉성면(奉城面)이라 하여 전류, 마동, 마서, 두곡, 석탄의 5개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질전면(迭田面)의 원통, 등산의 2개리와 하은면(霞隱面)의 하은, 사초, 봉성의

3개리와 소이포면(所伊浦面)의 가좌, 금포, 두월, 가작, 포창, 사야로, 후평, 마조, 수곡, 동시암, 서시암, 적지, 마근, 마음, 양존, 택동의 16개 동리를 병합하여, 하은(霞隱)과 봉성((奉城)의 이름을 따서 하성면이라 하여 김포군에 편입되었다. 이때 봉성면의 수참은 양촌면으로, 동을산리는 월곶면으로 이속시켰다. 이로서 전류, 마곡, 석탄, 원산, 하성, 봉성, 가금, 후평, 마조, 시암, 신리, 양택의 12개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동쪽은 한강 건너 파주군 교하면과 고양군 송포면, 남쪽은 통진면과 양촌면, 서쪽은 월곶면, 북쪽은 한강 건너 개풍군 임한면에 닿아있다. 금석문으로는 권수묘갈(1774)에 '通津縣 明月山'이 나와 있다.(김동수, 김우선)

■ 화도면 華道面 • Hwado-myeon

- 유형 현 행정구역 ← 江華都護府: 행정_면
- 전거 『호구총수』(1789), 참성단중수비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강화군의 서남단에 위치한 면이다. 면소재지는 상방리이다. 동쪽은 길상면, 남쪽은 바다 건너 옹진군 북도면, 서쪽은 바다 건너 서도면 · 삼산면, 북쪽은 양도면에 닿았다. 『호구총수』(1789)에 보이는 하도면(下道面)지역인데 1937년 하도공립보통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있던 일본인 야마모토(山元)가 하도(下道)라는 이름이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여 개칭할 것을 청함에 따라 화도(華道)로 바꾸었다고 전한다. 본래는 강화도와 떨어진 고가도(古加島)란 섬이었는데 조선 숙종 32년(1706) 가능 뚝과 선두 뚝을 쌓아 매립 · 간척을 하여 본도와 접속되었다. 강화도의 최남단에 위치한다고 하여 하도면(下道面)이라 칭하고 내(內) · 상방(上坊) · 문산(文山) · 덕포(德浦) · 사기(沙器) · 동막(東幕) · 여차(如此) · 흥왕(興旺) · 장곶(長串) 등 9개동을 관할하였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 때에 다른 면과의 합병이 되었지만 면명의 변경 등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장곶동을 장화리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동을 리로만 바꿔 그대로 사용하였다. 1937년 화도면(華道面)으로 개칭하였으며, 현재 9개의 법정리와 17개의 행정리로 분할되었다. 1995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편제되었다. 면의 중앙에는 강화도에서 가장 높은 마니산(469m)이 있고 그곳에 참성단 · 마니산성이 소재한다. 남쪽으로 바다 건너 옹진군 북도면과 마주보고 있다. 분오리돈대 · 동막돈대 · 미루돈대 · 뒤꾸지돈대 등 관방 유적이 남아 있다. 금석문으로는 참성단중수비(1717)에 '江都', '摩尼', '船頭浦', '傳燈寺'가 나와 있다.(김동수, 김우선)

굴절된 경기도 땅이름

굴절된 경기도 땅이름

신종원(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머리말

'이름'이란 "다른 것과 구별하고자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다. 땅이름 즉 지명은 그 대상이 마을이나 지방, 산천 및 그 땅 위에 있는 사물의 이름으로 한정된다. 20세기에 식민지를 경험한 우리의 지명은 식민통치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되었다. 이렇게 일그러진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 '잔재'다.

이 책의 발간은 비약하는 경기 도정(道政)과 함께 하는 기초작업의 하나로서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식민통치 처음부터 조선의 땅이름은 모두 한자로 고치거나 새로 지어져서 일본인과 일부 조선 지식인들만 읽고 썼다.

영어 지명의 'Slippery Rock(미끄러운-바위)', 독일어의 Salzburg(소금도시), 일본의 '廣島(넓은섬)'를 들으면 어떻게 생긴 곳인지 짐작이 되는데 일제강점기 조선의 행정지명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지명도 경북 봉화군 '닭실[酉谷]'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훈독을 하지만 행정지명 즉 주소명이나 주민등록상에는 '유곡리'라 되어 있어 말과 글이 따로 논다(語文不一致). 이러한 대원칙은 지금까지 별로 변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최근의 도로명 주소는 주소 체계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새 지명, 도로명을 지어내니 전통 지명은 더욱 잊혀지고 홀대받고 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 때 지명개정의 원칙을 되돌아보고, 몇 사례를 뽑아 살펴보며. 광복 뒤에도 신문물의 본보기, 모범으로서 일본의 지명, 물명을 배워오거나 번안한 사례를 아울러 언급한다. 지명개정의 좋은 선례가 있으면 소개하고, 때로는 필자 나름의 바람직한

지명도 제시하려 한다. 지금까지의 서술에서도 짐작하겠지만, 요컨대 필자는 지명, 물명을 통해 우리언어를 재확인함으로써 반만 년 문화민족이 한자문화권의 일원으로 동일시됨을 경계하고자 한다. 이 글의 '땅이름'은 넓은 의미의 지명이므로 건물이름, 장소, 표지판 등도 언급한다. 결론에서 제시한 제언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일수도 있다. 모두 필자 개인의 한계이므로 많은 가르침과 도움말을 바란다.

2.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 개정

(1) 개정의 원칙과 '창지개명(創地改名)'

사회가 유지되려면 사람들의 근거지인 '땅 이름'은 생기게 마련인데 이를 자연지명, 전래지명, 속지명(俗地名)이라고 한다. 나라가 세워지고, 인민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려면 영토를 적당히 분할하여 구역마다 이름을 붙여야 한다. 비로소 인위적 지명 즉 행정지명이 생기는데 그 단위가 클수록 짓는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정해진 지명은 내외에 선포해야 한다.

한일합병 이후 일본제국은 식민통치의 필요에 따라 지방행정구역의 체계와 규모를 고쳐나갔다. 부 · 군(府 · 郡)의 관할 구역을 대폭 합병하였는데 잇따라 면(面)과 리 · 동(里 · 洞)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그들은 행정구역 사이의 넓이 · 인구 · 재력의 격차 때문에 생기는 불합리한 구획을 효율화하고자 했다. 오늘날의 지방 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는 이때 또 한 번 틀이 잡혔다. 군(郡)은 40 방리(坊里), 면(面)은 4 방리(坊里) 같은 식이다.

지명의 가장 적은 단위인 마을, 동리(洞里)의 지명은 길 하나 건너면 별도의 이름이 붙여지고, 개울 지나면 다른 이름의 마을이 나오며, 같은 산줄기나 강줄기에서도 그 위치에 따라 이름을 달리한다. 건너말 · 내앞[川前里] · 웃뱃터 따위가 그러하다. 개별 마을이 지니는 고유성(characteristic)이자 정체성(identity)이 된다.

식민통치자들이 볼 때 소단위의 자연지명은 비효율적이고 번잡하기 이를 데 없다. 몇 개 마을을 하나의 행정단위로 묶어서 기존의 동리(洞里)는 개정 때마다 숫자가 줄어들었다. 예를 들면, 광주군 실촌면(현. 광주시 실촌읍)은 『조선지지자료』(1911) 및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 단계에는 동리명(洞里名)이 30개가 나오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洞)'은 없고 14개 리(里)로만 편성하였다. 이들 개정된 동리에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본래 의미를 상실케 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었다."(이건식, 2010) 동경(東京)과 경도(京都)만 빼고 거의 모든 지명을 훈독 즉 뜻으로 읽는 일본인

들은 지명의 속성을 알고도 남는다. 그러나 조선의 한자지명은 그냥 읽으(음독하)면 되고, 그것을 공식 지명으로 하였다. 문제는 해방 뒤에도 스스로 일제강점기 때의 한자지명을 이어받아 식민지 때와 같은 식으로 읽는 데 있다.

아래 인용문에서도 보겠지만 토박이말을 한자로 옮기는 것이 특히 음역의 경우 쉽지 않다. 『조선지지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예를 찾았다.

가마교평(加馬橋坪)	멍에다리	광주군 언주면(廣州郡 彦州面)

'멍' · '에' 둘 다 한자 찾기가 쉽지 않다. 의역(意譯)을 한다고 옮겼는데 멍에와 가마는 분명히 다르다. 머잖아 '멍에다리'라는 이름은 없어질 것이니, 불러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이름'의 운명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예는 이루 말할 수 없다.

> 우리게의 원 이름은 장자울이여. 장자(長者) 즉 큰 부자가 사는 동네란 말인겨. 큰 부자가 사는 동네 … 그 좋은 동네 이름을 일정 때 일본 사람덜이 측량허러 댕기면서 장자의 '자'를 지레기(길이)를 재는 '자'루 알구는 떡허니 자 척(尺) 짜루다가 틀리게 번역해버렸던겨. 그 뒤루 여적지 누구 하나 고치자는 사람두 없구 허닝께 그냥 장척리가 되구 말아버렸구. (이문구,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

> 원래 오목하다 해서 오목리였어. 양지리에서 보면 거기가 오목해. 학술조사 때나 일제 때 지명을 쓰려고 하니 한자에 오목하다는 글자가 없지. 그래서 오동나무 오(梧) 자에 나무 목(木)자를 썼는데 지금은 오리나무골이라고 불러. (강원대학교박물관, 『철원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전래지명이 졸속으로 한자화되자 '작명(作名)'된 땅이름은 새로운 지명유래로 거듭나게 되고, 그것이 책자에 실리면 곧 정설(定說)로 행세한다.

광주시 경안동의 경우를 보자. 『조선지지자료』 및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단계에 광주군 경안면(廣州郡 慶安面)의 동리명(洞里名)은 19개가 나오는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결과 파발막 · 관말 · 내곡동 · 가골 · 장터를 병합하여 경안리가 되었다. 이 조치로 '동(洞)'은 없고 12개 리(里)로만 편성하였다. 새 법정 리의 이름은 탄동(炭洞) +벌원리(筏院里)→탄벌리(炭筏里), 중리(中里)+대동(垈洞)→중대리(中垈里) 같은 식이므로 리명(里名)이 전혀 무의미하고 하나의 수수께끼가 되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1932년 7월 5일 경안면을 광주면으로 개칭할 때 서울이 가깝다고 하여 글자를 고쳐 경안리(京安里)로 하였다.

도심의 경우는 동(洞)에 해당하는 정(町)이 있고, 거리를 '通り(도오리)'라 하였다가 194

6년에 왜식(倭式) 지명이라 하여 '동(洞)'이나 '로(路)'로 고쳤다. 시장통(市場通り→시장로) ·중앙통(中央通り → 중앙동). 정(町)과 통(通)의 아래 단위는 丁目이라(지금의 '가(街)')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2) 홀대 받는 전래지명

지명 연구의 자료를 구하는 『한글』지(제5권 제4호, 1937)의 「조선말 지명 수집」 홍보문안에는 "순수한 조선말로 된 사물의 명칭이 모두 한자화(漢文化)되어 버림에 대하여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재래에 불러오던 지명도 문자로 쓰는 데는 다 한자로 시행하나, 아직도 우리의 구두(口頭)로 전(傳)하여 오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썼다. 입말[口語]로만 남아 있는 땅이름을 알려달라는 부탁이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고유명사는 한문으로 적더라도 위에서 말한 바 구전(口傳, 訓讀)으로 불렀다. "거곡(車谷) · 내곡(內谷) · 목동(木洞) · 마포(麻浦) · 장항(獐項) … 등을 그곳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술위실 · 안골 · 나뭇골 · 삼개 · 노루목 … 으로 부르고 읽었다. 이제는 한문음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한글로 적을 때도 거곡 · 내곡 · 목동 · 마포 · 장항 … 들로 적으니 이는 국어가 표준이 되지 않고 한문음이 표준이 되어버린 것이다."라고 개탄한다(김윤경, 1962). 지금은 화성시 '병점(역)'에 대해서 지명유래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한자로된 '병점(餠店)'을 보면 쉽게 알아차린다. 일제강점기 때는 한자로 그렇게 써놓고도 '떡점'이라 읽었으니 옛날 방식으로 읽으면 굳이 설명이 필요없다. 『조선지형도』에도 가타가나로 'トクチョムリ'(떡점리)라고 써놓았다.

자신들의 문자가 없던 시절에 우리는 부득이 한자로밖에 쓸 수 없었지만 한글이 창제된 뒤에도 식자층(識字層)의 문자생활은 변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고유명사만은 훈독을 하던 수백 년 어문생활(語文生活)이 20세기에 들어와서 거의 100% 음독으로 변하게 된 계기나 까닭은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영향 때문이다. 일본인들이 식민통치를 하게 되자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조선의 전래지명은 청산되어야 할 식민지 유산이었다. 비로소 조선의 모든 소지명까지 한자로 적거나 기명(改名)하고,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유식함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들 지명은 일제강점기 때의 면서기(面書記)들이 적당히 붙인 것들이 많다는(송기중) 데 문제가 있다. 구한말부터 1910년대까지 일본제국은 세 차례에 걸쳐 조선 전국을 측량하고 지도를 제작한다. 1차로부터 3차 『조선지형도』 작성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가타가나로 쓰는 자연지명의 현저한 감소다. 가타가나 지명이란 조선 고유어 즉 전래지명을 말한다. 이것을 대체한 한자지명은 대부분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음독

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낮다'고(미즈노 슌페이) 말한다. 어차피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인정하지 않을 바에야 두세 마을 이름에서 한 글자씩 떼어 '인위적 작명'을 한들 문제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합성지명은 조선사람의 말·글 말살 정책에 일조를 하였다. 급속, 졸작, 오류의 3중 과오를 거친 뒤의 한자 동리명(洞里名)을 쓰는 조선사람들은 뜻도 모르는 지명언어 생활로 들어서게 되었으니 땅이름이란 하나의 기호에 지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에 순치(馴致)되거나 익숙하여 해방 뒤 지금까지도 우리의 지명은 식민지 시대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데 있다.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島村洞)은 마을 앞뒤에 하천이 있고, 중앙에 산맥이 끊어졌다 약간 솟아 있는 것이 마치 섬처럼 생겼다 하여 섬말, 섬마을이라 불렀는데 이를 한역(漢譯)하여 도촌(島村)으로 썼다고 말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된다. '도촌(島村)'이란 지명은 고을을 방어하는 진보(鎭堡) 소속의 마을을 말한다. 이 한자 그대로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광주군 돌마면 도촌리가 되었다. 한 번 정해진 공식 지명은 그대로 굳어지는 법이고, 이제는 한자지명대로 읽지만 여전히 지역에서는 섬말, 섬마을이 살아 있다. 굳이 '동·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조상대대로 불러온 땅이름을 되살리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전통시대에도 합성지명은 있었다. 고봉현(高峯縣)과 덕양현(德陽縣)의 한 글자씩을 따서 고양현(高陽縣)으로 만드는 식이다. 이와 같은 넓은 범위의 지명은 나라에서 이름을 정한다. 이 점이 소규모 마을의 자연발생적 마을이름과 다르다.

3. 일제잔재 지명과 개정례(改正例)

(1) 성남시 야탑동

야탑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정해진 마을이름이다. 오야소동(梧野所洞)의 '야'와 상·하탑동(上·下塔洞)의 '탑'을 취하여 작성했다고 한다. 기계적으로 합성한 결과 의미 불통, 무연고(無緣故) 지명이다.

(2) 용인시 신갈동·구갈동

'신갈리'의 지명유래는 이렇다.

신갈리(新葛里)【리】 본래 용인군 구흥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역촌, 신촌,

미동, 갈천, 상촌, 상관곡리를 병합하여 신촌과 갈천의 이름을 따서 신갈리라 하여 기흥면에 편입됨.(『한국지명총람, 경기 하』)

'신갈'이란 땅이름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나 정보도 얻을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 이미 '신갈분기점' '신갈휴게소' 등을 통해서 그 위치 정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구갈리'에 대해서는 생소하고 어감도 좋지 않는데 이 지명의 태생(胎生)을 알아보면 더욱 난감하다.

구갈리(舊葛里)【리】본래 용인군 구흥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하관곡리, 내기, 갈곡을 병합하여 구갈리라 해서 기흥면에 편입됨.(『한국지명총람, 경기 하』)

하관곡리(下館谷里, 아랫관골)·내기(內基, 안말)·갈곡(葛谷, 갈골)을 병합하여 '구갈리'로 지었다 하는데 이들 마을 어디에도 옛 구(舊)자를 쓰는 지명은 없고 굳이 '구'자를 찾는다면 이들 마을이 속해 있는 구흥면(駒興面)이 있을 따름이다. 다분히 '신갈리' 지명이 만들어진 다음에 잇따라 작명한 이름으로 보인다. 실은 갈곡(갈골) 앞에 위치명을 붙인 마을이름은 예전부터 있었다.

하갈리(下葛里)[아랫갈내, 하갈천]【리】본래 용인군 기곡면의 지역으로서, 갈내(신갈리) 아래쪽이 되므로 아래갈내 또는 하갈천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한의동 일부를 병합하여 하갈리라 해서 기흥면에 편입됨.(『한국지명총람, 경기 하』)

윗갈내(상갈리)·아랫갈내(하갈리)가 있는데 다시 신갈리·구갈리를 만들어서 혼란스럽다. 지명의 후부요소(後部要所, 보통명사)인 동(洞)·현(峴)·천(川)·막(幕)·원(院)를 '리(里)'로 통일시킨 1914년 당시야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뜻이 통하는 전통 지명을 살려주어야 한다.

(3) 용인시 처인구 역삼동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용인군 수여면(水餘)面의 역동(驛洞)과 북동(北洞)을 병합하여 역북리라 하였다. 두 마을 이름의 합성에 지나지 않는데 '역북동'이라 하면 '역의 북쪽 마을'일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지명합성 방법을 '배워서' 1996년에는 역북동에다 삼가리(三街里)를 합쳐서 역삼동(驛三洞)이라 했다. 당연히 역일동(驛一洞), 역이동(驛二

洞) 다음에 나오는 마을로 이해할 터이다. 같은 동명(洞名)은 서울에도 있다.

강남구의 법정동 역삼동의 유래는 조선시대 역촌이었던 말죽거리, 윗방아다리, 아랫방아다리 세 마을을 합쳐 '역삼리'라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1977년 도곡동사무소에서 역삼동사무소가 분동되어 신설되었다. 1980년 4월 1일에는 역삼동이 역삼1동과 역삼2동으로 나뉘어져 현재에 이른다.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차례로 쓰서 그렇지, 숫자를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쓰면 역31동, 역32동이 된다.

(4) 양주군 조안면 팔당리

이곳은『조선지지자료』를 보면 광주군 동부면의 마을로서 '팔당(八堂)'은 한글땅이름[諺文]이 '바당이'다. 같은 책 광주군 고비(古碑), 석탑조(石塔條)를 보면 고려 때 '돌탑'이 '팔당사(팔당사)'에 있었다 한다. 현재 검색한 바로는 그러한 이름의 절이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팔당(八堂)'이란 지명을 보고 지어낸 말일 수 있다. 한편 남양주읍 와부읍 '팔당리'는 팔선녀가 나와 놀던 자리가 여덟 곳이나 있어, 그 자리에 여덟 개의 당을 지어놓았다는 전설이 있는데(두산백과www.doopedia.co.kr) 믿기지 않으므로 이 문제는 숙제로 남겨둔다.

(5) 의왕시 청계동

의왕시 청계동의 행정동리(行政洞里) 내력은 다음과 같다.『호구총수』(1789)에 광주군 의곡면(義谷面) '청계동'으로 조사되었는데, 조선말에 상·하청계동(上·下淸溪洞)으로 나뉘어졌다. 이후『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4) 이래 다시 청계동으로 단일화되었다. 현대의 청계리는 상청계·하청계·옥박골·독정이·한직골을 아우른다(『한국지명총람, 경기도 상』). 하지만 실제의 자연지명은 이보다 더 많다.『의왕시사5 - 마을 이야기』에는 "청계동에는 독정, 상직막, 옥박골, 원터, 장자터, 점말, 청계골, 토골, 한직골 등이 있다."라 한 뒤 각각의 지명유래를 적어놓았다. 이러한 자연지명은『조선지형도』에도 일부 적혀 있는데 '원기(院基)'라 쓰고 가타가나로 'ヲントー(ONTOU)'라고 적었으니 '원터'다. 이곳은 옛 '동양원(東陽院)터'다. 한편 '토동(土洞)'에는 'トルコル(TORUKORU)'라고 적어놓았는데 '토골'을 잘못 적었을 것이다. 이들 지명은 연전(年前) 도로명주소에서 모두 살아났다. 원터아랫, 윗길, 독정이길, 옥박골서, 동길, 상직말길, 한직골길, 한직골서길, 벌모루길(포일동). 이들 마을이 지번주소를 쓸 때는(2010년)는 모두 '청계동'일 뿐, 1번

지에서 838번지까지 있다. 이밖에 휴먼시아청계마을아파트와 기타 청계동이 있었다.

(6) 수원시 권선구 평동(坪洞). 자연지명은 벌말 · 평촌 · 평리

어느 군이나 넓은 들, 벌판은 있다. 전북 남원시 대강면의 평촌리(견바실, 점바실)는 앞뜰이 넓어서 불리게 된 이름이며, 같은 남원시 이백면의 평지 땅도 '평지말'로 부르다가 평촌리가 되었다. 수원과 인접한 안양시에도 같은 이름이 지하철 4호선 역이름으로 올라 있다. 지금도 '벌말' 지명은 살아 있으나 공공지명 평촌역이 들어서자 앞으로 잊혀져갈 땅 이름이다.

『조선지지자료, 경기편』의 36쪽 수원군 남부면에 '평촌(坪村)'으로 나오는데 언문(諺文) 이하 기재사항 없다. 『조선지형도』의 도엽번호 No.238[수원]에도 평촌(坪村)은 두 군데나 나온다. ´ボルマル(벌말)'이라고 가타가나로 발음을 적었다.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67쪽)에서는 수원군 안룡면에 평리(坪里)가 보이며 관할구역은 평촌(坪村), 중보리(中洑里, 一名 中洑坪), 지장동(芝長洞) 일부라 하였다. 『경기도역사지명사전』에 따르면 권선구의 '평동'은 다른 이름으로 벌리(伐里)다(270~271쪽). 『수원지명총람』 381~382쪽을 보면 이곳의 지명유래가 자세하다.

> 평동에 있는 마을이다. 본래 수원군 남부면 평촌과 안용면 평리 지역으로 벌판이 있어서 벌말, 평촌, 평리라 하였다. 벌말은 평야와 관계있는 자연 지명이다. 서호천 아래 물이 풍부한 벌판이 있고 그 가운데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벌말이라고 했다. 벌말에서는 옛날부터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都堂굿'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도당'이란 으뜸이 되는 신당으로서 마을의 최고 신격이 좌정해 있는 곳이다. 매년 음력 정월 11일에 마을에 있는 당주 집에서 당주굿을 한 뒤 서낭모시기와 마을돌기를 한 뒤 안으로 들어가서 도당굿을 하는데 지금은 맥이 끊겼다. 당(堂)은 평동사무소 앞을 지나 50m 정도 가면 왼쪽에 자리하고 있다. 당은 돌로 벽을 쌓고 기와를 얹은 1칸 정도의 크기이며, 그 옆에는 큰 당나무가 한 그루 있다. 당 안에는 말을 탄 김부대왕(마을에서는 김지대왕이라고도 부른다)과 그 부인을 그린 탱화가 걸려 있다.

이곳은 민간에서 김부대왕을 신앙하는 장소로서도 중요한데, 소중한 정신적 뿌리가 편견과 개발에 밀려 사라져가고 있어서 모두들 안타까워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토착신앙터를 땅이름으로 정한 사례가 더러 있다. 수원도호부에도 금물촌면(今勿村面)의 '금성당리(金城堂里)'가 있고, '문수당면(文殊堂面)'이 있었다. 수원시의 '평동' 지명도 그 흔한 이름보다는 '도당길, 도당마을'로 고쳐 고유명사의 면목을 살렸으면 한다.

(7) 아쉬움과 희망

화성시의 '서동탄'은 남부 경기지역 산업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자리를 굳혔다. 여기에 철도역 '서동탄역'이 처음 들어설 때 그 이름에 대해 논란이 없지 않았다. 이곳은 옛지도나 『호구총서』 등에서 보듯이 역대로 '삼미(三美)'라고 불리는 곳이며, 『조서지지자료』의 동리촌명에 외삼미(外三美), 내삼미(內三美)가 보인다. 현재도 살아 있는 지명으로서 오산시에는 '내삼미동'이 있다. 전통 지명을 써서 '삼미역'이 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서동탄'을 한글로 쓰면 그냥 넘어가지만 한자 '서동탄(西東灘)'을 보면 정면으로 상치(相馳, 반대)되는 방위명이 놀랍다. 서쪽이기도 하고 동쪽이기도 한 여울, 'West-East Creek'이라니! 궁색하기는 하지만 '동탄의 서쪽'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여 '서-동탄역'이라 쓰면 좀 나을까? 그러면 '동탄'이란 지명은 신주 모시듯 해야 하는 전래지명일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수원군의 동북면(東北面)과 어탄면(漁灘面)에서 한 글자씩 따서 합성한(동탄면) 편의적이고 졸작에 지나지 않는다. 호남고속도로에는 2011년에 개통된 '북남원 나들목'이 있다. 'North-South(Nam)Won' 정도로 억지 번역될 터이다. 이렇게 모순되는 이름을 쓸 것이 아니라 위쪽(서울 쪽)에 있다 하여 '윗남원'으로 명명했더라면 하고 지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다.

과천시 과천동에는 비닐하우스촌이었던 '꿀벌마을'이 있고, 들머리에 '한내마을'이라고 돌에 새긴 마을도 있다. 두 곳 모두 개발문제로 세간에 널리 알려졌는데 행정지명을 찾아보면 나오지 않는다. 땅이름이란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을 추인하는 것일진대 인위적 작명을 거두는 때가 온 것 같다.

동해안을 걷는 코스 '해파랑길'을 가다보면 울진군에 '은어다리'가 있다. 이 길 순례자들이 올린 블로그를 보면, 무슨 '교(橋)'가 아니라 우리말 '다리'의 존재를 새삼 깨닫고 그 이름을 자랑스럽고 고맙게 여긴다. 그러고 보면 부산의 '영도다리'라는 이름도 잊은 지 오래다. 서울 우이동의 '소귀다리'가 있는데 바위 모양이 소귀를 닮았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고, 그것의 한역(漢譯)이 우이(牛耳)인데 우리는 '근본'을 잊고 살았다. '다리'란 낱말을 가장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쓰는 지자체는 수원시가 아닌가 싶다. 반딧불이다리, 나비잠자리다리, 소나무다리, 갈참나무다리. 꽃더미다리. 풍뎅이다리. 새터다리, 하늘소다리. 무지개다리에서 사진 찍고 글 올린 길손들이 한둘이 아니다. 해마다 수 십, 수 백 지역에 새로 다리를 놓고 있지만 천편일률적으로 '00교'다. 후부요소가 한자말이니 전부요소도 한자말이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아서 눈살을 찌푸린다. '토끼교'·'건너마을교' 따위.

4. 잘못 한자화된 지명, 되살려야 할 우리말

(1) 사거리

'거리'는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길'이므로 둘은 같은 말이지만 굳이 구별하자면, '길'에 비해 '거리'는 길이,공간이 한정되어 짧은 편이다. 흔히 둘을 중복해서 '길거리'라고 쓴다. 이 거리가 교차하여 네 갈래로 길이 난 도로가 '네거리'다. '네거리'는『조선지지자료』말투로 '언문(諺文)' 즉 고유어로서『석보상절』23:58에 이미 보이는 토박이말인데 이를 1910년 즈음부터 무리하게 한자로 옮기 쓰기 시작했다. 네(넷)을 한역하여 '사(四')로 바꾸고 거기에다 토박이말 '거리'는 음역(音譯)하여 - 어슬픈 부정합(不整合) - 몇 가지의 시안(試案)이 선보였다. '넷(네)'도 '거리'도 한국어와 한글을 습득하기 전에는 외국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일본인 자신들이 읽을 수 있게 한자표기를 해나갔다.『조선지지자료, 경기도』편을 보자.

지명	언문	비고
四巨里坪(사거리평)	네거리들	利川郡(이천군) 新面(신면) 松亭(송정)
四街峴(사가현)	네거리고개	풍덕군 군남면 고군리
孝子門巨里坪(효자문거리평)		광주군 도척면 3리

표 1 한자지명 사거리와 순우말 땅이름 네거리 비교

'거리(巨里)'는 '큰 마을'이란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리(巨里)'라고 쓰는 한자어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올라 있지도 않다. 굿의 제차(祭次, 科場) 장군거리 · 군웅거리 따위도 굳이 '巨里'로 적고 있다. 네거리를 다른 한자문화권에서는 십자로라고 한다. 이밖에도 네거리는 사가리(四加里) · 사가리(四街里)로 쓰이며 '거리'는 한자 거리(距里), 거리(居里), 가리(街里), 거리(去里), 거이(巨伊)로 옮겨 쓴다. 근래 ' 街里'는 지하철 안내판에 중국인들을 염두에 두어 쓰고 있다. 이미 10여 년 전에 '사거리' 표지판의 심각성을 아래와 같이 문제 삼은 바 있다.

> '광화문네거리' 같은 익은말(숙어)이 지하철역이 들어서면서 '광화문사거리'가 되었다. 서울에는 아직 고치지 않은 '신정네거리역'도 있다. 충청 · 경상 · 전라 · 제주도까지 길 표지판이 '00네거리'로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시작된 새 작명 때문에 한 나라의 도로용어가 두 가지나 된다. '사거리'라 하면 '총알 · 포탄이 날아가는 거리(距離)/길이[射距離]'도 있고, 국악의 한 형태 놀량사거리·

보렴사거리에서도 같은 말을 볼 수 있다. (신종원, 「편집후기」『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857쪽, 2007, 경인문화사)

서울에도 얼마 전까지 '함지박네거리'와 같이 제대로 불리었으며, 전주시에는 동문네거리, 명주네거리, 두류네거리, 남부네거리라는 전통 지명이 있었는데 '사거리'로 지명을 바꾸어놓은 까닭을 모르겠다고는 말을 한옥마을 주민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고, 서울이 잘못 쓰자 전국이 이 오류를 따라가고 있다. 국어사전에는 네거리, 사거리 둘 다 올라 있다. 존재하는, 통용되는 모든 낱말을 올린다는 원칙 때문인지?

'세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천안삼거리'라는 노래 때문에 '삼거리'가 유일한 본디말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조선지지자료, 경기도』편을 보면 '세거리'와 '삼거리'가 절반 정도 섞여 나온다. 의왕시의 포일세거리에는 '포일세거리로'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 '길거리'와 마찬가지로 '거리'와 '路'는 같은 뜻이니 '거리로'는 겹말[同語反覆]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하려 한다. 이곳 포일로(浦一路) '세거리'를 『조선지형도』에서는 한역하여 '삼거리(三巨里)'라 쓰고 가타가나로 'セゴリ(세고리)'라고 발음을 적어놓았으니 '세거리'를 한자로 적는 과정에서 '삼거리'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지지자료, 강원도』편을 보면 거의 100% '세거리'로만 되어 있다. '세+거리'의 토박이말 묶음이 한자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서울에서 가까운 순서로 빠르기에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술막→주막'에서도 나타난다.

(2) 놀이장, 화장장[1)]

현행 '놀이장'이 틀리기는 했지만 전국이 이미 그렇게 쓰고 있고, 네비게이션에도 그렇게 올라 있어서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마지막 답변인데 인접 이웃한 의왕시를 보면 사실과 다르니 무책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사례 : 고천체육공원내 놀이터, 내손 다구역 어린이놀이터, 숲속마을 물가공원 뒤쪽 물방울놀이터.

일본인들은 '터'를 글자로 쓸 때 예외 없이 한자 '장(場)'을 쓴다. 암벽 등반하는 바위를 암장(岩場)이라 하고, 빙벽 등반하는 얼음폭포를 빙장(氷場)이라 하듯이. 하지만 이것을 읽

1) 이 글은 〈한글 새소식〉 2016년 신년호에 실린 것으로서 전년도(2014)에 필자가 경기도의 성남시에 제출한 몇 차례의 민원 내용입니다.

거나 말할 때는 いわば(이와바) · こおりば(코오리바) 즉 바위터 · 얼음터라고 하는 식이다. 요컨대 그들은 훈독을 하기 때문에 뜻을 혼동할 리도, 고유언어를 잃어버릴 염려도 없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일본어를 그대로 베껴 와서 암장 · 빙장이라고 한다. '암장'이라고 하면 다른 뜻도 몇 있으니 우리의 경우 문제가 되지만 중국인들은 4성을 쓰니 그런 염려는 없다.

○ 첫째 질문(2014년 6월 24일): 앞에 분이 좋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분당구 정자동 탄천에도 '물놀이장 개장'이라고 써놓아 눈살을 찌푸렸는데. 같은 케이스는 '화장터'입니다. 일본어 '가소오바(かそうば. 火葬場)를 그대로 베껴서 '화장장'이라는 말이 점차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답변(6월 26일) : 귀하께서 건의하신 놀이장 명칭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물놀이장'은 **국어사전에 올라있는 말로 '물놀이터'로도 쓸수 있으며,** '놀이장'이라는 말은 쓰지 않으면서 '물놀이장'이라는 말은 쓰는데, 이 말은 '물놀이+장'의 결합에 의해 생긴 것으로서, '놀이장'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성된 사항임이 우리말 바로쓰기에 표기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둘째 질문(7월 1일): 전국 최초로 〈향토문화전자대전〉을 만든 성남시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답변을 듣고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어 다시 질문과 아울러 소견을 피력합니다.

① '놀이장'이라는 말이 없는데 '물놀이장'은 써도 괜찮다는 말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② 이것이 귀하가 전거로 든 '우리말 바로쓰기'의 유권해석이라면 그것은 '우리말 잘못쓰기'의 예가 됩니다. 참고로 이희승 편,『국어대사전』(1976년판)에도 '놀이터' · '놀이처(--處)'는 있어도 '놀이장'은 없습니다. 놀이장은 일본말 아소비바(あそびば, 遊び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입니다.

③ 남들이 '물놀이장'으로 지칭한다 하여 잘못된 것을 따라갈 명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2세들이 '놀이장'이라는 말이 본래 있는 토박이말인 줄 알게 됩니다.

④ 팝업창에서부터 잘못된 것은 지체없이 고치는 책임의식, 적극적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⑤ 외람된 말이지만 우리나라에 언어정책은 없어 보입니다. '네거리'라는 말이 90년대에 들어와서 '사거리'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지금도 60대 이상의 어른들은 '네거리'라 하지 '사거리'란 말은 안 씁니다.

⑥ '화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 '장'이니 '상관없다' 할 지 모르겠으나 각 지자체에서 화장터 설립 당시 '화장장'이라는 말이 생소하여 괄호하고 '화장터'라고 써주거나, 아

니면 둘다 써오던 것이 어느듯 새로운 한자말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물론 1960년대에 출간된 어떤 국어사전에는 '화장장'도 실려 있습니다. 그런 올림말 때문에 이 사전은 일본의 〈조선어사전〉에 많이 의지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⑦ 이상한 한자말이 횡행하는 까닭은 선진시설을 처음 도입할 때 공무원들이 일본으로 견학 가서 그곳의 안내판이나 설계도를 보고 와서 용어까지 그대로 베껴 썼기 때문입니다.

답변(7월 4일) : 물놀이장 명칭과 관련한 귀하의 지적에 대하여는 물놀이장과 물놀이터는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는 국립국어원의 상담(질의) 내용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순우리말인 물놀이터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물놀이장도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처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좀더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질문(7월 7일)

바쁜 가운데 답변 주시어 고맙습니다! 먼저 이런 민원이 나 자신은 물론 주변의 특정 집단 이익과 아무 관계 없음에도 벌써 세 번째 글을 올리는 충정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처음 해명하신 것은 네이버 국어사전 내용 그대로이더군요. '물놀이+장'은 괜찮다 했는데 왜 '물+놀이장'의 조합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요?

② 수영장, 운동장과 같은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 'oo+장'은 문제없다고 하였는데 수영, '운동'은 한자말입니다. 이미 김아무개 민원인이 지적하였듯이 (고유어) 물,놀이+(한자어) '장'은 갓 쓰고 양복 입은 꼴입니다.

③ 물놀이터, 물놀이장 어느 것을 써도 괜찮다는 것이 국어연구원의 유권해석이라면 잘못 정착되어가는 말을 그대로 추인하는 것으로서 국어연구원의 설립취지를 의심케 합니다. 국어연구원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 둘 다 있는 경우에는 한자어를 표준어로 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놀이장'이 대세가 됩니다. 식품 이름에 포도씨유(포도씨기름), 해바라기씨유, 올리브유, 피호도(통호두), 만두피(만두껍질, 거죽) 등 이상하게 붙여진 이름의 '유(油)'나 소름끼치는 '피'는 아마 이웃나라의 상품라벨을 보고 그대로 베낀 듯합니다. 하지만 거기(일본)의 '피'는 한자로 쓰되 '饅頭の皮(만주우-노-카와) ′ 라 하여 훈독하니 '만두껍질'이라고 읽은 셈입니다. '기름'보다는 '유'가 한 음절이니 경제적이라는 이유를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봄, 여름을 굳이 춘절기, '하절기'라 하는 것을 보면 그 말도 당치 않습니다.

답변(7월 8일) : 물놀이장 명칭 변경은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명칭이 변경되면 인터넷 지도, 네비게이션 및 각종 안내표지등이 수정되어야 하고, 그

동안 물놀이장으로 홍보되어 갑작스러운 명칭변경은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3) 분기점

고속버스가 생기고, 처음 탔을 때 차창으로 '분기점'이란 표지를 보고 무슨 안내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중에 보니 그곳은 점(點)이거나 어느 지점이 아니라 길이 갈라지는 갈림길이었다. '인생의 갈림길' · '생사의 갈림길' 같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있는데 생소한 교통용어가 생긴 계기는 아마도 일본어 ぶんきてん(분기텐. 分岐点)의 영향 같다. 우리도 '분기점'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 손익 분기점 - 길을 가리킬 때 쓰지는 않는다. 갈림길의 중국어는 차(岔, chà)다.

이희승 편,『국어대사전』(1976년판)을 보면 "분기점 : 몇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한 곳. 갈라져 나간 어름."이라고 되어 있으니 길이나 도로 · 철로의 가지[枝]라는 의미는 독자가 뜻을 확장해보기, 넘겨짚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후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1999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분기점(分岐點) 명사 1. 길 따위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곳. 2. 사물의 속성 따위가 바뀌어 갈라지는 지점이나 시기. 3. (정보·통신) 하나의 신호가 몇 개의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나타내는, 점으로 표기하는 기호. 유의어 갈림길

드디어 '갈림길'에 견줄, 대체할 수 있는 낱말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분기점' 표지판의 뜻을 거두어들인 해설이다. '분기점(分岐点)'에 대한 일본어 사전풀이는 "도로나 사물의 갈라진 곳. 갈림길(道路や物事のわかれる所。わかれめ。)"이다.(『광사원(廣辭苑)』제3판) 뜻풀이 맨 처음에 '도로'가 나온다. 이런 국어환경에서 고속도로의 '나들목' 같은 낱말이 나온 것은 퍽 다행이다.

(4) 일련번호 식 마을이름[洞名]

넓은 지역의 동네이름을 지을 때 고민하지 않고 순식간에 짓는 방법이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다. 본래 한 동명이었다가 인구가 늘어서 몇 동으로 나눌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는 전래지명이 있을 것이며, 새로 택지를 개발한 곳이라면 산이나 냇물 같은 자연지명이나 서낭당 · 빨래터도 있을 것이니 이런 이름을 골라 쓰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서울의 양천구 목동은 목동(牧洞)이 목동(木洞)으로 되었다고 한다. 구역이

커지자 숫자를 붙여 나누었는데 한글로 '목6동'으로 쓴 것을 보고 목[項]이 여섯 개 달렸나 하고 놀렸던 일도 있다. 노원구의 창5동, 상계10동도 마찬가지다. 군부대나 막사가 연상된다. 광명시의 경우 광명1동에서 광명7동까지, 철산1동~4동, 하안1동~4동까지 있다.

(5) 음용수, 음수(대), 식수대, 마시는 물

공공시설이나 사찰, 터미널 등에 붙이거나 세워둔 안내판이 위의 제목에서 보듯이 다양한데 처음 본 순간 어색하고 이국적이며 '작명(作名)'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음용수'는 중국에 가면 흔히 보는 표지, 안내문 '음용수(饮用水, yǐnyòngshuǐ)다. 축자직역(逐字直譯)하면 '마시고 쓰는 물'이다. '마시는 물'은 'drinking water'를 직역한 말인데 우리말로서는 어색하다. 음수대(飮水臺)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먹을 물이 나오도록 장치를 한 곳'이라고 친절하고도 길게 풀이했지만 한글만 보면 '마시는 물 값[代]'도 된다. 그래서인지 동해 어느 바닷가에는 '음수'로만 쓰기도 하고 '음수 이용 외 타 용도로 사용 금지'라고 써 붙였다. 왜 이렇게 길어졌으며, 한 나라의 표지판이 이다지도 중구난방인가. 이들 표지판 옆에 쓴 영어를 보면 그냥 'water'이며 간혹 'drinking water'라고 쓴 데도 있다. 이밖에 식수대 · 급수대(Water Fountain)도 보인다.

한국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물을 '먹는다'고 한다. 용건(what, why)을 물어볼 때 '어떻게(how)' 왔느냐고 하고, 전화에서 누구냐고 물어볼 때 '어디세요?'라고 하듯이 '물을 먹다'는 표현은 우리의 언어습관이고 문화다. 북한산 백운산장에 '먹는 물'이라고 매직으로 써 붙인 종이를 보고 모두들 우리가 써오던 말이라고 좋아했다. 이런 안내판을 두 번째로 본 곳은 북한산 일산사의 청담샘이다. 우리나라의 표지판을 표준화하여 한 가지로 썼으면 좋겠다.

(6) '00로' 길표지

앞에서 말한, 인덕원 이웃에 있는 '포일세거리로' 표지판은 포일세거리 길, (道)路 표지이지만 한글로만 쓰여 있어서 '로'는 길이 아니라 '포일세거리로 가는' - 영어의 to, for - 방향 표지판으로도 읽을 수도 있다. 서울역 건물과 옛 대우빌딩 사이의 길 표지판은 '↑서울로'다. 밑에 쓰인 외국어 표지는 'Seoullo ,首尒路 , ソウルロ'다. 서울시의 - 안에 있는 - 도로가 '서울길'이라는 것도 어색하지만, 서울에 다 왔는데 다시 '서울로 가는 방향'을 가리킨다면 웃음거리다. 현재 우리나라 길 표지어 가운데 '대로'는 상관 없지만 '로'

는 되도록 쓰지 말아야 할 낱말이다. 전국의 '00로'를 조사하면 그 가운데 웃음거리가 되는 길이 얼마나 나오겠는가. 과천시의 '뒷골로'(뒷골이 우리말이니 '로'를 '길'로 고치면 된다. '골'로 가다니!), 성남시의 '붓들로(붙잡으로, 붙잡으러)' 따위. 모두 한자어를 숭상하여 생긴 사단(事端)이다. 화성시의 '푸른들판로'도 고유어와 한자어의 조합이 어울리지 않아서 그런지 뜻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푸른들판길'이면 차라리 좋을 번했다. 경상도 방언으로 '00로'는 '00하러' 즉 의지,목적을 가리키는 말도 된다. 밥 먹으러 간다 → 밥 먹으로 간다, 무엇하러 → 뭐하로 따위.

5. 맺음말 – 지자체에 드리는 제언

(1) 전래지명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다 - 여기에 수록될 땅이름은 새로 지을 지명의 제1순위다.

조선의 모든 마을이름을 한자로 고친 장부(기초조사)가 『조선지지자료』인데 이 때 작명(作名)한 동리(洞里)의 원래 지명(전래지명, 속지명, 우리말 명칭)을 '언문'이라 하여 참고로 적어두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이 란(欄)을 빈칸으로 둔 경우가 많다. 이들 기재되지 않은 언문지명은 『조선지형도』의 가타카나 지명으로 채워 넣으면 된다. 이들 1910년대의 지명 자료에도 없거나 미심적인 부분은 『한국지명총람, 경기편』을 참고, 활용한다. 옛 양주군의 전래지명을 복원한 업적이(이건식, 2020) 있어서 아래 일부를 소개한다. 급조된 한자 지명– 그것도 한글로 쓰고 있음 –을 고유어 지명으로 바꿈으로써 '깜깜이, 기호지명'에서 알기 쉽고 살아 있는 땅이름으로 바꾼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명 후부요소를 동(洞)·리(里)로만 한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소지명(小地名)을 되살리는 것이다. ~골,~말(~洞,里), ~앞(~前), ~너머,네미(~踰), ~안(~內), ~뜸(돼미), ~마루 따위.

面名	戶口總數 (1789)	行政區域名稱* (1914)	朝鮮地形圖 (1917)	한국지명총람 (1985,1986)
靑松面	炭洞里		スッコル	숯골
廣石面	牛谷里		ウゴル	우골
白石面		基谷	トンコル	텃골
東柴北谷面		金谷里	ソイコルニ–	쇠골
別非谷面		巨黑里	コムクコル	거묵굴
西石積面		大棗洞	?コル	대추말
接洞面	全洞里	全洞里	チョンコル	전골

面名	戶口總數 (1789)	行政區域名稱* (1914)	朝鮮地形圖 (1917)	한국지명총람 (1985,1986)
別非谷面	宮洞里	宮洞	クンコル	궁골
上道面		畓洞里	ノンコル	논골
別非谷面	宮洞里	宮洞	クンコル	궁골
上道面		畓洞里	ノンコル	논골
下道面	孟洞里		メンコル	맹골
上道面		內洞里	アンコル	안골
瓦孔面		月谷里	タリコルニ	다리골
南芚夜面		山谷里	せんコルニ-	山谷
眞官面		法洞里	ポクゴル	법골
忘憂面		稷谷里	ピ-コル	피골
忘憂面		內洞里	アンコル	안골
瓦孔面		文谷里	クルケ-オル	굴게울
西石積面	車馬洞里	車馬洞	コミオル	거미울

표2 양주군 행정지명의 里[洞*谷] 복원[골*울],『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⑵ 방위형 · 숫자형 지명을 없애고 삼간다.

⑶ '일본어투 지명' 및 비논리 · 무근거 안내판 청산을 경기도가 선도한다.

화장장 → 화장터, 놀이장 → 놀이터, 사거리 → 네거리, 음수대 · 음용수 → 먹는 물

⑷ 길이름(도로명)의 '00로'를 '00길'로 고친다.

⑸ 지명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는 지명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주민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친다.

참고문헌

『戶口總數』, 1789

『朝鮮地誌資料』, 1911

『朝鮮地形圖』, 1918 · 1919

조선총독부,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4.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경기편 상 · 하』, 1985 · 1986

한국학중앙연구원, 『京畿道歷史地名事典』, 2011.

김윤경, 「한글 전용을 위한 우리의 정신적 태도 - 용비어천가에 나타난 선조들의 정신을 본받자」 『한글』 130호, 1962.

미즈노 슌페이,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지명의 자료적 가치에 대하여」 『지명학』17, 2011.

송기중, 「근대 지명에 남은 訓讀 表記」 『지명학』6, 2001.

이건식, 「필사본 조선지지자료 경기도 광주군 지명 표기의 분석적 연구」 『필사본 조선지지자료 경기도편 연구』 경인문화사, 2010.

이건식, 「조선시대 경기도 楊州牧 행정구역 명칭의 우리말 명칭 표기의 복원」 『지명학』, 32, 2020.

경기 지명
바로알기와 바로잡기

경기 지명 바로알기와 바로잡기

김성태(경기문화재단 수석연구원)

일러두기

이 글은 이 책의 요약문에 해당된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경기지명 바로알기'에서는 경기도민에게 비교적 널리 알려진 지명을 대상으로, 그 동안 잘못된 견해를 지적하고, 비교적 학술적으로 그 유래를 규명해 보았다. 이어서 '경기지명 바로잡기'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주로 왜곡·굴절·변형된 행정지명을 대상으로, 해당 지명이 지닌 참뜻에서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밝히고, 가능한 범위에서 새로운 지명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다루는 지명은 본문에서 지적한 왜곡 지명 중에서 중요도를 따져 일부만을 선별한 것이다. 복수 이상의 읍면이나 동리를 합성하여 만든 행정지명 570여 곳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또 3음절 지명에 얽매여 浦(포), 山(산), 川(천), 所(소) 등 핵심어를 뺀 생략 지명 60여 곳도 극히 일부만 다루었고, 원래 지명과는 전혀 다른 한자지명으로 바꾼 변개지명 60여 곳도 논외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제10장 '일제강점기 상처난 경기도 행정지명'을 참고하면 되겠다.

행정지명의 변경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또 비록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굳이 개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주민도 많을 듯하다. 이런 이유로 필자가 교정을 제시한 행정지명들이 쉽게 개명작업에 들어갈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현행 지명 중에서 오랫동안 마을주민들이 불러오던 고유지명의 참뜻에서 크게 벗어나서 잘못 한역된 것들을 추출하고, 고유지명에 가장 근접한 지명을 학술적으로 탐색해 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그래야 지차체가 '지명 바로잡기' 사업을 펼치고자 할 때, 그런 행정

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야말로 필자 개인의 견해이다. 지명전문가와 지역학전공자의 검증을 거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부 주장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이 경기도의 왜곡된 지명을 바로잡는 데에 트리거(trigger,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내어 놓는다.

경기지명 바로알기

경기와 경기도

京畿(경기)의 '畿(기)'자를 쪼개보면 田(전, 논밭)과 絲(사, 베틀), 戈(과, 간성)으로 나누어진다. 이렇듯 경기라는 말에는 논밭과 의복, 그리고 무기〔干戈(간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나라의 먹을 것, 입을 것이 나는 곳이고, 나라의 지키는 干城(간성)이 경기임을 畿(기)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셈이다.

한편 京畿(경기)에서 서울 京(경)과 畿(기)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京和畿(경화기)'이냐 아니면 '京之畿(경지기)'인가 라는 질문이다. 즉 '서울의 경기도'냐?, '서울과 경기도'냐? 하는 물음이다. 대답은 후자이다. 서울 즉 한성부를 제외한 지역이 경기이다. 이는 『비변사등록』에서 京民(경민, 서울 사람)들의 원망소리가 높으며 畿民(기민, 경기 사람)들이 식량을 싸 가지고 와서 대기하는 폐단도 적지 않습니다."라는 기록 등에서 확인된다.

한편 조선시대에 '城底十里(성저십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도성으로부터 10리를 말하는 것으로 漢城府(한성부) 관할 범위이다. 따라서 경기와 한성부의 경계선은 도성으로부터 10리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조선은 도성, 성저십리, 경기, 지방(경기를 제외한 팔도)의 구조로 되어 있었다. 참고로 조선후기까지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기'라 불렀지 '경기도'라 부르지 않았다. 王化(왕화) 즉 왕의 덕화가 미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기도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경기라는 지명에는 '나라의 근간' 또는 '국가의 보장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다른 지방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

가평 설악면

원래 양평군 관할이었으나 1942년 양평군에서 가평군으로 이속되었다. 雪嶽山(설악산)

과 이름이 동일하여 세인의 관심이 가는 지명이다. 이 雪岳(설악)이라는 지명은 우리나라 조계종의 중시조로 추앙받는 고려 말 국사 普愚(보우) 스님이 이곳에 小雪庵(소설암)을 짓고 생활하다 열반에 들어 불교의 성산인 雪山(설산)과 父嶽(부악)에서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속설일 뿐으로 믿을 만한 근거는 알려져 있지 않다.

가평 연인산

산의 이름으로는 매우 독특하다. 해발 1,068m에 달하는 고산이고, 가평8경 중 제3경으로 꼽히는 명산이나 1999년까지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지명공모를 통하여 지금의 이름인 戀人山(연인산)이란 지명을 얻게 되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 松岳山(송악산)이었다는 속설이 있는 바, 원래의 지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가평 도마치고개

道馬峙(도마치) 고개는 兩道馬峙(양도마치), 兩刀磨峙(양도마치), 兩邊馬峙(양변마치) 등으로 불린다. 가평군과 강원도 화천군과 경계를 이루는 큰 고개이다. 그래서 순우리말 '큰 고개'를 한역한 馬峙(마치)가 핵심어로 들어있다. 가평 북면 적목리 일대의 사람들이 이 고개를 넘어 강원도 화천군의 사창리장으로 다녔고, 그래서 두 지역 간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경기도와 강원도 있는 고개라는 의미를 지닌 '兩道(양도)'라는 지칭어를 붙인 듯하다.

고양 일산

분당과 함께 제1기 신도시로 널리 알려진 一山(일산)은 원래 고양군 中面(중면) 楮田一牌里(저전일패리)에 속하였고, 후곡촌·주아곡촌·와야촌 등의 마을이 있었다. 이후 1910년에 瓦洞(와동)이 되었으며, 와동은 1914년에 一山里(일산리)가 되었다. 일산의 명칭에 대한 유래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제가 1904~1905년경에 경의선의 역을 신설하면서 옛 송포면 덕이리 한뫼마을의 이름을 따 일산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둘째, 일산은 곧 고봉산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순수한 순우리말로 바꾸면 '한산'이 되고, 이것을 한역한 것이 一山(일산)이라는 설이다. 모두 순우리말 '큰산', 그리고 그것의 음차인 '한산'에서 그 유래를 찾고

있다. 어쨌든 모두 속설일 뿐 그 분명한 유래는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다.

고양 행주동

행주산성이 자리한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의 이름은 고려시대부터 사용한 지명으로 살구나무가 많은 강변이라 하여 杏洲(행주)라고 불리다가 행주대첩 이후 왕이 다녀간 뒤 임금이 행차한 곳이라는 의미로 표기가 幸(행)자로 바뀌었다고 한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그러나 『태조실록』에 幸州(행주)로 적고 있기에, 위의 지명 유래에서 왕의 행차를 계기로 杏洲(행주)에서 幸洲(행주)로 바뀌었다는 유래설은 근거가 약하다. 문헌에서 지명을 표기할 때에는 異體字(이체자)를 많이 사용하는 바, 현재의 한자지명을 뜻풀이하여 지명의 유래를 찾으면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케 하는 지명이다.

고양 대화동

大化洞(대화동)의 순우리말은 한곶이다. 일반적으로 지명에서 花(화)은 串(곶)의 음차이다. 그래서 花(화)와 발음이 똑 같은 化(화)는 串(곶)의 훈음차로 볼 수 있다. 어쨌든 大化里(대화리)는 '大串里(대곶리)'의 雅譯(아역)이며, 엄밀하게 말해서 대곶리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역사적 지명이다.

과천 남태령

南泰嶺(남태령)은 서울에서 삼남대로로 가는 첫 번째의 큰 고개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그런데 이 고개는 순우리말로 여우고개 또는 여시고개로 불렸고, 문헌에서는 狐峴(호현) 또는 葉屍峴(엽시현)으로 기록했다. 남태령이 워낙 널리 알려져 개명 자체는 어렵겠지만, 경기도에서는 남태령과 함께 순우리말 지명 '여우고개'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과천 현지민들이 불렸던 원 지명을 살렸으면 한다.

광주 남한산성면

광주 중부면은 2015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남한산성면으로 면 이름을 바꾸었다. 기존의 중부면은 일제강점기 새롭게 만들어진 지명으로 역사성도 없을 뿐만 아니

라 방위지명으로 정체성도 없었다. 남한산성이라는 세계적 브랜드를 선점했다는 점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개명 사례라 할 수 있다.

광주 오전리 오야소 마을과 성남 오야동

광주 남한산성면 오전리 梧野所(오야소) 마을은 순우리말은 '왜골'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서 '왜'는 기와의 속칭이고, 梧野(오야)는 이를 음차한 것이다. 또 '所'(소)는 전통시대 주로 왕실·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업·광업·수산업 부문의 貢物(공물)을 생산하였던 곳을 말한다. 이에 오야소 마을은 남한산성에 소요되는 기와을 만들어 공납하던 瓦所(와소)가 있던 곳으로 판단된다.

성남 梧野洞(오야동)도 원지명은 梧野谷(오야곡)이었는데, 이로 미루어 기와를 생산하는 기와쟁이들이 살았던 마을로 추정된다. 다만 '所(소)'가 붙지 않아서 民需用(민수용)을 생산했던 곳으로 보인다.

군포의 유래

군포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장은 軍浦(군포)의 '浦(포)'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 있다. 그런데 군포천은 안양천의 지류이면서, 현재 군포는 그 상류에 자리한다. 이에 포구가 자리했을 가능성은 낮다. 필자는 軍浦(군포)의 유래를 동음이의인 軍布(군포)에서 구하고자 한다. 그 근거로는 1928년 간행된 李震相(이진상)의 『寒洲集(한주집)』의 "'각 동리에는 군포 마련을 위한 전답이 있다.(各洞所有軍布田畓(각동소유군포전답))"라는 기록을 들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동리 마다 군포 마련을 위한 전답들이 자리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듯이 『園幸定例(원행정례)』에서 軍浦(군포)를 軍布(군포)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군포천에 포구가 있었다고 하면 도마교동에 굳이 '도마교'라는 큰 다리〔馬橋(마교)〕가 필요 없었을 것인데, 군포지역을 대표하는 다리로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1904년(광무8)5월 5일에 田主(전주) 幼學(유학) 任昕(임흔)이 全羅道(전라도) 寶城郡(보성군) 栗於面(율어면) 下道(하도) 慈母村(자모촌) 軍浦坪(군포평)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 명문의 내용 곧 '1904년 任昕放賣土地賣買明文(임흔방매토지매매명문)'이 남아 있는데, 상기의 전남 보성의 군포평 역시 포구가 자리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지 않아서, '軍浦(군포)'라는 지명이 포구에서 유래되지 않았다는 필자의 주장을 방증해 준다.

군포 도마교동

『호구총수』에는 道馬橋(도마교)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한자 渡馬(도마)와 道馬(도마)는 우리말 '도마'를 음차한 것이다. 가평에는 도마치봉과 도마치고개가 있는데, 옛 문헌에는 대부분 刀磨峙(도마치)라 기록했다. 이외에도 파주 창만리에 都馬山洞(도마산동) 마을, 광주 퇴촌면에 道馬里(도마리), 포천 도평리에 道馬峙(도마치)마을, 김포 상마리에 陶馬山(도마산)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도마'에서 '마'는 모두 '馬(마)'로 표기했지만, '도'는 刀(도), 道(도), 陶(도), 都(도) 등 제각각이어서 '도'가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런 궁금증에 대하여 칼〔刀(도)〕의 고어가 '갈'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마의 한자표기가 문헌에는 '刀馬(도마)'인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한자 '刀馬(도마)' 등은 '갈마'의 훈음차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결국 도마는 지명에서 흔히 확인되는 '분기점에 있는 큰'이라는 뜻을 내포한 '葛馬(갈마)'와 비슷한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마교는 '지역 간의 분기점이 되는 큰 다리' 도마치는 '지역을 나누는 큰 고개'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김포 풍무동과 아역

김포 豊舞洞(풍무동)의 순우리말 지명은 풀무골이고, 훈차는 冶洞(야동)이 맞다. 그런데 풀무골에는 '미천한 쟁이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녹아 있다. 그래서 발음이 유사하지만 듣기 좋고 의미도 상서로운 한자를 택하여 '풀무골'을 豊舞洞(풍무동)으로 음차하였다. 이런 경우를 지명연구에서는 雅譯(아역)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지명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런 아역이 이루어졌다. 백정이 살던 마을을 白丁洞(백정동) 대신에 丁村里(정촌리)로, 도자기 장인이 살던 마을을 陶谷洞(도곡동) 대신에 道谷洞(도곡동)으로, 또는 陶匠里(도장리) 대신에 道庄里(도장리)로, 옹기굽던 옹기쟁이가 살던 마을을 甕匠里(옹장리) 대신에 篤亭里(독정리)로 아역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남양주 퇴계원과 역원

퇴계원읍의 퇴계원리는 退啓院(퇴계원), 渡濟院(도제원), 道濟院(도제원), 兎院(토원) 등으로도 불린 옛 이름을 그대로 계속한 지명으로, 장호원 · 광혜원과 함께 조선시대 경기도를 대표하는 역원이었다. 이런 역원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에 자리했기에 주변 일대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인덕원, 장호원 등도 이런 역원의 이름에서 유래한 땅이름이다.

남양주 팔당리

팔당리의 순우리말 지명은 '다당이', '바댕이'이다. '바댕이'는 배가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줄을 당긴다는 의미라고 한다. 기존의 팔선녀가 나와 놀던 자리가 여덟 곳이나 있어, 그 자리에 여덟 개의 당을 지어놓았다는 전설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다. 참고로 지명 관련 전설은 그야말로 꾸며낸 이야기 또는 견강부회한 것이 많다.

남양주 마석

마석역이 자리한 磨石隅里(마석우리)의 순우리말 지명은 '맷돌모루'이다. 그 유래에 대하여 『지명유래집』에서는 "예부터 이 지역에서 맷돌이 많이 생산되었고 부락의 길이 돌아서 생겼다 하여 '맷돌머루'라 하다가 한자로 磨石隅里(마석우리)로 표기했다."고 한다. 이런 설명은 궁색한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는 모루를 모퉁이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맷돌과 모루의 조합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루는 뫼[山]을 뜻하는 'ᄆᆞᄅᆞ, 모르'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데, '隅(우)'로도 한역하기도 한다. 이는 松山(송산)이 松隅(송우)와, 石山(석산)이 石隅(석우)와 통하는 사실(천소영, 『한국 지명어 연구』(이회문화사, 2003) 114~115쪽)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석우리의 유래는 '맷돌을 만드는 데에 적합한 돌이 나는 산'에서 찾는 것이 나을 듯하다.

동두천시

동두천의 지명 유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발간된 『동두천 기지촌의 회상과 기록』(경기문화재단, 2020)에서 김준기가 '동두천이라는 명칭에 대한 변증'이란 간단한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신천의 지류인 동두천은 기록에 따라 '東頭川(동두천), 東豆川(동두천), 東道川(동도천)' 등 다양한 표기가 보인다. 동두천은 소요산에서 발원하여 서류하다가 신천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므로 동쪽에 머리, 즉 근원을 두고 있다는 뜻을 지닌 '東頭川(동두천)'이 가장 이치에 맞는 표기이다.

동도천이라는 표기는 신천이 '北道川(북도천)'이라 불렸던 시절 이와 대비되어 생겼던

표기라고 판단된다. '북도천'(北道川)'은 글자 그대로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이란 의미이므로 신천에는 알맞은 표기이지만, 東道川(동도천)은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아니라 '동쪽에 서 흘러오는 하천'이기 때문에 표기상의 오류임이 분명하다. 또한 동두천의 두는 '머리 두(頭)' 대신 '콩 두(豆)' 자로 표기한 자료가 다수 보인다. 일제강점기 지명의 유래를 이해하지 못하여 생긴 잘못된 표기라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 이 표기는 조선후기의 고지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豆(두)는 頭(두)의 약식 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의 주장은 동두천의 유래설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 이유는 "『임원경제지』에 양주 북쪽 40리 거리인 이담면에 '동두천장(東豆川場)'이 5일과 10일에 섰다."는 기록과, 『증보문헌비고』의 '동도천장(東道川場)'이라 표기를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주장이고 논거가 확실한 주장이기에 소개해 둔다.

성남시 분당

盆唐(분당)이란 지명은 분당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盆店里(분점리)와 唐隅里(당우리)가 합성되어 盆唐里(분당리)가 되면서부터이다. 분당리는 당모루·장터·안골·점골 등의 자연마을을 합한 지명이다. 옛날에는 동이점이라 불렀으나 이후에 盆店里(분점리)라 하였다가 다시 분점리의 '분'자와 당우리의 '당'자를 취하여 분당리로 칭하게 되었다. 분점리는 동이를 구웠다는 甕器店(옹기점)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당우리(당모루)는 당집이 있는 당모퉁이 동네라는 의미로 부르던 이름이라고 한다. 원래는 '唐(당)'이 아닌 '堂(당)'이 맞지만, 고려말 귀화한 唐姓(당성)의 후손이 사는 고을로서 '당모루'라고도 칭하였으므로 두 글자를 혼용하여 唐隅里(당우리)가 되었다고 전한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성남 달래내고개

교통방송에서 자주 들어서 익숙한 달래내(달리내, 다리내) 고개의 한자지명은 月川峴(월천현), 穿川峴(천천현), 懸川峴(현천현) 등이다. 이런 한자지명보다는 달래내고개는 발음하기고 쉽고 정감도 느껴진다. 순우리말 지명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며, 앞으로 지명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수원 장안구

화성의 정문격인 長安門(장안문)이 있는 장안동은 처음에 장안구 관할이었지만 현재는 팔달구 관할로 바뀌었다. 따라서 장안구는 화성의 정문인 長安門(장안문)에서 명칭이 유래되었지만, 장안구에는 장안동도 없고 장안문도 자리하지 않는다.

수원 황구지천

경기도 의왕시·수원시·화성시·오산시·평택시 등을 흘러서 안성천으로 합류하는 黃口池川(황구지천)은 원래 '亢串川(항곶천)'으로도 불리었는데, 항곶천은 바다와 만나던 곳의 옛 지명 亢串津(항곶진, 현재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 항곶천이 변하여 황구지천으로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래 지명인 亢串川(항곶천)의 亢(항)은 크다는 뜻이고, 串(곶)의 우리말은 '구지'이다. 뜻을 그대로 따라 한역한다면 大串川(대곶천)이 된다. 그런데 大串(대곶)보다는 '항구지'라는 순우리말을 음차하여 원뜻을 그대로 지녔고, 차별성 있는 특이한 느낌을 주기에 좋은 작명 사례라 할 수 있다.

시흥 소래산

시흥시의 랜드마크는 소래산이다. 이 소래산의 유래에 대해서는 蘇定方(소정방)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산을 뜻하는 수리, 소리가 음운변화한 '솔'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하여 남양주 송천리의 松羅(송라)마을이 송라산이 뒤편에 있어서 '송라'라 하였는데 일명 '소래비'라고도 불리는 점, 양주 운암리 松羅(송라)마을이 소래산 북쪽에 위치해 붙여진 이름이라는 점, 이천 松羅里(송라리)의 우리말 명칭인 '소래울'인 점, 파주 창만리 송라동마을의 우리말 지명이 '소라울'인 점, 그릇의 한 종류인 소래기를 '松羅(송라)'라 표기하는 점 등을 참고해 보자. 그러면 현재 소래산의 한자지명은 松羅山(송라산) 또는 松蘿山(송라산)에서 유래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참고로 羅(라)는 '늘어서다', '망라하다'의 의미가, 蘿(라)는 '산채가 무성한'의 의미가 내포되었다.

한편, 소래산은 '솔애산'이 음운변화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솔'은 '높은 산'을 뜻하고 崖(애)는 한자의 뜻 그대로 벼랑을 말한다. 따라서 소래산은 '높고 가파른 산'에서 유래된 지명일 수도 있다.

양평 서종면

西宗面(서종면)의 원래 이름은 西終面(서종면)이었다. '마칠 終(종)'자가 상서롭지 못하다하여 '마루 宗(종)'자로 고쳤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어쨌든 자기 고장의 품격을 좀더 높이고자 하는 미칭으로 볼 수 있다.

여주와 여강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여강은) 곧 한강 상류이며 주 북쪽에 있다."고 하여 여주를 지나는 한강을 驪江(여강)으로 불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까지 강 이름은 지금처럼 행정 지명을 따르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구간 별로 나누어서 현지에서 별도의 강 이름 지어 불렀다. 남한강에 속하는 여강도 그런 경우이다. 앞으로 잊혀진(또는 사라진) 구간 별 강이름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주 이포나루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梨浦洑(이포보)로 유명해진 이포나루는 한자명이 梨浦(이포)이지만 과일 배〔梨(리)〕와는 무관한 지명이다. 이포의 우리말은 '배개'인 바, 이를 통하여 '배〔船(선)〕이 많이 모이는 개〔浦口(포구)〕'에서 유래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한편 梨浦里(이포리)를 『조선지지자료』에 '천양'이라 했는데 이는 川寧(천녕)의 변음으로, 이포리가 고려시대와 조선전기 옛 川寧縣(천녕현)의 중심지였던 사실을 전해 준다.

오산과 매홀

삼국시대에 수원 일대는 고구려의 買忽(매홀, 맷골, 물골)로 불렸다. 이런 매홀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 현재 수원시내나 수원고읍성이 있었던 화성 융건릉 일대보다는 오산세교지구 일대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매홀이라는 지명이 이 일대에 많이 남아 있는 점, 삼국시대 축조된 독산성과 가깝고 고대 읍치의 입지적 요건을 갖춘 점, 무엇보다도 경기지역의 최대의 백제고분군이 오산수청동유적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세시대 수원 일대의 중심지는 지금의 오산시 권역이라 판단된다.

용인 김량장동

김량장동은 조선시대 용인현의 水餘面(수여면)에 속했던 巢鶴洞(소학동)과 虎洞(호동) 일부가 합쳐져 새롭게 탄생한 지명이다. 그 유래는 金嶺驛(김령역), 金良驛(김량역), 金良店(김량점), 金良場(김량장)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그럼 金良(김양)이란 본 지명의 유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현재로는 각종 추측이 난무하지만, 필자는 『조선지지자료』에 옛 수여면 소학동에 '金陽碑(김양비)'가 있었다고 기록한 점으로 미루어, 역사인물 金陽(김양)에게서 유래되었을 개연성도 있다고 본다. 이런 추측은 지명에서 '金'은 일반적으로 '금'으로 읽는데, 김량장역에서 모두 '김'으로 읽는 점으로도, 이 지명이 人名(인명)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의왕

의왕시의 지명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보도는 儀旺(의왕)을 義王(의왕)으로 바꾼 것이다. 관찬사료인 『호구총수』에는 旺倫面(왕륜면)이 王倫面(왕륜면)으로, 儀谷面(의곡면)이 義谷面(의곡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해 왜곡된 한자지명을 바꾼 점은 높이 살 만하다. 다만 의왕 역시 합칭이므로 그때 정체성과 상징성이 없는 의왕이라는 지명 대신에 다른 지명을 고민했으면 어쩔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의정부의 유래

의정부의 지명유래와 관련해서는 '태조환궁설화'는 그야말로 전설이다. 현재 의정부 일대에 議政府(의정부)에 속한 屯田(둔전)이 있었던 데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꼭 둔전이 아니더라도 행정관청인 의정부에서 관용경비로 사용할 稅穀(세곡)을 받치는 곳이 있었던 것 같고, 이에 의정부라는 동리 명칭이 생겨난 듯하다. 이런 견해는 『해동지도』에 광주부 와부읍에 '議政府柴場(의정부시장)'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도 방증된다. 참고로 의정부시는 조선시대 의정부리라는 마을이 도시화가 되면서 시로 발전한 경우이다.

이천의 지명 유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왕건 부대가 후백제 군과 일전을 벌이려고 福河川(복하천)

에 이르렀으나 홍수로 인해 내를 건널 수 없었는데 徐穆(서목)이란 자가 인도하여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왕건이 승리하자 이를 가상히 여겨 利涉大川(이섭대천)이라는 글귀의 첫 자와 끝 자를 따서 이곳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온다. 또 같은 책에서 南川(남천)을 설명하면서 "태조가 장차 백제를 치려고 이 고을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점을 쳤는데 이섭대천이라는 占辭(점사)를 얻었기 때문에 이천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큰 내를 건너 이로웠다'는 직역의 利涉大川(이섭대천)은 『周易(주역)』에 14번 나오는데 '학문과 덕을 쌓으면 험난한 과정이라도 이겨내어 큰 공을 세우고 온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듯 '큰 냇물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는 의미의 이섭대천이란 표현에서 첫 글자 '利(이)'와 끝 글자 '川(천)'을 따와 이천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쨌든 이천은 경기도 시군 지명 중에서 그 유래가 제대로 밝혀진 유일한 사례이다. 한편 그 의미도 심장하고 교훈적이므로 좋은 지명의 대표라 하겠다.

파주 운정지구

파주를 대표하는 마을은 최근 대단위 신도시가 들어선 雲井(운정)지구이다. 雲井(운정)이란 지명은 문학적이지만 우리말로 '구름우물'로 번역하면 원뜻을 크게 훼손한다. 雲井(운정)의 순우리말은 '굴우물'이다. 이런 雲井(운정)〔굴우물〕이란 지명은 전국에서 널리 확인되는데, 일반적으로 땅을 파서 만든 인위적 우물이 아니라, '동굴에서 나오는 우물', '굴에서 물이 쏟은 우물'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파주 금촌

金村里(금촌리)의 지명 유래에 대하여 원래는 新花里(신화리)로 되었으나 경의선을 신설하고 역명을 지을 당시 일본인에게 이마을 이름이 새마을이라고 하자 쇠마을로 알아듣고 금촌리로 명명하였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1912년 간행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교하군 아동면에 '新金村里(신금촌리)'가 야동리, 아동리와 함께 확인된다. 따라서 위의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파주 금승리

탄현면 금승산업단지가 자리한 金繩里(금승리)는 『호구총수』는 물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한 『신구대조』, 그리고 해방 이후의 1959년과 1963년에 간행된 『대한민국 지방행정구역 명감』에도 金蠅里(금승리)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金蠅里(금승리)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한자지명이 변경되었는지는 몰라도 1993년 간행된 『경기도 지방행정구역요람』에서는 金繩里(금승리)로 바뀌어 있다. 이 금승리의 순우리말 지명이 '쇠파리'인 점으로 미루어 金蠅里(금승리)가 옳은 지명인 듯하다. 다만, 조선시대 여러 문집에 '金繩里(금승리)'로 적혀 있는 곳도 있으므로, 굳이 이미지가 좋게 않은 金蠅里(금승리) 개명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본다.

파주 공릉천

현재 공릉천은 하천 유역에 자리한 파주의 명소 恭陵(공릉)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해동지도』에는 공릉천(恭陵川)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보신천(寶信川), 『파주군지』에서는 보시천(普施川)으로, 『조선지도』와 『팔도군현지도』에서는 심천(深川)으로 표기되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던 한자지명을 일제강점기 때 구부러진 하천의 모양이라 하여 곡릉천(曲陵川)으로 바꿔 불렀다. 역사성과 전통성을 배제한 표기였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적절하게 작명된 곡릉천은 근 100년 동안 그대로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다가 일제잔재 청산을 일환으로 파주시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개명 심의를 요청하였고, 2009년 1월 1일부터 공릉천으로 원래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가장 대표적·모범적인 일제잔재 청산의 사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개명의 사실을 모르고 곡릉천이라 표기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래서 특별히 소개해 둔다.

평택과 월경지

평택의 일부 지역은 조선후기 양성, 직산의 越境地(월경지, 지방 행정 단위의 소속 영역 중 다른 지방 행정 단위의 영역을 넘어 들어가 위치한 지역)였다. 구체적으로 통합 이전의 송탄시와 평택시 일부 그리고 서탄·고덕·오성·청북·포승·현덕면 등지에 양성현 소속 땅이 있었다. 또 직산은 현재의 오승·포승·현덕·안중면 등지에 관할지역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896년 구한말 행정구역 개편 때, 월경지들이 정리되었다.(『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1912년 간행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진위 마산면 月境里(월경리), 진위 일북면 月境里(월경리)가 기록되어있다.

조선시대 평택의 일부 지역은 양성과 직산의 월경지였다. 현재 동리 단위의 행정지명에

서 월경지를 구체적으로 비정해 주는 귀중한 지명 자료라 할 수 있다.

포천 산정호수

山井里(산정리)는 山內洞(산내동)과 井項(정항, 우물목)의 이름을 합하여 산정리가 된 곳인데, 이곳에 거대한 호수가 조성됨으로써 마치 땅 이름이 현실을 만들어 낸 듯이 느껴지는 것이다. 산정호수는 이 지명을 딴 것이다.

화성 동탄신도시

지금의 東灘(동탄)이란 지명은 동탄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의 동탄면에서 유래하였다. 동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옛 수원군의 東北面(동북면)과 漁灘面(어탄면)에서 한 글자씩을 따와 새롭게 만든 합칭이다.

화성 융건릉과 화산

花山(화산)은 옛 수원부 읍치의 주산이며, 나중에는 현륭원의 주산이 되었다.『 수원부읍지』에 수록된 지도에는 串山(곶산)으로 표시되어 있다. 튀어나온 지형적 특징을 반영한 이름이다. '곶'의 음을 살리되 뜻이 좋은 花山(화산)으로 바뀐 것으로 여겨진다.

경기지명 바로잡기

가평 유명산

유명산은 가평군 설악면과 양평군 옥천면의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864m). 원래 이름은 馬遊山(마유산)이었으나 지형도 상에 그 이름이 기재되지 않아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말을 방목했다'는 뜻에서 馬遊山(마유산)이라고 하였다고 전한다.『여지도서』에는 "마유산은 군의 북쪽 20리에 있다. 북쪽의 龍門山(용문산)에서 이어져 馬峴山(마현산)의 주맥을 이룬다."고 기록되어있다.『대동여지도』에 마유산이 표현되어 있다. 1973년 엠포르산악회가 국토 자오선 종주 등산 중 일행인 '진유명'의 이름을 따 有明山(유명산)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것이 산악 잡지에 기재된 이후 유명산으로 알려졌다고 한다.(『한국지명

유래집 : 중부편』) 개인 이름을 공공재인 지명에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할 일이다. 따라서 원래 지명인 마유산으로 환원해야 하겠다.

가평 대성리

국민유원지라 할 대성리유원지가 자리한 현 大成里(대성리)의 원래 이름은 大升里(대승리)였다. 뜻과 소리가 모두 왜곡된 경우이다. 참고로 대성리의 순우리말 지명은 '대생이'이다.

가평 소법리

所法里(소법리)의 순우리말 지명은 '손일'이다. 여기서 '손'은 좁다는 의미의 '솔다'의 변형이고 '일'은 谷을 뜻한다. 그 의미가 모호하기 짝이 없는 '所法(소법)'보다는 '細谷(세곡)'이 원뜻에 가깝다. 이는 현 지형으로 보아도 적합하다는 느낌이 든다.

고양 구산동

九山洞(구산동)은 龜山洞(구산동)을 대체한 지명이다. 龜(구)를 정자로 적기 어려우니 누구나 알고 쉽게 쓸 수 있는 九(구)자로 대신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본뜻을 완전히 훼손시켜 버렸다. 약자로 대체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고양 향동동

香洞洞(향동동)의 순우리말은 향골 또는 상골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香洞(향동)으로 불렸다. 3음절 지명에 대한 강박 때문에 향동동이라는 어색한 지명이 만들어졌다. 향동으로 바꾸어야 마땅하겠다.

과천 주암동

注岩洞(주암동)은 원래 과천현의 동면에 속했는데, 『호구총수』에는 蹲巖里(준암리)로 표기되어있다. 순우리말은 줄바위 또는 죽바위이다. (『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 僻字(벽자)를 기파하고자 蹲(준)을 注(주)로 바꾸면서 우리말 마을이름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순우리말 지명과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注岩(주암)이란 지명이 생겨났다. 手記(수기)가 사라진 현 시점에서 원래의 지명을 따라서 준암리로 개명할 필요가 있겠다.

광주 경안동

京安洞(경안동)은 조선시대 경기도의 역원을 대표하는 慶安驛(경안역)이 있었던 곳으로, 慶安驛(경안역)은 지명도가 높은 역원이었다. 따라서 현재 지명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지명이라 판단된다.

광주 쌍령동

쌍령동은 봉화로의 쌍령원이 있던 곳이다. 조선후기 역원이 사라진 다음 주막거리로 계속 숙식제공의 기능이 유지되었다. 또한 한양에서 지방을 잇는 파발들이 쉬는 곳이기도 했다. 결국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해 교통과 숙식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역사성을 부각하는 의미에서 '쌍령원리'로 바꾸어 보는 것도 권해 본다.

광주 도웅리

陶雄里(도웅리)는 사실상 陶甕里(도옹리)가 적합한 이름이라 볼 수 있다. 이 도웅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웅동과 도현리〔독고개〕의 한 글자씩을 조합해 새롭게 만든 지명인데, 『지명유래집』에서 雄里(웅리)는 甕里(옹리)의 변음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재 도웅리에는 도자기와 옹기를 전문으로 구는 장인마을이 있었고, 그런 까닭에 도옹리로 지명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광주 이선동

二仙里(이선리)는 內仙洞(내선동)과 外仙洞(외선동)을 합했기에 이선리라 하였다. 그런데 원래 지명이 仙洞(선동), 선곡이었던 바, 오히려 선동리 혹은 선곡리로 개명하는 편이 좋겠다. 즉 하나의 선동에서 외선동과 내선동으로 나누어 편의상 불렸는데, 이 둘을 합하면서 '二仙(이선)'으로 할 이유가 궁색하다.

광주 검복리

黔伏里(검복리)는 남한산성에 다니다 쉬는 검복참이 있던 곳이다. 역사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黔伏站里(검복참리)로 개명을 고려해 볼 만하다.

광주 원당리

퇴촌면 원당리는 원래 金尺院(금척원)이 있어서 원당 또는 원댕이라 했고다. 금척원리로 개명해도 좋을 듯하다.

구리시

九里(구리)라는 명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양주군 九旨面(구지면)과 忘憂里面(망우리면), 노해면, 해등촌면의 일부지역을 통합하면서 구지면의 '구'자와 망우리면의 '리'자를 합하여 구리면이라 표기한 데서 유래한다. 이후 1963년 망우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현재의 구리는 옛 양주의 구지면 권역을 이어받은 셈이 되었는데, 이는 현재 구리시의 법정동인 갈매동, 사노동, 인창동, 교문동, 수택동, 아천동, 토평동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모두 구지면에 속했던 사실로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구리시는 원래 지명을 따라서 '구지시'로 개명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현재 구리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적절한 시명을 모색하여 개명했으면 한다. 참고로 옛 한자지명인 龜旨(구지)와 九旨(구지)는 돌출한 지형을 뜻하는 串(곶)의 순우리말 '구지', '고지'를 음차한 것이다.

군포 산본동

군포시에 '군포'라는 지명과 함께 세인의 관심을 끄는 것은 山本(산본)을 일본식으로 읽으면 야마모토라서 일본 지명의 잔재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정조 때의 기록에 '과천현 남면 산본리'라는 기록이 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나무위키(https://namu.wiki) '산본신도시') 그런데 『일성록』에 "과천의 서부의 金泰福(김태복)이 상언에서, "저의 先山(선산)이 果川(과천)의 山底里(산저리)에 있어 6대조 이하를 연이어 繼葬(계장)하였습니다."라는 기록에서 山底里(산저리)가 확인되는 점, 무엇보다도 1789년 편찬된 『호구총수』에서 산저리로 표기한 점, 전통시대 산밑 마을을 일반

적으로 山底里(산저리)로 부른 점 등으로 미루어 山本(산본)보다는 山底(산저)가 훨씬 정통성이 있는 일반 지명이라 할 수 있다.

김포 고막리

월곶면 古幕里(고막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古邑里(고읍리)와 草幕洞(초막동)을 통합하여 고읍리와 '古'자와 초막동의 '幕(막)'자를 한 자씩 가져와 단순히 합칭한 지명이다. 그런데 고읍동은 예전에 통진현의 읍치가 자리했던 곳인 데에 비하여, 초막동은 통진현 소속 군졸들의 초막이 있었던 곳이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고읍동이 主(주)이고 초막동은 從(종)이다. 따라서 고읍리로 개명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본다.

김포 시암리

柿岩里(시암리)는 감바위를 한자로 옮긴 지명이다. 여기서 '감'은 '검'이 음운변화한 것으로 감바위의 원형은 '검바위'가 맞다. 따라서 黔岩里(검암리)가 바로 훈차이다. 시암리는 한자 개명을 고려해 볼 만한다.

남양주시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하는 도농복합시이다. 1980년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행정구역이 될 때, 양주의 남쪽지역이라 해서 남양주군이라 하였다. 남양주군은 1995년도에 미금시와 통합되어 시로 승격되었다.

남양주시에서는 2019년 8월 '남양주 시명 개명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현재 개명을 추진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된다. 2018년 인천 남구가 미추홀구로 개명했듯이 지역의 고유성과 역사성, 그리고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지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부천시

부천은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부평군 16개 면 전 지역과 인천부의 12개 면, 남양군의 대부·영흥 2개 면, 강화군의 북도면 등을 합해 설치되었다. 설치 당시 15개 면 체제

로 출발하였다. 지명은 富平(부평)과 仁川(인천)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다. 그런데 이후 인천과 강화, 남양지역에 속했던 동리는 모두 부천에서 떨어져 나가고 부평의 玉山面(옥산면), 石川面(석천면), 上梧亭面(상오정면), 下梧亭面(하오정면). 注火串面(주화곶면)에 속했던 곳만 현재 부천시 영역이다. 따라서 시 이름의 개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천 도당동

陶唐洞(도당동)은 원래 都堂里(도당리)였다. 都堂(도당)은 마을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기에 붙여진 지명이다. 이런 역사성을 지닌 지명을 마을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않는 陶唐洞(도당동)으로 바뀐 것은 매우 아쉽다. 바로 잡았으면 한다.

성남 구미동 오리역

성남시 구미동에 위치한 오리역은 역 이름을 梧里(오리)로 적고 있다. 명백한 오류이다. 『(경기도) 지명유래집』에는 "오리뜰은 옛날에 오리떼들이 뜰에 많이 앉아 진풍경을 이루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이상윤 남72세 외 2명)"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무렵에 제작된 1:25.000 지도에는 현재의 벽산아파트 주변을 오리뜰이라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듯이 1910년대에 제작된 『근세지도』에서는 鳧坪(부평)이라 적고 있다. 이에 오리역의 한자명 梧里(오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오리뜰'로 바꾸어야 마땅하겠다.

수원 영화동

迎華洞(영화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북부면 관할의 觀吉洞(관길동)과 榮華洞(영화동)을 합친 것이다. 영화동은 迎華驛(영화역)이라는 역촌에서 유래되었다. 지역의 명소인 영화역에서 지명을 딴 점은 고무적이나, 후부요소를 살려 영화역동으로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수원 정자동

亭子洞(정자동)은 만석거에 있던 交龜亭(교구정, 현 영화정)이란 정자 이름을 타서 작명하였다. 정자의 이름을 살려 '交龜亭洞(교구정동)'으로 했다면 나았을 듯하다. 정자동은 너무 흔한 지명이기에 차별성과 변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수원 호매실동

好梅實(호매실)은 전국에 '홈실'이 많은데 '호매실'도 그 하나로 볼 수 있다. '홈'은 '홈통'이란 말에 살아 있듯이 '물대는 통' 즉 속을 파낸 통나무이다. 한자로는 楠(남)/椧(명)이라 쓴다[1]. 따라서 호매실은 음차지명으로서는 고유성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好梅實(호매실)의 '實'은 '室(실)'로 바꾸어야 합당하다. 일반적으로 室(실)이 마을을 나타내는 한자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한자명 '好梅實(호매실)'은 '좋은 매실이 나던 곳'으로 오해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수원 파장동

芭長洞(파장동)은 『華城誌(화성지)』에 琶洞(파동)으로 기록되어있다. 정조 때 萬石渠(만석거, 지금의 화서동 서호)를 만들고 이곳에 연꽃과 파초를 심고 나서부터 동 이름의 표기가 파초 '芭(파)'를 쓴 '芭洞(파동)'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내용을 정리한 『신구대조』에 처음으로 '파장동'이라는 지명이 나타난다. (『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2015)) 芭洞(파동)을 芭長洞(파장동)으로 바꾼 이유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3음절 지명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이라 추측된다. 문헌 속 芭洞(파동)으로 개명을 고려할 만하다.

수원 구운동

九雲洞(구운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내용을 정리한 『신구대조』에 형석면의 上九雲石(상구운석)과 下九雲石(하구운석) 두 동리를 합쳐 일형면 '구운리'로 변경한다고 기록하

1) 신종원 교수님께서 고견을 주었다.

고 있다. 그리고 현지의 속칭은 군돌, 군들, 구운석, 공석 등이다. 군돌과 군들은 "본래 들녘의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논과 밭이 많아 들이 무리지어 있다는 뜻에서 군들 혹은 군돌 이라고 불리었다."고 한다(광교IT기자단(www.ggitjournal.com) '사랑과 정이 넘치는 마을, 구운동을 찾아가다'). 현지의 지명을 고려할 때 위 기사의 지명유래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이에 '군들'을 훈차하여 群坪洞(군평동)로 해야 원뜻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수원 신동

莘洞(신동)은 1899년에 발간된 『수원군읍지』의 '申木洞(신목동)' 지역으로 추정된다. 순우리말 지명은 '신나무실'이다. 그래서 申木洞(신목동)으로 표기한 듯하다. 그런데 신나무의 정확한 한자는 榊(신) 또는 神木(신목)이다. 현재 신동의 '莘(신)'은 족두리풀이므로 喬木(교목)인 신나무와는 무관하다. 이러니 신동의 정확한 지명은 神木洞(신목동)이 옳다고 본다.

수원 이의동

二儀洞(이의동)은 『호구총수』에 기록된 용인군 지내면 義谷德洞(의곡덕동)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의동은 1914년 행정구역개편 시 儀上洞(의상동)과 儀下洞(의하동)을 합치면서 새롭게 만든 지명이다. 두 개의 마을을 합쳤다하여 '二(이)'를 붙인 점, 원뜻과 무관한 '儀(의)'를 핵심어로 삼은 점 등은 문제이다. 『호구총수』에 기록을 따라 義谷德洞(의곡덕동)으로 개명할 필요가 있다.

수원 영동

榮洞(영동)은 본래 수원군 남부면 산루동 지역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수원면 구천동이 되었다가, 1931년 분동을 하여 '영정(榮町)'이라는 일본식 지명을 가지게 되었다. 1949년 수원읍이 시로 승격할 때 후부요소만 바꾸어 지금의 '榮洞(영동)'이 되었다. 원래의 이름인 龜川洞(구천동)으로 해야 올바르다.

수원 송죽동

松竹洞(송죽동)의 순우말은 솔대이다. 솔대는 솔등성이를 뜻하는 '솔댕이', '솔띠'의 축

약 혹은 변이음으로 볼 수 있다. 우리말 지명에서 '솔'의 음차인 松(송)과 등성이의 훈차하여 脊(척)을 결합하여 '松脊洞(송척동)'이라해야 원뜻에 가장 가깝다.

시흥시

현재 금천구청역이 개명 이전에는 시흥역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금천구에 시흥동이 있고, 시흥사거리 · 시흥IC · 시흥대교 · 시흥중학교 등이 서울시 금천구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일반인들은 지금의 금천구청역 일대를 시흥시 지역으로 착각을 하기도 한다. 한편 '시흥'이란 시명은 정체성이 애매한 지명이다. 한때는 금천에 포함되었다가, 또 안산에 포함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는 이 두 곳을 관할했다가 지금은 두 곳이 모두 분리되어 옛 시흥군의 일부(소래읍, 군자면, 수암면)만 남은 상태이다. 한마디로 1914년 시흥군의 탄생 이후 풀질과 가위질을 너무 당하여 고유성과 역사성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어쨌든 시흥이 금천의 異名(이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시명을 고민해 볼 만하다.

시흥 은행동

銀杏洞(은행동)의 순우리말은 '은행정', '으능정'이다. 은행나무가 있는 정자가 마을의 標識物(표지물)이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銀杏亭洞(은행정동)이 원뜻에 맞는 지명이다.

시흥 과림동

果林洞(과림동)은 木瓜洞(목과동)과 重林洞(중림동)을 합성한 지명이다. 여기서 중림동은 重林道(중림도)의 중심 역원이었던 重林驛(중림역)이 있었던 역사적 장소이다. 정체성이 전혀 없는 과림동보다는 重林驛洞(중림역동)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명이다.

시흥 하상동과 하중동

下上洞(하상동)과 下中洞(하중동)은 모두 조선시대 職串里(직곶리)에 속했던 지역이다. 하상, 하중과 같은 방위지명만으로는 지역의 역사성과 차별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옛 지명를 살려 관곡지가 있는 하중동을 職串北洞(직곶북동), 그 아래의 하상동을 職串南洞(직곶남동)으로 해야 원뜻에 가까운 지명이 될 수 있다.

시흥 거모동

去毛洞(거모동)의 순우리말은 거무개이다. 우리말 '개'는 포구를 말하니 '검은 포구'인 셈이다. 여기서 '검다'는 것은 포구의 바닷물이 검다는 뜻이 아니고, 지형적으로 북쪽 또는 뒤쪽에 자리잡고 있기에 붙여진 것이다. 따라서 거모리는 後浦(후포) 또는 北浦(북포)로 한역해야 원뜻을 가장 잘 반영한 지명이 된다. 지금의 거모동은 거무개를 음차한 지명인데,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개〔浦(포)〕가 빠졌다. 去毛浦洞(거모포동)으로 해야 올바르다.

안산 풍도

豊島(풍도)는 조선시대에는 남양군에 속하기도 하였고 수원군 관할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단풍나무 楓(풍)자를 써 楓島(풍도)라고 하였다. 1894년 일본이 청나라 함대를 기습하여 격침시킴으로써 청일전쟁을 일본의 승리로 이끈 역사의 현장이다. 이에 일본은 楓島(풍도)를 그들이 애용하는 지명인 豊島(풍도)로 바꾸고, 자신들이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한 그 전투를 '豊島海戰(풍도해전)'이라 불렀다. 이렇듯 풍도는 일제가 자의적으로 바꾼 이름이다. 반드시 楓島(풍도)로 되돌려야 할 최우선 지명이다.

안산 월피동

月陂洞(월피동)은 순우리말 지명은 '달이피'이고 그것을 훈음차한 것이 月入皮里(월입피리)이다. 여기서 한자 月(월)은 높은 산을 뜻하는 순우리말 'ᄃᆞᄅᆞ'가 음운변화를 거쳐 '달'이 된 것을 음훈차한 것이고, 入(입)은 '들어갔다'의 훈차이고, 皮(피)는 陂(피)의 誤字(오자)인 듯하다. 어쨌든 원 지명을 보면 '산쪽으로 들어간 비탈'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월피동은 온전한 뜻을 지니지 않았으므로, 月入陂洞(월입피동)으로 개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안성 동본동

東本洞(동본동)은 왜식지명의 東本町(동본정)의 후부요소만 바꾼 것이다. 원래 東里(동리)였던 곳이므로 '東里洞(동리동)'으로 반드시 개명해야 할 지명이다.

안성 서인동

西仁洞(서인동)도 왜식지명인 西本町(서본정)에 속했던 곳이다. 해방이후 새롭게 개명하면서 지역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념어 '仁(인)'을 넣었다. 차라리 옛 지명을 살려 西里洞(서리동)으로 하는 편이 좋겠다.

안성 성남동

城南洞(성남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새롭게 작명한 행정지명이다. 안성을 대표하는 '안성 장터'가 자리했던 곳이다. 원지명을 살려서 안성장터동 또는 場基洞(장기동)으로 개명할 이유가 충분하다.

안성 숭인동

崇仁洞(숭인동)은 원래 물방앗골, 수용골, 숭용골 등으로 불리우던 곳이다. 일제강점기의 왜색지명의 잔재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숭인동을 버리고, 옛 지명을 살려 水舂洞(수용동) 또는 물방아동으로 개명했으면 한다.

안성 영동

榮洞(영동)은 벌말 또는 평촌이었던 곳인데, 일제강점기 榮町(영정)으로 작명되었다가 해방 이후 왜색지명의 잔재를 지닌 榮洞(영동)으로 후부요소만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래 지명을 되살려 평촌동으로 개명할 필요가 있다.

안성 옥천동

玉川洞(옥천동)은 안성천보의 물문이 있어 '물문거리'로 불리던 지역으로 일제강점기

옥천정으로 새롭게 작명된 곳이다. 왜색 지명의 잔재가 남아있으므로 순우리말 지명을 살려 '水門洞(수문동)'으로 개명할 필요가 충분하다.

안성 인지동

仁智洞(인지동)은 옹기점이 있어서 옹기전거리라 불리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서리에 편입되었다가 1943년 행정구역변경에 의하여 소화정 2정목이라 하다가, 1947년 왜색 동명 변경에 따라 인지동으로 새롭게 작명해 독립 법정동이 되었다. 마을의 정체성이 전혀 없는 인지동을 버리고 '甕店洞(옹점동)' 등과 같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지명으로 개명할 필요가 있다.

양주 교현리

장흥면 橋峴里(교현리)는 우이령을 끼고 있는 마을이다. 이 우이령을 '다리고개'로 불렸고, 이 다리고개에 연원하여 현 교현리를 1914년 이전에는 達峴(달현)마을로 표기했다. 순우리말 다리는 산을 의미하는 'ᄃᆞᆯ'에서 음운변화한 것이고, 達(달)은 'ᄃᆞᆯ'의 한자 표기이다. 따라서 橋峴里(교현리) 산을 의미하는 '다리'를 교각 다리로 오인하여 誤記(오기)한 것이다. 達峴里(달현리)로 바꾸어야 마땅하다.

양평 양수리

양평군의 동리 중에서 가장 일반인에게 알려진 곳은 양수리일 것이다. 이 양수리의 순우리말 지명인 '두물머리'가 아직도 남아있고, 사람들이 애용하는 사실은 다행스럽고 또 앞으로 '지명 바로잡기'의 좋은 본보기이다. 한편 兩水里(양수리)는 兩水頭里(양수두리)의 생략말이다. 우리말과 짝을 맞추려면 원래의 이름 즉 양수두리로 개명할 필요가 있겠다.

양평 주읍리

注邑里(주읍리)는 注邑山(주읍산)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그런데 주읍산은 趨揖山(추읍산) 또는 趨邑山(추읍산)으로 불리던 불렸는데, 일제강점기 注邑山(주읍산)으로 바뀌었고, 이를 1995년 고유지명인 추읍산으로 환원했다. 이렇듯 주읍리의 유래가 되었던 주읍산이

고유지명인 추읍산으로 제자리를 찾았으므로, 당연히 주읍리도 趨揖里(추읍리) 또는 趨邑里(추읍리)로 개명해야 마땅하겠다. 한자명은 趨揖(추읍)이 趨邑(추읍)보다 의미 해석이 완전하므로 趨揖里(추읍리)가 좋겠다.

양평 오빈리

양평 娛賓驛(오빈역)은 『여지도서』와 『광여도』, 『 대동여지도』에도 묘사되어 있다. 경기도 양주 평구역을 본역으로 하며, 지평의 백동역·전곡역과 이어져 강원도 원주, 영월까지 연결되는 平邱道(평구도)의 주요 역이었다. 지금은 흔적이 남아 있지 않지만, 최근 중앙선 복선전철화 계획에 오빈역이 설치되었다. 현재의 오빈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3음절 지명에 대한 강박으로 핵심어인 후부요소 역을 생략한 결과이다. 역사성을 되살려서 오빈역리로 바꾸어 봄직하다.

여주 가남면

가남면에 위치한 여주맛있는휴게소(여주휴게소)의 초기 이름은 소재지 면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가남휴게소였다. 그런데 가남은 '간암'과 발음이 비슷하여, 일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기도 했다. 이에 현재 가남읍도 꼭 고집해야 할 지명이 아닌 듯하다. 원래 가남읍 자체가 近南面(근남면)과 加西面(가서면)을 합칭한 지명이기 때문이다. 2013년 가남면에서 가남읍으로 승격할 때 개명을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연천 백령리

百嶺里(백령리)는 전통시대 장단면 동파역과 군남면 오계역을 연결하였던 백령역이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역사성을 살려 백령역리로 바꾸어 봄직하다.

오산 원동

원동은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靑好驛(청호역)이 자리했던 곳으로 옛 수원군 청호면 2동과 3동이 합쳐져 만들어졌는데, 1912년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驛村(역촌)이라 기재했으며, 『조선지지자료』에는 역촌과 함께 園洞(원동)이 함께 적혀 있다. 나중에 이 역

촌이 원동으로 바뀌는데, 역말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분이 일반적으로 하층민이었기에 역촌보다는 원동을 선택한 듯하다. 역사성을 살려 靑好驛洞(청호역동)으로 바꾸어 봄직하다.

오산 은행동

은계동은 원래 동탄면 金谷里(금곡리)였는데, 1987년 당시 화성군에 속했던 오산읍으로 편입되었다. 이때 금곡리를 은계동으로 개명했는데, 쇠골로 불리던 金谷(금곡)은 야철을 하던 곳이었다. 조선시대 야철업은 천민들이 주로 했기에 금곡이란 이름 속에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은계리로 바꾼 듯하다. 원뜻을 살려 금곡동으로 바꾸는 생각해 볼 만하다.

오산 두곡동

斗谷洞(두곡동)의 옛 한자지명은 馬遊洞(마유동)이었고 우리말 지명은 '말여울'이다. 지명에서 馬遊(마유)는 일반적으로 목마장이 있었던 곳으로 보고 있다. 조선시대 목마장 역시 하층민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그런 까닭에 근대에 들어서면서 마을지명에 용량단위 斗(두, 말)를 넣어서 아역한 듯하다. 이 역시 개명을 고려해 볼 대상이다.

오산 지곶동

紙串洞(지곶동)(지곶동)의 순우리말은 '조꼬지', '조이고지', '종이고지'이다. 종이를 만드는 造紙所(조지소)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역사성을 살려 造紙所洞(조지소동)으로 개명도 고려해 볼 만하다.

용인 어정 마을

구성동의 중리 마을에 있던 漁汀(어정) 마을은 1995년 御井(어정) 마을로 지명이 변경되었다. 신경준이 편찬한 『道路攷(도로고)』의 동래로를 보면 서울 한강진을 건너 新院(신원)-月川峴(월천현)-板橋店(판교점)-險川(험천)-龍仁(용인)-於汀介(어정개)-直谷(직곡)-金嶺驛(김령역)-陽智(양지)-佐贊驛(좌찬역)-白巖里(백암리) 등을 거쳐 동래로 이른다. 여기서 지금 어정역이 자리한 곳은 於汀介(어정개)였던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따라서 '御井

(어정)'은 근거 없는 진술 혹은 기록에 의하여 고유지명를 바꾼 결과로 생겨난 지명이다. 가능하다면 현재의 御井驛(어정역)은 於汀介驛(어정개역)으로 역 이름을 바꾸었으면 한다.

용인 좌항리

용인시는 양지면 평창리와 좌항리 경계에 있는 일본식 명칭인 佐田(좌전)고개를 고유이름인 佐贊(좌찬)고개로 바꾸었다. 카카오맵에서 '좌찬고개'를 검색하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소재로 지도상에 위치가 표시되는데 원지도 상에는 '좌전고개'라 적혀 있다. 한편 좌찬고개는 바로 인접한 佐贊里(좌찬리)라는 지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현재 좌찬리는 법정동이 아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恒谷里(항곡리)와 좌찬리을 합하여 佐恒里(좌항리)라 했기 때문이다. 좌찬역이 자리했던 역사성을 따져 좌항리를 좌찬역리로 개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용인 상하동

上下洞(상하동)은 아주 잘못된 지명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上支石(상지석), 下支石(하지석), 壽院洞(수원동) 중에서 상지석과 하지석의 '상', '하' 지명을 따서 상하리라 했다. 지역의 표지물,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支石(지석)'이란 기존의 지명을 두고 정체성은 물론 의미도 없는 상하리로 이름지은 점은 아주 유감이고, 당시 동리 지명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꼭 바꾸어야 할 지명 중 하나이다.

의왕 고천동

古川洞(고천동)은 坪沙川(평사천), 古井洞(고정동), 古古里(고고리), 內谷里(내곡리) 등을 합성하여 새롭게 만든 지명이다. 이 고천동 지역은 肆覲坪行宮(사근평행궁)이 자리했던 삼남로의 교통요지이며 사근천이 지나는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옛 지명을 따라 沙近乃洞(사근내동)으로 개칭하면 좋겠다.

의왕 포일동

浦一洞(포일동) 은 浦一洞(포일동), 浦二洞(포이동), 葛山洞(갈산동) 一部를 합쳐서 포일

동으로 했다. 3음절 지명을 고집의 결과이다. 그냥 浦洞(포동)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편 포일동의 순우리말이 '벌모루' 또는 '포모루'이므로 이를 한역하여 浦隅洞(포우동)으로 개명하거나, 순우리말 지명을 따라서 '벌모루동'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의정부 호원동

虎院洞(호원동)은 樓院里(누원리) 虎洞里(호동리)를 합칭한 것인데, 호동리에 비하여 누원리가 역사적으로 훨씬 유명한 곳이었다. 구체적으로 조선시대에 함경도 원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에 樓院(누원)이란 역원이 있었고, 이후에는 누원점이란 상점이 자리했다. 그리고 이 누원과 누원점은 우리나라 正史(정사)에 빈번하게 등장할 정도로 의정부를 대표하는 옛 마을이었다. 따라서 호원동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지명보다는 樓院洞(누원동)으로 개명하는 쪽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綠楊洞(녹양동)이 『 세종실록지리지』등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綠楊坪牧場(녹양평목장)'에서 지명을 따 온 사례를 본받았으면 한다.

이천 설성면

雪星面(설성면)은 1914년 음죽군의 근동면과 원북면을 합쳐서 이천군에 이속하면서 새롭게 붙인 이름이다. 그곳의 鎭山(진산)인 雪城山(설성산)에서 따온 이름인 듯한데, 한자가 바뀌었다. 雪城面(설성면)으로 바로잡았으면 한다.

이천 신추리

新楸里(신추리)는 1914년 上楸洞(상추동)과 楸洞(추동)를 합치면서 새롭게 지은 이름이다. 신추리보다는 楸洞里(추동리)가 더 나은 듯하다.

파주 용미리

龍尾里(용미리)는 虎尾里(호미리)와 九龍里(구룡리)에서 한 글자씩을 따온 합성지명이다. 이 지역의 랜드마크는 단연 용암사의 쌍미륵불이다. 한편 이곳의 고개를 雙佛峴(쌍불현)이라 했다. 이에 雙佛里(쌍불리)로 개칭을 고려할 만하다.

파주 분수리

汾水里(분수리)는 의주대로변에 자리했던 역원인 焚修院(분수원)이 자리했던 곳이다. 역사성과 정체성을 고려하여 焚修院里(분수원리)로 개칭할 것을 권한다.

파주 동파리

東坡里(동파리)는 의주대로에 속했던 역원인 東坡驛(동파역)이 있었던 곳이다.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후부요소인 '驛(역)'을 되살려, 동파역리로 개명해 볼 만하다.

파주 아동동, 야동동, 목동동, 와동동

최근 衙洞里(아동리)가 衙洞洞(아동동) , 冶洞里(야동리)가 冶洞洞(야동동), 木洞里(목동리)가 木洞洞(목동동), 瓦洞里(와동리)가 瓦洞洞(와동동)으로 바뀌었다. 행정단위요소 洞(동)이 두 개가 연이어 발음되기에 의미도 희박하고 발음도 어색하다. 순우리말 지명과 역사성을 고려해 官衙洞(관아동), 冶爐洞(야노동, 혹은 冶鐵洞), 木村洞(목촌동), 瓦村洞(와촌동) 등으로 개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파주 주월리

주월리는 원래 한자지명이 漢夜里(한야리)이고 순우리말 지명은 '한뱀이'이다. 그 의미는 '넓은 논 배미가 펼쳐진 들판'인데, 현지의 지형과 잘 부합된다. 다른 미칭은 몰라도, 주월리는 개칭할 필요가 있겠다.

평택 소사동

素沙洞(소사동)은 조선 10대로 중의 하나인 해남로가 지나는 곳이었고, 또 9대로인 충청수영로가 분기해 나가는 곳이기도 했다. 이렇듯 교통의 요충지였기에 素沙店(소사점)이란 주막이 유명했다. 역사성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素沙店洞(소사점동)으로 개명하는 것도 좋겠다.

포천 양문리

양문리는 조선 10대로인 경흥로에 속한 양문역이 자리했던 곳이다. 현재 역말이 그곳이다. 이에 후부요소인 '驛(역)'을 되살려 양문역리로 개칭해 볼 만하다.

포천 화현면

花峴面(화현면)은 적군의 동향을 살펴 중앙에 봉화로 알리던 烽火峴(봉화현)이라는 산봉우리가 있어 화재 또는 火峴(화현)이라 불리어 왔으나 '불고개'는 어감이 좋지 않아 花(화)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꼭 어감 때문에 개명해야 했다면, 烽峴面(봉현면)으로 바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

포천 진목리

眞木里(진목리)의 순우리말 지명은 '참나무정이'이다. 이를 한역하면 眞木亭(진목정) 이 된다. 현재의 지명은 3음절 지명에 얽매여 핵심어인 '亭(정)'을 없애버렸다. 따라서 진목정리로 개명했으면 한다.

포천 주엽산

광릉국립수목원이 자리한 竹葉山(죽엽산)은 內村面(내촌면)과 加山面(가산면)에 인접해 있는 토산으로서 예로부터 임목이 울창하였다. 400여 년 동안 엄격한 보호 아래 관리된 임상이라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명산이다. 그런데 그 이전의 고지도와 『신증동국여지승람』등의 기록에서는 注葉山(주엽산)으로 주로 표기되어 있다. 세조의 무덤인 광릉과 국립수목원으로 유명한 명산인 바, 산의 성격과 전혀 무관한 '竹葉(죽엽)'을 버리고 원래이름인 注葉山(주엽산)으로 개명이 필요하다.

하남 망월동

望月洞(망월동)의 원래 이름은 望月浦(망월포)이고 순우리말은 '멍덜개', '망달개'인데, 이를 통하여 포구였던 마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래지명을 되살려 '망월포동'으로 개명하였으면 한다.

하남 덕풍동

덕풍동은 慶安驛(경안역, 廣州)과 平丘驛(평구역, 楊州)를 잇는 德豊驛(덕풍역)이 자리했던 곳이다. 역사성을 살려 덕풍역동으로 개명하면 좋을 듯하다.

화성 서동탄역

화성시의 '서동탄'은 남부 경기지역 산업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자리를 굳혔다. 여기에 철도역 '서동탄역'이 처음 들어설 때 그 이름에 대해 논란이 없지 않았다. 이곳은 옛지도나 『호구총서』 등에서 보듯이 역대로 '삼미(三美)'라고 불리는 곳이며, 『조서지지자료』의 동리촌명에 외삼미(外三美), 내삼미(內三美)가 보인다. 현재도 살아 있는 지명으로서 오산시에는 '내삼미동'이 있다. 전통 지명을 써서 '삼미역'이 되었으면 좋을 번했다.(발췌 : 신종원, 이책, 제15장)

화성 중동

中洞(중동)에는 마을 뒤편의 萬儀寺(만의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 만의사는 유서 깊은 대찰이었고, 그런 연유로 현재의 중동에는 스님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僧村(승촌)으로 불렸다고 『지명유래집』(371쪽)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마을 주민 12인이 증언한 점, 또 현재 만의사가 중건되어 마을 뒤편에 자리한 점, 마을의 위치가 '가운데'에 자리하지 않은 점, 僧村(승촌)이 중마을 · 중말을 거쳐 中村(중촌)으로 바뀌었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으로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사하촌의 일반적인 작명법에 따라 萬儀洞(만의동)으로 개명해도 좋을 듯하다.

부록 : 경기도 행정지명의 순우리말 땅이름

부록 : 경기도 행정지명의 순우리말 땅이름

정리 : 김성태(경기문화재단 수석연구원)

일러두기

○ 여기서는 한자로 표기된 경기도 행정지명에 대한 우리말 지명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 현재 한자지명과 우리말 지명을 비교해 보면, 한역 과정에서의 오류와 왜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이 본서의 기획 목적과 부합되기에 부록에 별도로 실었다.

○ 이런 까닭에 이 부록의 내용은 향후 경기도 행정지명의 개칭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그런 목적에서 정리하였다.

○ 다음의 책을 기초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조선지지자료 : 경기도편](조선총독부, 1910년대)

[한국지명총람 : 경기도편]17, 18(한국학회, 1985)

[한국지명유래집 ; 중부편](국토지리정보원, 2008)

[지명유래집](경기도, 1987)

[고지도를 통해 본 경기지명연구](이기봉, 2011)

가평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開谷里(개곡리) 가일
高城里(고성리) 고재
達田里(달전리) 달전
垈谷里(대곡리) 터일
大升里(대승리) 대생이·대성
道大里(도대리) 도대
馬場里(마장리) 마장
沐洞里(목동리) 멱골
彌沙里(미살리) 메슈내
放逸里(방일리) 방일
栢屯里(백둔리) 잣둔지
所法里(소법리) 소일·손일
栗吉里(율길리) 밤기리·뱀기리
梨谷里(이곡리) 배일·바일
立石里(입석리) 선돌
虎鳴里(호명리) 범울이
檜谷里(회곡리) 회골

고양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加佐洞(가좌동) 가제월, 가재울
九山洞(구산동) 거북매
大慈洞(대자동) 대자굴
大化里(대화리) 한곶
德耳洞(덕이동) 덕위
道乃洞(도내동) 뒤내, 도내
沙里峴洞(사리현동) 사리재
山黃洞(산황동) 사내이
食寺洞(식사동) 밥절
新院洞(신원동) 새원
龍頭洞(용두동) 용머리
獐項洞(장항동) 노루멱이
土堂里(토당리) 삼메
楓洞(풍동) 신굴
幸州內洞(행주내동) 안장골말
香洞洞(향동동) 향골, 상골
花田洞(화전동) 꽃밧

과천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葛峴洞(갈현동) 가루개, 갈우개
莫溪洞(막계동) 맑은내, 맑내, 막내)
別陽洞(별양동) 베레이, 비랭이

광명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駕鶴洞(가학동) : 가골, 각골, 가학골
光明(광명) : 광매
所下洞(소하동) : 서러리
鐵山洞(철산동) : 쇠머리

광주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建業里(건업리) 거업바위
黔伏里(검복리) 검북리
歸歟里(귀여리) 귀여내, 귀내
金沙里(금사리) 구터, 구내
勒峴里(늑현리) 구레게, 구리개
武甲里(무갑리) 무래비
無愁里(무수리) 무시울, 무술
鳳峴里(봉현리) 새재, 조현
分院里(분원리) 부리개, 부로개촌
酸梨里(산리리) 신배골, 심배골
西霞里(서하리) 사마루
水靑里(수청리) 무프레여울, 청탄
新垈里(신대리) 새터말
嶺東里(영동리) 염치고개, 영치고개
梧里(오리) 가루개
牛山里(우산리) 소미
牛川里(우천리) 소내
元堂里(원당리) 원댕이
直洞(직동) 곧은골
楸谷里(추곡리) 가래실
下樊川里(하번천리) 아랫벌내

구리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水澤洞(수택동) 수누피, 수늪이

군포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衿井洞(금정동) 금우물
堂洞(당동) 당말
堂井洞(당정동) 당우물
大夜味洞(대야미동) 한배미
渡馬橋洞(도마교동) 도마다리
屯垈洞(둔대동) 둔터
富谷洞(부곡동) 대골, 부곡
山本洞(산본동) 산밑
速達洞(속달동) 속달

김포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葛山里(갈산리) 칡뫼
坎井里(감정리) 구두물
巨勿大里(거물대리) 검은대
傑浦里(걸포리) 걸개:
高昌里(고창리) 고창미
九來里(구래리) 구래꼴
金谷里(금곡리) 쇠골
金浦里(김포리) 소야
大明里(대명리) 사래울, 대망고지
大浦里(대포리) 황개, 향동 .
同乙山里(동을산리) 들미
麻近浦里(마근포리) 마근개
馬松里(마송리) 마솔이, 매수리
麻造里(마조리) 안꼴, 맴두리
木霜里(목상리) 나무서리
甫口串里(보구곶리) 보습고지
沙隅里(사우리) 새모랭이
石井里(석정리) 고루물, 돌우물

石灘里(석탄리) 돌여울, 도련이
碎岩里(쇄암리) 우만이
水站里(수참리) 물참
柿巖里(시암리) 감바위
薪谷里(신곡리) 섶굴, 섭골
吾尼山里(오니산리) 오림이
雲陽里(운양리) 운양굴
遊峴里(유현리) 모로재
場基里(장기리) 장터
顚流里(전유리) 전류
草元芝里(초원지리) 새원지
台里(태리) 고란터
浦內里(포내리) 개안말
楓谷里(풍곡리) 풍굴 :
風舞洞(풍무동) 풀무골
杏山里(행산리) 향미, 상미
後坪里(후평리) 뒤뜰리, 뒷뜰

남양주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嘉谷里(가곡리) 가오실
內谷里(내곡리) 안골, 역마을
磨石隅里(마석우리) 맷돌모루
三峯里(삼봉리) 앵골, 삼봉
水洞面(수동면) 물안골
時雨里(시우리) 시우터
月山里(월산리) : 달메, 당미
芝屯里(지둔리) 질둔지
榛伐里(진벌리) 가얌벌리
車山里(차산리) : 수레너머, 수리너머
八堂里(팔당리) 다당이, 바댕이

동두천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傑山洞(걸산동) 걸미
廣巖洞(광암동) 너븐바위
鳳岩洞(봉암동) 새바위
安興洞(안흥동) 안흥골

부천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遠美洞(원미동) 멀미
範朴洞(범박동) 범박골, 범박굴
內洞(내동) 안말
陶堂洞(도당동) 도당말, 안약대
三井洞(삼정동) 세우물, 시우물
若大洞(약대동) 약물터, 약댓말
深谷洞(심곡동) 깊은골, 깊은고지
上洞(상동) 사래리, 사랑리
中洞(중동) 간뎃미, 간담말
槐安洞(괴안동) 괴안이·고얀이
大壯洞(대장동) 대재이
余月洞(여월동) 여울
鵲洞(작동) 까치울
素砂洞(소사동) 소새
松內洞(송내동) 솔안말
梧亭洞(오정동) : 오동정이, 오쟁이
遠宗洞 : 멧마루, 먼마루

성남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宮內洞(궁내동) 궁안
金谷洞(금곡동) 쇠골
丹臺洞(단대동) 단대골, 던데
大院洞(대원동) 원터
島村洞(도촌동) 섬말
麗水洞(여수동) 여수울
栢峴洞(백현동) 잣고개, 재너머
福井洞(복정동) 복우물
山雲洞(산운동) 뫼루니, 머루니, 뫼룬
石雲洞(석운동) 도루니, 되루니
藪內洞(수내동) 숲내, 숫내
始興洞(시흥동) : 보낸말, 모랜마
新村洞(신촌동) 새말
梧野洞(오야동) 와실, 왜실
銀杏洞(은행동) 으능쟁이, 은행쟁이
二梅洞(이매동) 임의술, 임의곡
板橋洞(판교동) 너러리, 널다리

수원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梨木洞(이목동) 배나무골
笠北洞(입북동) 갓뒷, 갓디
網浦洞(망포동) 망개, 방죽머리
梅灘洞(매탄동) 매여울
松竹洞(송죽동) 솔대
莘洞(신동) 신나무실
牛萬洞(우만동) 소만이
遠川洞(원천동) 먼내
栗田洞(율전동) 밤밭
仁溪洞(인계동) 인도래, 인도내
棗園洞(조원동) 조원말, 대추원 등
池洞(지동) 못골
泉川洞(천천동) 샘내
坪洞(평동) 벌말·벌리·들말

시흥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去毛洞(거모동) 거무개
廣石洞(광석동) 너분돌
大也洞(대야동) 대야골 대골
論谷洞(논곡동) 놀줄
梅花里(매화리) 매자기, 메차기
牧甘里(목감리) 목암, 모감
物旺洞(물왕동) 물왕골
米山洞(미산동) 살미
山峴洞(산현동) 뫼재, 묘재
新峴洞(신현동) 새우개
鞍峴里(안현리) 길마재
烏耳島(오이도) 옷귀도
烏耳島(오이도) 옷귀섬
月串洞(월곶동) 달고지
銀杏洞(은행동) 은행정 으능정
鳥南洞(조남동) 새미
竹栗洞(죽율동) 한배미, 대야미, 대암
浦洞(포동) 갯굴, 새우개
下中洞(하중동) 하지골, 하짓골
花井洞(화정동) 고지물, 고주물

안산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乾乾洞(건건동) 건짐이, 건지미
古殘洞(고잔동) 곶안
本五洞(본오동) 배웃
釜谷洞(부곡동) 가마울, 가며울
四洞(사동) 쥬더리
沙士洞(사사동) 사질이, 사시골
仙甘島(선감도) 선암, 선감
仙府洞(선부동) 선녀불
聲浦洞(성포동) 성머리
楊上洞(양상동) 윗버대
瓦洞(와동) 왜두들기, 와개
二洞(이동) 솔이웃
一洞(일동) 구룡골
章上洞(장상동) 노리울
章下洞(장하동) 벗말
草芝洞(초지동) 새고지
八谷洞(팔곡동) 여더미, 여덜미
八谷二洞(팔곡이동) 담너머
八谷一洞(팔곡일동) 남산들
花井洞(화정동) 꽃우물, 고주물

안성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佳里(가리) 감리
加峴里(가현리) 벌가태, 벌가터
加峴里(가현리) 벌갓터
葛田里(갈전리) 갈밭
葛田里(갈전리) 느리재
康德里(강덕리) 강덕골
乾芝里(건지리) 건지뫼
桂勒里(계륵리) 안게우지
曲川里(곡천리) 고부내
九禮里(구례리) 구렛골
九士里(구사리) 구기메, 구끼미
九水里(구수리) 구수멀, 구수머리
農村里(농촌리) 바르대
堂旺洞(당왕동) 당목골
大農里(대농리) 안정이
道基洞(도기동) 도귀머리
洞村里(동촌리) 바윗절
老谷里(노곡리) 노춘
馬山里(마산리) 말미
馬山里(마산리) 말미
麻田里(마전리) 말아위
明倫洞(명륜동) 향교골

茅山里(모산리) 못안
美山里(미산리) 미리내
芳新里(방신리) 새태, 새터, 새아래
防築里(방축리) 방죽안말
保體里(보체리) 보채
洑坪里(보평리) 봇들
鳳山洞(봉산동) 봉대모퉁이
北山里(북산리) 뒷미, 산데
佛峴里(불현리) 부처고개말, 부쳐개
沙谷洞(사곡동) 샅골
山亭里(산정리) 산밋
三隱里(삼은리) 삼은이
城南洞(성남동) 소전거리
崇仁洞(숭인동) 숭능골
新溪里(신계리) 신계모시
新基里(신기리) 송등이
新興里(신흥리) 용등봉
實旺洞(실왕동) 당목골
峨洋洞(아양동) 아롱개
陽村里(양촌리) 양지말
榮洞(영동) 본동
烏頭里(오두리) 오두머리
玉山洞(옥산동) 옥산들
玉川洞(옥천동) 옥이내
龍頭里(용두리) 용머리
龍頭里(용두리) 큰 소머리
泥田里(이전리) 진말, 진밭
仁智洞(인지동) 물방아거리
長溪里(장계리) 장계내
迪可里(적가리) 절가리, 적가
井洞里(정동리) 속말
注川里(주천리) 쥬래
眞村里(진촌리) 진말
陳村里(진촌리) 진말
辰峴里(진현리) 미르개, 미러개
楸谷里(추곡리) 가래울
玄谷里(현곡리) 거먹골
後坪里(후평리) 뒤벌

안양

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葛山洞(갈산동) 갈미
飛山洞(비산동) 날미
安養洞(안양동) 안양골
平村洞(평촌동) 벌말
虎溪洞(호계동) 범내

양주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古邑洞(고읍동) 고주내, 고지내
橋峴里(교현리) 다리고개
龜巖里(구암리) 거북바위
龜岩里(구암리) 굿배미
斗谷里(두곡리) 두일
麻田洞(마전동) 삼박꿀, 삼밭꼴
比岩里(비암리) 전진바위
山北里(산북리) 샘내
湘水里(상수리) 상수
石隅里(석우리) 돌모루
石峴里(석현리) 돌고개
神岩里(신암리) 신암꼴
於屯洞(어둔동) 어둔마을
鬱垈里(울대리) 울띄
笠岩里(입암리) 갓바위
閑山里(한산리) 한미
華山里(화산리) 신미

양평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貢稅洞(공세동) 공세울
廣灘里(광탄리) 너분여울
龜尾里(구미리) 후미개, 구미개
金谷里(금곡리) 소일
多大里(다대리) 다대울
大谷里(대곡리) 황골
陶谷里(도곡리) 질울
道壯里(도장리) 국노쇼, 도장골
明達里(명달리) 멍덕, 멍덜
木旺里(목왕리) 무왕굴
汶湖里(문호리) 무네미
福浦里(복포리) 놋대울
伏浦里(복포리) 복개
釜里(부리) 청대우물, 가마골
佛谷里(불곡리) 부처울
上紫浦里(상자포리) 위자진개
石牆里(석장리) 돌담이
水谷里(수곡리) 물골, 무골
水入里(수입리) 무두리, 무드리
新論里(신론리) 골론
兩水里(양수리) 두물머리
娛賓里(오빈리) 역말
玉泉里(옥천리) 옥우물
自烟里(자연리) 자연바위

鼎排里(정배리) 솟비, 솥바위, 솥배
祭田里(제전리) 계밧, 계밭
注邑里(주읍리) 칠읍, 주읍, 추읍
倉垈里(창대리) 창터
下紫浦里(하자포리) 아래자진개
香里(향리) 향골, 상골

여주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伽倻里(가야리) 개꼴
稼亭里(가정리) 개경자
乾章里(건장리) 건쟁이
校里(교리) 향교말, 생교말
九陽里(구양리) 고양이, 괭이, 구앵이
宮里(궁리) 궁말
金谷里(금곡리) 소일
金谷里(금곡리) 쇠야, 쇠일, 소일
內龍里(내룡리) 안용머리
內絲里(내사리) 셰랏
雷谷里(뇌곡리) 셰거리, 우레실
塘南里(당남리) 당남이, 당냉이
堂隅里(당우리) 당머루
道弄里(도농리) 도롱골
道里(도리) 도래, 되래, 되레
馬來里(마래리) 말랑이, 말래
梅柳里(매류리) 마릿골
梅柳里(매류리) 새미실
梅花里(매화리) 매화지
覓谷洞(멱곡동) 멱골
茂村里(무촌리) 거치라리
白石里(백석리) 구진벼리, 흰돌, 흰들
柏子里(백자리) 배주리
福大里(복대리) 김때울, 복대골
沙谷里(사곡리) 모래실
上大里(상대리) 계영재
上大里(상대리) 웃다리
上里(상리) 웃동네
上品里(상품리) 상품실
上虎里(상호리) 웃범실
巢由里(소유리) 쇼류실, 소리실
松林里(송림리) 어실이
松林里(송림리) 어실이
新池里(신지리) 신제, 신지
烟羅里(연나리) 여늴
烟蘿里(연나리) 연내울
蓮坮里(연대리) 쑥되
蓮垈里(연대리) 연대굴, 쑥디
烏金里(오금리) 오금실
五山里(오산리) 오미
旺岱洞(왕대동) 왕터
外龍里(외룡리) 담터
外絲里(외사리) 돌곳지
外坪里(외평리) 밧들, 바깥뜰 밭뜰
龍潭洞(용담동) 용소, 용못
又晩洞(우만동) 소만이, 우만이

梨浦리(이포동) 천양, 배개
梨湖里(이호리) 배미
長豊洞(장풍동) 장풍굴
長興洞(장흥동) 장흥골
箭北洞(전북동) 살띄
鼎丹里(정단리) 솥단이
走鹿里(주록리) 쥬늡거리
注岩里(주암리) 죽바위
倉里(창리) 창골
處里(처리) 방근곡처, 범소
川西里(천서리) 화양정이
草峴里(초현리) 야래셩넙, 새재
太平里(태평리) 션비
下貴里(하귀리) 셰꾼이
下貴里(하귀리) 아래귀일, 세군이
下多里(하다리) 아래다부리
下里(하리) 아랫동네
下虎里(하호리) 아래범실
弘門里(홍문리) 홍문골
後里(후리) 뒷골
後浦里(후포리) 뒷개
後浦里(후포리) 뒷께
欣巖洞(흔암동) 흰바위, 흔바위

연천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貴存里(귀존리) 귀조니, 귀진이
基谷里(기곡리) 터일, 터골
內山里(내산리) 산동네
冷井里(냉정리) 돌안말, 찬우물
蘆谷里(노곡리) 갈여울, 가여울
蘆洞里(노동리) 갈골
畓谷里(답곡리) 논골
大寺里(대사리) 고사리울
大田里(대전리) 한밭, 한바치
東幕里(동막리) 동막골
杜梅里(두매리) 두메골
頭峴里(두현리) 머리재, 머루재
馬山里(마산리) 말미
馬城里(마성리) 마셩이
麻田里(마전리) 삼밧모루
梅峴里(매현리) 매고개
無等里(무등리) 무듬실
無等里(무등리) 무등실
百嶺里(백령리) 역말
白石里(백석리) 차돌아기
三巨里(삼거리) 세거리
三串里(삼곶리) 삼꼬지
三串里(삼곶리) 세곶
三和里(삼화리) 세오개
席屯里(석둔리) 돗둔이
石牆里(석장리) 돌대비
峩嵋里(아미리) 아미
魚積山里(어적산리) 어디미

餘尺里(여척리) 여저리
梧音里(오음리) 옴골
玉山里(옥산리) 오미
瓦草里(와초리) 기새, 기새골
牛井里(우정리) 소우물, 쇠우물
元堂里(원당리) 원당골
柳村里(유촌리) 버드리
自作里(자작리) 자지개
鵲洞里(작동리) 작동리
積洞山里(적동산리) 적굴산
全谷里(전곡리) 진골
箭洞里(전동리) 살여울
箭洞里(전동리) 살울
辰谷里(진곡리) 미르실
車灘里(차탄리) 수레울
通峴里(통현리) 구리개
板浮里(판부리) 널둔이, 널뚜니
浦春里(포춘리) 포춘골
鶴谷里(학곡리) 학골
項洞里(항동리) 목굴
橫山里(횡산리) 비끼미, 비시메

오산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佳水洞(가수동) 가숫골
佳長洞(가장동) 가장골
佳長洞(가장동) 가장골
錦岩洞(금암동) 검바위, 금바위
樓邑洞(누읍동) 누읍재, 누읍소
斗谷洞(두곡동) 말여울
釜山里(부산리) 가마뫼, 가마미
西廊洞(서랑동) 사랑, 서랭이
細橋洞(세교동) 잔다리
陽山洞(양산동) 양산골
烏山洞(오산동) 오미, 외미
紙串洞(지곶동) 조꼬지, 조이고지
靑鶴洞(청학동) 청하골 청학골
塔洞(탑동) 탑마루

용인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加佐里(가좌리) 가재울
貢稅洞(공세동) 공세굴
大垈里(대대리) 한터
孟里(맹리) 맹골, 매골

卯峯里(묘봉리) 묘봉골
墨里(묵리) 먹뱅이, 먹방이
文村里(문촌리) 문실랑이
彌坪里(미평리) 미륵뜰
松田里(송전리) 솔밭
時美里(시미리) 시묘골, 시미골
魚肥里(어비리) 어비울
吳山里(오산리) 오산수
完章里(완장리) 안장이, 안쟁이
湧泉里(용천리) 솟을샘
元巖里(원암리) 우아미, 외미
定水里(정수리) 증세, 정수
左贊里(좌찬리) 좌전
芝谷洞(지곡동) 지실, 디실
眞木里(진목리) 참나무뜰
倉里(창리) 창골
泉里(천리) 샘골
海谷洞(해곡동) 해실이
虎洞(호동) 범골, 범왕골

의왕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清溪洞(청계동) 청계굴

의정부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高山洞 높은뫼

이천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加佐里(가좌리) 가재울
葛山洞(갈산동) 갈미, 가리뫼
高潭洞(고담동) 고댐
高尺里(고척리) 고잣말
冠里(관리) 가골
九時里(구시리) 다래촌

軍梁里(군량리) 군돌
丹月洞(단월동) 단도래, 단드래
大垈里(대대리) 한터
大浦洞(대포동) 한개내
德坪里(덕평리) 덕들
道理里(도리리) 도니울, 도리울, 든리울,
道知里(도지리) 도지울
馬橋里(마교리) 말다리, 마다리
馬巖里(마암리) 마라위, 마라울, 마라우
茂村里(무촌리) 거치아리, 거치라리
白隅里(백우리) 햇무루, 햇머루, 한모루
巳洞里(사동리) 뱀골
素沙里(소사리) 소새
小亭里(소정리) 쇄쟁이, 소정이
松葛里(송갈리) 솔갈뫼
松谷里(송곡리) 소리울
松蘿里(송라리) 소래울
松溫里(송온리) 소누운동, 소론동
水南里(수남리) 둔터, 정문고개
水井里(수정리) 물움물
水下里(수하리) 새울
薪葛里(신갈리) 가섭갈뫼
於農里(어농리) 어농골
院頭里(원두리) 원머리
泥坪里(이평리) 진들
梨峙里(이치리) 배치, 배터, 배티
長鹿洞(장록동) 장록이, 장노기
長坪里(장평리) 범골
珠珀里(주박리) 주박운니
中里洞(중리동) 즁말
曾日里(증일리) 증이
增浦洞(증포동) 배증개
增浦洞(증포동) 배증개, 배진개, 뱃짐뫼
支石里(지석리) 괸돌. 귄돌
陳里洞(진리동) 진말
標橋里(표교리) 보름다리
蟹越里(해월리) 게넘이

파주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佳月里(가월리) 가룰, 가루리
佳月里(가월리) 갈월리
葛峴里(갈현리) 가루개, 갈무개
客峴里(객현리) 손고개, 선고개
金陵洞(금능동) 쇠재, 쇠자
金繩里(금승리) 쇠파리, 쇠파니
金蠅里(금승리) 쇠파리, 쇠파니
蘆上里(노상리) 윗가르개
蘆下里(노하리) 아랫가루개
訥老里(눌노리) 늠노리, 늪노리
多栗洞(다율동) 한바미
畓谷里(답곡리) 논골
堂洞里(당동리) 당골
堂下洞(당하동) 당아래

大洞里(대동리) 큰골
東場里(동장리) 동장말
東坡里(동파리) 동파골
斗只里(두지리) 두개
馬山里(마산리) 마산리 마새울
馬場里(마장리) 마장골
馬井里(마정리) 말우물, 마정이
萬隅里(만우리) 만모퉁이
麥今洞(맥금동) 맥그미
木洞洞(목동동) 나몰, 나무울
武建里(무건리) 무건이
汶山里(문산리) 문산개
文智里(문지리) 문지울
發郎里(발랑리) 바람골, 바랑골
芳木里(방목리) 방모기
防築里(방축리) 방축말
釜谷里(부곡리) 가마울
沙鶩里(사목리) 사모기, 사무기
西場里(서장리) 서장말
西牌里(서패리) 돌고지
石串里(석곶리) 돌고지
雪馬里(설마리) 설마치
雪馬里(설마리) 설마치, 설마
城東里(성동리) 잣골
松村洞(송촌동) 소라지
食峴里(식현리) 밥배
新村洞(신촌동) 새말
衙洞洞(아동동) 관아마을, 아꼴
衙洞洞(아동동) 관앗골, 앗골
野塘洞(야당동) 들못지, 들모시
冶洞洞(야동동) 풀뭇골, 품무골
魚游池里(어유지리) 어여지, 여유지
烟多山洞(연다산동) 연다의, 연달매,
吾金里(오금리) 오그미
五道洞(오도동) 오두말
瓦洞洞(와동동) 기새울, 왜골
熊潭里(웅담리) 곰소, 곰시
杻峴里(축현리) 싸리고개
栗谷里(율곡리) 밤실, 밤골
栗浦里(율포리) 밤개
梨川里(이천리) 배내
臨津里(임진리) 임진골
長佐里(장좌리) 장자울, 장좌울
長坡里(장파리) 긴마루
赤巖里(적암리) 문바위
赤巖里(적암리) 붉바위
井洞里(정동리) 우물골
舟月里(주월리) 한뱀이
竹院里(죽원리) 대굴원
下浦里(하포리) 아랫개
向陽里(향양리) 향양말, 생말

평택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佳谷里(가곡리) 개실
佳才洞(가재동) 가재울
葛串里(갈곶리) 갈고지
葛院洞(갈원동) 칡원, 칠원
見山里(견산리) 볼미
高峴里(고현리) 놉흔재
橋浦里(교포리) 다리깨
金角里(금각리) 쇠뿔, 쇠뿌리
金谷里(금곡리) 쇠누리,소누리,쇠두리
金巖里(금암리) 고리안말
金巖里(금암리) 북바위
金舟里(금주리) 쇠뿌리
內基里(내기리) 안터
柰川里(내천리) 머드내
杜陵里(두릉리) 두렁이
頭里(두리) 머래
堂峴里(당현리) 당고개, 당밑
大陽里(대양리) 대양이, 댕이
大秋里(대추리) 개출, 흔지머리
道垈里(도대리) 돗대, 되때
獨谷里(독곡리) 오리골
東古里(동고리) 뒹고리
桐泉里(동천리) 동천골, 동칫골
東泉里(동천리) 동추골
東泉里(동천리) 동축골
東靑里(동청리) 동청이, 동챙이
東靑里(동청리) 동청이, 동체이
馬頭里(마두리) 말머리
晩湖里(만호리) 느지
茅谷里(모곡리) 뛰우지
芳林里(방림리) 방골, 뱅골
防築里(방축리) 방죽말
鳳南里(봉남리) 읍내골
碑前洞(비전동) 비앞
寺里(사리) 절골
西井洞(서정동) 셧우물
石井里(석정리) 돌우물
石井里(석정리) 서둔물
細橋洞(세교동) 잔다리
細橋洞(세교동) 잔다리
松炭(송탄) 숯고개
水月岩里(수월암리) 거리미
新里(신리) 새터, 삼궁월, 삼동말
新里(신리) 새터말
新營里(신영리) 그이내, 신영장
新場洞(신장동) 새장터
新號里(신호리) 범치말, 범고개, 호틔
安化里(안화리) 우다내
野幕里(야막리) 들막
余染里(여염리) 염줄
玉吉里(옥길리) 옥거리, 옥길
遠井里(원정리) 먼물이, 머물이
柳川洞(유천동) 버드내
栗浦洞(율포동) 밤개울, 밤개

仁光里(인광리) 인괭이, 양지말
獐堂洞(장당동) 노루댕이
長登里(장등리) 진등니
長水里(장수리) 두메
坐橋里(좌교리) 안지다리, 앉은다리
竹里(죽리) 대나무골
竹白洞(죽백동) 재배기, 댓배기
芝山里(지산리) 건지미
通伏洞(통복동) 통보개
下北里(하북리) 아래성뒤
閑山里(한산리) 한미
玄谷里(현곡리) 가마울
華陽里(화양리) 행궁이
檜花里(회화리) 홰정이
希谷里(희곡리) 희여울, 흐열

포천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加山里(가산리) 가산말
可養里(가양리) 개암골, 갱이
葛月里(갈월리) 칡월, 칠월이, 칠월리
甘巖里(감암리) 가마바위, 감바위
居士里(거사리) 거시울, 거사울
界流里(계류리) 자리말
古毛里(고모리) 고뫼암
琴洞里(금동리) 거문골
機山里(기산리) 틀뫼, 틀미, 틀무시
機池里(기지리) 틀못
金珠里(금주리 쥬완리
金峴里(금치리) 쇠재
蘆谷里(노곡리) 갈골, 갈월, 갈울
都坪里(도평리) 도리울, 도리들
東橋洞(동교리) 동다리, 뜬다리
冷井里(냉정리) 찬우물
馬鳴里(마명리) 말울이
馬山里(마산리) 말뫼, 말미
麻田里(마전리) 삼밧골, 삼밭골
萬歲橋里(만세교리) 만세다리
明德里(명덕리) 명덕골
鳴山里(명산리) 울미
茂峯里(무봉리) 거친봉이
文巖里(문암리) 문암골, 문바위마을,
防築里(방축리) 방죽골, 방축골
射亭里(사정리) 활터, 사정, 새청
三栗里(삼율리) 밤나무골
三省堂里(삼성당리) 삼성당이
三政里(삼정리) 삼정골
上城北里(상성북리) 웃잣뒤, 웃성디
先達洞(선달동) 선단
雪雲洞(설운동) 서른리
城洞里(성동리) 잣골, 잿골
巢鶴里(소학리) 소학골
松隅里(송우리) 솔모루
水入里(수입리) 갈기, 가계

新邑洞(신읍동) 장거리
薪八里(신팔리) 섶파
新坪里(신평리) 새벌
深谷里(심곡리) 깊이울, 짚이울
夜味里(야미리) 배미, 바미
梁文里(양문리) 돌골, 독글, 독흘
魚龍洞(어룡동) 어룡골, 의용골
奄峴里(엄현리) 음고개, 엄고개
鳶谷里(연곡리) 제비울
五佳里(오가리) 가노리, 오거리
龍井里(용정리) 용우물, 용물, 요물
友琴里(우금리) 우금이
雲川里(운천리) 구름내
柳橋里(유교리) 유다리
柳洞里(유동리) 버들골
梨谷里(이곡리) 배골
自逸里(자일리) 요질
自作洞(자작동) 자재기
長岩里(장암리) 마당바위
鼎橋里(정교리) 솥밭, 솥다리, 솟다리
左儀里(좌의리) 좌우지, 자우지
芝峴里(지현리) 지재
直洞里(직동리) 고든골
稷頭里(직두리) 피머리
眞木里(진목리) 참나무정이
楸洞里(추동리) 가래골
塔洞(탑동) 탑골
八夜里(팔야리) 여달밤이, 여덟배미
下城北里(하성북리) 아랫잣뒤
禾垈里(화대리) 수터, 쉿터
花峴里(화현리) 화재

하남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廣巖洞(광암동) 너분바위
堂亭洞(당정동) 댕젱이, 당젱이섬
德豐洞(덕풍동) 덕풍역말, 덕풍굴
望月洞(망월동) 멍덜개, 망달개
拜謁尾洞(배알미동) 밸미, 배알미
上山谷洞(상산곡동) 윗산골
新長洞(신장동) 석바대
倉隅洞(창우동) 창모롱, 창모루
泉峴洞(천현동) 샘재
下山谷洞(하산곡동) 아랫산골
鶴巖洞(학암동) 학바위골, 학바위
項洞(항동) 목골

화성

행정지명의 우리말 땅이름

古毛里(고모리) : 곰굴, 고무굴
廣坪里(광평리) : 너분들
掛郎里(괘랑리) : 괘낭이, 괘랑이
宮坪里(궁평리) : 궁들
錦堂里(금당리) : 금당골, 금달
機山洞(기산동) : 틀뫼, 틀미
旗安洞(기안동) : 기안골, 기안말
龍水里(용수리) : 용소, 용수말
梅花里(매화리) : 매골, 맷골
睦洞(목동) : 목죽골, 목족골
茂松洞(무송동) : 수리재, 술재
泮亭洞(반정동) : 반쟁이
防橋里(방교리) : 방아다리
百味里(백미리) : 배일미, 배일
白土里(백토리) : 백토골, 한두골
餠店洞(병점동): 떡전거리, 떡점고을,
鳳歌里(봉가리) : 봉가말
汾川里(분천리) : 분촌향, 분촌
仕串里(사곶리) : 벼슬고지
沙浪里(사랑리) : 새랭이
社倉里(사창리) : 사창리, 쟁홀, 생골
山尺洞(산척동) : 산텃골
三尊里(삼존리) : 삼존골
石橋里(석교리) : 돌다리
細洞里(세동리) : 가는골
松橋里(송교리) : 솔다리
松亭里(송정리) : 하일, 송정
水永里(수영리) : 수영말
瑟項里(슬항리) : 비파목, 비아목
匙里(시리) : 수리
漁隱里(어은리) : 어은골, 언골, 은골
於川里(어천리) : 어랑내
鰲山洞(오산동) : 자라메, 오미
溫石洞(온석동) : 원두루지
龍頭里(용두리) : 용머리
牆外里(장외리) : 담밖
獐田里(장전리) : 장전굴
長之洞(장지동) : 장지내
前谷里(전곡리) : 앞실
中松里(중송리) : 중송골
天登里(천등리) : 천등굴
漆谷里(칠곡리) : 옻골
下楮里(하저리) : 아래저파리
海門里(해문리) : 역말, 굿벌, 해문
弘法里(홍법리) : 홍법굴
花山洞(화산동) : 곶산
活草洞(활초동) : 살구지

세부목차

책머리에 Ⅳ
목차 Ⅶ

1장 총설 : 경기행정지명 속 일제잔재와 청산방안 3

1. 경기도 행정지명과 도로명주소의 개선 방안 3

이 책은 경기도 정책을 염두에 두고 기획, 집필되었다. 3
지금의 행정지명은 지극히 공급자 중심이다. 도민 중심으로 가야 한다. 4
지명에 우리말 땅이름을 병기하자. 5
도로명주소가 우리 고유지명을 말살하고 있다. 6
고유지명으로 도로명주소의 보정을 차근차근해 나가자. 7

2. 일제가 자행한 우리말 땅이름의 왜곡과 말살 8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은 역사성을 무시한 처사였다. 8
일제가 1년만에 급조한 지방행정구역 개편, 해방 후 그대로 존속 9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마을이름의 작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0
비전문가에 의하여 순우리말 지명의 한역이 이루어졌다. 10
졸속으로 한역이 이루어져, 誤譯(오역)이 속출했다. 11
동리의 합칭은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한다. 11
합성지명은 신중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12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3음절 지명에 집착했다. 13
마을을 뜻하는 다양한 후부요소가 많이 사라졌다. 13
지나치게 훈차와 훈음차로 고유지명의 순수성이 오염되었다. 14

행정편의가 고유의 하천 지명을 말살했다. 14
마을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15
1930년대 수원과 안성의 시가지가 일본식 지명으로 개명되다. 15

3. 행정지명의 기본적 이해와 지명연구가 나아갈 방향 17

지명도 우리가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 문화자원이다. 17
'내고장 바로알기'를 위한 참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7
지명의 기본 속성은 '구별짓기'이다. 18
행정지명에서 동식물 지명은 원뜻에서 벗어난 경우가 허다하다. 18
행정지명에도 粉飾(분식)이 의도적으로 가해졌다. 18
고유지명에서 관념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19
합성지명을 고유지명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19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로알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19
경기지명과 관련해서는 이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0
지명 연구도 예비지식과 공부가 필요하다. 20
지명연구에 역사학자의 가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21
경기지명 연구를 위한 기본텍스트와 정보는 알고 지명 이해에 나서자. 21
기초지자체 단위를 벗어난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명 연구가 필요하다. 22

2장 1914년 일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그 문제점 25

1. 여는 글 25

2. 1914년 개편의 내용 26

1) 부제 실시 28
2) 군의 통폐합 33
3) 면의 통폐합 39

3. 개편의 결과와 의미 : 맺음말을 대신하여 45

1) 부제 실시의 결과와 의미 45

2) 군 폐합 반대운동과 군 폐합의 결과와 의미 46
3) 면 통폐합의 결과와 의미 49

3장 조선총독부의 지방제도 개편 논리 53

1. 여는글 53
2. 부제와 학교조합령 공포 53
3. 부·군 폐합, 부제와 학교조합령 시행 58
4. 면제의 시행 67
5. 면협의회, 학교평의회, 도평의회의 설치 72
6. 부제, 읍면제, 도제, 학교조합령 및 학교비령 개폐 75
7. 도제 시행 86
8. 닫는 글 90

4장 개항 후 경기도 행정구역의 통폐합과정 93

1. 여는 글 93

2. 개항 후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제의 변천 94

1) 1895년 갑오개혁 - 23부 337군 94
2) 1896년 광무개혁 - 1수부[서울]·13도·1목·7부·331군 94
3)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 97
4) 미군정기 99
5) 정부수립 이후 100

3. 경기도 행정구역의 통폐합과정 101

1) 경기도 행정구역 개관 101
2) 2020년 현 기준 경기도 행정구역 - 28시 3군 113
(1) 수원시 113

(2) 고양시 114
(3) 용인시 116
(4) 성남시 117
(5) 화성시 120
(6) 부천시 122
(7) 남양주시 125
(8) 안산시 126
(9) 안양시 127
(10) 평택시 129
(11) 시흥시 131
(12) 파주시 132
(13) 의정부시 133
(14) 김포시 134
(15) 광주시 135
(16) 광명시 137
(17) 하남시 138
(18) 군포시 139
(19) 오산시 140
(20) 양주시 140
(21) 이천시 141
(22) 구리시 142
(23) 안성시 143
(24) 의왕시 144
(25) 포천시 144
(26) 양평군 145
(27) 여주시 146
(28) 동두천시 146
(29) 가평군 147
(30) 과천시 148
(31) 연천군 148

4. 나오며 150

5장 일제강점 초기 경기도 면(面) 지명의 변천 유형 157

1. 서론 157

2. 면 지명을 둘러싼 문화 정치와 스케일 정치 158

1) 지방 행정제도 하에서의 면 지명의 역사 158
2) 권력에 의한 면 지명의 변천 163

3. 1914년 통폐합 면의 지명 개정 유형 172

1) 합성 지명 명명 175
2) 유력 면 지명 명명 177
3) 유력 동리 지명 명명 178
4) 공유 지명 명명 180
5) 옛 지명 (복원 · 활용) 명명 182
6) 새 지명 명명 184

4. 결론 185

참고문헌 188
부록 : 경기도 면 지명의 변천 (18세기 말~20세기 초) 190

6장 수원권역 행정구역 변천 과정 211

1. 머리말 211

2. 도표로 보는 수원권역의 행정구역 변천 212

1) 구읍치 시절 『수원부읍지』 212
2) 『호구총수』 212
3) 신읍치 이전(移轉) 후 『수원부읍지』 213
4) 『화성지』(1831) 215

5) 1906년(광무 10) 9월24일(칙령 제49호) 지방행정구역 개편 216
6) 일제강점기 229
(1) 1910~1930년 229
(2) 1931~1945년 238
7) 해방 이후~ 현재 242
(1) 수원시 242
(2) 화성시 251

3. 수원시 지명유래와 변천 252

1) 장안구 252
2) 권선구(勸善區) 258
3) 팔달구(八達區) 265
4) 영통구(靈通區) 272

4. 맺음말 275

7장 시흥권역의 행정구역 조정과 통폐합과정 279

1. 들어가며 279
2. 일제 이전의 시흥군 280
3. 1914년 부군 통폐합과 조선총독부의 행정 구역 개편 282
4. 해방 이후 서울의 확대와 시흥군 284
5. 안양시의 분리와 '동체 없는 나비'가 된 시흥군 285
6. 광명시, 안산시,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와 시흥군 288
7. 시흥군의 해체와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의 성립 292
8. 시흥시 승격 이후 안산동의 안산 편입 297
9. 맺음말 : 시흥군의 분화와 경기도 행정구역 변천 300

8장 보도자료로 본 경기도 행정구역 조정과 사회적 이슈 303

1. 들어가며 303
2. 경기도 행정구역 조정 303
3. 대경성 계획과 도시빈민 문제, 일제의 병참기지 전략 304
3. 해방이후 행정구역의 변화와 다시 시작된 서울의 확장 310
4. 경기도 행정구역 변화와 언론 보도 316
5. 1980년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숙의의 시도 318
6. 맺음말 323

9장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통시적 고찰 327

1. 여는 글 327

2. 근대 일본지방자치제도의 형성과 발전 327

1)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형성-메이지유신과 3신법 제정 327
2) 일본지방자치제도의 발전 330

3. 현대 일본 지방자치제도 335

1) 전후 민주화와 지방자치제도의 개혁 335
2) 신(新)중앙집권화-고도성장기 338
3) 지방분권개혁-저성장기 340

4. 대도시 제도와 광역행정제도 342

1) 대도시제도 342
2) 전후 광역행정제도 전개와 합병(1945~1960년대) 345

5. 나오며 347

10장 일제강점기 상처난 경기도 행정지명 351

1. 여는글 351

1) 가평 352
2) 고양 357
3) 과천 360
4) 광명 361
5) 광주 362
6) 구리 366
7) 군포 367
8) 김포 370
9) 남양주 373
10) 동두천 376
11) 부천 377
12) 성남 378
13) 수원 381
14) 시흥 384
15) 안산 387
16) 안성 389
17) 안양 395
18) 양주 396
19) 양평 397
20) 여주 401
21) 연천 405
22) 오산 408
23) 용인 410
24) 의왕 415
25) 의정부 417
26) 이천 418
27) 파주 422
28) 평택 425

29) 포천 428
30) 하남 430
31) 화성 432

2. 닫는글 436

11장 역사성을 내포한 경기도의 지명 441

1. 여는 글 441

1) 관아(官衙) 442
2) 객사(客舍) 443
3) 향교(鄕校) 444
4) 서원(書院) 445
5) 창고(倉庫) 446
6) 역원(驛院) 447
7) 주막(酒幕) 450
8) 오리정(五里亭) 451
9) 관방(關防) 452
10) 봉수(烽燧) 453
11) 마장(馬場) 454
12) 궁평(宮坪) 455
13) 둔전(屯田) 456
14) 도촌(島村) 457
15) 월경지(越境地) 458
16) 제언(堤堰) 458
17) 사찰(寺刹) 459
18) 佛像(불상) 461
19) 석탑(石塔) 462
20) 태실(胎室) 462
21) 능묘(陵墓) 463

22) 사당(祠堂) 465
23) 비석(碑石) 465
24) 정려(旌閭) 466
25) 와촌(瓦村) 467
26) 동막(東幕) 467
27) 당산(堂山) 469
28) 장생(長牲) 469
29) 요(窯) 일반 470
30) 자기요(瓷器窯) 471
31) 옹기요(甕器窯) 472
32) 와요(瓦窯) 473
33) 탄요(炭窯) 474
34) 대장간 475
35) 야철(冶鐵) 476
36) 고인돌 477
37) 입석(立石) 478
38) 교량(橋梁) 479

2. 닫는 글 480

12장 어원으로 경기도 행정지명의 본뜻 밝히기 487

1. 여는글 487

2. 지명 속 어원과 본뜻 488

1) 馬 : 크다 488
2) 獐(장) : 늘어지다 489
3) 蟹(해) : 가장자리 489
4) 梨(이) : 선박 490
5) 松(송) : 좁다, 솔다, 솟다 491

6) 柏(백) : 성곽 492
7) 竹(죽) : 크다〔大〕 493
8) 梅(매), 鷹(응) : 뫼, 산 493
9) 葛(갈) : 갈라지다, 분기하다 495
10) 楸(추) : 갈래 495
11) 花(화), 化(화) : 곶(串) 496
12) 達(달), 月(월) : 높은 산 496
13) 獨(독), 甕(옹) : 돌〔石(석)〕 498
14) 牆(장) : 경계 499
15) 三田(삼전) : 삼밭 499
16) 夜味(야미) : 논배미 499
17) 古棧(고잔) : 곶안 500
18) 雲井(운정) : 굴우물 500
19) 수리/소리, 솔/술 500

3. 어원으로 풀어본 경기도의 관심 지명 501

1) 판문점 501
2) 판교 501
3) 월곶 501
4) 모란시장 501
5) 남이섬 502
6) 청평 502
7) 오이도 502
8) 신갈 502
9) 죽전 502
10) 임진강 503
11) 소래포구와 송도 503
12) 동막골 503
13) 금곡 503

4. 닫는글 504

13장 경기도 원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507

1. 머리말 507

2. 경기도 지명의 고지도 수록 개관 508

1) 조선 전기 508
2) 조선 후기 512

3. 시군별 법정동리 지명의 고지도 수록 현황 514

1) 가평군(加平郡)[1읍 5면 61리] 515
2) 고양시(高陽市)[3구 53동] 516
3) 과천시(果川市)[10동] 518
4) 광명시(光明市)[8동] 519
5) 광주시(廣州市)[3읍 4면 13동 69리] 519
6) 구리시(九里市)[7동] 521
7) 군포시(軍浦市)[9동] 522
8) 김포시(金浦市)[3읍 3면 9동 57리] 523
9) 남양주시(南楊州市)[6읍 3면 11동 49리] 525
10) 동두천시(東豆川市)[12동] 527
11) 부천시(富川市)[24동] 527
12) 성남시(城南市)[3구 44동] 528
13) 수원시(水原市)[4구 56동] 530
14) 시흥시(始興市)[30동] 531
15) 안산시(安山市)[2구 30동] 532
16) 안성시(安城市)[1읍 11면 33동 158리] 533
17) 안양시(安養市)[2구 7동] 538
18) 양주시(楊州市)[1읍 4면 17동 37리] 538
19) 양평군(楊平郡)[1읍 11면 110리] 540
20) 여주시(驪州市)[1읍 8면 23동 123리] 543
21) 연천군(漣川郡)[2읍 8면 96리] 547
22) 오산시(烏山市)[24동] 549

23) 용인시(龍仁市)[3구 3읍 4면 35동 72리] 550
24) 의왕시(義王市)[11동] 553
25) 의정부시(議政府市)[13동] 554
26) 이천시(利川市)[2읍 8면 15동 117리] 554
27) 파주시(坡州市)[4읍 9면 22동 104리] 558
28) 평택시(平澤市)[4읍 5면 27동 110리] 561
29) 포천시(抱川市)[1읍 11면 6동 82리] 564
30) 하남시(河南市)[24동] 566
31) 화성시(華城市)[4읍 9면 25동 169리] 567

4. 맺음말 **571**

14장 금석문에 반영된 경기도 지명 **579**

1) 회천동 檜泉洞 • Hoechendong 579
2) 홍복산 弘福山 • Hongboksan 580
3) 고양시 高陽市 • • Goyang-Si 580
4) 벽제관 碧蹄館 • Byeokjegwan 582
5) 천보산 天寶山 • Cheonbo-san 583
6) 죽산면 竹山面 • Juksan-myeon 583
7) 양지면 陽智面 • Yangji-myeon 584
8) 수락산 水落山 • Suraksan 585
9) 병점동 餠店洞 • Byeongjeom-dong 586
10) 구리 舊里 • Guri 586
11) 경안동 京安洞 • Gyeingandong 587
12) 가산면 加山面 • Gasan-myeon 587
13) 갈현동 葛峴洞 • Galhyeon-dong 588
14) 강화읍 江華邑 • Ganghwa-eup 589
15) 과천동 果川洞 • Gwacheon-dong 589
16) 광탄면 廣灘面 • Gwangtan-myeon 590
17) 검단동 黔丹洞 • Geumdan-dong 591

18) 고삼면 古三面 • Gosam-myeon 592
19) 군자동 君子洞 • Gunja-dong 593
20) 기흥동 器興洞 • Giheung-dong 593
21) 고양동 高陽洞 • Goyang-dong 594
22) 남종면 南終面 • Namjong-myeon 595
23) 내가면 內可面 • Naega-myeon 596
24) 대곶면 大串面 • Daegot-myeon 596
25) 덕진진 德津鎭 • Deokjin-jin 597
26) 모현면 慕賢面 • Mohyeon-myeon 598
27) 문수사 文殊寺 • Munsusa 599
28) 문원동 文原洞 • Munwon-dong 600
29) 백사면 栢沙面 • Baeksa-myeon 600
30) 상면 上面 • Sang-myeon 601
31) 서운면 瑞雲面 • Seoun-myeon 602
32) 서종면 西宗面 • Seojong-myeon 603
33) 선원면 仙源面 • Seonwon-myeon 603
34) 소하동 所下洞 • Soha-dong 604
35) 송탄동 松炭洞 • Songtan-dong 605
36) 와부읍 瓦阜邑 • Wabu-eup 606
37) 수리산 修理山 • Surisan 606
38) 송산동 松山洞 • Songsan-dong 608
39) 시흥시 始興市 • Siheung-si 609
40) 실촌읍 實村邑 • Silchon-eup 610
41) 약산 藥山 • Yaksan 612
42) 양성면 陽城面 • Yangseong-myeon 612
43) 양주동 楊州洞 • Yangju-dong 614
44) 왕곡동 旺谷洞 • Wanggok-dong 614
45) 왕징면 旺澄面 • Wangjing-myeon 615
46) 오포읍 五浦邑 • Opo-eup 616
47) 우저서원 牛渚書院 617
48) 원삼면 遠三面 • Wonsam-myeon 618
49) 원신동 元新洞 • Wonsin-dong 618

50) 용문면 龍門面 • Yongmun-myeon 619
51) 이동면 二東面 • Idong-myeon 620
52) 이의동 二儀洞 • Iui-dong 621
53) 일동면 一東面 • Ildong-myeon 622
54) 적성면 積城面 • Jeokseong-myeon 622
55) 지평면 砥平面 • Jipyung-myeon 623
56) 진위면 振威面 • Jinwi-myeon 624
57) 천보산 天寶山 • Cheonbo-san 625
58) 탄현면 炭縣面 • Tanhyeon-myeon 626
59) 통진읍 通津邑 • Tongjin-eup 627
60) 퇴촌면 退村面 • Toechon-myeon 628
61) 포곡읍 蒲谷邑 • Phogok-eup 629
62) 하남시 河南市 • Hanam-si 630
63) 하성면 霞城面 • Hasung-myeon 631
64) 화도면 華道面 • Hwado-myeon 632

15정 굴절된 경기도 땅이름 635

1. 머리말 635

2.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 개정 636

(1) 개정의 원칙과 '창지개명(創地改名)' 636
(2) 홀대 받는 전래지명 638

3. 일제잔재 지명과 개정례(改正例) 639

(1) 성남시 야탑동 639
(2) 용인시 신갈동 · 구갈동 639
(3) 용인시 처인구 역삼동 640
(4) 양주군 조안면 팔당리 641
(5) 의왕시 청계동 641

(6) 수원시 권선구 평동(坪洞). 자연지명은 벌말 · 평촌 · 평리 642
(7) 아쉬움과 희망 643

4. 잘못 한자화된 지명, 되살려야 할 우리말 644

(1) 사거리 644
(2) 놀이장, 화장장 645
(3) 분기점 648
(4) 일련번호 식 마을이름[洞名] 648
(5) 음용수, 음수(대), 식수대, 마시는 물 649
(6) '00로' 길표지 649

5. 맺음말 – 지자체에 드리는 제언 650

16장 경기 지명 바로알기와 바로잡기 655

1. 일러두기 655

2. 경기지명 바로알기 656

1) 경기와 경기도 656
2) 가평 설악면 656
3) 가평 연인산 657
4) 가평 도마치고개 657
5) 고양 일산 657
6) 고양 행주동 658
7) 고양 대화동 658
8) 과천 남태령 658
9) 광주 남한산성면 658
10) 광주 오전리 오야소 마을과 성남 오야동 659
11) 군포의 유래 659
12) 군포 도마교동 660

13) 김포 풍무동과 아역 660
14) 남양주 퇴계원과 역원 660
15) 남양주 팔당리 661
16) 남양주 마석 661
17) 동두천시 661
18) 성남시 분당 662
19) 성남 달래내고개 662
20) 수원 장안구 663
21) 수원 황구지천 663
22) 시흥 소래산 663
23) 양평 서종면 664
24) 여주와 여강 664
25) 여주 이포나루 664
26) 오산과 매홀 664
27) 용인 김량장동 665
28) 의왕 665
29) 의정부의 유래 665
30) 이천의 지명 유래 665
31) 파주 운정지구 666
32) 파주 금촌 666
33) 파주 금승리 666
34) 파주 공릉천 667
35) 평택과 월경지 667
36) 포천 산정호수 668
37) 화성 동탄신도시 668
38) 화성 융건릉과 화산 668

경기지명 바로잡기 668

1) 가평 유명산 668
2) 가평 대성리 669
3) 가평 소법리 669
4) 고양 구산동 669

5) 고양 향동동 669
6) 과천 주암동 669
7) 광주 경안동 670
8) 광주 쌍령동 670
9) 광주 도웅리 670
10) 광주 이선동 670
11) 광주 검복리 671
12) 광주 원당리 671
13) 구리시 671
14) 군포 산본동 671
15) 김포 고막리 672
16) 김포 시암리 672
17) 남양주시 672
18) 부천시 672
19) 부천 도당동 673
20) 성남 구미동 오리역 673
21) 수원 영화동 673
22) 수원 정자동 674
23) 수원 호매실동 674
24) 수원 파장동 674
25) 수원 구운동 674
26) 수원 신동 675
27) 수원 이의동 675
28) 수원 송죽동 675
29) 시흥시 676
30) 시흥 은행동 676
31) 시흥 과림동 676
32) 시흥 하상동과 하중동 676
33) 시흥 거모동 677
34) 안산 풍도 677
35) 안산 월피동 677
36) 안성 동본동 678

37) 안성 서인동 678
38) 안성 성남동 678
39) 안성 숭인동 678
40) 안성 영동 678
41) 안성 옥천동 678
42) 안성 인지동 679
43) 양주 교현리 679
44) 양평 양수리 679
45) 양평 주읍리 679
46) 양평 오빈리 680
47) 여주 가남면 680
48) 연천 백령리 680
49) 오산 원동 680
50) 오산 은행동 681
51) 오산 두곡동 681
52) 오산 지곶동 681
53) 용인 어정 마을 681
54) 용인 좌항리 682
55) 용인 상하동 682
56) 의왕 고천동 682
57) 의왕 포일동 682
58) 의정부 호원동 683
59) 이천 설성면 683
60) 이천 신추리 683
61) 파주 용미리 683
62) 파주 분수리 684
63) 파주 동파리 684
64) 파주 아동동, 야동동, 목동동, 와동동 684
65) 파주 주월리 684
66) 평택 소사동 684
67) 포천 양문리 685
68) 포천 화현면 685

69) 포천 진목리 685
70) 포천 주엽산 685
71) 하남 망월동 685
72) 하남 덕풍동 686
73) 화성 중동 686

부록 : 경기도 행정지명의 순우리말 땅이름 689

일러두기 689

1) 가평 690
2) 고양 690
3) 과천 691
4) 광명 691
5) 광주 691
6) 구리 692
7) 군포 692
8) 김포 692
9) 남양주 693
10) 동두천 693
11) 부천 694
12) 성남 694
13) 수원 695
14) 시흥 695
15) 안산 696
16) 안성 696
17) 안양 697
18) 양주 698
19) 양평 698
20) 여주 699
21) 연천 700

22) 오산 701
23) 용인 701
24) 의왕 702
25) 의정부 702
26) 이천 702
27) 파주 703
28) 평택 705
29) 포천 706
30) 하남 707
31) 화성 708

세부목차 709

기전역사문화서포터즈 학술총서 2
경기도의 행정구역과 일제잔재

초판 1쇄 발행 : 2020년 12월 20일

발행처 : 열린사회연구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6, 3004호
집 필 : 신종원, 김성태 외
출 판 : 도서출판 비천당

ISBN : ISBN 979-11-956503-4-7 (93910)
〈비매품〉

문의 : kst9796@hanmail.net

- 이 책의 저작권은 열린사회연구소에 있습니다.
- 이 책에 담긴 내용 및 자료에 대해 열린사회연구소의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